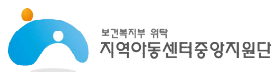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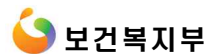


수요자 중심의 지역아동센터 운영방안 연구

책임연구원 : 김 희 진
공동연구원 : 이 혜 연
이 용 교
황 옥 경



제 출 문

지역아동센터중앙지원단 귀하

이 보고서를
「수요자중심의 지역아동센터 운영방안 연구」
용역연구과제의 최종 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11. 12. 26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원장 이 재 연

수요자 중심의 지역아동센터 운영방안 연구

- ▶ 책임연구원 : 김희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부연구위원)
- ▶ 공동연구원 : 이해연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연구위원)
이용교 (광주대학교·교수)
황옥경 (서울신학대학교·교수)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1980년대에 도시빈민가정과 농·산·어촌의 아동들을 대상으로 돌봄과 급식을 제공하는 공부방에서 출발한 지역아동센터는 1997년 외환위기 시 가장의 실직 및 가족 해체 속에서 저소득층 아동에게 돌봄·급식 제공 및 학습지도 등을 지원하여 왔음.
- 그동안 지역아동센터는 지역사회 아동 보호(community care)를 위한 최일선 아동복지시설로서 취약계층 아동들의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예, 심리·정서적 문제, 비행 감소)을 주었으며(강명순 외, 2009), 특히 아동의 지역아동센터 만족도는 아동의 행복감과 자아감, 학업성취와 학교적응 등과 긍정적인 상관관계를 보였음(김현주, 2010; 보건복지부·부스러기사랑나눔회, 2007).
- 2004년도 895개소였던 지역아동센터가 2010년에는 3,585개소로 늘어나는 양적 팽창속에서 엄격한 관리·감독의 부족과, 지역아동센터의 열악한 운영여건으로 인해 서비스 수준에 대한 문제제기와 낮은 사업 효과성 및 지역간, 지역아동센터간 프로그램과 서비스질 격차에 대한 지적이 있어 왔음(강명순 외, 2010; 윤경준 외, 2009; 임정기 외, 2007; 정익중 외, 2009; 한국개발연구원 2009).
- 최근에 수행된 2010년도 전국지역아동센터 평가 결과에 따르면(보건복지부, 2011), 지역아동센터 프로그램(특히, 교육지원과 아동지원 프로그램)의 질이 다른 평가영역(시설 환경, 생활지원 등)에 비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지역아동센터의 프로그램과 서비스 수준에 대한 관심 제고가 필요함을 보여주고 있음.
- 지역아동센터의 2010년 운영주체를 살펴보면, 법인운영이 21%, 종교단체 운영이 17.7%를 차지하는 반면에 개인운영이 55.9%를 차지하고 있어 운영비 확보에 있어 현실적인 어려움 뿐만 아니라 공공성을 담보하기에 한계가 있음(보건복지부, 2011).
- 2010년도 평가에서는 운영주체가 개인이거나 종교단체인 경우, 법인이나 기타 단체일

경우보다 교육지원 프로그램, 놀이 및 특별활동(문화) 프로그램, 아동지원프로그램에서 낮은 평가점수를 보였으며, 시설규모에 따른 프로그램 평가결과에서도 적은 인원수(10인 미만 시설)의 시설이 가장 낮은 프로그램 운영수준을 보였음.

- 따라서 지역아동센터의 서비스와 프로그램 질 개선에 대한 필요성과 더불어 지역아동센터 인력의 전문화와 수요자의 서비스 선택권 보장, 시설의 전문성 확보 및 안정적 운영, 서비스 접근성 등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먼저 아동복지시설로써 일정 시설과 인력조건을 충족하는 시설에서 양질의, 표준화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지역아동센터의 공공성을 확보하고 안정적 기관운영과 재정효율화를 꾀할 수 있는 국공립 지역아동센터 운영모델을 생각해 볼 수 있음.
- 맞벌이 가정의 아동을 포함한 일반가정의 아동은 그동안 지역아동센터의 일차적 관심대상이 아니었으나 이제는 지역아동센터의 예방적·보편적 서비스의 일환으로서, 방과후 돌봄과 보호가 동일하게 필요한 일반가정의 아동들에게도 관심을 갖고 지역아동센터 이용에 있어 단순히 경제적 기준만 적용하기 보다는 아동의 양육환경과 욕구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이 경우 이용료 지불이 가능한 가정에 한해 일정부분 부담할 수 있으며, 이는 정부의 대폭적인 예산지원 없이는 운영이 어려운 지역아동센터가 많은 현실을 고려할 때 지역아동센터의 안정적 운영과 프로그램과 서비스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음.
- 결국 제한된 예산을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도록 효율적으로 사용할 필요성에 함께, 시설에 대한 직접지원이 아닌 수요자의 선택권을 보장하면서 예산사용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꾀할 수 있는 바우처 제도와 같은 새로운 지원방식을 고려해 볼 수 있음.
- 이를 위하여 본 연구는 지역아동센터의 향후 발전을 위한 다양한 방향성을 모색하고자 하며, 구체적으로는 질적 수준이 담보되고 균등한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국·공립 지역아동센터의 운영모델을 개발하고, 또 일반 아동의 이용확대와 이에 따른 이용료의 수요자부담 모델 및 바우처 제도 도입 등에 대해 연구하고자 함. 이러한 수요자 중심의 지역아동센터의 서비스 발전방향을 기초로 지역아동센터가 저소득·취약계층을 포함한 지역사회 내 아동·청소년들이 향후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지원하는 지역사회내 최일선의 아동복지시설이 될 수 있도록 기여하고자 함.

2. 연구내용

- 1) 국·공립 지역아동센터 모델 연구
 - 국·공립 지역아동센터의 운영실태 연구
 - 국·공립 직영·위탁 지역아동센터의 표준모델 연구
- 2) 수요자부담방식의 지역아동센터 도입방안 연구
 - 유사 방과후 돌봄서비스 운영실태 비교
 - 이용료의 수요자 부담 지역아동센터 도입방안 연구
- 3) 지역아동센터의 바우처 제도 도입 가능성 검토
 - 국내·외 유사 방과후 돌봄 서비스의 바우처 제도 사례 연구
 - 지역아동센터의 바우처 도입 방안 모색

3. 연구방법

- 1) 문헌연구 : 국내외 사례조사
 - 국내·외 유사 국·공립시설 사례고찰
 - 유사 방과후 돌봄서비스(수요자부담방식) 운영실태 비교
 - 국내·외 유사 서비스의 바우처 제도 사례 연구
- 2) 조사연구
 - ① 지역아동센터 기관 방문 및 시설장 심층면접
 - 국·공립 및 민간지역아동센터 운영사례 조사
 - 국·공립 직영·위탁 지역아동센터의 확대 및 기능과 역할, 지역아동센터 이용에 있어서의 수요자부담방식 및 바우처 제도에 대한 인식 등에 대한 심층인터뷰
 - ② 학부모 초점집단인터뷰(FGI: Focus Group Interview)
 - 현재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학부모를 대상으로 3개 지역에서 실시
 - 국·공립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인식, 일반가정 아동·청소년(예, 맞벌이 가정)의 지역아동센터

이용에 대한 의견과 이에 따른 수요자부담 및 바우처 제도에 대한 인식 조사

③ 지역아동센터장 설문조사

○ 전국의 지역아동센터장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실시

○ 설문조사 내용

- 국·공립센터의 필요성·선호도, 도입가능성, 도입방식 등에 대한 인식
- 지역아동센터이용료의 수요자부담방식에 대한 인식, 수요자부담 방안에 대한 의견
- 지역아동센터의 바우처 제도 도입 가능성에 대한 인식 및 의견

⑤ 일반 학부모 전화조사

○ 초등학생과 중학생 자녀가 있는 학부모 529명 전화조사(맞벌이가정 포함)

○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인식 및 이용료의 수요자부담 여부, 국공립 지역아동센터 선호도, 바우처 제도에 대한 인식 등 조사

3) 전문가 의견조사 및 자문

① 전문가 의견조사

- 아동·청소년복지 관련 학계, 정책 전문가 및 현장 전문가 의견조사 실시
- 지역아동센터의 국공립 직영·위탁 운영에 대한 의견, 지역아동센터 이용대상 확대와 수요자부담 및 바우처 제도 도입에 대한 의견 조사
- ② 지역아동센터 협의회 및 단체장 간담회 실시

II. 국·공립 지역아동센터 연구

1. 연구요약 및 제언

1) 국내외 사례

- ① 국내사례 : 국·공립보육시설은 대표적인 공공보육 시설로서 중앙 및 지방 정부가 설치주체이며 정부로부터 인건비를 지원받고 있다는 점에서 현재 민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는 지역아동센터의 국·공립지역아동센터의 표준모델을 개발하는데 있어 큰 시사점을 줄 수 있음. 관련 지침 및 연구 내용 중 국·공립보육시설 현황 및 기능, 국·공립 보육시설 설립, 시설의 위탁운영

(위탁제 선정관리 권장표준안), 보육료, 보육시설종사자 자격 및 보수 기준, 보육시설의 설치기준, 국·공립보육시설의 우선설치지역 선정방안 등을 정리하여 국·공립지역아동센터 표준모델 개발에 참고하였음.

- ② 국외사례 : 일본 아동관의 법적 지위와 역사, 아동관의 주요사업, 아동관의 지역자녀양육거점사업, 아동관의 시설과 설비 기준, 아동관의 인력 및 재원 등에 대한 사례조사를 통해 국·공립지역아동센터 표준모델 개발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함.

2) 조사결과

- ① 국·공립 지역아동센터의 운영실태 사례연구 : 사례조사를 실시한 6개의 국·공립지역아동센터는 3개의 유형, 즉 지자체로부터 전액 지원·운영되고 있는 ‘시립형(100% 지자체 지원) 모델’, 지자체로부터 건물만을 무상 지원받고 있는 ‘인프라지원 모델’, 지자체로부터 건물 무상지원뿐만 아니라 정부의 민간지역아동센터 월지원금 이상의 지원을 받고 있는 ‘인프라+부분 운영비지원 모델’로 분류하여 검토하였음.
- ② 지역아동센터장 심층면접 및 지역아동센터 이용 학부모 FGI 결과
- 국·공립시설을 찬성하는 시설장들은 국·공립시설이 설립되면 더욱 책임감 있게 운영되고(예 산의 투명 집행 등), 지역의 모델이 됨으로써 민간지역아동센터의 수준을 끌어올릴 수 있을 것으로 봄. 반대로 국·공립시설과 민간시설에 대한 정부의 지원차이로 인해 위화감이 조성될 것이라는 우려도 있었음.
- 국·공립시설의 확대규모에 대해 ‘적어도 10%’, ‘지속적인 확대’, ‘읍·면 혹은 구단위로 최소 하나씩’ 등의 의견들을 제시하였으며, 기존의 거점형 시설을 국·공립으로 전환할 시에는 거점형시설의 선정기준을 재정비하여 실질적으로 역량 있는 지역아동센터를 선정하여야 함을 피력하였음.
- 국·공립시설의 확대설치를 위해서는 예산 및 전문인력 확충과 직원처우의 현실화, 지역사회 네트워크의 중심기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인적·물적(시설 및 주변환경) 인프라 구축, 행정체계의 간소화 등이 필요하다고 보았으며, 직영보다는 위탁형태가 바람직하며 방과후 활동 및 교육인프라가 부족한 농어촌지역이나 도시 빈곤층 밀집지역에 우선 설치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음
- 국·공립시설의 핵심기능으로는 시범프로그램 운영, 종사자연수, 지역사회 내 센터 간 연계협력, 타 민간지역아동센터 관리 및 감독, 주말이나 공휴일 센터운영 등을 제시하였고,

지역아동센터가 사회복지시설임을 감안하여 일반적인 사회복지사 급여 수준이 적정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 학부모 FGI 결과, 대부분의 학부모들은 현재 민간이 운영하는 지역아동센터의 서비스에 대해 대체로 만족하고 있었으나, 만일 국가가 좀 더 많은 지원을 하고 적극적으로 개입한다면 민간시설에 비해 국·공립시설을 좀 더 신뢰할 수 있을 것이라는 반응을 보였음. 국·공립시설은 민간시설에서 부족한 인력을 충원하는 등 열악한 여건을 보완함으로써 아동들에게 보다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이유로 찬성하였음.
- ③ 전문가 의견조사 결과
- 아동·청소년복지관련 학계와 정책 및 현장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국·공립 지역아동센터의 확대설치에 대해 조사한 결과 3/4의 전문가들이 찬성하였고, 국공립시설 우선 설치지역으로 '도시의 저소득층 밀집 거주하는 지역'과 '농어촌 지역으로 돌봄 서비스가 부족한 지역'을 다수가 지적하였음.
- 국·공립 시설의 핵심기능으로 '지역아동센터의 시범 프로그램 및 서비스 운영', '다문화 청소년, 장애아동 전용센터 등 특화서비스 제공', '타 지역아동센터와의 연계협력사업', '주말, 공휴일, 야간시간 운영'순으로 응답이 많았고, 전문가들도 직영보다는 위탁 운영하는 방식을 더 바람직하게 보고 있었음.
- 시설이용아동의 적정인원은 '20-29명 이하', 직원 1명당 적정 아동 수는 '10명'이라고 응답한 전문가가 많았고, 시설장·생활복지사의 자격요건으로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 소지, 그리고 인건비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수준이어야 한다는 응답이 많았음.
- 국·공립시설이 갖추어야 할 환경이나 설비로는 남녀구분화장실, 도서관, 놀이터(운동장), 분리된 식당, 다른 센터 종사자들을 교육할 수 있는 교육실, 165.289㎡(50평) 이상의 규모, 4명 이상의 고용환경, 영유아보육법에 명시되어 있는 시설설치기준 충족, 상담·치료·예체능활동 위한 시설 및 설비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제시
- 국·공립시설로 전환 가능한 민간시설의 자격·선발기준으로는 일정규모 이상의 사회복지법인으로서 다년간 사회복지시설을 위탁·운영한 경험이 있는 운영체, 지역사회 네트워크 관련 사업 경험단체, 지자체 점검 시 결격사유 없는 기관 등으로 보았고, 또한 일정 규모 이상의 공간, 이용 아동수 50명 이상, 일정기간 이상의 운영 경험, 평가점수 상위 일정비율(%) 이내, 프로그램 운영 실적, 재정현황, 지역사회의 평가 등을 중요하게 여겨야 한다고 보았음.

④ 지역아동센터장 설문조사 결과

- 국·공립지역아동센터의 확대·설치의 필요성에 대해, 본 조사에 응답한 시설장의 56.5%가 찬성하였고, 다수가 '도시의 저소득층 밀집 거주지역'과 '농어촌 지역으로 현재 지역아동센터가 없는 지역'을 국공립시설 우선 설치지역으로 응답함.
- 시범사업 첫째 규모에 대해서 '도시형과 농촌형 30여 개소, '시·군·구 300여 개소'의 응답률이 가장 높았고, 향후(2017년 경)'전체 지역아동센터의 30% 이상'이 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약 65%로 나타남.
- 국·공립시설 운영방식에 대해 시설장들도 전문가들과 마찬가지로 직영보다 위탁운영방식을 더 선호하였고, 국공립시설의 기능으로 '지역아동센터의 시범프로그램 운영', '타 지역아동센터와의 연계협력 사업', '주말이나 공휴일, 심야에 센터운영', '타 센터에 대한 사례관리 지원 및 수퍼비전'등에 대한 응답이 높았음.
- 조사에 응한 시설장들은 직원 한명 당 적정 아동수는 '10명', 시설의 적정 규모로는 '20-29명'이나 '30-39명'으로 생각하고 비율이 높았고, 일반아동의 국공립시설 이용에 대해서는 76.4%의 시설장들이 찬성하였음.
- 시설장과 생활복지사 자격요건으로 사회복지사 2급'에 대한 응답이 높아 전문가의견조사결과(사회복지사 1급)와 차이가 있음. 적정급여수준으로는 사회복지시설수준과 국·공립보육시설수준에 대한 응답이 높게 나타남.
- 민간위탁 시 주요 선정기준은 센터운영경험, 기관신뢰도, 기관장신뢰도, 아동복지사업활동 경험, 사업계획서수준, 사회복지사업수행경험 등의 순으로 나타났고, 기존 시설의 국·공립시설 전환을 위한 기준은 사회적 평판이 좋은 센터, 최우수평가를 받은 센터, 기관장에 대한 사회적 평판이 좋은 센터 등으로 높은 응답이 나타남.
- ⑤ 제언
- 국·공립시설은 방과후 보호·교육이 필요한 일부 특수계층 아동을 위한 곳이 아닌 모든 아동이 보편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 대상자에 대한 장벽을 없애야 함.
- 국·공립시설은 무엇보다도 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지역아동센터 본연의 기능과 역할을 가장 잘 구현할 수 있어야 하며, 더 나아가 종합적인 아동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함. 또한 기존의 지역아동센터의 기능을 보완하고 지역사회 내의 민간지역 아동센터들에게 역할모델로서의 모범을 보임으로써, 지역아동센터의 리더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함(예, 주 5일제를 대비한 주말보호와 야간보호, 장애아동·청소년을 위한 사업,

송영서비스, 민간지역아동센터의 종사자들을 위한 교육학습지도 연찬회, 주말과 방학기간 동안의 연합캠프활동 등)

- 국·공립지역아동센터의 시설과 설비, 인력, 핵심기능, 재원분담에 대한 표준화를 통해서 지역아동센터의 공공성을 높여야 하며, 특히 인건비 등에 대해서는 타 아동복지시설이나 사회복지기관 종사자에 준하는 기준을 마련해야 함.
- 이용아동 확대 시 이용료 부담을 사회적으로 공평하게 해야 할 필요가 있음. 지역아동센터의 표준 이용료를 정하고, 사회통념에 비춰보아 영유아보육시설에 대한 지원에 준하는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더불어, 국공립지역아동센터의 민간시설과의 협력모델 등 함께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함.

2. 국·공립지역아동센터의 표준모델(안)

- 국·공립지역아동센터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영하는 지역아동센터(가형)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고 사회복지법인 등 민간에 운영을 위탁한 지역아동센터(나형)로 세분할 수 있음.

1) 대상자 기준

- 국·공립시설은 원칙적으로 6세~18세의 모든 아동·청소년을 잠재적 이용대상으로 하며, 일반아동의 등록을 허용할 경우 해당 지역의 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사회적 돌봄이 절실한 아동의 이용을 우선 보장하여야 함.

2) 사업(프로그램) 기준

- ① 지역사회 아동의 보호 : 지역아동센터의 기본 기능(돌봄, 급식과 간식의 제공, 기초생활습관 지도, 고충상담과 정보 제공, 귀가지도 등)을 충실히 하며, 더불어 국·공립시설을 중심으로 장애아동돌봄, 평일 야간돌봄, 주말돌봄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네트워크 형성
- ② 지역사회 아동의 교육 : 지역아동센터의 효과적인 교육기능(기초학습 지도, 숙제지도, 심화학습 지도, 특기 적성 지도 등)을 위해 민간시설장·생활복지사·아동복지교사를 위한 학습지도 연찬회 개최로 학습지도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지원함.
- ③ 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 : 놀이지도, 체험학습 기회제공, 생일잔치 등의 지원, 동아리활동

지도, 캠프 등 절기별 특별활동 지원, 아동자치활동 지원뿐 아니라 아동의 욕구 및 발달과정에 적합한 놀이를 제공하기 위해 보다 전문적인 역량(청소년지도사, 레크레이션지도사 등)과 센터간 협력 필요

- ④ 보호자와 지역사회의 연계 : 부모상담, 부모교육, 부모자조모임 지원, 지역사회 자원개발, 센터 운영위원회 구성과 운영, 타 지역아동센터, 학교, 사회복지관, NGO 등과 연계. 특히 복합적인 도움이 필요한 아동과 가족을 대상으로 사례관리를 실시하고, 사례회의를 통해서 집중적인 서비스 제공

3) 시설기준

- 국·공립지역아동센터를 설치할 때에는 그 역할과 기능에 부합하도록 시설기준을 새롭게 정립할 필요가 있음. 기존 아동복지법 시행령의 시설기준을 일반적으로 준용하면서도 지역아동센터는 ‘거실’대신 ‘학습실’의 개념 도입. 그 외 사무실(상담실 겸용), 조리실, 화장실(남녀화장실), 집단활동실(오락실, 도서실, 놀이실 겸용) 등과 복도, 계단 등 공유 활동공간을 고려할 198제곱 미터 이상의 공간 필요

표: 요약-1 지역아동센터의 시설기준(안)

	학습실	사무실	상담실	조리실	목욕실	화장실	강당·오락실	도서실	놀이터
10인 미만	33㎡	1		1		1	권장		
10-20인 미만	66㎡	1		1		2	권장		
20-30인 미만	99㎡	1		1		2	33㎡		
30-40인 미만	132㎡	1	1	1	1	2	66㎡	1	권장
40-50인 미만	165㎡	1	1	1	1	2	66㎡	1	권장
50인 이상	1인당3.3㎡이상	1	1	1	1	2	99㎡	1	165㎡

* 급배수시설, 비상재해대피시설은 필수

4) 설치기준

- 국·공립지역아동센터를 설치하고자 할 때 모든 시설을 신규로 건립할 필요는 없으며, 초등학교의 빈 공간을 활용하거나 이용아동수가 감소한 영유아보육시설, 청소년수련관등을 ‘지역아동센터’로 전환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음.
- 국·공립시설은 이용 대상자의 수가 많은 도시 빈민 지역에 최우선적으로 설치하고, 18세

미만 전체 아동 중에서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비율이 5%이상인 동·읍 지역에 우선 설치함.
전국에 고른 배치를 위하여 첫 3년간은 230여개 시·군·구에 1개소 이상씩 시범적으로
설치하고, 이용 아동인구수가 많고 다른 지역아동센터가 없는 곳에 우선 배치함.

5) 인력기준

- 국·공립지역아동센터의 시설장은 아동복지법상 다른 아동복지시설의 시설장의 자격 기준을
갖춘 자로 타 지역아동센터에서 5년 이상 시설장으로 일한 경력이 있거나 동등 이상의
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생활복지사는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갖추고 생활복지사 등으로
3년 이상 경력을 갖춘 자로 함.
- 아동복지교사는 사회복지사, 생활복지사로 일한 경력이 있거나, 아동복지교사로 3년
이상 경력을 갖춘 자로 하되, 시설에서 직접 채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조리원은 아동
정원이 50명 이상인 센터에서 영양사 자격을 갖춘 사람을 임용하도록 함.
- 인력의 배치기준은 모든 센터에 반드시 1명의 센터장, 1명 이상의 생활복지사를 배치하고,
아동의 수가 10명을 넘을 경우에는 10명당 생활복지사(상근 아동복지교사를 포함하여)
1명을 추가로 배치함.

6) 소요예산(적정 운영비)

- ① 인건비 기준 : 직영 시 국·공립시설 종사자는 원칙적으로 국가·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직
공무원의 보수, 근로조건, 복지수준에 따르며, 민간위탁 시에는 사회복지관의 직원 급여표를
기준으로 함. 예를 들어, 시설장을 사회복지관의 과장급으로 볼 때, 과장 11호봉의 연봉은
34,446,300원, 선임 사회복지사 6호봉의 연봉은 27,924,200원이며, 사회복지사 1호봉의
연봉은 21,975,700원으로 산출하면, 20~30인 미만 시설의 연간 인건비는 약 98백만원임(<표:
요약-2>참조)
- ② 운영비 기준 : 현재 보건복지부의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침(인건비, 시설운영비의 합계는 기본운영
비의 80% 초과불가, 프로그램비는 기본운영비의 20% 이상 지출 등)에 따라 마련한 국공립시설의
표준운영비(안)은 <표: 요약-2>와 같음.
- 아래의 표와 같이 상근종사자 3인을 기준으로 월별 운영비를 산정할 경우, 약 천백만원정도가
소요되며(인건비는 약 8백여만원), 상근종사자를 2인으로 한 최소 운영비는 <표: 요약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약 8백8십만원으로 추산됨.

표: 요약-2 위탁 지역아동센터 연간 운영비 기준안
(종사자 3인/ 이용아동수 20~29인 이용 기준) (단위: 원)

예산과목	산출항목	예산액
인건비	3인 상근종사자 급여 및 제수당((사회복지관 종사자 수준), 법정복리 비(4대보험), 퇴직적립금	98,389,842
업무추진비	기관운영비, 직책보조비	480,000
운영비	출장비, 수용비 및 수수료, 공공요금(통신비, 전기요금 등), 제세공과 금(보험료 등), 차량운영비	7,690,000
사업운영비	급식비, 프로그램(학습, 놀이, 지역연계, 부모교육/상담 등) 진행비, 교재교구 구입비, 절기별 특별행사(여름캠프, 발표회 등), 기타사업비	50,640,000
시설비	시설비, 자산 취득비, 시설장비 유지비	3,500,000
예비비	예비비	500,000
계		161,199,842

※ 자세한 산출내역은 p. 1738 참조/ 급식비 별도계산 시 132,399,842원을 연간 운영비로 볼 수 있음.

표: 요약-3 위탁 지역아동센터 월 평균 운영비 (이용아동수 20~29인 기준/급식비 제외) (단위:원)

예산과목	소요예산*		내역
	상근종사자 2인 기준	상근종사자 3인 기준	
인건비	6,062,932	8,199,150	인건비, 사회보험, 퇴직적립금, 수당
업무추진비	40,000	40,000	회의비
운영비	640,830	640,830	여비, 수용비 및 수수료,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사업운영비	1,820,000	1,820,000	프로그램 진행비, 교재교구 구입비
시설비	291,670	291,670	시설보수비, 시설장비 유지비
예비비	41,670	41,670	예비비
예산총계	8,855,434	10,991,653	-

※ 인건비외의 사업비 등 다른 예산항목은 상근종사자 1인 변화에 따라 크게 변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으로 상근종사자 3인
기준 시 사업비 예산 등을 그대로 적용함.

- <표: 요약-2>에서 추계된 직영 운영비를 기준으로 전체 지역아동센터의 10% 가량을
국·공립으로 할 경우 소요 예산을 보면, 민간위탁 시 센터 당 연간 161,200천원이 소요된다고
가정할 때 현 시설의 10%인 380개소를 국·공립으로 전환한다면 613.5억원(별도로
지급되는 급식비를 전체 예산에서 센터 당 28,800천원씩 제외시킬 경우에는 503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측됨. 만약 전국의 230여개 시·군·구에 국·공립시설을 설치할 경우에는
상근종사자 2인 기준일 때, 연간 대략 400억원 이상이 소요된다고 볼 수 있음.

7) 운영방법(직영과 위탁운영)

- 국·공립 지역아동센터는 설립 초기 최소 3년간은 직영을 권장하며, 위탁을 전제로 직영을 할 경우에는 향후 고용 승계를 조건으로 직원을 채용하는 것이 바람직함.
- 국·공립 지역아동센터를 위탁할 경우에는 아동복지사업에 경험이 있는 사회복지법인, 학교법인 등에게 위탁하여야 하며, 위탁체 선정관리표준안에는 적용대상, 선정 시기, 선정방법 및 결과공개, 위탁기간, 운영체, 운영조건 등이 포함되어야 함.

8) 법적·제도적 개선방안

- 아동복지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지역아동센터의 설치와 운영 기준(시설과 설비, 인력기준, 인력배치기준) 등을 명시하고,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11조의 별표에 지역아동센터에 관한 조항을 별도로 넣는 방법도 고려해 볼 수 있음.
- 매년 지역아동센터사업안내 발간을 통해 국공립 및 민간시설 운영을 위한 세부 지침을 제시하고, 모든 시설이 적정 예산을 확보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국비의 배정 및 시·도비 등의 확보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필요가 있음.

III. 수요자부담방식의 지역아동센터 연구

1) 연구요약 및 제언

(1) 국내 사례

- 유사방과후서비스로서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은 수요자(학생, 학부모)의 관심과 흥미, 욕구에 맞도록 특성화된 프로그램 운영을 표방하고 있으며, 원칙적으로 비용은 이용자가 부담하지만 저소득층을 포함한 소외계층에게는 자유수강권 같은 일종의 바우처를 지원함. 한달 평균 초·중학생은 약 56,000원~58,000원을 부담하고 있으며, 참여하는 학생의 약 67%는 전액부담, 약 25%는 전액무료로 방과후학교를 이용하고 있음.
- 맞벌이가정 및 한부모 가정의 초등학생 보육 수요를 위한 초등학교 보육 사업의 경우 전체 초등학생의 3.2%정도가 참여(2010년 기준)하고 있으며, 이용료는 월 평균 33,524원으로 참여 학생의 65.2%가 무료로 참여하고 있음.

- 특히 2011년 상반기부터 “엄마품 온종일 돌봄교실”이란 명칭으로 저소득층 학생에게 보다 초점을 맞춘 종일 돌봄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데, 수강료는 지자체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특화된 체험활동 프로그램 등은 이용자부담이 요구될 경우만 학생들이 비용을 부담하고 저소득층 자녀는 무료로 이용하고 있음.
- 미취학아동을 위한 보육시설의 경우 2011년 현재 취학전 만5세 아동의 보육료는 177,000원이며, 보육료 지원은 2011년부터 가구소득하위 70%이하로 통일되어, 가구소득상위 30%만이 이용료를 부담하고 있음(2012년부터는 월 200,000만원이 지원되며, 0세~2세와 만5세 아동에 대해서 소득 및 재산조사 없이 전체아동에게 보육료를 지원하는 것으로 변경예정).
- 2011년 현재 161개소로 운영 중인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는 방과후 시간에 청소년들을 보호·감독하며 다양하고 특성화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음. 당초 맞벌이 가정의 자녀를 대상으로 수요자부담으로 운영되고 있는 일반형의 경우 5개소에서 현재는 1개소로 줄어든 상태이며, 이를 제외한 모든 방과후아카데미에서 기초생활수급대상, 차상위계층 등 가정형편이 어려운 청소년은 무료 이용하고 있음.

(2) 조사결과

- ① 지역아동센터장 심층면접 및 학부모 FGI 결과
- 시설장들은 현재 센터를 이용하고 있는 저소득층 아동들의 경우 실비수준의 이용료 부담도 어려운 상황이지만 일반아동의 경우에는 이용료부담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신중하게 제시하였으며, 이를 통한 지역아동센터 이용에 대한 낙인감 해소와 센터의 재정자립에 대한 긍정적인 견해를 보였음.
- 한편으로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반대와, 또 수요자부담방식은 현재 민간 사회복지단체에서의 지원(예, 아동복지교사 파견)에 있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의견도 있었으며, 지역아동센터의 무료이용에 대한 인식이 퍼져있어 시설 이용에 따른 이용료 징수가 쉽지 않으며, 지역사회의 낙인으로 일반아동의 적극적인 이용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하였음.
- 일부에서는 개별 프로그램이나 서비스의 경우 수요자부담방식이 가능하다는 의견도 있었으나, 프로그램 이용 아동간 위화감의 문제로 불가능 하다는 반대의견도 제시되었으며, 주말이나 심야시간 등의 특수상황에서의 시설이용료부담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의견이

대부분이었음.

- 학부모초점집단면접에서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아동의 학부모들은 일반가정아이들과 함께 센터를 이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 필요성을 인정하지만, 동시에 낙인과 위화감 조성에 대한 우려가 많았음. 반대로 일반아동이용에 따른 지역아동센터의 낙인감 해소에 대한 기대를 표현하기도 하였음.

② 전문가의견조사 결과

- 아동·청소년복지관련 전문가들에게 지역아동센터의 일반아동이용확대에 대해 조사한 결과, 찬성의견이 많았으며 그 이유로는 취약계층아동과 일반아동의 통합 돌봄의 필요성과 이를 통한 지역아동센터의 낙인감 해소, 또 일반 맞벌이 가정의 돌봄 욕구 충족 등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였음.
- 그러나 이용료 부담 여부에 따른 일반아동과 저소득층 아동간 차별이나 위화감이 있을 수 있으며 또 일부 센터의 경우 일반아동의 이용료를 목적으로 저소득층 아동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으므로 일반아동의 센터 이용 비율은 대략 30%~40%로 제한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음.
- 일반아동의 이용료 부담에 대한 찬성의견은 반대의견보다 약간 높은 수준이었는데, 적정 이용료는 월 6만원~10만원 선이어야 한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음. 이용료 부담을 반대하는 이유는 지역아동센터의 사교육기관화와 이용료 납부유무에 따른 교사나 센터에서 아동 차별대우 등을 우려하였음.
- 전문가들이 이용료부담이 가능하다고 보는 가구평균소득 기준 비율은 현 보육시설 수준인 가구평균소득액의 상위 30%로 보는 의견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남.
- 일반 맞벌이가정의 아동과 저소득층 아동이 각각 다른 운영방식의 시설을 이용하기 보다는 함께 센터를 이용하는 ‘통합형센터’(가칭)에 대한 선호가 많았으며, 지역아동센터의 시설·설비와 같은 인프라는 정부에서 지원하고, 운영비·사업비는 수요자부담으로 운영하는 재정혼합형(매칭펀드운영방식)이나, 개인자산 활용 및 기업재단후원, 혹은 비영리·영리단체 등을 통한 순수 민간자율형 지역아동센터에 대해서는 다수의 전문가들이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었음.

③ 지역아동센터장 설문조사 결과

- 본 조사에 응답한 시설장들의 많은 수가 일반가정 아동의 지역아동센터 이용 확대와 이용료 부담에 대해 앞서 시설장 면접조사나 전문가의견조사결과와는 달리 비교적 높은

비율로 찬성의견을 보였음.

- 일반아동의 이용료는 조사대상 과반수가 3만원~5만원을 적정이용료로 보고 있었으며, 그 다음으로 ‘6만원~10만원’ 응답이 높게 나타남. 시설장들의 약 67%는 일반아동대상의 이용료 수납은 지자체나 시설장의 자율이 아닌 일괄적용이 필요하다고 보았고, 일반아동의 센터이용비율에 대해서는 전문가의견조사에서와 같이 30%가 가장 높게 나타남. 이용료부담을 위한 가구소득 기준은 2011년 현재 보육시설이용과 유사한 가구평균소득액의 상위 30%와 50%가 가장 높았음.
 - 정부지원과 수요자가 부담하는 방식이 혼합된(매칭펀드방식의) 지역아동센터에 대해서는 과반수 정도의 응답자가, 그리고 정부의 지원이 없는 순수민간 자율형 시설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30%의 응답자가 긍정적인 의견을 보임. 높은 비율의 부정적인 응답에 대한 이유로 저소득·취약계층 아동이 주로 이용하는 시설과 일반 아동위주의 순수 민간형 시설로의 이원화, 그리고 정부의 관리 감독의 어려움 및 지역아동센터의 사교육시장화를 꼽았음.
 - 지역아동센터의 수요자부담방식의 필요한 선결조건으로서, ‘지역아동센터 프로그램 및 서비스 질 향상’과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낙인감 개선 및 인식개선’이 가장 높은 응답율을 보였고, ‘지역아동센터 직원의 전문성 및 강사수준 향상’, ‘일반아동과 저소득·취약계층 아동 간 낙인감과 위화감 근절 방안 강구’등의 순으로 응답률이 높게 나타남.
 - 일반아동의 시설이용과 이용료의 수요자부담에 따른 결과로서 시설장들은 ‘돌봄 욕구 해소와 이를 통한 예방적 복지 가능’, ‘서로에 대한 이해 및 사회성 발달에 도움’, ‘프로그램과 서비스 질 제고에 기여’, ‘낙인감 감소 및 인식개선’, ‘아동의 책임증가 및 부모의 관심증가’, ‘센터의 책임성 강화에 기여’순으로 높은 응답률을 보였음. 지역아동센터의 수익사업화나 아동간 차별이나 위화감 우려 등 부정적인 측면들에 대한 응답이 상대적으로는 낮았으나 70%에 달하는 높은 응답률을 볼 때 이에 대한 보완책이 필요함을 보여줌.
- ## ④ 일반학부모 전화조사 결과
- 519여명의 일반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전화조사에서 방과후학교나 지역아동센터등의 방과후 돌봄서비스를 이용한다는 응답은 13%에 불과했는데, 특히 한부모 가정의 자녀는 방과후에 보호자 없이 집에 있는 비율이 양부모가정의 자녀의 경우보다 3배 이상 높았으며, 경제수준이 낮을수록 학원이나 과외보다는 방과후돌봄서비스를 이용한다는 응답이 높았음.

-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학부모의 인지도는 과반수 정도였으며, 약 60%의 학부모가 지역아동센터에 자녀를 보낼 의향이 있다고 응답하였는데, 특히 자녀의 학년이 낮을수록, 또 부모학력과 경제수준이 낮을수록 지역아동센터에 자녀를 보낼 의향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지역아동센터 선택 시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는 '프로그램과 서비스의 질적수준'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가장 중요한 지역아동센터의 서비스는 '방과후 시간동안의 안전한 보호'라는 응답이 가장 많음.
- 민간 지역아동센터보다는 국·공립지역아동센터에 대한 선호도가 매우 높게 나타났으며, 이용료 부담에 대해서는 '수업재료비·교통비수준'과 5만원 미만의 이용료를 부담하겠다는 응답이 70%가 넘게 나타나, 상대적으로 매우 낮은 수준이었음. 또한 '지역아동센터가 어떤 곳인지 알지 못해서' 지역아동센터에 자녀를 보낼 의향이 없다는 응답은 34.2% 나타남.
- ⑤ 제언
 - 조사결과 일반아동과 저소득층 아동이 함께 센터를 이용하는 '통합형센터'(가칭)에 대한 선호가 많았고, 또 지역아동센터의 낙인문제를 해결을 위해서는 가정의 경제수준에 상관없이 모든 아동이 함께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방안에 대해 우선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이용료 부담에 따른 지역아동센터 내 차별에 대한 우려가 많으므로, 시설 내 종사자들의 태도와 또 이용료 징수 방식 등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며, 조사결과 일반아동의 적정이용비율에 대한 의견이 30~40%정도로 나타나고 있어 일반아동의 이용비율을 확대하는 것에 대해서도 신중하여야 함.
 - 일반아동에게까지 지역아동센터이용을 적극적으로 확대하고자 한다면, 그동안 일반아동의 시설이용에 어려움이 있었던, 이용 아동수의 제한,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의 반대, 그리고 일반아동 이용과 이용자의 수요자부담 시 민간 사회복지단체에서의 지원에 있어 불이익(프로그램 운영비 지원에서 배제)등을 고려하여야 함.
 - 현재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침 상 일반아동을 대상으로 징수할 수 있는 월5만원의 이용료를 보다 현실화할 필요가 있으나, 전문가의견조사와 시설 면접조사, 그리고 일반학부모 조사 결과에서는 이용료부담액이 10만원선을 넘지 않는 것을 볼 때, 이용료가 지역아동센터의 문턱을 높이는 결과가 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함. 또한 보육시설 이용료 부담기준 등을 참고하여, 이용료 부담 가정이 크게 부담을 갖지 않도록 가구소득기준을 정할 필요가 있음.

- 시설·설비와 같은 기본적인 인프라는 정부에서 지원하고 운영비와 사업비 등은 수요자부담 방식으로 운영하는 재정혼합형(매칭펀드 운영방식)이나, 또 정부지원이 전혀 없는 순수 민간 자율형 지역아동센터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시설장 및 전문가들이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어 보다 신중하게 접근하여야 함.
- 지역아동센터가 수요자부담방식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이에 맞는 물리적 공간과 전문적 인력, 서비스 수준이 확보되어야 하며, 이를 효과적으로 점검·관리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함. 또한 지역아동센터의 이미지와 인식개선 방안이 필요함.

2) '수요자부담방식의 지역아동센터 운영방안' 요약

(1) 재정혼합형(가칭) 지역아동센터

- 재정혼합형 지역아동센터는 공적자본의 지역아동센터 지원과 서비스이용아동이 일정비용을 지불하는 방식이 혼합된 형태로, 일반가정의 아동에게는 일정액의 서비스 이용료를 징수하도록 하는 것임. 재정혼합형 지역아동센터 이용아동은 현행과 동일하게 지역사회 내 돌봄을 필요로 하는 18세미만의 일반가정과 저소득·취약계층의 아동·청소년이 함께 이용하도록 함.
- 2011년 기준 보육료 무상지원의 범위와 동일하게 차상위계층 아동과 기초생활수급 대상 아동 등을 포함한 가구소득평균 하위 70% 이하 가구의 아동이 무상으로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고 그 이외 아동은 서비스 이용료를 지불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으며, 수요자부담 방식으로 운영될 경우 취약계층 아동수의 감소 혹은 이용기회의 제한 등이 우려되고 있는 바, 가구소득 상위 30%이상 일반가정 아동의 비율이 전체 지역아동센터 이용아동 비율이 30%~40%를 초과하는 것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함.

①'기본형 지역아동센터'(가칭) 운영비와 이용료

- 재정혼합형 시설의 운영예산·이용료와 관련해서는 프로그램과 서비스의 내용에 따라 '기본형 지역아동센터'와 '종합형 지역아동센터'로 나눌 수 있으며, 이들 시설의 운영비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인건비는 궁극적으로 국·공립지역아동센터에서와 같이 사회복지관 종사자 기준과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함.
- 그러나 인건비의 상승은 곧 전체 운영비와 이에 따른 일반 아동이 부담해야 할 이용료의

상승을 가져오기 때문에 수요자부담방식으로 운영되는 시설의 도입단계에서는 임금수준이 상대적으로 조금 낮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인건비수준을 생각해볼 수 있음.

- 기본형 지역아동센터는 제한된 인력과 조건에서 방과후 보호기능과 급식제공 및 학습지도 등 지역아동센터의 주요 기능을 지역사회내에서 충실히 담당하는 것을 전제로 운영비를 산정하였으며, 그 결과 <표: 요약-4>에서 보듯이 월 7,162,250원의 운영비와 함께 29인기준일 경우 1인당 비용은 약 247,000원으로 나타남. 따라서 저소득층 아동의 이용료는 최소한 현재수준의 정부지원액이 담보된다고 할 때(10인~29인기준: 3백5십만원), 일반아동 12명의 1인당 이용료 부담은 약 300,000원 수준임(일반아동이용비율이 40%인 경우).

표: 요약-4 '기본형 지역아동센터' 월 운영비 추산(종사자 2인/ 아동수 29인 기준) (단위:원)

예산과목		금액	내역
사무비	인건비	5,340,080	급여(센터장, 생활복지사), 사회보험, 퇴직적립금, 수당
	업무추진비	36,670	회의비
	운영비	540,830	여비, 수송비 및 수수료,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사업비*	사업운영비	1,078,000	프로그램 진행비(학습·문화체험 등), 교재교구 구입비
재산 조성비	시설비	125,000	시설보수비, 시설장비 유지비
예비비	예비비	41,670	예비비
예산총계		7,162,250	-

* 급식비 제외

표: 요약-5 재원에 따른 '기본형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2인/ 아동수 29인 기준) 1인당 월 이용료 (단위: 원)

구분	재원	월 평균 소요예산	일반/저소득아동 이용 비율	아동수	1인당 부담 비용(월)
전체	-	7,162,250	100%	29명	247,000
저소득층 아동	정부지원금	3,500,000	50%~60%	14명~17명	-
일반아동	수익자부담	3,662,250	40%	12명	305,200
			50%	15명	244,150

- 만약 최대 10만원으로 이용료를 고정하여 역산정한다면, 일반아동 12명 기준(일반아동 이용비율 40%)으로는 120만원의 수입만 발생하므로, 이는 현재 정부지원금액 3백5십만

원에서 최소한 6백만원수준으로 증액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함.

② '종합형 지역아동센터' 운영비와 이용료

- 종합형 지역아동센터는 주말운영을 포함한 보다 다양하고 전문화된 프로그램을 제공하게 되며, 이를 위하여 주말과 공휴일 프로그램 운영·관리와 사례관리를 전담해야 할 인력이 추가되고, 또 학습 및 문화예술관련 프로그램, 전문상담(놀이치료 포함)이나 부모교육, 사례관리, 지역사회연계 프로그램 지원, 여름캠프나 특별행사와 같은 프로그램·서비스가 포함되기 때문에 <표: 요약-6>에서 보듯이 전체적으로 기본형 시설에 비해 약 1.6배정도의 운영비가 더 필요함.

표: 요약-6 '종합형 지역아동센터' 월 운영비 추산(아동수 29인 기준/급식비 제외) (단위:원)

예산과목		금액	기본형 센터와의 예산 차이 내역
사무비	인건비	7,534,170	주말프로그램 운영·관리 및 상담·사례관리 전담인력 추가
	업무추진비	56,670	회의 횟수 증가
	운영비	657,500	종합형 센터 이용을 위한 원거리 거주 아동위한 차량 운영 증가
사업비	사업운영비	2,640,000	프로그램(학습, 예체능 등) 및 서비스 내용(전문상담, 사례관리, 지역연계 등), 종류, 횟수 증가
재산 조성비	시설비	291,667	-
예비비	예비비	83,333	-
예산총계		11,263,340	-

- 이용아동수(29인 기준)에 따른 월 소요비용을 보면, 1인당 월 388,340원의 비용이 산출되며, 29인 중 약 40%~50%인 12명의 일반아동의 경우 이들 1인당 비용이 월 517,556원~646,960원이 됨. 현재의 정부지원금(3백5십만원)으로는 저소득층 아동 9명의 이용료 지원만 가능하기 때문에, 정부지원금이 확대되지 않는 한 저소득층 아동들의 이용이 제한되며, 이는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종합형 지역아동센터이용에 있어 저소득층 아동이 배제될 수 있음.

표: 요약-7 재원에 따른 '종합형 지역아동센터' 1인당 월 이용료(아동수 29인 기준) (단위:원)

구분	재원	월 평균 소요예산	일반/저소득아동 이용 비율	아동수	1인당 비용(월)
전체	-	11,263,340	100%	29명	388,390
저소득층 아동	정부지원금	3,500,000	30%	9명	-
일반아동	수익자부담	7,763,340	40%	12명	646,950
			50%	15명	517,556
			70%	20명	388,167
			100%	29명	267,700

- 시설장면접이나 전문가의견조사결과와 같이 인건비와 운영비는 정부지원으로 하되, 직접적으로 이용자가 수혜를 받는 사업비만 이용자 부담을 하게 된다면, 일반아동의 이용료는 1인당 월 176,000원~220,000원(일반아동 이용비율이 40%~50%일 때)임. 결국 일반아동의 이용비율이나 소득기준에 따른 이용료 부담보다 정부의 기본운영비 지원액 수준에 따라 이용료산정결과에 큰 폭의 차이를 보임.

(2) 수요자부담방식 지역아동센터의 선결요건 및 보완사항

- 그동안 무료로 이용되던 지역아동센터가 본격적으로 수요자부담의 운영방식을 시도하기 위해서는, 이에 대한 단계적 적용이나 시범사업 등을 통해 점진적으로 시도해야 함. 또한 시설의 규모, 지역사회 내 이용료부담이 가능한 일반가정의 수요, 타 돌봄서비스와의 비교,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인식 등에 따라 일반아동이용과 이용료 부담에 변수가 많기 때문에, 보다 중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지역아동센터 지원계획이 함께 수반될 필요가 있음.
- 수요자부담방식은 부모들에게 비용지불을 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부모들이 지불한 비용만큼 프로그램과 서비스 질이 유지·향상되고 있는 가를 확인할 수 있는 지표마련과 체계적인 평가가 실시되어야 함.
- 이용료 부담 유무에 따른 시설 내 낙인감과 위화감 근절을 위한 종사자 사전교육과 이용료 징수 방법 등에 대한 고민이 필요함. 또한 종사자의 자격기준을 준수하고, 합리적인 처우를 통해 우수한 인력의 안정된 확보가 필요하며, 시설 및 운영기준을 점차적으로 국·공립 기준을 충족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함.
- 이용료부담 가구의 평균소득기준, 일반아동의 센터이용 비율과 지역아동센터 유형구분(국·공립시설 및 수요자부담 시설)에 따른 관련 규정의 개발 및 지침 보완이 필요함. 특히

수요자부담방식의 시설의 경우 이용료 징수액 및 징수방식, 결제 방식, 사용항목, 회계보고 절차와 과정 등도 상세하게 제시되어야 함.

- 무엇보다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인지도를 높이고, 또 기존의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낙인감과 인식을 개선시켜야 할 필요가 있음 정부와 지자체, 그리고 개별 시설차원에서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홍보와 인식개선을 위한 노력이 필요함.

(3) 민간자율 수요자부담방식의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논의

- 전문가의견조사결과, 맞벌이 가정이 늘어나고 돌봄 수요가 커짐에 따라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민간자원의 지역아동센터가 필요하고, 또 공공부문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다양한 형태의 시설이 존재해야 하며, 그 일환으로 순수 민간자율형 지역아동센터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음.
- ① 이용료 산정 : 앞서 논의한 재정혼합형(매칭펀드방식)의 운영내용과 비용을 근거로, 정부지원이 전혀 없는 상황에서 시설 이용아동이 전부 이용료를 부담해야 하는 경우라면, 기본형은 1인당 비용이 약 25만원, 종합형은 38만원 정도로 상대적으로 높은 이용료가 산출됨. 만약 급식비와 같은 지원을 지자체로부터 받고, 또 저소득층 아동이 이용하게 된다면, 이용비율에 따라 일반아동이 부담하게 되는 비용은 증액되거나 감소됨.
- ② 민간자율형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우려와 고려사항
- 전문가의견조사에서 나타난 것처럼, 민간자율형 시설은 사설학원과 같은 영리기관처럼 운영될 수 있어(학원에 지역아동센터 기능탑재, 과열된 아동의 모집과 기관홍보 등) 지역아동센터의 정체성을 훼손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민간에 의한 완전 자율 수요자부담방식의 지역아동센터의 도입에 대해서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함.
- 만약 이러한 형태의 시설이 설립될 경우, 정부지원이 없는 상태에서 어떻게 아동복지시설로서의 정체성과 공공성을 관리·감독할 것인지, 그리고 질적 수준 담보를 위해 어떻게 평가를 실시할 것인지 방안을 모색하여야 함.
- 또한 이러한 획기적인 형태의 지역아동센터가 등장하게 될 때 현재의 지역아동센터 현장에 미치게 될 파급력을 고려하여 이러한 시설을 허용하거나 설립하기 전에 이를 위한 공청회 등을 통한 관계기관 및 현장의 의견수렴이 반드시 필요

IV. 지역아동센터의 바우처 제도 도입 방안 모색

1) 연구요약 및 제언

(1) 국내·외 바우처 제도 사례

- 2007년도부터 도입된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제도는 전달체계의 효율성과 투명성이 제고되었다고 평가받고 있으며, 사회서비스 이용자의 만족도가 높게 나타나고 있음. 기존의 공급자 방식과 달리 서비스 이용자에게 직접 선택권을 제공한다는 장점이 있으나, 반면에 바우처 활용을 위한 정부부족이나 서비스제공 기관간 담합 등으로 오히려 선택권이 방해될 수 있다는 문제가 있음.
- 보육료 지원을 위한 아이사랑카드는 그동안의 공급자중심의 보육서비스전달체계가 아닌 수요자인 부모를 통해 보육료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보육서비스 수요 증진 및 보육시설 이용률 제고에 더욱 효과적임을 시사하고 있음.
- 방과후학교에서 도시지역의 저소득 계층의 학생들을 지원하기 위해 활용하고 있는 자유수강권은 소외 계층 학생들에게 교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학생 1인당 연간 30만원의 무료수강권이 지급됨.
- 미국의 경우 저소득층을 위한 Food Stamp Program, After School Programs을 포함한 교육관련 바우처, 보육프로그램(day-care) 서비스권제 등이 실시되고 있는데, 평균적으로는 주 중위소득의 60%가 보육서비스 지원대상에 해당됨.
- 영국에서의 보육 바우처 제도는 1997년 지역교육청을 통해 전국으로 확대된 바 있으며, 2003년부터는‘Childcare Vouchers Direct’라는 전자보육바우처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면서 보육서비스 보편화에 기여하고 있음.

(2) 조사결과

- ① 지역아동센터장 심층면접 및 학부모 FGI 결과
- 시설장들은 바우처 사용에 대한 시설 내 낙인문제와 발생가능한 문제점(부모의 무관심 및 활용능력 부족, 바우처 부정수급, 매매 등)을 이유로 바우처 제도 도입에 부정적인 견해를 나타냄. 또한 바우처 제도 도입 시 시설간 경쟁분위기로 인해 서로 연계·협력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의견을 보였음.

- 바우처 제도 도입이 시설장들로 하여금 적극적인 센터 운영의 동기가 될 수 있지만, 농어촌지역과 같이 지역사회에 선택가능한 자원이나 시설이 거의 없는 경우 무의미하다는 의견을 보였고, 바우처 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필요조건으로는 인건비확보와 시설, 프로그램과 서비스 수준의 담보를 강조하였음.
- 학부모 FGI 결과, 바우처 제도에 대해서는 대체로 찬성하는 학부모들이 많았으며, 특히 어린 아동이 있는 가정의 경우 아이사랑카드로 인해 바우처 제도에 대한 이해가 높았음. 또한 카드형 전자바우처 제도를 이용아동이 낙인찍히지 않을 수 있는 좋은 방식으로 인지하고 있었고, 적극적인 활용의지를 보이기도 하였음.
- ② 전문가의견조사
- 지역아동센터의 바우처 제도 도입가능성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 전문가가 많았는데, 그 이유는 아직 수요파악과 공급조절이 어려운 측면이 있어 시기상조로 보고 있었고, 또한 바우처의 부정사용, 바우처 카드 도입 시 현장에서의 혼란과 무질서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음.
- 전문가들은 바우처 제도 도입의 장점으로 사업의 공공성과 회계부분의 투명성 강화, 입소관리 및 퇴소의 정확한 사후처리, 이용자의 서비스 선택 확대, 또 서비스경쟁에 따른 지역아동센터의 자발적 노력 증대를 제시하였음.
- 바우처 제도 도입에 따른 문제점으로는 지역아동센터의 상업화, 서비스 질 저하, 정부의 관리감독 약화, 서비스이용의 계층화 발생 등을 지적하였음. 또한 소비자에게 충분한 정보가 제공되지 않을 경우 선택능력 부족 등의 문제가 나타날 수 있으며, 이용자에게 인기 있는 서비스 및 프로그램에만 바우처 사용이 집중될 수 있다고 보았음. 바우처를 통한 센터 간 경쟁 심화 및 전달 체계 간 갈등들은 시설간 협력체계구축과 파트너쉽들을 더욱 어렵게 만들 수 있다고 지적함.
- ③ 지역아동센터장 설문조사 및 학부모 조사 결과
- 설문조사에 응답한 시설장들은 앞서 면접조사에 응한 시설장이나 전문들보다는 바우처 제도 도입에 대해 더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었으며, 지역아동센터 이용을 위한 바우처 지원기준은 가구평균소득액 하위 50%로 보는 의견이 가장 많았음
- 바우처 제도 도입에 따른 긍정적 측면으로는 ‘수요자의 서비스 선택권 확보’, ‘지역아동센터 자체 서비스 질 개선 노력’, ‘정부지원 예산운영의 투명성 강화 및 프로그램의 내실화’, 등의 순으로 높은 응답률을 보였고, 부정적인 측면으로는 ‘바우처 통한 지원예산 예측불가

에 따라 안정적 기관운영 저해, '저소득취약계층아동 가족의 시설선택 및 이용 위한 정보·바우처 활용능력 부족', '센터간 경쟁심화와 부모요구에 따른 사교육화 우려'등의 순으로 의견을 나타냄.

- 바우처 제도 도입을 위한 선결요건으로서, 바우처 이용 아동과 이용료 부담 아동간 낙인과 위화감이 조성되지 않도록 운영방법을 고려해야 한다는 응답이 가장 높았고, 바우처 제도 실시의 전제가 되는 '지역아동센터의 양적 확대'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낮은 응답률을 보임.
- 학부모 전화조사 결과 조사대상자의 66.3%가 바우처 제도를 알고 있다고 응답하였음. 응답자 대다수가 바우처 제도가 필요하다는 견해를 보였으며, 그 이유로는 프로그램과 서비스의 질 향상을 꼽았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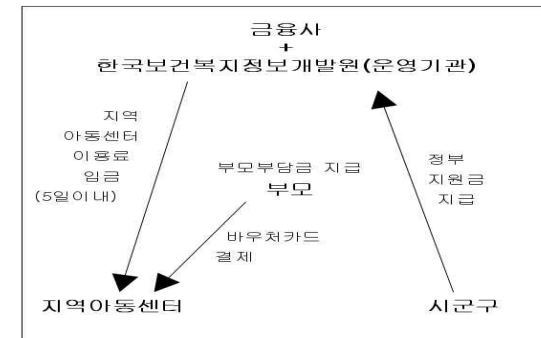
④ 제언

- 지역아동센터의 바우처 제도 도입과 관련하여 센터장 면접과 전문가의견조사에서는 바우처 제도의 오용의 우려가 많아 반대의견도 많았으나, 센터장 설문조사와 학부모 전화조사결과에서는 긍정적인 응답이 높게 나타나는 등 상이한 결과를 보여, 이에 대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함.
- 조사과정에서 시설에서 낙인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바우처 제도 운영방식에 대한 강조가 많았고, 또 학부모들이 아이사랑카드와 같은 카드형 전자바우처 방식을 선호하는 것을 볼 때, 지역아동센터에서도 전자바우처 방식을 긍정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음.
- 지역아동센터에서 바우처 제도 도입 시, 바우처 부정수급, 타인양도 및 매매, 정보비대칭, 서비스 제공기관간 담합 등의 바우처 오·남용을 관리·감독할 기구가 필요하며, 수요자인 부모가 바우처 제도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바우처 제도와 관련한 수요자의 선택권에 대한 사전교육과 인식개선이 필요
- 보육시설의 바우처 제도 운영 사례에서 보듯이, 바우처 지원을 받기 위한 기준이 지나치게 엄격하지 않도록 가구평균소득 하위 50%~70%의 가구에 지역아동센터 이용 바우처를 지원하는 방안을 고려하여야 함.
- 바우처 제도로 인한 지역아동센터간 경쟁분위기를 우려하는 조사결과가 많아, 시설간 실제적인 협력·연계와 관련한 바우처 제도의 긍정적/부정적 역할에 대한 사전조사가 필요함.

2) '지역아동센터의 바우처제도 도입 가능성 모색' 요약

(1) 바우처 제도 도입 방식

- 만 7세에서 18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으로서, 현재 지역아동센터의 주 이용대상인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및 차상위·다문화가정의 아동이거나 장애아동의 경우 기본적인 바우처 제도의 대상이 됨. 부모의 소득수준이 차상위 계층을 넘는다고 하더라도 비정규직이거나, 일용·노동직으로 급여수준이 낮고 자녀를 돌볼 수 없는 상황인 경우, 보육시설사채처럼 가구소득 하위 70%이하를 대상으로 바우처를 지원하는 등 광범위한 바우처 제도 적용을 고려해볼 수 있음.



[그림 요약1] 지역아동센터전자바우처 운영방식 II

- 바우처 제도 도입 시 부모는 전자바우처 형태인 바우처 카드를 사용하여 지역아동센터 이용료를 월별, 혹은 분기별로 결제하고, 시설에서는 카드결제 후 평균 5일 이내 지정된 금융기관에서 지역아동센터 계좌로 이용료를 입금하는 방식을 활용할 수 있음. 바우처 제도의 관리·감독을 위해 보육의 아이사랑 카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에 이 업무를 의뢰하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음.
- 지역아동센터 이용료 지원신청절차는 1단계로 지역아동센터 이용료 지원신청단계, 2단계로 조사, 3단계는 조사결정 통지, 4단계는 바우처카드 발급, 5단계는 지역아동센터 서비스 이용임.
- 전자바우처제도 시스템 구축예산을 추정하기 위해 보육의 아이사랑 카드 사례를 참고해

볼 수 있음. 2009년 아이사랑카드 제도 시행 첫해에 시스템 계약 비용, 보육바우처관리비용, 인건비, 시스템구축 및 관리 등의 비용으로 약 75억여원의 예산이 소요되었고, 2011년에는 67억6천여만원이 소요되었음. 전국 지역아동센터의 수가 보육시설의 1/10(약 3,800여개소 기준)라고 할 때, 지역아동센터의 전자바우처 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보육영역 소요비용의 약 1/10에 해당하는 대략 6억 7천여만원을 상회하는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음.

- 지역아동센터의 가구 소득수준에 따른 바우처 지원과 관련해서, 법정 저소득·차상위 및 취약계층, 그리고 가구평균소득 하위 50%까지는 이용료 전액 바우처 지급을 전제로 하고 그 외에는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에 따른 가구소득비용에 따라 부분적으로 바우처를 지원하는 방식을 아래 <표: 요약-6>과 같이 고려해 볼 수 있음.

표: 요약-8 가구소득수준별 월 바우처 지원금액(아동수 29인 기준/급식비 제외) (단위:원)

구분	지원 비율	지역아동센터 유형		비 고
		기본형	종합형	
전체 시설 운영비용	-	7,162,250	11,263,340	-
아동1인당 비용	-	247,000	388,390	1인당 단가 비용
~가구소득 하위 50%	100%	247,000	388,390	법정 저소득·취약계층, 차상위, 가구 소득 하위 50% 미만
가구소득 하위 50%초과~60%	60%	148,200	233,030	지역아동센터 이용료에 대한 부분 바
가구소득 하위 60%초과~70%이하	30%	74,100	116,520	우처 지급. 나머지 비용은 부모부담
가구소득 70%이상	-	-	-	1인당 이용비 전액 부담

- 가구소득수준별 월 바우처 지원금액을 근거로 현재 지역아동센터 이용아동을 위한 바우처지원 소요 예산을 대략적으로 살펴보면, 현재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청소년 수는 2011년 기준 102,089명이며, 현재 지역아동센터 이용 우선대상이 저소득 및 취약계층 아동인 것을 볼 때, 이들이 시설이용료 100%를 지원받게 된다면, 십만여명에 달하는 이용 아동들을 대상으로 기본형 지역아동센터의 월 이용료를 지원한다면 약 250억이 소요됨.
- 만일 바우처 지원을 현재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을 기준으로 하지 않고, 맞벌이 가정의 저소득가정 등 바우처 자격기준을 일부 집단에 한정한다면, 2011년 방과후돌봄서비스 실태조사에서는 추정된 맞벌이·저소득 가정의 자녀인 아동은 총 66,640명에게 기본형 센터이용을 위한 바우처를 제공한다고 할 때, 약 167억의 비용이 소요됨을 알 수 있음
- 여기서 저소득가정 아동의 기준은 월평균가구소득 5분위를 기준으로 하위 40%에 해당하는

1, 2분위 가정을 저소득으로 규정한 것이기 때문에 만약 가구소득 하위 50%~70%까지도 부분적으로 바우처를 지원하게 된다면 그 비용은 더욱 증가함.

(2) 선결요건 및 보완사항

- 지역아동센터에서 바우처 제도를 도입·활용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 내 접근 가능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또 다른 선택 가능한 지역아동센터가 필요함. 농어촌지역처럼 대체할 만한 시설이 없는 상황에서 바우처 제도는 효용성을 갖기 어려움.
- 바우처제도의 오·남용을 예방하고, 객관적이고도 투명한 운영을 위하여 각 지역 행정기관은 각 지역아동센터 이용 부모들의 바우처 제도 운영상황을 정기적으로 평가하여 시설과의 결탁 및 부정수급등의 문제를 파악하는 운영지원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바우처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적절한 활용을 위해 부모교육과 지역아동센터장 교육이 함께 필요함. 바우처의 부정수급 및 부정사용이 발견될 경우 바우처 지원에 따른 불이익과 함께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할 수 있어야 함.
- 유사방과후 서비스인 초등돌봄교실은 사업목적이 저소득 및 취약계층 아동뿐 아니라 맞벌이 가정의 아동을 사업의 대상으로 하여 방과후에 아동을 학교에서 돌보는 것으로 지역아동센터의 역할과 기능이 매우 유사함. 따라서 이제는 정책부처간 적극적인 협력에 의한 향후 통합·운영에 대한 논의를 위해 학교에서의 자유수강권과 지역아동센터의 바우처를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한 방향성이 필요한 시점.
- 바우처 제도 도입 시 발생 가능한 문제들을 사전에 파악하고 대처하기 위해 시범사업을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 시범사업을 위해서는 지역아동센터 평가결과를 반영하여 가능한 프로그램과 서비스 및 운영전반에 있어 바우처 제도를 잘 활용할 수 있는 곳으로 선정하는 것이 필요함.

목 차

I. 서론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2. 연구내용	11
3. 연구방법	12
1) 문헌연구	B
2) 지역아동센터 방문 및 센터장 심층인터뷰	31
3) 지역아동센터이용 학부모에 대한 FGI(초점집단인터뷰) 실시	41
4) 전문가 의견조사	5
5) 지역아동센터 시설장 및 일반 학부모 대상 설문조사	61
6) 자문회의 및 간담회 개최	9
II. 국·공립 지역아동센터 연구	20
1. 국·공립 지역아동센터의 필요성	21
2. 국내외 사례 고찰	23
1) 국내사례 : 국·공립보육시설	23
2) 국외사례 : 일본의 아동관	3
3. 국·공립 지역아동센터의 운영실태 사례연구	5
1) 시립형(100% 지자체 지원) 모델	5
2) 인프라지원형 모델	5
3) 인프라와 부분 운영비 지원 모델	17
4) 사례분석 결과	8
4. 조사결과	79
1) 지역아동센터장 심층면접 결과	97
2) 지역아동센터 이용 학부모 초점집단인터뷰(FGI) 결과	58
3) 전문가 의견조사 결과	8

4. 지역아동센터 설문조사 결과	39
5. 연구요약 및 제언	105
6. 국·공립 지역아동센터의 표준모델 개발(안)	114
1) 대상자 기준	114
2) 사업(프로그램) 기준	11
3) 시설기준	122
4) 설치기준	125
5) 인력기준	126
6) 소요예산(적정 운영비)	12
7) 운영방법(직영과 위탁운영)	10
8) 법적·제도적 개선방안	142
III. 수요자부담방식의 지역아동센터 연구	143
1. 수요자부담방식의 지역아동센터 논의의 배경	4
2. 국내 유사 방과후 돌봄서비스 사례	11
1)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18
2) 보육프로그램	12
3)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5
3. 조사결과	158
1) 지역아동센터장 심층면접 결과	5
2) 지역아동센터 이용 학부모 초점집단인터뷰(FGI) 결과	31
3) 전문가 의견조사 결과	17
4) 지역아동센터 설문조사 결과	1
5) 일반 학부모 전화조사 결과	3
4. 요약 및 제언	189
5. 수요자부담방식의 지역아동센터 운영방안	9

1) 재정혼합형(가칭) 지역아동센터 ‘기본형’과 ‘종합형’	199
2) 수요자부담방식의 지역아동센터의 선결요건 및 보완사항	412
3) 민간자율 수요자부담방식이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논의	422
4) 수요자부담방식의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기타 논의	522

IV. 지역아동센터의 바우처 제도 도입 방안 모색 227

1. 바우처제도 도입 논의	28
2. 국내·외 유사 서비스의 바우처 제도 사례 연구	230
1) 국내사례	230
2) 국외사례	237
3. 조사결과	243
1) 지역아동센터장 심층면접 결과	243
2) 지역아동센터 이용 학부모 초점집단인터뷰(FGI) 결과	242
3) 전문가 의견조사 결과	250
4) 지역아동센터 설문조사 결과	244
5) 일반학부모 전화조사 결과	249
4. 요약 및 제언	261
5. 지역아동센터의 바우처제도 도입 가능성 모색	248
1) 바우처 제도 도입 방식	249
2) 선결요건 및 보완사항	249

V. 결론 284

1. 지역아동센터의 ‘수요자 중심’ 쟁점 논의	285
2. 지역아동센터의 발전 과제	287

참고문헌 290

부 록 297

1. 기관방문 및 센터장 면접지	288
2. 지역아동센터 이용 학부모 대상 초점집단면접지	294
3. 전문가의견조사지	309
4. 지역아동센터장 설문지	322
5. 일반 학부모 조사 설문지	335

표목차

<표 I-1> 시도별 지역아동센터 현황	4
<표 I-2> 연구방법 개요	31
<표 I-3> 지역아동센터장 심층인터뷰 현황	41
<표 I-4> 지역아동센터 이용 학부모 FGI 실시 현황	51
<표 I-5> 전문가 의견조사 개요	61
<표 I-6> 지역아동센터장 설문조사 개요	71
<표 I-7> 설문조사에 응한 지역아동센터의 일반적 특징	71
<표 I-8> 일반 학부모 전화조사 개요	81
<표 I-9> 조사대상 학부모의 일반적 특징	91
<표 II-1> 시설유형별 보육시설의 증가추이	42
<표 II-2> 보육시설 유형별 시설 수 및 이용 아동 수	42
<표 II-3> 국·공립 보육시설 위탁체(신규변경) 공통심사 기준표	82
<표 II-4> 정부지원시설 보육료 수납액	03
<표 II-5> 정부미지원시설 보육료 수납액	13
<표 II-6> 2011년도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급기준	23
<표 II-7> 보육교사 등급별 자격기준	43
<표 II-8> 농산어촌 보육취약지역 및 우선설치지역 선정 결과	73
<표 II-9> 도시 보육취약지역 및 우선설치지역 선정 결과	83
<표 II-10> 지역 아동지원거점의 설치 상황	54
<표 II-11> 2010 지역자녀양육 지역거점사업 실시 개소수	54
<표 II-12> 아동관의 재원	35
<표 II-13> A지역아동센터 지출예산	26
<표 II-14> 2011년 수정지출예산(안)	17
<표 II-15> 국·공립지역아동센터의 확대설치 필요성	39
<표 II-16> 국·공립지역아동센터의 우선설치 지정지역	39
<표 II-17> 시범사업 첫째 개소지역과 수	49
<표 II-18> 2017년 전체 중 국·공립 센터의 비율	49

<표 II-19> 국·공립 지역아동센터 운영방식	59
<표 II-20> 국·공립지역아동센터의 기능(중복선택)	69
<표 II-21> 국·공립지역아동센터의 직원 한명 당 적정 아동 수	69
<표 II-22> 국·공립지역아동센터의 적정 규모	69
<표 II-23> 국·공립지역아동센터 일반아동이용에 찬성하는지 여부	79
<표 II-24> 국·공립지역아동센터 시설장의 자격요건-자격증	79
<표 II-25> 국·공립지역아동센터 시설장의 자격요건-현장경험	89
<표 II-26> 국·공립지역아동센터 생활복지사의 자격요건-자격증	89
<표 II-27> 국·공립지역아동센터 생활복지사의 자격요건-현장경험	99
<표 II-28> 국·공립지역아동센터 시설장, 생활복지사의 적정급여	99
<표 II-29> 국·공립지역아동센터에 꼭 갖추어야 할 시설	001
<표 II-30> 국·공립지역아동센터 민간위탁 시 표준화된 선발기준의 필요성	101
<표 II-31> 국·공립지역아동센터의 민간위탁 시 중요한 기준	21
<표 II-32> 민간 지역아동센터의 국·공립지역아동센터 전환시 선발기준 표준화 필요성	301
<표 II-33> 민간 지역아동센터의 국·공립지역아동센터로의 전환 기준	41
<표 II-34> 아동복지시설의 시설기준	21
<표 II-35> 지역아동센터의 시설기준(안)	421
<표 II-36> 지역아동센터 인력기준	21
<표 II-37> 2011년 공무원 대비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급여 비교	231
<표 II-38> 청소년전용 지역아동센터 표준예산안	431
<표 II-39> 공립지역아동센터 운영예산(2012년) 사례	631
<표 II-40> 위탁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기준안(종사자 3인/ 아동수 20~29인 기준)	831
<표 II-41> 위탁 지역아동센터 월 평균 운영비 (종사자 3인/ 아동수 29인 기준/ 급식비 제외)	139
<표 II-42> 위탁 지역아동센터 월 평균 운영비 (종사자 2인/ 아동수 29인 기준/ 급식비 제외)	19
<표 III-1> 방과후학교의 목표	81

<표 III-2> '방과후 교육활동'과 '방과후학교'의 운영방식 비교	149
<표 III-3> 방과후학교 이용료 부담에 따른 운영 현황(2010년 6월)	051
<표 III-4> 초등돌봄교실 참여학생 유형(2010년 6월)	151
<표 III-5> 엄마품 온종일 돌봄 교실 프로그램 구성	251
<표 III-6> 정부미지원시설 보육료 수납액	351
<표 III-7> 가구원수(가구주 포함)별 소득인정액 기준	451
<표 III-8> 영유아 보육료 지원단가	41
<표 III-9> 청소년방과후 아카데미 사업내용	51
<표 III-10> 청소년방과후 아카데미 운영모형 및 운영기준	651
<표 III-11> 연도별/유형별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운영현황	751
<표 III-12> 일반아동의 센터 이용 확대 및 이용료 부담에 대한 인식	371
<표 III-13> 일반아동의 센터 이용 시 이용료 수준	471
<표 III-14> 이용료 수납 방식	1
<표 III-15> 이용료 징수의 일괄적용 여부	51
<표 III-16> 수요자부담방식 지역아동센터의 필요성	571
<표 III-17> 유형별 수요자부담방식 지역아동센터의 필요성	671
<표 III-18> 순수 민간형 지역아동센터 관련 발생 가능한 상황	671
<표 III-19> 지역아동센터의 일반아동 이용 및 비용부담가능성	771
<표 III-20> 이용료 부담 가능한 가구소득(상위) 비율	771
<표 III-21> 일반아동 센터 이용 시 필요한 선결조건	871
<표 III-22> 센터 이용에 있어 일반아동과 저소득 아동 비율 결정방식	871
<표 III-23> 저소득취약계층아동과 일반아동의 적절한 센터 이용비율	971
<표 III-24> 특별서비스 및 프로그램에 대한 비용부담 가능성	971
<표 III-25> 정규외 시간의 센터이용에 대한 비용부담 가능성	081
<표 III-26> 일반아동의 센터 이용확대와 비용부담 시 발생할 수 있는 상황	081
<표 III-27> 지역아동센터의 낙인문제 해결 방안	381
<표 III-28> 방과후 주된 활동	3

<표 III-29> 지역아동센터 인지여부	41
<표 III-30> 지역아동센터에 자녀 보낼 의향이 있는지 여부	581
<표 III-31>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지 않는 이유	581
<표 III-32> 지역아동센터 선택 시 가장 중요하게 생각되는 것	681
<표 III-33> 지역아동센터 프로그램과 서비스 중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681
<표 III-34> 국·공립 지역아동센터와 민간 지역아동센터 간 선호도	781
<표 III-35> 심야시간 및 주말과 공휴일 운영 시 이용 의향 여부	881
<표 III-36> 지역아동센터 월 이용료 부담액	881
<표 III-37> 지역아동센터 운영프로그램	92
<표 III-38> '기본형 지역아동센터'연간 운영비 추산(29인 기준)	1
<표 III-39> '기본형 지역아동센터'월 운영비 추산(종사자 2인/ 아동수 29인 기준)	3
<표 III-40> 재원에 따른'기본형 지역아동센터'(종사자 2인/ 아동수 29인 기준) 1인당 이용료	12
<표 III-41> 지역아동센터 운영형태(기본형/종합형)에 따른 항목별 차이(아동수 29인 기준)	2
<표 III-42> '종합형 지역아동센터'연간 운영비 추산(종사자 3인/ 아동수 29인 기준)	3
<표 III-43> '종합형 지역아동센터'월 운영비 추산(종사자 3인/ 아동수 29인 기준)	3
<표 III-44> 재원에 따른'종합형 지역아동센터'1인당 월 이용료(아동수 29인 기준)	12
<표 III-45> '종합형 지역아동센터'의 사업비에 대한 1인당 이용료(아동수 29인 기준)	12
<표 III-46> 민간자율 수요자 부담방식 지역아동센터의 소요예산과 1인당 월 이용료 (아동수 20인 기준/ 급식비 제외)	2
<표 IV-1> 사회서비스 제공 방식의 변화	02
<표 IV-2> 전자바우처 사업시행 중인 사회서비스 사업	132
<표 IV-3> 보육사업 지원을 위한 미국의 바우처 제도 사례 예시	832
<표 IV-4> 교육지원을 위한 미국의 바우처 제도	932
<표 IV-5> 바우처 제도 도입 관련	42
<표 IV-6> 바우처 지원대상자 선정방법	52
<표 IV-7> 바우처 지원대상 아동의 가구평균소득액	552
<표 IV-8> 바우처 제도 도입에 따른 긍정적 측면	62

<표 IV-9> 바우처 제도 도입에 따른 부정적 측면	732
<표 IV-10> 바우처 제도 전제조건	82
<표 IV-11> 지역아동센터의 발전방향	92
<표 IV-12> 어린이집 이용을 위한 바우처 제도 인지 여부	1062
<표 IV-13> 바우처 제도의 필요성	108
<표 IV-14> 바우처 제도가 필요한 이유	112
<표 IV-15> 유사 방과후(돌봄)서비스의 무상 이용 대상 (2011년도 기준)	1072
<표 IV-16> 지역아동센터 전자바우처 사용법	172
<표 IV-17> 지역아동센터전자바우처 운영방식 I	272
<표 IV-18> 연도별 보육전자바우처 운영예산	32
<표 IV-19> 가구소득수준별 월 바우처 지원금액(아동수 29인 기준/급식비 제외)	672
<표 IV-20> 현재 시설이용 아동 및 맞벌이 저소득가정 아동에 대한 월 바우처 지원 비용	227

그림목차

【그림 III-1】 엄마품 온종일 돌봄교실 운영 모형	1
【그림 IV-1】 바우처 업무처리 프로세스	2
【그림 IV-2】 아이사랑카드 운영방식	2
【그림 IV-3】 방과후 학교 자유수강권 운영 절차	3
【그림 IV-4】 전자보육바우처의 운영체계	2
【그림 IV-5】 지역아동센터전자바우처 운영방식 II	2
【그림 IV-6】 지역아동센터 전자바우처 신청절차	2

제 1 장

서 론

-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2. 연구내용
- 3. 연구방법

제 1 장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1) 지역사회 아동보호(communitry care)의 일차적 보호체계로서의 지역아동센터의 역할과 기능

1980년대에 도시빈민가정과 농·산·어촌의 아동들을 보호하고 급식을 제공하는 공부방으로 출발한 지역아동센터는 1997년 외환위기 시 사회경제적 어려움으로 가정의 실직 및 가족의 해체속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 아동·청소년을 지역사회 내에서 안전하게 보호하고, 급식을 제공하며, 학습지도등을 지원하면서, 지역사회 아동보호에 대한 필요성을 더욱 강조해 왔다. 또한 가족해체를 경험하고 있거나, 저소득층 취업여성의 아동들이 방과후 방치되지 않도록 돌보는 역할까지 담당하고 있다. 2004년부터 정부로부터 공적인 지원을 받게 되면서 지역아동센터는 급격한 증가를 하게 되는데, 이는 지역사회내 접근성을 더욱 좋게 하였고, 아동·청소년의 방과후 보호, 학습지도, 상담, 급식, 사례관리 등의 서비스 또한 제공하고 있다. 방과후 시간에 아동·청소년을 보호하고 필요한 지원과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현재 정부의 관련 부처별로 지역아동센터(보건복지부),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여성가족부), 방과후학교 및 방과후돌봄교실(교육과학기술부) 등 다양한 정책사업이 실시되고 있다. 그중 특히 지역아동센터는 지역사회 아동 보호(communitry care)를 위한 일차적 보호체계이며, 최일선 아동복지시설로서 매우 중요한 역할과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현재 보건복지부의 지침에 나타나 있는 지역아동센터의 기본 개념과 기능을 살펴보면, 첫째는 지역사회 안에서 아동의 권리보장과 안전한 보호, 급식지원으로 결식을 예방하는 것이고, 둘째는 교육적 기능으로써 아동의 학습능력을 제고하고 학교부적응 해소, 일상생활 지도, 학교생활 유지 및 적응력강화에 초점을 두는 것이다. 셋째로 아동의 심리·정서적 안정 및 건강한 신체발달 기능을 강화하고, 문화적으로 소외되어 있는 아동에 대해 문화체험 및 다양한 문화경험의 장을 제공하며,

마지막으로 지역사회의 자원을 발굴하고 지원을 강화하여, 지역사회 내 아동문제에 대한 사전 예방적 기능 및 사후 연계를 담당한다(보건복지부, 2011). 또한 구체적인 서비스로서, 방과후 아동보호, 상담 및 급식제공을 통해 심리적·신체적 발달을 도모하고, 학습지도를 통해 학습능력을 제고하고 학교생활에 잘 적응하도록 지원한다. 더불어 아동 및 가족의 사례관리 서비스를 통해 가족기능을 보완·지원하며, 지역사회와의 다양한 자원을 확보하여 연계하는 등의 아동·청소년복지를 위한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여 왔다.

지역아동센터에서 현재 실시하고 있는 프로그램 실태를 자세히 살펴보면(지역아동정보센터, 2010), 학습지도프로그램의 경우 3,494개소가 실시 중이며, 그 다음으로 급식제공프로그램이 3,379개, 아동상담프로그램이 3,371개소, 문화체험프로그램이 3,368개소 순으로 나타났다. 대부분의 지역아동센터들은 아동의 학습지도, 숙제지도 등 학습활동 지원프로그램을 주로 실시하고 있었고, 더불어 부모의 경제적 지원 부족으로 그동안 이용기회가 많지 않았던 캠프, 공동체프로그램, 문화체험, 특별활동 등의 프로그램도 다수의 지역아동센터가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건강의료지원 및 정기적 건강검진, 가족기능강화프로그램, 결연후원사업 등은 비교적 적은 수의 지역아동센터가 수행하고 있었는데, 이는 지역아동센터의 시설규모가 다른 아동복지시설보다 작고 운영주체가 민간개인이라는 점 때문에 아동의 건강점검과 지원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이혜연 외, 2010). 또한 전문 인력의 부족으로, 아동이 가지고 있는 행동과 정서상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족기능을 변화·강화시키는 전문적 개입에 한계가 있어 현재 지역아동센터는 시설 내에서의 보호서비스제공에 치중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이혜연 외, 2010).

지역아동센터의 주요 대상은 지역사회안에 있는 빈곤·학대·방임 가정, 한부모·조손·소년소녀 가정, 맞벌이·이혼가정의 18세 미만의 아동으로, 현재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 중 82% 이상이 기초생활수급가정, 차상위계층, 한부모·조손가족·다문화가정 아동이며, 또 성적이 ‘중하’인 아동이 약 48%를 차지하고 있는 소외계층의 아동들이다(홍재환, 2008; 양계민 외, 2009). 이용대상에 대해 보다 구체적으로 2010년 최근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보건복지부, 2011), 지역아동센터 이용아동은 차상위(저소득)아동 35,938명(36.3%), 수급권아동 27,221명(27.5%), 기타승인가동 18,607명(18.8%), 일반아동 17,181명(17.4%)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가정형태별로는 양부모가정 58,704명(59.3%), 모자가정 18,554명(18.8%), 부자가정 12,271명(12.4%), 조손가정 6,853명(6.9%)으로 나타났고, 소년소녀가장과 친척 및 시설에 위탁되어 있는 경우도 각각 683명(0.7%), 1,882명(1.9%)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양육자의 경제활동을 살펴보면, 아버지만 경제활동을 하는 경우가 31,365명

(31.7%)으로 가장 많고, 양부모 모두 경제활동을 하는 경우가 30,005명(30.2%), 어머니만 경제활동을 하는 경우가 21,297명(21.6%)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가정의 아동도 11,058명(11.2%)로 조사되어 센터를 이용하고 있는 많은 수의 아동들이 경제적으로 취약한 상황에 놓여 있었다.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 현황을 보면, 센터 이용 아동수는 2004년 23,347명에서 2010년 100,233명으로 4배이상 증가하였고, 연령·교급별로는 2010년 현재 미취학 아동은 4,376명, 초등학교의 경우 저학년이 37,865명, 고학년이 40,233명 이었다. 중학생이 15,075명, 고등학생이 2,346명으로 연령이 높을수록 이용률이 낮았다. 청소년 이용현황을 보면, 중고생이 전혀 이용하지 않는 센터는 1,170개소로 나타났고 중고생만 이용하는 센터는 40개소 정도로 나타나, 중고생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아동센터의 필요성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이용아동수 전체 십만여명중에서 약 6만명정도는(63.2%) 지역아동센터만 이용하고 있었고, 방과후 학교와 함께 이용하는 아동의 수는 22,502명(22.4%), 방과후 보육 시설을 함께 이용하는 아동은 약 2천명이었고, 기타 다른 시설을 함께 이용하는 경우도 12,482명(12.5%)이었다. 60%가 넘는 많은 아동들이 오로지 지역아동센터만 이용하고 있다는 현실을 고려할 때, 지역아동센터의 서비스 질과 내용이 이들 이용 아동·청소년에게 절대적으로 중요함을 보여주고 있다.

지역아동센터의 현황을 보면, 2004년 895개소였던 지역아동센터는 2010년 6월말 기준 현재 3,585개소로 111개소(3.2%)증가하였으며, 운영주체가 개인인 경우 전체의 56.3%(2,018개소)로 가장 비중이 컸고, 그 다음으로 종교단체가 19.1%(683개소), 사회복지법인이 9.1%(327개소), 재단법인이 6.9%(248개소), 사단법인이 4.0%(144개소), 시민단체 2.8%(99개소) 순으로 나타났다. 지자체 운영은 2008년에는 6개소였던 것이 2010년 6월말 현재 2개소(0.1%)로 아주 미미한 비율을 보였다. 개인이 운영주체인 경우가 과반수 이상으로 많아, 현재 지역아동센터의 공공성에 대한 문제와 서비스 및 프로그램의 질적 수준에 대한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표 I -1 시도별 지역아동센터 현황 (단위 : 개소)

지역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6월	
합계	895	1,709	2,029	2,618	3,013	3,474	3,585	폐쇄/휴지 65

※ 보건복지부(2011). 전국지역아동센터 실태조사 보고서

지역형태로 구분했을 경우, 도시형은 69.3%(2,485개소)이고 농·산·어촌형은 30.7% (1,100개소)로 나타나 도시형 센터가 2배 이상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농·산·어촌에 아동·청소년인구가 상대적으로 매우 적은 이유도 있겠으나, 방과후에 이용할만한 시설이나 기관 역시 도시에 비해 부족할 수 있으므로, 이들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도모할 수 있는 지역아동센터의 적절한 배치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보건복지부의 최근 자료에 따르면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지원은 이용아동 및 상근종사자 수에 따라 월 200만원~430만원 차등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보건복지부, 2011). 현재 정부보조금을 지원받고 있는 지역아동센터는 3,106개소로 86.6%정도에 달하는데, 정부보조금을 지원받는 센터 중 2010년 1월부터 6개월간 지원받은 센터는 3,071개소이고 1개소 당 평균지원금은 19,024,729원, 1개월 평균지원금은 3,170,388원으로 나타났다. 6개월 미만의 기간 동안 지원받은 센터는 총 35개소이며, 개소 당 1개월 평균지원금은 2,747,646원으로 나타났다. 운영비 외에 지자체로부터 별도의 운영비를 받고 있는 센터는 1,472개소로 약 40%이고, 이 기관들이 지자체로부터 한 달에 받는 별도지원금은 350,377원 수준이었다. 전체적으로 지역아동센터는 예산부족의 문제를 많이 안고 있어, 정부지침상 일반아동·청소년에 한하여 5만원을 이용료로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지역아동센터가 위치하고 있는 지역특성과, 주로 저소득계층의 아동·청소년의 이용시설이라는 여건상 센터 이용료를 받고 있는 센터는 불과 6.7%(248개소)로서, 1인당 평균 이용료는 23,412원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2) 지역아동센터 효과성 연구결과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아동의 만족도와 관련된 연구들을 보면 대체로 지역아동센터 이용과 만족도가 어떻게 심리·사회적 적응과 관련되는지를(자아존중감, 자아효능감, 우울 및 불안, 비행행동 등) 조사하였다(강명순, 2009; 김선미, 2006; 안수경, 2007; 윤영미·이완정, 2008; 이경립, 2007; 이상희, 2007; 이해경, 2007; 임춘희 외, 2010; 전해연, 2005 등).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의 만족도와 심리사회적 적응 등에 대한 조사결과를 보면, 대체로 지역아동센터를 오래 이용한 아동일수록 서비스 이용에 만족감을 느끼며 심리, 정서 등 우울과 비행등의 문제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예를 들어, 2007년 지역아동센터 아동에 대해 실시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지역아동센터를 1년 이상 이용한 아동들은 우울·불안 점수가 낮았고, 3년 이상 이용한 아동의 경우 비행점수가 낮은 것으로 나타나 지역아동센터가 예방적 아동복지시설로 기능하고 있음(보

건복지부, 부스르기사랑나눔회, 2007)을 보여준다. 이러한 결과는 2009년도 실시한 평가보고서에서도 유사한 결과를 보여 오래동안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한 아동일수록 정신건강상태 결과가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지역아동센터, 2009). 또한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아동의 서비스 만족도는 아동의 생활만족도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지역아동센터의 시설과 환경 및 서비스 만족도가 높은 아동은 행복감과 자아감의 높은 수준과 상관관계를 보였다(보건복지부·부스르기사랑나눔회, 2007)

임춘희 외(2010)연구에서 아동이 지각하는 지역아동센터 서비스 만족도가 어떻게 아동의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치는지 조사한 결과, 지역아동센터의 보호, 학습, 문화, 대인관계 등과 관련된 프로그램 및 서비스는 이를 3년 이상 장기간 이용하는 아동의 정신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고하였다. 구체적으로 보면, 특히 문화프로그램 만족도가 높을수록 아동의 우울·불안과 공격성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학습과 관련된 서비스 만족도는 자아존중감과 정적인 상관관계를 보였다. 이는 다양한 문화프로그램과 학습관련 서비스의 수준과 내용을 개선할 경우 아동의 건강한 성장·발달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지역아동센터를 통한 사회적지지(정서적지지, 정보적지지, 평가적지지, 물질적지지)가 빈곤아동의 학업성취와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결과를 보면(김현주, 2010), 가족유형과 지역아동센터 교사 만족도는 사회적 지지에 영향을 주고, 가족유형, 친구지지, 교사지지, 지역아동센터 교사에 대한 만족도, 지역아동센터 이용경험은 학업성취와 학교적응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

저소득층아동의 지역아동센터 이용은 자아존중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지역아동센터 이용 빈곤아동의 경우 자아존중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이훈·신혜중, 2008). 그러나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아동과 이용하지 않는 일반아동의 자아존중감을 조사한 연구에서는 일반아동에 비해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한 아동의 자아존중감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학업, 가정, 일반적 자아존중감 순으로 낮게 나타났다(김양이·박미란, 2007).

지역아동센터의 질적 수준과 이용아동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연령대 및 학년별로 특화된 프로그램의 필요성과 연령별 전용센터를 설치 운영해야 한다는 의견이 계속 제기되고 있다(유순향, 2005; 정익중 외, 2009). 또한 여러 학위논문에서 이용 아동의 적응양상과, 음악 및 미술치료와 같은 프로그램의 개입효과 등의 연구(이경립, 2007b; 김영호, 2007; 박계복, 2009; 지창완, 2009 등)를 통해 프로그램의 내용과 질적 수준이 지역아동센터의 효과성과 이용자의 만족도에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를 조사하고, 프로그램의 질적 향상을 위한 방안들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사업의 질적 측면에 주목하여 현재의 학습지도 수준의 보습교육과 단순 문화체험 프로그램 위주의 구성에서,

이제는 이용자인 아동과 가족, 지역사회를 포함하는 보다 개선된 형태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임정기 외, 2007).

미국의 After School Programs과 같은 방과후 돌봄 및 보육을 포함한 방과후 서비스에 대한 평가들은 다양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Poesner와 Vandell(1994)의 연구에 따르면 구조화된 공식적인(formal) 방과후 프로그램에 참여한 저소득층 가정의 아동들이 비공식적인 프로그램에 참여하거나 방과후 활동에 전혀 참여하지 않은 아동에 비해 학업성취와 사회적 적응에 더 긍정적인 결과를 보여주었다. 이는 특히 구조화된 공식적인 방과후 프로그램은 빈곤이 아동에게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경감시키는 보호요인으로의 역할을 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방과후 활동 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생들이 학업성취에 좋은 성과를 보이지만(Baker & Witt, 1996; Clark, 1998; Posner & Vandell, 1994 etc), 미술이나 여가활동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함께 제공할 때 학업성취에 더 좋은 결과를 가져오며, 이외에도 문제행동 감소, 사회성 및 의사소통기술의 개선, 자아존중감 등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보였으며, 잠재적인 범죄 및 일탈행동 예방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변종임 외, 2009 재인용). 비교적 최근 연구에서도 교육적, 경제적으로 취약한 청소년이 방과후 활동에 참여할 경우, 학교유대감 및 자아존중감 등이 향상되는 등(Dotterer, McHale, Crouter, 2007) 취약계층 청소년들에게 긍정적인 효과를 보여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방과후 활동참여는 아동·청소년들의 미래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영향을 나타냈는데, 방과후 활동에 참여한 청소년들은 높은 학업성취, 학업에 대한 긍정적 태도 및 높은 학업포부(Darling, Caldwell, & Smith, 2005)를 보였고, 또 방과후 활동에 참가한 고등학생들의 경우, 더 좋아진 학업성취와 더불어 대학진학에 도움이 되었다고 응답하였다(Heath, 1994). 이러한 연구결과는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긍정적인 결과와 일치하는 것으로서, 향후 지역아동센터가 저소득층을 포함한 취약계층 아동·청소년에게 어떠한 프로그램과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지를 알려주고 있다.

3) 지역아동센터의 서비스와 프로그램의 질적 수준 제고 필요성

지역아동센터가 지역사회 보호의 최전선에서 지역사회내의 취약계층 아동들 중심으로 안전하게 보호하고 건강한 성장발달을 도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고 또 그 성과를 보이고 있지만, 2004년도 895개소였던 지역아동센터가 2010년에는 3,585개소로 늘어나면서, 단시간에 양적으로 확대됨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제기되고 있다. 갑작스런 양적팽창으로 정부 및 지자체, 그리고 각 단체 및 협의회를 통한 관리·감독이 엄격하게 이루어지기 어렵게 되었고, 또 저소득층 아동·청소년에

게 제공되는 프로그램과 서비스 수준에 대한 문제제기와 더불어, 낮은 사업 효과성과 지역아동센터별 프로그램과 서비스질의 격차에 대한 지적이 있어 왔다(강명순 외, 2010; 윤경준 외, 2009; 정익중 외, 2009; 한국개발연구원 2009).

실제로, 가장 최근에 수행된 2010년도 전국지역아동센터 평가 결과(보건복지부, 2011)에 따르면, 가장 중요한 지역아동센터 프로그램의 질이 다른 영역에 비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지역아동센터의 서비스 질에 대한 관심 제고가 필요한 시점이다. 구체적으로 각 평가지표별로 보면, 이용 아동 및 출석분야(87.7점), 아동 문서관리 및 권리보장 평가결과(86.2점), 생활지원 프로그램(84.0점), 놀이 및 특별활동 프로그램(87.1점)등의 다른 항목에 비해 교육지원프로그램(81.1점)은 낮은 수준으로 평가되었다.

그 외에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아동과 부모의 욕구를 조사한 결과에서는 아동의 경우 컴퓨터나 스포츠 등 특기적성에 대한 프로그램 선호하고 있고, 부모는 학습지도에 대한 욕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난 것을 볼 때, 이 부분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사회복지공공모금회, 2006). 현재의 생활 및 학습지도, 상담정도의 서비스가 아닌, 아동과 청소년의 발달단계를 고려한, 아동과 학부모의 욕구에 기반한 프로그램 제공이 필요한데(김미숙, 2006), 지역아동센터의 전문성의 부족으로 아동과 학부모의 학습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킬 수 없음을 지적 받고 있다(윤경준 외, 2009).

2009년도에 지역아동센터에서 실시한 이용아동의 서비스만족도 및 평가결과를 보면, 전국 481개 지역의 5,864명의 이용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초등학생의 경우 보호와 문화관련 서비스 및 프로그램의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으며, 중학생은 아동 참여 인권, 고등학생은 친구대인관계의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었다. 그러나 급급과 관계없이 모든 대상자가 학습관련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가 가장 낮은 것으로 응답하고 있어(지역아동센터, 2009), 학습과 관련한 서비스 및 프로그램의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역아동센터의 2010년 운영주체를 살펴보면, 법인운영이 21%, 종교단체 운영이 17.7%를 차지하는 반면에 개인운영이 55.9%를 차지하고 있어 현실적으로 운영비 부족과 공공성확보 등에 있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는 평가결과에서도 잘 나타나 있다(보건복지부, 2011). 2010년도 평가결과(보건복지부, 2011)에서는 교육지원 프로그램, 놀이 및 특별활동(문화) 프로그램, 아동지원 프로그램의 경우 운영주체가 개인이거나 종교단체의 경우 법인이나 기타 단체의 경우보다 평가점수가 낮게 나타났는데, 이는 개인이 운영하는 센터의 아동은 낮은 수준의 서비스를 받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시설규모에 따른 프로그램 평가결과를 봐도 적은 인원수(10인 미만 시설)의 경우 프로그램 운영수준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 현재는 아동들이 시설규모, 여건에 따라 제공된

프로그램이나 서비스들을 이용할 수 밖에 없는 구조로서, 특히 규모가 작고 운영주체가 개인인 지역아동센터의 경우 제한된 프로그램을 제공할 확률이 높아 이용 아동, 즉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라고 보기 어렵다.

2010년 6월말 현재 폐쇄나 휴지 신고한 센터는 총 65개소로 보고되었는데, 비록 그 수가 적다고 해도 피해는 해당 지역 내 아동에게 고스란히 전가됨에 따라 현재의 지역아동센터의 운영방식은 아동중심의 서비스 제공에 한계가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더불어 지역아동센터의 열악한 운영여건(공간 및 설비, 인력에 대한 처우와 예산 부족)으로 인해 효과적인 아동보호 및 지원을 위한 서비스의 질에 대한 문제제기가 증가하고 있고, 지역간, 센터간 서비스의 질적 수준에 있어 편차가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임정기 외, 2007; 정익중 외, 2009). 따라서 지역아동센터는 이용 아동과 부모의 욕구에 맞는 양질의 프로그램을 준비하여 제공하는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 질 개선이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러한 평가결과는 저소득층아동의 학교적응과 학업성취, 더 나아가 인적자원 개발에 중요한 시사점을 주며, 학업성취를 포함한 역량개발의 부족은 결과적으로 이들의 성인기 social mobility를 제한하고 빈곤의 대물림 등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음을 보여준다.

4) 지역아동센터의 수요자중심 운영방식으로의 다양한 개선방향 모색

위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저소득층 아동과 부모의 다양한 필요와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제공되는 서비스와 프로그램 내용이 다양성과 질적 수준이 담보되지 않는다면, 결국 이들 아동·청소년들이 빈곤을 탈피하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한계가 있다. 따라서 현재의 운영주체의 규모와 역량에 제한을 받을 수 밖에 없는 공급자 중심의 서비스 제공에서, 취약계층 아동의 현재뿐 아니라 이들이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예, 인적 자본 배양, 개인역량 증진 등) 보다 발전된 형태의 서비스 내용과 질적 수준을 담보할 필요가 있다.

이처럼 지역아동센터의 서비스와 프로그램 질 개선에 대한 요구의 증가에 따라, 지역아동센터가 취약계층 아동의 건강한 성장·발달을 위한 통합적인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센터의 전문성 확보와 안정적인 운영을 통하여 지역사회의 모든 아동·청소년들이 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고 무엇보다 수요자인 아동의 욕구에 맞는 필요한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한다. 보다 질 높은 서비스의 필요성은, 지역아동센터가 취약계층 아동을 성인의 감독과 관리하에 늦은 시간까지 안전하게 잘 보호하고 급식을 제공하는 등 기본적인 생존권과 보호권을 확보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이 건강하게

성장·자립할 수 있도록 소질과 적성을 포함한 역량을 개발하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서의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균등한 기회를 가지도록 지원하는 데에 있다.

현재는 지역아동센터의 시설규모, 여건에 따라 제공된 프로그램이나 서비스들을 아동들이 선택권 없이 이용할 수 밖에 없는 시스템이며, 특히 규모가 작고, 운영주체가 개인인 지역아동센터의 경우 제한적인 내용과 수준의 프로그램을 제공할 확률이 높아, 이용 아동, 즉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가 충분히 제공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또한 기존의 서비스가 빈곤 결식아동과 맞벌이가정 취약아동의 방과후 보호를 중심으로 한 긴급구호적 성격의 서비스였다면, 이제는 모든 아동·청소년을 포괄하는 예방적, 보편적 서비스로 발전되어야 할 필요가 있으며(이용 아동의 우선순위에 취약계층 아동 배려가 필요하지만), 특히 보호가 필요한 맞벌이 가정의 일반 아동·청소년의 이용가능성을 높일 수 있도록 높은 질의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어야 빈곤아동 청소년의 문제를 제대로 해결할 수 있고 낙인의 문제도 벗어날 수 있다(정익중 외, 2009). 이를 위하여 지역아동센터는 인력의 전문화와 양질의 프로그램을 준비하여 이용아동들의 수요에 맞는 프로그램을 선택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 질 개선이 필요하다.

이와 더불어 지역아동센터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한 수요자의 선택권을 보장하고, 국·공립 직영 및 위탁으로 일정 시설과 인력조건을 충족하는 시설에서 양질의, 표준화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지역아동센터의 공공성 확보와, 재정효율화를 꾀할 수 있도록 현재의 지역아동센터의 운영 및 지원방식의 변화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각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현재의 정부지원이 충분하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제한된 예산이지만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도록 효율적으로 사용할 필요성이 있으며, 또한 지역아동센터에 직접적으로 지원되는 현재의 운영비 지원방식이 수요자의 선택권을 보장하면서 예산사용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꾀할 수 있는 바우처 제도와 같은 새로운 지원방식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바우처 제도는 대부분의 예산부족을 겪고 있는 지역아동센터의 입장에서는 서비스와 프로그램의 경쟁까지 불러올 수 있어 센터 운영에 더욱 어려움을 호소할 수 있다. 그러나 이미 아이사랑카드(i-sarang 카드)와 같은 사회복지 서비스나 방과후 학교의 자유수강권 같은 제도가 실시되고 있고, 또 그 반응이 긍정적인 것을 고려할 때,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 및 가족 등 수요자 입장에서 유사한 지원수준에서 최대한 좋은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방식을 선호할 수 있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는 지역아동센터의 향후 발전을 위한 다양한 방향성을 모색하고자 하며, 구체적으로는 가능한 균등한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국·공립 지역아동센터의 운영모델을 개발하고, 다양한 재원조달 방식의 모색을 위해 이용료의 수요자부담방식 모델 및 바우처 제도

도입 등에 대해 연구하고자 한다. 이러한 수요자 중심의 지역아동센터의 서비스 발전방향을 기초로, 지역아동센터가 취약계층을 포함한 지역사회 내 아동·청소년들이 향후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역량개발 및 자립기반을 조성할 수 있도록 기여하고자 한다.

2. 연구내용

1) 국·공립 직영 및 위탁 지역아동센터 모델 연구

안정적인 시설운영과 표준화되고, 질적 수준이 담보된 서비스 제공으로 지역사회간 프로그램과 서비스 수준의 편차 없이 아동·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역량증진을 위한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이 국·공립 직영 및 위탁 지역아동센터 모델을 연구하고자 한다.

○ 민간과 국·공립 지역아동센터의 운영실태 비교

- 민간, 국·공립 지역아동센터의 재정상태(수입·지출 특성), 운영 프로그램, 지역·민간 자원연계 등을 비교·분석
- 국내외 유사 방과후 돌봄 서비스의 운영사례

○ 국·공립 직영 또는 위탁 지역아동센터의 표준모델 연구

- 국·공립 직영·위탁 지역아동센터로의 전환을 위해 필요한 법적, 제도적 개선사항과 적정운영비를 위한 소요예산(인건비, 사업비, 관리비 등을 포함한 기존 센터의 지정 및 신규설립을 위한 초기비용과 운영비 등), 시설기준과 운영방법 등 연구
- 지역사회 내 국·공립 직영 및 위탁 센터로서의 공간적 배치와 분포, 설립 및 지정에 대한 지역사회 내 수요 파악
- 지역별 특성(대도시, 중소도시, 농·산·어촌)에 따른 차별화된 지역아동센터의 역할과 해당 지역특성과 여건을 고려한 국·공립 지역아동센터의 배치와 운영방안 모색

2) 수요자부담방식의 지역아동센터 도입방안 연구

맞벌이 가정을 포함한 일반가정 아동의 지역아동센터 이용 확대에 따른, 지역아동센터와 또 이용하는 저소득 및 취약계층 아동들에 대한 낙인을 감소하고, 일반아동이용에 따른 이용료 부담 가능성을 모색함으로써 제한된 재정을 보완하고, 양질의 서비스 및 프로그램 제공을 위한 방안으로 수요자부담

가능성을 다음과 같이 모색해 보고자 한다.

○ 유사 방과후 돌봄서비스 운영실태 비교

- 정부지원예산과 수요자부담방식을 혼합하여 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아동보육시설인 어린이집을 포함하여, 저소득계층을 포함한 일부 아동·청소년을 제외하고 수요자가 이용료를 부담하여 운영되고 있는 방과후 학교와 같은 유사 사례에 대한 운영실태를 비교분석하여 지역아동센터의 수요자부담방안과 관련한 시사점을 찾고자 함.

○ 수요자부담방식의 지역아동센터 도입방안 연구

- 소요예산 및 적정이용료 산정, 수요자가 부담하는 경비 산정을 포함한 예산 운영방법, 법적제도적 보완사항 등 연구

3) 지역아동센터의 바우처 제도 도입 가능성 검토

기존 지역아동센터의 시설규모 및 인력조건에 따른 제한적 서비스 제공이 아닌, 센터 이용 아동·청소년과 부모가 서비스 선택권을 갖는 수요자 중심의 지역아동센터 운영과 더불어 재정효율화를 꾀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으로 바우처 제도 도입 가능성을 다음과 같이 연구 한다.

○ 국내·외 유사 서비스의 바우처 제도 사례 연구

- 외국(child care와 after school programs에서의 vouchers 제도, family co-payments 등) 및 국내사례(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제도, 특히 보육시설에서 사용되는 i-사랑카드, 방과후 학교 자유수강권 제도를 중심으로) 연구

○ 지역아동센터 바우처 도입 시 고려할 개선사항 마련

- ① 바우처 단가 결정기준을 포함한 법적·제도적 보완사항, ② 이용대상자 선정 및 예산추계 연구, ③ 바우처 적용 시 소득대비 참여가능 가정 및 예산의 적정성(이용료 산정 등), ④ 바우처 운영시스템에 따른 예산추계 등

3. 연구방법

본 연구에서는 지역아동센터의 향후 발전방향모색이라는 중요한 이슈를 다루고 있어 가능한 다양한 관계자들로부터 최대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문헌연구외에, 센터장 심층면접,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학부모대상 초점집단인터뷰, 전문가의견조사, 학계 및 현장전문가 의견조사, 센터장 설문조사, 지역아동센터 관련 단체 및 협의회 간담회, 자문회의 등의 다양한 채널을 활용하고자 하였다.

무엇보다 심층면접이나 초점집단인터뷰를 통해 본 연구 내용과 관련한 이슈들을 탐색하였고, 이를 기초로 센터장 설문지와 학부모 조사지를 개발하여 현실적인 중요 쟁점들이 조사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였다. 특히 심층면접, FGI, 전문가의견조사, 그리고 설문조사 등 다양한 조사방법을 통해 취합된 조사결과를 상호 비교·분석을 통해, 특정 조사결과가 아닌 다양한 의견들이 연구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였다.

○ 연구방법 개요

표 I-2 연구방법 개요

구분	조사방법
문헌연구	국내외 사례조사
센터장조사	심층면접 (11개 센터) 전국의 지역아동센터 대상 설문조사(이메일조사), 총 424개 설문지 취합
센터이용 학부모조사	학부모 FGI (3집단/15명) 통해 의견수렴
일반학부모조사	설문조사 실시(전화조사, 맞벌이 가정 포함 529명조사)
학계 및 현장전문가 의견조사	전문가의견조사(약 20여명) 실시
6개 단체 및 협의회장 의견수렴	간담회 통해 수렴

1) 문헌 연구

본 연구를 위해 국내외의 지역아동센터를 포함한 유사 방과후 돌봄 서비스의 관련 문헌을 검토 분석하며, 특히, 국·공립 직영 및 위탁 지역아동센터 운영 모델, 수요자부담(예, family co-payments)이나 바우처 제도(예, 자유수강권) 등의 재정지원방식에 대한 국내·외 사례를 검토하여 지역아동센터 적용 시 그 시사점을 찾고자 한다.

2) 지역아동센터 방문 및 센터장 심층인터뷰

- 전국의 11개 공립 및 민간 지역아동센터를 방문하여 센터운영과 지역사회 특성 및 타 유사돌봄 서비스에 관한 현황 등에 대해 조사하고, 센터장 및 관계자 심층면접을 실시(<표 I-3>)
- 시립이나 구립의 성격을 지닌 공립 지역아동센터는 가능한 전수조사 실시하기 위해 노력하였으며,

민간지역아동센터의 경우는 서울과 경기도, 그리고 부산광역시와 광주광역시를 중심으로 이루어 졌다

표 I-3 지역아동센터장 심층인터뷰 현황

구분	지역아동센터명	지역	특징
국립, 시설지원 포함	A 지역아동센터	경기도	지자체 시에서 운영비 전액 지원 (자체 법인 건물·시설 사용)
	B 지역아동센터	경기도	건물만 자치구에서 지원
	C 지역아동센터	울산	다문화아동 다수 돌봄(건물만 자치구에서 지원)
	D 지역아동센터	울산	농촌특성 (건물만 자치구에서 지원)
	E 지역아동센터	인천	건물과 운영비 일부를 자치구에서 지원
	F 지역아동센터	전북	건물과 운영비 일부를 자치구에서 지원
민간	G 지역아동센터	광주	학습관련프로그램 다수 운영
	H 지역아동센터	광주	1318 happy zone 청소년전용 센터
	I 지역아동센터	부산	아동·청소년 비슷한 비율로 돌봄
	J 지역아동센터	서울	일부청소년포함 돌봄
	K 지역아동센터	인천	장애아 집중 돌봄(통합프로그램 운영)
	L 지역아동센터 협의회	서울	취학전 아동과 학년기 아동, 청소년 모두 돌봄서비스 제공

- 지역아동센터방문 및 센터장과 관계자와의 심층인터뷰를 통해 지역아동센터의 타 유사방과후 서비스(방과후 학교, 방과후 돌봄교실 등)와의 차별성과, 국·공립 직영 및 위탁 지역아동센터의 운영 확대 및 기능과 역할, 지역아동센터 이용에 있어서의 수요자부담방식 및 바우처 제도에 대한 인식과 이와 같은 새로운 제도 도입에 관련된 의견 조사

3) 지역아동센터이용 학부모에 대한 FGI(초점집단인터뷰) 실시

- 지역아동센터에 자녀를 보내는 학부모들에 대한 초점집단인터뷰 통해 지역아동센터 이용에 대한 만족도와 타 유사방과후 서비스 이용 여부 및 차별성, 국·공립 직영 및 위탁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인식, 일반가정 아동·청소년(예, 맞벌이 가정)의 지역아동센터 이용에 대한 의견과 수요자 부담방식 및 바우처 제도에 대한 인식과 이와 같은 새로운 제도 도입에 관련된 의견 조사 실시
- 지역아동센터 이용 학부모 FGI 실시
 - 가능한 다양한 부모의 의견을 듣기 위하여 서울, 부산, 광주 세 지역의 학부모들 총 15명을

대상으로 3회에 걸쳐 FGI를 실시하여 의견을 수렴함.

표 I-4 지역아동센터 이용 학부모 FGI 실시 현황

지역	학부모 연령	성별	센터이용 아동 수	이용 자녀 연령	교급 및 학년	가정의 특성	센터외 이용하는 방과후서비스
서울	38세	여	2명	13세, 10세	초등 저학년 1명, 초등 고학년 1명	모자 및 저소득가정	방과후학교, 방과후아카데미, 교과목 학원
	54세	남	1명	10세	초등 저학년 1명	부자가정 및 기초생활	방과후학교
	40세	여	1명	10세	초등 저학년 1명	모자 및 저소득가정	-
	33세	남	2명	9세, 6세	미취학아동 1명, 초등 저학년 1명	부자 및 기초생활	방과후학교, 특기적성 교육 학원
	43세	여	2명	12세, 10세	초등 고학년 1명, 초등 저학년 1명	일반부모가정 및 저소득	방과후학교
부산	36세	여	2명	8세, 11세	초등 저학년 1명, 초등 고학년 1명	차상위	방과후학교
	42세	남	1명	16세	초등 고학년 1명, 중학생 1명	부자가정 및 기초생활	-
	노년층	여	2명	11세, 13세	초등 고학년 2명	조손 및 다문화가정	방과후학교
	42세	여	2명	9세, 14세	초등 저학년 1명, 중학생 1명	기초생활	방과후학교
	44세	여	1명	7세	미취학 1명	모자가정 및 기초생활	-
광주	44세	여	1명	14세	중학생 1명	일반 가정	-
	46세	여	2명	12세, 14세	초등 고학년 1명, 중학생 1명	차상위	-
	43세	여	2명	10세	초등 저학년	일반 가정	방과후학교
	41세	여	2명	10세, 13세	초등 저학년, 초등 고학년	일반부모가정 및 저소득	-
	40세	여	2명	9세, 15세	초등 저학년, 중학생	일반부모가정 및 차상위	교과목 학습학원

4) 전문가 의견조사

- 지역아동센터의 국·공립 직영·위탁 운영, 수요자부담방식 및 바우처 제도 도입과 관련하여 정책담당자, 학계 및 현장전문가 19명을 대상으로 전문가 의견조사를 실시함. (조사지는

부록에 첨부)

표 I-5 전문가 의견조사 개요

조사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동복지 및 지역아동센터를 포함한 아동복지 관련 시설 학계 전문가 ○ 지역아동센터와 유사한 방과 후 서비스 기관 관련 학계 전문가 ○ 관계 부처 공무원 및 지방자치단체 담당자 (지역아동센터 포함 방과후 서비스 관련 사업 담당) ○ 지역아동센터 협의회 6개 단체장·현장 실무자
조사방법	○ 반 구조화된 조사지(안)를 이용한 방문 면접 및 우편조사, Email조사 방법 등 활용
조사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아동센터 운영 일반에 관한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아동센터의 정체성, 유사 방과후 돌봄서비스와의 중복성 및 차별성, 재정지원방식에 대한 의견, 프로그램 및 서비스 수준과 보완 내용 등 ○ 지역아동센터의 국·공립 직영 또는 위탁 운영에 대한 의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공립 지역아동센터 확대 설치 필요, 국·공립센터의 기능과 역할, 운영방식, 이용대상 및 시설규모, 시설장 필요성 및 종사자 수와 자격요건 등 ○ 지역아동센터 이용대상 확대와 이용료부담 관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아동센터의 이용대상 확대(일반아동) 및 이에 따른 이용료 부담에 대한 의견, 현재 이용료의 적절성, 이용료 부담 가능가구 소득수준, 정규시간외 센터이용과 이용료 부담, 개별 프로그램 및 서비스 단위별 이용자 부담, 전문화·특성화된 이용자 부담 프로그램, 건설 재정운영방안, 민간100% 지역아동센터 운영 등 ○ 지역아동센터와 바우처 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바우처 제도 도입에 대한 장단점 등 의견, 개별 프로그램 단위별 바우처 제도 도입 가능성, 바우처제도 위한 기관간 연계가능성, 정부의 직접방식과 바우처 제도를 혼합한 운영방식 등

5) 지역아동센터 시설장 및 일반 학부모 대상 설문조사

- 지역아동센터장과 일반 학부모를 대상으로 국·공립 지역아동센터 설립, 수요자부담방식의 지역아동센터 이용 및 이용료 부담, 바우처 제도에 대한 의견조사
- 지역아동센터 시설장 설문 조사
 - ▶ 설문조사지는 앞서 센터장 현장인터뷰와 학부모 FGI, 전문가의견조사 등 사전 질적조사를 통해 탐색·도출한 내용을 근거로 하여, 해당 내용을 설문조사지 개발에 반영하여 양적 데이터를 취합하고자 하였음(조사지는 부록에 첨부).

표 I-6 지역아동센터장 설문조사 개요

구 분	내 용
조사목적	- 센터운영방식변화에 있어 가장 큰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지역아동센터장들을 대상으로, 센터의 국·공립운영방식, 수요자부담방식, 바우처 제도 등에 대한 의견을 수렴함.
조사방법	- 현재 지역아동센터 중앙지원단 이메일리스트를 활용하여 전국 3천 8백여 개소의 센터에 이메일 설문지를 발송하였으며, 그중 약 11%에 해당하는 424개의 설문지가 분석에 활용 됨*.
조사내용	- 국·공립센터 운영에 대한 인식 및 의견 · 필요성 및 선호도, 도입가능성, 도입방식 - 지역아동센터의 수요자부담방식으로의 운영 가능성 · 수요자부담방식에 대한 인식, 수요자부담방식이 가능성, 발생가능한 문제점들 등 - 수요자의 선택권을 위한 바우처 제도 도입 가능성에 대한 인식 · 바우처 제도에 대한 인지도, 바우처 제도의 필요성 및 선호도, 바우처 제도 도입의 장·단점, 선결사항 등

※ 지역아동센터 시설장 조사결과를 전체 지역아동센터 시설장의 의견으로 일반화할 수 없으며, 시설장 면접조사와 전문가의견조사 결과들과 함께 비교·검토할 필요가 있음.

▶ 설문조사에 응한 지역아동센터의 일반적 특징

조사에 응한 지역아동센터의 특징을 보면, 지역규모별로는 비교적 고른 분포를 보였으며, 센터 운영주체를 보면, 개인운영이 61.4%로서 전체 지역아동센터의 운영주체인 56%보다 약간 더 높은 수준이었으나 큰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다. 운영기간별로 보면, 2년 미만의 최근에 개소한 곳은 15.7%가 조사에 응답했으며, 5년이상 상대적으로 오랜기간 운영해온 센터가 가장 높은 비율인 약 45%인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에 응한 센터들이 약 78%는 저소득층 거주 지역에 위치해 있었으며, 이용료를 징수한다고 응답한 센터는 10%미만이었다.

표 I-7 설문조사에 응한 지역아동센터의 일반적 특징

구분		빈도	비율(%)
지역규모 (N=423)	대도시(7대도시)	152	35.9
	중소도시(동)	140	33.1
	읍면지역(동산어촌)	131	31.0
민간시설 운영주체 (N=412)	법인	69	16.7
	종교법인	73	17.7

공립 및 시립 지원형태 (N=7)	개인	253	61.4
	기타	17	4.1
	부분지원	3	42.9
운영기간 (N=414)	전체지원	4	57.1
	2년미만	65	15.7
	2년~5년미만	163	39.4
	5년이상	186	44.9
센터가 위치한 지역사회 경제수준 (N=421)	저소득층 거주 지역	327	77.7
	중간수준·중간이상 거주 지역	94	22.3
이용료징수여부 (N=418)	그렇다	40	9.6
	그렇지 않다	378	0.4

※ 항목별 결측치로 인해 전체 N이 일치하지 않음.

○ 일반 학부모 조사

▶ 일반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전화조사의 목적 및 방법, 조사내용은 아래 <표 I-8>과 같으며, 조사지는 부록에 첨부되었음.

표 I-8 일반 학부모 전화조사 개요

구 분	내 용
조사목적	-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인식과 프로그램과 서비스에 대한 이용가능성(수요자부담) 및 부담가능한 이용료, 바우처 제도에 대한 인식 등 조사
조사방법	- 지역규모(대도시, 중소도시, 읍면), 자녀 학교급(초등학교 저학년, 고학년, 중학생)과 맞벌이가정을 할당 표집하여 총 519명 전화 조사
조사내용	- 방과후 서비스 이용 현황 -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인지도 및 이용가능성 여부 - 지역아동센터 이용의향이 없는 경우 그 이유 - 국·공립 및 민간센터에 대한 선호도 - 센터 선택 시 주요 기준, 이용료부담 수준 및 정도 - 바우처 제도에 대한 인식

▶ 조사대상 학부모의 일반적 특징

조사대상자의 성별을 보면, 남자학부모가 전체의 36%, 여자의 경우 64%로, 여성학부모의 비율이 많았다. 자녀의 연령을 초등학교 고학년과 중학생으로 한정하였기 때문에 부모의 연령이 40대가 가장 많은 62%였고, 30대는 30%였다. 중소도시의 학부모 비율이 48%였으며, 대도시 거주 학부모는

약 36%, 읍면도시거주 학부모는 16%였다.

자녀학년별로 할당하여 부모 조사하는 것을 전제로 하였기 때문에 자녀연령이 초등학교 저학년과 고학년, 중학생인 비율은 거의 유사하게 나타났으며, 맞벌이 가정의 학부모는 61%였다. 대부분이 양쪽부모가 모두 있는 가정이었고, 한부모가정은 3.7%로 총 19명이었다. 부모학력을 보면 대졸이상인 부모는 60%였고, 고등학교 졸업은 36.4%였다. 경제적으로 중간이라고 응답한 부모는 약 66%였으며, 낮은 편이라는 응답은 약 23%, 높은 편이라는 응답은 11%였다.

표 I-9 조사대상 학부모의 일반적 특징

구분		빈도(N=519)	%
성별	남자	187	36.0
	여자	332	64.0
부모연령	30대	156	30.1
	40대	323	62.2
	50대	40	7.7
지역규모	대도시	186	35.8
	중소도시	250	48.2
	읍면지역	83	16.0
자녀학년	초등학교 1~3학년	171	32.9
	초등학교 4~6학년	170	32.8
	중학생	178	34.3
맞벌이여부	그렇다	317	61.1
	아니다	202	38.9
가정특성	양쪽부모가정	497	95.8
	한부모가정	19	3.7
	다문화가정	3	0.6
부모학력	중졸이하	15	2.9
	고졸	189	36.4
	대졸이상	312	60.1
	모름/무응답	3	0.6
경제상황	높은 편	57	11.0
	중간	342	65.9
	낮은 편	119	22.9
	모름/무응답	1	0.2

○ 시·도 공무원 및 관련 기관 관계자, 지역아동센터 단체장 간담회 개최

6) 자문회의 및 간담회 개최

○ 방과후 돌봄서비스의 국·공립모델, 수요자부담 모델과 바우처 사업 모형 등과 관련한 각 전문분야의 전문가로 자문위원단을 구성하여 연구내용 및 절차에 대해 수시 자문

제 2 장

국·공립 지역아동센터 연구

1. 이론적 배경
2. 국내외 사례 고찰
3. 국·공립 지역아동센터의 운영실태
사례 연구
4. 조사결과
5. 요약 및 제언
6. 국·공립 지역아동 센터의 표준모델
개발(안)

제 2 장 국·공립 지역아동센터 표준모델 방안

1. 국·공립 지역아동센터의 필요성

국·공립 지역아동센터 모델개발의 필요성은 다음 몇 가지에서 찾을 수 있다.

첫째, 지역아동센터의 법적 개념에서 찾을 수 있다. 아동복지법상 지역아동센터는 “지역사회의 아동의 보호·교육, 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 보호자와 지역사회의 연계 등 아동의 건전육성을 위하여 종합적인 아동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이다. 아동복지법 제16조 제1항의 제11호에 명백하게 규정된 지역아동센터의 기능이다.

하지만 현재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아동은 보호와 교육이 필요한 모든 아동이 아니고,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 속한 아동, 조손가족, 다문화가정의 아동 등 극히 일부에 불과하고, 지역아동센터가 제공하는 서비스도 “종합적인 아동복지서비스”와는 거리가 멀다.

지역아동센터가 법적으로 규정된 “지역사회 아동의 보호·교육, 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 보호자와 지역사회의 연계 등 아동의 건전육성을 위하여 종합적인 아동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로 발전되기 위해서는 법에 규정된 사명을 수행할 수 있도록 ‘국·공립 지역아동센터’의 모델을 개발해야 한다.

둘째, 지역아동센터의 질적 성숙을 위해서 꼭 필요하다. 지역아동센터는 아동복지법상 다른 아동복지시설에 비교할 때 공공성이 낮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도 미흡하다. 아동복지시설 중에서 가장 오래된 아동양육시설은 운영자의 기준, 시설과 설비기준, 인력기준, 사업에 대한 기준이 아동복지법과 시행령, 혹은 시행규칙과 지침에 의해서 표준화되어 있다.

하지만 지역아동센터는 정원당 최소 시설규모, 시설장과 직원의 기준만 정해져 있고, 그 기준조차도 다른 아동복지시설의 기준에 비교할 때 턱없이 낮은 수준이다.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은 다른 아동복지시설에 비교하여 턱없이 낮아서, 지역아동센터의 공공성을 확보하기 어렵다.

지역아동센터의 질적 성숙을 위해서는 기존 아동복지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준하는 기준을 새롭게 만들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지역아동센터의 운영을 민간에만 거의 전적으로 의존해서는 안되며 ‘국·공립 지역아동센터’의 표준모델을 만들어야 한다.

셋째, 방과후에 방입된 아동의 바른 성장을 위해서 꼭 필요하다. 현재 지역아동센터에서 보호·교육을 받는 아동은 전국에 10여명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최근 여성가족부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방과후에 하루 1시간 이상 보호자 없이 방입된 아동이 30만명에 이른다.

방입된 아동은 혼자 지내면서 컴퓨터 게임에 몰입하거나, 각종 안전사고, 유괴, 성추행 등 안전에 무방비 상태에 놓여있다. 따라서 방과후에 방입되기 쉬운 아동의 바른 성장을 위해서는 지역사회에서 보호·교육 등을 포함하여 종합적인 아동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아동센터를 증설할 필요가 있다. 현재 10만여명을 돌보기 위해서 설치된 지역아동센터가 3천8백여개소이면, 나머지 30만명을 돌보기 위해서 추가로 1만개소 이상의 지역아동센터가 필요하게 된다. 이러한 일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국·공립 지역아동센터’의 설치와 운영 등 보다 공적인 개입이 절실하다. 새마을유아원에서 시작된 영유아보육사업이 1991년 영유아보육법의 제정을 계기로 하여 새롭게 제도화 되었듯이, 이제는 지역아동센터의 법적 위상을 재정립해야 할 시기가 도래되었다.

넷째, 지역아동센터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적절하게 부담하기 위해서 국공립성격의 지역아동센터가 꼭 필요하다. 현재 지역아동센터들은 지방자치단체에 의해 설치되었건 민간에 의해 설치되었건 모두 거의 같은 수준으로 지원받고 있다. 일부 지역아동센터는 일반 아동에게 약간의 이용료를 받고 있지만, 전체 운영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낮다.

이용대상과 상관없이 지역아동센터의 운영비를 전액 무료로 해서는 지역아동센터를 보편적 서비스로 발전시키기 어렵고, 영유아보육서비스에서 보는 바와 같이 모든 아동복지 서비스를 무상으로 할 필요는 없다. 예를 들어 지역아동센터에서 제공하는 표준 아동복지서비스와 그 비용을 정하고, 부모의 소득수준별로 이용료 전액부담, 이용료 부분부담 그리고 무료로 차등화 시키면 모든 아동이 욕구에 따른 서비스를 받고 가정의 경제수준에 따라 비용분담이 가능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지역아동센터의 표준 이용료를 책정하고, 중앙정부, 지방정부, 가정(아동)의 책임을 분담하기 위한 모델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국·공립 지역아동센터의 모델’을 개발하고, 적절한 분담 기준을 마련하면, 수요자부담방식의 ‘민간 지역아동센터의 모델’개발에도 기여할 수 있다.

2. 국내의 사례 고찰

1) 국내사례 : 국·공립보육시설

국·공립시설은 대표적인 공보육 시설로서 중앙 및 지방 정부가 설치 주체이며 정부로부터 인건비를 지원받고 있다는 점에서 현재 민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는 지역아동센터의 국·공립지역아동의 표준모델을 개발하는데 있어 가장 유사한 사례로 벤치마킹할 수 있다. 따라서 ‘2011년도 보육사업안 내’(2011, 보건복지부)와 국·공립보육시설 확충을 위한 우선설치지역 선정의 탐색적 연구(2009, 보건복지부)의 내용 중 (1) 국·공립보육시설 현황, (2) 국·공립보육시설의 기능, (3) 국·공립보육시설 설립, (4) 시설의 위탁운영 (국·공립보육시설 위탁체 선정관리 권장표준안), (5) 보육료 수납, (6) 보육시설종사자 보수기준, (7) 보육시설 종사자 자격, (8) 보육시설의 설치기준과 (9) 국·공립보육시설 확충을 위한 우선설치지역 선정방안 등을 소개하고 이를 참고로 하여 국·공립지역아동센터 표준모델을 개발하고자 한다.

(1) 국·공립보육시설 현황

가. 연도별 국·공립보육시설 수 변화 추이

2010년 12월 현재를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국·공립보육시설은 전국 2,034개소로, 이는 전체 보육시설 38,021개소의 5.3%에 불과하다(보건복지가족부 2010. 10, 표준보육행정시스템 보육통계). 이는 1990년대 후반 늘어나는 보육 수요에 부응하기 위하여 실시한 정부의 보육시설 확충 노력이 국·공립 부분보다는 민간 부분의 확충을 중심으로 상대적으로 크게 이루어진 까닭이다. 즉 전체 보육시설의 수는 급격히 증가하였지만, 민간부분에 비해 국·공립보육시설이 이를 따라가지 못해 생긴 현상이다.

표 II-1 시설유형별 보육시설의 증가추이

단위: 개소

연도	총계	국·공립	법인	민간			부모 협동	가정	직장
				소계	법인외	개인			
1990	1,191	360	—	39	—	—	—	1,500	20
1995	9,085	1,029	928	3,197	22	3,175	—	3,844	87
2000	19,276	1,295	2,010	9,294	324	8,970	—	6,473	204
2005	28,367	1,473	1,495	13,748	979	12,760	42	11,346	263
2006	29,223	1,643	1,475	13,930	1,066	12,864	59	11,828	298
2007	30,856	1,748	1,460	14,083	1,002	13,081	61	13,184	320
2008	33,499	1,826	1,458	14,275	969	13,306	65	15,525	350
2009	35,550	1,917	1,470	14,368	935	13,433	66	17,359	370
2010	38,021	2,034	1,468	14,667	888	13,789	74	19,367	401

출처: 보건복지부(2010.12). 표준보육행정시스템 보육통계.

나. 국·공립보육시설 정원충족률

국·공립보육시설의 정원 대비 현원 비율을 나타내는 정원충족률은 <표 II-2>와 같이 민간보육시설에 비해 높은 수치를 나타내고 있다.

표 II-2 보육시설 유형별 시설수 및 이용 아동수

단위: 개소, 명, %

유형	시설수	시설 접유율	정원	현원	이용아동 비율	정원 충족률	평균정원
국·공립	2,034	5.3	153,792	137,604	10.8	89.5	75.6
법인	1,468	3.9	143,842	114,054	8.9	79.3	98.0
법인외	888	2.3	62,698	51,126	4.0	81.5	70.6
민간개인	13,789	36.3	828,035	671,891	52.5	81.1	60.1
직장	401	1.1	28,316	21,910	1.7	77.3	70.6
가정	19,367	50.9	337,900	281,436	22.0	83.3	17.4
부모협동	74	0.2	2,226	1,898	0.1	85.3	30.1
전체	38,021	100.0	1,556,809	1,279,919	100.0	82.2	40.9

출처: 보건복지부(2010.12). 표준보육행정시스템 보육통계.

전체 보육시설의 정원충족률은 2010년 10월 현재 82.2%인데 반해, 국·공립보육시설의 정원충족률은 89.5%로 더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 특히 국·공립보육시설의 경우 평균 정원이 다른 보육시설에 비해 높은 편임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이 높은 정원충족률을 보이는 점은 국·공립시설에 대한 수요가 크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2) 국·공립보육시설의 기능

국·공립보육시설은 중앙 및 지방 정부가 설치 주체이고, 정부로부터 인건비를 지원받는 시설이라는 점에서 민간 보육시설과는 다른 부가적인 기능을 수행해야 한다는 논의가 있어왔다. 이러한 측면에서 국·공립보육시설이 부가적으로 수행해야 할 기능을 발굴하고 이를 추진하기 위한 연구가 수행되고 있다.

국·공립보육시설이 민간시설이 하기 어려운 부가적 기능을 수행해야 한다는 논의의 법적 근거는 영유아보육법 12조, 26조, 28조에서 찾을 수 있다.

법에서 규정하는 ‘취약지역’과 ‘취약보육’, ‘취약계층’의 범위는 달라질 수 있다고 하더라도, 국·공립보육시설이 민간 시설이 설치되기 어려운 취약지역에 확충되어야 하며, 보편적인 보육을 지향하더라도 취약한 계층의 아동에 대해 우선적으로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 다양한 형태의 취약보육을 제공해야 한다는 국·공립보육시설의 기능은 매우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지난 2006년 여성가족부에서는 육아정책 현안 관계부처 회의에서 국·공립보육시설의 발전방안을 제시하는 데 있어서 (1) 지역내 보육정보센터로서의 역할모델기능부여, (2) 육아정보제공 및 육아상담, 놀이공간제공, 아동대상 교재·교구 대여 등 지역사회와 밀착될 수 있는 지역 연계프로그램 운영, (3) 평가인증 조력 및 표준보육프로그램 제공 등 보육서비스 질 제고, (4) 민간보육시설 원장 및 교사 교육과 연수를 통한 민간보육 선도, (5) 영아보육, 장애아보육, 방과후 보육 등 민간보육이 기피하는 취약보육서비스 우선 제공이라는 다섯 가지의 추진 방향을 정립한 바 있다. 이에 근거하여 이상의 기능을 수행하는 국·공립보육시설을 거점형 국·공립보육시설이라고 명명하고, 시도별로 거점형 시설을 지정하여 시범 운영하는 계획을 수립하였다. 이 때 제시된 거점형 시설의 주요 기능으로는 부모 대상의 교육 및 상담, 지역내 어린이집 원장 및 교사 교육 연수, 취약보육서비스 제공 강화, 육아데이 시범 실시 및 지역 연계 프로그램 운영 등을 제안하였다.

이 내용은 국·공립보육시설이 일반적인 보육을 보편적으로 실시하는 것 외에 민간시설과는 차별화되는 기능으로서 민간보육시설이 수행하기 어려운 취약보육을 제공하고 또한 지역사회 거점시설로서 타 보육시설에 역할모델 기능을 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다.

국·공립보육시설의 기능을 상기한 두 가지 방향으로 강화하기 위한 기본 방향으로서 ‘사업대상의 포괄성’, ‘지원의 충분성 및 지역사회 자원의 효율화’, ‘국·공립보육시설 기능 수행의 다양성’을 제안하고, 국·공립보육시설의 강화되어야 할 기능 유형을 다음의 네 가지로 제안하였다.

첫째, 영아보육장애아보육방과후보육처럼 보육 서비스의 대상을 확대하고, 서비스 시간 측면에서 기존 보육시간을 벗어난 시간까지, 즉 시간연장보육휴일보육24시간보육, 시간제보육 등 다양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취약보육 제공형’이다.

둘째, 발달상의 어려움을 겪거나 보육시설에 적응이 어려운 아동에 대한 ‘아동지원 사업’, 특수한 욕구를 가진 아동 또는 가족을 대상으로 개별적인 서비스로 제공되는 ‘가족지원사업’, 지역사회 자원을 개발하여 보육시설과 지역사회간의 연계체제를 형성하도록 하는 ‘지역사회 관련사업’, 사회복지적 관점에서 보육교사 자신의 안녕과 복지를 위한 지원을 하는 ‘보육시설 및 종사자사업’ 등 크게 네 가지 영역의 사업을 포괄적으로 진행하는 ‘포괄적 서비스 제공형’이다.

셋째, 지역사회의 보육시설에 종사하는 시설장과 보육교사에게 연수 또는 교육 제공, 보육시설 운영 지원, 보육시설에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는 물작인적 자원 네트워크를 구축해 이를 필요로 하는 시설에 제공·이용하게 하는 ‘지역사회내 보육시설 지원형’이다.

넷째, 시설 이용 아동과 가족뿐 아니라 지역 내에서 자녀를 양육하는 일반가정을 대상으로 자녀양육 정보를 제공하거나, 자녀와 부모가 공동으로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의 운영, 자녀 놀이공간 제공, 부모 모임을 위한 공간 제공 등 국·공립보육시설이 지역사회 후원 기능을 강화하는 ‘지역내 가정의 자녀양육 지원형’이다.

(3) 국·공립 보육시설 설립

가. 정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위탁운영포함)하는 시설 중에서 직장보육 시설을 제외한 시설(법¹⁾제10조)을 의미한다.

나. 규모 및 명칭

규모는 상시 영유아 11인 이상을 보육할 수 있는 시설(시행규칙 제9조)이어야 하고, 보육시설의 명칭은 “○○어린이집”으로 한다.(시행규칙 제 23조)

다. 설치절차

1) 이 지침에서 ‘법’이라 함은 [영유아 보육법]을 말하며 ‘시행령’은 [영유아 보육법 시행령], ‘시행규칙’은 [영유아 보육법 시행규칙]을 의미함.

첫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가절차 없이 직접 설치하되, 보육시설 수급계획 등을 포함한 보육계획을 사전에 수립(법 제12조)해야 한다. 둘째, 영유아보육법상의 설치기준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법 제15조). 셋째,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설치 시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라. 배치기준

저소득층 밀집지역 및 농어촌지역 등 취약지역과 보육시설이 부족한 지역에 우선적으로 설치하는 등 지역별로 균형있게 배치한다(법 제12조).

(4) 시설의 위탁운영 (국·공립보육시설 위탁체 선정관리 권장표준안)

가. 주요목적

보육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위탁체를 선정,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시설 운영으로 보육사업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국공립보육시설의 위탁과 관련한 공통된 기준을 마련, 적용하도록 권장함으로써 전국적인 통일성과 형평성을 확보하고 위탁체 선정의 객관성과 공정성, 투명성을 도모하고자 한다.

나. 기본방향

첫째, 합리적인 선정기준 및 선정과정의 객관적 절차운영으로 최적의 운영체 를 선정한다. 이를 위해 운영체의 수탁능력과 자격을 엄정히 검증하여 심사의 타당성 및 신뢰성 극대화하고, 선정기준의 객관화로 심사위원의 자의적 심사 방지 및 공정성을 확보하고, 선정기준 및 그 절차의 표준안을 제시함으로써 행정업무 효율성 제고한다. 둘째, 위탁기준과 절차 및 심의결과의 공개로 공정성 및 투명성 제고한다. 셋째, 운영체 및 시설장 등의 전문성 및 시설운영능력은 면접실시로 심층 검증한다.

다. 기본원칙

첫째, 적용대상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설치운영 중이거나, 신규로 설립 예정인 보육시설 중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국·공립보육시설이다.

둘째, 선정시기와 관련해서는 신축시설의 신규위탁 경우 개원예정일 6개월 이전, 재위탁의 경우 계약만료일 3개월 이전 심사결정, 변경위탁은 2개월 이전에 선정을 완료한다. 위탁체를 조기에 선정, 내실 있는 프로그램 운영과 시설의 효율적 관리를 도모한다. 규모가 크거나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이 필요한 경우, 설계단계에서 위탁체를 선정할 수 있다.

셋째, 선정방법 및 결과공개와 관련해서는 신규위탁 및 변경위탁은 반드시 공개경쟁으로 하고 재위탁은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결정한다. 위탁관련 일체의 절차 및 방법을 공개하고,

위탁업무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위해 심의결과를 공개한다.

표 II-3 국·공립 보육시설 위탁제(신규·변경) 공통심사 기준표

심사항목	총점	세부항목	배점	비고
합계	100			
1. 운영체의 공신력	10	도덕적·법적 공신력 - 법적 건전성 및 지도점검 지적사항·민원발생에 대한 처리실태 - 운영 목적이 위탁대상 시설과의 적정성 여부	10 8 6	
2. 운영체의 시설운영실적	10	- 운영체의 복지 및 보육관련 사업운영실적 - 복지 및 보육관련 지역사회 기여도	10 8 6	
3. 운영체의 대표 및 시설장 전문성	35	- 평가인증참여여부	10 8 6	· 참여하여 통과 · 참여(중) · 미참여
		- 보육 등 아동복지 업무경력	10 8 6	· 10년 이상 · 5년 이상~10년 미만 · 3년 이상~5년 미만
		- 보육관련 표창 또는 연구실적 - 공모사업 수상실적	5 4 3	· 표창 또는 연구실적 유·무 · 보육관련 공모사업 수상실적
		- 보육사업에 대한 열의 및 태도 - 운영의지 - 향후 발전계획	10 8 6	· 소견발표로 운영능력 종합평가
		- 보육사업계획	20 16 12	· 표준보육과정에 따른 보육사업계획 · 보육지침에 표기된 법령과 관련한 보육활동 계획 · 취약보육 운영계획 등
4. 보육시설 운영계획	40	- 보육시설 운영 및 관리에 관한 계획 및 평가계획	10 8 6	· 전반적 시설운영 및 관리에 관한 계획 및 평가계획
		- 예산의 적절성	10 8 6	· 세입·세출에 대한 예산편성의 적절성
5. 운영체의 재정능력	5	- 운영체의 자산 및 부채현황	5 4 3	

- 위원별 배점결과, 최고·최저 점수를 제외한 평균점수가 가장 높은 운영체를 위탁선정함. 단, 평균점수는 소수점 이하 두자리 수까지 계산하고 70점 이상으로 함.
- 동점자인 경우 심사항목 중 시설장의 전문성, 지역사회 기여도, 보육시설 운영계획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함.

넷째, 위탁기간은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실정과 여건에 따라 조례로 정하되,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 23조 제2항을 참조하여 그 기간은 5년 이내로 하고 시설의 일관되고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가급적 위탁기간은 3년 이상을 권고한다.

다섯째, 운영체(법인·단체·개인) 신청자격과 관련해서는 사회복지법인, 단체 또는 개인이 신청 가능한데, 시설규모 등을 감안하여 보육시설 운영경험 법인단체로 제한가능하다. 운영체의 시설장은 [영유아보육법] 제21조 제1항 및 [영유아보육법시행령] 제21조 규정에 따른 시설장 자격이 있는 자로 한다.

여섯째, 운영조건은 신규 및 변경위탁, 재위탁 심사시 [영유아보육법] 제26조에 따른 취약보육(영아·장애아시각연장다문화아동 보육) 중 2개 이상 실시를 전제로 한다. 취약보육을 2개이상 실시하지 못할 경우, 지역여건 등을 감안하여 보육수요조사를 실시 후 그 적용여부를 보육정책위원회에서 결정한다.

(5) 보육료 수납

가. 기본원칙

- 정부지원시설을 이용하는 영유아의 보육료는 시설유형에 관계없이 정부지원시설 보육료 지원단가 범위 내에서 수납 ※단, 24시간 보육료는 시·도지사가 정한 보육료 수납한도액 범위 내에서 수납
- 정부미지원시설을 이용하는 법정저소득층 및 장애아동 보육료는 정부지원단가 범위 내에서 수납 ※ 단, 24시간 보육료는 시·도지사가 정한 보육료 수납한도액 범위 내에서 수납 ※ 지방자치단체는 여건에 따라 정부미지원시설 이용 법정저소득층의 보육료 차액(시·도지사가 고시한 수납한도액에 따른 보육시설 실수납액과 정부지원단가의 차이)을 지원할 수 있음.
- 보육료를 제외한 여타 잡부금품 수납은 원칙적으로 금지. 다만 입소료, 현장학습비 등 불가피한 필요경비는 당해 시·도지사가 정한 수납한도액의 범위 내에서 수납
 - 보육료 내역 : 종사자인건비, 교재교구비, 급식비 1회, 간식비 2회, 관리운영비(난방비,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사무용품비 등)
- 아동이 입소 또는 퇴소할 때 보육시설이 부모로부터 수납하는 보육료는 '일할계산'에 의하여 수납
 - 입소 시 입소일로부터 입소한 날 말일까지 모두 출석한 것으로 간주하여 부모부담 보육료 수납

- 퇴소 시 퇴소한 달 1일부터 퇴소일까지 모두 출석한 것으로 간주하여 부모부담보육료 수납
 - 입소한 달에 퇴소하는 경우 입소한 날부터 퇴소한 날까지 모두 출석한 것으로 간주하여 부모부담보육료 수납
- 부모부담 보육료 수납
- 아동이 결석하더라도 부모부담보육료를 일할계산하여 수납하지 않으며 월 보육료 수납 가능
 - 다만, 아이사랑카드로 결제하는 경우 구간결제가 적용되므로 아이사랑카드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나머지 금액은 부모에게 별도로 수납가능

표 II-4 정부지원시설 보육료 수납액 (단위: 원)

지원여부	지원구분	지원자격	연령	정부지원보육료	부모부담보육료
보육료 지원아동	만0-4세 보육료	영유아	만0세	394,000	0
			만1세	347,000	0
			만2세	286,000	0
			만3세	197,000	0
			만4세	177,000	0
	만5세아 보육료	만5세아	만5세	177,000	0
	장애아 무상보육료	장애아	구분없음	394,000	0
	다문화 보육료	다문화	만0세	394,000	0
			만1세	347,000	0
			만2세	286,000	0
			만3세	197,000	0
			만4세	177,000	0
보육료 미지원 아동	일반아동	-	만0세	0	394,000
			만1세	0	347,000
			만2세	0	286,000
			만3세	0	197,000
			만4세	0	177,000
			만5세	0	177,000

- 보육료 지원아동의 경우 아동의 출석일수 미달로 정부지원 보육료를 100% 지원받지 못하는 경우 미지급 금액을 부모와 협의하여 부모로부터 수납할 수 있음.

<참고: 아이사랑카드 출석일수별 구간결제 수납>

- 출석일수가 11일 이상 : 월 부모부담보육료 총액의 100%
- 출석일수가 6-10일 : 월 부모부담보육료 총액의 50%

· 출석일수가 5일 이하 : 월 부모부담보육료 총액의 25%

표 II-5 정부미지원시설 보육료 수납액 (단위: 원)

지원여부	지원구분	지원자격	연령	정부지원보육료	부모부담보육료
보육료 지원아동	만0-4세 보육료	영유아	만0세	394,000	0
			만1세	347,000	0
			만2세	286,000	0
			만3세	197,000	시·도지사가 정한 수납한도액 내에서 보육시설이 결정한 보육료 수납액과의 차액
			만4세	177,000	
	만5세아 보육료	만5세아	만5세	177,000	
	장애아 무상보육료	장애아	구분없음	394,000	0
	다문화 보육료	다문화	만0세	394,000	0
			만1세	347,000	0
			만2세	286,000	0
			만3세	197,000	시·도지사가 정한 수납한도액 내에서 보육시설이 결정한 보육료 수납액과의 차액
			만4세	177,000	
보육료 미지원 아동	일반아동	-	만5세	177,000	보육료 수납액과의 차액
			만0세	0	394,000
			만1세	0	347,000
			만2세	0	286,000
			만3세	0	시·도지사가 정한 수납한도액 내에서 보육시설이 결정한 보육료 수납액 전액
			만4세	0	
			만5세	0	

※ 정부미지원시설 유아반(만3세이상) 아동은 시·도지사 수납한도내에서 보육시설이 결정한 보육료 수납액을 부모가 부담하며, 보육료를 정부에서 지원받는 경우는 해당 보육시설 보유 RFY 수납액과 정부지원보육료의 차액만큼을 부모가 부담 단, 정부지원대상 영아(만0세-2세아)는 차액부담이 없으며, 유아(만3세이상)의 경우라도 법정정소득총과 장애아동은 부모부담 없음.

(6) 보육시설종사자 보수기준

보육시설종사자의 보수기준은 보육교사 등의 호봉, 근무성적과 시설의 운영여건 및 [2011년도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급기준]을 참고하여 다음의 종사자를 구분하여 지급하되, 종사자 자격기준 이외의 종사자(사무원, 사회복무요원, 도우미 등)는 별도기준을 정하여 적용한다.

가. 시설장 : 원장

나. 보육교사 : 간호사, 영양사, 특수교사, 치료사를 포함

다. 취사부 : 조리원

표 II -6 2011년도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급기준 (단위: 원)

호봉	시설장		보육교사		취사부	
	보수총액	월지급액	보수총액	월지급액	보수총액	월지급액
1	20,171,400	1,680,950	16,707,360	1,392,280	13,723,440	1,143,620
2	20,716,440	1,726,370	17,191,200	1,432,600	14,127,720	1,177,310
3	21,392,640	1,782,720	17,721,480	1,476,790	14,704,440	1,225,370
4	22,032,960	1,836,080	18,278,040	1,523,170	15,010,800	1,250,900
5	22,679,040	1,889,920	18,839,520	1,569,960	15,341,280	1,278,440
6	24,102,000	2,008,500	20,134,080	1,677,840	16,037,760	1,336,480
7	24,954,840	2,079,570	20,987,400	1,748,950	16,739,400	1,394,950
8	25,512,120	2,126,010	21,371,280	1,780,940	17,013,960	1,417,830
9	26,248,080	2,187,340	21,954,840	1,829,570	17,574,120	1,464,510
10	26,990,880	2,249,240	22,587,120	1,882,260	18,117,240	1,509,770
11	27,923,280	2,326,940	23,407,920	1,950,660	18,848,520	1,570,710
12	28,738,320	2,394,860	24,112,800	2,009,400	19,487,280	1,623,940
13	29,355,000	2,446,250	24,729,720	2,060,810	20,016,000	1,668,000
14	30,015,840	2,501,320	25,280,160	2,106,680	20,566,560	1,713,880
15	30,676,560	2,556,380	25,830,960	2,152,580	21,095,280	1,757,940
16	31,520,520	2,626,710	26,608,680	2,217,390	21,807,000	1,817,250
17	32,159,280	2,679,940	27,181,440	2,265,120	22,335,600	1,861,300
18	32,864,160	2,738,680	27,754,200	2,312,850	22,886,280	1,907,190
19	33,547,080	2,795,590	28,326,840	2,360,570	23,415,000	1,951,250
20	34,141,680	2,845,140	28,899,480	2,408,290	23,965,440	1,997,120
21	35,146,800	2,928,900	29,838,480	2,486,540	24,838,560	2,069,880
22	35,807,640	2,983,970	30,411,240	2,534,270	25,345,200	2,112,100
23	36,402,240	3,033,520	30,918,000	2,576,500	25,851,720	2,154,310
24	36,996,960	3,083,080	31,490,640	2,624,220	26,336,280	2,194,690
25	37,657,920	3,138,160	32,019,120	2,668,260	26,864,880	2,238,740
26	38,274,480	3,189,540	32,547,720	2,712,310	27,349,560	2,279,130
27	38,847,240	3,237,270	33,010,200	2,750,850	27,768,120	2,314,010
28	39,441,960	3,286,830	33,516,840	2,793,070	28,252,680	2,354,390
29	39,992,520	3,332,710	34,067,400	2,838,950	28,715,160	2,392,930
30	40,609,320	3,384,110	34,552,080	2,879,340	29,199,720	2,433,310

(7) 보육시설 종사자 자격

(보육시설의 장과 보육교사의 자격기준(제21조 관련))

가. 보육시설의 장의 자격기준

가) 일반기준

- ① 보육교사 1급 자격을 취득한 후 2년 이상의 보육 등 아동복지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
- ②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정교사 2급 자격을 취득한 후 5년 이상의 보육 등 아동복지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
- ③ 유치원 원장의 자격을 가진 사람
- ④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초등학교 정교사 자격을 취득한 후 5년 이상의 보육 등 아동복지업무에 경력이 있는 사람
- ⑤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1급자격을 취득한 후 5년 이상의 보육 등 아동복지업무경력이 있는 사람
- ⑥ 의료법에 따른 간호사 면허를 취득한 후 7년 이상의 보육 등 아동복지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
- ⑦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7급 이상의 공무원으로 보육 등 아동복지업무에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나) 가정보육시설

- ① 일반기준에서 정한 자격을 갖춘 사람
- ② 보육교사 2급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후 2년 이상의 보육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

다) 영아 전담 보육시설 : 만3세 미만의 영아만을 20명 이상 보육하는 시설

- ① 일반기준에서 정한 자격을 갖춘 사람
- ② 간호사 면허를 취득한 후 5년 이상의 아동간호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

라) 장애아 전담 보육시설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으로 등록된 영유아만을 20명 이상 보육하는 시설. 일반기준에서 정한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① 대학(전문대학 포함)에서 장애인복지 및 재활관련 학과를 전공한 사람
- ② 장애아 보육시설에서 2년 이상의 보육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
- ③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장애아보육직무교육을 받은 사람

마)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전문대학포함) 또는 법 제21조제2항제2호에 따른 교육훈련시설이 운영(위탁 또는 부설 운영을 말한다)하는 보육시설. 보육시설을 운영하는 대학의 전임강사 또는 교육훈련시설의 전임교수 이상으로서 보육관련 교과목에 대하여 3년 이상의 교육경력이

있는 사람

나. 보육교사의 등급별 자격기준

표 II-7 보육교사 등급별 자격기준

등급	자격기준
보육교사 1급	가. 보육교사 2급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의 보육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승급교육을 받은 사람 나. 보육교사 2급 자격을 취득한 후 보육 관련 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하고 1년 이상의 보육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승급교 육을 받은 사람
보육교사 2급	가. 전문대학 또는 이와 같은 수준이상의 학교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보육 관련 교과목 및 학점을 이수하고 졸업한 사람 나. 보육교사 3급 자격을 취득한 후 1년 이상의 보육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승급교육을 받은 사람
보육교사 3급	고등학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를 졸업한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 로 정하는 교육훈련시설에서 정해진 교육과정을 수료한 사람

※ 비고

1. “보육 등 아동복지업무 경력”이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력을 말한다.
가.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보육시설 또는 보육정보센터에서 근무한 경력
나.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에서 근무한 경력
다.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에서 근무한 경력
라.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영유아 생활시설에서 장애인아동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한 경력
마. 「유아교육법」 및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특수학교(유치원 및 초등학교 과정)에서 특수학교
교원으로 근무한 경력
바. 법률 제7120호 유아교육법 제정으로 폐지되기 전 「유아교육진흥법」에 따른 새마을 유아원에
서 근무한 경력
사. 가목부터 바목까지의 아동복지업무를 수행하는 시설 등에서 간호사로 근무한 경력
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7급 이상의 공무원으로 보육 등 아동복지에 관한 행정업무에 종사
한 경력
2. “보육업무 경력”이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력을 말한다.
가.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보육시설 또는 보육정보센터에서 근무한 경력
나. 「유아교육법」에 따른 종일제 유치원에서 원장, 원감, 교사로 근무한 경력
3. “아동간호업무 경력”이란 병원의 소아청소년과나 신생아실, 보건소 모자보건센터, 초등학교 보건
실 등에서 근무한 경력을 말한다.

(8) 보육시설의 설치기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개정 2011.4.7>제9조 관련)

가. 어린이집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1.6.7, 2011.8.4>

- ① 국·공립어린이집: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
- ②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이하 “사회복지법인”이라
한다)이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
- ③ 법인·단체등 어린이집: 각종 법인(사회복지법인을 제외한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등이 설치·운
영하는 어린이집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린이집
- ④ 직장어린이집: 사업주가 사업장의 근로자를 위하여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국가나 지방자치
단체의 장이 소속 공무원을 위하여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을 포함)
- ⑤ 가정어린이집: 개인이 가정이나 그에 준하는 곳에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
- ⑥ 부모협동어린이집: 보호자들이 조합을 결성하여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
- ⑦ 민간어린이집: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어린이집

나. 보육시설의 입지조건

- ① 보육시설은 보육수요·보건·위생·급수·안전·교통·환경 및 교통편의 등을 충분히 고려하
여 쾌적한 환경을 갖춘 부지를 선정하여야 한다.
- ② 보육시설은 위험시설로부터 50m 이상 떨어진 곳에 위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험시설이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3항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 ③ 보육시설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라 각 보육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곳에 설치한다.
다만, 영유아 20명 이하를 보육하는 직장보육시설, 부모 협동보육시설 및 국·공립보육시설(제
40조 제1항에 따른 지역에 설치된 보육시설로서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시장·
군수·구청장이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국·공립보육시설만 해당)은 가정보육시설
을 설치할 수 있는 곳에도 설치할 수 있다.

다. 보육시설의 규모

보육시설은 다음의 인원을 보육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정원은 총 300명을 초과할
수 없다.

- ① 국·공립보육시설 : 상시 영유아 11명 이상

- ② 직장보육시설 : 상시 영유아 5명 이상
- ③ 법인보육시설 및 민간보육시설 : 상시 영유아 21명 이상
- ④ 가정보육시설 : 상시 영유아 5명이상 20명 이하
- ⑤ 부모협동보육시설 : 보육 영유아를 둔 보호자 15명 이상의 출자 및 상시 영유아 11명 이상

라. 보육시설의 구조 및 설비기준

- ① 보육시설의 구조 및 설비는 그 시설을 이용하는 영유아의 특성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 ② 보육시설에는 다음의 설비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육실을 포함한 시설면적(놀이터 면적은 제외)은 영유아 1명당 4.29제곱미터 이상으로 한다. 보육실, 조리실, 목욕실, 화장실, 놀이터, 급배수시설, 비상재해 대비시설 등 설치

(9) 국·공립보육시설 확충을 위한 우선설치지역 선정방안

민간보육시설의 이용 아동수는 보육 3개년 확충사업 등의 일환으로 국민연금기금을 활용한 민간 보육시설 설치 및 기능보강 사업추진, 차등보육료 및 기본보조금의 재정지원 확대 등의 정부시책에 힘입어 1,500명에서 669,465명으로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한 반면, 국·공립보육시설 이용 아동수는 같은 기간 25,000명에서 123,405명으로 그 증가량이 민간보육시설 이용 아동수와 비교하여 볼 때 매우 미미한 수준이다(보건복지가족부 2009b).

이에 정부는 보육 중장기계획인 「새싹플랜」을 통해 국·공립시설수를 2005년 1,352개소에서 2010년까지 2,700개소로 2배로 확충하고 향후 보육시설 이용아동의 20% 수준까지 국·공립보육시설을 이용하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한 바 있으며,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인 「새로마지플랜 2010」에서도 중장기적으로 국·공립보육시설 이용 아동수를 총 보육시설 이용 아동수 대비 30%수준으로 확충하는 것을 계획하는 등 공공보육기반 조성을 주요 정책 과제로 삼아왔다.

영유아보육법 제12조에 따르면 국·공립보육시설이 도시 저소득주민 밀집 주거지역 및 농어촌지역 등 취약지역에 우선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시설로 명시되어 있어, 국·공립보육시설 우선설치지역 선정은 이 두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먼저 접근성이 보육인프라의 핵심인 농·산·어촌지역은 보육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지역을 보육취약지역으로 보았으며, 이들 보육취약지역 중 영유아수가 80명 이상이며 유치원이 설치되지 않은 지역을 최우선설치지역으로 하였다. 그리고 영유아수가 80명 이상이며 유치원 중 사립유치원은 설치되었으나 공립유치원은 없는 지역을 그 다음 우선설치지역으로, 공립유치원이 설치가 되어

있더라도 지역 내 영유아수가 80명 이상이면 다음 순위로 국·공립보육시설이 설치되어야 할 지역으로 보았다. 반면 보육취약지역 중 영유아수가 80명 미만인 경우는 우선설치지역에서 제외하되, 도서지역에 해당하거나 보육취약지역이 권역을 형성한 경우는 인구수를 고려하여 부분적으로 우선설치지역에 포함하였다.

표 II-8 농산어촌 보육취약지역 및 우선설치지역 선정 결과

유치원 설치 여부	영유아수 (0세~만5세)	보육취약 지역 수	우선설치 지역 수	설치 시 우선순위
A. 유치원 미설치	A-1. 80명 이상	5	5	1
	A-2. 80명 미만	21	5	2
B. 사립유치원 설치 및 공립 유치원 미설치	B-1. 80명 이상	1	1	3
	B-2. 80명 미만	1	0	-
C. 공립유치원 설치	C-1. 80명 이상	131	131	4
	C-2. 80명 미만	297	20	5
계		456	162	

한편 저소득층 비율이 높은 도시지역에서는 지역 내 수급아동 비율이 전국의 도시지역 중 상위 30%에 해당하는 동을 우선설치지역으로 보았다. 이 외에 동별로 지역 내 아동수 대비 보육시설 이용아동수 비율, 지역 내 보육시설의 정원충족률, 그리고 지역 내 보육시설 수 대비 국·공립보육시설 수 비율을 고려하여, 각각의 수치를 전국의 평균과 비교하였다. 이에 보육인프라가 가장 취약한 지역은 보육시설 이용아동비율이 평균 미만, 정원충족률은 평균 이상, 국·공립보육시설 설치율은 평균 미만인 지역으로 보고, 이들을 최우선설치지역으로 선정하였다. 그리고 보육시설 이용아동비율이 평균 미만, 정원충족률은 평균 미만, 국·공립보육시설 설치율은 평균 미만인 지역을 우선설치지역으로 보았다. 다음으로는 보육시설 이용아동비율이 평균 이상, 정원충족률은 평균 이상, 국·공립보육시설은 설치되지 않은 지역을 우선설치지역에 포함하였으며, 마지막으로 보육시설 이용아동비율이 평균 이상, 정원충족률은 평균 미만, 국·공립 보육시설은 설치되지 않은 지역을 우선설치지역에 포함하였다. 이 때 수급아동 비율 순위에 따라 차등을 두어 우선설치지역 기준에 해당하는 지역 중 최종 선정지역을 확정하였다.

표 II-9 도시 보육취약지역 및 우선설치지역 선정 결과

보육시설 이용아동 비율	정원충족률	국·공립보육시설 설치율	수급아동 비율	보육취약 지역 수	우선설치 지역 수	설치 시 우선순위
A. 37.7% 미만	A-1. 81.4%이상	A-1-1. 8.8%이상	상위10%	4	—	—
			상위20%	8	—	—
			상위30%	11	—	—
		A-1-2. 0%초과~8.8% 미만	상위10%	—	—	1
			상위20%	—	—	1
			상위30%	—	—	1
		A-1-3. 0%	상위10%	14	14	1
			상위20%	15	15	1
			상위30%	21	21	1
	A-2. 81.4%미만	A-2-1. 8.8%이상	상위10%	11	—	—
			상위20%	6	—	—
			상위30%	6	—	—
		A-2-2. 0%초과~8.8% 미만	상위10%	—	—	—
			상위20%	—	—	—
			상위30%	—	—	—
		A-2-3. 0%	상위10%	26	26	2
			상위20%	27	27	2
			상위30%	25	25	2
B. 37.7% 이상	B-1. 81.4%이상	B-1-1. 8.8%이상	상위10%	33	—	—
			상위20%	36	—	—
			상위30%	42	—	—
		B-1-2. 0%초과~8.8% 미만	상위10%	—	—	—
			상위20%	4	—	—
			상위30%	2	—	—
		B-1-3. 0%	상위10%	32	32	3
			상위20%	40	40	3
			상위30%	47	—	—
	B-2. 81.4%미만	B-2-1. 8.8%이상	상위10%	25	—	—
			상위20%	21	—	—
			상위30%	10	—	—
		B-2-2. 0%초과~8.8% 미만	상위10%	—	—	—
			상위20%	5	—	—
			상위30%	4	—	—
		B-2-3. 0%	상위10%	43	43	4
			상위20%	28	—	—
			상위30%	25	—	—
계				571	243	

2) 국외사례 : 일본의 아동관²⁾

(1) 아동관의 법적 지위와 역사

자녀수 감소 및 가족규모의 축소, 지역사회관계의 약화 등 사회환경이 변화하는 가운데 자녀양육의 고립화와 부담감이 증가하고 있다. 자녀양육스트레스와 사회로부터의 고립감 및 소외감을 가진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한 일본의 아동관은 지역사회의 자녀양육지원의 거점으로서 현재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

아동관은 「아동에게 건전한 놀이를 제공하여 그 건강을 증진하고, 또한 정서를 풍부하게 하는 것을 목적」(아동복지법 40조)으로 하는 아동복지시설이다. 아동복지법상 아동후생시설의 하나로 분류되고 있다. 아동후생시설에는 전문직원으로서 「아동의 놀이를 지도하는 자」(아동후생원)를 두고, 아동에게 놀이를 지도하고 더불어 모친클럽, 지역아동회 등의 지역조직활동의 거점으로서의 기능을 하고 있다(千葉茂明, 2007: 135).

아동복지시설이라는 근거법상의 규정에서 알 수 있듯이 건전육성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이라는 점에서 「아동복지정책 중 원조와 지원영역으로 분류되는 복지정책이라기 보다는 문화교육정책과 같은 특이한 영역」(西郷泰之, 2007: 150)으로 인식되고 있다.

역사적으로 볼 때 아동관과 같은 활동은 인보관(settlement)의 아동클럽에서 그 원형을 찾을 수 있다. 인보관은 메이지(明治)말기 시작되어, 다이쇼(大正), 쇼와(昭和)에 걸쳐 주로 대도시에서 발달하였으며, 아동들에게 놀이를 통하여 집단적, 개별적으로 지도를 실시하는 기관이었다.

1948년에 아동복지법이 시행되어, 아동관은 법률적으로 근거를 가지게 되었으며, 지역에서 아동의 여가활동의 거점으로서 불특정다수의 아동에 대하여 건전한 놀이를 제공하고 건전육성활동을 하는 장소로 인식되기 시작하였다(http://ja.wikipedia.org).

1951년에는 「아동후생시설운영요강」이 후생성(현 후생노동성)아동국에 의해 편성되어 아동관 운영에 대한 기본방침이 제정되었다. 아동관의 발전에 있어서 획기적인 요인이 된 것은 1963년에 시정촌(市町村)이 세운 아동관에 대하여 설비 및 운영비가 국고보조화 되었다는 것이다(古川孝順・田澤あけみ, 2008: 153).

이후 아동관은 지역의 아동건전육성의 거점으로써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여 왔지만 각 가정의 자녀수가 감소되면서 2007년도부터 가까운 장소에서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가 편안하게 모여 상담과

2) 정일교(가톨릭상지대학 사회복지학과 교수) 집필

교류가 가능 하도록 「지역아동지원거점사업」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지역아동지원거점사업」은 일본 정부가 지금까지 지역에서 자녀양육 지원을 충실히 하기 위한 정책이다. 보육시설에서 육아불안에 대한 전문적인 상담을 할 수 있는 지역자녀양육지원센터사업과 광장사업에 의해 자녀양육지원거점사업을 추진한 것이다. 이에 더 나아가 2007년부터 아동관의 활용을 포함한 새로운 지역자녀양육지원거점사업(광장형, 센터형, 아동관형)으로서 재편한 사업을 말한다. 이 「지역아동지원거점사업」은 인근지역에서 부모와 자녀가 모여 상담과 교류를 할 수 있도록 모든 중학교내에 설치(전국 10,000개소)할 것을 목표로 확충하고 있다 (<http://www.city.osaka.lg.jp>).

(2) 아동관의 주요 사업

아동관은 18세미만의 모든 아동을 대상으로 놀이 및 생활의 원조와 지역사회에서 자녀양육지원을 하며, 아동의 심신을 모두 건강하게 육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① 아동관의 기능과 역할

가. 발달의 증진

아동과 장기적이고 지속적으로 관계를 맺으며 놀이와 생활을 통해 아동발달의 증진을 도모한다.

나. 일상생활의 지원

아동놀이의 거점과 안식처로서 필요에 따라 가정과 지역의 자녀양육환경을 조정함으로써 아동의 안정된 일상생활을 지원한다.

다. 문제발생예방·조기발견과 대응

아동과 자녀양육가정에게 일어날 수 있는 문제의 발생을 예방하고, 조기발견을 위해 전문기관과 연계하여 적절히 대응한다.

라. 자녀양육가정의 지원

자녀양육가정에게 상담과 원조를 하고, 자녀양육의 교류장소를 제공하며, 지역의 자녀양육가정을 지원한다.

마. 지역조직활동의 육성

지역의 조직활동을 육성, 지원하고, 아동의 성장에 관한 조직 네트워크의 중심이 되어 지역의 아동을 건전하게 육성하는 거점으로서 역할을 한다(후생노동성 고용균등아동가정국장발 0331제9호 별지, pp. 1, 2011. 3.31.).

② 아동관의 활동내용

가. 놀이에 의한 아동의 육성

아동에게는 놀이가 생활 중에 커다란 부분을 차지하며 놀이 속에는 아동을 발달시키는 중요한 요소가 포함되어 있다. 이를 기반으로 아동이 놀이를 통해 심신의 건강을 증진하고 지적·사회적 능력을 높이며 정서를 풍요하게 하도록 원조한다. 또한 아동들끼리 같은 연령과 다른 연령집단을 형성하고 다양한 활동을 자발적으로 할 수 있도록 원조한다.

나. 아동의 안식처 제공

아동이 안심하고 안전하게 있을 곳을 제공한다. 또한 아동의 자발적인 활동을 존중하고 필요에 따라 원조한다.

다. 보호자의 자녀양육지원

아동과 그 보호자가 자유롭게 교류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하며, 아동발달상 과제에 대하여 가법계 상담할 수 있도록 자녀양육을 지원하고 보호자가 폭넓게 지역의 사람들과 관계를 갖도록 지원한다.

아동학대예방으로써 보호자의 자녀양육불안과 관련하여 관계기관과 협력하고 지속적으로 지원한다. 지역주민과 NPO(Non-Profit Organization/비영리단체), 관계기관과 연계하고 협력하는 등 자녀양육에 관한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자녀양육이 수월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한다.

라. 아동이 의견을 제기할 수 있는 기회의 제공

아동관의 활동과 지역행사에 아동이 참여하여 자유롭게 의견을 이야기할 수 있도록 배려한다. 아동들이 이야기할 수 있는 장소를 계획적으로 설계하고, 중학생고등학생이중심이 되어 아동끼리의 역할분담을 지원하는 등 스스로 활동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원조한다. 나아가 아동의 자발적 활동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아동의 관점과 의견이 아동관의 운영 및 지역활동에 반영되도록 노력한다.

마. 지역의 건전육성 환경만들기

아동관의 활동내용 등을 홍보하고 지역의 여러 아동의 육성활동에 협력하는 등 아동관 활동에 관한 이해와 협력을 얻도록 노력한다. 지역 아동의 건전육성을 추진하는 아동복지시설로써 지역조직활동 등의 협력을 얻어가면서 그 기능을 발휘하도록 노력한다.

바. 자원봉사자의 육성과 활동

아동관을 이용하는 아동이 자원봉사자 지도자로서 동료와 적극적으로 관계하는 가운데 조직적으로 활동하고 아동관과 지역사회에서 자발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 이들 아동이 자원봉사자로서 잘 활동할 수 있도록 육성·원조하고 성인이 되어도 아동관과 연결이 지속될 수 있도록 한다. 지역주민이 자원봉사자로서 아동관의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장소를 제공한다.

사. 방과후 아동클럽의 실시

아동관에서 방과후 아동클럽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방과후 아동 클럽 가이드라인에 기초하여 실시하도록 노력하고 아동관이 갖는 기능을 살리도록 노력한다. 특히 아동관에 오는 아동과 방과후 아동클럽에 속해있는 아동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놀이와 활동을 배려한다. 또한 방과후 아동클럽활동은 아동관내로만 제한하지 말고 가까운 지역의 환경도 활용한다.

나아가 아동관에서의 활동에 근린지역 방과후 아동클럽의 아동이 참가할 수 있도록 연계하기도 하고 공동으로 행사를 할 수 있도록 배려한다.

아. 배려가 필요한 아동에 대한 대응

장애에 관계없이 아동이 서로 협력하면서 활동할 수 있도록 활동내용과 환경에 대하여 배려한다. 가정과 친구관계에 고민과 문제가 있는 아동에게는 가정과 학교 등과 연락을 하며 적절한 지원을 하고 아동관이 안심할 수 있는 안식처가 되도록 배려한다. 아동의 모습에서 학대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신속하게 시정촌 등에 통보를 하며 그 대응에 협의한다(후생노동성 고용균등아동가정국장발 0331제9호 별지, 「아동관가이드라인」, pp. 1-3, 2011.3.31.).

(3) 아동관의 유형

아동관은 규모와 기능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류할 수 있다, 운영의 주체는 소형아동관아동센터는 시구정촌(市区町村)、대형아동관은 도도부현(都道府縣)과 지정도시(指定都市)이다. 2008년 10월 1일 현재 전국에 4,689개소가 있으며 운영주체별로는 공영이 3,022개소, 민영이 1,667개소가 있다. 시설종별로는 소형아동관이 2,799개소, 아동센터가 1,750개소, 대형아동관이 24개소, 기타 아동관이 116개소이다³⁾. 일반적으로 거주하는 지역에서 친숙하게 아동관이라 불리우는 것은 전체 아동관수의 97%를 차지하는 소형아동관, 아동센터이다.⁴⁾

① 소형아동관

가. 실시주체 : 시구정촌(市区町村)

나. 주요사업 : 주로 소규모지역의 아동을 대상으로 건전한 놀이를 통해 건강과 풍부한 정서를 키우도록 하고 있으며 어린이회 및 엄마클럽 등의 지역조직활동의 육성과 발전을 위한 활동을 하고 있다.

다. 종사자 : 아동관에는 놀이를 지도하는 인력(아동후생원)이 2인 이상 배치되어야 한다.

라. 실시장소 : 건물에는 집회실, 놀이실, 도서관, 창작활동실 등 여러 실내활동의 장이 있어, 217.6㎡이상의 면적이 필요하다. 집단적인 놀이에 적합한 완구 및 놀이도구가 충분히 갖추어져 있을 뿐만 아니라 음악감상, 독서가 가능하고, 그림연극과 연극도 상연되어 자주성·사회성·창조성의 육성을 포함하여 심신의 건강을 향상하는 것이 가능하다. 시설의 이용은 모든 아동을 대상으로 하지만 주로 오전은 유아와 그 보호자가, 오후는 학동기의 아동이 이용의 중심이 된다(西館有沙徳田克己・高玉和子編著, 2009: 174-175).

마. 개설일수(京都市아동관의 예)

개관일은 일요일·축일 및 연말연시(12월 29일부터 다음 해 1월 3일)를 제외하고 매일 개관하고 있다. 개관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30분이며, 대상아동은 0세부터 18세미만의 아동과 그 보호자 등이다. 자유롭게 아동관을 이용하면 고며, 이용료는 무료이다(www.kyo-yancha.ne.jp).

② 아동센터

가. 실시주체 : 시구정촌(市区町村)

나. 주요사업 : 소형아동관의 기능에 추가하여 아동의 체력증진을 목적으로, 운동을 중심으로 한 놀이를 통하여 운동에 익숙해지는 습관과 기능을 습득할 수 있도록 갖추어진 시설이다. 시설의 이용은 모든 아동을 대상으로 하지만 운동이 부족하거나 체력이 약한 아동에게는 아동 자신이 운동놀이를 만족감과 충족감을 얻어 자발적인 운동놀이가 될 수 있도록 체력증진에 유효한 놀이를 지도하고 있다. 그리고 지역의 행사와 병행하거나 캠프나 운동회 등의 행사와 병행하는 등 옥외에서 체력증진지도를 행하는 경우도 있다.

다. 종사자 : 2인 이상의 아동후생원 뿐만 아니라 아동의 체력증진을 지도할 수 있는 지식과 기능을 가진 자가 배치되어 있다.

라. 실시장소 : 건물은 소형아동관보다도 넓어 336.6㎡이상이 필요하다. 도구(공, 줄 등) 놀이와 기계놀이, 리듬놀이와 같은 활동이 가능하도록 줄, 공, 바퀴, 매트, 균형도구, 탁구대 등이 정비되고, 체력측정을 할 수 있는 도구도 준비되어 있다(西館有沙徳田克己・高玉和子編著, 2009: p.175).

③ 대형아동관

가. 실시주체 : 도도부현(都道府縣)과 지정도시(指定都市)

나. 주요사업 및 실시장소

3) 후생노동성, 사회복지시설 등 조사보고 참조(<http://www.mhlw.go.jp/bunya/kodomo/jidoukan.html>)

4) 총무성이 2011년 6월 29일에 보고한 '2010년 국제조사'에 의하면 아동관을 이용할 수 있는 18세 미만 인구(외국인 포함)는 21,666,653명이다.

○ A형 아동관 : 아동센터의 기능에 부가하여 도도부현내의 아동관과 운영 및 지도를 연계하면서, 직원 및 자원봉사자 육성의 기능도 하는 시설이다. 지역의 역사, 산업, 문화를 활용한 자료와 조형물을 전시하고, 일반에게도 폭넓게 공개할 수 있도록 연수실, 전시실, 다목적 홀 등의 옥내시설이 있는 2,000㎡이상의 공간을 가지고 있다.

○ B형 아동관 : 소형아동관의 기능에 부가하여 자연을 활용한 놀이를 통하여 아동의 협조성과 인내력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100명 이상이 숙박할 수 있는 시설이며, 자연 속에서 숙박과 야외활동을 할 수 있는 시설이다.

○ C형 아동관 : 광역지역의 아동을 대상으로 하고, 건전한 놀이를 통해 건강증진과 풍요로운 정서를 육성할 목적으로 하는 시설이다. 아동관의 모든 기능과 더불어 예술, 체육, 과학의 종합적인 활동이 가능하도록 체육실과 옥내수영장, 컴퓨터실, 역사와 과학 자료전시실, 조형스튜디오, 극장, 아동놀이터, 숙박연수실을 갖추고 있다(西館有沙徳田克己・高玉和子編著. 2009: p.176).

④ 기타 아동관

가. 실시주체 : 시구정촌(市区町村)

나. 주요사업 : 소형아동관에 준하는 시설로 대상지역의 특성과 아동의 실태에 대응할 수 있도록 공공성과 지속성이 있는 시설을 목적으로 한다.

근래에는 중학생과 고교생 등의 청소년들이 지역주민과 만날 수 있는 장소로서 아동관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아동을 키우고 있는 부모들을 아동관의 직원으로 운영에 연계하는 등 한층 더 아동관의 기능을 강화하고 있다(西館有沙徳田克己・高玉和子編著. 2009: 176).

(4) 지역자녀양육거점사업의 유형으로서의 아동관

아동관은 2007년도부터 「지역아동지원거점사업」 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 사업은 공공시설의 빈공간 및 상점가의 빈점포 등에서 실시하는 「광장형」, 보육소 등에서 실시하는 「센터형」, 민영아동관에서 실시하는 「아동관형」 세 가지 유형으로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후생노동성, 2011:170-171).

「지역아동지원거점사업」의 설치현황을 보면 2008년 4,851개소에서 꾸준히 증가하여 2009년에 5,173개소, 2010년에는 5,521개소로 증가하였다. 5,521개소 중 센터형이 가장 많아 3,201개소이며, 다음은 광장형으로 1,965개소이며, 아동관형이 가장 적어 355개소이다(<표Ⅱ-10> 참조).

표 Ⅱ-10 지역 지역아동지원거점의 설치 상황

	2008년도 실적	2009년도 실적	2010년도 실적 (교부결정기준)
지역아동지원거점	4,851개소	5,173개소	5,521개소
· 광장형	1,233개소	1,508개소	1,965개소
· 센터형	3,463개소	3,470개소	3,201개소
· 아동관형	155개소	195개소	355개소

자료: 후생노동성자료(내각부, 2011: p.94 재인용).

표 Ⅱ-11 2010 지역아동지원거점사업 실시 개소수(차세대 육성지원대책 교부금 교부결정기준)

No	자치단체	광장형							센터형			아동관형	
		3~4월	중정비확충형	5월	중정비확충형	6~7월	중정비확충형	출장광장	계	소규모형 지정시설	계		
	홋카이도	16	1	7	0	2	0	1	26	144	31	175	0
	오사카부	42	3	36	5	7	3	4	89	96	4	100	0
	아이치현	27	4	10	1	11	3	0	48	95	5	100	9
	교토부	21	0	6	0	1	0	0	28	32	5	37	0
	사이타마현	49	4	38	1	11	3	1	99	140	4	154	5
	도쿄도	27	0	58	11	72	30	2	159	68	0	68	9
												
	도도부현소계	597	45	585	76	263	70	42	1,487	2,278	289	2,567	67
	사이타마시	21	0	9	0	11	0	0	41	10	1	11	0
	요코하마시	11	0	20	0	0	0	0	31	40	0	40	0
	나고야시	9	0	5	0	1	0	0	15	38	0	38	0
	교베시	0	0	6	0	0	0	0	6	10	0	10	115
	오사카시	0	0	45	0	23	0	0	68	31	0	31	0
	후쿠오카시	0	0	0	0	1	0	0	1	11	10	21	0
												
	政令市 소계	58	0	145	1	85	3	0	288	295	81	376	265
	하코다테시	0	0	2	2	0	0	0	2	8	0	8	0
	마에바시시	0	0	0	0	1	0	0	1	14	0	14	0
	가나자와시	0	0	3	0	3	1	0	6	7	0	7	0
	나라시	3	0	5	0	0	0	0	8	4	1	5	0
	후쿠야마시	13	0	0	0	0	0	0	13	11	0	11	0
	구마모토시	1	0	0	0	1	0	0	2	20	0	20	0
												
	中核市 소계	51	0	93	8	45	3	1	190	229	29	258	23
	합계	706	45	823	85	393	76	43	1,965	2,802	399	3,201	355

자료: 후생노동성, <http://www.mhlw.go.jp/bunya/kodomo/kosodate.html> 참조, 재구성

지역별로 보면 도도부현(都道府縣)의 경우 광장형이 1,487개소, 센터형이 2,567개소, 아동관형이 67개소이다. 도도부현 중 도쿄도의 경우 광장형이 159개, 센터형이 68개소, 아동관형이 9개소이다. 정령시(政令市)의 경우 광장형이 288개소, 센터형이 376개소, 아동관형이 265개소이다. 정령시 중 오사카시는 광장형이 68개소, 센터형이 31개소이며, 아동관형은 없다. 중핵시(中核市)의 경우 광장형이 190개소, 센터형이 258개소, 아동관은 23개소이다. 중핵시 중 후쿠야마시는 광장형이 13개소, 센터형이 11개소로 아동관은 없다(<표Ⅱ-11> 참조).

지역자녀양육거점사업의 유형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광장형

가. 실시주체 : 시정촌(특별구 포함), 단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민간사업자 등에 위탁 가능하다. 주요 사업 : 공공시설의 빈공간 및 상점가의 빈점포 등을 이용하여 자녀양육가정의 부모와 그 자녀가 가볍게 모여, 편한 분위기 속에 서로 이야기 하고 교류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출장광장이나 지역자녀양육력을 높이기 위한 프로그램(학생자원봉사, 세대간 교류, 부친의 자녀양육지원 등), 자녀양육 등에 관한 상담·원조의 실시, 지역자녀양육관련 정보의 제공, 자녀양육 및 자녀양육지원에 관한 강습 등을 실시하고 있다.

광장형은 안심하고 생활을 함께 하는 장이라는 점이 특징으로 부모자녀의 만남과 교류를 중요시하며, 안심하고 자녀양육을 할 수 있는 환경만들기, 부모로서 자녀양육의 힘을 발휘할 수 있는 토대를 지원하는 장이라 할 수 있다. 또한 광장형은 자녀가 태어난 것을 계기로 크게 변화하는 부모의 생활환경과 불안감을 갖는 자녀양육가정과 지역을 연결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다. 종사자 : 전임으로 2명 이상(비상근이어도 가능)이 배치되며, 꼭 유자격자일 필요는 없다. 자녀양육지원에 관하여 의욕이 있으며 자녀양육지식과 경험을 가지면 된다. 또한 적극적으로 지역의 자원봉사자를 활용함으로써 지역사회에 열린 장소로서의 기능을 하고 있다. 학생자원봉사자의 경우는 아동들과 함께 놀아주고 돌보아주는 경험으로 「깨닫다」, 「변화할 수 있다」는 자신을 발견할 수 있는 장이 되고 있다. 또한 세대가 다른 자원봉사자와의 관계는 대인관계를 보다 깊게 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지역사회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자녀양육을 지원하는 네트워크의 향상과 부모자녀의 성장을 위한 따뜻한 지역을 만드는 활동으로 이어지고 있다.

라. 실시장소 : 공공시설내의 공간, 상점가 빈 점포, 공민관, 아동관, 학교의 여유교실, 유치원, 민가, 아파트 등 부모와 자녀가 모일 수 있는 장소에서 실시한다. 광장의 공간은 대략 10쌍의 부모와 자녀가 한꺼번에 이용하여도 지장이 없을 정도의 넓이어야 한다. 광장의 설비는 수유코너, 세면대,

아기 침대, 놀이도구, 기타 영유아를 데리고 와서 이용하여도 지장이 없는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마. 개설일수 : 원칙으로 주 3일 이상 1일 5시간 이상 개설하여야 한다. 개설시간에 있어서는 부모와 자녀의 욕구 및 이용하기 쉬운 시간대를 배려하여야 한다.

바. 사례 : 자녀양육광장 쿠수쿠수(子育て廣場くすくす)

운영주체	특정비영리활동법인 자녀양육네트워크 쿠수쿠수
소재지	香川県 善通寺市 文京町 2-2-2
개설년도	2002년 4월
개소시간	10시~16시 (월요일~금요일)
직원	비상근 4명
이용자수	월간 약 600명
이용료	이용등록제로 등록회원은 입회금·보험료·회비 등 무료. 단 일시보육의 경우 1시간당 500엔
사업의 특징	회원제를 실시하는 이유는 이용자를 “함께 광장을 만들어 가는 파트너”로 생각하고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가의식을 환기시키기 위한 것이다. 광장은 밀착된 지원을 기반으로 「자녀양육·부모양육」의 장인 동시에 엄마들의 자주적인 활동의 장이 되도록 다양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예를 들어 광장내의 전용상자를 활용한 「도전상자(1상자를 1개월 대출)」는 엄마들의 수제품인 캐키 및 자수 등을 전시판매하는 “자신만의 미니 가게”이다. 또한 「컴퓨터교실」, 「꽃꽂이 교실」, 「충치체크」, 등도 특기 및 자격을 가진 엄마들이 운영기획자가 되어 실시하고 있다. 이러한 “아동의 성장을 지켜보면서 자아실현을 할 수 있는 장”을 통하여 이용자는 자녀양육지원사업에 대한 참가의욕을 자연스럽게 각성하게 된다. 그 예로서 매월 1회 가까운 지역의 중학교에서 개최하는 「중학교와 영유아의 만남체험활동(2005년 9월 개시)」에서는 광장의 이용자였던 “자원봉사자·엄마”들이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참가하는 부모와 자녀들의 지원을 자발적으로 하고 있는 등 “순환형 지원”의 고리를 착실하게 확대하여 가고 있다.

자료: <http://www.city.osaka.lg.jp/shiseikaikakushitsu/cmsfiles/contents/0000085/85875/1-15.pdf>.

② 센터형

가. 실시주체 : 시정촌(특별구 포함), 단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민간사업자 등에 위탁 가능하다. 주요사업 : 지역자녀양육정보의 수집·제공을 위하여 자녀양육전반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을 실시하는 거점으로써의 기능을 하고 있으며, 기존의 네트워크 및 자녀양육지원활동을 하는 단체 등과 연계하면서 지역에 맞는 지역지원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주요사업으로 자녀양육교류의 장 제공과 교류의 촉진, 자녀양육 등에 관한 상담·원조 지역자녀양육 관련 정보의 제공, 자녀양육 및 자녀양육지원에 관한 강습, 지역지원활동 등을 실시하고 있다. 많은 수의 센터가 지역에 있는 공원에서 보육교사가 직접 활동을 하고 있으며 체조, 운동놀이, 그림연극, 손놀이, 노래 등으로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보육시설내에서 실시되는 경우 일시적인 보육과 보육교사, 영양사, 간호사 등에 의한 자녀양육상담, 그리고 보육시설의 놀이터, 보육시설의 실내, 연령에 맞는 도구를 활용하는 것이 가능하다. 보육시설은 자녀양육지원거점으로서 주요한 사회자원이 되므로 센터형 병설의 효과가 크다고 할 수 있다.

다. 종사자 : 종사자의 자격요건으로는 보육교사 및 간호사 등 육아, 보육에 관한 상담지도 등에 관한 지식·경험을 갖춘 자로 지역자녀양육사정에 정통한 자(2명 이상 배치)로 되어있지만 적절하게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고 인정되면 자격의 유무는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 이와 같은 종사자가 센터형에는 2명 이상 배치되어 있지만 1명은 센터내에서 또 1명은 지역으로 나아가 활동하고 있다.

라. 실시장소 : 보육시설 등의 아동복지시설, 공공시설, 소아과의원 등의 의료시설과 지속적으로 효과적인 실시가 가능한 장소이다.

마. 개설일수 : 주 5일 이상, 1일 5시간 이상 개설하여야 한다. 개설시간은 부모와 자녀의 욕구 및 이용하기 쉬운 시간대를 배려하여야 한다.

바. 사례 : 아유미아동센터(あゆみ子どもセンター)

운영주체	사회복지법인 보육회(歩育会)
소재지	能本県 熊本市 武蔵ヶ丘 1-4-32
개설년도	1995년 11월
개소시간	9시~16시 (월요일~토요일)
직원	상근 2명(보육교사), 비상근 1명(보육교사)
이용자수	월간 약 600명
이용료	전화예약제로 이용료는 무료
사업의 특징	부모의 지원을 통하여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원조하는 것이 기본 목표이다. 보육원의 놀이터에서 자유로운 놀이와 교류를 주로 하는데 자녀양육광장, 0세아 전용의 실내광장의 활동을 축으로 보육시설에서 할 수 있는 흙놀이와 완구·놀이도구를 사용한 놀이, 동식물과의 접촉, 그리고 원아들과의 교류 등을 통하여 놀이를 토대로 한 “아동문화”를 지켜나가면서 이용자 한명 한명의 육아데이터를 기본으로 세밀하고 적합한 지원을 하고 있다. 기타 자녀양육통신잡지(연 6회 발행)에 따른 육아정보의 발송과 보육시설 놀이터에서 아동들을 놀게 하면서 자연적인 분위기속에 열리는 「미니육아 강좌(월2회)」, 출산 전의 부부를 대상으로 한 공부회 「파과·마마세미나」(연2회)의 개최 등 그때그때 시의 자녀양육서포터와 선배엄마들의 참가와 협력을 얻어가며 부모와 자녀의 교류와 배움을 깊게 하는 다채로운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또한 아유미아동센터는 “자녀양육정보를 공유하기 위한 활동도 지원센터의 역할”이라는 인식에서 지역의 육아클럽의 활동과 보육시설·아동관·지원센터 등의 지원프로그램을 소개하는 「구마모토시 북부지구 자녀양육지원도(能本市北部地区子育て支援図)」를 매년작성하며, 지역네트워크를 연결하는 역할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 또한 「구마모토 자녀양육망」의 활동을 통하여 현내(県内)지원센터의 활성화를 촉진하고 있다.

자료 : <http://www.city.osaka.lg.jp/shiseikaikakushitsu/cmsfiles/contents/0000085/85875/1-15.pdf>.

③ 아동관형

가. 실시주체 : 시정촌(특별구 포함), 단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민간사업자 등에 위탁 가능하다. 주요사업 : 민영의 아동관, 아동센터에서 학령기 아동이 아동관에 오기 전의 시간을 이용하여 부모와 자녀의 교류, 모임의 장을 만들고, 자녀양육 중인 부모 등 당사자들이 교대로 프로그램운영자가 되어 지역교류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그 외 자녀양육 등에 관한 상담·원조, 지역자녀양육관련 정보의 제공, 자녀양육 및 자녀양육지원에 관한 강습 등을 실시하고 있다.

아동관에서는 지금까지 지역의 자녀양육가정을 대상으로 놀이프로그램을 중심으로 한 부모·자녀교실 등의 자녀양육지원활동을 실시하여 왔다. 오늘날에도 이러한 프로그램에 대한 욕구는 크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동시에 언제라도 부모와 자녀가 여유있게 자신들에 맞게 교류할 수 있는 「광장」에 대한 욕구도 증가하고 있다. 아동관형의 「광장」의 특징은 광장형, 센터형과는 달리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지역의 성인 등과 폭넓은 연령층이 이용한다는 데 있다. 초등학교생들이 놀고 있는 모습은 영유아에게 있어 동경의 대상이며, 놀이의 모델이 된다. 부모로서는 자녀의 가까운 장래를 상상하게 되어 자녀양육을 긴 안목으로 생각할 수 있는 계기가 되고 있다. 그리고 아동관형의 「광장」에서 길러진 아동들은 초등학교생이 되어 스스로 친구들과 관계를 만들어 아동관에 놀러오게 된다.

다. 종사자 : 「광장」의 담당자는 보육교사와 아동후생원 등과 같은 특별한 자격은 필요없다. 자녀양육에 경험이 있는 선배엄마 및 아동관의 부모·자녀클럽, 엄마클럽 등에서 활동해 본 경험이 있고 부모·자녀의 지원에 관한 의욕과 지식을 가진 자(1명 이상)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부모와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고 부모들 간의 관계를 맺어 주는 것이 가능한 자이다.

아동관 직원은 「광장」의 담당자가 운영하기 쉽도록 다양한 각도에서의 협력이 필요하다. 영유아가 생활하는 장소로서 안전하고 청결한 환경을 갖추게 하는 것과 더불어 상황에 따라 아동관의 직원도 「광장」에 참여하여 담당자를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서로 정보를 교환·공유하는 것도 중요하다. 「광장」에 있을 때의 모습 등에 대하여 의견을 교환하기도 한다. 아동관 직원은 필요하면 보건센터와 아동상담소 등 다른 전문기관과 연계를 하며 「광장」의 담당자가 다양한 문제를 혼자 감당하지 않도록 배려하는 것도 중요하다.

라. 실시장소 : 아동관, 아동센터에서 일반아동이 이용하기 쉬운 시간 등을 활용하여, 놀이실, 상담실 등에서 실시한다. 부모와 자녀가 교류하고 모이기에 적합한 장소여야 한다. 광장의 공간은 대략 10쌍의 부모와 자녀가 한꺼번에 이용하여도 지장이 없을 정도의 넓이어야 한다. 광장의 설비는 수유코너, 세면대, 아기 침대, 놀이도구, 기타 영유아를 데리고 와서 이용하여도 지장이 없는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마. 개설일수 : 주 3일 이상 1일 3시간 이상 개설하여야 한다. 개설시간에 있어서는 부모와 자녀의 욕구 및 이용하기 쉬운 시간대를 배려하여야 한다.

바. 사례 : 하야카와 아동관(速川児童館)

운영주체	사회복지법인 하야카와 복지협회
소재지	富山県氷見市小久米83-5
개설년도	1969년 4월
개소시간	9시~20시 (월요일~금요일)
직원	상근 3명(아동후생원), 야간 1명(지도원)
이용자수	월간 약 1200~1300명
이용료	무료
사업의 특징	1966년 통·폐합으로 빈집이 된 등기소의 건물을 이용하여 열게 된 「하야카와(速川) 아동관」이다. 활동방침은 사계절 내내 아동관에서만 할 수 있는 놀이를 직원들 끼리 의논하고 아동과 함께 생각하며 만들어 가고 있다. 풍부한 자연에 둘러싸인 아동관으로서 겨울의 대나무 썰매놀이 및 언덕위에서 여름캠프, 그리고 원목을 이용한 버섯재배 등 아동들의 놀이경험을 확인해 가면서 “할 수 있는 놀이”를 학년에 따라 실시하고 있다. 또한 학생들이 주체가 되는 「방과후 아동클럽 활동」은 요일별로 판화교실, 컴퓨터교실, 피아노교실, 서예교실 등이 있으며, 현(県)의 “자녀양육선배서포터”의 인정을 받은 지역의 자원봉사자의 지도를 받기도 한다.

자료 : <http://www.city.osaka.lg.jp/shiseikaikakushitsu/cmsfiles/contents/0000085/85875/1-15.pdf>.

(5) 아동관의 시설과 설비 기준

① 설비

가. 집회실, 유희실, 도서실, 상담실, 창작활동실, 화장실, 사무집행에 필요한 설비, 필요에 따라 정양실(靜養室) 및 아동 클럽실 등을 준비해야 한다. 그리고 연령대가 높은 아동의 문화활동, 예술활동 등에 필요한 공간과 비용을 준비하여야 한다. 다음으로 아동의 연령과 발달단계에 따른 놀이도구와 비품을 준비하여야 한다.

나. 영유아와 장애가 있는 아동이 이용하기 위해서는 안전이 배려되어야 하고, 필요에 따라 시설의 개선과 필요한 비품을 정비해 놓아야 한다.

② 운영주체

가. 아동관의 운영에 대해서는 아동의 복지와 지역의 실정을 충분히 이해하고 안정된 재정기반과 운영체제를 가지며 계속적·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나. 시구정촌이 다른 사람에게 운영위탁 등을 행하는 경우에는 그 운영상황에 있어 계속적으로

확인·평가하고 충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③ 운영관리

가. 개관일·개관시간은 대상이 되는 아동의 연령, 보호자의 이용 편리성 등 지역의 실정에 맞게 설정하여야 한다. 또한 학교의 상황과 지역의 욕구에 맞게 유연하게 운영하고, 불규칙한 휴관일과 개관시간을 설정하여서는 안된다.

나. 이용아동의 파악·보호자와의 연락

아동관을 이용하는 아동에 대해서는 주소, 성명, 연령, 긴급시 연락처 등을 파악해 야한다. 그리고 아동관에서 상처가 나거나 몸상태가 좋지 않을 경우는 신속하게 보호자에게 연락한다.

다. 운영협의회 등의 설치

아동관활동을 충실하게 하기 위해 아동위원, 사회복지협의회, 엄마클럽 등의 지역조직의 대표자, 학식경험자, 아동의 보호자, 교직원 등을 구성원으로 하는 운영협의회를 설치하고 그 의견을 듣는다.

라. 운영관리규정과 법령준수

아동관 운영관리의 책임자를 정하며, 이용하는 아동 파악, 보호자와의 연락, 사고방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운영관리규정을 정하고, 아동과 보호자에 대한 인권의 배려, 비밀수호 의무, 개인정보 관리 등의 법령준수에 노력한다.

마. 안전대책·긴급 시 대응

아동의 사고와 상처를 방지하기 위해 안전대책·안전학습·안전점검과 보수·긴급시 대책 등에 유의하고, 그 계획과 실시에 대해 정리해 둔다.

위생관리로는 감염예방과 건강유지를 위해 아동관에 왔을 때 손씻기를 장려하며, 시설·설비의 위생관리 등을 중요시 한다. 아동의 감염방지를 위해 임시적으로 휴관하지 않으면 안되는 판단이 되는 경우는 시구정촌과의 협의한 후 실시하고 학교 등 관계기관에 연락한다.

바. 방재·방범대책

화재나 범죄의 발생 시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방염·방범에 관한 계획과 매뉴얼을 책정하고 시설·설비와 지역 환경의 안전점검, 직원과 더불어 관계기관이 가지고 있는 안전확보에 관한 정보공유에 노력한다.

또한 정기적으로 피난훈련 등을 실시하고 비상경보장비와 소화설비 등을 갖추는 등 비상사태에 대비하여 대응책을 강구한다. 나아가 지역전체의 안전 확보를 위해 아동 스스로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방법에 대하여 지도한다. 또 아동관 방문, 귀가 도중의 안전대책과 보호자의 협력을 요청하며 지역의 관계기관·단체 등과 연계하여 유의인물에 대한 정보공유와 순찰활동 등을 실시한다.

사. 요구·고충에 대한 대응

요구와 고충을 받을 수 있는 창구를 만들어 아동과 보호자에게 알려주며, 요구와 고충의 대응 수순과 체계를 정비하며 신속하게 대응하도록 한다. 고충대응에 있어서 고충해결책임자, 고충처리담당자, 제3자위원의 설치와 해결을 위한 수순의 정리 등 신속하고 적절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절차를 만든다.

아. 직원체제와 근무환경의 정비

아동관의 직원으로는 아동복지시설최저기준(1948년 12월 29일 후생성제 63호) 제38조에 규정하고 있는 「아동의 놀이를 지도하는 자」(아동후생원)의 자격을 가진 자를 2인 이상 배치하고 필요에 따라 기타 직원을 둔다. 또 아동복지사업전반의 조정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사회복지사」 자격을 가진 자의 배치도 고려한다.

아동관의 운영책임자는 직원의 근무상황을 파악하여 건강하고 안전하게 근무할 수 있도록 환경정비에 유의한다. 그리고 안전에 대한 배려와 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상시 아동후생원의 연락체제를 배려한다.(후생노동성 고용규정·아동가정국장발 0331제9호 별지, 「아동관가이드라인」, pp. 5-6, 2011.3.31.).

(6) 아동관의 인력

① 관장의 직무

가. 아동관의 운영을 총괄한다.

나. 아동의 놀이를 지도하는 자(이하 동등후생원이라 함)의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도록 지도한다.

다. 자녀양육을 지원하는 인재 및 조직 등과 연계하고 자녀양육환경 개선에 노력한다.

라. 이용자로부터의 고충과 요구에 대응하고 운영과 활동내용을 개선한다.

마. 자녀양육에 관한 상담을 하고 필요한 경우는 관계기관과 연계하여 그 문제해결에 노력한다.

② 아동후생원의 직무

가. 아동의 성장과 자녀양육에 관한 지역의 실태를 파악한다.

나. 아동의 놀이를 원조하고 더불어 놀이와 생활에 밀착된 활동을 통하여 아동 한사람 한사람과 아동집단의 자치적인 성장을 지원한다.

다. 발달과 가정환경의 측면에서 특히 원조가 필요한 아동에 대한 지원을 행한다.

라. 지역 아동의 활동과 자녀양육지원을 행하는 단체 등과 협력하고 아동의 놀이와 생활환경을 정비한다.

마. 아동학대방지의 관점에서 조기발견에 노력하고 대응지원에 대해서는 시정촌과 아동상담소가 협력한다.

바. 활동에 있어 배려가 필요한 아동에 대해서는 개별 기록을 적어 지속적인 원조가 가능하도록 한다(후생노동성 고용규정·아동가정국장발 0331제9호 별지, 「아동관가이드라인」, pp. 4-5, 2011.3.31.).

(7) 아동관의 재원

후생노동성의 아동·양육시설관계 예산의 개요(2009-2011년)에서 보면 아동관의 예산액은 2009년 846,000,000엔, 2010년 608,000,000엔, 2011년 588,000,000엔이었다. 2009년도 결산액은 601,000,000엔이다(内閣府, 2011: 144). 오사카 지역자녀양육지원거점사업 중 광장형의 경우 2010년 세출내역을 보면 다음 표와 같다.

표 II-12 아동관의 재원

총비용 (단위:천엔)	연도	총비용	재원내역				
			국·부 지출	사용료등 (수익자부담)	제수입 등	기채·기 금조입금	차감 일반재원
	2008(결산)	666,002천엔	0	48	0	0	668,954
	2009(예산)	713,037천엔	0	48	0	0	712,989
	2010(예산)	687,813천엔	0	10	0	0	687,803
2010년도총비용 내역 (위탁료 등을 명기)	○2010년도 세출내역(687,813천엔)						
	○사업비세입내역(10천엔)						
	· 사업비(위탁료)	628,265천엔					· 토지임차료 10천엔
	· 인건비	525,067천엔					
	· 사업비	103,198천엔					
	· 건물유지관리경비(보수등)	34,877천엔					
	· 수선비(공사등)	14,505천엔					
	· 인건비(담당업무직원)	10,166천엔					
사업실적	항목	단위	2008년(실적)	2009년(실적)	2010년도(예정)		
	이용자수	명	364,586	362,090	370,000		
				신형인프루엔자 대책에 의해 집단사업증지· 연기에 따른 이용자수 감소			
단위당비용 (총비용/사업실적)	이용자1명당 비용	천엔	2	2	2		

자료: <http://www.city.osaka.lg.jp>

(8) 아동관의 발전과제

후생노동성의 「아동관 가이드라인 검토위원회 보고서(2011년 3월 28일)」에서 아동관의 아동권 전유성상의 과제를 보면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 있다.

첫째, 밤에 집에서 혼자 보내는 시간이 긴 아동의 실태 파악과 생활지원을 위한 프로그램이 필요하며, 단기가출아동이 증가하는 것과 관련하여 가정에서 쉴 장소가 없는 중·고생 등의 청소년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며, 학교와 가정과는 다른 제3의 안식처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아동관이 요보호대책 지역협의회의 일원이 되어 지원하는 것도 필요하다.

둘째, 아동관은 지역사회와 아동을 연결시키는 역할을 하는 곳으로 지역전체의 문제를 고려하면서 지역의 놀이터, 지역환경, 지역활동단체와 같은 조직활동 등 지역의 상황을 잘 아는 것이 중요하다. 아동관의 종사자들은 단순히 아동의 지도자로서의 전문성에 멈추지 말고 지역놀이 활동의 코디네이터로서 적극적으로 학교·보육소·각 단체 등과 연계하면서 자녀양육거점으로써 기능을 충실히 하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아동관에서 활동하는 자원봉사만이 아니라 학생의 직장체험·기업의 사회공헌·전문성을 가진 자원봉사자 등 새로운 관계를 형성하는 사람들에게도 아동관이 개방적이어야 하며, 이러한 사람들에게 아동관의 기획과 운영에 협력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

넷째, 아동후생원의 자격에 사회복지사의 자격증이 필요하다는 것을 명확하게 제시하고, 가정기반이 취약한 아동에게 대응할 수 있는 사회복지사의 전문성 강화를 통하여 아동 후생원의 전문성을 강화하여야 한다.

다섯째, 자녀수 감소문제와 관련하여 자녀양육에 대한 부담감이 증가하고 있으므로 차세대를 육성하는 부모에 대한 다양한 지원이 필요하다.

여섯째, 앞으로 아동관에 요구되는 활동으로 아동의 생활력의 육성과 아동의 심적 성장에 대한 지원이 중요하다. 나아가 아동학대를 받고 있는 아동들의 발견과 그 보호자를 대상으로 한 상담기능과 장애를 가진 아동에 대한 지원도 필요하다.

일곱째, 핵가족이 주류가 되면서 지역의 사회관계가 희박해지는 가운데 가정의 고립화가 증가하고 있다. 우선은 보호자, 아동, 지역의 사람들 개개인이 자연스럽게 일상적으로 교류할 수 있는 장으로써 아동관을 사회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러한 교류의 장에 현대의 자녀양육의 배경을 잘 이해하고 부모의 정서를 잘 이해하는 원조자의 존재가 중요하다. 지역의 아동관에서는 아동복지의 예방적 기능으로써 이러한 활동이 기대된다.

(9) 일본의 아동관이 한국의 지역아동센터에 주는 시사점

일본의 아동관은 지역사회 아동의 건전한 육성을 도모하는 것에서 나아가 최근에는 지역자녀양육지원 거점기관으로서 일시보육 및 방과후 아동클럽, 자녀양육가정에 대한 상담 및 정보제공 등 다양한 자녀양육 지원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지역의 자녀양육 관계기관과의 네트워크화를 도모하며, 자녀양육가정에 세부적인 지원을 하고 있다. 이러한 일본의 아동관이 한국의 지역아동센터에 주는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우리나라의 지역아동센터도 모든 아동들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지역아동센터의 수와 서비스 대상이 확대되어야 한다. 일본의 아동관은 지역의 자녀양육가정이 걸어서 갈 수 있을 정도로 근접한 지역에 많이 존재하고, 무료이용이기 때문에 그 접근성이 매우 높다고 할 수 있다.

둘째, 한국의 지역아동센터도 부모교육, 부모상담, 부모간의 네트워크 형성, 아동이 살기 좋은 지역사회 만들기의 중추기관으로 거듭나야 할 것이다. 이러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국·공립 지역아동센터가 일본의 아동관처럼 보다 공적인 기관으로 발전되어야 할 것이다. 일본의 아동관은 자녀양육에 대한 경험이 적은 부모들에게 자녀양육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자녀양육을 하는 다른 가정과의 교류를 통해 고립감을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 특히 보호자와 지역사회의 연계 기능은 지역아동센터의 핵심 기능으로 보다 강화되어야 한다. 일본의 아동관은 처음에는 방과후에 아동을 직접 돌보는 기능이 중심이었다. 최근에는 자녀의 수가 1~2명으로 자녀수 감소가 보편화되면서 아동에게 다른 아동과 사귀는 기회를 주고, 자녀 양육으로 고립감을 갖기 쉬운 부모들에게 자녀상담을 해주고, 부모 상호간에 교류의 기회를 주는 기능이 크게 강조되고 있다.

셋째, 지역아동센터는 지역사회의 아동 관련 조직활동을 육성 지원하고, 아동의 성장에 관한 조직 네트워크의 중심이 되어 지역의 아동을 건전하게 육성하는 거점으로서 역할을 해야 한다. 일본의 아동관은 사회적 변화와 지역사회의 자녀양육환경의 변화 속에서 지역사회자녀양육의 거점기관으로서 그 기능의 변화를 모색하고 있고 있다. 즉 아동관이 지역자녀양육지원의 거점으로서 자녀양육 지원관련기관들의 코디네이터로써 자녀양육지원서비스의 연계와 조정을 모색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자녀양육지원에 대한 다양한 욕구가 증가하고 있다. 최근 다양한 기관의 서비스 연계에 대한 모색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자녀양육가정에 대한 보다 적합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사회복지보호 시설·보건시설 및 의료시설 등 다양한 기관·시설의 자녀양육지원서비스를 종합화하여 아동 및 가정에 대한 원조를 협력하여 가는 네트워크의 구축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즉, 자녀양육시설 및 기관이 상호연계 하여 공동기획, 공동활동 전개를 위한 조건을 만들고, 자녀양육가정 및 아동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종합화된 지원방침 하에 각각의 역할분담을 명확히 하고, 필요하다면 서로의

업무를 조정하여 가며 각 시설 및 기관의 기능을 종합적으로 활용하여 가는 네트워크의 구축이 필요하다.

넷째, 보다 전문성을 갖춘 종사자의 확보와 효율적인 서비스 체계가 갖추어져야 한다. 우리나라 지역아동센터의 경우, 아동들이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기 위해서는 아직 종사자의 전문성과 수요 측면에서 많이 미흡한 상태이다. 일본의 아동관의 경우 2명 이상의 아동후생원을 배치하고 되어 있으며, 전문성을 갖춘 비상근종사자 또는 자원봉사자들을 활용하고 있다. 그러나 자녀양육환경이 급속히 변화하면서 아동과 가정의 문제가 복잡화되어 감에 따라 지금까지의 자녀양육의 경험만으로는 적절히 원조하는 것이 어렵다는 인식하에 보다 많은 자녀양육지원서비스의 전문적 체계의 확립, 전문성을 가진 종사자의 확보를 통해 자녀양육지원 서비스를 전문화하여 가고 있다.

다섯째, 지역아동센터의 프로그램 중 실내의 놀이프로그램을 다양하게 개발하여 활성화해야 한다. 놀이를 통한 아동들의 건전육성은 아동들의 건강한 신체발달과 더불어 건강한 정서와 심성 발달에 크게 도움이 된다.

※ 일본의 ‘방과후 아동플랜’

일본의 방과후 아동관련사업으로는 크게 문부과학성에서 추진하던 ‘지역아동교실(방과후 아동교실추진사업)’과 후생노동성에서 추진해오던 ‘방과후 아동교실(방과후 아동건전육성사업/방과후아동 클럽)’을 이야기할 수 있다. ‘방과후 아동클럽’은 방과후에 맞벌이 등으로 인한 부모의 부재 시 생활공간으로서의 ‘대체 가정’을 제공하는 것이며, ‘지역아동교실’은 부모의 부재여부와 상관없이 안전한 장소에서 다양한 배움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변종임 외, 2009). 그동안 이 두 사업이 해당 부처별로 이분화되어 운영되어 왔었는데, 재정 효율화의 관점에서, 그리고 지역자녀양육지원거점사업 중 아동건전육성정책의 변화에 따라 2007년 ‘방과후 아동플랜’ 사업이란 이름으로 통합·운영되고 있다..

이 ‘방과후 아동플랜’은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2006년 저출산 대책담당대신, 후생노동대신, 문부과학대신의 합의로 발표되었으며, 문부과학성의 방과후 ‘지역아동교실’을 근간으로 하되 후생노동성의 ‘방과후 아동클럽’사업을 연계·운영하는 것으로 이를 위하여 사업실시는 각 시·정·촌의 교육위원회가 주도하되, 복지부국의 연계를 도모하여 두 사업을 연계·실시하도록 하였다(변종임 외, 2009).

‘방과후 아동플랜’에 대한 재원은 국가에서 지원하게 되는데, 두 개의 사업을 ‘방과후 아동플랜 추진사업’으로서 교부요강 등을 일체화하여 도·도·부·현, 지정도시, 핵심도시에 교부하며, 교부액이 확정되면 도·도·부·현(시군구)의 교육위원회가 주관부서로서(시·정·촌의 상황에 따라 복지부가 주 관리부서가 되기도 함) 사업운영에 대한 과정을 일괄 처리하고, 이후 시·정·촌의 교육위원회에서 일괄처리한 후 ‘방과후 아동플랜’을 실시한다(정익중 외, 2009).

‘방과후 아동플랜’을 실시하는 시·정·촌에서는 교육위원회와 복지부국, 학교, 아동보육관계자들로 ‘운영위원회’를 조직하여 협력체계를 구축하며, 도·도·부·현에서는 ‘추진위원회’를 설치하여 방과후 아동플랜의 운영방침, 종사자(아동지도원 등) 연수 기획 및 사후 평가 등을 검토하며, 종사자의 자질향상이나 정보공유를 위한 연수를 개최하기도 한다(변종임 외, 2009; 정익중 외, 2009).

‘방과후 아동플랜’을 위한 교부금은 문부과학성·후생노동성이 1/3, 도·도·부·현이 1/3, 시·정·촌이 1/3을 부담하며, ‘방과후 아동플랜 추진사업’은 교부요강에 따라 일반회계로 ‘방과후 아동교실 추진사업’을, 특별회계로 ‘방과후 아동건전육성사업’을 ‘방과후 아동플랜 연계 추진실’에서 일괄 처리한다. ‘방과후 아동플랜’의 2008년도 예산안을 보면, ‘방과후 아동교실추진사업’이 77.7억엔(국고보조율 1/3)이고 ‘방과후 아동건전육성사업’이 186.9억엔이었다(정익중 외, 2009; pp. 71-72).

‘방과후 아동플랜’ 사업의 경우 국가주도사업이 아닌 경비의 일부를 시·정·촌이 부담하는 보조사업으로 실시하는 것으로, 궁극적으로는 시·정·촌의 단독사업으로 실시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으나, 이를 위해서는 모든 시·정·촌이 충분한 재정을 갖추어야 하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적용하기는 어렵다(변종임 외, 2009). 또한 ‘지역아동교실’과 ‘방과후 아동클럽’이 함께 시행되거나, 이것이 불가능할 경우 두 사업을 상호 조정하여 시행하는 방안이 권고되고 있으나(변종임 외, 2009), 실제로 하나의 체제로 이 두 사업을 동시에 실시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는 드물며, 기본적으로 ‘지역아동교실’과 ‘방과후 아동클럽’은 목적과 기능이 다르기 때문에 하나의 체제로 실시하는 것은 곤란하다는 인식이 높다.

3. 국·공립 지역아동센터의 운영실태 사례연구

사례조사를 실시한 6개의 국·공립지역아동센터⁵⁾를 3개의 유형, 즉 100% 지자체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으며 자체시설에서 운영되고 있는 1) 시립형(100% 지자체 지원) 모델, 지자체로부터 건물만을 무상으로 지원받고 있는 2) 인프라지원 모델, 지자체로부터의 건물 무상지원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나 법인으로부터 정부의 민간지역아동센터 지원금 이상의 지원을 받고 있는 3) 인프라+부분 운영비지원 모델로 분류하여 사례를 제시하고 분석하고자 한다.

1) 시립형(100% 지자체 지원) 모델

(1) 시립 A지역아동센터

① 경제적·가족구조적 특색

가. 센터를 이용하고 있는 전체가정의 98%가 소득이 없거나 저소득 가정으로 그 중 10%는 차상위 및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 대상가정으로 등록되어 있다.

나. 주거환경의 경우 대다수 아동이 00동 일대의 지하세대 월세로 거주하거나 00동 주변의 빌라하우스에 임대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보호자의 직업이 가사도우미, 대리운전 등의 비정규직 종사자인 경우가 대다수이다.

다. 아동의 성장환경에서 특히 정서적 안정감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 가족 구조적 특성이라 할 수 있다. 현재 이용아동 중 40%가 한부모가정 및 조손가정, 재혼가정 및 결혼이민자가정 등 다양한 형태의 가족 구조에서 성장하고 있다. 이러한 가족구조적 배경은 위에서 살펴본 경제적 특성과 함께 자아정체감이 형성되기 시작하고 사춘기가 시작되는 많은 아동의 자존감 및 정서적 안정감 형성에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된다. 실제로 다수의 보호자들이 올바른 양육과 훈육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호소하고 있다고 한다.

② 대상

센터를 이용하고 있는 아동의 연령별 특성을 살펴보면 초등학교 5~6학년이 가장 많은 37%,

중·고등 학생이 32%, 초등학교 3~4학년이 24%, 그리고 초등학교 1~2학년이 가장 적은 7%를 차지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등록인원	총명	일일 평균 이용 아동			35명		수급자가정 아동		9명
학령구분	총41명	초1	초2	초3	초4	초5	초6	중등이상	
		1명	2명	5명	8명	9명	6명	10명	
경제형태	총41명	일반			무소득			저소득	
					9명			32명	
가정형태	총41명	일반	편부	편모	재혼가정	조부모	결혼이민자		
		16명	6명	8명	3명	6명	2명		

③ 시설

소유형태	00새마을금고 소유
건물형태	공공시설
정부지원현황	신고여부 : 유 정부운영비 지원여부 : 유(지자체에서 지원) 급식비 지원여부 : 유
시설면적	지역아동센터 실제 전용사용공간 약 198㎡
시설층수	지상 3층
시설구비	집단지도실 3실, 개별지도실 1실, 상담실 1실, 조리실 1실, 사무실 1실, 화장실 2실

④ 운영시간

가. 학기중 주5일, 1일 8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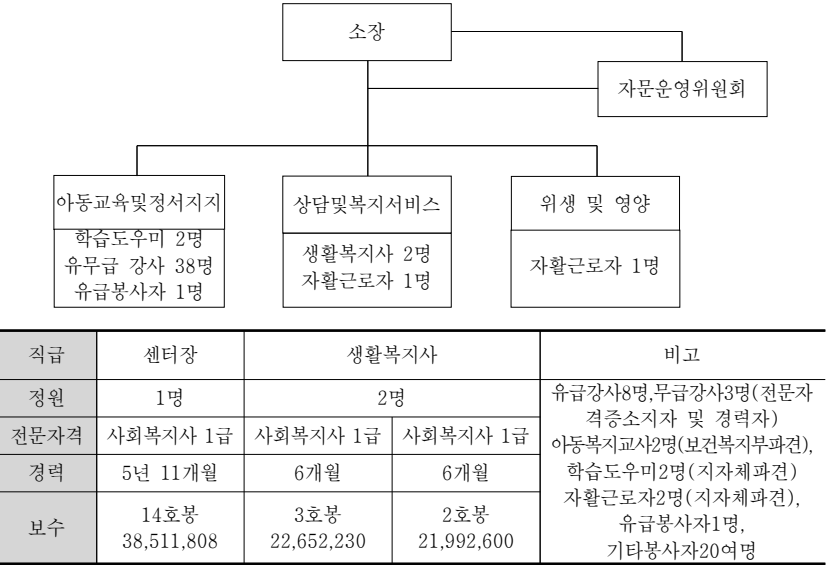
- 월~금요일 : 오전 10시30분~오후 6시30분
- 격주토요일 : 오전 9시~오후 1시

나. 방학중 주5일, 1일 8시간

- 월~금요일 : 오전 9시30분~오후 6시
- 격주토요일 : 오전 9시~오후 1시

5) 지자체에서 100%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는 공립 또는 시립형 모델만 국·공립형이라고 지칭할 수 있으나, 여기서는 지자체에서 일부 건물임대나 운영비지원을 받는 경우도 포함해서 살펴봄으로써 지자체에서 어떻게 다양한 형태로 지역아동센터를 지원하고 있는지 그 현황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⑤ 시설종사자 경력 및 보수



⑥ 주요사업

가. 상담사업(이용상담, 아동생활상담, 보호자상담)

- 이용상담 : 아동의 보호자 상담을 통해 센터이용에 대한 안내 및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여 센터 이용안내 및 사업활성화 증진
- 아동생활상담 : 또래관계형성, 가족문제, 학습 등 아동의 다양한 문제에 대한 상담을 통하여 정서적지지 및 문제해결능력을 향상시키고 생활, 학업 및 교우관계 상담을 통해 아동의 정서적 안정을 도모함.
- 보호자상담 : 가족상담을 통해 아동 및 보호자를 정서적으로 지지하고, 아동의 문제과악과 개별관리를 통한 보호자의 지지 및 아동학대 예방

나. 아동생활증진사업

- 생활지도프로그램 : 위생 및 예절에 대한 1:1지도를 통해 청결하고 올바른 생활습관 지도

- 영양지원프로그램 : 균형잡힌 영양의 증식 및 간식을 규칙적으로 제공하여 건강신체 육성
- 건강지원프로그램 : 아동에게 발생하는 여러 건강문제에 대해 즉각적이고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치료까지 연계하는 프로그램으로 지역 내 의료기관 및 건강검진 기관과 연계하여 수진치료 및 응급처치, 절기에 따른 예방접종 등을 실시하여 건강한 성장을 도모

다. 교육사업

- 정서지지프로그램 : 아동에게 발생하는 일반적인 정서불안에서부터 보다 전문적 개입이 필요한 정서장애, 행동장애 등에 적극 대처하기 위하여 전문적인 강사진을 활용한 일관성 있는 프로그램을 진행함으로써 각종 정서 및 심리와 관련된 문제를 예방
- 학습지도프로그램 : 기초학습에 필요한 교과목을 집단 및 개별 지도하여 학습능력과 학교생활 적응력을 향상시킴
- 특별프로그램 : 이용아동이 경험하는 소외감을 해소하고 공동체 의식을 강화하기 위해 다양한 행사와 동아리 활동을 운영함으로써 아동의 잠재능력을 개발하고 공동체 의식을 강화시킴.

라. 가족기능 강화사업

- 가정방문 : 아동과 가정의 개별화된 요구를 정확히 파악하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가정방문을 실시하고 생활환경을 조사함.
- 부모교육훈련 : 올바른 자녀양육과 의사소통방법을 주기적으로 교육하여 가족 내의 순기능을 강화하고, 바른 양육환경 조성 및 부모 욕구별 교육 실시
- 보호자 간담회 : 보호자들과 주기적인 간담회를 통하여 아동과 가족의 상황에 맞는 정보를 교육하고 센터생활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
- 가족기능강화프로그램 : 보호자와 아동이 함께 참여하여 프로그램을 진행함으로써 가족간 유대감 형성

마. 자원개발 및 관리사업

- 후원사업 : 지역사회의 민간자원이 적극적으로 아동복지사업에 투입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이용아동과 그 가족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직접지원함으로써 아동의 경제적 생활환경을 지원
- 지역교육사업 : 지역사회와의 지속적인 교류를 통하여 아동의 지역공동체 의식을 고취하고 나눔에 대한 실천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센터이용아동의 지역공동체 의식을 강화하고 나눔의식을 고취시킴.
- 강사/자원봉사자 개발 및 관리 : 센터 내에서 활동하는 강사와 자원봉사자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효과적으로 관리하여 사업의 실질적 수행인력의 활동력 강화

○ 외부기관연계사업 : 지역의 다양한 복지기관과 연계하여 보다 전문적이고 적극적인 서비스를 제공하여, 아동의 사회성 향상 및 기관의 역량강화

바. 특별행사

- 현장학습 : 다양한 문화체험활동, 여름캠프 등을 통하여 아동이 경험하는 소외감을 해소하고 삶의 질 향상에 기여
- 각종절기행사 : 어린이날(체육대회), 절기행사(연만들기, 트리만들기) 등 다양한 절기행사를 통하여 활기찬 센터생활을 영위하도록 함.
- 생일잔치 : 개별아동의 생일 당일에 이용아동이 모두 참석하여 생일잔치를 함으로써 아동의 자존감을 향상시키고 센터와의 긴밀한 관계형성 도모

바. 기타사업

- 홍보사업 : 지속적인 기관홍보를 통하여 지역사회 내 기관인지도 향상 및 이미지 개선에 기여
- 교육훈련사업 : 기관 내 활동 중인 수행인력을 대상으로 전문성을 향상시키고 팀워크를 강화하기 위한 교육훈련 실시
- 운영위원회 운영 : 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전문적인 자문을 받아 기관의 효율성 제고

⑦ 예산

표 II-13 A지역아동센터 지출예산 (단위:천원)

예산과목		예산액
사무비	인건비	97,280
	업무추진비	5,160
	운영비	11,522
사무비 소계		113,962
재산조성비	시설비	6,900
사업비	복지사업비	65,848
	복지사업비(아동급식)	46,340
사업비 소계		112,188
예비비	예비비	340
계		233,390

2) 인프라지원형 모델 - C, D, F 지역아동센터

(1) C지역아동센터

① 설립목적

C지역아동센터는 지역 빈곤아동의 교육복지 향상을 위하여 광역시 한 지역의 기초생활수급가정 및 저소득가정, 맞벌이가정, 결손가정의 아동들을 대상으로 한 방과후 활동기관으로, 아동들을 주야간에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며, 다양한 활동을 통하여 아동들이 정서적, 심리적인 문제로부터 자존감을 회복하고, 학교생활에 적응하여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② 지역특색

도시 외곽에 위치한 농촌지역

③ 대상

학령구분	총25명	미취학	초등생		중등생	고교생	결혼이민자가정	탈학교아동
			저학년(1~3)	고학년(4~6)				
		0	7	15	3	0	0	0
경제형태	총25명	일반 저소득(장애,추천)			저소득(차상위)		수급가정	
		3			15		7	

④ 시설

소유형태	무상임대
건물형태	공공시설
시설면적	132㎡
시설층수	2층
시설구비	집단지도실 2실, 상담실 1실, 조리실 1실, 사무실 1실, 화장실 1실

⑤ 운영시간

가. 평일 운영시간 : 10시~19시 30분

나. 토요일 운영시간 : 프로그램에 따라 다름(평균 월1회)

⑥ 시설종사자 경력 및 보수

직급	시설장	생활복지사	비고
정원	1명	1명	아동복지교사 2명, 자원봉사자 1명
전문자격	사회복지사2급	사회복지사1급	
경력	5년	1년	
보수	연봉 10,800,000	연봉 10,800,000	

⑦ 주요사업

가. 교육프로그램

- 학습지도 : 개별문제집 풀이 및 학습지도
- 숙제지도 : 알림장 검사 후 숙제지도 및 준비물준비
- 영어교실 : 초등, 중등부를 대상으로 주 1회 실시
- 독서교실 : 책읽고 이야기 나누기, 주제가 있는 글짓기, NIE활동, 생활문, 독후화 그리기 등
- 기초학습 : 진도표에 따른 문제풀이, 학습능력 수준별 강의
- 예능수업 : 아동의 감성표현과 신체표현 미술프로그램 운영

나. 복지프로그램

- 생일잔치 : 생일잔치, 선물증정, 공동체 프로그램
- 아동개별상담 : 아동과 관련한 교육 및 고충상담
- 아동집단상담 : 또래관계 개선 및 집단 응집력 구축
- 보호자 상담 : 아동 문제해결 및 개선을 위한 상담
- 학교 상담 : 아동관련 학교문제 및 학대문제 발생시 학교관계자와 상담, 학급 담임교사 및 학교복지교사와 전화상담 실시
- 가정방문 : 아동 입소후 필요시에 가정을 방문하여 상담
- 사례관리 : 지역사회복지사, 어린이재단, 센터내 자원 등 다양한 자원을 통한 사례관리다. 건강프로그램
- 개별생활지도 및 위생교육 : 매주 용의검사 및 개인위생교육(머리감기, 손씻기, 목욕하기, 옷 갈아입기 등)
- 급식제공 : 학기 중 1인 1식 석식제공, 방학 중 1인 2식 중식 및 석식제공, 보건교사를 통한 가정식 식단 제공
- 간식제공 : 1인 1회 매일 제공

- 식품안전교육 : 안전한 먹거리에 대한 교육, 불량식품의 유해성 및 종류 안내
 - 식중독예방교육 : 여름철 건강을 지키기 위한 수칙, 식중독예방을 위한 생활수칙(여름철 음식관리, 손씻기 등)
 - 응급처치 대처법 : 위험한 상황 시 대처방법 교육
 - 교통안전교육 : 올바른 교통안전지식 교육
유인, 유괴상황 발생 시 요령 등 교육
 - 약물오남용교육 : 약물의 종류 및 중독성 알기, 약물오남용 피해 알기
 - 재난대비 안전교육 : 재난상황 발생 시 안전행동 및 대피요령 알기, 화재 시 대피요령 및 안전교육
 - 성폭력예방교육 : 성폭력과 성폭력예방방법 알기, 신고요령 및 절차 안내
 - 인권권리교육 : 아동의 권리 알기, 인권나무 제작, 일상생활에서의 권리 알기
- 라. 문화·체험·캠프 프로그램
- 캠프 : 여름캠프-하나되는 우리
 - 생태역사체험 : 문화유적지와 생태문화체험
 - 문화체험 : 연중 지역사회에 상영되는 어린이 영화, 청소년영화, 연극, 뮤지컬 공연 관람
 - 음식만들기

⑧ 예산

- 가. 정부+지자체 운영비 : 연 42,000,000원
- 나. 정부+지자체 급식비 : 연 26,565,000원

(2) D지역아동센터

① 설립목적 및 기관의 역사

관내의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문화 활동과 우리 민족의 우수한 역사와 전통을 접할 수 있는 기회와 여건을 제공함으로써 창의적인 문화감수성을 함양할 수 있도록 하며, 우리 민족의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게 하고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 활동을 통하여 미래사회가 요구하는 청소년 상을 실현함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② 지역특색

시에서 소득이 낮은 지역에 위치하고 있으며 D지역아동센터는 근처공단의 노동자들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의 아동들을 주고 담당하고 있다.

③ 대상

학령구분	총31명	초등생		중등생	고교생	기타
		저학년	고학년			
		3명	14명	14명	0명	0명
가정형태	총31명	양부모	부자가정	모자가정	조손가정	기타(새터민)
		18명	8명	4명	0명	1명
경제형태	총31명	기초생활	차상위	저소득	일반	기타
		14명	14명	0명	3명	0명

④ 시설

소유형태	구청 소유
건물형태	공공시설
정부지원현황	신고여부 :유 / 정부운영비 지원여부 : 유 급식비 지원여부 : 유
시설면적	지역아동센터 실제 전용사용공간 약 198㎡
시설층수	지상 2층
시설구비	집단지지도실 2실, 개별지도실 1실, 상담실 1실, 조리실 1실, 사무실 1실, 화장실 2실

⑤ 운영시간

가. 평일 : 10시~20시 30분

나. 토요일 : 특별행사 유무에 따라 운영됨

다. 방학 : 10시~19시

⑥ 시설종사자 경력 및 보수

직급	센터장	아동복지교사	비고
정원	1	1	자원봉사자 4명, 유급강사 1명
전문자격	사회복지사2급	사회복지사1급	
경력	1	1	
보수	연봉 12,000,000	연봉 11,160,000	

⑦ 주요사업

가. 기초학습교육

○ 체계적인 학습지도 : 개인별 학습목표 설정 및 학습수행관리, 학년별 능력에 따른 학습지도, 학년별 숙제지도를 통한 개인별 학습사례관리

○ 1일 20분 독서지도

○ 초등학교 고학년 직업탐색교육

○ 성교육(연간6회/지역여성단체 성교육강사단)

나. 생활지도

○ 위생교육 실시(규칙적인 손씻기, 급식지도, 목욕, 이미용)

○ 예절교육(인사하기, 생활예절 익히기)

○ 5대 안전 의무교육 실시

다. 상담

○ 개별상담, 학기별 집단상담

○ 부모상담, 전화상담

라. 공동체의식 강화 및 공동체 프로그램

○ 인권교육 : 인권의 중요성을 부각하고 '서로 사랑하는 사람'으로 육성

○ 푸드테라피교육 : 지역적 특색인 장날을 이용한 푸드테라피 활동은 공동체의식 함양 및 창의력 개발 활동으로 지역관계 형성에 기여함.

○ 주1회 놀이교육 : 함께 놀며 자유롭게 관계를 형성하여 정서적으로 순화되며, 소외되는 아동이 없는 아동센터를 지향함.

○ 아동자치위원회 활동(주1회 운영) : 자율과 책임을 원칙으로 서로 수용하는 분위기에서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표현하며, 공동체형성을 위한 제도를 마련하고자 함.

○ 생일잔치 운영 : 생일잔치 준비 함께 하기, 선물 만들기 팀을 운영하여 만들기 창작도 할 수 있는 프로그램.

마. 특기적성 프로그램 : 사회적 기업연계(희망나눔 1030사업단)

○ 예체능 수업 : 자유선택형 특기적성교육(미술/음악/공예/디자인 등)

○ 음악 : 피아노 및 합창교육

○ 지역공동체 형성을 위한 미술교육(문화예술센터 결연 후원)

○ 영어교실 : 기본영어 교육/회화/애니메이션 교육(주2회)

○ 동아리활동 : 댄스/미디어/합창 동아리 활동

○ 송년발표회

바. 문화행사/체험활동/캠프

○ 분기별 베틀시장 및 체험행사 참여

○ 지역아동 대상 체험활동 조직 및 체험활동 프로그램(사랑의 물레산타 운동본부 연계) 운영

○ 분기별 영화감상, 공연감상하기(지역사회청년문화센터 "Book Cafe" 및 미디어 연대 연계)

○ 생태체험·역사체험(지역여성단체 "체험가는 날")

○ 여름캠프

사. 지역연계 활동

○ 아동센터운영위원회 구성 : 지역아동을 지역에서 책임진다는 목적으로 활동

○ 지역 내 의원, 약국, 치과, 보건소, 이미용실 등과 연계

○ 지역 아동들을 위한 베틀시장 진행으로 홍보

○ 지역단체와 연계가능(희망나눔1030사업단/청년문화센터/문화센터 결/미디어연대 등)

아. 가정지원프로그램

○ 사례관리, 가정방문 및 부모교육

○ 빈곤 가정상담 및 지원

○ 부모모임을 통한 소통공간으로서의 역할

⑧ 예산

가. 자체예산 : 없음.

나. 국비+지자체 지원금 : 월 350만원

다. 후원금 : 월 50만원 정도

라. 수요자부담금 : 없음

(3) F지역아동센터

① 설립목적 및 주요연혁

가. 기관의 역사(설립목적)

지역사회 내 저소득층 및 빈곤, 결손가정의 아동을 통합적으로 보호·교육하고, 질 높은 교육복지를 실현하고 깨끗한 환경 및 각종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건전한 아동육성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7년전 OO읍사무소 직원들이 중심이 되어 지역아동센터를 시작하였으며, 직원 1명에 자활사업을 통해

1명의 보조요원을 활용하고 있다.

② 지역특색

특별히 다른 지역아동센터와 차이점은 없으며, F지역아동센터 주변에 사는 아동들이 많이 이용한다. 농촌지역이기에 도시와 달리 통학거리가 상당히 먼 아동이 많은 편이다.

③ 대상

주로 초등학생이 이용하고, 초등학교를 졸업하면 지역아동센터도 졸업한다는 관행이 있다. 졸업한 후에 가끔 놀러 오는 경우는 있지만, 지역아동센터를 꾸준히 이용한 사례는 없다. 건물 1층에 지역아동센터가 있고, 건물 2층에 청소년문화의 집이 있기에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했던 초등학생이 졸업을 하면 주로 주말(토요일)에 청소년문화의집을 이용하고 있다. 지역에 청소년전용 지역아동센터가 있다면 평일에 방과 후에도 이용할 수 있을 것이다. 2010년에는 24명이 등록하였지만, 2011년에는 16명이 등록하여 이용하고 있다. 농촌지역에 위치하고 있지만 지역아동센터는 가난한 아이들이 다닌다는 인식 때문에 경제적으로 조금이라도 여유가 생기면 지역아동센터 보다는 학원을 이용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

등록인원	총16명	일일 평균 이용 아동			16명		수급권가정 아동	7명
학령구분	총16명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5학년	6학년	
		1	4	3	2	3	3	
성별구분	총16명	남			여			
		9			6			
경제형태	총16명	일반		수급권자		기타저소득가정		
		6		7		6		
가정형태	총16명	일반	다문화	편모	편부	조부모	친척	
		3	4	1	1	6	1	

④ 시설

소유형태	무상임대
건물형태	공공기관 부설
시설면적	810㎡ (대지 245평)
시설층수	1층
시설구비	사무실, 집단지도실, 식당(조리실), 화장실, 기타

⑤ 운영시간(주5일, 1일 9시간 30분)

가. 평일 운영시간 : 9시30분~18시30분

나. 토요일 및 공휴일 운영시간 : 특별행사 유무에 따라 다름

⑥ 시설종사자 경력 및 보수

직급	시설장	실무자(생활복지사)	비고
정원	1명	1명	유급강사 1명, 보조강사 1명
전문자격	사회복지사2급	사회복지사2급	
경력	-	-	
보수	연봉 11,400,000	연봉 11,400,000	

⑦ 주요사업

가. 아동관리

○ 요보호아동 발굴 : 요보호아동을 발굴하고 이용신청자의 생활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가정방문 및 상담 실시

○ 아동관리 : 개별 아동관리

○ 교육 : 학년별 숙제지도 및 학습지도, 독서지도, 위생지도, 안전지도, 간식지도 등의 프로그램 운영

○ 생활지도 : 예절/인성지도

나. 프로그램 운영

○ 상담 : 아동개별상담, 부모상담, 전화상담, 가정방문 등

○ 특별활동 : 한자교실, 종이접기, 영어교실, 주산교실, 체육교실, 음악교실, 만들기, 생일잔치, 아동 자치회의, 요리활동, 주먹밥 만들기

○ 기타 : 학부모간담회 및 부모 교육

다. 시설운영관리

○ 예산 및 행정업무 : 월별보조금 신청, 운영비 지출(세입, 세출 등 장부정리), 월간 교육계획서 작성, 지역 내 아동센터 자체교육(국가복지회계시스템교육)

⑧ 예산

보조금수입 : 3,000,000원X12개월=36,000,000원

표 II-14 2011년 수정지출예산(안)

(단위:천원)

관	항	목	예산액	산출내역
사무비	인건비	급여	22,800	950,000X12X2=22,800,000
		사회보험부담비용	2,400	12개월X2명(국민연금,산재고용보험,건강보험)
	운영비	수용비 및 수수료	800	사무용품비 및 일반운영비
		공공요금	500	전화요금, 수도요금,
사업비	사업추진비	제세공과금	500	아동상해/건물화재보험료
		사업운영비	1,000	특별급식비(간식비)
		기타교육비	4,000	학습재료비/프로그램운영 교재비/강사비 등
		기타사업비	4,000	상반기,하반기체험학습/방학중특별체험학습/송년잔치/활동사진비/생일잔치(6회)
총합계				36,000

3) 인프라와 부분 운영비 지원 모델 - B, E 지역아동센터

(1) B지역아동센터

① 설립목적 및 기관의 역사

B지역아동센터는 1997년 교회부설의 청소년문화쉼터로 시작하였다. 문화쉼터를 이용한 아동들 중에 결손·위기·결식아동이 많아서 1997년 12월부터 결식아동들에게 무료급식을 시작하였으며, 아동 청소년에게 더 나은 환경에서 급식을 제공하기 위해 1998년 7월에 시의 위탁을 받아 현재 장소로 이사를 하여 B지역아동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이곳에서는 숙식을 제공하는 청소년쉼터를 함께 운영하고 있다.

② 지역특색

B지역아동센터는 최근 조선족과 해외불법체류가 가장 많이 밀집되어 있는 공단지역에 위치해 있다. 공단 주변은 대한민국에서 기출청소년이 가장 많이 모이는 곳일 뿐만 아니라 가장 가난한 공단 노동자들과 노동자 여성들이 많이 모여드는 곳이다. 이 지역은 7.75km의 면적에 19,554명 5,959세대가 살고 있으며, 비슷한 크기의 동 단위 마을이 5-10분 거리에 있다. 계획도시인 OO지역 중에서 가장 가난한 주민들이 살고 있으며 그 자녀들이 B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한다. 대개의 근로자들은 1960년대부터 진행된 경제개발계획에서 그들의 부모세대들의 빈곤으로 인해 제대로 보호·양육 받지

못한 사람들이다. 주변은 사행성이 높은 도박시설로 변창하고 있는 실정이며, 외국인 노동자가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외국인 특구를 연상할 정도로 중국인 관련이나 방글라데시 등 아시아인 관련 상점지역으로 변모되고 있다.

③ 대상

B지역아동센터의 경우 지역특성에 맞게 최근 들어 다문화가정 아동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로 약 30~40%가 다문화가정 아동들로 구성되어 있다. 뿐만 아니라 가족구조상의 문제와 빈곤의 문제를 복합적으로 지닌 한부모, 혹은 조부모 가정의 아동이 대부분이다.

등록인원	총38명	일일 평균 이용 아동				28.25명		수급권가정 아동			12명	
학령구분	총38명	미취학	초1	초2	초3	초4	초5	초6	중1	중2	고1	
		0	2	6	5	6	3	6	5	3	2	
가정형태	총38명	일반	한아버지	한어머니	조부모		다문화	장애	친척	기타		
		2	9		4		5	15	3	0		0
경제형태	총38명	일반(맞벌이포함)				저소득(차상위)				수급가정		
		16				10				12		

(2010.12.31 현재)

④ 시설

소유형태	무상임대
건물형태	기타(복지회관) 복지시설(아동복지법 제14조제2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10조 제2항)
시설면적	229.48㎡ (91평)
시설층수	지상 1~2 층/ 지하 층
시설구비	집단지도실1 사무실1 식당(조리실) 화장실3 기타(숙식방2) 소집단지도실2

⑤ 운영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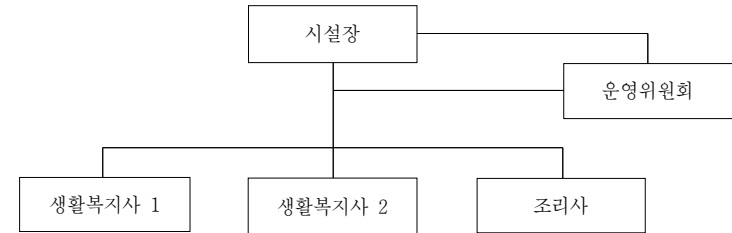
가. 지역아동센터 주6일 운영, 1일 10시간

○ 월~금요일 : 오전 10시~오후 8시

○ 토요일 : 오전 10시~오후 6시

나. 컴퓨터 이용청소년 주 6일 24시간

⑥ 시설종사자 경력 및 보수



직급	시설장	생활복지사		비고
정원	1명	2명		
전문자격	사회복지사 1급	사회복지사 1급	사회복지사 2급	
경력	5년 (타기관6년)	4~5년	3년	
보수	경기도생활시설종사자 수준(90만3000원)+월 터시설장(70만원)	경기도생활시설종사자수준(90만3000원)+법인(60만원)		

조리사(조리사자격증)
아동복지교사 1명(전담),
자원봉사자,
외부인력자원

※ 청소년과 다문화가정 아동의 비율을 고려해 전담 아동복지교사가 배치되어 있음.

⑦ 주요사업

가. 상담/사례관리사업

○ 개별상담 : 개별상담은 수시로 이뤄지지만 정기적으로 월 1회 실시하고 있으며, 대인관계, 분노조절, 심리·정서안정, 가족간의 관계 향상, 생활습관 변화, 자존심 회복, 과잉행동, 도벽문제, 학교부적응, 성문제 상담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그 외에 아동들의 위기상황에 수시로 개입하여 상담하고 있다.

○ 가족/부모상담 : 가족유대강화를 위한 내용으로 가정방문상담, 전화상담, 내방상담을 하고 있다. 이를 통해 아동을 둘러싼 일차적 상황으로서의 가족/부모와 상담하고 있으며 아동발달, 아동인권, 아동과 가족/부모와의 관계기술, 자녀양육태도 등을 월 1회 가족/부모에게 교육함으로써 아동에 관한 보다 나은 이해와 문제해결을 도모하고 있다. 가족과의 전화상담은 수시로 하고 있으며 가정방문상담의 횟수는 점점 높아지고 있다.

○ 학교생활상담 : 학교생활에서 나타나는 아동들의 문제(학교적응문제, 자신감회복, 학습능력

등)에 관해 학교방문을 실시함으로 교사들과 밀접한 관계 속에서 상담하고, 아동들에 관한 정보를 교환하며 아동이해의 폭을 넓혀가고 있다.

나. 교육 사업

- 인지능력개발활동 : : 아동들의 대부분이 기초학습이 부진하기 때문에 기초학습지도 및 학과지도를 바탕으로 교육이 진행되며, 미술이나 음악, 독서지도를 통해 아이들의 자존감 향상, 심리안정 및 인지능력 개발에 힘쓰고 있다.
- 특별프로그램 : 캠프, 공동체활동, 체육활동, 생일잔치, 안전교육, 보건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다.
- 문화체험활동 : 문화적 소외계층인 빈곤아동들에게 영화관람, 음악회 참여, 악기연주 공연, 글·그림 잔치 참여, 박물관 방문, 유적지 방문, 작품전시회, 자연 탐험 등을 통해 아동들의 문화적 소외감을 없애고, 삶의 질을 향상 시키는 데 기여한다.
- 인성교육 : 심성개발, 자존감 갖기, 예절교육 등의 인성교육을 통해 빈곤으로 인한 상처를 치유하고 마음의 여유와 안정, 올바른 인생관을 갖도록 한다. 이를 위해 명상과 다도, 간단한 체조, 그리고 마음을 나누는 시간을 갖는다.
- 생활교육 : 밥먹기, 밥상 차리기와 밥상 정리하기, 바른말 고운말쓰기, 인사하기, 예의 지키기, 용돈쓰기, 청결지도, 하교 후 손발 씻기, 머트니 제거, 잠자리 정리하고, 개인물품관리하기 등 부모로부터 받지 못한 기초적인 생활교육을 실시한다.

다. 보호사업(쉼터운영)

- 숙식보호 : 실직/결식/결혼 가정의 아동·청소년들이 방치·유기·학대를 당하거나 집이 없어서 안정된 분위기에서 숙식할 수 없을 때 따뜻한 가정과 같은 분위기에서 안정되고 편안하게 양육, 보호하는 환경을 제공함으로써 정서적 심리적 안정과 자신감을 회복하도록 도우며, 건강한 사회인으로 자랄 수 있도록 이끈다. 숙식은 구정과 추석을 제외하고는 매일 지원하고 있으며, 아이들의 가정 복귀를 위하여 센터와 아이, 부모의 합의하에 주 1회 정도 귀가하는 경우도 있다.
- 야간보호사업 : 부모들이 야간근무나 연장근무로 인해서 아동보호를 요청 시 밤 11시까지 아동을 보호하고 있다. 또한 경기도 시범사업의 청소년쉼터로 지정되어 집안의 경조사, 입원이나 야근으로 부모가 저녁이나 휴일에 아이를 돌볼 수 없을 때에는 잠도 재워주고, 등교까지 시켜주는 어린이 안심 프로그램도 함께 진행 중이다.
- 미아일시보호사업 : 미아발생 시 시청이나 구청 혹은 경찰서로부터 아동보호요청이 있을 때 7일 이내 보호하고 있고, 부모(보호자)가 나타나지 않을 경우, 일시아동보호소로 인계한다.

- 급식사업 : 아동들에게 하루 한 끼 식사를 제공하고 방학 및 공휴일에는 세끼 식사를 제공하기 위해 무료급식사업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

⑧ 예산

항목	사업비	운영비	인건비	시설비	기타	총합계
예산	61,600,000	11,900,000	100,000,000	4,000,000	10,410,000	187,910,000

(2) E지역아동센터

① 대상

성별구분	총47명	남자					여자			
		26명					21명			
학령구분	총47명	초1	초2	초3	초4	초5	초6	중1	중2	중3
		—	7	5	7	6	6	6	8	2
가정형태	총47명	저소득 맞벌이	기초생활 수급자	차상위	장애		한부모		조손	다문화
		23	13	1	1		6		2	1

② 시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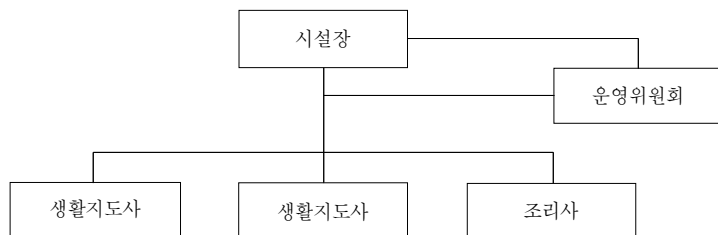
소유형태	무상임대
건물형태	공공시설
시설면적	166.5㎡
시설층수	1층
시설구비	교실2개, 다목적홀(독서, 자유놀이 등), 화장실, 사무실, 센터장실, 탕비실(주방-1층)

③ 운영시간

가. 평일 운영시간 : 10시~20시

나. 토요일 운영시간 : 13시~18시

④ 시설종사자 경력 및 보수



직급	시설장	생활지도사		비고
정원	1명	2명		아동복지교사 2명, 조리사(공공근로 및 자활), 자원봉사자, 유급강사(바우처1, 전문강사1)
전문자격	사회복지사2급	사회복지사2급	사회복지사2급	
경력	8년	1년	2년	
보수	경기도아동복지생활시설의 80%수준 호봉제로 인건비 지급	경기도아동복지생활시설의 80%수준호봉제로 인건비 지급	경기도아동복지생활시설의 80%수준호봉제로 인건비 지급	

⑤ 주요사업

가. 보호프로그램

- 학교생활·일상생활 : 학교 숙제지도 및 준비물 점검, 교우관계 등
- 위생지도 : 센터이용시, 식사전 매일 위생지도(손씻기, 손소독기이용, 옷단정히입기, 가방과 겹옷 정리하기 등)
- 안전지도 : 2010년 연간계획표에 의거한 안전, 예방교육 진행(교통, 약물오남용, 소방, 재난대비, 생활안전, 성폭력예방)
- 급식제공 : 균형있는 식단과 친환경 농산물로 매일 석식과 간식 제공
- 아동인권 : 아동 스스로의 권리를 알고 주장할 수 있도록 지도

나. 교육프로그램

- 기초학습지도 및 학과목지도 : 국어, 수학, 사회, 과학 문제집풀이 및 1대1 수업이 필요한 아동의 개인관리
- 독서지도 : 독서를 통해 아동의 이해력을 높일 수 있도록 지도
- 교과영어 :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학년별 수업진행

- 댄스스포츠(발리댄스 등)와 요가프로그램 : 집중력 향상, 스트레스 해소
- 종이접기 : 창의력과 두뇌발달을 위해 진행
- 가야금 교실 : 전통악기를 통해 전통음악을 배울 수 있음
- 로봇교실 : 창의력과 소근육 발달에 기여
- 한문 : 기초한자부터 수업진행
- 뮤지컬영어·밥밥영어 : 영어와 친숙해질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으로 접근

다. 문화프로그램

- 체험활동 : 폭넓은 경험과 긍정적인 시각형성을 위해 영화, 연극, 뮤지컬관람, 방학 중 박물관 등 견학
- 미술교육(도예체험) : 종이접기와 그리기, 만들기, 도예, 미술치료(자체 및 현장 방문교육)
- 기타 일회성 문화야외활동 : 연중 각 단체 지원행사 참여 및 자체 프로그램 진행
- 여름/겨울캠프 및 여행 : 방학을 이용해 자체캠프 및 연합캠프 진행

라. 복지프로그램

- 성교육 : 초등부 저학년과 고학년으로 나누어 교육(인구보건복지협회, 청소년상담지원센터 지원)
- 집단상담 : 중구정신보건센터, 성미가엘종합사회복지관
- 아동상담 : 아동심리상담(건강가정지원센터)-심리검사및상담, 가정방문 (중구정신보건센터, 중구보건소 지원)-가정폭력상담, 교육관계 상담 등
- 부모상담 : 아동의 문제행동에 대한 부모상담
- 요보호 아동의 사례관리 : 심각한 가정문제로 요보호가 필요한 아동에 대하여 성미가엘종합사회복지관 사례관리팀과 중구청 사례관리팀 연계

마. 지역사회연계

- 기업의 후원 및 자원봉사 참여 :지역의 초청강사 활용, 문화체험 실시

⑥ 예산

- 가. 국비+지자체 지원금 : 연 71,200,000원
- 나. 급식비(1식) : 3500원
- 다. 구청 시설무상임대(거점센터지원)

4) 사례분석 결과

(1) 시설 및 운영형태

6개 국·공립지역아동센터 중 1개의 시설만이 자체건물을 갖고 있었고, 5개의 시설은 지방자치단체의 건물을 무상으로 임대받고 있어 건물임대료 인한 예산을 절약함으로써 이를 프로그램 비용 등으로 활용할 수 있었다. 반면 국·공립지역아동센터 사례조사 시 함께 조사된 5개의 민간지역아동센터의 경우 모두 시설을 임대하여 센터를 운영하고 있었다. 6개의 국·공립지역아동센터 중 F지역아동센터는 읍사무소에서 직영하고 있었고 나머지 5개의 시설은 지자체가 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었다.

(2) 운영시간(주중, 주말과 공휴일)

A지역아동센터와 F지역아동센터가 오전10시부터 오후6시30분까지 운영하고 있었고, C지역아동센터는 오전10시부터 오후7시30분까지, E지역아동센터와 B지역아동센터가 오전10시부터 오후8시까지, D지역아동센터가 오전10시부터 오후8시30분까지 운영하고 있었다. 반면 함께 조사된 민간지역아동센터들은 J지역아동센터를 제외하고 국·공립지역아동센터보다 늦은 시간인 오후10시까지 운영되고 있었다.

(3) 종사자의 수

국·공립지역아동센터의 시설별 종사자 수는 도시지역의 경우, 시설장 1명과 생활복지교사 2명, 아동복지교사 2-3명이었고, 농촌지역의 경우 시설장 1명과 생활복지교사 1명, 아동복지교사 1-2명이었다. 이는 도시지역의 국·공립지역아동센터의 규모가 농촌지역보다 크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4) 종사자 자격요건·대우

국·공립지역아동센터 시설장들은 A지역아동센터와 B지역아동센터(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 소지)를 제외하고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을 갖고 있었다. 생활복지교사들은 사회복지사1급 또는 2급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었다.

대부분의 국·공립지역아동센터의 경우, 민간지역아동센터와 같은 수준으로 시설장은 월100만원 정도를 급여로 받고 있었고, 생활복지교사는 월90만원-100만원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A지역아동센터의 경우, 종사자의 급여수준이 국·공립보육시설 수준(시설장 연 3,000만원 이상, 생활복지교사 2,000만원 이상)이었고, B지역아동센터의 경우에는 법인의 지원을 받아 다른 지역아동

센터보다 종사자의 급여가 50-60만원 정도 많았다. E의 경우, 사회복지 생활시설의 80% 정도(시설장 170만원 정도, 생활복지교사 150만원정도)의 급여를 호봉제로 받고 있다.

(5) 예산(1년)

C, D, F지역아동센터의 경우 민간지역아동센터와 같은 수준의 운영비(월350만원)만을 지원받고 있었다. A지역아동센터의 경우 시로부터 1억7천만원 정도를 전폭적으로 지원받고 있었으며 E지역아동센터는 시청과 구청으로부터 민간지역아동센터 지원금의 두배 정도가 되는 지원을 받고 있었다. B지역아동센터는 월433만원 지원금 외에 재단지원금과 후원금을 추가로 지원받고 있었다.

(6) 프로그램 운영(특성화 프로그램, 초등생과 중고등생 차별화 등)

프로그램운영에 있어서는 예산이 풍부한 A지역아동센터의 경우 다양한 프로그램을 자체적으로 또는 지역사회와 연계하여 실시하고 있었다. B지역아동센터는 꿈나무안심학교라는 컴퓨터프로그램과 야간보호 프로그램을 함께 운영하고 있었다. 그 밖의 다른 국·공립지역아동센터의 프로그램들은 민간지역아동센터의 프로그램과 특별한 차이가 없었다.

4. 조사결과

1) 지역아동센터장 심층면접 결과

민간과 국·공립지역아동센터 시설장 심층면접을 통해 ① 국·공립지역아동센터 설치의 필요성② 국·공립지역아동센터의 확대규모 ③ 국·공립지역아동센터 확대설치 시 필요사항 ④ 국·공립지역아동센터의 설립방안 ⑤ 국·공립지역아동센터의 우선설치 지역 ⑥ 국·공립지역아동센터의 핵심기능 ⑦ 국·공립지역아동센터 종사자의 급여수준 등을 조사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국·공립지역아동센터 설치의 필요성

국·공립지역아동센터 설치의 필요성에 대해서 대부분의 시설장들은, 국·공립지역아동센터가 설립되면 책임감 있게 운영되고(㉠), 예산을 좀 더 투명하게 집행할 수 있으며(㉡),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통해 지역의 모델이 됨으로써 민간지역아동센터의 수준을 끌어올릴 수 있을 것(㉢),

㉔)이라는 이유로 찬성하였다. 또한 국·공립지역아동센터에 대한 지원이 확대되면서 시설이 확보되고 운영비와 인건비가 현실화됨으로써 아동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으며(㉔, ㉕, ㉖), 국·공립센터가 거점센터로서의 역할도 할 수 있을 것(㉗)이라고 보았다.

- 예산을 좀 더 투명하게 집행할 수 있을 거예요. 정부가 운영하는 것이면 좀 더 책임감 있게 일을 할 수 있을 거예요(㉘, 시설장 F)
- 제대로 된 전문인력이 들어오면 아무래도 프로그램 질이나 서비스가 높아지겠죠(㉙, 시설장 J).
- 국·공립이 모델이 되어서 민간의 수준을 끌어올려야지 일반 민간에 이 모든 권한을 주는 상태잖아요. 이런 상태에서는 평준화가 될 수 없죠(㉚, 시설장 A).
- 위화감이 생긴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국·공립센터가 생기면 모델이 되고, 초기 반발은 있을 거라고 봐요. 그러나 하나의 프로그램 모델로서 필요할 거 같고요. 운영비와 인건비가 실제로 현실화 되는 모델이 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㉛, 시설장 H).
- 공공건물에 센터를 운영하기 때문에 민간에 비해 건물임대료, 건물유지비 등이 많이 들지 않아 예산을 줄일 수 있을 거예요(㉜, 시설장 B).
- 운영비에서 좀 차이가 나니까. 국·공립이면 운영비가 더 많아질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혜택이 아이들한테 가니까 당연히 필요하죠(㉝, 시설장 E).
- 지역사회 전체를 보고 다른 지역아동센터를 잘 이끌어야 한다는 것을 느끼고 거점역할을 하고 있는데. 아마 국·공립은 거점역할의 허브역할을 해야 하지 않을까(㉞, 시설장 L).

반면 반대의견으로는 국·공립지역아동센터가 생긴다면 민간센터와의 지원차이로 인해 형평성문제와 괴리감이 생길 수 있으며(㉟, ㊱), 위화감의 조성될 것이라고 우려하였다(㊲). 한편으로는 국·공립 시설은 민간시설에 비해 서비스 질이 떨어질 수 있고 투자한 막대한 자원에 비해 효율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었다(㊳). 민간 지역아동센터를 위해 모델링의 역할은 할 수 있겠지만 미치는 영향력은 미미할 것으로 보는 의견도 있었다(㊴, ㊵).

- 지역아동센터가 국·공립이 생긴다면 귀족화되는 경향도 있지 않을까 우려는 있어요(㉞, 시설장 L).
- 국·공립센터가 거점센터의 역할을 기대할 수도 있겠지만 거점센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지도 않고 다른 민간센터와의 차이로 인해 형평성문제와 괴리가 생길 수 있습니다... 모델링의 역할은 할 수 있겠지만 민간센터에 미치는 영향력은 미미할 것 같습니다(㊱, 시설장 K).

- 국·공립이 생기면 상위기관의 역할을 할 테고 그러면 누군가로부터 지시받는다는 느낌이 있지 않을까. 상위기관과 하위기관이 생긴다는 느낌을 받습니다...(중략).. 지금 이미 모델링이 돼 있는 것들을 봤어요. 중학교든 고등학교든 국·공립을 안보내고 사립학교를 보내려고 합니다. 국·공립이 된다고 그 질이 좋다고 증명할 수 있겠어요? 당연히 사립이 먼저입니다...국·공립센터가 되더라도 열심히 하려고 하는 민간센터보다는 운영을 못할 것입니다(㉟, 시설장 G).
- 국가 입장에서선 상당히 많은 지원금이 나감에도 불구하고 효율적이지도 않을 것입니다(㊱, 시설장 A).
- 지금 거점센터도 여기저기 지원받는 능력 있는 기관들은 빠지고 지원을 안 받는 역량이 안 되는 기관들이 거점센터를 하다보니가 문제가 많습니다. 그런데 국·공립이 된다고 얼마나 역량이 좋아질지 의문입니다(㊱, 시설장 I).

(2) 국·공립지역아동센터의 확대규모

시설장들은 국·공립지역아동센터의 확대규모에 대해서는 ‘적어도 10%’(㊱), ‘지속적인 확대’(㊱,㊱), ‘읍단위나 면단위, 구단위로 최소 하나씩’(㊱), ‘구마다 1~2개씩 있는 거점형 시설을 국·공립으로 전환 필요’(㊱)라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기존의 거점형을 국·공립으로 전환할 시에는 기존의 거점형 선정 기준을 재정비하여 실질적으로 역량 있는 지역아동센터를 선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 (국·공립지역아동센터의 비율이)6) 적어도 10%는 돼야 하지 않을까요?(㊱, 시설장 B).
- (국·공립지역아동센터의) 지속적인 확대가 필요 합니다(㊱, 시설장 B).
- 1%라도 기본적으로 국·공립이 늘어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㊱, 시설장 D).
- 읍단위나 면단위, 구단위로 최소 하나씩은 국·공립 지역아동센터가 있는 것이 좋겠습니다(㊱, 시설장 F).
- 구마다 1~2개씩 있는 거점형 센터를 국·공립으로 전환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㊱, 시설장 I).

(3) 국·공립지역아동센터 확대설치 시 필요사항

국·공립지역아동센터의 확대·실시를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는 예산의 현실화(㊱, ㊱), 역량 있는 사회복지 전문 인력 확충(㊱, ㊱)과 급여 및 업무부담 감소 등의 직원처우의 현실화(㊱, ㊱),

6) 괄호안의 내용은 연구자의 부연설명

㉔), 지역사회 네트워크의 중심기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인적·물적(시설확대 및 주변 환경 정화) 인프라 구축(㉑, ㉔), 행정체계의 간소화 등을 제시하였다. 특히 전문 인력 확충에 있어서 국·공립지역 아동센터의 특수기능을 담당할 수 있는 전담인력 확보와 국·공립지역아동센터의 관리·감독 기능을 강조하였다. 또한 국공립이거나, 민간시설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 평준화를 당부했다(㉔).

- 먼저 충분한 예산이 주어지는 것이 중요합니다(㉑, 시설장 I).
- 월별지원금.. 너무 말도 안 되요. 왜냐면 어느 복지기관에서 월별지원금을 받고.. 복지기관이라는 것이 평균 때려가지고 운영할 수 있지 않은 부분이.. 특히 사업비에서 굉장히 많아요(㉑, 시설장 A).
- 역량 있는 센터장이나 인력이 있어야겠죠(㉑, 시설장 I).
- 저희는 인사위원회가 있는데요. 저희는 오프라인 4년제(대학)를 나온 친구를 뽑는 걸로.. 배점을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중략) 지나 시, 법인의 생각은 그것이 학점은행제라든지 사 이버라는 곳을 통해서 하시는 분들보다는 그냥 전통적으로.. 저희는 다 1급 자격이고 사회복지를 4년제 정규대학에서 전공한 친구들이 일을 하고 있고요(㉑, 시설장 A).
- 최소한 사회복지사 보수체계에 있는 것을 기준으로 해서 (운영비를)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것도 많은 것도 아닌데도.. 그게 가장 하한선이고 사회복지사 선생님들은 이 정도만이라도 주면 좋겠다고 말씀을 하세요(㉑, 시설장 J).
- 국립이면 다른 데에 비해 좀 안정적이었으면 하거든요. 예를 들면, 교사의 뭐 인건비 확보라든지. 왜냐하면 아동센터의 교사들이 가장 많이 바뀌거든요. 워낙에 교사의 사명감만 가지고서 하기에는 일도 많고 (㉑, 시설장 D).
- 법정종사자 인원도 29인 기준에 3명 이상, 4명 이상 이렇게 해서 아이들을 좀 세분화시켜서 볼 수 있도록. 왜냐면 두 명에서 31명 하기에는 너무 힘들고... 서류의 양도 그렇고 (㉑, 시설장 D).
- 연계기관들에게 네트워크의 중심 기관의 역할을 할 수 있게끔 양질의 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는 인적·물적 인프라가 갖추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보급할 수 있고 표준화 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어야 합니다(㉑, 시설장 H).
- 센터의 규모를 클수록 좋습니다. 건평은 500평 이상, 운동장도 시설에 포함되어 있으면 좋겠습니다..(중략).. 국·공립 센터가 되려면 시설 환경이 안정되고 깨끗해야 하고요. 아이들 학습이나 돌봄서비스가 확실해야 해요(㉑, 시설장 F).
- 우리는 이렇게 노력해서 하는데 이렇게 밖에 지원안해주나.. 똑같이 사회복지 시설인데 채네는 이렇게 지원해주고 우리는 이거밖에 지원안해주나.. 하니까 굉장히 날카로워질 수 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잘 하고 있는 기관은 국·공립이 됐건 정상적인 지원금을 지원 해주길 바라죠(㉑, 시설장 A)

(4) 국·공립지역아동센터의 설립방안

국·공립지역아동센터의 운영방법인 직영과 위탁관련해서는 대부분의 시설장들이 위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였다(㉑, ㉒, ㉓). 이미 많은 민간지역아동센터가 존재하고 있으므로 위탁 운영하는 방법을 택하되 가능하면 법인에 위탁할 것을 제안하였다. 직영 시 너무 많은 예산이 필요할 것이므로 현실성이 떨어지고 공무원의 잦은 교체로 전문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지적하였다.

- 지금처럼 이미 많은 센터가 있는 상황에서는 위탁이 낫습니다(㉑, 시설장 I).
- 직영은 하기 어려운 것이 국가에서 사회복지를 위탁형태로 취할 수밖에 없는 것이 신분 보장의 문제예요.. 직영을 하면 두 가지예요. 저희를 공무원 만들어주거나 공무원이 파견 되거나. 공무원이 파견되면 전문성이 없어서 절대 안되고 저희를 공무원 만드는 것은 모든 것을 국가에서 책임져 줘야 하는데 안 책임져 줄 거잖아요. 그러니까 최선의 방법이 위탁이라고 보는 거예요...(중략).. 위탁형태의 국·공립이 가장 책임과 변화를 줄 수 있는 방법이라는 거죠(㉒, 시설장 A).
- 꼭 법인에 위탁을 주어야 합니다. 왜냐면 직영이 되면 공무원 신분이 되는데.. 공무원들이 센터를 잘 운영 못하거든요. 그 사람들은 행정만 하는 사람들일뿐더러.. 조금 지나면 담당자가 바뀌고 또 조금 지나면 담당자가 바뀌고. 전문성 부분에서 많이 떨어지죠(㉑, 시설장 E).

반면 직영을 찬성하는 의견도 있었는데 직영을 하게 되면 전담공무원이 생겨 지역아동센터 관련 업무가 안정적이고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갖고 있었다(㉑).

- 지역아동센터가 직영이 되면 일단 담당공무원이 생길 거고요. 그러니까 지역아동센터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항상 바뀌어요. 항상 바뀌다 보니까.. 바뀔 때마다 아동센터의 실정을 모르는 공무원들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러면 항상 그 공무원에 맞춰서 저희가 또 서류가 바뀌어야 하고...그런 번거로움이 있어요. 그래서 좀 전담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공무원이 있으면 가장 좋고요. 지역아동센터 현실을 이해하고 오시는 공무원들이... 좀 직영이 되면 담당공무원이 안정되고 좋지 않을까(㉑, 시설장 D).

(5) 국·공립지역아동센터의 우선설치 지역

국·공립지역아동센터의 우선 설치지역으로는 저소득층이 밀집해 있는 도시 지역과(㉑) 교육인프라가 부족한 농·어촌지역에(㉒) 우선 설치하자는 의견이 있었다. 모든 지역에 개별적인 상황에 맞추어 설치해야 한다는(㉑) 의견도 있었다.

- 도시에 가난한 사람이 많은 동네에 국·공립 센터를 먼저 설치해야겠죠. 이런 곳은 맞벌이가 많잖아요(㉠, 시설장 F).
- 농어촌 지역은 주변에 학원도 없고 저소득은 많이 있는데..아이들이 집에만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지역에 지역아동센터가 없는 곳에 빨리 생겨야 합니다(㉡, 시설장 F).
- 각 지역에 맞게 전부 설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시설장 D).

(6) 국·공립지역아동센터의 핵심기능

국·공립지역아동센터의 핵심기능으로 시범프로그램 운영(㉣), 지역아동센터 관리 및 감독(㉤), 교사연수나 부모교육(㉥), 지역사회 내 센터 및 종사자간 연계협력(㉦, ㉧), 주말이나 공휴일 센터운영(㉨) 등을 제시하였다.

- 지역아동센터 시범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운영하는 것도 좋은 기능일 것 같아요(㉣, 시설장 F).
- 이쪽에 지역아동센터들을 탐방을 하고 모니터링을 하다보니까 문제가 심각하긴 하구나.. 이걸 알아요. 그래서 이제 자정작용을 우리가 지역사회에서 해야 된다.. 그 필요성을 느끼고 거점역할을 하고 있는데(㉤, 시설장 L)
- 거점센터가 교사교육도 할 수 있고, 부모교육을 함께 할 필요가 있습니다(㉥, 시설장 I)
- 실무진들끼리 교류라든지.. 그렇게 하면 지역아동센터의 정체성을 실무진들이 좀 알 수 있게(㉦, 시설장 A)
- 국·공립지역아동센터는 연계협력이 핵심인 거 같아요. 다른 센터에 비해서 조금 탄탄한 네트워크를 가질 수 있는 게 좋은 거 같아요(㉧, 시설장 D).
- 주말이나 공휴일 등 다른 지역아동센터가 문을 닫을 때에도 운영할 수 있는 지역아동센터가 필요합니다. 이유는 다른 지역아동센터에서 하기 어려운 일을 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시설장 F).

(7) 국·공립지역아동센터 종사자의 급여수준

국·공립지역아동센터에서 종사하는 시설장과 생활복지사의 적정 급여수준에 대해서 우선 호봉제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국·공립지역아동센터가 사회복지시설임을 감안하여 사회복지사 수준이 적정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즉 시설장은 3000만원~4000만원, 생활복지교사는 2000~2500만원의 수준이 적정하다고 응답하였다(㉥, ㉦).

- 다른 기관은 경력이 올라가면 호봉이 올라간다고 하는데 센터는 그런게 없어요(㉣, 시설장 D).
- 연봉제가 아니라 호봉제로 가는 것이 맞습니다(㉤, 시설장 E).
- 국·공립이니까 공무원 수준으로 센터장은 3000만원, 생활복지사는 적어도 2500만원 이상은 돼야죠(㉥, 시설장 F).
- 부모 입장에서든 교사가 사립처럼 월급도 제대로 못받고 한다고 하면 아이를 맡기고 뭐라고 요구하기 굉장히 부담스러운 거죠..(중략)..사회복지시설에 사회복지사가 근무하고 있는데 급여는 보육교사 테이블을 따라가는 것은 옳지 않다(㉦, 시설장 A).

2) 지역아동센터 이용 학부모 초점 집단인터뷰(FGI) 결과

서울과 광주, 부산지역에서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국·공립지역아동센터 설립과 관련하여 국·공립지역아동센터 설립의 필요성, 국·공립지역아동센터의 장·단점과 설립요건 등에 대해 학부모의견을 수렴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국·공립지역아동센터의 필요성

대부분의 학부모들은 현재 민간이 운영하는 지역아동센터의 서비스에 대해 대체로 만족하고 있었다(㉣, ㉤). 특히, 일부 학부모의 경우 현재의 지역아동센터도 국가의 지원금으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국·공립지역아동센터와 특별히 구분을 하지 않았다(㉥). 또한 국·공립지역아동센터를 새로 설립하는 것보다는 현재의 지역아동센터들에게 더 많은 지원을 해줌으로써 민간지역아동센터를 활성화시키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하였다(㉦, ㉧). 현재 다니고 있는 지역아동센터에 만족하고 있는 학부모들은 국·공립지역아동센터를 설립해야 한다면 현재 다니고 있는 지역아동센터를 국·공립화하길 바라기도 했다. 일부 학부모는 지역사회 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국·공립센터가 빠른 시일 내에 설립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하였다(㉨).

- 다른 학원에 비해서 가르쳐 주는 것이 많으니까..한 곳에서 이렇게..애들도 엄마가 못해주는 부분을 밖에 나와서 보여주는 부분도 있고.. 엄마들이 못해주는 것들을 해주는 게 많으니까(㉣, 부산).
- 뭐. 이제. 제가 말씀드렸듯이 사교육 문제도 있지만 이제 포괄적으로 공부를 받고 다른 학원들은 지정해서 몇 가지를 받지 않습니까.. 여기는 문화활동도 포함되어 있어 있고 여기는 다 데리고 가서 영화를 본다는지 뮤지컬을 본다는지.. 여름되면 가까운 데라도 물놀이

를 간다든지.. 다른 프로그램을 하고 계시니까.. 학원하고 비교가 안되죠. 여기에서는 뭐 애들을 갖다가 전인교육을 시키니까(㉔, 부산).

- 저희들 생각으로는 우리 애들을 여기 보내는 자체가 국가에서 지원을 해줘서 보내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또 국가에서 이런 것을 개시를 했잖아요. 우리는 국가에서 해주는 걸 받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국공립이라고 이야기하시니까 어떻게 답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사설에 보낸다 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고 국가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㉔, 부산).
- 그렇다면 국·공립을 만들지 말고 따로 지원을 더 해 주는 것이 좋은 거 아닌가요? 차라리 민간센터에 지원을 더 해줘서 더 좋게 바꾸는게(㉔, 서울).
- 근데 그거 국·공립보다는 현재 있는 민간아동센터를 더 활성화시키는 방안 쪽으로 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요?(㉔, 광주).
- 국공립센터가 진작에 있어야지.. 왜냐면 우리 주변에도 이런 센터 보내고 싶어도 부족해서 못 보내거든요. 국공립이 빨리 생겨가지고 아이들이 빨리 이용할 수 있게.. 경쟁이든 그런 차원을 떠나서 빨리 생겨야지 (㉔ 서울).

(2) 국·공립지역아동센터의 장·단점

학부모입장에서 생각하는 국·공립지역아동센터의 장점으로는, 국가가 좀 더 많은 지원을 하고 적극적으로 개입할 경우, 민간지역아동센터에 비해 좀 더 신뢰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하였다(㉕). 또한 국공립 지역아동센터 종사자의 경우 민간센터보다는 책임감이나 의무감이 더 클 것으로 보고 있었다. 국·공립 시설에 대해서는 학교시스템을 통해 이해하고 있었는데, 사립학원에 비해 국가가 지도·감독하는 학교가 더 공적인 신뢰를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 저 같은 경우에는 국공립 선생님들이 사립하고 틀리게 책임감이나 의무감이 있다고 봐요. 그게 다르니까.. (국공립지역아동센터와 민간과 어떤 점이 좀 다를 것 같으세요?).. 국·공립이 생긴다면 국가적 복지체계에서 생긴다는 것 아닙니까? 좀 더 국가정책을 좀 더 강력하게 갖고 가지 않을까.. 말썽부리는 아이들이 있으면 국가정책으로 끌고 가기 때문에 좀 더 제도적인 것들이 다르지 않을까... 왜냐면 실제로 학원이 학교하고 다르잖아요. 학교가 그래도 교육적인 부분은 더 차원이 높죠. 학원은 지식기술자만 가 있는 거니까(㉕, 서울)

그러나 국·공립지역아동센터가 일반아동과 저소득층아동에 대한 통합서비스를 실시할 경우, 일부 부모들은 학교에서 벌어지는 현상처럼 두 계층의 아동들이 격차를 느껴 차별이나 위화감이 나타나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까하는 우려들을 나타냈다(㉖, ㉗).

- 수준차이를 떠나서 서로 간에 과가 생기겠죠.. 쉽게 말해서 끼리끼리 놀겠죠. 아무래도 화합되기는 어렵지 않을까.. 그런 식으로 생각할거고(㉖, 부산).

- 학교는 어쩔 수 없이 의무니까 가잖아요. 학교에서 일일이 선생님만 알고 이야기를 안해요. 그런데 여기 와서는 애들이 알 수가 있다는 거죠...(중략). 아동센터라는 이 말이. 다른 말로 좀 바꿨으면 하는 것도 있어요. 지역아동센터라는 말 때문에 거기에 가는 애들은 이런 애들이다.. 그제 돼 버리니까 지금껏 여기 와서는 체가 그런 것을 못 느꼈어요. 그리고 여기 선생님들도 그런 것을 표를 안내고 전화통화를 해도 그냥 우리 아이에 대해서만 이야기하고 누구누구네 가정 이야기 안하고 그렇게 하다보니까 그런 점이 좋더라고요. 일반아이들과 섞어서 생활을 하다보면 그런 일이 벌어지지는 않을까(㉖, 서울)

(3) 국·공립지역아동센터 설립을 위한 요건들

학부모들은 국·공립지역아동센터가 국가의 지원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지역아동센터라면, 국·공립지역아동센터 설립 시 인력(교사)의 충원과 처우에 우선적인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바람을 나타냈다(㉘, ㉙). 학부모들은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아동들은 이미 교사의 보살핌으로 자신감과 정서적인 안정감을 얻고 있으며, 밝은 성격으로 변모해가고 있지만, 좀 더 충분한 교사의 돌봄을 받을 수 있기를 희망하고 있었다. 또한 국·공립지역아동센터의 설립 시 주변 환경을 안전하고 밝게 정비해 주었으면 하는 의견도 함께 제시하였다(㉚).

- 첫째, 인력이 확보가 되어 해요. 아무리 좋은 프로그램이 있어도 선생님이 안 돌보면 애들이 통제가 안되니까(㉘, 서울).
- 제가 일을 하면서 이런 지역아동센터에 계신 선생님하고 이야기를 하게 됐는데요. 예산이 적다고 하더라고요. 너무 선생님들도 부족하고 주방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너무 부족하고 너무 부족한 게 많다고.. 채울 수 있는 방법은 없고.. 아이들에게 가장 중요한 게 교육적인 환경보다도 먹을 거 잘 먹고 환경적으로 깨끗하고 안락한 분위기가 되어야 하는데 사실은 그렇게 하나 둘 추가를 하다보면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서.. 음식이 잘 나온다고 해도 선생님이 부족하다보면 신경을 좀 덜 쓸 수도 있고(㉙, 서울).
- 여기 놀이터가 있어서 참 좋긴 한데, 한편으로는 놀이터 주변의 나무가 높아요. 놀이터 부근이 지금 조금 오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음침해요. 주변에 나무가, 가로수가 쪽 있어요. 놀이터 주변에도 나무가 많이 있는데. 그러니까 은밀한 장소 있잖아요. 오다보니까 애들만 보냈을 때는 위험하겠다는 생각도 들었거든요? (중략) 그러다보니까 항상 어두우니까.. 그런 주변 환경을.. 여기 아동센터에서는 할 수 없잖아요(㉚, 광주).

3) 전문가 의견조사 결과

(1) 국·공립지역아동센터 확대설치 필요여부

국·공립지역아동센터 확대설치에 대해 조사에 응답한 전문가들의 4분의 3 정도가(14명)이 찬성하였다. 찬성 이유로는 민간에서 제공하는 지역아동센터 서비스는 그 수준과 질적인 측면에서 편차가 매우 심하고 기관 간 연계나 역할분담, 사례관리의 도입 등에 한계가 있다고 보고 있었다. 또한 학원이나 그룹 홈, 종교단체 등에서 지역아동센터의 본래 목적과 다른 형태로 변형되고 있는 모습도 나타나고 있어 민간섹터에 절대적으로 맡기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이에 따라 지역아동센터의 국·공립화는 양질의 서비스 제공과 시설운영의 전문성 및 안정성 향상을 위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하지만 민간의 자발성과 다양성을 훼손하지 않는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하며, 공공서비스 인프라 확대라는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았다.

국·공립화를 반대하는 전문가들은 수요과약과 공공과 민간 간의 역할구분 등 사전에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다고 보았다. 무엇보다 민간의 자발적인 영역의 위축을 가져올 수 있고 민간센터와 갈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었다. 또한 국·공립지역아동센터를 세우는 것보다 기존의 민간센터 운영비를 현실화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시되었다.

(2) 국·공립지역아동센터 우선설치 지역

국·공립센터 우선 설치지역으로는 ‘도시의 저소득층 밀집 거주지역(8명)’에 가장 많이 응답했으며 다음으로 ‘농어촌 지역으로 현재 지역아동센터 포함 돌봄 서비스가 부족한 지역(4명)’, 시청·구청·구청의 소재지로 아동수가 많은 곳(2명)’, 읍사무소/면사무소/동 주민자치센터와 가까운 곳(1명)’순으로 나타났다.

(3) 국·공립지역아동센터의 핵심기능

전문가들은 국·공립지역아동센터의 핵심기능으로 ‘지역아동센터의 시범 프로그램 및 서비스 운영(8명)’을 가장 많이 꼽았으며, 다음으로는 ‘다문화, 청소년, 장애아동 전용센터 등 특화서비스 제공(5명)’, ‘타 지역아동센터와의 연계·협력사업(4명)’, 주말, 공휴일, 야간 등 다른 지역아동센터가 문을 닫을 때 운영하는 것(4명)’, ‘타 지역아동센터 근무자들을 위한 교육·연수(1명)’순으로 응답하였다. 지역아동센터 본연의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면 된다는 의견도 있었다.

(4) 국·공립지역아동센터 운영방식

전문가의 과반수인 10명이 직영보다는 위탁방식이 바람직하다고 응답하였다. 직영은 지자체 현실상 어려우므로 전문기관에 위탁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보았다. 따라서 충분한 운영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사회복지법인이나 교육 법인에 위탁하여 지자체가 감독·평가하는 것이 지역아동센터의 장점을 잘 살릴 수 있을 뿐 아니라 민관협력의 사회복지 체계 구축 등 장기적인 관점에서 유익하다고 보았다. 보다 구체적으로 직영 시 발생가능한 문제점으로는 전문성이 부족할 수 있고, 타 사회복지시설에서의 사례와 같이 지자체장의 정치적 보은인사나 복지현장의 정치도구화 등의 부작용을 야기할 수 있다고 지적하였다.

지역아동센터의 국·공립 직영방식을 찬성하는 전문가들은 예산집행의 투명성과 고용안정성을 보장하고, 공공성을 제고하기 위해 직영을 해야 한다고 응답하였. 위탁한다면 기존의 민간시설과 차이가 없게 되므로 직영을 통해 국·공립지역아동센터의 역할과 기능 확립 후 위탁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직영과 위탁 방식이 모두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예를 들면, 공공부문에서 직영한 경험을 통해 지역아동센터의 실질적인 어려움이나 한계를 알 수 있다고 보는 전문가도 있었다. 그러나 많은 전문가들은 공공부문은 전문성이 높지 않아 사업 목적과 다른 방향으로 변질될 가능성이 있으며, 특히 지방으로 내려올수록 이러한 현상이 강하게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하였다. 따라서 실험적으로 두 가지 운영방식을 시도해 봄으로써 장·단점을 보다 구체적으로 파악할 필요성이 있다.

(5) 국·공립지역아동센터의 일반아동·청소년(예, 맞벌이가정) 이용

과반수가 넘는 10명의 전문가가 일반아동·청소년의 국·공립센터 이용에 찬성하였다. 전문가들은 교육이라는 것 자체도 평등권이 적용되듯이 사회복지 영역에서도 통합서비스가 아닌 특경제충만의 서비스 제공은 여러 가지 병폐가 있으며, 빈곤가정 뿐만 아니라 맞벌이 가정도 똑같이 방과후 돌봄서비스 수요가 존재한다고 보았다. 특히 저소득층에 포함되지 않고 사회적 배려계층(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등)에도 포함되지 않는 상당수의 가족이 이러한 서비스에서 오히려 사각지대에 놓여있을 수 있다. 따라서 보육서비스를 확대했듯이 국·공립센터에서의 방과후 돌봄서비스도 충분히 확대되어 보편적 복지 실현에 한발 앞서가는 모델이 되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일반아동·청소년의 이용을 반대하는 전문가들도 3분의 1정도 되었는데 그 이유로는 국·공립센터는 취약계층 아동·청소년 등을 먼저 돌볼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야 하며 이러한 일에 전문성이 더 필요하므로 역량 있는 센터에서 이를 수행해야 한다고 보았다. 현재의 지역아동센터로는 빈곤소외계층

아동을 수용하기에도 부족하고, 일반아동·청소년으로 이용대상을 확대하는 것은 복지기관으로서의 정체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6) 국·공립지역아동센터 시설규모

전문가들은 현재 20~29명 이하 또는 30~39명 이하 지역아동센터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므로 지역아동센터의 정체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가장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모델을 지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았다. 8명의 전문가는 ‘20~39명 이하’를 선택하였고, 농산어촌형인 경우 ‘19명 이하’의 모델도 필요하며, 장애아동의 경우 특수성을 고려하여 ‘10인 이하’ 모델도 가능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반면 ‘50명 이상’ 모델은 4명의 전문가가 선택하였는데 그 이유는 국·공립센터가 지역사회 내의 거점 지역아동센터 형태로 운영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고 이 경우 대형으로 운영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이유에서였다. 국·공립의 경우 규모가 커야 그에 상응하는 인력 및 재원을 확보할 수 있고 이를 통해 다양한 역할과 기능수행이 가능하다고 보았다. ‘40~49명 이하’를 선택한 2명의 전문가들은 현재 대부분의 거점시설이 여기에 해당되고, 국·공립에 대한 이용자수가 많이 확보하는 것이 아동·청소년들에게 유익하다고 보았다.

(7) 국·공립지역아동센터의 직원 1명당 적정 아동수

직원 1명당 적정아동수가 ‘10명’이라고 응답한 전문가가 5명으로 가장 많았는데, 그 이유는 소규모 시설로서 개별화 서비스가 가능하려면 사례관리가 가능한 수준이어야 하고 타 센터와의 연계 및 연수기능을 부여한다면 아동수 10명 이하로 제안하는 것이 적절해 때문으로 보았다.

‘15명’이라는 응답은 전문가 4명에게서 나타났는데 그 이유는 가정과 같은 양질의 돌봄 서비스제공이 가능하고, 아동복지시설의 인력배치 기준과 일관성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았다. 2명의 전문가는 ‘5명’이라고 응답하였는데 아동을 최적의 환경에서 보호하기 위해서 아동의 숫자는 최소화해야 하고 국·공립시설은 최적의 모형을 제시해 줄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나타냈다. ‘20명(1명)’이라고 응답한 이유는 방과후아카데미의 운영사례를 볼 때 학습, 체험활동, 프로그램 운영, 생활지도 등 전반적인 관리를 담당하기 위해 아동·청소년 20명당 최소한 1인의 전담직원의 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한 전문가는 미국 아동보육전문기관 제시 비율에 의하면 일반아동 12명당 1인의 교사가 가장 적절한 수준이고 장애아동 3명당 1인이 적정수준이라고 응답하기도 하였다.

(8) 국·공립지역아동센터의 시설장과 생활복지사 자격요건

국·공립지역아동센터 시설장의 자격요건으로는 사회복지사 1급 및 일정기간 이상의 사회복지실무 경력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기관 경력기간은 3년, 5년, 7년으로 다양하게 제시되었다. 또한 사회복지사 2급 및 관련기관 실무경력 3년 이상이란 응답이 있었다. 그 외에 현재 시설장 자격요건을 유지하거나 청소년관련분야, 평생교육사 자격증 소지자로 관련분야 5년 이상의 경력이 있어야 한다는 응답도 있었다. 생활복지사의 자격요건으로는 사회복지사 1급 및 일정기간 이상의 사회복지실무 경력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경력기간은 2년 내지 3년으로 제시하였으며, 또한 사회복지사 2급 이상이나 교사자격증, 보육교사 1급을 적정 자격기준으로 보는 응답도 있었다.

(9) 국·공립지역아동센터의 시설장 및 생활복지사 인건비

시설장 인건비와 관련해서는 전문가의 약58%(11명)가 ‘사회복지시설수준(1호봉 월 280만원 정도)’을 응답하였으며, 그 다음으로 20%(4명)의 전문가가 ‘국·공립 보육시설수준(1호봉 월 170만원 정도)’를 그리고 현재수준 또는 기타응답에 1명의 전문가가 응답함으로써, 국·공립지역아동센터의 시설장 인건비로는 사회복지시설 수준으로 보는 시각이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생활복지사의 인건비에 대해서도 유사하게 나타나 전문가 11명이 ‘사회복지시설수준(1호봉 월 180만원 정도)’으로 응답했고, ‘국·공립 보육시설수준(1호봉 월 140만원 정도)’는 4인의 전문가가 응답해, 역시 시설장 인건비와 마찬가지로 사회복지시설 수준이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10) 국·공립지역아동센터가 갖추어야 할 환경이나 설비기준

국·공립센터가 갖추어야 할 환경이나 설비에 대해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하였다. 첫째, 남녀구분 화장실, 도서관, 놀이터(운동장), 별도의 식당, 다른 센터 종사자들을 교육할 수 있는 교육실을 갖추어야 한다. 둘째, ① 165.289㎡(50평) 이상의 장소, ② 4명 이상의 고용환경, ③ 사회복지 전달체계로서 ‘사례관리’등의 지역사회 네트워크가 가능한 기능적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셋째, 영유아보육법에 명시되어 있는 시설설치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넷째, 상담, 치료 등을 위한 시설 및 설비, 예체능 활동과 관련된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이를 민간과 공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11) 국·공립지역아동센터로 전환 가능한 민간시설의 자격기준과 선발기준

국·공립시설로 전환 가능한 민간시설의 자격기준과 선발기준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의견들이 있었다. 첫째, 일정규모 이상의 사회복지법인(개인은 제외)으로서 다년간 사회복지시설을 위탁 운영한

경험이 있어야 한다. 둘째, ① 법인 운영체, ② 지역사회 네트워크 관련 사업 경험단체, ③ 지자체 점검 이상 유무 확인(결격사유 없는 기관), ④ 거점센터 등의 연계기관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셋째, 일정 규모 이상의 공간 확보, 이용 아동수 50명 이상, 일정기간 이상의 운영 경험, 높은 평가점수(평가점수 기준 상위 ~% 이내), 프로그램 운영 실적, 재정현황 등을 반영하여야 한다. 넷째, 일정 기간 지역사회에서의 활동을 바탕으로 한 지역사회의 평가 등을 중요하게 여겨야 한다.

(12) 국·공립지역아동센터 설립 시 보완사항

국·공립지역아동센터 설립시 반영해야 할 보완사항으로 전문가들이 제시한 의견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아동복지시설로서의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역할 재정립과 방과후 돌봄기능에 대한 범위 등을 정하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또한 이러한 서비스를 공공영역과 민간영역에서 공급하는 것에 대한 효율성과 공공성이란 측면에서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따라서 국·공립시설이 해야 할 기능에 대한 우선적으로 정리해야 한다.

둘째, 지역사회와 네트워크가 되지 않는 독단적인 시설이 국·공립화 될 경우 매우 부정적인 반응이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지역사회 내에서의 위화감 해소와 역량강화를 위한 시너지 효과를 위해 좋은 지역사회내 연계협력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는 시설들이 참여하도록 해야 한다.

셋째, 현재 국·공립 시설확대를 논의할 시점인지에 대한 주의 깊은 접근이 필요하다. 국가가 적절한 장소를 마련하여 기존 지역아동센터가 장소를 무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 등을 통해 기존의 민간 시설들을 국·공립화 하는 방법이 좋을 듯하다. 그렇지 않은 국·공립시설의 단기간 설립·전환의 확대는 민간 지역아동센터와의 갈등을 유발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넷째, 어린이집처럼 5%밖에 국·공립화를 못할 경우 지역아동센터 전체에 미치는 영향은 적을 것이다. OECD 평균처럼 30~40% 정도를 국·공립으로 설립·전환해야 지역아동센터의 공공성을 충분히 확보하고, 무분별한 민간사업자의 유입에 의한 지역아동센터 분야의 혼란을 막을 수 있다.

다섯째, 국가가 지역아동센터의 필요성과 그 공공성을 인정한다는 측면에서 지역아동센터를 지지하고 그 위상을 높일 수 있다. 국·공립지역아동센터와 민간센터와의 차별적 지원에 따른 위화감과 괴리감이 심화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고려할 때, 민간센터에 대한 현실적인 운영지원이 선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또한 표준운영비 산정, 기초 서비스 수준 설정 등 정책적으로 해결되어야 할 문제들이 있다. 이에 대해 민간센터는 상황이 각기 다르므로 국·공립 시설 등을 통해 연구 작업을 수행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다. 결과적으로 현재의 여러 문제점들을 그대로 방치한 채 국·공립 시설의 확대에만 관심을 쏟는다면 민간센터들을 도태시키려 한다는 정책으로 오인받을 수 있다. 따라서

이 전에 먼저 민간지원 방안(지역유희공간 확보, 지역아동센터와 학교와의 적극적 연계, 센터 홍보 등)을 적극적으로 해결해야 할 필요가 있다.

4) 지역아동센터장 설문조사 결과

(1) 국·공립지역아동센터의 설치

본 설문지에 응한 지역아동센터 시설장들을 대상으로 국·공립지역아동센터의 확대·설치의 필요성에 대해 조사한 결과, 시설장의 56.5%가 찬성하였고, 43.5%가 반대하였다(<표 II-15>). 전문가 의견조사에서 75%(19명 중 14명 찬성)의 전문가가 찬성한 것에 비하면 국·공립지역아동센터의 설치에 대해 현장실무자들의 찬성도가 낮음을 알 수 있다.

표 II-15 국·공립지역아동센터의 확대설치 필요성 단위: %(빈도)

구분	매우 그렇다	그렇다	그렇지 않다	매우 그렇지 않다	전체
전체	22.8	33.7	29.7	13.8	100(421)

국·공립지역아동센터의 우선설치지역에 대해서는 <표 II-16>에서 보듯이 '도시의 저소득층 밀집 거주지역'이 40.9%로 가장 많았고, '농어촌 지역으로 현재 지역아동센터가 없는 지역'이 31.1%, '시청·군청·구청의 소재지로 아동수 많은 곳'이 17%, '읍사무소/면사무소/동주민센터와 가까운 곳'이 11.1% 순이었다.

표 II-16 국·공립지역아동센터의 우선설치 지정지역 단위: %(빈도)

구분	시청·군청·구청의 소재지로 아동수 많은 곳	읍사무소/면사무소/동주민센터와 가까운 곳	도시의 저소득층 밀집 거주지역	농어촌 지역으로 현재 지역아동센터가 없는 지역	전체	χ ²
전체	17.0	11.1	40.9	31.1	100(235)	
지역 규모	대도시	16.7	4.4	61.1	100(90)	49.286***
	중·소도시	17.6	6.8	43.2	100(74)	
	읍·면	15.7	24.3	12.9	100(70)	

***p<.001

지역규모별로 보면 대도시와 중·소도시에서는 ‘도시의 저소득층 밀집 거주지역’이 각각 61.1%, 43.2%로 높게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 ‘농·어촌 지역으로 현재 지역아동센터가 없는 지역’(31.1%) 이 높게 나타났다. 읍·면 단위에서는 ‘농·어촌 지역으로 현재 지역아동센터가 없는 지역’(47.1%), ‘읍사무소/면사무소/동주민센터와 가까운 곳’(24.3%) 순으로 나타나 지역규모별로 모두 자신의 지역에 국·공립지역아동센터가 설치되었으면 하는 욕구를 갖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첫해(예를 들어 2013년) 시범사업 규모에 대해서 ‘도시형과 농촌형 30여 개소’(28.1%), ‘시·군·구100여 개소’(27.2%), ‘시·군·구 230여 개소’(17.0%), ‘시·군·구 300여 개소’(27.7%)로 비교적 고른 응답률을 보여 가까운 시일내의 시범사업 규모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을 갖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II-17 시범사업 첫해 개소지역과 수						단위: %(빈도)
구분	전국 시/도에 도시형과 농촌형 각1개소-30여 개소	전국 시/군/구의 신청을 받아서 100여 개소	전국 시·청·구청당 1개소-전국에 230여 개소	전국 시·군·구청의 신청을 받아서 500여 개소	전체	
전체	28.1	27.2	17.0	27.7	100(224)	

2013년을 시작으로 연차적으로 확대할 경우 2017년에 적절한 국·공립지역아동센터의 비율로는 <표 II-18>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전체의 40%’가 33.5%로 가장 많았고, ‘전체의 30%’(31.6%), ‘전체의 20%’(17.5%), ‘전체의 10%’(17.5%) 순으로 나타났다. 즉 ‘전체 지역아동센터의 30% 이상’이 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65.1%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18 2017년 전체 중 국공립 센터의 비율							단위: %(빈도)
구분	전체지역아 동센터의 10%가량	전체 지역아동센터 의 20%가량	전체 지역아동센터 의 30%가량	전체 지역아동센터 의 40%가량	전체	χ^2	
전체	17.5	17.5	31.6	33.5	100(206)		
운영기간	2년미만	26.5	17.6	20.6	35.3	100(34)	12.799*
	2~5년	7.4	16.0	35.8	40.7	100(81)	
	5년이상	24.1	18.4	31.0	26.4	100(87)	
이용 아동수	0~20명	29.2	18.8	29.2	22.9	100(48)	12.867*
	21~30명	11.2	19.4	27.6	41.8	100(98)	
	31명이상	18.3	13.3	40.0	28.3	100(60)	

*p<.05

(2) 국·공립지역아동센터 운영

국·공립 지역아동센터 운영방식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표 II-19>) 조사대상자 중 ‘위탁’이 34.3%로 가장 많았고, ‘직영’(23.7%), ‘직영·위탁’(27.4%), ‘직영 후 위탁’(14.6%) 순으로 나타났다. 위탁방식을 선택한 시설장이 10%정도 많았지만, 각 응답항목에 대한 응답비율이 비교적 고르게 나타난 것을 보면 직영도 고려해 볼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지역아동센터의 운영기간별 차이를 보면, ‘2년미만’(25%), ‘2년-5년미만’(31.2%), ‘5년이상’(39.9%) 순으로 지역아동센터 운영기간이 길수록 직영보다는 위탁에 대한 찬성도가 높음을 알 수 있다.

표 II-19 국·공립 지역아동센터 운영방식 단위: %(빈도)

구분		직영	위탁	직영 후 위탁	직영·위탁	전체	χ^2
전체		23.7	34.3	14.6	27.4	100(405)	
운영기간	2년미만	45.3	25.0	15.6	14.1	100(64)	29.957***
	2~5년미만	18.2	31.2	20.1	30.5	100(154)	
	5년이상	20.2	39.9	10.1	29.8	100(178)	

***p<.001

<표 II-20>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국·공립지역아동센터의 기능에 대해서는 시설장들의 응답항간에 미미한 수준의 차이를 보이며 비교적 고르게 응답한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제시된 기능들이 국·공립지역아동센터의 기능을 정할 때 모두 반영될 필요가 있음을 보여준다.

시설장들의 응답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지역아동센터의 시범프로그램 운영’(17.9%)을 가장 높은 비율로 응답했고, 다음으로 ‘타 지역아동센터와의 연계협력 사업’(16.2%), ‘주말이나 공휴일, 심야에 센터운영’(15.3%), ‘타 센터에 대한 사례관리 지원 및 수퍼비전’(14.6%), ‘다문화, 청소년, 장애아동 전용센터 등 특화서비스 제공’(13.3%), ‘타 센터 운영 및 프로그램에 대한 자문 및 정보제공’(12.8%), ‘타 지역아동센터 근무자들을 위한 교육·연수’(9.8%) 순으로 응답을 보였다. 전문가의견조사에서는 ‘지역아동센터 시범프로그램 및 서비스 운영’(8명)과 ‘다문화, 청소년, 장애아동 전용센터 등 특화서비스 제공’(5명)이 다른 기능에 비해 높게 응답된 바 있다.

표 II-20 국·공립지역아동센터의 기능(중복선택) 단위: %(빈도)

구분	%(빈도)
지역아동센터의 시범프로그램 운영	17.9(232)
타 지역아동센터와의 연계협력 사업	16.2(209)
타 지역아동센터 근무자들을 위한 교육·연수	9.8(127)
다문화, 청소년, 장애아동 전용센터 등 특화서비스 제공	13.3(172)
주말이나 공휴일, 심야에 센터운영	15.3(198)
타 센터 운영 및 프로그램에 대한 자문 및 정보제공	12.8(166)
타 센터에 대한 사례관리 지원 및 수퍼비전	14.6(189)
총계	100(1293)

직원 한명 당 적정 아동 수에 대해서는 ‘10명’이라고 응답한 시설장이 57.3%로 가장 많았으며, ‘5명’(33.9%), ‘15명’(4.9%), ‘12명’(3.9%) 순으로 응답하였다. 전문가의견조사에서도 ‘10명’이란 응답이 가장 많았다.

표 II-21 국·공립지역아동센터의 직원 한명 당 적정 아동 수 단위: %(빈도)

구분	5명	10명	12명	15명	전체
전체	33.9	57.3	3.9	4.9	100(410)

국·공립지역아동센터의 적정 규모로는(<표 II-22> 참조) ‘20~29명’이 38%로 가장 많았으며, ‘30~9명’(29.7%), ‘40~49명’(16.9%), ‘50명이상’(8.8%), ‘10~19명’(6.6%) 순으로 응답하였다. 시설장들은 대체로 국·공립지역아동센터의 적정 규모를 ‘20~29명’이나 ‘30~39명’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의견조사에서도 ‘20~29명’(5명)과 ‘30~39명’(3명) 규모에 대한 선호가 높았지만, ‘50명이상’도 20%(4명)의 전문가가 응답한 것을 볼 때, 50명 이상이 이용할 수 있는 국·공립지역아동센터 모델에 대한 가능성도 생각해 볼 수 있다.

표 II-22 국·공립지역아동센터의 적정 규모 단위: %(빈도)

구분	10~19명	20~29명	30~39명	40~49명	50명이상	전체
전체	6.6	38.0	29.7	16.9	8.8	100(408)

<표 II-23>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국·공립지역아동센터의 일반아동 이용에 대해서는 76.4%의 시설장들이 찬성하였다(‘매우 그렇다’와 ‘그렇다’). 반대는 23.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23 국·공립지역아동센터 일반아동이용에 찬성하는지 여부 단위: %(빈도)

구분	매우 그렇다	그렇다	그렇지 않다	매우 그렇지 않다	전체
전체	28.8	47.6	13.4	10.2	100(410)

(3) 국·공립지역아동센터 인력기준

국·공립지역아동센터 시설장의 자격요건 중 자격증에 대해서는 <표 II-24>에서 보듯이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에 대한 선호(57.6%)가 ‘사회복지사 1급’(41.6%)보다 16% 높게 나타나, 전문가의견조사와는 다른 결과를 보였다(전문가의견조사에는 사회복지사 1급을 시설장 자격요건으로 보는 응답이 더 많았음). 구체적으로 보면 읍·면지역에 위치해 있고, 또 운영주체가 개인일 경우, 지역사회 경제수준이 중간이거나 그 이상일 때, 국·공립지역아동센터 시설장의 자격요건으로 ‘사회복지사 2급’에 대한 선호가 높았다. 이에 비해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에 대한 선호는 대도시로 갈수록 높게 나타났다. 운영주체별로는 ‘법인’(54.5%), ‘종교법인’(50.7%), ‘개인’(36.4%) 순으로 사회복지사 1급을 선호하고 있었다.

표 II-24 국·공립지역아동센터 시설장의 자격요건-자격증 단위: %(빈도)

구분	사회복지사1급	사회복지사2급	사회복지사3급	전체	χ^2
전체	41.6	57.6	0.7	100(401)	
지역규모	대도시	50.3	49.0	0.7	100(143)
	중·소도시	43.9	56.1	0.0	100(132)
	읍·면	28.8	69.6	1.6	100(125)
운영주체	법인	54.5	45.5	0.0	100(66)
	종교법인	50.7	49.3	0.0	100(71)
	개인	36.4	62.7	0.8	100(236)
	기타	43.8	50.0	6.3	100(16)
	국립시립	20.0	80.0	0.0	100(5)
지역사회 경제수준	저소득층	43.7	55.7	0.6	100(309)
	중간수준	37.5	62.5	0.0	100(80)
	중간이상	22.2	66.7	11.1	100(9)

*p<.05, **p<.01

표 II-25 국·공립지역아동센터 시설장의 자격요건-현장경험 단위: %(빈도)

구분		10년 이상	5년 이상	3년 이상	전체	χ ²
전체		13.6	56.7	29.7	100(390)	
지역규모	대도시	15.9	48.6	35.5	100(138)	16.094**
	중소도시	15.1	67.5	17.5	100(126)	
	읍면	9.6	54.4	36.0	100(125)	
운영기간	2년미만	10.5	45.6	43.9	100(57)	17.143**
	2년~5년미만	13.0	52.1	34.9	100(146)	
	5년이상	15.7	65.2	19.1	100(178)	

**p<.01

국·공립지역아동센터 시설장의 자격요건 중 현장경험에 대해서는(<표 II-25>) '5년 이상'이 56.7%로 가장 많이 응답하였고, '3년 이상'(29.7%), '10년 이상'(13.6%)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운영기간이 긴 시설의 센터장일수록 현장경험이 많아야 한다고 응답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국·공립지역아동센터 생활복지사의 자격요건 중 자격증에 대해서는(<표 II-26>) '사회복지사 2급'(80.4%)이 '사회복지사 1급'(14.6%)보다 월등히 높게 응답되었다. 역시 전문가의견조사에서는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을 갖추어야 한다는 응답이 더 많은 것과는 다른 결과이다.

표 II-26 국·공립지역아동센터 생활복지사의 자격요건-자격증 단위: %(빈도)

구분		사회복지사1급	사회복지사2급	사회복지사3급	전체	χ ²
전체		14.6	80.4	5.0	100(398)	
지역사회 경제수준	저소득층	16.2	79.5	4.2	100(308)	17.965**
	중간수준	9.0	85.9	5.1	100(78)	
	중간이상	11.1	55.6	33.3	100(9)	

**p<.01

<표 II-27>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국·공립지역아동센터 생활복지사의 자격요건 중 현장경험에 대해서는 '5년이상'이 48.2%로 가장 많이 응답하였고, '10년이상'(41.6%), '3년이상'(10.2%) 순으로 응답하였다. 이러한 결과를 볼 때, 센터장들은 국·공립지역아동센터의 생활복지사들이 5년이상 또는 10년이상의 현장경험을 갖춰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II-27 국·공립지역아동센터 생활복지사의 자격요건-현장경험 단위: %(빈도)

구분		10년 이상	5년 이상	3년 이상	전체	χ ²
전체		41.6	48.2	10.2	100(392)	
지역사회 경제수준	저소득층	43.9	48.2	8.0	100(301)	18.617**
	중간수준	35.0	51.3	13.8	100(80)	
	중간이상	37.5	12.5	50.0	100(8)	

**p<.01

국·공립지역아동센터 종사자의 급여수준과 관련하여(<표 II-28>) 시설장의 적정급여로는 '사회복지시설수준'이 39.7%, '국·공립보육시설수준'이 38.4%로 나타났고, 다음으로 '7급 사회복지직 공무원수준'이 20.1%, '현재수준'이 1.8%로 응답되었다. 즉 시설장 40% 정도가 '사회복지수준'의 급여를 적정수준으로 생각하고 있었고, 또 유사한 비율로 '국·공립보육시설수준'의 급여를 적정수준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28 국·공립지역아동센터 시설장, 생활복지사의 적정급여 단위: %(빈도)

구분	7급 사회복지직 공무원수준	사회복지 시설수준 (월280만원)	국·공립보육시설 수준 (월170만원)	현재수준 (월100만원)	전체
시설장	20.1	39.7	38.4	1.8	100(398)

구분	9급 사회복지직 공무원수준	사회복지 시설수준 (월180만원)	국·공립보육시설 수준 (월140만원)	현재수준 (월100만원)	전체
생활복지사	19.4	36.8	41.3	2.5	100(397)

생활복지사의 경우는 '국·공립보육시설수준'이 41.3%로 '사회복지시설수준'에 대한응답인 36.4%보다 4.9% 많이 응답되었다. 다음으로 '9급 사회복지직 공무원수준'이 19.4%, '현재수준'이 2.5%로 응답되었다. 즉 시설장들은 생활복지사 급여의 적정수준의 '국·공립보육시설수준'이나 '사회복지시설수준'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의견조사에서는 시설장과 생활복지사의 급여가 모두 사회복지시설 수준이 되어야 한다는 응답이 19명중 11명이었고, 국·공립보육시설 수준이 되어야 한다는 응답이 4명으로 나타난 바 있다.

(4) 국·공립지역아동센터 필요시설

<표 II-29>에서 보듯이 국·공립지역아동센터가 꼭 갖추어야 할 시설로 제시된 대부분의 항목들에 대해 모두 필요하다는 응답을 보였다.

구분		매우 필요하다	필요하다	필요하지 않다	전혀 필요하지않다	전체	χ ²
학습 지도실	전체	85.7	14.3	0.0	0.0	100(406)	6.556*
	지역 규모	대도시	90.3	9.7	0.0	100(145)	
		중소도시	86.5	13.5	0.0	100(133)	
		읍면	79.5	20.5	0.0	100(127)	
집단 지도실	전체	81.5	17.7	0.7	0.0	100(406)	11.557*
	지역 규모	대도시	87.7	12.3	0.0	100(146)	
		중소도시	79.5	20.5	0.0	100(132)	
		읍면	76.4	21.3	2.4	100(127)	
사무실	전체	77.4	21.6	0.5	0.5	100(403)	22.117**
	지역사회 경제수준	저소득층	78.0	21.4	0.3	100(309)	
		중간수준	78.0	20.7	1.2	100(82)	
		중간이상	66.7	22.2	0.0	100(9)	
상담실	전체	68.9	27.3	3.5	0.3	100(395)	45.285***
	지역사회 경제수준	저소득층	68.9	27.8	3.3	100(302)	
		중간수준	72.8	23.5	3.7	100(81)	
		중간이상	44.4	44.4	0.0	100(9)	12.943*
	이용 아동수	0~20명	58.9	35.6	5.6	100(90)	
		21~30명	66.8	29.1	3.6	100(196)	
도서실	전체	54.4	38.7	6.1	0.8	100(395)	
	전체	82.9	16.4	0.7	0.0	100(403)	
식당	전체	58.5	32.6	8.0	0.8	100(386)	21.043**
	운영 기간	2년미만	63.9	19.7	11.5	100(61)	
		2년~5년	55.5	36.3	8.2	100(146)	
		5년이상	59.6	33.3	7.0	100(171)	15.591*
	이용 아동수	0~20명	53.3	30.0	13.3	100(90)	
		21~30명	58.2	34.9	6.9	100(189)	
		31명이상	63.6	30.8	5.6	100(107)	
	전체	73.8	23.5	2.2	0.5	100(404)	19.742**
남녀구분 화장실	지역사회 경제수준	저소득층	74.1	23.0	2.6	100(309)	
		중간수준	73.2	25.6	1.2	100(82)	
		중간이상	70.0	20.0	0.0	100(10)	
실외놀이공간	전체	53.3	40.4	5.8	0.5	100(394)	

*p<.05, **p<.01, ***p<.001

시설장들이 상대적으로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시설들을 알아보기 위해 ‘매우 필요하다’의 응답률만 비교해 보면 ‘학습지도실’(85.7%), ‘취사실’(82.9%), ‘집단지도실’(81.5%), ‘사무실’(77.4%), ‘남녀구분화장실’(73.8%), ‘상담실’(68.9%), ‘식당’(58.5%), ‘도서실’(54.4%), ‘실외놀이공간’(53.3%) 순으로 나타난 것을 볼 수 있다.

(5) 국·공립지역아동센터의 위탁

국·공립지역아동센터의 민간위탁 시 표준화된 선발기준의 필요성에 대해서는(<표 II-30>) ‘매우 그렇다’는 47%, ‘그렇다’는 46.5%로 선발기준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93.5%인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국·공립지역아동센터의 민간위탁을 대비한 표준화된 선발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구분		매우 그렇다	그렇다	그렇지 않다	매우 그렇지 않다	전체	χ ²
전체		47.0	46.5	4.4	2.2	100(413)	17.078**
지역사회 경제수준	저소득층	46.8	47.2	4.7	1.3	100(316)	
	중간수준	50.6	43.4	3.6	2.4	100(83)	
	중간이상	36.4	45.5	0.0	18.2	100(11)	
이용 아동수	0~20명	35.9	57.6	5.4	1.1	100(92)	13.524
	21~30명	51.7	40.6	3.9	3.9	100(207)	
	31명이상	47.4	48.2	4.4	0.0	100(114)	

**p<.01

<표 II-31>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국·공립지역아동센터의 민간위탁 시 기준들에 대해 중요하게 생각하는 정도를 알아 본 결과, ‘센터운영경험’(98.2%), ‘기관신뢰도’(97.8%), ‘기관장신뢰도’(97.8%), ‘아동복지사업활동경험’(96.3%), ‘사업계획서수준’(93.9%), ‘사회복지사업수행경험’(92.9%), ‘기관재정능력’(81.1%), ‘비영리법인’(66.1%), ‘사회복지법인’(57.5%) 순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결과적으로 지역아동센터의 운영주체로서의 비영리법인이나 사회복지법인에 대한 중요도에 비해 지역아동센터장의 운영경험이나 기관장신뢰도, 아동복지활동경험 등에 대한 응답이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민간위탁 시 시설운영주체로서 법인보다는 시설장의 개인역량에 대한 중점을 더 둔 것으로 보인다.

표 II-31 국·공립지역아동센터의 민간위탁 시 중요한 기준 단위: %(빈도)

구분		매우 중요하다	중요 하다	중요하지 않다	전혀 중요하지 않다	전체	χ²
사회복지 법인	전체	24.7	32.8	31.9	10.6	100(360)	
	지역 규모	대도시	21.2	34.1	39.4	5.3	100(132)
		중소도시	26.9	37.0	20.2	16.0	100(119)
		읍면	26.6	26.6	35.8	11.0	100(109)
	운영 주체	법인	43.1	36.9	16.9	3.1	100(65)
		종교법인	31.3	38.8	25.4	4.5	100(67)
		개인	16.7	29.9	38.7	14.7	100(204)
		기타	33.3	33.3	26.7	6.7	100(15)
		국립·시립	0.0	20.0	80.0	0.0	100(5)
비영리 법인	전체	21.9	44.2	25.6	8.3	100(351)	
	지역 규모	대도시	25.8	44.5	26.6	3.1	100(128)
		중소도시	22.7	45.4	19.3	12.6	100(119)
		읍면	16.3	42.3	31.7	9.6	100(104)
	운영 주체	법인	32.3	48.4	17.7	1.6	100(62)
		종교법인	19.7	62.1	16.7	1.5	100(66)
		개인	19.9	35.3	32.8	11.9	100(201)
		기타	23.1	61.5	7.7	7.7	100(13)
		국립·시립	20.0	60.0	20.0	0.0	100(5)
센터 운영경험	전체	71.3	26.9	1.3	0.5	100(376)	
아동복지 사업 활동경험	전체	53.5	42.8	3.5	0.3	100(376)	
사회복지 사업 수행경험	전체	46.2	46.7	6.6	0.5	100(364)	
	운영 기간	2년미만	50.0	32.8	17.2	0.0	100(58)
		2년~5년	43.2	52.5	3.6	0.7	100(139)
		5년이상	48.1	45.6	5.6	0.6	100(160)
기관 재정능력	전체	29.0	52.1	17.8	1.1	100(359)	
	지역 규모	대도시	30.6	55.2	14.2	0.0	100(134)
		중소도시	38.5	44.4	15.4	1.7	100(117)
		읍면	16.7	56.5	25.0	1.9	100(108)
기관신뢰도	전체	51.5	46.3	2.2	0.0	100(365)	
기관장 신뢰도	전체	50.0	47.8	2.2	0.0	100(370)	
	운영 주체	법인	46.9	53.1	0.0	0.0	100(64)
		종교법인	55.1	44.9	0.0	0.0	100(69)
		개인	48.1	48.6	3.3	0.0	100(212)
		기타	68.8	31.3	0.0	0.0	100(16)
		국립·시립	20.0	60.0	20.0	0.0	100(5)
사업계획서 수준	전체	33.5	60.4	6.0	0.0	100(364)	

*p<.05, **p<.01, ***p<.001

이러한 결과는 본 조사대상 시설의 운영주체가 개인이 60%가 넘는 것과 관련성이 있어 보이며, 또한 <표 II-31>에서 ‘비영리법인’과 ‘사회복지법인’의 중요도에 대한 응답 중 개인운영주체인 시설에서의 응답이 특히 낮은 것에서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본 결과에 대한 해석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이외에도 ‘사회복지 법인’과 ‘비영리법인’에 대한 중요도는 지역규모에서 특히 읍·면의 시설에서 그 중요도가 특히 낮게 나타났다. ‘사회복지 사업 수행경험’ 중요도에 대해서는 운영기간이 가장 짧은 시설에서 낮은 응답이 나타났고, ‘기관재정능력’의 중요도는 읍·면에 위치한 시설에서 낮게 나타나, 이 지역의 시설은 재정적인 면에 더 부담을 갖고 있는 것을 간접적으로 알 수 있다.

민간 지역아동센터의 국·공립지역아동센터 전환 시 선발기준의 표준화 필요성에 대해서는(<표 II-32>) ‘매우 그렇다’는 47.7%, ‘그렇다’는 45.9%로 선발기준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93.6%여서 민간 지역아동센터의 국·공립지역아동센터 전환을 대비한 표준화된 선발기준의 필요성을 보여주었다.

표 II-32 민간 지역아동센터의 국·공립지역아동센터 전환 시 선발기준 표준화 필요성 단위: %(빈도)

구분		매우 그렇다	그렇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전체	χ²
전체		47.7	45.9	5.4	1.0	100(407)	
지역사회 경제수준	저소득층	46.5	46.8	6.1	0.6	100(312)	
	중간수준	53.1	43.2	3.7	0.0	100(82)	
	중간이상	36.4	45.5	0.0	18.2	100(11)	
이용아동수	0~20명	36.7	52.2	7.8	3.3	100(90)	
	21명~30명	48.0	46.1	5.4	0.5	100(204)	
	31명 이상	55.8	40.7	3.5	0.0	100(113)	

*p<.05, ***p<.001

<표 II-33>에서 보듯이 민간지역아동센터의 국·공립지역아동센터로의 전환 시 그 기준들에 대해 중요하게 생각하는 정도를 조사한 결과, ‘사회적 평판이 좋은 센터’(90%), ‘최우수평가를 받은 센터’(89.2%), ‘기관장에 대한 사회적 평판이 좋은 센터’(88.8%), ‘지역사회 네트워크’(83.4%), ‘아동복지사업 경험이 많은 센터’(75.5%), ‘시설 이용가능 공간이 큰 센터’(70.3%), 사업계획서를 잘 작성한 센터’(69.9%), ‘생활권의 중심지에 위치’(67.2%), 이용자 수가 많은 센터’(57.9%), ‘공공기관에 위치’(40.3%), ‘아동·청소년 시설에 위치’(34.3%) 순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표 II-33 민간 지역아동센터의 국·공립지역아동센터로의 전환 기준 단위: %(빈도)

구분		매우 그렇다	그렇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전체	χ ²	
생활권의 중심지에 위치	전체	27.1	40.1	26.6	6.2	100(369)		
공공기관에 위치	전체	14.7	25.6	46.0	13.6	100(367)	13.445*	
	도시 규모	대도시	11.4	30.3	50.0	8.3		100(132)
		중소도시	13.3	19.2	49.2	18.3		100(120)
		읍면지역	20.2	26.3	38.6	14.9		100(114)
아동·청소년시설에 위치	전체	7.9	26.4	52.0	13.8	100(356)		
지역사회 네트워크	전체	19.6	63.8	15.3	1.4	100(367)		
아동복지사업 경험이 많은 센터	전체	17.9	57.6	22.2	2.2	100(363)		
시설 이용가능 공간이 큰 센터	전체	16.6	53.7	26.4	3.3	100(367)	22.534*	
	운영 주체	법인	26.6	46.9	26.6	0.0		100(64)
		종교법인	13.6	60.6	19.7	6.1		100(66)
		개인	14.6	51.9	29.7	3.8		100(212)
		기타	21.4	78.6	0.0	0.0		100(14)
		국립,시립	0.0	25.0	75.0	0.0	100(4)	
	이용 아동수	0~20명	21.0	39.5	33.3	6.2	100(81)	14.789*
		21명~30명	14.4	54.1	28.2	3.3	100(181)	
		31명 이상	17.1	63.8	18.1	1.0	100(105)	
이용자 수가 많은 센터	전체	16.3	41.6	37.7	4.4	100(361)	16.934**	
	이용 아동수	0~20명	13.6	32.1	45.7	8.6		100(81)
		21명~30명	13.2	42.5	40.2	4.0		100(174)
		31명 이상	23.6	47.2	27.4	1.9		100(106)
사회적 평판이 좋은 센터	전체	34.1	55.9	9.8	0.3	100(367)		
기관장에 대한 사회적 평판이 좋은 센터	전체	30.9	57.9	10.9	0.3	100(366)	16.307*	
	지역 사회 경제 수준	저소득층	31.3	55.6	13.0	0.0		100(287)
		중간수준	32.4	64.8	1.4	1.4		100(71)
		중간이상	0.0	75.0	25.0	0.0		100(8)
최우수평가를 받은 센터	전체	18.9	50.3	27.8	3.0	100(370)		
사업계획서를 잘 작성한 센터	전체	13.0	56.9	27.6	2.5	100(362)		

*p<.05, **p<.01

5. 연구요약 및 제언

1) 연구요약

(1) 국공립지역아동센터 관련 국내의 사례고찰

① 국내사례 : 국·공보육시설은 대표적인 공보육 시설로서 중앙 및 지방 정부가 설치주체이며 정부로부터 인건비를 지원받고 있다는 점에서 현재 민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는 지역아동센터의 국·공립지역아동센터의 표준모델을 개발하는데 있어 가장 적합한 모델이 될 수 있다. 따라서 국공립보육시설 현황, 국공립보육시설의 기능, 국공립 보육시설 설립, 시설의 위탁운영 (국공립보육시설 위탁제 선정관리 권장표준안), 보육예산(보육료 수납), 보육시설종사자 보수기준, 보육시설 종사자 자격, 보육시설의 설치기준, 국공립보육시설 확충을 위한 우선설치지역 선정방안 등을 소개하고 이를 참고로 하여 국공립지역아동센터 표준모델을 개발하였다.

② 국외사례 : 일본의 아동관과 관련하여 아동관의 법적 지위와 역사, 아동관의 주요사업, 아동의 유형별 기능과 주요사업, 아동관의 지역자녀양육거점사업, 아동관의 시설과 설비 기준, 아동관의 인력, 아동관의 재원 등에 대한 사례조사를 통해 본 연구의 국·공립지역아동센터 표준모델 개발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2) 국·공립 지역아동센터의 운영실태 사례연구

사례조사를 실시한 6개의 국·공립지역아동센터는 3개의 유형, 즉 100% 지방자치단체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으며 운영되고 있는 ① 시립형(100% 지자체 지원) 모델,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건물만을 무상으로 지원받고 있는 ② 인프라지원 모델,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건물 무상지원뿐만 아니라 정부의 민간지역아동센터 월지원금 이상의 지원을 받고 있는 ③ 인프라+부분 운영비지원 모델로 분류할 수 있다. 엄밀하게 보면, 지방자치단체에서 100%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는 시립형 모델만 국·공립형이라고 칭할 수 있으나, 여기서는 지자체에서 일부 건물임대나 운영비지원을 받는 경우도 포함해서 살펴봄으로써 지자체에서 어떤 형태로 지역아동센터를 지원하고 있는지 그 현황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먼저 시설 및 운영형태를 보면, 6개 국·공립지역아동센터 중 1개의 시설은 자체건물을 갖고 있었고, 5개의 시설은 지방자치단체의 건물을 무상으로 임대받고 있어 건물임대비용을 절감함으로써 프로그램 비용 등으로 활용할 수 있었다. 6개의 국·공립지역아동센터 중 F지역아동센터가 읍사무소

소장이 대표로 직영하고 있었고 나머지 5개의 시설은 지자체가 법인에 위탁하여 운영되고 있었다. 지역아동센터의 운영시간은 대체로 오전 10시부터 시작해서 오후 6시 30분에서 8시30분까지만 운영하고 있었는데, 본 연구과정에서 방문한 타 민간지역아동센터보다 일찍 운영을 마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간지역아동센터의 경우 공동모금회 등에서의 야간 아동복지교사 지원 사업을 통해 늦은 시간까지(오후 9시 30분~10시) 센터를 운영하는 것이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종사자수를 살펴보면, 도시지역의 국·공립지역아동센터의 종사자수가 시설장 1명과 생활복지교사 2명, 아동복지교사 2~3명으로, 농촌지역보다 생활복지교사와 아동복지교사가 각각 1명 정도 더 인원이 많았다. 종사자의 자격요건을 보면, A와 B지역아동센터의 시설장만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었고, 다른 지역아동센터는 사회복지사 2급자격증을 갖고 있었다. 생활복지교사들은 사회복지사1급 또는 2급 자격증을 갖고 있었다. 대부분의 국·공립지역아동센터의 경우, 민간지역아동센터와 같은 수준으로 시설장은 정부지원금 월100만원 정도를 받았고, 생활복지교사는 월90만원~100만원을 받았다. 예외적으로 A지역아동센터의 경우, 종사자의 급여수준이 국·공립보육시설 수준(시설장 3,000만원 이상, 생활복지교사 2,000만원 이상)이었고, B지역아동센터의 경우에는 법인의 지원을 받아 다른 지역아동센터보다 종사자의 급여가 월 50~60만원 정도 많았다. E지역아동센터의 경우, 사회복지생활시설 수준(시설장 170만원 정도, 생활복지교사 150만원 정도)의 급여를 호봉제로 받고 있다.

운영예산을 보면, A지역아동센터의 경우 시로부터 연1억7천만원 정도(2011년)를 전폭적으로 지원받고 있었으며, E지역아동센터는 시청과 구청으로부터 민간지역아동센터 지원금의 두배 정도가 되는 지원을 받고 있었다. B지역아동센터는 월433만원 지원금 외에 법인지원금과 후원금을 추가로 받고 있었다. D, C, F지역아동센터는 민간지역아동센터와 같은 수준의 운영비(월350만원)만을 지원받고 있었다. 프로그램운영에 있어서는 예산이 풍부한 A지역아동센터의 경우 다양한 프로그램을 자체적으로 또는 지역사회와 연계하여 실시하고 있었다. B지역아동센터는 꿈나무안심학교라는 컴퓨터 프로그램과 야간보호 프로그램을 함께 운영하고 있었다. 그 밖의 다른 국·공립지역아동센터의 프로그램들은 민간지역아동센터의 프로그램과 특별한 차이가 없었다.

(3) 지역아동센터장 심층면접 조사결과

① 국·공립지역아동센터 설치의 필요성 : 면접대상 시설장들은 국·공립지역아동센터가 설립되면 책임감 있게 운영되고, 예산을 좀 더 투명하게 집행할 수 있으며, 효율적인 운영을 통해 지역의 모델이 됨으로써 민간지역아동센터의 수준을 끌어올릴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었다. 또한 지역아동센터

의 국·공립화를 통해 센터시설이 확보되고 운영비와 인건비가 현실화됨으로써 아동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고, 민간지역아동센터의 재정적 지원도 현실화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었다. 반대의견으로는 국·공립지역아동센터와 민간센터에 대한 정부의 지원차이로 인해 형평성문제와 괴리감이 생길 수 있고 위화감이 조성될 것이라고 우려하였다. 국·공립지역아동센터가 지역아동센터의 기능에 대한 모델링의 역할은 할 수 있겠지만 민간지역아동센터에 미치는 영향력은 미미할 것으로 보는 의견도 있었다.

② 국·공립지역아동센터의 확대규모 : 시설장들은 ‘적어도 10%’, ‘지속적인 확대’, ‘읍단 위나 면단위, 구단위로 최소 하나씩’, ‘구마다 1~2개씩 있는 거점형 시설을 국·공립으로 전환’이라는 의견들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기존의 거점형을 국·공립으로 전환할 시에는 기존의 거점형 선정기준을 재정비하여 실질적으로 역량 있는 지역아동센터를 선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③ 국·공립지역아동센터 확대설치 시 필요사항 : 국·공립지역아동센터의 확대설치를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는 예산 및 전문인력 확충과 직원처우의 현실화, 지역사회 네트워크의 중심기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인적·물적(시설 및 주변환경) 인프라 구축, 행정체계의 간소화 등을 제시하였다. 특히 전문인력 확충에 있어서 국·공립지역아동센터의 특수기능을 담당할 수 있는 전담인력 확보를 강조하였다.

④ 국·공립지역아동센터의 설립방안 : 국·공립지역아동센터의 운영방법인 직영과 위탁과 관련해서는 대부분의 시설장들이 위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였다. 이미 많은 민간지역아동센터가 존재하고 있으므로 위탁 운영하는 방법을 택하되 가능하면 법인에 위탁할 것을 제안하였다. 직영 시 너무 많은 예산이 필요할 것이므로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여겼다.

⑤ 국·공립지역아동센터의 우선설치 지역 : 교육인프라가 부족한 농어촌지역과 도시의 경우 빈곤층이 밀집해 있는 지역에 우선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⑥ 국·공립지역아동센터의 핵심기능 : 국·공립지역아동센터의 핵심기능으로는 시범프로그램 운영, 교사연수, 지역사회 내 센터 간 연계협력, 지역아동센터 관리 및 감독, 주말이나 공휴일 센터운영 등을 제시하였다.

⑦ 국·공립지역아동센터 종사자의 적정 급여수준 : 국·공립지역아동센터에서 종사하는 시설장과 생활복지사의 적정 급여수준에 대해서 호봉제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공립지역아동센터가 사회복지시설임을 감안하여 사회복지사 수준이 적정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즉 시설장은 연 3000만원~4000만원, 생활복지교사는 2000~2500만원의 수준이 적정하다는 의견을 나타냈다.

(4) 학부모 FGI 결과

첫째, 대부분의 학부모들은 현재 민간이 운영하는 지역아동센터의 서비스에 대해 대체로 만족하고 있었으며, 국·공립지역아동센터 설립의 필요성을 크게 느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의 지역아동센터도 국가의 재원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알고 있었으며, 따라서 국·공립지역아동센터를 굳이 새로 만들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따라서 국·공립지역아동센터를 새로 설립하는 것보다는 현재의 지역아동센터들에게 더 많은 지원을 해줌으로써 민간지역아동센터를 활성화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제시되었다. 현재 다니고 있는 지역아동센터에 만족하고 있는 학부모의 경우, 현재 다니고 있는 지역아동센터를 국·공립화 했으면 하는 바람을 나타냈다.

둘째, 한편으로는 국가가 좀 더 많은 지원을 하고, 적극적으로 개입한다면 민간지역아동센터에 비해 국·공립지역아동센터를 좀 더 신뢰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도 제시하였다.

셋째, 일부 학부모들은 국·공립지역아동센터가 일반아동과 저소득층아동에 대한 통합서비스를 실시할 경우, 차별받거나 위화감이 조성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할 것을 우려하였다.

마지막으로, 국·공립지역아동센터가 국가의 지원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지역아동센터라면, 국·공립지역아동센터 설립 시 인력(교사)의 충원과 처우에 우선적인 지원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을 보이기도 했다.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아동들은 이미 교사들의 돌봄을 통해 자신감과 정서적인 안정감을 얻고 있지만, 좀 더 충분한 교사의 돌봄을 받을 수 있기를 희망하고 있었다. 또한 국·공립지역아동센터의 설립 시 주변 환경을 안전하고 밝게 정비해 주었으면 하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5) 전문가 의견조사 결과

① 국·공지역아동센터 확대·설치 필요여부

국·공립지역아동센터 확대·설치에 대해 많은 수의 전문가들이 찬성하였다. 찬성이유로는 민간에서 제공하는 지역아동센터 서비스는 그 수준과 질적인 측면에서 편차가 매우 심하고 기관간 연계나 역할분담, 사례관리의 도입 등에 한계가 있고 지역아동센터의 본래 목적과 다른 형태(예, 학원)로 변형되고 있는 모습도 나타나고 있어 민간부문에 절대적으로 맡기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보았다. 국공립화를 반대하는 이유로는 수요파악과 공공과 민간 간의 역할구분이 선결되어야 하면, 민간의 자발적인 영역의 위축과 국공립센터와 민간센터와의 갈등을 언급하였다.

② 국·공립지역아동센터 우선설치 지역

국공립센터 우선 설치지역으로는 ‘도시의 저소득층 밀집 거주하는 지역(8명)’에 가장 많이

응답했으며 다음으로 ‘농어촌 지역으로 현재 지역아동센터 포함 돌봄 서비스가 부족한 지역(4명)’, ‘시청/군청/구청의 소재지로 아동수가 많은 곳(2명)’ 순으로 나타났다.

③ 국·공립지역아동센터의 핵심기능

전문가들은 국·공립지역아동센터의 핵심기능으로 ‘지역아동센터의 시범 프로그램 및 서비스 운영(8명)’을 가장 많이 꼽았으며, 다음으로는 ‘다문화, 청소년, 장애아동 전용센터 등 특화서비스 제공(5명)’, ‘타 지역아동센터와의 연계협력사업(4명)’, ‘주말, 공휴일, 야간 등 다른 지역아동센터가 문을 닫을 때도 운영하는 것(4명)’ 순으로 응답하였다. 지역아동센터 본연의 기능을 하려면 된다는 의견도 있었다.

④ 국·공립지역아동센터 운영방식

전문가의 과반수 정도가 위탁이 직영방식보다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었다. 일부 전문가는 직영방식이 아니라 직영과 위탁을 병행하는 방식을 선호하기도 하였다.

⑤ 국·공립지역아동센터의 일반아동·청소년(예, 맞벌이가정) 이용

과반수가 넘는 전문가가 통합서비스의 일환으로서 일반아동·청소년의 국·공립센터 이용에 찬성하였다. 일반아동·청소년의 이용을 반대하는 일부 전문가들은 그 이유로 국공립센터는 취약계층 아동·청소년 등을 먼저 돌볼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어야 하며, 전문성을 더 필요로 한다고 보았다.

⑥ 국·공립지역아동센터 시설규모

지역아동센터의 정체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가장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모델을 지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이유에서 ‘20~29명 이하 형’과 ‘30~39명 이하 형’에 대한 응답이 높았다. 반면 ‘50명 이상 형’도 20%의 전문가가 선택하였는데 그 이유로 국·공립센터가 지역사회 내의 거점 지역아동센터 형태로 운영될 수밖에 없으며, 이 경우 대형으로 운영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았다.

⑦ 국·공립지역아동센터 직원 1명당 적정 아동수

직원 1명당 적정아동수가 ‘10명’이라고 응답한 전문가가 가장 많았는데, 그 이유는 소규모 시설로서 개별화 서비스가 가능하려면 사례관리가 가능한 수준이어야 하고 국공립의 타 센터와의 연계 및 연수기능을 부여한다면 아동수 10명 이하로 제안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것이다.

⑧ 국·공립지역아동센터의 시설장과 생활복지사 자격요건

시설장의 자격요건으로 사회복지사 1급 및 일정기간(3년, 5년, 7년) 이상의 사회복지실무 경력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사회복지사 2급 및 관련기관 실무경력 3년 이상이란 응답이 있었다. 생활복지사의 자격요건으로 사회복지사 1급 및 일정기간(2년 내지 3년) 이상의 사회복지실무 경력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사회복지사 2급 이상이나 교사자격증, 보육교사 1급이란 응답도 있었다.

⑨ 국·공립지역아동센터의 시설장 및 생활복지사 인건비

시설장의 인건비는 사회복지시설수준(1호봉 월 280만원 정도) 이어야 한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국·공립 보육시설수준(1호봉 월 170만원 정도)으로 나타났다. 생활복지사의 인건비도 사회복지시설 수준(1호봉 월 180만원 정도) 데 대한 응답이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국·공립 보육시설수준(1호봉 월 140만원 정도)을 응답하였다.

⑩ 국·공립지역아동센터가 갖추어야 할 환경이나 설비

전문가들은 첫째로 남녀구분화장실, 도서관, 놀이터(운동장), 분리된 식당, 다른 센터 종사자들을 교육할 수 있는 교육실을 갖추어야 한다고 보았다. 둘째, 165.289㎡(50평) 이상, 4명 이상의 고용환경, 사회복지 전달체계로서 '사례관리'등의 지역사회 네트워크가 가능한 기능적 조건을 갖추어야 하며, 셋째, 영유아보육법에 명시되어 있는 시설설치기준을 갖추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마지막으로 상담, 치료 및 예체능 활동과 관련된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이를 민간과 공유할 수 있어야 한다고 보았다.

⑪ 국·공립지역아동센터로 전환 가능한 민간센터의 자격기준이나 선발기준

첫째, 일정규모 이상의 사회복지법인(개인은 제외)으로서 다년간 사회복지시설을 위탁 운영한 경험이 있어야 한다. 둘째, 법인 운영체, 지역사회 네트워크 관련 사업 경험단체, 지자체 점검 이상 무부 확인(결격사유 없는 기관), 거점센터 등의 연계기관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셋째, 일정 규모 이상의 공간 확보, 이용 아동수 50명 이상, 일정기간 이상의 운영 경험, 평가점수 상위 일정수준 이상, 프로그램 운영 실적, 재정현황 등을 반영하여야 한다. 넷째, 일정 기간 지역사회에서 일하며 받아온 지역사회의 평가 등을 중요하게 여겨야 한다.

(6) 지역아동센터장 설문조사 결과

① 국·공립지역아동센터의 설치

국·공립지역아동센터의 확대·설치의 필요성에 대해서 본 설문조사에 응한 센터장의 과반수 약간 넘는 정도(56.5%)만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국·공립 우선설치지역으로는 '도시의 저소득층 밀집 거주지역'이 40.9%로 가장 많았고, '농어촌 지역으로 현재 지역아동센터가 없는 지역'이 31.1%로 그 다음으로 나타났다. 첫째(2013년) 시범사업 규모에 대해서 '도시형과 농촌형 30여 개소'(28.1%), '시·군·구 300여 개소'(27.7%)가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였고, 향후(2017년 경) 적절한 국·공립센터의 비율로는 '전체 지역아동센터의 30% 이상'이 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약 65%로 나타났다.

② 국·공립지역아동센터 운영

국·공립 지역아동센터 운영방식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조사대상자 중 '위탁'이 34.3%로 가장 많았지만, '직영'(23.7%)에 대해서도 비교적 높은 응답이 나타났으며, 지역아동센터 운영기간 이 길수록(5년 이상) 위탁에 대한 찬성도가 높았다. 국·공립지역아동센터의 기능에 대해서는 '지역아동센터의 시범프로그램 운영', '타 지역아동센터와의 연계협력 사업', '주말이나 공휴일, 심야에 센터운영', '타 센터에 대한 사례관리 지원 및 수퍼비전'등에 대한 응답에 높은 빈도를 나타냈다. 직원 한명 당 적정 아동수에 대해 '10명'이라고 응답한 센터장이 57.3%로 가장 많았으며, 시설장들은 국·공립지역아동센터의 적정 규모를 '20~29명'이나 '30~39명'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공립센터의 일반아동 이용에 대해 76.4%의 시설장들이 찬성하였다.

③ 국·공립지역아동센터 인력기준

국·공립지역아동센터 시설장의 자격요건 중 자격증에 대해서는 '사회복지사 2급'이 57.6%, 사회복지사 1급이 41.6%로 나타났고, 운영주체별로는 법인의 사회복지사 1급 선호가 가장 높았다. 현장경험에 대해서는 '5년이상'이 56.7%로 가장 많이 응답하였고, 그 다음은 '3년이상'이 약 30%로 나타났다. 생활복지사의 자격증에 대해서는 '사회복지사 2급'이 80.4%로 월등히 높게 나타났으며, 현장경험에 대해서는 '5년이상'이 48.2%로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시설장의 적정급여로는 '사회복지시설수준'이 39.7%, '국·공립보육시설수준' 38.4%로 나타났고, 생활복지사의 경우는 '국·공립보육시설수준'이 41.3%로 '사회복지시설수준' 36.4%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④ 국·공립지역아동센터 시설 및 위탁 기준 관련

국·공립센터의 매우 필요한 시설로는 '학습지도실'(85.7%), '취사실'(82.9%), '집단지도실'(81.5%), '사무실'(77.4%), '남녀구분화장실'(73.8%), '상담실'(68.9%), '식당'(58.5%), '도서실'(54.4%), '실외놀이공간'(53.3%) 순으로 나타났다.

국·공립지역아동센터의 민간위탁 시 표준화된 선발기준에 대해서는 90%를 상회하는 시설장들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고, 특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선발 기준으로는 '센터운영경험'(98.2%), '기관 신뢰도'(97.8%), '기관장신뢰도'(97.8%), '아동복지사업활동경험'(96.3%), '사업계획서 수준'(93.9%), '사회복지사업수행경험'(92.9%), '기관재정능력'(81.1%)등의 순으로 나타났는데 개인운영주체인 센터일 경우 특히 '사회복지법인' 등에 대한 것 보다 센터장 개인역량에 관련된 선발기준에 대한 선호가 높았다. 기존의 민간 지역아동센터의 국·공립센터 전환에 대해서는 그 기준의 표준화 필요성에 대해서 역시 90%가 훨씬 넘는 센터장들이 동의했고, 그 기준에 대해서는

‘사회적 평판이 좋은 센터’(90%), ‘최우수평가를 받은 센터’(89.2%), ‘기관장에 대한 사회적 평판이 좋은 센터’(88.8%), ‘지역사회 네트워크’(83.4%) 등이 상대적으로 높은 응답을 보였다.

2) 제언

국·공립보육시설 및 일본의 아동관 사례, 국·공립지역아동센터 운영사례연구, 지역아동센터장 심층면접, 지역아동센터 이용자녀를 둔 학부모 FGI, 전문가의견조사와 시설장 설문조사 결과를 근거로 국·공립지역아동센터의 표준모델 개발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제언할 수 있다.

첫째, 지역아동센터를 방과후에 보호와 교육이 필요한 일부 특수계층 아동을 위한 기관이 아닌 모든 아동이 선택해서 이용할 수 있는 센터로 발전시키고, 특히 방과후에 나 홀로 지내는 아동이 보편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일본의 거의 모든 시정촌에 아동관이 있듯이, 한국의 모든 읍/면/동에 1개소 이상의 지역아동센터가 설치 운영되어 아동이 보편적이고 종합적인 아동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방과후에 한 시간 이상씩 나 홀로 있어서 방입되기 쉬운 아동이 30만명이 넘는 상황에서 기존 지역아동센터의 수용능력은 매우 제한적이기 때문에 국·공립 지역아동센터는 기존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아동과 이용하지 않는 아동 모두에게 개방되어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둘째, 국·공립 지역아동센터는 무엇보다도 아동복지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지역아동센터 본연의 기능과 역할을 가장 잘 구현할 수 있어야 하며, 더 나아가 종합적인 아동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도 국·공립 지역아동센터는 지역아동센터 본연의 기능을 잘 수행함으로써(지역사회 아동의 보호, 교육, 전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 보호자와 지역사회의 연계 등) 기존의 지역아동센터의 기능을 보완하고 지역사회 내의 민간지역아동센터들에게 역할모델로서의 모범을 보임으로써, 지역아동센터의 리더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한다. 국·공립 지역아동센터가 민간지역아동센터보다 추가적으로 갖추어야 할 기능으로는 주 5일제를 대비한 주말보호와 야간보호, 다문화청소년, 장애아동·청소년을 위한 사업, 송영서비스, 타 지역아동센터 근무자들을 위한 교육·연수, 보호자와 지역사회 연계, 민간지역아동센터의 종사자들을 위한 학습지도 연찬회, 주말과 방학기간 동안의 연합캠프활동 등을 들 수 있다. 국·공립 지역아동센터는 이러한 기능을 수행함으로써 민간지역아동센터의 미비한 기능을 보완함으로써 민간지역아동센터와 지역사회 내에서 협력하며 공생할 수 있다. 특히 보호자와 지역사회의 연계 기능은 지역아동센터의 핵심 기능으로 보다 강화되어야 한다. 일본의 사례를 볼 때, 일본의 아동관은 처음에는 방과후에 아동을 직접

돌보는 기능이 중심이었다. 최근에는 자녀의 수가 1~2명으로 자녀수가 감소하면서 아동들 간 사귀는 기회를 제공하고, 부모상담과 부모 상호간에 교류를 기회를 주는 기능이 크게 강조되고 있다. 또한 아동관은 지역의 조직활동을 육성 지원하고, 아동의 성장에 관한 조직 네트워크의 중심이 되어 지역의 아동을 건전하게 육성하는 거점으로서 역할을 한다. 최근까지 한국의 지역아동센터는 소규모 개인 신고시설이 위주이었기에 센터를 이용하는 아동의 보호 및 교육에 역점을 두었지만, 한국의 지역아동센터도 부모교육, 부모상담, 부모간의 네트워크 형성, 아동이 살기 좋은 지역사회 만들기 등의 중추기관으로 거듭나야 할 것이다. 이러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국·공립 지역아동센터가 일본의 아동관처럼 보다 공격적인 기관으로 발전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지역아동센터의 시설과 설비, 인력, 핵심기능, 재원분담에 대한 표준화를 통해서 지역아동센터의 공공성을 높여야 할 것이다. 아동복지법상 아동양육시설, 아동보호치료시설 등이 아동복지법, 시행령, 시행규칙 혹은 보건복지부의 지침에 의해서 표준화된 모델이 있듯이 지역아동센터도 좀 더 표준화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표준화의 기준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시설 운영자에게 일방적으로 요구하기는 어렵고, 종사자에 대한 인건비의 지원과 근로조건의 보장과 같은 지원을 하면서 핵심 기능을 성실히 수행할 수 있는 수준으로 마련되어야 한다.

넷째, 지역아동센터의 인력기준을 새롭게 만들고, 인건비 등에 대한 기준을 아동양육시설, 아동보호치료시설 등 아동복지법상 다른 아동복지시설에 준하거나, 사회복지관, 어린이집 등 다른 사회복지서비스 기관에서 일하는 사회복지사에 준하는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과거 새마을유아원이 영유아보육법의 시행으로 국·공립어린이집으로 발전되고, 민간의 운동차원에서 이루어졌던 아동학대 관련 사업이 아동복지법상 아동보호치료시설이 되면서 직원에 대한 처우가 혁신되었듯이, 국·공립 지역아동센터의 표준 모델 개발은 직원의 자격요건, 근로조건, 보수교육 등을 혁신시키는 계기가 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국·공립지역아동센터에 대한 지원이 민간지역아동센터의 신고를 무분별하게 촉진시킬 수 있으므로 시설의 신고제를 엄격한 등록제 혹은 허가제로 바꾸는 방안을 함께 연구해야 한다.

다섯째, 이용 아동이 확대될 때 이용료의 부담을 사회적으로 공평하게 해야 할 것이다. 영유아보육서비스에 대한 보육료의 지원에서 보는 바와 같이 소득수준을 고려하여 기준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지역아동센터의 표준 이용료를 정하고, 사회통념에 비춰보아 영유아보육시설에 대한 지원에 준하는 기준을 마련한다.

여섯째, 국·공립지역아동센터와 민간지역아동센터가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기존 지역아동센터의 대부분이 민간 지역아동센터이기에 국·공립지역아동센터는 별도의 기관이라기 보다는 민간지역아동센터의 기능을 보완하고 민간센터와 협력할 수 있는 모델이 되어야 한다.

6. 국·공립 지역아동센터의 표준모델(안)

국·공립 지역아동센터의 표준모델 개발을 위하여 이용대상자, 사업(프로그램), 시설, 인력, 소요예산(적정 운영비), 운영방법에 관한 기준과 법적·제도적 개선방안 순으로 제안하고자 한다. 먼저 각 세부 사항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기에 앞서, ‘국·공립 지역아동센터’를 정의하고자 한다. 국·공립 지역아동센터는 국·공립과 지역아동센터의 합성어이고,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정의는 아동복지법에 따른다. 국·공립은 국립과 공립을 합친 말이므로, ‘국립’ 지역아동센터의 사전적 의미는 ‘국가에서 세운’ 지역아동센터이고, ‘공립’ 지역아동센터는 ‘지방자치단체가 세운’ 지역아동센터를 말한다.

국립박물관은 ‘국가가 세운’ 박물관이고, 국립대학교는 ‘국가가 세운’ 대학교이며, 공립 초등학교는 ‘지방자치단체가 세운’ 초등학교이다. 하지만 사회복지시설의 경우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세워서 사회복지법인 등에게 운영을 위탁한 경우에도 ‘국·공립’으로 불리고 있다. 예를 들면, 국·공립어린이집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세우고 사회복지법인 등이 운영하는 어린이집이다.

따라서 국·공립 지역아동센터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영하는 지역아동센터(가형)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고 사회복지법인 등 민간에 운영을 위탁한 지역아동센터(나형)로 세분할 수 있을 것이다. 이 글에서 국·공립 지역아동센터는 두 가지 유형의 센터를 모두 칭하는 낱말이다. 다만 두 가지를 구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영’하는 시설과 ‘위탁’하는 시설로 칭하고자 한다.

1) 대상자 기준

아동복지법상 지역아동센터의 개념은 ‘지역사회 아동의 보호·교육, 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 보호자와 지역사회의 연계 등 아동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종합적인 아동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이다. 법적으로 볼 때,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할 수 있는 대상은 18세 미만의 모든 아동이다. 그중 영유아보육법에 의해 지원받는 만 6세 미만의 영유아는 영유아보육서비스를 보편적으로 받을 수 있기에 사실상 제외되고, 초등학교에 취학한 만 6세 아동부터 18세 미만의 아동이 이 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다. 현재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은 초등학교생이 대부분이지만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학교에 진학한 중학생과 고등학교생도 일부 이용하고 있고, 주로 중학생과 고등학교생만 이용하는 청소년 전용

지역아동센터도 점차 늘어나고 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을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족지원법의 대상 아동, 다문화가족지원법의 대상 아동에게 우선 적용하도록 권장하지만, 부모의 소득이 차상위계층을 넘더라도 맞벌이, 영세사업장 종사, 비정규직 등일 경우 아동이 방과후에 방임되기 쉽기 때문에 이들의 보호대책은 절실하다.

여성가족부가 아동성폭력예방을 위한 지역사회안전망구축사업과 관련하여 ‘홀로 남아 보호가 필요한 아동 안전현황 조사’(2011년)를 실시한 바에 따르면, 초등학교 방과 후 집에서 하루 1시간 이상 보호자의 돌봄 없이 혼자 지내야 하는 아동이 전체의 29.6%에 달했다⁷⁾. 이는 전국 초등학교생 328만 명 중 97만 명이 방과 후 집에서 1시간 이상 혼자 방치되고 있는 셈이다.

방과후에 한 시간 이상 방임된 아동 중에서는 하루에 3~5시간 동안 보호자 없이 지내는 경우가 24.2%(약 23.5만명), 5시간 이상 방치되는 경우도 23.5%(22.8만명)에 달했다. 하루 1시간 이상 방치되는 아동들의 44%는 1주일에 5일 이상 같은 환경에서 지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서 사회적 돌봄이 절실한 것을 알 수 있다. 현재 방과후에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아동이 약 12만명이고, 초등학교의 방과후 교실, 돌봄교실 등을 이용하는 아동이 있다는 것을 감안하더라도 사실상 100만 여명이 아동이 하루 1시간 이상 사회적 돌봄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역아동센터의 이용 아동을 부모의 경제적 수준에 맞추어서 제한하는 것은 아동의 건전한 성장을 도모해야 한다는 아동복지의 취지에 역행하는 것이다. 방임된 아동의 비율은 부모의 경제적 수준에 영향을 받지만, 저소득층인 아동의 40%가 방임상태일 때 ‘중간’인 아동의 31%, ‘잘 산다’고 응답한 아동의 27%도 방임상태에 있었다. 아동복지의 관점에서 주목해야 할 통계는 부모가 ‘잘 산다’고 응답한 초등학교생 27%는 방과후에 하루 1시간 이상 방임상태에 있다는 것이다. 아동의 복지를 생각한다면 ‘지역아동센터’의 이용아동은 부모의 소득수준에 의해서 결정되기보다는 아동의 양육환경과 당사자의 욕구에 의해서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

아동복지의 대상을 부모의 경제적 수준에 의해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아동을 위한 보편적 서비스를 지향하는 것은 일본의 아동관에서도 살펴볼 수 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일본의 아동복지시

7) 이번 조사과정은, 16개 지역연대 모범지역 중 대도시(서울 동작구), 중소도시(충북 청주시), 농어촌지역(전북 군산시) 등 3개 지역을 선정하여 초점집단면접(FGI)을 실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16개 지역의 학생, 학부모 및 교사를 대상으로 종합설문조사를 실시하는 단계별 접근으로 추진되었다. 설문조사 대상자는 16개 시군구 모범지역 내 전체 초등학교(3학년, 5학년)의 학생(20,354명) 및 학부모(3,246명), 교사(1,204명)이며 아동의 상황별 위험 인식 및 피해 경험, 그리고 상황 대처법 또는 예방을 위한 다각적인 정책 방안에 대한 내용으로 설문이 만들어졌다. 이는 시군구 조사결과이니 만약 읍면지역까지 조사한다면 혼자 지내는 아동은 훨씬 많을 것이다(출처: 여성가족부 보도자료/2011. 9. 23. “나홀로 아동, 29.6%로 나타나”).

설 중에서 한국의 지역아동센터와 유사한 기능을 하는 기관이 아동관이다. 아동관은 '아동에게 건전한 놀이를 제공하여 그 건강을 증진하고, 또한 정서를 풍부하게 하는 것을 목적'(아동복지법 40조)으로 하는 아동복지시설이다.

일본 아동관은 18세 미만의 모든 아동을 대상으로 놀이 및 생활의 원조와 지역사회 중심의 자녀양육지원을 하며, 아동의 심신 모두 건강하게 육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일본의 아동관은 자녀수 감소 및 가족규모의 축소, 약해진 지역사회관계 등 사회환경이 변화하는 가운데, 가까운 곳에서 상담할 수 있는 상대가 없는 등 자녀양육의 고립화와 부담감이 증가한다는 점에 착안하여 아동을 위한 서비스와 함께 부모상담교류와 같은 부모를 위한 사업을 크게 강조하고 있다. 자녀양육스트레스와 사회로부터의 고립감 및 소외감을 가진 부모의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한 일본의 아동관은 지역사회의 자녀양육지원의 거점으로서 현재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 2008년 10월 1일 현재 일본의 아동관 수는 4,689개소이다.

따라서 국·공립 지역아동센터는 원칙적으로 6세 이상 18세 미만의 모든 아동을 잠재적 이용대상으로 해야 한다. 현재는 사회적으로 돌봄이 필요한 아동의 수에 비해 지역아동센터의 수용능력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다문화가족 등의 아동을 우선 적용하고 있지만, 조만간 그 이용 대상자를 하루에 5시간 이상 방치된 아동으로(약22.8만명) 확대시키고, 점차 하루에 3~5시간 동안 보호자 없이 지내는 아동으로(약23.5만명) 확대시켜야 할 것이다. 현재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아동이 약 12만명인데, 추가적으로 돌봄이 필요한 아동은 45만명 가량 된다면 지역아동센터를 포함하여 아동의 돌봄 기능을 크게 확충시켜야 할 것이다.

지역아동센터의 이용아동을 저소득층에서 일반 아동으로 확대시킬 때 점진적이고 섬세한 접근이 필요하다. 지역아동센터의 이용 아동을 저소득층에서 일반으로 확대시키는 것은 사회적 돌봄이 필요한 아동에게 센터의 이용을 확대하려는 것이지, 센터가 비교적 지도하기 쉬운 일반아동을 우선적으로 등록시켜서는 안될 것이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전체 이용자의 30% 범위 내에서는 일반 아동의 등록을 허용하더라도, 해당 지역에 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사회적 돌봄이 절실한 아동이 있다면 이들이 우선적으로 센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기준이 설정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국·공립 지역아동센터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계층의 아동뿐만 아니라, 야간보호, 주말보호 등이 필요한 아동에게 좀 더 집중해서 대상자를 발굴해야 한다.

2) 사업(프로그램) 기준

현재 지역아동센터가 보고한 자료와 시설장, 생활복지사, 아동복지교사 등의 역할을 분석하여 보면, 지역아동센터는 지역사회 아동의 보호, 교육, 전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 보호자와 지역사회의 연계 등을 핵심기능으로 수행하고 있다. 따라서 국·공립 지역아동센터는 무엇보다도 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지역아동센터 본연의 기능과 역할을 가장 잘 구현할 수 있어야 하며, 추가로 국·공립 지역아동센터에서 강조되는 업무를 수행하여야 할 것이다.

(1) 지역사회 아동의 보호

지역아동센터가 담당하는 아동의 보호기능은 크게 돌봄, 급식과 간식의 제공, 기초생활습관 지도, 고충상담과 정보 제공, 귀가지도(송영 서비스) 등이다. 국·공립 지역아동센터에서 강조되는 아동의 보호 기능은 다음과 같이 살펴볼 수 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주 5일 학습제를 해당 학교가 운영위원회 등에서 논의하여 실시 여부를 결정할 사안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2012년부터 일부 사립 고등학교를 제외한 대부분의 초·중·고등학교가 주 5일 학습제를 시행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공공기관, 대규모 사업장 등을 제외한 소규모 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와 비정규직 종사자들은 당분간 주 5일 근무를 하기 어렵다. 따라서 주 5일 학습제가 시행되면 주말에 보호자의 돌봄을 받기 어려운 아동은 현재보다 훨씬 증가하고 이들의 상당수는 학원으로 내몰리거나 방임될 것이다. 따라서 국·공립 지역아동센터는 토요일(혹은 일요일)에도 운영함으로써 돌봄이 필요한 아동을 보호해야 할 필요가 있다.

현재 평일에는 저녁 7시 이후에 돌봄을 하지 않은 지역아동센터가 많은데, 저녁 10시까지 개방하여 야간보호를 체계적으로 시행하고, 부모의 직업 혹은 질병 등으로 24시간 돌봄을 필요로 하는 아동이 증가할 수 있는데, 국·공립지역아동센터는 다른 민간 센터들이 담당하기 어려운 야간보호와 주말보호 등을 우선적으로 제공해야 한다.

지역아동센터는 이용아동을 대상으로 회원제 형식으로 운영하되, 향후에는 회원이 아니더라도 일시적 혹은 단기적으로 돌봄이 필요한 아동에 대한 보호를 수행하고, 국·공립센터가 이를 주도적으로 실시하도록 한다. 회원제이용을 기본으로 하면서도 주말(토요일, 일요일)이용, 평일 야간이용, 특기성 프로그램 등에 대한 '시간제 이용'도 가능하도록 방법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이미 영유아보육에서도 시간제 이용이 정착되었고, 만약 보육시설처럼 바우처 방식을 도입하게 된다면 시간제 이용을 고려해 볼 수 있다. 다만 현재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아동이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것은 쉽지

않고, 송영서비스가 구축되지 않는 상황에서 아동이 여러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것은 안전상의 문제가 있을 수 있기에 생활권역별로 국·공립지역아동센터를 비롯하여 거점 지역아동센터를 지정하여 평일 야간돌봄, 주말돌봄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네트워크를 형성해야 한다.

신체적으로 장애가 있거나 지적 능력이 낮아서 다른 지역아동센터가 돌보기 어려운 아동을 위한 사업도 국·공립 지역아동센터가 우선적으로 수행해야 할 것이다. 현재도 지역아동센터 중에는 장애아동 특화 지역아동센터가 있지만, 그 수가 제한되어 모든 장애아동들이 이용하기 어렵다. 또한 장애가 중증인 경우에는 장애아동만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지만, 장애가 경증이거나 지적 장애인과 같이 다른 아동과 비교적 쉽게 동화될 수 있는 경우에는 아동의 지역사회내의 가까운 지역아동센터에서 일반 아동과 함께 통합 서비스를 받는 것이 보다 교육적일 것이다. 장애아동은 특수교사와 같이 특별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전문가가 필요하기에 국·공립 지역아동센터가 우선적으로 담당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농어촌 지역처럼 대중교통수단이 제한적인 지역에서는 국·공립 지역아동센터가 우선적으로 송영서비스를 제공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아동에게도 송영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소수의 아동을 위해서 송영서비스만을 전담하는 인력을 모든 센터가 두기 어렵고, 아동을 지도하는 도중에 생활복지사가 송영서비스를 하는 것도 어렵기 때문에 거리가 멀고 송영서비스가 꼭 필요한 아동을 국·공립 센터가 우선적으로 돌보거나, 다른 센터와 네트워크를 하여 송영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2) 지역사회 아동의 교육

지역아동센터가 담당하는 아동의 교육기능은 크게 기초학습 지도, 숙제지도, 심화학습 지도(학교 시험 대비 등), 특기 적성 지도, 독서지도 등이다. 그동안 지역아동센터는 아동의 보호기능이 강조되고 교육기능은 상대적으로 소홀히 취급된 면이 없지 않았고 특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학부모들의 요구와 기대가 매우 높기 때문에 국·공립 지역아동센터에서는 다음과 같이 아동의 교육기능을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 따라서 아동에 대한 학습지도력을 높이려면 시설장, 생활복지사, 아동복지교사 등 지도인력의 실력 향상이 전제되어야 한다. 지역아동센터들의 시설장·생활복지사·아동복지교사가 학습지도 연찬회 등을 개최하여 학습지도 능력을 키울 수 있으며, 이 때 국·공립 지역아동센터가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이용아동이 빈곤아동에서 점차 일반 아동으로 확대되면, 보호자는 기초학습지도에서 벗어나서 실질적으로 성적이 향상되는 것을 원할 것이다. 또한 이용 아동이 초등학교 저학년에서 고학년으로 확대되고, 중·고등학생의 이용자의 비율이 높아지면서 지역아동센터의 교육기능은 센터와 시설에

대한 평가에서 가장 중요한 항목이 될 것이다.

2011년 현재 각 직원에 대한 월평균 급여는 100만원에 미치지 못하는데, 실력 있는 직원을 뽑기에는 일정한 한계가 있다. 예컨대 시설장과 생활복지사로 일할 수 있는 사회복지사의 경우 현재는 사회복지사 1급, 2급, 3급 모두 가능한데, 국가시험에 합격한 1급과 합격하지 못한 2급의 실력은 상당히 다를 수 있다. 아동의 학습지도 능력을 실질적으로 키우기 위해서는 생활복지사를 임용할 때 단순히 사회복지사가 아닌 '사회복지사 1급'으로 상향조정해야 할 것이고, 그렇게 하려면 국·공립 지역아동센터가 사회복지사 1급을 임용할 수 있는 근로조건을 갖추어야 할 것이다. 특기적성 지도는 생활권에 있는 다른 지역아동센터와 연계하여 수행할 수 있다. 특히 상당한 기량이 필요한 특기적성의 지도는 관련 전문가가 센터를 순회하여 지도하거나, 다른 센터에 등록된 아동이 활동가가 있는 센터로 찾아오도록 한다. 만약 바우처제도가 도입된다면 특기적성 지도는 실제로 지도한 전문가가 있는 센터에서 결제하는 방식이나, 센터간에 품앗이를 하는 방식으로 운영할 수 있을 것이다.

각 지역아동센터는 같은 생활권에 있는 다른 지역아동센터와 경쟁하는 것을 넘어서서 사설 학원 등과 경쟁하게 될 것이다. 또한 일반아동이 일정한 이용료를 부담하게 될 경우 비용대비 효과를 분석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각 센터는 표준화된 활동을 수행하고 국·공립 지역아동센터가 중심이 되어 생활권에 있는 센터들의 생활복지사, 아동복지교사, 활동전문가들이 상호 협력하여 학습지도와 특기적성 지도의 내용과 질을 높이는데 협력해야 한다. 또한 이들 관계자들의 역량강화를 위해서 매달 혹은 분기별로 지도능력 향상을 위한 연찬회나 우수 사례발표회 개최 등을 국·공립 센터가 주관할 수 있을 것이다.

(3) 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

지역아동센터가 담당하는 아동의 건전한 놀이와 오락 제공기능은 크게 놀이지도, 체험학습 기회제공, 생일잔치 등의 지원, 동아리활동 지도, 캠프 등 절기별 특별활동 지원, 아동자치활동 지원 등이다. 국·공립 지역아동센터에서 더욱 강조될 수 있는 아동의 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기능은 다음과 같다.

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기능은 지역아동센터가 유사 방과후서비스 제공기관인 청소년문화의 집, 청소년수련관,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등 다른 아동·청소년을 위한 기관에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미흡했다. 특히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는 청소년수련관 혹은 청소년문화의집에 연계되어 있고 아동 1인당 투자액이 훨씬 많기 때문에 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에 좀 더 역점을 두고 있다. 따라서

지역아동센터에서도 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 기능이 보다 강조될 필요가 있다.

지역아동센터가 아동의 욕구에 맞는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할 때, 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은 좀 더 많은 투자가 필요한 분야이다. 지역아동센터 이용아동과 그 부모도 그동안 지역아동센터가 주로 개인이 운영주체이거나 소규모였기 때문에 다양한 놀이와 오락에 대한 요구가 많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제 국·공립지역아동센터의 경우에는 보다 다양한 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을 기대할 것이다. 실제로 SK그룹의 지원을 받아서 1318해피존사업단이 운영하고 있는 청소년을 위한 지역아동센터인 '1318해피존'의 경우에는 기존 지역아동센터에 비교하여 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을 강화했고, 이용하는 아동과 청소년도 여가활동을 위한 집단활동 공간의 제공, 동아리활동의 지원 등을 보다 적극 요구했다.

아동의 욕구에 맞고 발달과정에 적합한 놀이와 오락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역시 지역아동센터 종사자의 역량강화가 필요하다. 현재 지역아동센터의 시설장과 직원으로 일하기 위해서는 가장 핵심 국가자격증으로 '사회복지사'를 요구하는데, 아동에게 적합한 놀이와 오락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청소년지도사, 평생교육사 등과 같은 국가자격증이나 레크레이션지도자와 같은 민간자격증이 도움이 될 수 있다.

민간지역아동센터에서 일상적인 프로그램 및 서비스 제공은 개별 센터별로 할 수 있겠지만, 캠프와 같이 절기별 특별활동은 다른 센터들과 협력하여 수행하면 더욱 효과적일 수 있다. 이때 국·공립 센터는 다른 센터들과 협력하여 동아리활동과 특별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캠프나 지역축제에 공동으로 참여하는 것들을 주관할 수 있을 것이다.

각 센터들은 협력하여 '건전한 놀이와 오락'에 관한 각종 활동 계획서와 활동 결과보고서를 작성하고, 매뉴얼화 하여 보다 체계적이고 수준 높은 활동을 준비할 때 국·공립 지역아동센터가 중심에 설 필요가 있다. 국·공립센터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영을 하거나 위탁을 받은 기관이 운영할 것이므로 다른 센터에 비교하여 자치단체와 좀 더 자주 소통할 수 있다. 국·공립센터가 다른 민간 단체에 비교하여 다소 우월적인 지위에 있을 수 있는데, 다른 민간센터와 경쟁하기보다는 지역사회에서 공동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을 기획하고 조정하는데 좀 더 역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지역아동센터의 기능 중에서 '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은 새롭게 강조되어야 한다. 한국의 지역아동센터와 유사한 기능을 하는 일본의 아동관은 '아동에게 건전한 놀이를 제공하여 그 건강을 증진하고, 또한 정서를 풍부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아동복지시설이다.

한국의 지역아동센터의 경우는 "지역사회 아동의 보호·교육"을 먼저 강조하였고, "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은 그 다음 순이었다. 무엇보다 아동의 건전한 놀이와 오락을 위해서는 실내·외

놀이 공간이 꼭 필요하고, 놀이시간의 확보와 관련 프로그램이 있어야 하는데, 현행 지역아동센터의 설치기준에는 놀이공간의 확보나 놀이지도자의 활동도 제도화되어 있지 않다. 지역아동센터의 이용자가 저소득층 아동에게서 전체 아동으로 확대되고, 센터당 이용자의 수가 늘어나게 된다면 놀이공간 혹은 쉼공간의 확보, 놀이지도자의 활용이 더욱 절실했을 것이다.

주로 평일 방과후에는 놀이시간이 짧지만 주말이나, 방학 등과 같은 특정 절기에는 실내·외 놀이활동을 보다 집중적으로 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평일 방과후의 일상적인 놀이와 오락은 각 지역아동센터에서 실시하고, 주말이나 방학과 같은 특정 시기에 하는 활동을 여러 센터가 협력하여 하는 것도 한 방법이며, 센터들간의 활동을 연계·주관하는 일은 국·공립 지역아동센터가 담당할 수 있다.

(4) 보호자와 지역사회의 연계

지역아동센터가 담당하는 보호자와 지역사회의 연계기능은 크게 부모상담, 부모교육, 부모자조모임 지원, 사례관리, 지역사회 자원개발과 연계(예, 장학금), 센터 운영위원회 구성과 운영, 다른 지역아동센터와 연계, 학교, 사회복지관, NGO 등과의 연계이다. 국·공립 지역아동센터에서 강조되는 보호자와 지역사회의 연계기능은 다음과 같다.

한국 사회는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실업의 증대와 양극화, 이혼의 증가 등에 따른 빈곤과 아동방임으로 아동의 부적응 문제가 심각해졌지만 우리 사회는 개별 가정에 아동의 양육을 맡기고, 또 개별 학교나 지역아동센터에서 아동을 가르치고 보호해줄 것을 기대했다. 이제는 아동을 둘러싼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가정, 학교, 복지기관, 지방자치단체, NGO 등이 협력하여 통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상황이다. 구체적으로 국·공립지역아동센터는 부모상담, 부모교육, 부모자조모임 등을 지원하는 매뉴얼을 만들고, 연찬회를 통해서 지역사회에서의 다양한 기관과의 연계와 상담과 교육의 수준을 높이는데 선도적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또한 민간센터에서 인력 및 전문성 부족, 업무부담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사례관리와 관련하여, 특히 복합적인 도움이 필요한 아동과 가족을 대상으로 전문적인 사례관리를 실시하고, 사례회의를 통해서 집중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모든 시·군·구에 조직되어 있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와 긴밀히 협력하여 복합적인 욕구를 가진 아동과 그 가족에게 효과적인 사례관리를 통해 실질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이들의 욕구충족과 문제해결을 도모해야 할 것이다. 더불어 국·공립지역아동센터로서 개별 센터가 수행하기 어려운 생활권단위, 지역단위, 전국단위 연계활동을 지역아동센터 협의기구, 지역아동센터중앙지원단 등과 협력하여 기획한다.

3) 시설기준

기존의 지역아동센터 중에는 소규모로 운영되는 곳이 많고 시설 역시 부족하거나 낙후된 경우가 많아 국·공립 지역아동센터의 시설기준은 기존 센터의 시설기준보다 좀 더 상향된 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현재 지역아동센터는 학습지도 공간, 주방설비, 사무실, 화장실 등을 포함하여 18평 이상만 되면 신고할 수 있고, 많은 센터가 25평 이상의 공간을 갖추고 있다. 하지만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아동들은 센터의 공간이 부족하다고 호소하고 있다. 실제로 기관방문 시 청소년전용 지역아동센터인 1318해피존의 평균 공간은 약 50평인데도, 직원과 이용청소년은 사무실과 집단활동공간을 좀 더 넓힐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였다.

표 II-34 아동복지시설의 시설기준(아동복지법 시행령 제11조 별표 2)

구분	거실	사무실	양호실	상담실	조리실	목욕실	세탁장	건조장	화장실	급배수시설	비상재해대비시설	강당·오락실	도서실	놀이터
10인 미만	1	-			1	-			1	필수	필수	권장	권장	권장
10~30인	1	1			1	1			1	필수	필수	권장	권장	권장
30인 이상	1	1	1	1	1	1	1	1	1	필수	필수	66제곱미터	1	165제곱미터

아동복지법상 다른 아동복지시설(예, 아동양육시설, 아동일시보호시설, 아동단기보호시설 등)은 시설과 설비기준을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상세히 규정하고 있으므로 지역아동센터의 시설과 설비에 대한 기준도 법적으로 구체화시켜야 한다. 예를 들면 위의 아동복지시설들은 시설과 설비 등에 대해 다음과 같은 기준을 법령으로 규정하고 있다(<표 II-34> 참조). 아동이 30인 이상일 때 거실, 사무실, 양호실, 상담실, 조리실, 목욕실, 세탁장, 건조장, 화장실이 각각 1개소 이상이고, 급배수시설, 비상재해대비시설, 강당 또는 오락실(66제곱미터 이상), 도서실(열람석 도서류 비치), 놀이터(165제곱미터 이상) 등이다. 10~30인 시설은 거실, 사무실(상담실, 양호실 겸용 가능), 조리실, 화장실(목욕실, 세탁장, 건조장 겸용) 각각 1개소 이상, 그리고 급배수시설, 비상재해대비시설, 강당 또는 오락실은

필수시설은 아니지만 “시설 실정에 맞도록 오락용구 도서류 및 놀이기구를 갖추어야” 한다. 10인 미만 시설은 거실, 조리실, 화장실 각각 1개소 이상이고, 급배수시설, 비상재해대비시설 등이다.

거실의 면적은 아동의 연령이 증가될수록 더 넓은 공간이 필요하다. 1인당 면적은 3세 미만은 2.5제곱미터 이상, 3세 이상은 3.3제곱미터 이상, 1실의 정원은 6인 이하, 7세 이상의 아동 생활시 거실은 남녀별로 설치하고, 허약미숙·질병이환아 등을 격리하여 돌볼 수 있는 격리실 설치를 제도화시키고 있다.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제11조 관련 별표 2’를 보면, “아동 30인 이상을 수용하는 시설에는 위의 표에서 제시하고 있는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다만, 지역아동센터의 경우에는 사무실, 양호실, 상담실의 설비 상호간에는 이를 겸용할 수 있도록 설치할 수 있고, 아동이 상시 생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거실, 조리실, 목욕실, 세탁장, 건조실의 설비를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아동복지법 시행규칙이 ‘아동복지시설의 시설기준’을 규정하면서 지역아동센터에만은 다른 아동복지시설의 설치 기준으로 요구하는 사항의 대부분을 제외시킨 것이다. 아동양육시설처럼 주로 생활시설에 적용되는 기준을 지역아동센터에 적용하는 것은 부적합한 측면이 있다. 더 큰 이유는 이미 영세한 규모로 운영되었던 ‘공부방’을 지역아동센터로 합법화시키면서 기존 공부방이 시설기준을 갖추어서 등록하도록 그 기준을 낮춘 측면도 있다.

따라서 국·공립 지역아동센터를 설치할 때에는 그 역할과 기능에 부합하도록 시설기준을 새롭게 정립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기존 아동복지법 시행령의 시설기준을 일반적으로 준용하면서도 지역아동센터는 ‘거실’대신 ‘학습실’의 개념을 도입할 수 있다. 먼저 센터의 시설 규모를 10인 미만, 10~20인 미만, 20~30인 미만, 30~40인미만, 40~50인 미만, 50인 이상으로 세분화시켜서 시설기준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아동복지법상 아동양육시설과 지역아동센터는 그 기능이 다르기 때문에 지역아동센터는 그 기능에 맞게 양호실, 세탁장, 건조장 등의 설비는 제외하고 제시할 수 있다. 30인 미만의 지역아동센터는 거실 대신에 학습공간이 필요하고, 사무실(상담실 겸용), 조리실, 화장실(남녀 구분), 급배수시설, 비상재해대비시설, 오락공간(도서실, 놀이터 겸용)가 각각 1개소 이상씩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지역아동센터의 기준을 보면 29인 이하의 시설은 실평수 “25평 이상”이란 기준만 지키면 되는데, 이는 아동양육시설에서 3세 이상 아동 1인당 거실의 면적을 3.3제곱미터라는 기준을 제시한 것에 비교하면 낮은 수준임을 알 수 있다.

기존 아동양육시설의 시설기준에 준하여 국·공립지역아동센터의 30인 미만의 시설을 구상하면, 학습실 99제곱미터 이상, 사무실(상담실 겸용), 조리실, 화장실(남녀화장실), 집단활동실(오락실,

도서실, 놀이실 겸용) 등과 복도, 계단 등 공유 활동공간을 고려할 때 198제곱 미터 이상의 공간이 필요하다. 이용아동수가 30명 이상이 되면 학습실은 정원 1인당 3.3제곱미터 이상이 필요하고, 상담실을 사무실과 분리시켜 필수시설로 하고, 오락시설의 공간을 함께 늘려야 할 것이다.

이러한 공간은 현행 지역아동센터의 시설과 설비기준에 비교할 때 조금 높게 잡은 것이지만 일본의 아동관(소형아동관, 아동센터, 대형아동관)에 비교할 때 낮은 기준이다. 참고로 일본의 아동관의 시설과 설비를 살펴보면, 먼저 일본의 소형아동관은 집회실, 놀이실, 도서관, 창작활동실 등 여러 실내활동의 장이 있어, 217.6㎡이상의 면적을 갖추도록 하고 있다.

표 II-35 지역아동센터의 시설기준(안)

	학습실	사무실	상담실	조리실	목욕실	화장실	강당·오락실	도서실	놀이터
10인 미만	33㎡	1		1		1	권장		
10-20인 미만	66㎡	1		1		2	권장		
20-30인 미만	99㎡	1		1		2	33㎡		
30-40인 미만	132㎡	1	1	1	1	2	66㎡	1	권장
40-50인 미만	165㎡	1	1	1	1	2	66㎡	1	권장
50인 이상	1인당 3.3㎡이상	1	1	1	1	2	99㎡	1	165㎡

* 급배수시설, 비상재해대비시설은 필수

일본의 아동센터는 소형아동관보다도 넓어 336.6㎡이상이 필요하다. 도구(공, 줄 등) 놀이와 기계놀이, 리듬놀이와 같은 활동이 가능하도록 줄, 공, 바퀴, 매트, 균형도구, 탁구대 등이 정비되고, 체력측정을 할 수 있는 도구도 준비되어 있다

일본의 대형아동관은 A형, B형, C형이 있는데, 그중 A형 아동관은 아동센터의 기능에 부가하여 도도부현내의 아동관과 운영 및 지도를 연계하면서, 직원 및 자원봉사자 육성의 기능도 하는 시설이다. 지역의 역사, 산업, 문화를 활용한 자료와 조형물을 전시하고, 일반에게도 폭넓게 공개할 수 있도록 연수실, 전시실, 다목적 홀 등의 옥내시설이 있는 2,000㎡이상의 공간을 가지고 있다.

한국도 국·공립 지역아동센터를 새로 설치할 때에는 좀 더 넓은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할 필요가 있다. 현재 한국에는 거의 모든 시·도와 시·군·구에 청소년수련관이 건립되어 있고,

거의 모든 시·군·구에 종합사회복지관, 노인복지관, 장애인복지관 등이 건립되어 있거나 건립 계획이 있다. 아동의 경우에는 영유아보육시설과 학교는 있지만 위와 같은 청소년전용 이용기관과 같은 개념의 아동센터가 없었다. 그동안 한국의 아동복지는 주로 고아·미아 등을 위한 아동양육시설과, 영유아보육을 중심으로 논의하여 왔고 특히 영유아보육 시설의 팽목할 성장을 가져온 바, 이제는 아동의 방과후 지원에 정책적 관심을 가져야 하겠다.

지역아동센터의 시설과 설비 기준에 대해서는 공간 확보비용이 많이 드는 대도시와 상대적으로 저렴한 중·소도시와 농·어촌간에 약간의 유연성 있는 기준을 제시하여 중·소도시와 농·어촌에는 반드시 실외 놀이터를 확보하도록 하고, 대도시에는 인접 지역에 공원, 초등학교 등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놀이공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네트워크를 강화하여야 한다.

현재 아동복지시설에는 ‘비상재해대비시설’이 의무적인 사항이기에 지역아동센터도 소방시설 등 안전기준에 적합한 조건을 갖추도록 해야 한다. 다만, 기존의 모든 지역아동센터를 새로운 기준을 적용하기보다는 일정기간(3년 미만)의 유예기간을 두고 그러한 조건을 갖추 수 있도록 다각적인 지원과 함께 자구노력을 강조해야 할 것이다.

4) 설치기준

국·공립 지역아동센터를 설치하고자 할 때 모든 시설을 신규로 건립할 필요는 없다. 최근 출산아동이 급속히 감소하게 되기에 소도시나 읍·면지역의 초등학교에는 빈 교실이 급속하게 증가되고, 원아를 정원의 수만큼 모집하지 못하는 어린이집이 급증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초등학교의 빈 공간을 활용하여 ‘병설 유치원’을 만들었듯이 초등학교의 유휴공간을 ‘국·공립 지역아동센터’로 전환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다. 또한 이용 아동수의 감소로 영유아보육시설을 ‘지역아동센터’로 변경하고자 할 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약간의 시설 개조비만 지원하면, 적절한 규모를 갖춘 지역아동센터를 설치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이용청소년의 수가 급감하여 오히려 이용아동수가 더 많은 청소년수련관을 아동친화적인 공간으로 변화시키면 일본의 대형아동관과 유사하게 운영할 수 있을 것이다.

국·공립 지역아동센터는 앞의 조사결과에서 볼 수 있듯이 서비스 대상자의 수가 많은 도시 빈민 지역에 최우선적으로 설치하고, 18세 미만 전체 아동 중에서 수급자의 비율이 5%이상인 동·읍 지역에 우선적으로 설치한다. 전국에 고른 배치를 위하여 첫 3년간은 230여개 시·군·구에 1개소 이상씩 시범적으로 설치하고, 점차 이용 아동인구수가 많고, 지역사회 내 다른 지역아동센터의

개소수 등을 고려하여 잠재적 이용자를 포함한 이용아동수가 많은 지역에 우선 배치한다. 국·공립 지역아동센터를 개설할 경우에는 기존 드림스타트사업과 중복을 피하기 위해서 이미 드림스타트가 있는 지역(대개 군청이 있는 읍소재지나 시청이 있는 주변 지역)을 피하여 국·공립 지역아동센터를 배치한다.

국·공립 지역아동센터를 설치할 때에는 보건복지부의 지원을 받는 드림스타트, 민간 지역아동센터의 분포뿐만 아니라, 교육과학기술부가 지원하는 방과후학교, 방과후교실, 돌봄교실 등, 그리고 여성가족부가 지원하는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청소년문화의집 등과 가급적 중복을 피하고 기존의 청소년수련관, 청소년문화의 집에 지역아동센터의 기능을 부가하여 서비스의 대상을 전체 아동·청소년으로 확장시키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지역아동센터는 초·중학교의 방과후교실, 돌봄교실 등과 일부 중복은 피할 수 없더라도 유사한 사업을 통한 중복과 누락을 피하기 위해서 중앙 부처 차원의 정책조정이 우선 필요하다. 특히 최근 몇 년 사이에 교육과학기술부가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방과후학교, 돌봄교실 등은 지역아동센터의 기능과 중복되고, 생활권 단위에서 지역아동센터와 드림스타트도 유사한 대상에게 중복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가 많기에 지역아동센터는 초·중학교, 시·군·구청 간 협력을 통해 사업의 중복과 누락을 방지해야 한다.

특히 국·공립 지역아동센터의 설치는 기존 민간 지역아동센터와 갈등을 일으키지 않도록 해야 한다. 국·공립 지역아동센터의 설치와 운영기준 중 직원배치, 인건비, 운영비 기준 등은 향후 민간 지역아동센터에도 준용할 수 있어야 한다. 국·공립 센터가 민간 센터보다 더 수행하는 기능, 특별한 사업비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지원이 이루어져야 하지만, 다른 기준은 민간 센터에도 준용되어서 국·공립 센터의 설치가 민간 센터의 발전을 견인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5) 인력기준

국·공립 지역아동센터의 인력기준은 기존 지역아동센터의 인력기준을 좀 더 상향시키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지역아동센터의 인력은 크게 지역아동센터 시설장, 생활복지사, 아동복지교사, 조리원 등으로 세분되고 각 인력은 아동복지시설의 일반적인 기준에 따른다.

시설장은 아동복지법상 다른 아동복지시설의 시설장의 자격 기준을 갖춘 자로 한다. 지역아동센터의 역사가 짧은 것을 고려하더라도 다른 지역아동센터에서 5년 이상 시설장으로 일한 경험이 있거나 이와 동등 이상의 자격을 갖추었다고 인사위원회가 판정한 사람으로 그 기준을 보다 엄격히 한다.

현행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침'에 따르면, 시설장이 되려면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교사 1급 자격을 가진 자로서 아동에 관련된 사회복지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와 같이 법정 자격증과 5년 이상 경력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사회복지사 자격증과 관련해서는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사 3급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로 되어 있는데, 이 기준은 시설장이 되기에 자격증의 등급도 낮고 경력기준도 없어서 다른 기준과 형평성에도 맞지 않다. 국·공립 지역아동센터는 지역의 거점센터나 또는 어떠한 형태의 주도적인 역할이 가능할 수 있으므로 시설장의 기준은 관련 자격증의 등급을 올리고 경력을 갖춘 자로 제한해야 한다.

생활복지사는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갖추고, 생활복지사 등으로 3년 이상 경력을 갖춘 자로 한다. 국·공립 지역아동센터가 생활권에 있는 다른 지역아동센터들과 협력하고 효과적으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3년 이상의 경력을 갖춘 자로 한다. 아동복지교사는 사회복지사, 생활복지사로 일한 경험이 있거나, 아동복지교사로 3년 이상 경력을 갖춘 자로 한다. 국·공립 지역아동센터의 아동복지교사는 중앙지원단에서 파견하는 방식보다는 국·공립센터가 직접 채용하여 직원으로서 소속감을 높이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 또한 조리원은 아동 정원이 50명 이상인 센터에서 영양사 자격을 갖춘 사람을 임용하도록 하고, 50명 미만인 센터에도 조리원의 역할을 수행할 사람을 배치한다.

표 II-36 지역아동센터 인력기준

아동정원수	센터장	선임 생활복지사	생활복지사 ·아동복지교사	조리원	합계
10인미만	1	1			2
10-20미만	1	1	1		3
20-30인미만	1	1	1	1	4
30-40인미만	1	1	2	1	5
40-50인미만	1	1	3	1	6
50인이상	1	1	4	2	8

인력의 배치기준은 모든 센터에 반드시 1명의 센터장, 1명 이상의 생활복지사를 배치하고, 아동의 수가 20명을 넘을 경우에는 10명당 생활복지사(상근 아동복지교사를 포함하여) 1명을 추가로 배치한다. 조리원은 20명 이상인 센터에 1명씩 배치하고, 아동의 수가 30명씩 증가될수록 1명씩을 더

배치한다. 다만 조리원의 배치는 시·군·구에서 사회적 일자리 등으로 외부 인력을 파견하여 주는 것도 인력으로 간주한다. 또한 식사를 주변 식당이나 외식업체 등을 통해서 급식을 배달받은 경우에는 필수 인원으로 보지 않는다.

이 기준을 이용 아동이 20인 이상 30인 미만인 국·공립 지역아동센터에 적용하면, 센터장 1인, 선임 생활복지사 1인, 생활복지사 혹은 아동복지교사 1인, 조리원 1인 등 합계 4인이다. 조리원이 시·군·구에서 사회적 일자리로 파견되거나 외부 급식시설을 이용할 경우에는 센터장 1인, 선임 생활복지사 1인, 생활복지사 혹은 아동복지교사 1인 등 합계 3인이다. 이용아동이 40인 이상 50인 미만인 국·공립 지역아동센터에 적용하면, 센터장 1인, 선임 생활복지사 1인, 생활복지사 혹은 아동복지교사 3인, 조리원 1인 등 합계 6인이다. 만약 사회적 일자리로 조리원이 파견되면 상근 직원은 5인이 될 것이다.

이러한 인력기준은 현행 지역아동센터 당 센터장, 생활복지사의 배치기준과 파견된 아동복지교사의 수를 고려할 때 감당할 수 있는 수준으로 본다. 현재 아동수가 20~30인 미만인 센터에는 센터장 1인, 생활복지사 1인이 필수 인력이고, 아동복지교사 1~2인, 조리원 1인이 외부에서 파견되어 사실상 4~5명이 일하고 있다. 다만 현재 인력구성은 아동복지교사가 상근형태의 정규직이 아닌 파견되는 방식으로 아동복지교사가 안정감 있게 아동을 교육하는데 한계가 있으므로 국·공립 지역아동센터는 아동복지교사를 직접 고용하자는 제안이다. 생활복지사와 아동복지교사가 모두 4년제 대학교 졸업생이고, 센터 현장에서 생활복지사와 아동복지교사간에 역할 차이가 크지않다. 따라서 지역아동센터의 대표하는 센터장과 행정을 실무적으로 총괄하면서 센터장을 대리하는 선임 생활복지사만 사회복지사로 규정하고, 나머지 인력은 센터장이 필요한 상황에 맞추어서 생활복지사와 아동복지교사를 임용하게 하자는 것이다.

지역아동센터가 특기적성을 강조하는 교육을 할 때에는 사회복지사보다는 특정 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사람을 아동복지교사로 임용할 수 있고, 장애아동이 많은 경우에는 특수교사와 같은 별도의 법정 자격증을 갖춘 사람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이용 아동수가 늘어나면 아동에 대한 상담, 부모에 대한 교육, 사례관리, 지역사회와의 연계 등이 강조되어 직원은 다양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너무 작은 조직에서 인력간의 직무를 세분할 것이 아니라, 생활복지사와 아동복지교사가 그 역할을 넘나들 수 있도록 현재 파견직인 아동복지교사를 상근직으로 전환시키고, 센터장이 생활복지사와 아동복지교사의 정원을 유연성있게 운용할 수 있도록 한다.

6) 소요예산(적정 운영비)

(1) 인건비 기준

민간지역아동센터와 차별화 하여 국·공립 지역아동센터의 시설장, 생활복지사, 아동복지교사, 조리원의 인건비 기준은 직영인 경우 국가·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직 공무원의 보수, 근로조건, 복지수준에 따르고, 위탁인 경우는 사회복지관 직원의 보수, 근로조건, 복지수준에 준한다.

인건비 기준을 사회복지관 직원 수준으로 맞춘 근거는 첫째, 사회복지시설로서 지역아동센터의 정체성에서 찾을 수 있다. 지역아동센터는 아동복지법 16조에 명시한 아동복지시설(아동복지법 16조 1항 11호)로서 시설의 설치(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제11조) 및 종사자 자격기준(아동복지법 시행령 13조) 등 시설 설치 및 운영과 관련한 전반적 사항 또한 아동복지법에 근거하고 있다. 또한 운영규정 및 운영위원회 조직은 사회복지사업법에 의거 설치, 운영하도록 되어있다. 따라서 지역아동센터는 명백한 아동복지시설이며 일반적 사회복지시설에 포함된다 할 수 있다.

둘째, 지역아동센터는 명백한 아동복지서비스를 제공하며, 여타 사회복지시설의 종사자와 동일한 시간(야간근무와 토요일근무를 제외하고)을 근무하고 있다. 실제 많은 지역아동센터들은 의무적으로 주중 8시간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토요일, 공휴일의 운영을 권장하여 아동의 방임을 예방하는 기능을 하고 있다(실제 모 지역아동센터는 평일 09:00~22:00, 토요일 09:00~15:00 운영 중임).

셋째, 보건복지부에서 발간·배포하는 지역아동센터 운영매뉴얼에 명시된 지역아동센터 설치와 운영을 살펴보면 지역사회 아동보호, 학습지도, 문화체험, 상담 및 지역사회연계 등의 통합적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특화 프로그램은 주말, 공휴일 프로그램, 가족기능강화프로그램, 야간보호프로그램 등을 실시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이러한 통합적 복지서비스를 국·공립지역아동센터에서 모범적으로 제공하기 위해서는(타 민간 지역아동센터의 모범사례로서), 사회복지사로서의 역량과 전문성을 갖추어야 한다. 따라서 지역아동센터의 생활복지사에게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와 같은 보수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지역아동센터가 사회복지시설로서의 기능을 온전히 수행하는 데에 필수적인 요소가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조사과정에서 시설장들과 전문가들은 국공립 지역아동센터의 거점역할을 포함한 민간센터에서 기능하기 어려운 다양한 역할들에 대한 기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예, 모범적인 프로그램 운영, 거점센터 역할, 지역사회내 네트워크 구축 등). 따라서 이러한 국공립센터의 주도적인 역할을 고려할 때 최소한 사회복지관 종사자의 임금수준을 고려하여 인건비를 산정할 필요가 있다.

국·공립 지역아동센터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영할 경우에는 시설장은 7급 공무원⁸⁾, 생활복지

사는 8급(선임) 혹은 9급 공무원, 아동복지교사는 9급 공무원, 조리원은 조리원의 기준에 따른다. 호봉의 확정 등은 공무원의 기준을 따르고,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 등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르되, 가급적 연장근로를 하지 않고도 일을 할 수 있도록 근무시간을 유연성 있게 편성하도록 한다.

현재 많은 지역아동센터의 종사자들은 오전부터 오후 7시 혹은 저녁 10시까지 근무하고 있는데, 직원간에 출퇴근의 시간을 유연성 있게 편성하여 하루 8시간 노동을 지키도록 한다. 예컨대 평일에 시설장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까지 근무하고(점심식사 시간 1시간을 고려할 때 일일 8시간 근무), 선임 생활복지사도 역시 동일시간 동안 근무한다. 나머지 생활복지사, 아동복지교사는 오전 12시에 출근하여 오후 9시에 퇴근하거나(저녁식사 시간 1시간을 고려할 때 일일 8시간 근무), 오후 1시에 출근하여 오후 10시에 퇴근하도록 하는 등 출퇴근 시간을 유연하게 조정한다.

주말근무 시 초과근로수당이나 휴일근로수당을 주는 방식보다는 평일 중에서 하루의 근무를 휴무하는 방식으로 근무여건을 조성한다.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아동들이 이용하는 시간대가 주로 학교에서 하교한 후에 집중되므로 이용아동수가 많은 시간대에는 직원이 모두 근무할 필요가 있다. 국·공립지역아동센터는 근로기준법에 맞추어서 근무가 가능하도록 하며, 현재는 제대로 지급하기 어려운 초과근로수당이나 휴일근로수당 등도 지급함으로써, 현재의 직원채우 및 근무여건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국·공립 지역아동센터는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직영하거나 자격기준에 따라 사회복지법인이나 학교법인 등에 바로 위탁할 수 있다. 그러나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일정기간(2년~3년) 직접 운영하면서 공공성을 담보한 후에 사회복지법인, 학교법인 등에 위탁 운영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다.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복지법인, 학교법인 등에 위탁한 후에도 시설환경, 서비스와 프로그램 수준, 종사자에 대한 보수나 채우는 그대로 유지하거나 더 개선될 수 있어야 한다.

이용아동이 20인 이상 30인 미만인 국·공립지역아동센터에서 외부 급식시설을 이용하거나 시·군·구청이 사회적 일자리로 인력을 파견할 경우, 시설장 1인, 선임 생활복지사 1인, 생활복지사·아동복지교사 1인 등이 일한다면, 시·군·청이 직영을 할 때 예상되는 인건비는 다음과 같이 추계할 수 있다.

서울시사회복지사업협회가 비교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공무원은 2011년에 서울특별시의 동사무소에서 사회복지직 공무원으로 일하는 사람의 급여기준표를 기준으로 하고 가족수당 3인(배우자, 자녀

2)만을 고려하여 최소한만을 산정한 것이다. 이 금액에는 일반적으로 공무원이면 받는 성과상여금, 자녀학비보조수당, 시간외수당, 야간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연가보상비 등이 포함되어 있지 않는 것이므로 실제 인건비는 산출된 것보다 다소 높을 것이다⁹⁾.

서울시공무원 급여표를 기준으로 시설장은 7급 11호봉으로 산정할 때 연봉 36,347,540원이고, 선임생활복지사를 8급 6호봉으로 보면 연봉 27,342,450원이며, 생활복지사 또는 아동복지교사 1명을 1호봉으로 보면 연봉 19,756,080원이므로 연간 총인건비는 83,446,070원이다.

국·공립지역아동센터를 사회복지법인에게 위탁하고 그 법인이 지역아동센터의 직원의 임금을 사회복지관의 직원 급여표를 기준으로 지급하면 다음과 같다. 국·공립지역아동센터를 사회복지법인 등에 위탁할 때 시설장과 직원의 급여수준을 어느 수준에 맞출 것인가는 매우 신중하게 논의해야 한다.

가장 합리적인 것은 국가가 시범사업으로 지방자치단체에게 지역아동센터를 설치하게 하고, 시설장, 생활복지사, 아동복지교사, 조리원 등의 직무를 평가하여 유사한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에 맞추어서 급여를 책정하면 될 것이다. 현실적으로는 국·공립지역아동센터를 설치하도록 인건비기준을 정해야 하기에 적절한 기준을 제시하지 않을 수 없다. 직영으로 지역아동센터를 개설한다면 현재 지역아동센터의 시설장이 될 수 있는 공무원은 '7급 이상 공무원으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행정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라는 기준을 활용한다. 흔히 공무원으로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자는 사회복지직 공무원이 주류이기에 그 기준에 맞추면 될 것이다. 직영 지역아동센터를 민간위탁을 하고자 할 때에는 직영 센터의 인건비기준에 유사한 수준으로 결정하는 것이 일반적인 기준으로 보이며, 공무원 7급은 사회복지관의 과장급 혹은 부장급과 비교할 수 있다.

또 다른 기준은 선례를 고려하는 것이다. 2011년 현재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여 법인에 위탁한 유일한 사례는 00시의 A지역아동센터이다. 00시가 이 지역아동센터를 위탁할 때 인건비 기준으로 센터장은 종합사회복지관의 부장급, 생활복지사는 사회복지사급으로 임금기준을 정했다.

또한 현재 지역아동센터에서 일하는 시설장들의 의견을 고려할 때, 본 연구진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지역아동센터 시설장들은 국·공립지역아동센터의 인건비 수준은 사회복지관을 기준으로 하면 좋겠다는 사람이 다수이고 일부는 국공립보육시설에 준하면 좋겠다고 했다. 하지만 국공립보육시설의 급여수준은 사회복지분야에서도 상대적으로 낮아서 능력 있는 사회복지사가 취업하길 기피하고, 한번 낮게 책정된 급여수준 때문에 전국의 민간보육시설이 충휴업을 하는 등 사회적 진통을 겪고

8) 현행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침도 시설장이 되려면 "7급 이상 공무원으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행정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로 규정하고 있다.

9) 자료. http://cafe.daum.net/ewelfare?t_nil_cafemy=item

있는 것으로 보아 적절한 기준으로 보기 어렵다.

현행 규정, 선례, 현장의 여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국공립지역아동센터를 민간에 위탁한다면 시설장은 종합사회복지관의 과장급이나 부장급으로 하고, 사회복지사는 선임과 초임 사회복지사로 단계를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런데 2011년 서울시의 경우를 고려하여 사회복지관 부장급으로 센터장의 급여를 정하면 부장18호봉의 연봉은 41,919,000원으로 자치단체가 직영을 할 때 최소 자격인 7급 11호봉 공무원의 급여 36,347,540원의 115.3%에 이른다. 국공립시설을 민간에 위탁을 할 때에는 그 전문성을 활용한다는 측면과 함께 비용을 줄이려는 의도가 있고, 사회복지분야의 임금이 상대적으로 낮은 현실을 고려할 때 지역아동센터의 과장 11호봉의 급여를 기준으로 하면 34,446,300원(7급 공무원 급여의 94.8%), 선임 사회복지사 6호봉의 연봉은 27,924,200원(8급 공무원의 102.1%)이며, 사회복지사 1호봉의 연봉은 21,975,700원(9급 공무원의 111.2%)이다. 이 경우 연간 인건비는 84,346,200원이 소요된다.

표 II-37 2011년 공무원 대비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급여 비교 (단위: 원/%)					
구분	공무원	사회복지관		장애인생활시설	
5급/관장 22호봉	55,659,600	47,383,800	85.1%	42,388,000	76.2%
6급/사무국장(부장) 18호봉	46,123,920	41,919,000	90.9%	35,764,000	77.5%
7급/과장 11호봉	36,347,540	34,446,300	94.8%	30,532,000	84.0%
8급/선임 6호봉	27,342,450	27,924,200	102.1%	26,912,000	98.4%
9급/사회복지사 1호봉	19,756,080	21,975,700	111.2%	22,488,000	113.8%

※ %는 공무원급여를 기준으로 한 비율임.

사회복지관 직원의 급여표가 공무원보다 다소 높은 것으로 나왔지만, 여기에는 공무원에게 주어지는 각종 시간외 수당과 자녀학비보조 등 복지급여가 계산되지 않은 것이므로 대체로 지방자치단체가 직영을 하면 실제로 인건비의 부담은 민간위탁보다 더 늘어날 것이다.

이용아동수가 20인 이상 30인 미만 지역아동센터의 1년간 인건비는 직영 시에 83,446,070원이고, 민간위탁 시에 84,346,200원이 나왔다. 여기에 연간 1인 인건비의 1/12(8.33%)를 ‘퇴직금 적립금’으로 충당하고, 공무원의 경우에 연금의 사용자 부담비율이 인건비의 8.5%, 건강보험료 중 사용자 부담비율이 2.82%로 합계 11.32%로 공무원은 연간 인건비의 19.65%(16,397,153원), 복지관을 기준으로 할 때 국민연금 사용자 부담비율이 인건비의 4.5%, 건강보험 2.82%, 고용보험 0.8% 내외,

산재보험 0.2% 내외 사회보험료 합계 8.32%에 퇴직금 충당금 8.33%를 추가하면 연간 인건비의 16.65%(14,043,642원)가 인건비성 경비로 추가로 필요하게 된다. 결국 급여에 퇴직금충당금과 사회보험료 분담금을 포함하면 인건비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영을 할 때 99,843,223원이고, 민간위탁을 할 때 98,389,842원으로 볼 수 있다.

(2) 운영비 기준

현재 보건복지부는 지역아동센터의 기본운영비를 인건비, 시설운영비, 프로그램비로 나누고, 인건비와 시설운영비의 합계액이 기본운영비의 80%를 초과할 수 없고, 프로그램비는 기본운영비의 20% 이상을 지출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상근종사자 인건비는 최저임금법을 지키고 4대 보험 분담금과 퇴직적립금을 포함하여 이용아동수가 20~30인 미만인 센터 기본운영비의 70% 미만, 30인 이상 센터 기본운영비의 80% 미만으로 권장되고 있다. 현재 이용 아동수가 30인 미만인 지역아동센터가 가장 많다는 것에 볼 때, 인건비는 전체 기본운영비의 70% 미만으로 산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국·공립지역아동센터는 센터의 시설물을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소유 건물에 설치·운영하여 관리비의 부담을 줄이고, 부득이 시설물을 임차할 경우에는 전세로 임차하여 센터가 월세 부담을 갖지 않도록 해야 한다. 비록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지역아동센터의 건물을 새로 건립한다더라도 그 비용은 액수가 크고 매년 꾸준히 지출되는 기본운영비와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이 글에서는 지역아동센터의 신축비용은 고려되지 않았다.

이용정원 20인 이상 30인 미만인 지역아동센터 1개소를 기준으로 할 때, 지방자치단체가 직영을 할 경우에 인건비는 99,843,223원이고 나머지 운영비(주로 프로그램비)는 52,920,588원이며 연간 전체 예산은 152,763,811원이 된다. 만약 민간위탁을 할 경우에는 인건비는 98,389,842원이고 나머지 운영비는 53,153,355원이며 연간 전체 예산은 151,543,197원이다.

현재 드림스타트의 연간 예산이 약 3억원인 것에 비교할 때 지역아동센터를 국·공립으로 전환시키는 예산이 상대적으로 많이 소요되는 것은 아니지만, 한정된 운영비를 어떻게 집행하는 것이 적합한지에 대한 추계가 필요하다. 현재 지역아동센터는 인건비, 시설운영비, 프로그램비가 매우 적기 때문에 현재 집행하는 예산으로 적절한 예산을 추정하기는 어렵다. 이 글에서는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침’에 따른 예산안을 살펴본 후에 국내에서 실질적인 의미의 공립 지역아동센터로 운영되고 있는 센터의 사례와, 청소년전용 지역아동센터인 1318해피존의 사례를 참조(<표 II-39>)하여 사업비를 제안하고자 한다¹⁰⁾.

표 II-38 청소년전용 지역아동센터 표준예산안(인건비 제외, 20인~30인미만 이용기준)

항목	세부항목	연간 예산액
사업비	정보/지식	400,000원
	문화/동아리	400,000원
	안전	200,000원
	교재교구	300,000원
	부모교육비	50,000원
	자원봉사 교육	50,000원
	직원교육	300,000원
	기타교육	50,000원
	홍보비	50,000원
	소계	1,800,00원
운영비	공공요금	350,000원
	사무관리비	250,000원
	여비	100,000원
	회의비	100,000원
	난방비	200,000원
	차량운영비	500,000원
예비비	소계	1,500,000원
	예비비	100,000원
	소계	100,000원
급식비	급식비	2,250,000원
	인건비	500,000원
	소계	2,750,000원
합계		6,150,000원

출처: 국회의원 강명순, (사)부스르기사랑나눔회 1318해피존사업단, 지역아동센터 청소년지원확대와 청소년전용 지역아동센터 육성을 위한 정책제안서, 2008.

지역아동센터 중앙지원단은 2011년에 지역아동센터 운영매뉴얼을 통해서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지역아동센터의 실정에 맞게 변경해서 사용하도록 하고 있지만, 사실상 많은 센터가 이 기준을 준용하고 있다. 연간 예산이 71,818천원일 때, 인건비가 27,018천원이고, 업무추진비 480천원, 운영비 7,690천원, 사업운영비 32,640천원, 시설비 3,500천원, 예비비 500천원이다. 지나치게 낮은 인건비와 센터 임차료 등 실질적인 비용을 인정하지 않는 것을 제외하면 합리적인 기준으로 보인다.

10) 지역아동센터의 표준운영비에 대해서는 2008년도 ‘지역아동센터 운영모델 개발연구’(정익중외)에서 30인 모형의 표준 운영비로서 총1억3천만원을 산정한 바 있다. 그러나 국·공립지역아동센터 예산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인건비에 서 본 연구에서는 공무원, 사회복지관을 기준으로 한 반면, 2008년도 연구에서는 아동복지시설 인건비를 기준으로 하여 소요예산 산정에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가 국회에 청원한 ‘2012년도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증액에 관한 청원’을 보면 관리운영비의 증액을 요구하고 있다. 2011년 현재 정부가 개소당 약 350만원을 지원하고 있는데 인건비로 240만원, 운영관리비(사무행정비, 공과금 등) 40만원, 프로그램비 70만원 가량씩 지출되고, 각 지역아동센터가 자부담/후원금 등을 통해서 급식조리사 인건비 60만원, 임대료 50만원, 냉난방비 50만원, 주유비 50만원과 프로그램비 230만원씩을 추가로 지출하고 있기에 개소당 월 600만원씩을 지원해달라는 요청이다. 이러한 청원도 표준예산안을 작성하는데 참고해야 할 것이다.

청소년전용 지역아동센터를 표방하고 있는 1318해피존을 운영하는 1318해피존사업단은 이용아동 수가 30명일 때를 기준으로 매월 사업비로 180만원, 운영비로 150만원, 예비비로 10만원, 급식비로 275만원을 제안하여 합계 615만원이고, 이를 연간으로 계산하면 7,380만원을 산출한 바 있다. 이 정책제안서는 2008년에 제안되었고, 2011년 현재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가 급식비를 별도의 계정으로 지급하므로 위의 금액에서 급식비를 제외하면 매월 340만원이고, 인건비를 제외한 연간사업비는 4,080만원이 소요된다.

전국에서 유일하게 기초자치단체가 공립지역아동센터를 설치하여 민간법인에 위탁한 사례를 보면 (<표 II-39> 참조), 표준예산안을 작성하는데 실용적인 정보를 찾을 수 있다. 이 지역아동센터의 2012년 예산서를 보면, 예산 총액은 340,895천원으로 2011년 260,624천원보다 80,271천원이 더 많다. 대개 한 지역아동센터의 연간 예산이 80,000천원에도 미치지 못하는데, 이 지역아동센터는 한 해 동안 증가된 예산만 8천만원이 넘고 전체 예산은 3억 4천만원에 이른다.

예산 내역을 보면 보조금이 235,000천원이고, 급식비지원이 83,925천원이며, 법인전입금이 9,000천원, 후원금이 12,920천원, 잡수입이 50천원이다. 이 지방자치단체는 경기도에 위치하여 다른 시/군/구보다 재정자립도가 높아서 급식비지원이 다른 자치단체보다 많고, 후원금이 많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지역아동센터를 위한 보조금만 235,000천원이라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지역아동센터를 제대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보조금사업만도 2억원 이상의 상당한 액수를 조성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처럼 예산이 필요한 것은 지출내역을 좀 더 살펴보면 알 수 있다. 보조금사업 235,000천원의 내역을 보면 사무비 155,369천원(그중 인건비 135,949천원, 업무추진비 5,360천원, 운영비 14,000천원), 재산조성비 2,760천원, 사업비 69,871천원이다. 다른 지역아동센터에 비교하여 인건비를 적정하게 지급하고, 사업비를 충분히 확보한 것을 알 수 있다. 전국의 대부분의 지역아동센터가 사업비가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소수 직원이 직접 수행하거나 다양한 기관들로부터 비정규적으로 프로그램의 후원을 받아서 수행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공립지역아동센터는 해당 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강사나 자원봉사자를 활용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을 수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급식비의 경우에도 방학과 토요일에는 급식을 50명에게 121일 동안 제공하고, 필요아동에 대해서는 평일에 석식을 50명에게 252일 동안 제공하는데 한 끼의 단가는 4,500원을 책정했다.

표 II-39 공립지역아동센터 운영예산(2012년 반영) 사례 (단위 : 천원)

예산과목				2012	산출근거
총계				340,895	
보조금사업				235,000	
급식비지원				83,925	
법인전입금				9,000	
후원금				12,920	
기타(잡수입)				50	
소계				235,000	
보조금 사업	사무비	계		155,369	
		인건비	계	135,949	
			급여	92,220	시설장 33,780/사회복지사2인-39,456/ 사회복지사1인-18,984
			제수당	24,184	가족수당, 효도휴가비, 시간외수당, 연가보상비
			퇴직금 및 퇴직적립금	9,701	
			사회보험부담비용	9,844	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기타후생경비	-	복리후생비
		계	5,360		
		업무 추진 비	기관운영비	3,600	
			직책보조비	1,200	시설장
			회의비	560	자문위원 회의수당
		운영비	계	14,000	
			여비	2,640	관내출장비
			수용비및수수료	4,800	
			공공요금	6,240	전화료, 전기료, 상하수도료, 가스료, 우편료, 기타
			제세공과금	380	화재보험, 상해보험, 영업배상책임보험, 환경개선부담료
	재산 조성	계		2,760	
		시설 비	자산취득비	-	
			시설장비유지비	2,760	
	사업비	계		69,871	
		복지 사업 비	복지사업비	61,332	프로그램비 15,000/ 강사료 21,385/ 보호자교육비 1,400/ 생일선물비 500/ 생일잔치진행비 1,080/ 간식비 11,362/ 기타비용

			사례개발사업비	-	
			교육컨설팅	-	
			공동프로그램	-	
			특별행사	4,500	절기행사(설, 추석)
			홍보사업비	300	
			교육훈련비	600	직원교육훈련, 도서구입
			자원봉사 및 강사관리	2,250	
			운영워크숍	889	
거점 센터 사업			소계	7,000	
	사무비	인 건 비	계	5,824	
			계	5,824	
			급여	5,400	계약직1명 6개월
			사회보험부담비용	424	
			계	1,176	
	사업비	복지 사업 비	거점센터사업비	1,176	역량강화, 회의비,연합행사
	급식비	급식비사업(아동급식비)			83,925
법인 전입금	소계			9,000	
	사무비(제세공과금)			480	
	재산조성비(시설비, 자산취득비)			5,940	
	사업비(자원봉사자및강사관리비)			2,510	
	예비비			70	
후원금사업(후원사업비)			12,920	기타사업비(현장학습, 장학금, 결연)	
기타(예비비)			50		

본 연구에서는 기본적으로 지역아동센터중앙지원단이 추천한 운영비 기준(2011년)에 따르되, 프로그램 진행비는 1318해피존의 사례와 모공립지역아동센터의 사례를 감안하여 현실화시켜 국·공립 지역아동센터 운영비(안)를 제안하고자 한다(<표 II-40> 참조). 제안된 예산안에는 프로그램 진행비로 매달 30만원을 책정했는데, 지역아동센터의 핵심 업무가 학습지도, 놀이지도, 지역사회연계, 그리고 부모교육·상담인 점에 착안하여 각 사업별로 프로그램비를 책정하였다. 즉 지역아동센터에서 학습 프로그램을 강화시켜서 매달 40만원을 책정하고, 놀이지도에 30만원, 지역연계에 20만원, 그리고 부모교육·상담에 10만원을 책정하였다. 급식비는 전체 이용 아동의 2/3만 급식을 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산출되었다. 이렇게 예산안을 수립하여 매년 5,321만원 정도의 예산을 사업비, 운영비, 급식비로 쓸 수 있다면, 매월 약 400만원 범위 내에서 지출을 하고, 500만원 정도는 절기별로 하는 여름캠프, 종합발표회, 평가회 등 연간 특별행사에 사용할 수 있다.

표 II-40 위탁 지역아동센터 연간 운영비 기준안
(종사자 3인/ 아동수 20~29인 이용 기준) (단위: 원)

과목			예산액	산출근거
관	항	목		
사무비	인건비	급여 및 제수당	84,346,200	시설장 34,446,300원 선임 생활복지사 27,924,200원 생활복지사 21,975,700원
		법정복리비(4대보험)	7,017,604	급여의 8.32%
		퇴직적립금	7,026,038	총급여액의 8.33%
		소계	98,389,842	
	업무추진비	기관운영비	240,000	회의비 년12회×10천원
		직책보조비	240,000	2명×10천원×12개월
	소계		480,000	
	운영비	여비	400,000	출장비 년 4회×100천원
		수용비 및 수수료	480,000	사무용품/소모품비 20천원×12개월 수수료/우편료 20천원×12개월
		공공요금	3,360,000	통신비 50천원×12개월 전기요금 80천원×12개월 도시가스 100천원×12개월 상하수도 50천원×12개월
		제세공과금	350,000	아동상해보험료 년1회×150천원 화재보험료 년1회×200천원
		차량비	3,100,000	주유대 200천원×12개월 보험 년1회×700천원
	소계		7,690,000	
사업비	사업운영비	급식비	28,800,000	급식비 1인/3천원×30명×25일×12개월 간식비 1인/5천원×30명×12개월
		프로그램 진행비	12,000,000	학습프로그램 400천원×12개월 놀이프로그램 300천원×12개월 지역연계 프로그램 200천원×12개월 부모교육/상담 100천원×12개월
		교재교구 구입비	4,440,000	직접 사업경비 300천원×12개월 교재교구비 70천원×12개월
		절기별 특별행사	5,000,000	여름캠프, 명절, 종합발표회, 평가회
		기타사업비	400,000	교육비 년4회×100천원
		소계	50,640,000	
	재산 조성비	시설비	시설비	2,000,000
자산 취득비			1,000,000	컴퓨터 1대 1,000천원
시설장비 유지비			500,000	년5회×100천원
소계		3,500,000		
예비비	예비비	500,000	예비비	
	소계	500,000		
세출예산총계			161,199,842	(급식비 별도 계산시 132,399,842)

운영비 중에 센터 임차료는 반영하지 않았다. 일반적으로 국·공립 시설은 그 건물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건립하거나, 전세로 임차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월임차료를 포함하지 않았다. 만약 센터의 월임차료까지 예산안에 포함된다면 전체운영비는 현재보다 훨씬 많은 금액이 소요될 것이다. 물론 국·공립 지역아동센터를 신규 건립하거나 기존 건물을 리모델링할 때에는 별도의 자산 취득비가 필요할 것이다. 자산 취득비는 서울, 광역시, 중소도시, 농어촌 등 지역에 따라 편차가 크고, 첫 해에만 필요하기에 매년 필요한 운영비에는 포함시키지 않았다.

<표 II-40>의 위탁 지역아동센터 연간 운영비 기준안에 따라 월 평균 운영비를 산정하면 상근종사자 3인 기준으로 월 천백만원의 운영비가 소요되게 되며(<표 II-41>), 만약 불가피하게 상근종사자를 2인밖에 둘 수 없다면(시설장, 선임생활복지사 기준), 이 경우 월별 비용을 산출할 때 약 월 8백 8십만원정도의 운영비가 필요함을 알 수 있다(<표 II-42>)

표 II-41 위탁 지역아동센터 월 평균 운영비(종사자 3인/ 아동수 29인/급식비 제외) (단위:원)

예산과목		금액	내역
사무비	인건비	8,199,150	상근종사자 3인 인건비, 사회보험, 퇴직적립금, 수당
	업무추진비	40,000	회의비
	운영비	640,830	여비, 수용비 및 수수료,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사업비	사업운영비	1,820,000	프로그램 진행비, 교재교구 구입비
재산 조성비	시설비	291,670	시설보수비, 시설장비 유지비
예비비	예비비	41,670	예비비
예산총계		11,033,320	-

표 II-42 위탁 지역아동센터 월 평균 운영비(종사자 2인/ 아동수 29인/급식비 제외) (단위:원)

예산과목		금액	내역
사무비	인건비	6,062,932	상근종사자 2인 인건비, 사회보험, 퇴직적립금, 수당
	업무추진비	40,000	회의비
	운영비	640,830	여비, 수용비 및 수수료,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사업비	사업운영비	1,820,000	프로그램 진행비, 교재교구 구입비
재산 조성비	시설비	291,670	시설보수비, 시설장비 유지비
예비비	예비비	41,670	예비비
예산총계		8,897,102	-

※ 인건비외의 사업비 등 다른 예산항목은 상근종사자 1인 변화에 따라 크게 변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으로 상근종사자 3인 기준 시 사업비 예산 등을 그대로 적용함.

현재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국가의 지원이 기본운영비에 대한 지원과 급식비로 구분되어 있고, 아동복지교사에 대한 지원은 별도의 경로로 이루어지기에 특정 지역아동센터당 연간 예산이 어떻게 집행되는지를 종합적으로 모니터링하기 어렵게 되어 있다. 여기에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한 야간보호사업, 삼성사회봉사단 등 민간에 의한 후원이 일부 지역아동센터에 집중되기에 향후 체계적인 평가를 해야 한다. 이번 기회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집행하는 사업만이라도 표준화시켜야 한다.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급식비를 기본운영비에 포함시키고, 아동복지교사를 개별센터에서 임용하도록 하여 그 소요예산을 각 지역아동센터에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방식을 제안한다.

국·공립 지역아동센터라고 하더라도 모든 예산을 국고와 지방비에 의존할 수는 없을 것이다. 부족한 사업비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특별사업비를 받거나 다양한 복지재단이나 기업 등에 사업계획서를 제안하여 사업비를 충당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또한 29명 정도 이용하는 시설에 9명이 일반아동이고, 그들이 매달 5만원 가량의 이용료를 낸다면 연간 이용료 수입이 540만원이고, 1인당 10만원까지 낸다면 이용료 수입은 1,080만원이 될 것이다. 많은 액수는 아니지만 아동의 양육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부모가 함께 한다는 점에서 캠프 참가 시 교통비 정도의 실비는 아동의 보호자가 부담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위에서 추계된 직영 운영비를 기준으로 전체 지역아동센터의 10% 가량을 국·공립으로 한다면 소요 예산은 다음과 같다. 민간위탁 시 시설당 연간 161,200천원이 소요된다고 가정하면, 전체 지역아동센터가 3,800개소이고 그것의 10%인 380개소를 국·공립으로 전환한다면 613.5억원(별도로 지급되는 급식비를 전체 예산에서 시설당 28,800천원씩 제외시킬 경우에는 503억원), 20%를 전환시키면 1,227억원(급식비 별도 시 1,006원), 30%를 전환시키면 1,841억원(급식비 별도 시 1,509억원)이 소요될 것이다. 2011년 현재 영유아보육예산이 약 2조원인 것에 비교할 때, 지역아동센터의 30% 가량을 국·공립으로 전환하더라도 전체 보육예산의 1/10에 불과하다. 지역아동센터를 국·공립으로 설립하고자 할 때 영유아보육에 비해 소요 예산은 많지 않지만 국가의 책임성에 대한 사회적 매우 인식은 달라질 수 있다.

7) 운영방법(직영과 위탁운영)

국·공립 지역아동센터는 설립 초기(예, 2년~3년) 직영을 권장한다. 위탁을 전제로 직영을 할 경우에는 향후 고용 승계를 하는 것을 조건으로 능력 있는 직원을 뽑을 수 있다. 국·공립 지역아동센터를 위탁할 경우에는 아동복지사업에 경험이 있는 사회복지법인, 학교법인 등에게 위탁하도록 한다.

지역아동센터의 위탁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국·공립보육시설 위탁체 선정관리권장표준안’ 등을 참고하여, ‘국·공립지역아동센터 위탁체 선정관리표준안’을 작성한 후 이를 기준으로 위탁체를 선정·관리한다. 위탁체 선정관리표준안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지역아동센터는 원칙적으로 법인에게만 수탁할 수 있게 하고, 지역에서 적절한 법인이 없는 경우에는 지역아동센터를 운영한 경험이 있는 개인이 수탁하되 일정 기간안에 법인 설립을 조건으로 한다.

※ 국·공립지역아동센터 위탁체 선정관리표준안

- 적용대상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설치운영인 지역아동센터와 신규 센터 중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국·공립 지역아동센터
- 선정시기
신축시설의 신규위탁 경우 개원예정일 6개월 이전, 재 위탁의 경우 계약 만료일 3개월 이전 심사결정, 변경위탁은 2개월 이전 선정완료
- 위탁체를 조기에 선정하여 내실 있는 프로그램 운영과 시설의 효율적 관리도모
- 규모가 크거나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이 필요한 경우, 설계 단계에서 위탁체 선정가능
- 선정방법 및 결과공개
- 신규위탁 및 변경위탁은 반드시 공개경쟁으로 하고 재위탁은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등의 심사를 거쳐 2회까지 재계약할 수 있음.
- 2회 재위탁을 마친 후에는 반드시 공개경쟁을 함.
- 심사항목은 운영체의 공신력, 시설운영실적, 대표와 시설장의 전문성, 시설 운영계획, 재정능력 등을 고려하여 심사함.
- 세부 항목별로 배점 기준표를 만들어서 심사함.
- 위탁관련 일체의 절차 및 방법 공개
- 위탁업무의 공정성, 투명성을 위해 심의결과 공개
- 위탁기간 :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설정과 여건에 따라 조례로 정하되 3년 내외로 함.
- 운영체(법인·단체·개인) 신청자격
- 사회복지법인, 기타 비영리법인
- 단체 또는 개인은 수탁후 1년 이내에 비영리법인의 설립을 조건으로 함
- 지역아동센터 운영경험이 있는 법인, 단체 또는 개인으로 제한
- 운영체의 시설장은 아동복지법상 지역아동센터 시설장 자격이 있는 자로 함.
- 운영조건
- 신규 및 변경위탁, 재위탁 심사시 보건복지부 등 공공기관이 평가한 지역아동센터의 평가결과를 반영할 수 있음.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여건 등을 감안하여 특성화 프로그램의 운영을 권고할 수 있음.

위탁심사는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엄격하게 진행하고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며, 매 3년마다 2회까지 재위탁 여부를 심사한다. 특정 기관과 3회 연속 위탁-수탁계약을 하면 반드시 공개경쟁을 통해 위탁-수탁하는 절차를 다시 밟도록 하여 사회적 책임성과 서비스의 질을 담보할 수 있도록 한다.

지역아동센터는 일정 기간마다 시설과 설비, 인력, 사업, 예산 등에 대한 평가를 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한 센터가 전체 센터평가에서 하위 30% 안에 포함될 경우에는 반드시 외부 전문기관으로부터 컨설팅을 받도록 하고 연속적으로 효과성이 낮을 때에는 위탁 기관을 교체하거나 직영을 적극 고려해야 한다.

또한 시설장과 직원에 의한 공금횡령 등 법적으로 심각한 위법행위가 있거나, 아동에 대한 인권침해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빚은 경우에는 적법절차를 밟아 위탁을 철회하는 등 위탁-수탁을 엄격히 관리해야 할 것이다.

8) 법적·제도적 개선방안

아동복지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지역아동센터의 설치와 운영 기준(시설과 설비, 인력기준, 인력배치기준) 등을 명시한다.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11조의 별표에 지역아동센터에 관한 조항을 별도로 넣는 방법이 한 방법이다.

매년 보건복지부는 지역아동센터사업안내를 발간하여 세부 지침을 제시하고, 국·공립 지역아동센터를 포함하여 모든 센터가 적정 예산을 확보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국비의 배정, 시·도비와 시·군·구비의 확보를 위한 가이드라인의 제시 등을 통해서 운영을 현실화시킨다.

제 3 장

수요자부담방식의 지역아동센터 연구

1. 수요자부담방식 지역아동센터 논의의 배경
2. 국내 유사 방과후 돌봄서비스 사례
3. 조사결과
4. 요약 및 제언
5. 수요자부담방식의 지역아동센터 운영방안

제 3 장

수요자부담방식의 지역아동센터 도입방안

1. 수요자부담방식의 지역아동센터¹¹⁾ 논의의 배경

지역아동센터는 그 출발이 도시민가정 아동들에게 보호와 급식을 제공하는 공부방이었고 현재까지 지역사회 저소득층 가정과 농·산·어촌의 아동들에게 돌봄과 보호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주 기능으로 하고 있었기 때문에,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정부의 한정된 재정지원은 저소득층 이용대상에 초점이 맞추어져 왔다. 특히 저소득층을 포함한 취약계층 아동들이 경제적 이유로 지역사회내 사교육시장에서 배제되고 또 방과후 적절한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이유로 지역아동센터의 일차적인 서비스 대상으로 여겨져 왔다. 이러한 이유로 법정 저소득계층은 아니지만, 맞벌이가정이거나 한부모 가정의 방과후 돌봄서비스 수요에 대해서는 그동안 정부와 아동복지 현장 모두 그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그에 대한 관심은 적었으며, 일반 가정 아동의 지역아동센터의 적극적인 이용에 대한 인식도 낮은 수준이었다. 따라서 고비용의 사교육시장은 경제적 부담으로 이용할 수 없는 상황에서 또 한편으로는 저소득층으로 인정되지 않아 지역아동센터의 주 이용대상으로 고려되지 않는, 일정소득 수준 이상 가정의 아동은 양질의 복지적 돌봄서비스의 사각지대에 놓일 수 밖에 없다. 결과적으로 이들 일반아동의 경우 정책대상 우선순위가 아니기 때문에 이들의 지역아동센터의 이용에 대해서는 정부와 현장의 인식이 소극적이었으며, 또한 지역사회내 홍보부족과 같은 이유로 일반가정에서의 지역아동센터의 존재와 서비스에 대한 인지도도 낮았다.

또한 지역아동센터 이용과 관련하여, 특히 지역사회의 모든 아동·청소년이 아닌, 저소득층이나 일부 취약계층 아동들만 이용하는 곳이라는 부정적인 이미지가 많아 센터를 이용하는 아동들이 이러한 낙인문제를 겪는 경우가 많다. 저소득층가정의 자녀들만 이용하는 사회복지적 서비스라는 낙인은 지역아동센터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과 서비스의 수준에 대한 낮은 신뢰도와 연결될 수

있다. 실제로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2004년 정부지원이후의 갑작스런 양적 확대는 정부 및 지자체, 그리고 각 단체 및 협의회를 통한 관리·감독이 엄격하게 이루어지기 어렵게 되었고, 이와 더불어 지역아동센터에서 제공되는 프로그램과 서비스 수준에 대한 문제제기도 있어왔다(강명순 외, 2010; 윤경준 외, 2009; 정익중 외, 2009; 한국개발연구원 2009). 2010년도 전국지역아동센터 평가 결과(보건복지부, 2011)에도, 지역아동센터 프로그램의 질이 다른 영역에 비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또한 전문성의 부족으로 아동과 학부모의 학습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킬 수 없음을 지적받고 있다(윤경준 외, 2009). 이러한 프로그램과 서비스 질에 대한 문제제기들은 현재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고 있는 취약계층 아동에게도 해당되지만, 지역아동센터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일반가정 아동에게도 센터 이용에 있어 부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러한 프로그램과 서비스 수준은 지역아동센터의 부족한 재정상황과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 이는 또한 앞서 지적한 지역아동센터의 운영주체가 정부지원외에 추가적인 재정지원을 기대할 수 있는 법인이나 종교 및 사회단체가 아닌 개인운영주체의 비율이 매우 높은 것과도 관련지을 수 있다. 현재와 같은 제한적인 예산지원하에서 개인이 지역아동센터의 운영주체일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열악한 운영여건(공간 및 설비, 인력에 대한 처우와 예산 부족)으로 인해 양질의 프로그램과 서비스 제공을 기대하기 어렵다. 2010년도 평가결과에서는 교육지원 프로그램, 놀이 및 특별활동(문화) 프로그램, 아동지원프로그램의 경우 운영주체가 개인이거나 종교단체의 경우 법인이나 기타 단체의 경우보다 평가점수가 낮게 나타났다. 또한 시설규모에 따른 프로그램의 평가결과에서도 적은 인원수(10인 미만) 센터의 경우 프로그램 운영수준도 가장 낮게 나타났는데(보건복지부, 2011), 이는 개인이 운영하는 소규모의 지역아동센터일 경우 이용아동에게 제공되는 프로그램과 서비스의 질적 수준에 대한 우려를 갖게 한다.

운영주체의 문제와는 별개로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정부지원금액은 아동복지시설로서의 지역아동센터의 효과적인 역할과 기능을 담당하는데 있어 부족한 수준이다. 보건복지부의 최근 자료에 따르면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지원은 이용아동 및 상근종사자 수에 따라 월 200만원~430만원 차등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보건복지부, 2011). 정부의 운영비 지원외에 지자체로부터 별도의 운영비를 받고 있는 경우는 전체센터의 절반이하로 지원금 수준도 매우 낮다(한달 평균 350,377원 수준). 따라서 이러한 예산 부족을 조금이라도 보충하기 위해 많은 지역아동센터들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나 민간기업 복지재단의 프로그램 운영비 지원이나 강사파견사업에 의존하고 있으며, 이를 위하여 제한된 인력을 가지고 프로포절 작성 및 지원까지 감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재정부족 문제를 고려하여 지역아동센터 운영매뉴얼상에는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일반아동에 한하여 월 5만원을 이용료로

11) 본 연구의 '제3장 수요자부담방식의 지역아동센터 도입방안'의 경우, 연구 및 조사가 진행되면서 '수익자 부담', '이용자 부담', '수요자 부담' 등의 용어가 혼재되어 사용되어 왔다. 그러나 제3장의 주 연구내용이 방과후시간 자녀돌봄의 수요자인 부모가 이용료를 전부/일부 부담하는 지역아동센터 모델과 그 도입방안에 대한 논의이므로, 최종적으로 '수요자부담방식의 지역아동센터'로 용어가 결정되었다.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지역아동센터가 위치하고 있는 지역특성과, 주로 저소득계층 아동의 이용시설이라는 여건상 센터 이용료를 받고 있는 센터는 불과 6.7%(248개소)로서, 1인당 평균 이용료는 23,412원 정도라고 보고되고 있다¹²⁾.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정부의 제한된 예산지원이 저소득층을 포함한 취약계층 아동에게만 집중되어 있고, 또 지역아동센터와 이용아동에 대한 낙인문제와 지역아동센터의 프로그램과 서비스 수준에 대한 문제제기들로 인해 일반 맞벌이가정을 포함한 양질의 방과후 돌봄서비스 수요에 대한 논의는 확대되기 어려웠다. 또한 부족한 재정에 대한 문제제기가 계속 이어져 왔음에도 불구하고, 지역아동센터의 주 이용대상이 저소득층이기 때문에 소득별 수준에 따른 비용부담을 통해 지역아동센터의 재정을 부분적으로 보충하는 운영방식도 논의의 대상이 되지 못했다. 그러나 지역아동센터이용의 재정적 어려움을 보완하고 또한 지역아동센터가 빈곤아동전용이라는 낙인을 완화하기 위해 맞벌이가정을 포함한 일반 가정아동에게까지 지역아동센터 이용을 확대하게 된다면, 이 경우 지역아동센터는 사회적 서비스의 수요자부담방식에 대해서 고려해 볼 수 있다.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재원종류로는 조세를 통한 법률상 정부 및 지방공공단체의 부담금, 보조금 및 위탁금등의 공공비용과 민간사회복지기관 및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대부금, 공동모금에 의한 배분기부금등 외에도 사회복지서비스 이용자의 소득별 부담금으로서의 수요자의 비용부담을 이야기할 수 있다(남일재 외, 2011). 또한 사회복지서비스를 포함하는 공공서비스에서의 수익자부담원칙은 공공재 혹은 공공서비스의 공급 비용을 그 재화나 서비스로부터 혜택을 받는 주체가 부담해야 하는 것으로 정의되고 있다(박상원, 2007). 사회보장기본법 제27조 4항에서도 ‘부담 능력이 있는 국민에 대한 사회복지서비스에 드는 비용은 그 수익자가 부담함을 원칙으로 하되,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그 비용의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어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 가구의 경제수준이 저소득층이 아닌 일정수준이상일 경우 수요자부담방식이 법적으로는 가능할 뿐 아니라 현재와 같은 상징적인 수준이 아닌 보다 양질의 프로그램과 서비스를 전제로 한 현실적인 비용부담까지도 생각해 볼 수 있다. 무엇보다 지역아동센터와 같은 예산부족의 상황에서 경제적으로 감당할 수 있는 복지서비스의 수요자부담으로 서비스를 이용하도록 하는 방식은 충분히 고려해 볼 수 있는 사항이다 (유화 2006).

여기서 분명히 할 것은 이러한 수요자부담방식이 이윤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맞벌이가정을 포함한 사회적 욕구 충족에 초점을 두기 위한 것이라는 점이다. 또한 양질의 서비스를 기초로 일반가정 자녀에 대한 비용부담방식의 지역아동센터의 경우, 저소득층과 취약계층 아동들이 경제적 부담으로 서비스에 배제되어서는 안되며, 이들에 대한 정부지원을 전제로 이용료에 대한 수요자부담방식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어야 한다. 따라서 다양한 경제적 배경을 가진 아동들의 지역아동센터이용방식과 지원방식에 대해서는 가족공동비용부담(family co-payment)이나 바우처제도(vouchers) 등을 통한 보다 다양한 방안들을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 장에서는 현재 지역아동센터의 주 이용대상인 저소득가정을 포함한 취약가정뿐 아니라 맞벌이가정을 포함한 일반가정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서비스 확대를 전제로, 지역아동센터의 다양한 재원조달 방식의 하나로서 수요자부담방식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수요자의 이용료부담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 국내외 유사 방과후 돌봄서비스 운영 실태를 제시·비교하고자 하며, 이렇게 이용료의 수요자부담방식 지역아동센터 모델에 대해 시설장 심층면접과 설문조사 결과, 그리고 지역아동센터 학부모 초점집단인터뷰 및 지역아동센터를 현재 이용하고 있지 않은 학부모대상 의견조사결과를 제시하고자 한다. 그리고 이러한 조사결과를 기초로 하여 수요자부담방식의 지역아동센터 모델에 대한 예산관련 사항을 포함한 법적·제도적 보완사항을 마련하고자 한다.

2. 국내 유사 방과후 돌봄서비스 사례

이용료의 수요자부담방식을 원칙으로 운영되고 있는 유사 방과후 돌봄서비스로는 우선 교육과학기술부의 방과후 학교 사업(초등돌봄교실, 업마품온종일돌봄서비스 포함), 보건복지부의 보육사업과 여성가족부의 방과후청소년아카데미사업을 살펴볼 수 있다. 이들 사업들 중 방과후 학교와 보육사업은 수익자부담을 원칙으로 저소득층을 포함한 취약계층의 아동에게는 다양한 방식의 바우처 제도(방과후 학교의 자유수강권, I-sarang 카드)를 활용하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경제적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의 경우 수익자부담 모델은 일종의 시범사업의 성격으로 현재 매우 제한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2010년 현재 전체 161개의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중 단 3곳만 이용대상 청소년들에게 이용료를 받고 있다.

12) 본 연구를 위해 지역아동센터현장방문 및 시설장 심층면접을 실시한 결과, 일반 아동에게 이용료를 받지 않는 이유는 일반아동 이용률 저조에 따른 실질적인 재정도움효과 부재, 지자체 담당공무원의 반대 등으로 나타났다. 또한 의무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엄격하게 이용료를 징수하기 어려우며, 해당 지자체와 지역아동센터마다 이에 대한 정책의 차이가 있고 또 이용자 입장에서 이를 비교할 수 있어 이용료를 받기 어렵다는 응답도 있었다.

1)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교육부에서 1996년 '방과후교육활동 활성화 방안'을 통해 시작된 방과후 교육활동은 학교내의 보충수업과 학교밖의 과외를 학교내의 특기·적성교육으로 대체하는 것으로 사교육비 절감이라는 사회경제적 기능의 목적이 보다 강화된 성격을 가지고 있다(김홍원 외, 2010). 이러한 방과후교육활동은 1999년에 '특기·적성교육 활동'이란 명칭으로 변경·실시되었다가, 2004년에는 사교육비가 사회문제가 되면서 사교육 수요를 공교육 체제내에서 소화할 수 있도록 교과보충학습을 다시 도입하였는데, 이때 '방과후 학교'라는 용어로 변경되었다(김홍원, 2006). 더불어 맞벌이 부부 가정의 타아수요를 고려하여 초등학교 저학년생을 중심으로 한 방과후 보육프로그램도 도입되었다.

이 당시 교육인적자원부에서 방과후학교를 적극 도입·추진하게 된 배경을 보면, '계층간·지역간 심화된 사회양극화 완화를 위한 교육격차 해소', 맞벌이 부부 및 한부모 가족의 증가를 포함한 '저출산·고령화 등 사회변화에 부응하는 교육서비스 요구 증대'와 '사회에 진출한 여성들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도록 교육뿐 아니라 보육프로그램이 강화된 '방과후학교' 필요', '사교육비 경감을 위한 방과후 교육활동 개선 필요 증대' 등 사회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음을 알 수 있다(교육인적자원부, 2006; 김홍원 외, 2010).

표 III-1 방과후학교의 목표

목표	추진방안
학교교육기능 보완	특기·적성교육, 수준별 보충학습 및 다양하고 창의적인 교육 프로그램 운영
사교육비 경감	질 높고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으로 학교 밖 사교육 수요를 학교 안으로 흡수
교육복지 실현	농산어촌 및 도시 저소득층 자녀를 위한 방과후학교 운영 지원
학교의 지역사회화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을 운영, 지자체·대학 등 지역의 인적·물적 자원 활용

출처 : 김홍원 외(2010). 방과후학교 질적 수준 제고 방안. 교육과학기술부

현재 교육과학기술부의 방과후 학교는 방과후 학생의 교육과 돌봄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수요자(학생, 학부모) 중심으로 운영하는 정규교육과정 이외의 학교교육 활동' 을 의미하고 있다(교육인적자원부, 2006). 이는 교육을 제공하는 주체의 필요가 아닌 수요자의 다양한 관심과 흥미, 욕구가 충족될 수 있도록 특색화된 프로그램을 포함하는 것으로, 기존의 방과후 교육활동과 현재 방과후 학교의 운영방식을 비교하면 <표III-2>와 같다.

표 III-2 '방과후 교육활동'과 '방과후학교'의 운영방식 비교

구분	방과후 교육활동	방과후학교	추진방향
운영주체	학교장 중심	학교장, 대학, 비영리법인(단체) 등에 운영주체의 개방성 확대	운영주체의 개방화
지도강사	현직 교원 중심	현직 교원, 전문가, 학원 강사, 지역사회인사 등으로 다양화	지도강사의 다양화
교육대상	본교 재학생 위주	타교 학생이나 지역사회 성인까지 점진적 확대(평생교육 프로그램 제공)	교육대상의 다양화
교육장소	본교 시설 위주	인근 학교 및 지역사회의 다양한 시설 활용 극대화	교육장소의 다양화
프로그램	공급자 중심	수요자 중심, 학생 개개인의 선택권 중시	프로그램의 수요자 중심 개설 및 선택
교육비	수익자 부담	수익자 부담 원칙이나 소외계층 집중지원, 교육의 형평성 구현	교육 격차 해소
실시시간	정규교육시간 이외의 방과 후 특기·적성시간	일과 전과 후, 토요휴업일, 방학 중에 실시될 수 있음. 돌봄과 보호의 기능 수행	실시시간의 자율화

출처 : 김홍원 외(2010). 방과후학교 질적 수준 제고 방안. 교육과학기술부

방과후 학교는 기존의 학교 중심운영뿐 아니라 지역사회의 비영리 기관(학부모회, YMCA, 대학, 사회단체, 종교단체 등)에 위탁할 수 도 있으며, 인근 학교간의 협력하에 타 학교에서 교육을 받을 수도 있다. 또한 기존에는 공급자 중심으로 프로그램 운영과 내용들이 결정되었으나, 현재는 수요자의 필요에 초점을 두어 프로그램 운영방식(프로그램 운영시간, 학생들의 개별적인 프로그램 선택권)을 결정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 그리고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수익자 부담을 원칙으로 하나 농·산·어촌 지역, 저소득층 학생들에게는 재정지원을 확대하여 무상 또는 저렴한 비용으로 교육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김홍원 외, 2010).

가장 최근에 조사된 방과후 학교 운영실태를 보면, 2010년 현재 전국의 초·중·고의 거의 모든 학교가 방과후학교를 운영하고 있으며, 전체 학생수의 63.3%가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어, 2006년 방과후학교사업이 실시된 이후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김홍원 외, 2010). 조사 당시(2010년 6월) 학생1인당 평균 3.4개의 강좌를 수강하고 있었는데, 초등학교 1.6개, 중학생 2.9개, 일반계 고등학생이 타 교급보다 가장 많은 6.7개의 강좌를 수강하고 있었다. 수강료는 한달 평균 26,293원을 부담하고 있었는데, 교급별로 보면, 한달에 평균 26,293원을 부담하고 있으며, 초등학교는 35,012원, 중학생은 20,125원, 일반계 고등학생은 28,511원을 부담하고 있다. 교급별로 한달 평균강좌 수와 비용을 보면, 초·중학생은 한달 평균 약 56,000원~58,000원을, 인문계 고등학생의

경우는 강좌수가 많아 한달 평균 약 19만원의 방과후학교 이용료를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방과후학교에 참여하는 학생의 수강료 부담현황을 보면 <표Ⅲ-3>에서 볼 수 있듯이, 약 67%에 달하는 학생들이 전액부담으로 방과후학교를 이용하고 있고, 전액무료인 경우는 약 25%인 것을 볼 수 있다.

표 Ⅲ-3 방과후학교 이용료 부담에 따른 운영 현황(2010년 6월) 단위 : 명(%)

구분	전액부담	일부부담	전액무료	계
학생수	3,051,108	367,542	1,154,612	4,573,262
비율	66.7	8	25.2	100

출처 : 김홍원 외(2010). 방과후학교 질적 수준 제고 방안. 교육과학기술부

방과후학교의 주요 프로그램은 특기·적성 강좌와 교과 관련 강좌로 나눌 수 있는데, 교과 관련 강좌가 2배 이상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수학과 영어, 국어관련 강좌가 과반을 차지했다. 주말프로그램은 맞벌이 부부 가정이나 저소득층, 농산어촌 지역의 학생들에게 제공되는데, 전체 방과후 학교 중 운영학교는 19.3%이며, 참여 학생비율은 약 3%이다. 또한 학교 간 연계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학교는 5.6%이며, 참여 학생수는 0.9%로 낮게 나타났고, 비영리 기관에 프로그램 운영을 위탁하고 있는 학교는 926개(컴퓨터 제외), 영리 기관에 위탁하고 있는 학교는 2,064개(컴퓨터포함)이다(김홍업 외, 2010).

방과후 학교가 주로 교과과정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과는 달리, 초등학교 보육사업은 맞벌이가정 및 한부모가정의 초등학생의 보육 수요에 대처하기 위한 사업으로 시작되었다. 이를 위하여 초등보육교실은 1학년 1학급 이상 설치하고 정규수업이 끝난 후 오후 9시까지 운영을 권장하고 있다. 2010년 6월 현재 초등돌봄교실을 운영하는 학교는 5,117개교로 전국 초등학교의 87.4%가 참여하고 있으며, 참여 학생수는 총 104,496명으로 전체 초등학생의 3.2%로 나타났다(김홍업 외, 2010). 참여 학생과 수강료 부담유형은 <표Ⅲ-4>에서 보는 바와 같이 주로 맞벌이 가정 자녀가 이용하고 있었다. 또한 전체의 65.2%가 전액무료로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액부담인 경우 월 평균 33,524원을 부담하고 있었으나, 이는 프로그램 종류와 학교여건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김홍업 외, 2010). 운영시간을 보면 18시까지 운영하는 학급수가 가장 많았고(38.3%), 17시까지 운영하는 경우도 31%여서 맞벌이 가정의 경우 일반적인 퇴근시간인 18시 이후까지 운영하는 학급수는 불과 23.1%였다.

표 Ⅲ-4 초등돌봄교실 참여학생 유형(2010년 6월) (단위: 명, %, 원)

유형	생활수준			계	부담유형			계
	기초생활수급자	맞벌이 가정	기타		전액 부담	일부 부담	전액 무료	
학생수(명)	13,287	65,116	26,093	104,496	28,191	8,138	68,167	104,496
비율(%)	12.7	62.3	25.0	100.0	27.0	7.8	65.2	100.0
월평균부담액(원)	-	-	-	31,178	33,524	23,042	-	31,17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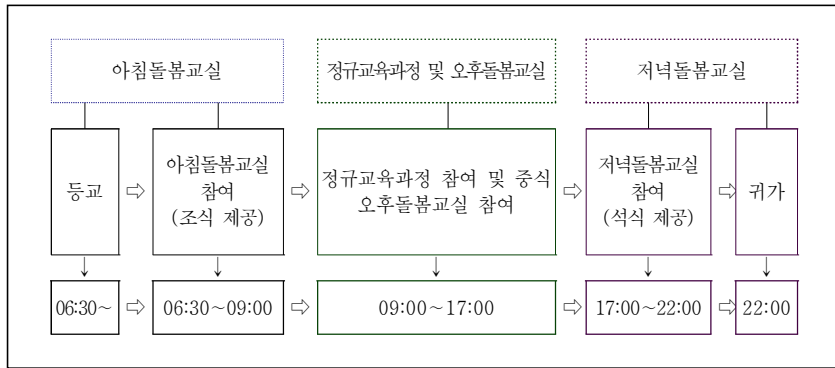
출처 : 김홍원 외(2010). 방과후학교 질적 수준 제고 방안. 교육과학기술부

초등돌봄교실을 이용하는 104,496명 중 1학년~2학년이 총 80%를 넘고 있어 주로 초등학교 저학년생이 본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돌봄교실 운영학교 중 13.5%만이 토요일업일에 운영하고 있으며, 73.9%는 방학 중에 운영하고 있었다 (김홍원 외, 2010).

이러한 초등돌봄교실은 2011년 상반기부터 “엄마품 온종일 돌봄교실”이란 이름으로 원하는 학교에 한해 저소득층 학생에게 보다 초점을 맞춘 종일 돌봄 사업으로 확대·운영되고 있다. 이 사업은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학생들에게 온종일(아침 6시 30분~22시 내외) 보육, 학습지도, 특기적성 교육 등 돌봄과 교육을 함께 실시하는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으로서, 특히 아침시간부터 밤 늦은 시간까지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저소득층 아동을 우선 이용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기존의 초등돌봄교실(초등학교 보금자리 포함)과 차별성이 있다.

엄마품 온종일 돌봄교실 운영시간은 오전 6시 30분부터 22시까지 학교 및 지역여건에 맞게 융통성 있게 운영하되, 학부모와 학생의 탁아 및 보육 요구에 부응하도록 융통성 있게 탄력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운영모형과 기본적인 프로그램 구성은 아래 [그림Ⅲ-1]과 <표Ⅲ-5>와 같다.

이용대상은 초등학교 전학생으로, 희망자가 많은 경우는 저소득층, 맞벌이 가정, 저학년 학생 등을 우선 선정하는데, 여기서 저소득층의 범위는 기초생활수급대상자, 소년·소녀가장, 모(부)자 가정 자녀, 보훈대상자 자녀, 시설수용 학생, 새터민 자녀, 조손가정자녀, 차상위 계층 자녀(담임교사의 추천 가능) 등을 포함한다. 수강료는 지자체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체험활동 프로그램 중 특화된 프로그램으로 수익자의 비용부담이 요구될 경우만 학생들이 비용을 부담하는데, 이 경우 저소득층 자녀의 경우는 무료로 이용하게 된다. 정수한 수익자 부담액은 반드시 「온종일 엄마품 돌봄 교실」 운영을 위한 예산으로 운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그림 III-1】 엄마품 온종일 돌봄교실 운영 모형

표 III-5 엄마품 온종일 돌봄 교실 프로그램 구성

과 정		영 역	비 고
유아	돌봄프로그램(Care)	기본 돌봄형	휴식, 수면, 씻기 등 기본생활습관 지도
	교육프로그램(Edu)	교과과정	논술, 음악, 영어, 미술, 과학탐구 등
초등	돌봄프로그램(Care)	특기·적성영역	방과후학교 특기·적성 강화 참여
		교육활동실	과제 해결, 예·복습 활동
		사랑방형	자율 활동 과정

2) 보육프로그램

보육사업은 미취학 영유아 및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돌봄서비스이지만, 보호와 돌봄 및 교육까지를 모두 포함하고 있는 서비스로서, 이용대상의 연령에 차이가 있을 뿐 운영방식 및 서비스 제공에 있어 지역아동센터와 많은 유사점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보육사업의 수요자부담에 대한 부분에 초점을 맞추어 관련 내용을 제시하고, 지역아동센터의 수요자부담방식에 대한 시사점을 논의하고자 한다.

우리나라의 보육사업은 1921년 서울에서 태화기독교사회관이 탁아프로그램을 개발함으로써 시작 되었고, 1961년 아동복지법, 1982년 유아교육진흥법등을 통해 발전되어 왔다. 그리고 1991년 영유아보육법제정으로 인해 종전의 “탁아”사업에서 보호와 교육을 통합한 “보육”사업으로 본격

적으로 확대·발전되었다. 2004년 영유아보육법이 전문개정되면서 보육서비스의 질적수준 향상과 보육의 공공성강화 등을 통해 보육사업이 획기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2007년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거나 유용한 경우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을 강화하였으며, 이후 계속된 법적·제도적 보완을 거쳐 현재와 같은 형태를 이루게 되었다(차현숙 외, 2009).

현재 보육시설의 종류는 재원에 따라 국·공립보육시설, 법인 및 민간보육시설, 직장 및 가정보육시설로 나뉜다. 이를 정부지원유무에 따라 정부지원시설, 정부미지원 시설로 나누어 보면, 정부지원시설을 이용하는 영유아의 보육료는 시설유형에 관계없이 정부지원시설 보육료 지원단가 범위 내에서 수익자가 부담하도록 하고 있으며, 정부미지원시설을 이용하는 법정저소득층 및 장애아동 보육료는 정부지원단가 범위 내에서 수납하여야 한다. 보육료를 제외한 여타 잡부금품 수납은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지만, 입소료, 현장 학습비 등 불가피한 필요경비는 당해 시·도지사가 정한 수납한도액의 범위 내에서만 수익자 부담이 가능하다(보건복지부, 2011). 현재 정부미지원시설의 보육료 수납액을 보면 아래 <표III-6>와 같다.

표 III-6 정부지원시설 보육료 수납액

(단위:원)

지원여부	지원구분	지원자격	연령	정부지원보육료	부모부담보육료
보육료 지원 아동	0~4세 보육료	(영유아)	만0세	394,000	0
			만1세	347,000	0
			만2세	286,000	0
			만3세	197,000	0
			만4세	177,000	0
	만5세아 보육료	(만5세아)	만5세	177,000	0
	장애아 무상보육료	(장애아)	만12세 이하	394,000	0
	다문화 보육료	(다문화)	만0세	394,000	0
			만1세	347,000	0
			만2세	286,000	0
			만3세	197,000	0
			만4세	177,000	0
만5세	177,000	0			
보육료 미지원 아동	일반아동	-	만0세	0	394,000
			만1세	0	347,000
			만2세	0	286,000
			만3세	0	197,000
			만4세	0	177,000
			만5세	0	177,000

출처 : 보건복지부(2011). 2011 보육사업 안내

보육료 지원은 2010년에는 가구소득 하위 50%, 60%, 70%로 나뉘어 이루어졌던 것이 2011년부터는 가구소득하위 70%이하로 통일되어, 현재는 가구소득상위 30%만이 이용자부담이다. <표Ⅲ-7>는 가구원수별 소득 인정액 기준으로 이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보육료 부담을 지지 않는다. 이에 따른 이용 영유아 연령과 돌봄시간에 따른 지원 단가는 <표Ⅲ-8>와 같으며, 소득상위 30%이상인 가구의 경우 해당 단가에 대한 부담을 지게 된다.

표 Ⅲ-7 가구원수(가구주 포함)별 소득인정액 기준 (단위:만원)					
구분	지원대상	3인까지	4인	5인	6인
영유아	영유아가구 소득하위 70%이하	416	480	537	588

※ 7인 이상 가구: 6인가구 기준으로 1인 증가시마다 30만원씩 증가 / 출처 : 보건복지부(2011). 2011 보육사업 안내

표 Ⅲ-8 영유아 보육료 지원단가 (단위:원)						
구분	지원대상	지원 비율	연령	지원단가		
				종일	야간	24시
영유아	영유아가구 소득하위 70%이하	100%	만0세	394,000	394,000	591,000
			만1세	347,000	347,000	520,500
			만2세	286,000	286,000	429,000
			만3세	197,000	197,000	295,500
			만4세	177,000	177,000	265,500

출처 : 보건복지부(2011). 2011 보육사업 안내

<표 Ⅲ-8>에서 보는 바와 같이 영유아의 연령이 높을수록 보육료는 감소하게 되며, 만 5세 아동의 정부지원시설 이용 보육료는 만4세와 동일하게 월 177,000원이다¹³⁾. 만일 정부미지원시설 이용 시 위의 정부지원시설의 보육료와 차액이 발생할 경우 그 차액만큼 추가지불하게 된다. 전체적으로 이러한 보육시설이용료 및 지원 단가는 보육시설 운영과 관련된 현실적인 비용을 감안하여 산정된 '표준보육비용'에 근거하고 있다(김현숙·서병선, 2008).

13) 2012년부터는 월 200,000만원이 지원된다. 또한 2012년부터는 만 0세~2세와, 만5세아동에 대해서 현재 소득하위 70%에게만 지원하던 보육료를 소득 및 재산조사 없이 해당연령의 전체아동에게 지원하는 것으로 변경예정이다.

3)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는 청소년들의 전인적 발달을 위해 공교육에서 도외시하고 있는 심리·심성 발달을 도모하고, 방과후 청소년들에게 적절한 보호 및 감독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또한 사교육비용의 양극화해소를 위해 저소득층 청소년들에게 저렴한 교육보충학습을 제공하고, 기혼여성의 사회진출제공 및 양육스트레스를 감소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시작된 공적 서비스이다(양계민 외, 2010). 구체적인 사업추진내용을 보면, 지역사회 차원에서 청소년의 활동복지보호체계를 구축하고, 양질의 방과후 아카데미 서비스의 제공으로 가정학교와 지역사회의 상호 신뢰 및 연계를 도모하며, 아카데미의 내용은 청소년의 성장발달에 부합하고, 청소년부모의 눈높이에 맞는 수요자 중심의 내용과 질이 담보되는 과정을 개설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다(여성가족부, 2010). 구체적인 아카데미 사업내용은 <표Ⅲ-9>와 같다.

표 Ⅲ-9 청소년방과후 아카데미 사업내용	
구 분	세 부 내 용
기본공통과정	자기주도학습(숙제지도·책임기 등), 주요과목보충학습
전문체험과정	주중 : 문화·예술, 스포츠, 과학·탐구 등 특기·적성 교육 토요(등교토/놀토) : 주5일제 관련, 전문체험활동
재량활동과정	각 운영기관에서 재량으로 자유롭게 편성하여 운영하는 과정으로 학습지원의 성격은 영 불가(동아리활동, 자치활동, 특별프로그램 등으로 운영)
특별지원과정	청소년캠프(방학), 부모교육, 초청인사 특별강의 등
생 활 지 원	급식, 건강관리, 상담, 생활일정관리, 귀가지원 등

※ 출처 : 여성가족부(2010). 청소년사업안내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운영일수는 주 5~6일(일요일 휴무, 토요일 월 2회 운영, 토요일은 체험활동 권장)이며, 평일은 15시부터 22시 내에서, 학교에 등교하는 토요일은 12시부터 19시 내에서, 토요일은 오전 9시부터 16시 내에서 5시간(급식시간 1시간 포함)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서비스는 활동시작부터 귀가시까지 철저한 종합적 방과후서비스를 지원(생활교육체험안전)하여, 지역사회내에서의 자원봉사인력개발 및 연계, 지역자원과의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고 있다.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사업은 2005년 시범사업으로 46개소에서 출발하여, 이후 중앙정부(여성가족부)와 지자체의 매칭펀드방식으로 꾸준히 증가하였으며, 2009년에는 청소년육성기금으로 정부지원 재원이 변경되어 2010년 기준 161개소에서 실시하고 있다.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의 운영모형은 크게 일반형과 지원형으로 나눌 수 있는데(아래의 <표 III-10> 참조), 일반형은 맞벌이 가정의 자녀를 중점 대상으로 하여 보다 질적 수준이 높은 과정을 운영하는 모형으로 참여 청소년 전원이 비용을 부담한다. 지원형은 기초생활수급대상, 차상위계층, 저소득층 등 가정형편이 어려운 청소년을 중점 대상으로 하여 보살핌, 비행 노출 예방 등의 기능을 강화한 모형으로 이용료는 전액 무료이다. 농·산·어촌형은 기초생활수급대상, 차상위계층, 저소득층 등을 중점대상으로 하되, 모집대상 기준을 지역여건에 맞게 완화하여 탄력적으로 운영이 가능하며, 특별형 모집대상은 학교장 및 특수교사, 전문가의 추천이 있고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장애청소년, 한부모맞벌이장애인가정, 기초수급대상차상위계층 등 저소득가정의 청소년이 해당된다. 혼합형은 유료참가 청소년과 무료참가청소년이 혼합된 형태로, 혼합형의 유료 참가청소년의 비율은 50% 수준으로 하고 있다.

표 III-10 청소년방과후 아카데미 참가유형별 세부 운영 기준

운영모형	유형
지원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본지원형(기초생활수급대상, 차상위계층, 저소득층 등) - 농산어촌형(농산어촌지역,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과다지역 등을 우선 선정), - 특수청소년지원형(시범/장애청소년) - ※추후 다문화가정 청소년을 대상으로 방과후아카데미 운영에 대한 수요가 있을시 시범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용료는 전액 무료, 단 교재비·준비물 등은 수익자 부담 - 증빙 서류 확인이 어려운 저소득층 청소년의 선발·확인엔‘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지원협의회’에서 심의 확정
일반형(시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맞벌이 가정의 나홀로 청소년을 중점 대상으로 하여, 보다 질적 수준이 높은 과정을 운영하는 모형(참여 청소년 전원 수익자 부담으로 운영) - 직접수혜부분(강사료, 급식비)는 수익자부담으로 하고 공통경비적 성격(PM, SM) 인건비, 운영비)는 지원됨
혼합형(시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료참가 청소년과 무료참가 청소년이 혼합되는 형태로, 참여비율은 각각 50%수준으로 함.

※ PM-Project Manager : 운영책임자/ SM-Schedule Manager : 실무지도자
출처 : 2011년 청소년사업안내서(여성가족부, 2011)

2010년 운영모형별 실태를 보면, 수요자의 비용부담으로 운영되고 있는 일반형의 경우 2005년의 5개소에서 현재는 1개소로 줄어들었으며, 혼합형은 2개소, 그리고 나머지 158개소가 지원형으로 운영되고 있다.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를 이용하고 있는 아동·청소년은 2010년 기준 총 6,538명으로

초등학교 고학년과 중학생을 주 이용대상으로 하고 있다.

표 III-11 연도별/유형별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운영현황 (단위 : 개소)

구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지원형	31	93	141	178	174	158
일반형	5	3	5	5	2	1
혼합형	10	4	5	2	2	2
합계	46	100	151	185	178	161

출처 : 청소년활동진흥원(2010), 2010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평가위원 내부회의자료 (재인용, 양계민 외 2011)

방과후 아카데미 프로그램 효과성을 지역별, 참여기간별, 학교급별로 조사한 최근 연구결과를 보면(양계민·조혜영, 2010), 대도시와 농산어촌지역에서 프로그램에 대한 효과성 인식, 심리사회 적응, 학습성취요인 등에 있어 중소도시에 비해 프로그램 효과성을 더 높게 지각하고 있었고 학습성적의 경우 3년이상 참여한 집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저소득층 청소년을 대상으로 방과후 아카데미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청소년들은 수업·활동만족도와 지도자·강사에 대한 만족도가 전반적으로 높게 나타났다(양정현, 2011).

그러나 이러한 긍정적인 결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저소득가정을 포함한 취약계층 청소년을 위한 지원형 운영에 집중되어 있는 반면, 일반가정의 아동·청소년들을 위한 일반형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수가 줄어들고 있다. 일반형은 2011년 현재 초등학교 고학년을 대상으로 전국적으로 1개소만 운영되고 있고, 혼합형도 2개소에 그치고 있는데 월 이용료는 200,000원~245,000원 수준이다¹⁴⁾.

유사방과후서비스인 방과후학교(초등돌봄교실, 엄마품온종일돌봄교실), 보육시설,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사례를 살펴본 결과, 소득수준에 따라 이용자가 비용을 부담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방과후 학교의 경우 법정 저소득 및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자유수강권을 통해 지원하고 있고, 또 보육시설의 경우 가구소득 하위 70%의 경우 보육료를 지원하며,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의 경우 대부분 저소득층 청소년들이 무료로 이용하고 있는 지원형으로 운영되고 있고, 극소수의 시설에서도 일반가정의 청소년에게만 이용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지원을 받고

14) 현재 일반형으로 운영되고 있는 곳은 창동청소년수련관 방과후아카데미로 초등4, 5, 6학년을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월 235,000원의 이용료(교재비 별도)를 받고 있다(http://www.cdyouth.or.kr/youth/afterschool_program.php). 혼합형은 군포시청소년수련관 방과후학교(http://gpdream.or.kr/sub2/more4_2.asp)와 평택시청소년문화센터 방과후청소년아카데미(<http://www.ptyc.or.kr/>)로 초등학교3 학년 혹은 4학년부터 6학년까지를 주 이용대상으로, 각각 월 200,000만원과 234,000원을 이용료로 받고 있다(교재비와 교통비 별도).

무료로 이용하고 있는 대상은 국민기초생활수급대상자나 차상위계층의 법정 저소득층뿐 아니라, 농어촌 및 장애·다문화가정의 아동·청소년들까지 포함하는 보다 광범위한 저소득 및 취약계층 아동·청소년까지 무료로 이용하고 있다.

이용료부담액을 보면, 일반 초등학생의 경우 방과후 학교와 초등돌봄교실의 이용시간에 차이는 있으나 대체로 월 5만원~6만원 수준이며(엄마품온종일돌봄교실은 저소득층에 초점을 맞춘 사업으로 무료이용), 보육시설이용의 경우 만 5세아동의 경우 2011년 현재 177,000원이며¹⁵⁾, 예외적인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의 일반형의 경우 200,000원~250,000원 수준이다.

이러한 각 사업의 이용료는 정부에서의 지원예산에 크게 좌우되는데, 보육시설이용료 산정의 경우 현실적인 비용을 감안하여 산정된 ‘표준보육비용’에 근거하고 있다(김현숙·서병선, 2008). 지역아동센터는 그동안 주로 저소득층·취약위기계층 아동이 무료로 이용하는 시설이었으나 수요자 부담방식의 운영을 위해서는 표준이용료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필요하다. 또한 시설운영 및 서비스제공에 대한 전체 소요비용을 이용자가 부담하게 하는 것이 아닌, 일반형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와 같이 운영책임자 및 실무지도자등 인건비와 운영비등 공통경비적인 성격은 정부지원으로 하고, 직접수혜부분(강사료와 급식·간식비)만 수요자부담방식으로 하는 방안을 현실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3. 조사결과

1) 지역아동센터장 심층면접 결과

지역아동센터방문을 통해 시설장들을 대상으로 일반가정 아동의 시설이용과 수요자부담방식의 시설운영과 관련하여 면접 조사하였고, 이에 대한 결과는 아래와 같다.

(1) 면접대상 지역아동센터의 비용부담 프로그램의 유무

심층면접 및 조사가 진행된 기관 이용료는 받는 곳은 거의 없었다. 보통 캠프나 특별활동프로그램이 있을 때 책임비와 같은 성격으로 차비, 간식비 정도만 받고 있으며, 일부 지역아동센터의 경우 일반 가정(저소득층이 아닌)아동 2~3명에게서(센터 이용아동 전체의 5%정도) 지역아동센터 운영매뉴

15) 2012년부터는 ‘5세누리과정’ 사업이란 이름으로 무료로 서비스 제공 예정임.

얼에 제시되어 있는 3~5만원의 이용료를 받고 있었다. 다른 지역아동센터에도 저소득층을 포함한 취약계층이 아닌 일반 맞벌이 가정의 아동이 이용하고 있었으나 그 수가 매우 적어 실질적으로 기관운영에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혹은 다른 무료이용 아이들과 차별화하지 않기 위해 이용료는 받지 않고 있었다.

(2) 지역아동센터의 일반아동 이용확대 및 수요자부담방식에 대한 긍정의견

지역아동센터의 일반아동 이용과 수요자부담방식의 필요성에 대한 시설장들의 의견은 다양하게 나타났다. 먼저 일반아동의 이용확대가 필요한 이유로는 지역아동센터가 저소득층 아이들만 이용하는 곳이 아닌 일반아동들과 함께 통합됨으로서 낙인감을 극복해야 한다는 이유가 가장 컸다(㉠, ㉡, ㉢).

- 재료비 정도 받는 한에서 같이 수업을 할 수 있는 그런 게 좀 있었으면 하는 게 있거든요. (일반)아이들과 같이 어울릴 수 있게. 저희 센터가 조금 낙인감이 심해요. 그런 낙인감을 없애고 싶은데. 그런 것도 있고.. 아이들 스스로가 좀 자존감이 약해요 (㉠, 시설장 D)
- 저희 센터 다니는 애들끼리 얘기하면요(학교에서). 나 학원갈게.. 학원에서 만나. 남들 앞에서 나 지역아동센터 다녀 말하기는 창피한 거예요(중략). (지역아동센터 이용이) 양성화되어서 깊숙이 들어가려면 일반아이들과 섞어야 되요(㉡, 시설장 A)
- 구청 관계자 분한테 아이들, 이용자를 어떻게 선별해서 받으니까 그랬더니 구립이니까 일반 아동도 다 받으라고.. 그래서 일반아동도 다 받았어요. (중략) 그래서 두 달 만에 49명이 다 차버린 거예요. 가장 좋은 점이 낙인감이 없다는 거... 낙인감이 가장 큰 문제점이에요. 그러니까 수급권자 아이들, 저소득층 아이들, 한부모가정 아이들만 모여 있는 곳에 가면, 수급권자 아이 엄마조차도 여길 보내오는 걸 꺼려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 일반아동들이 다 같이 다니다보니까 아무래도 그 속에서는 같은 동네 엄마들인 경우가 대부분이잖아요. “우리 아이는 여기 다닌다” “그래?” “응, 거기 괜찮아” 그러면 수급권자 엄마도 보내는 거예요. 여기를... 그래서 다니는 엄마들이 꽤 있거든요?(㉢, 시설장 E)

이용자부담이 필요하다는 입장에서는 먼저 일반가정에서 지역아동센터 이용에 대한 수요가 있고(㉣, ㉤, ㉥), 또 일반아동에게까지 적극적으로 시설 이용을 확대하여 이용료를 받는다면 센터의 재정자립에도 매우 도움이 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 (일반아동을) 받을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못 받죠. 학기 초나 이럴 때 문의 전화가 와요. 맞벌이 가정인데 아이 맡길 데가 없어서(㉥, 시설장 J)

- 지역아동센터도 일반아동들을 포함해서 같이 두리뎡실 그 안에서 뭔가 지원서비스가 들어가 주는 것이 그 아이들에 대한 스티그마도 없애고.. 저희도 일반에 오픈하면 대기자 엄청 많을텐데(㉔, 시설장 A)
- 몇 분의 부모님을 제외하고는 다른 부모님들은 좀 좋아하실 거 같아요. 왜냐면 다른 아이들과 어울릴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거라서 좀 좋아하실 거 같고... 일반 맞벌이에 있는 부모님들 같은 경우는 가장 좋아하지 않으실까(㉕, 시설장 D)
- 아무래도 운영비가 한계가 있다 보니까.. 약간의 이용료를 받아서 조금 더 아이들에게 간식을 한 번 더 줄 수도 있는 상황이고(㉖, 시설장 D)

또 일반가정 아동의 시설이용을 확대해야 하며, 이 경우 일반아동 가정에게 이용료를 부담해야 한다는 의견도 개진되었다(㉗, ㉘). 저소득층 가정 아동의 시설이용에 대해서도 책임감 부재와 부모의 무관심을 볼 때, 일종의 책임비와 같은 명목의 실비를 받을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있었다(㉙, ㉚).

- (현재) 저희 지역아동센터 다니는 대상자 아동한테는 받을 수 없어요, 일반가정 아동을 대상으로 받아야죠(㉛, 시설장 J).
- 일반 가정 아동이 이용한다면 이용료를 받아야 합니다(㉜, 시설장 B, H, I, J)
- 자기가 대가를 지불하고 아이를 보내면 지불한 만큼 아이를 컨트롤 할 텐데 그런 부분이 없으니까 그냥 맡겨놓고 가도 그만 안가도 그만.. 그런 부분이 있는 거 같더라고요(㉝, 시설장 J).
- 이게 무료라는 개념 때문에 우선순위에 가장 밀리는 게 여기(지역아동센터)예요. 우선 순위라는 게 어떤 거냐면, 학교 방과후라던가 뭐 또 사교육을 다니는 애들도 있잖아요.. 가장 먼저 ‘아 그러면 지역아동센터부터 먼저 배제시켜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㉞, 시설장 E).

(3) 지역아동센터의 일반아동 이용확대 및 수요자부담 반대의견

그러나 반대 입장에서는 현재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대상이 주로 저소득층과 그와 유사한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정의 아동에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시설에 이용료를 부담하는 아동이 있게 되면, 무료로 이용하는 아동사이에 차별과 위화감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지적하였다(㉟, ㊱). 또한 지역아동센터는 빈곤 아동들만이 이용한다는 낙인이 있는 상황에서, 이용료까지 부담하게 되면 센터를 이용하는 일반아동들이 사교육시장으로 옮겨갈 수 있다는 의견도 있었다(㊲).

- 그런데 수익자¹⁶⁾ 부담이 생기면 안 좋은 점이 누구는 무료로 다니는데, 나는 돈 내고 다

녀, 얼마 내고 다녀, 나는 무료로 다녀.. 그런 게 생길까봐.... 아이들 내에서도(㊳, 시설장 D).

- 어쨌든 현금을 갖고 와야 하는 상황이니까 아이들 눈에 비춰지는 것이 ‘재는 왜 안내고 다니지?’ 그럴 수 있거든요. ‘재네는 가난해서 안가지고 오나봐’ 그럴 수 있죠. 그런 부분에서 통일성을 가지는 건 중요한 것 같아요(㊴, 시설장 L).
- “지역아동센터의 이용자 범위를 일반아동으로 확대하여 부담능력이 있는 아동이 참여한 다면 수익자부담도 가능하고 찬성하지만 동촌지역에서는 가난한 아동만 다니는 곳이라는 인식이 있어 이용자부담을 할 경우 지역아동센터에 오지 않고 확원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큽니다(㊵, 시설장 F).

기타 의견을 살펴보면, 이용료를 수요자인 부모가 부담하는 것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반대(㊶)와, 또 이러한 이용료부담방식이 현재 민간 사회복지단체에서의 지원에 있어 불이익이 될 수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㊷). 또한 저소득층이나 장애아동 등에 비해 일반가정 아동의 시설이용은 지역아동센터 평가 시 도움이 되지 않는다(㊸)는 응답도 있었다. 마지막으로 적은 금액이라도 이용자가 부담하게 되면 이에 대한 비용을 지자체에 보고하게 되는데 실질적으로 재정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고 또 보고과정의 복잡함 때문에 이용료 수납을 기피하게 된다는 의견도 있었다(㊹).

- 공무원이 이용료를 받지 못하게 해요. 현재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침이 요보호아동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서 수익자부담은 사실상 어렵습니다..(중략) 지자체에서 아이들에게 받지 말라고 해서 받는 곳이 없습니다(㊺, 시설장 K) .
- 저희는 솔직히 (이용자부담)하고 싶어요. 저희는 하고 싶는데 이용료를 받게 되면 운영비에서 차질이 생겨요. 그게 현실이거든요. 예를 들면, 아동복지지원교사를 파견을... 저희는 받잖아요. 단 한 명이라도 이용료를 받았다는 그런 게 있으면 아동교사 파견이 안돼요.. 그러니까 솔직히 저희는 지원, 파견, 교사파견이 안 되면 가장 타격을 많이 받잖아요. (㊻, 시설장 D).
- 평가 시 일반아동은 장애아동이나 저소득층 아동에 비해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환영하지 않습니다(㊼, 시설장 K).
- 일반아동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 아동을 받으면 저희 지침이나 평가때나 좋은 부분이 없어요(㊽, 시설장 J).
- (이용료를) 받게 된다고 해도 지자체에 수익자부담 아동을 조사하고 이에 대한 비용을 보고해야하기 때문에, 이러한 번거로움으로 받지 않게 됩니다(㊾, 시설장 K).

16) 면접당시에는 ‘수요자부담’이 아닌 ‘수익자부담’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기 때문에 면접내용에는 ‘수익자부담’으로 표현됨.

(4) 지역아동센터 이용료의 수요자부담 가능성

지역아동센터 이용료의 수요자부담 가능성에 대한 의견들 살펴보면, 프로그램의 전문성이 확보되거나(㉠), 소득수준별로 이용료를 차등 부담하게 할 경우(㉡), 그리고 일괄적 수요자부담을 정부정책으로 실시하거나(㉢), 학부모들이 수요자부담에 대한 인식이 있을 경우(㉣)에는 가능할 것으로 보는 의견들이 제시되었다. 적정이용료로는 대체로 프로그램운영을 위한 실비·교통비수준이거나, 현재 지침상의 5만원, (프로그램 보안을 전제로) 최대 10만원 정도가 가능하다는 의견들이 있었다.

- 프로그램의 전문성이 확보된다면 가능합니다(㉠, 시설장 B)
- 100% 지원, 75% 지원, 50% 지원 이런 식으로 가면 되지 않을까..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거죠. 소득수준에 근거해서 말하는 거죠.(㉡, 시설장 H)
- 서비스나 프로그램 내용보다 정부정책이라고 하면(부모님들이 이용료를) 내실겁니다(㉢, 시설장 I)
- (좀 더 양질의 교육을 제공할 때) 그렇게 되면 학부모들의 의식구조가 되어 있으면.. 아 이게 정말 하고 싶거나 부모가 할 의지가 있으면 10만 원 정도라면 내겠죠(㉣, 시설장 J).

그러나 이용료부담이 불가능할 것이라는 의견들을 보면, 먼저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주 대상자가 법적 빈곤층뿐 아니라 그와 유사한 저소득가정의 아동이 많아 이들을 일반아동으로 보고 이용료를 징수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의견이 있었다(㉤). 또 지역사회내에서 지역아동센터의 무료이용에 대한 인식이 퍼져있어 이용료를 받기가 어려울 것 같다는 응답도 많았다(㉥). 비용을 부담하게 되면 일반가정아동은 사교육을 더 받으려고 하되,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도 나타났다(㉦).

- 현재 지역아동센터의 이용자는 수급자나 차상위계층 혹은 그와 형편이 비슷한 사람만 이용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수익자부담이 어려울 것입니다(㉤, 시설장 F).
- 부모님들이 (수익자부담을) 안 받아들이실 것 같아요. 그리고 현재까지는 무료로 다녔기 때문에 안 다닐 것 같아요.(㉥, 시설장 L)
- 제가 봐서는 비현실적이지 않을까... 일반적으로 확대된다면, 그래도 좀 더 낮겠죠. 근데 윽 까요? 만약에 돈을 받는다면 전문성 있는 기관으로 가지.. 사교육 쪽으로 가지... 글썽요. 전문성이 없다고 생각하잖아요. 이쪽은.(㉦, 시설장 G)

(5) 개별 프로그램이나 서비스 이용료의 수요자부담 가능 여부

일부 시설장의 경우 지역아동센터 이용자체에 대한 비용부담보다는 개별 프로그램이나 서비스에 대한 이용료부담이 지역아동센터나 수요자인 학부모입장에서 부담이 덜 할 수 있다는 의견과(㉧, ㉨), 위화감의 문제로 불가능 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 특별프로그램 단위별로는 가능합니다. 그거는 자기가 선택해서 돈을 내고 하는 거니까(㉧, 시설장 B)
- 놀이 등의 특별활동 프로그램 등에서 수익자부담이 가능 할 것 같습니다(㉨, 시설장 K, L).
- 특정 프로그램이나 서비스별로 수익자부담을 하는 것은 애초에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특정 프로그램이나 서비스를 참여하는 아동이 있고, 또 비용문제로 참여하지 못하는 것은 아이들간 위화감을 조성할 것입니다.(㉩, 시설장 K)

(6) 이용료부담이 가능할 수 있는 시설 특성

지역아동센터의 시설장들이 보는 이용료 부담이 가능할 수 있는 시설 특성으로 지역적 특성이나 특정 이용시간들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이에 따른 인력문제에 대한 고충들도 첨언하였다. 수요자가 비용을 부담하는 지역아동센터는 저소득층·취약계층 아동이 아닌 일반가정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만큼 방과후 아동의 돌봄이 절실한 맞벌이 가정이 많은 지역에서 이들을 대상으로 수요자부담이 가능할 것이라고 보고 있었다(㉪). 심야시간이나 주말 및 공휴일 등 지역아동센터의 특별 이용시간에 대한 비용부담이 가능하다고 보는 의견도 있었으나, 이 경우 사전에 예상수요파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보였다(㉫). 정규외 시간의 시설운영과 서비스제공에 대해서는 인력문제로 난색을 표하는 시설들도 있었으며, 국·공립 지역아동센터에서 이러한 서비스를 담당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예상수요를 파악하기 어렵고 또 직원 충원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도 있었으나, 인건비가 현실화될 경우에는 좋은 제도가 될 수 있다고 보았다(㉭). 현재 야간보호를 제공하고 있는 일부 지역아동센터의 경우 이를 위한 직원은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의 야간보호교사 파견 사업에 의한 것으로 시설의 정규직원으로서 지역사회 아동을 꾸준히, 지속적으로 보호하는 것과는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 맞벌이 부부가 많이 살아서 방과후에 아동의 돌봄이 절실한 지역에는 수익자부담이 가능 할 것입니다(㉪, 시설장 F).
- 심야시간, 주말, 공휴일에는 수익자부담이 가능할 것이다. 하지만 이것은 모든 지역아동

센터가 할 수요가 없고, 예상수요를 고려하여 지역에 따라 특정 지역아동센터를 지정해서 하면 될겁니다(㉔, 시설장 F).

- 만약 국·공립 센터가 생긴다면 주말이나 공휴일에 운영을 하면서 수익자부담이 가능 할 것입니다(㉔, 시설장 F).
- 정부에서 인건비를 보장을 해주고 이 제도를 시행해 준다면 괜찮습니다(㉔, 시설장 I).

(7) 수요자부담방식을 위한 필요조건

수요자인 부모가 이용료를 부담하기 위해서는 먼저 정부지침을 확실히 하여 적극적으로 일반 아동 이용을 권장할 것인지의 문제와(㉕) 양질의 프로그램과 서비스 제공(㉔), 그리고 낙인을 탈피하기 위한 일반아동과의 통합 돌봄의 필요성에 대한 의견들이 제시되었다(㉔, ㉔). 또한 지역아동 센터 평가에 있어 일반아동의 이용이 저소득층과 취약계층 아동에 비해 어떠한 형태라도 불이익이 없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㉔). 특히 내년부터 시행되는 주 5일제와 관련한 지역아동센터의 역할을 더욱 강조하였고 추가적인 지원의 필요성도 제기하였다(㉔).

- 보편적 복지로 일반아동까지 센터를 이용하게 하든지, 아니면 저소득층 아동만 받도록 확실한 지침을 주든지 해야 합니다. 수익자부담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관련지침을 분명하게 하고, 지자체에서도 이 내용을 확실히 할 필요가 있고요. 이러한 지침을 기초로 여건에 맞게 운영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㉕, 시설장 K).
- 프로그램과 서비스 수준이 담보되어야 할 것 같아요. 학원처럼은 아닐지라도 아이들이 재미있게 할 수 있는 다양하고 전문적인 프로그램이 많으면 좋죠(㉔, 시설장 D, F).
- 어린 친구들은 “센터 선생님” 이렇게 얘기하지만, 머리가 크고 나서 지역아동센터라는 그 타이틀 뒤에 숨어있는 게 뭔지 어렴풋이 인지한 친구들은 학원이라고 표현하고, 학원선생님이라고 표현하죠(㉔, 시설장 B).
- 솔직히 저소득층 아이들과 일반아동이 같이 어울려서 생활하는 게 좋거든요. 너무 “저 애들은 못사는 애들이야” 이런 낙인감도 들고... 오히려 일반아동과 같이 어울리는 게 아이들 면에서도 좋아요(㉔, 시설장 D).
- 일반 아동이 있을 때마다 이게 평가할 때 마이너스가 들어갔었어요. 이런.. 현실에 맞지 않는 그런 평가는 조금 없어지는 게 좋지 않을까(㉔, 시설장 D)
- 내년부터 주 5일제잖아요. 주 5일제 대부분 되는데 토요일 같은 경우는 아이들이 사실 대부분 집에서 있어야 되는데, 현재 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아이들은 토요일은 마찬가지로 똑같이 방임이 되는 거잖아요. 그 때 아이들을 같이 있을 프로그램에 있어서 인건비라든가 그런 부분이 지원이 된다면 충분히 같이 운영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㉔, 시설장 C)

2) 지역아동센터 이용 학부모 초점집단인터뷰(FGI) 결과

전국의 세 지역(서울, 부산, 광주)에서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고 있는 아동·청소년의 학부모를 대상으로 일반아동의 지역아동센터이용 확대와 이에 따른 비용부담에 대해 집단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대체로 지역아동센터의 프로그램과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특히 아동들이 학교보다는 가정과 같은 분위기에서 정서적 돌봄을 잘 받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또한 학습지도의 경우 자원봉사자들을 활용한 일대일 지도와 멘토링 프로그램 등에 대한 만족도가 높았다.

(1)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일반적 의견

초점집단인터뷰에 참여한 학부모들의 일반적인 요구사항으로는 우선 방과 후 중학생 등 청소년들이 이용할 수 있는 지역아동센터를 희망하는 의견들이 많았다(㉕, ㉔, ㉔). 또한 법정 저소득층은 아니지만, 소득이 충분치 않은 가정의 아동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의 범위를 확대할 것을 요청하는 의견도 있었다(㉔).

- 청소년 지역아동센터가 생겼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청소년하고 아동하고는 좀 분리돼서 청소년들이 사실 갈 데가 없잖아요. 그 아이들을 수용할 수 있는 곳이 생겨서 아동센터에서 이용하고 이런 문화시설이라든가.. 애들이 이제 같이 어울릴 수 있는 프로그램 같은 걸 개발해서, (청소년을 위한 센터도) 하나 만들어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㉕, 광주).
- 청소년 프로그램이 있으면 좋겠어요(㉔, 서울).
- 저희 아이는 지금 중학교 3학년인데 따로 사교육을 받고 있거든요. 학원을 다니고 있는데.. 여기서도 중고등학교 프로그램이 있다면 아이가 거기를 안 갔을 것 아닙니까(㉔, 부산).
- 어느 기준이 있기는 하지만, 정말 사각지대에 놓인 사람들은.. 뭐냐면 저소득이면 차상위도 아니고, 기초도 아니고.. 근데 어중간하게 소득도 없는 사람들..그런 사람들은 진짜 힘들거든요.. 그런 사람들까지 해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㉔, 광주).

(2) 일반아동의 지역아동센터이용에 대한 의견

일반아동의 비용부담과 관련해서 학부모들의 의견을 묻기 위해, 먼저 일반가정아이들과 함께 시설을 이용하는 것에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질문하였다. 그 결과 맞벌이 가정의 일반가정 아이들도 지역아동센터 서비스가 필요하며(㉕), 이를 통해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낙인이 해소될 필요가

있다는 견해를 보였다(㉠, ㉡).

- 지역아동센터에서 하는 일이 어떤 일인지 정확하게 모르시는 분이 많이 있고요. 지역아동센터는 저소득층, 수급자만.. 이런 애들이 간다는 그런 것들이 좀 (바뀌어야 하는 거 같아요). 사실 일반 가정 아이들도 부모가 맞벌이 하다보면 돌봄이 필요하잖아요. 그런 아이들도 함께 섞여서 받아주거든요. 근데 수가 넘어가거나 한다면, 수가 많아지면 이렇게 일반 아이들이 잘릴 수밖에 없잖아요. 수급자들 먼저 하고.. 근데 일반 가정 아이들도 그.. 부모가 없는 집안은 사각지대에 놓여있기 때문에 많이 받을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광주).
- 주위에서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려면) 어떤 층이 있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조금 층(저소득층)이 있어. 그랬어요. 그런데 여기 들어왔다가 나갔어요. 근데 여기 다시 들어오고 싶다고 그러더라고. 층이 있으니까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한학기만 다니고 못 다니게 된 거죠. 저소득.. 층이 있고(㉡, 서울).
- (일반아동의 시설이용에 대해) 저는 긍정적이에요. 같이 어울리면 그게 훨씬 더.. 만약에 차상위라고 아니면 반대로 일반.. 예를 들면, 우리가 인식이 딱 이렇게.. 낙인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인식이 딱 돼버리니까 우리 애들한테도 안 좋고(㉢, 광주).

한편으로는 자녀들이 일반아동들과 함께 시설을 이용하게 될 때, 소외되거나 낙인과 위화감을 경험되지 않을까 우려하는 목소리들이 많았으며(㉣, ㉤, ㉥), 이와 관련해서 특히 지역아동센터종사자들의 태도가 매우 중요함을 강조하고 있다(㉦).

- 그런데 같이 다니면 애들이 왕따당하고 그러지 않을까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서울).
- 지역아동센터라는 말 때문에 거기에 가는 애들은 이런 애들이다.. 그렇게 되어 버리니까 지금껏 여기 보내면서는 제가 그런 것을 못 느꼈어요... 그런데 일반아동들과 섞어서 생활을 하다 보면 그런 일이 벌어지지는 않을까(㉨, 서울).
- 돈을 받는 애들이 있고 안 받는 애들이 있으면(중략)..서로 간에 파가 생기겠죠.. 쉽게 말해서 끼리끼리 놀겠죠. 아무래도 화합되기는 어렵지 않을까.. 그런 식으로 생각할 거고(㉩, 부산).
- 그런 것들에 있어서는 돈을 받게 되면 원장님이 알아서.. 선생님이라든지.. 꼭 그렇게 해야 된다고 하면 하지만 아이들이 그런 부분에서 차이를 안 느끼도록.. 가르쳐주십사 하고 바라는 수 밖에 없겠죠.. 염려되는 건 틀림없이 있죠. 솔직히 요즘 초등학교 1학년에도 왕따가 있는데(㉪, 부산).

(3) 수요자의 비용부담에 대한 의견

수요자의 비용부담에 대해서는 저소득층인 경우는 어렵겠지만, 일반가정의 아동들이 이용할 경우 소득수준에 따라 이용료를 부담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 또한 사교육보다는 지역아동센터 이용료가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현재 5만원 기준일 때) 일반 가정의 경우 이용료를 부담할 수 있다고 보았다(㉭).

- 비용부담 있으면 좀.. 솔직히.. 보내기 좀 그럴 거 같아요. 왜냐면, 수급자나 인식이 다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또 실질적으로도 그렇게 보내고(㉮, 광주).
- 그렇게 되면 어려운 분들이 혜택을 받고 있는 건데 돈을 안내는 것으로 가야될 것 같고요. 지금 현재 수준으로 가야될 것 같고 일반 아동들은 재산 상태에 따라서 차등화해서 받는 쪽으로 해야지 없는 사람한테도 조금씩이라도 받는다고 하면 그것도 부담이거든요(㉯, 서울).
- 저 같은 경우에는 저렴한 거 같아요 (지침상 일반가정아동일 경우 5만원의 이용료에 대해) 요즘에 학원비가 너무 비싸니까..있는 사람들은 또 내도 되지 않을까 하는(㉺, 광주).

3) 전문가 의견조사

아동·청소년복지와 관련된 학계, 현장 및 정책전문가 19인을 대상으로 일반가정 아동·청소년의 지역아동센터이용확대와 수요자의 비용부담과 관련하여 조사한 결과를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1) 일반가정 아동의 지역아동센터 이용 확대

① 일반아동의 지역아동센터 이용 확대 필요성

현재 지역아동센터의 주이용대상인 저소득 및 취약계층 아동이 아닌, 맞벌이 가정을 포함한 일반가정 아동들의 적극적인 시설 이용확대에 대해 전문가들의 의견을 조사한 결과 긍정적인 응답은 부정적인 응답보다 2배 이상 높게 나타났다. 그 이유로는 무엇보다 저소득 및 취약계층아동이 낙인감 때문에 그동안 지역아동센터이용을 꺼려하는 면이 많았기 때문에 일반아동에게까지 시설이용을 적극적으로 확대한다면, 이러한 낙인문제가 해소될 수 있고, 따라서 시설의 인식 개선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이 많았다. 특히 이들 취약계층아동과 일반아동의 통합 돌봄은 아동발달(인격형성 등)에 긍정적인 수 있다고 보았는데,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간 사회경제적 차이를 넘어 서로 다른 생활환경을 가진 비슷한 또래에 대한 이해가 생기고 사회성을 키울 수 있다는 의견도 제시되었다.

또한 일반 맞벌이 가정의 돌봄 욕구 해소를 통해 예방적 복지가 가능할 수 있으며, 지역사회 내 타 사회복지서비스 자원이 없는 경우, 방과후서비스의 사각지대에 놓일 수 있는 일반아동도 방과후 돌봄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응답도 있었다.

② 일반아동의 시설이용확대를 위한 현장 및 제도적 개선사항

일반 아동의 지역아동센터 이용 확대와 이에 따른 수요자부담이 가능하려면 현재의 상당수 열악한 시설여건, 인력(인건비 등)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또한 수요자부담으로 일반아동이 센터를 이용하게 될 때, 그 비용수납은 중앙기관에서 소득에 따라 이용료를 받도록 하고 현장에서는 직접 수납하지 않는 방식도 제시되었다. 또한 돌봄의 사각지대에서 서비스가 절박한 아동들이 있으므로 지역사회 특성을 고려하여 일정범위 내에서 일반아동이용을 허용하도록 시설장에게 자율권을 줄 필요가 있다는 견해도 있었다. 한편으로는 일반아동과 저소득 및 취약계층 아동이용 비율을 조정할 필요가 있으며, 구체적으로 일반아동의 지역아동센터 이용비율은 30%~40%로 제한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③ 일반아동의 지역아동센터 이용확대에 대한 부정적 의견

전문가들은 지역아동센터 이용에 대한 낙인감으로 인해 저소득층 아동들조차 시설이용을 기피하고 있는 현실에서 일반아동의 시설 이용은 크게 가능성이 없으며, 한편으로 일반아동으로 이용대상을 확대할 경우 지역사회의 빈곤아동만을 위한 종합지원시설로서의 정체성이 모호해 질 수 있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무상급식과 무상보육 등 보편적 복지를 논의하는 시점에서 지역아동센터 이용료는 시기적으로도 적절치 않다는 의견도 있었다.

지역아동센터내에서 일반아동과 빈곤아동이 함께 지내면서 차별이나 위화감이 발생할 수 있으며, 또 시설이용에 있어서 그리고 시설 내의 활동참여에 있어서 빈곤아동이 배제될 수 있음을 지적하는 의견도 있었다. 일부 지역아동센터의 경우 일반아동의 이용료를 목적으로 저소득층 아동의 이용을 제한하는 등 시장논리로 옮겨가면서 수익 사업화하는 방향으로 변질될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높았다. 또한 유사한 맥락에서 시설종사자들이 도움이 절실한 저소득층 가정 아동 지원을 위한 적극적인 사례발굴에 소홀히 하여 서비스가 필요한 아동이 오히려 사각지대에서 방치될 수 있음이 지적되었다. 따라서 빈곤아동의 수요를 우선적으로 충족시키되, 일반아동의 시설이용은 일정한 기준이나 지침을 근거로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2) 지역아동센터 이용료 부담에 대한 의견

① 일반아동의 지역아동센터 이용 시 부담 가능한 이용료

일반아동의 이용료 부담에 대해서는 찬성의견이 약간 높게 나타났으나(약 56%) 큰 차이는 없었다. 이용료부담을 찬성하는 경우, 현재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침상의 5만원이 적절한지 여부에 대한 질문에서는 대체로 적절하지 않다는 응답이 많았다. 적정이용료를 6만원~10만원선으로 보는 의견이 가장 많았으며, 소득수준에 따라 수업이나 프로그램 재료비정도만 수납해야 한다는 의견들도 있었다. 그러나 이렇게 이용료 부담방식이 될 경우, 사교육기관으로 전락할 위험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지역아동센터 이용주체들의 자발적 참여를 통한 자생적 구조를 확립하는 것이 바람직한 대안일 수 있다는 의견도 제시되었다.

② 이용료 부담 가능한 가구의 소득수준

전문가들이 이용료부담이 가능하다고 보는 가구평균소득 기준을 조사한 결과, 가구평균소득액의 상위 30%~50%까지 다양한 응답이 있었으나, 대체로 30%(현 보육시설 수준)선으로 보는 의견이 많았다. 그 이유로는 보육시설 이용혜택을 받은 아동들이 학령기에 동일한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경우 학부모에게 부담이 될 수 있고, 따라서 돌봄서비스의 연장선으로 동일하게 이용료부담 수준을 적용하는 것이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었다. 차상위계층 아래로는 일정부분 재료비 부담정도는 가능하겠지만, 센터이용에 따른 비용은 최소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3) 지역아동센터의 이용대상별 운영방식

조사대상 전문가들의 경우 일반 맞벌이가정의 아동과 저소득층 아동이 각각 다른 운영모델의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기 보다는 함께 시설을 이용하는 ‘통합형센터’(가칭)에 대한 선호가 압도적으로 많았다. 일반아동만 이용하는 시설과 저소득층 아동만 이용하는 시설로 분리하는 것은 사회복지적 측면이나 교육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이 많았으며, 저소득층 아동만 이용하는 시설의 경우 낙인감 때문에 해당 아동들이 시설 이용을 기피할 수 있다고 지적하였다. 일부 현재와 같이 저소득층 아동위주로 시설을 운영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지만, 대상을 선택하는 것은 시설에서 자체적으로 판단할 부분이라는 의견도 있었다. 마지막으로 일반 맞벌이가정 아동만을 위한 ‘일반형센터’(가칭)는 오히려 종합 학원에 지역아동센터 기능을 탑재한 형태가 될 우려도 없지 않아 이는 지역아동센터의 정체성을 훼손할 수 있어 현장의 반대를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지적되었다. 이러한 민간자율 운영형식의 지역아동센터는 사교육 시장에 오히려 새로운 형태가 만들어지는 것으로 사교육시장을

더 확대·강화할 수 있다는 의견도 제시되었다.

(4) 지역아동센터의 수요자부담 운영방식

① 재정혼합형(정부지원금과 이용료의 매칭펀드 방식) 운영방식

재정혼합형(가정) 운영방식으로서 예를 들어 지역아동센터의 시설·설비와 같은 인프라는 정부에서 지원하고 운영비와 사업비는 수요자가 비용을 부담하는 매칭 펀드 운영방식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80%이상이 필요하지 않다는 의견을 보였다. 그 이유는 지역아동센터는 저소득층 아동의 보호와 교육, 사례관리 등을 위한 공공복지 인프라라고 할 때, 수요자의 비용부담을 가능한 최소화해야 하기 때문으로 보고 있었다. 또한 사업비정도의 부담이라고 하더라도, 지역아동센터가 대거 설립된 현시점에서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상업적인 영리단체 성격의 시설이 증가할 수 있고, 이는 지역아동센터의 정체성을 훼손할 수 있으며 결론적으로 저소득층 아동의 이용이 배제될 수 있음을 우려하였다.

이러한 재정혼합형 운영방식은 시설장들로 하여금 아동의 복지와 교육이 아닌 아동의 모집과 기관홍보에 더 주력하게 하며, 이는 지역아동센터의 위상을 추락시키는 것으로 보았다. 시설을 포함한 인프라만을 정부 부담으로 하는 것보다는 기존의 시설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되 양질의 서비스가 안정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정부에서는 현재와 같이 운영비를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으며 이 경우 운영비 사용에 대한 명확한 기준과 이에 대한 사실 확인이 전제되어야 할 것이라고 하였다.

이러한 매칭펀드 방식이 재정혼합형 운영이 필요하다는 소수의 전문가 의견을 보면, 이러한 수요자의 비용부담원칙이 지역아동센터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아동서비스에 대한 질 제고를 가능하게 할 것으로 보았다. 보다 구체적인 현실적인 방법으로서 건물시설비와 인건비 및 운영비는 정부부담으로 하되 사업비와 급식비는 수요자의 비용부담이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었다.

② 민간자율 운영방식의 지역아동센터의 필요성

수요자부담방식의 지역아동센터의 또 다른 형태로서, 정부지원 없이 개인자산 활용 및 기업재단 후원, 혹은 비영리·영리단체 등을 통한 순수민간 자율형 지역아동센터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다수의 전문가들이 필요하지 않다고 응답하여, 대체로 재정혼합형방식과 민간자율운영방식 모두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정적인 인식에 대한 이유를 살펴보면, 무엇보다 이러한 형태의 순수 민간 자율형 지역아동센터가 운영된다면 이는 기존의 지역아동센터와 이원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많았다. 또한 100% 수요자부담이

가능한 경제수준을 가진 상대적으로 경제수준이 높은 가정의 아동이 이용하게 될 것이고 또 그에 상응하는 프로그램과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할 때, 기존의 지역아동센터의 프로그램과 서비스 수준과 비교하여 그 격차가 더 커질 것을 우려하였다. 이러한 성격의 지역아동센터를 영리기관에서 운영할 경우 이는 현재의 지역아동센터와의 철학적, 역사적 출발을 달리하기 때문에 현재의 아동복지시설로서의 지역아동센터로서 볼 수 없다는 의견이 많았다.

또한 전문가들은 재정적 지원이 없는 상태에서 정부의 엄격한 관리·감독이 어려울 수 있으며, 이는 지역아동센터로서의 공공성을 담보할 수 없다고 보았다. 더불어 이용료를 부담할 수 있는 가정의 아동이 주 이용대상이 된다고 할 때, 기업들이 사회공헌의 명목으로 이러한 민간 지역아동센터 사업에 참여하거나 후원하게 될 경우 저소득 아동들은 오히려 이러한 서비스에서 배제될 수 있음을 지적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형태의 지역아동센터가 필요하다고 응답한 소수의 전문가들도 있었는데, 그 이유는 맞벌이 가정이 늘어나고 돌봄 수요가 커짐에 따라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민간차원의 지역아동센터가 필요하며, 또 공공부문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설립 주체나 운영 방식에 제한 없이 다양한 시설 형태가 존재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또한 지역아동센터의 국·공립화와 더불어 기업후원이나 경제활동을 통한 수익창출과정을 통한 자생적 지역아동센터 운영모델도 가능할 수 있다는 의견도 있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형태의 지역아동센터 운영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먼저 법적·제도적 영역의 개선이 필요함을 지적하였다. 예를 들면 일반 가정 아동을 대상으로 할 경우 아동복지법이 아닌 청소년복지지원법 혹은 청소년기본법의 테두리에서 검토되어야 하며, 이 경우 종사자 인력 구성 및 배치 등에 있어 민간 기관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해야 한다고 의견을 제시하였다. 일부 전문가들은 지역아동센터 설립 신고 시 국·공립유형, 순수민간 자율형, 혼합형에 따른 체계를 분리 할 필요가 있으며, 또한 보육시설 인증제와 같은 제도적 장치가 수반되어야 함을 지적하였다. 프로그램 및 서비스영역의 개선을 위해서 이러한 순수민간 지역아동센터에서는 변화하는 욕구에 대해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고, 또 실험적인 프로그램과 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다고 보았다.

(5) 정규시간외 센터운영과 이용료 부담

정규시간 외 심야시간과 주말이나 공휴일에 센터를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용료부담과는 별개로 수요자(아동돌봄)의 요구가 있다면, 정규시간의 서비스 제공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가 있어야 한다고 의견들이 많았다. 오히려 이러한 정규시간외 돌봄 욕구에 대한 서비스가 지역아동센터의 정체성

형성 및 강화에 도움을 준다고 보는 의견도 제시되었다. 특히 학교 주5일제의 전면적 시행으로 맞벌이가정 자녀의 토요일 돌봄 문제가 현안 이슈로 제기되는 시점에서 긍정적으로 신중하게 검토되어야 할 사안으로 보였다. 별도의 이용료 부담에 대하여는 찬반의견이 모두 있었는데, 일반가정 아동 대상일 경우는 별도 수납이 가능하며, 저소득가정 아동에게는 무료로 운영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았다.

그러나 일부전문가들은 정규시간의 지역아동센터를 운영하는 것에 대해, 안정적인 수요와 인력채용 문제로 이러한 시간대에 시설을 운영하기 어려운 현실에 동의하였으며, 또한 현재의 실무자들의 급여수준을 고려할 때 추가적인 업무 부담은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음을 지적하였다. 따라서 주말시간 시설 운영을 의무화하기는 어려우며, 국·공립지역아동센터나 거점역할을 하는 곳(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관 등)에서 공통 프로그램 형식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정규시간의 시설이용에 대한 수요자의 비용부담은 서비스 수요자의 이용을 제한할 우려가 있으므로, 지역사회내 인력풀을 구성하여 상시 서비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역차원의 돌봄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더 나아가서 심야시간 및 주말의 지역아동센터 운영을 위한 전문 인력에 대한 안정적이고 현실적인 예산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되었다.

(6) 개별 프로그램 및 서비스 단위별 비용 부담에 대한 의견

전문가들은 지역아동센터이용자체에 따른 비용부담이 아닌 개별 프로그램 단위별로 이용료를 부담하게 된다면, 예체능교육 (미술지도, 악기교습 등)등의 특기적성프로그램, 영어(예, 원어민 영어교실 등)와 수학 등 주요교과목 학습프로그램, 놀이 등 특별활동프로그램 (문화체험, 견학, 여행프로그램 등)과 같은 프로그램이 가능할 수 있다고 보았다. 그러나 이러한 프로그램은 강사나 외부 지원이 필요한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추가비용이 발생할 소지가 높다는 의견도 있었다. 한편으로는 생활지원 (보호) 프로그램이나 학습보조 및 놀이 등 특별활동프로그램은 보편적 서비스가 되어야 하지만, 특별한 재능 개발이나 학습능력 향상이 필요한 경우에는 가능한 범위내에서 이용자가 비용 부담을 하더라도 그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제시되었다.

그러나 저소득가정 아동과 일반가정 아동이 함께 이용하는 지역아동센터에서 저소득가정 아이들이 이용료를 부담할 수 없어 특정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없게 될 경우, 이 아동들이 차별받거나 소외되는 결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지적도 있었다. 이를 위해서는 저소득가정아동들이 무료로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특히 저소득층이나 장애아동에게는 추가적인 지원이나 결연, 멘토링 등을 통해 비용 부담 없이 다양한 기회를 가질 수 있게 해야 하며, 지역사회 내 전문적인

기관과의 연계를 통한 서비스 제공이 효과적일 수 있다는 의견도 제시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형태의 수요자의 비용부담 프로그램 및 서비스 제공은 지역사회 내 다양한 사설학원과의 경쟁구도가 만들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었다.

전문가들은 추가적으로 수요자부담방식이 가능한 개별프로그램으로서, 단계별 학습 프로그램 및 학력미달 학생에 대한 개별교육 지원, 전문적인 상담 및 치료, 장애아 돌봄 프로그램 등을 제안하였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이러한 전문화된 영역은 드림스타트센터나 방과후 교실 등 지역사회의 다른 서비스를 통해 보완할 수 있다고 보기도 하였다.

4) 지역아동센터장 설문조사 결과

(1) 일반아동의 지역아동센터 이용 및 이용료에 대한 인식

지역아동센터장들에게 맞벌이가정을 포함한 일반가정 아동에게 지역아동센터 이용을 확대할 필요 있는지 질문한 결과, 본 설문조사에 응한 시설장의 응답은 예상보다 더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표 III-12>).

표 III-12 일반아동의 센터 이용 확대 및 이용료 부담에 대한 인식 단위: %(빈도)

구분		매우 그렇다	그렇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전체	χ^2
일반아동의 시설 이용 확대 필요성	전체	50.9	40.8	6.9	0.9	100(422)	
	지역 규모						
일반아동의 이용료 부담에 대한 인식	전체	26.3	45.0	19.9	8.8	100(422)	
	대도시	33.8	41.7	18.5	6.0	100(151)	13.511*
	중소도시	26.1	49.3	15.9	8.7	100(138)	
	읍면지역	17.6	45.8	25.2	11.5	100(131)	

*p<.05

또한 일반가정 아동의 지역아동센터 이용 시 이용료를 부담해야 한다는 인식에 대해서도 조사에 응한 시설장의 70%가 긍정적으로 응답하였으며, 중소도시나 대도시에 위치한 센터의 응답률이 읍면지역에서 보다 높게 나타났다. 지역아동센터의 일반아동 이용과 수요자의 비용부담에 대한 이러한 결과는 본 연구에서 앞서 진행되었던 시설장면접조사와 전문가의견조사 및 자문회의 등의 결과와 비교할 때, 훨씬 더 긍정적인 응답을 보이고 있어 결과해석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¹⁷⁾.

일반아동은 이용료를 부담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시설장들에게 월별 이용료 수준을 질문한 결과(<표 III-13>), 과반수 이상이 현재수준인 3만원~5만원이라고 응답했으며, 그 다음으로 약 30%의 비율로 6만원에서 10만원이라는 응답이 높게 나타났다. 이는 방과후학교의 월별 이용료 수준으로 보육시설 이용이나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의 이용료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또한 수업재료비와 교통비 수준이라는 응답은 13.7%, 11만원에서 15만원은 4.3%의 응답률을 보였다.

표 III-13 일반아동의 시설 이용 시 이용료 수준 단위: %(빈도)

구분	수업재료비, 교통비 수준	3만원~5만원	6만원~10만원	11만원~15만원	16만원~20만원	21만원~25만원	전체
전체	13.7	51.7	28.7	4.3	1.0	0.7	100(300)

역시 위의 일반아동의 이용료 부담에 대해 긍정적인 센터장을 대상으로 이용료 수납방식에 대해서 조사하였는데(<표 III-14>), '중앙기관이나 별도기관에서 관리'하는 방식을 선호한다는 응답이 33.7%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이 구청이나 시청 등 자치단체가 약 30%, 시설에서 직접 수납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약 23%의 선호를 보였다. 이는 시설장들이 지역아동센터에서 아동의 보호자로부터 직접 이용료를 수납하는 것에 대해 부담을 갖는 것을 간접적으로 보여준다.

표 III-14 이용료 수납 방식 단위: %(빈도)

구분	지역아동센터에서 직접 수납	중앙기관이나 별도 기관에서 관리	구청이나 시청 등 자치단체	상관없음	전체
전체	22.8	33.7	29.7	13.8	100(421)

또한 현재 지침상으로는 일반가정 아동에 한해 이용료를 받도록 하고 있지만, 지역아동센터장 면접조사 시 지자체장이나 시설장 자율로 현장에서는 다르게 적용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지 질문한 결과, <표 III-15>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시설장들의 약 67%는 일반아동대상의 이용료 수납은 일괄적용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었으며, 약 30%의 시설장들은

17) 지역아동센터의 일반아동 이용확대와 이용료부담에 대해서 시설장면접조사와 지역아동센터 단체장 간담회에서는 반대의 견이 훨씬 강하게 나타났으며, 전문가의견조사에서는 약간 더 찬성하는 수준이었기 때문에 이 문항에 대한 높은 긍정적 응답은 이전 조사와의 비교·분석을 통해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현재와 같이 지자체장이나 시설장 자율로 결정하여야 한다고 응답하였다.

표 III-15 이용료 징수의 일괄적용 여부 단위: %(빈도)

구분	일괄적용 필요	지자체장이나 지역아동센터장 자율 결정	상관없음	전체
전체	66.8	29.5	3.6	100(291)

(2) 수요자부담방식의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인식

일반가정 아동이 이용대상에 포함되는, 또 다양한 형태로 비용을 부담하게 되는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시설장의 인식을 조사한 결과는 <표 III-16>와 같다. 먼저 사전 질문형식으로 일반아동에게 이용료를 받는 수요자부담방식의 지역아동센터가 필요한지에 대한 조사에서 66.7%가 긍정적인 응답을 보였다. 이 응답은 특히 현재 가장 큰 규모인, 이용아동수가 31명 이상~50명인 지역아동센터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표 III-16 수요자부담방식 지역아동센터의 필요성 단위: %(빈도)

구분	매우 그렇다	그렇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전체	χ^2
전체	26.4	40.3	20.4	12.9	100(402)	
이용 아동수	0~20명	35.5	31.2	22.6	100(93)	12.854*
	21~30명	23.0	39.3	23.5	100(196)	
	31명~50명	24.8	49.6	13.3	100(113)	

*p<.05

수요자부담방식 지역아동센터에는 정부지원 여부에 따라 정부지원과 이용자부담이 혼합된 매칭펀드 방식의 센터가 있을 수 있고, 또 정부의 지원 전혀 없이 민간의 자본과 시설로 운영되는 순수한 민간자율형센터가 있을 수 있다. 이러한 형태의 지역아동센터의 필요성에 대해서 조사한 결과 정부지원과 수요자의 부담이 혼합된 매칭펀드 방식에 대한 응답은 긍정적인 응답과 부정적인 응답이 거의 절반 비율로 나타나, 51.3%의 시설장에게서 필요하다는 응답을 보였다.

표 III-17 유형별 수요자부담방식 지역아동센터의 필요성 단위: %(빈도)

구분	매우 그렇다	그렇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전체
매칭펀드방식 (재정혼합형)	15.1	36.2	32.7	16.1	100(398)
순수민간자율형	6.6	22.1	38.7	32.6	100(380)

그러나 정부의 지원 없이 운영되는 순수민간 자율형 시설에 대해서는 28.7%의 지역아동센터장들만이 긍정적으로 응답하였고, 70%가 넘는 시설장들이 부정적인 의견을 보였다. 대체로 전문가의견조사보다는 긍정적인 응답이 높게 나타났으나 시설장들 역시 이러한 형태의 지역아동센터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인식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순수 민간자율형 지역아동센터와 관련해서는 정부의 지원이 없기 때문에 이에 따른 관리·감독기능이 제한될 수 있으며, 이를 포함한 다양한 우려스러운 상황이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시설장 면접조사와 전문가의견조사를 통해 도출된, 향후 발생 가능한 상황들에 대해 시설장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는 <표 III-18>와 같다.

먼저 만일 100% 이용자부담이 가능한 순수 민간자율형 센터가 설립될 경우, 이 시설은 저소득취약계층 아동이 주로 이용하는 시설과는 전혀 다른 성격으로 이원화될 것에 대한 우려가 매우 높았으며(87.5%='매우 그렇다'+ '그렇다'), 역시 정부의 관리·감독의 어려움에 대해서도 유사하게 높은 수준의 우려를 나타냈다. 지역아동센터장 면접과 전문가의견조사 시 수요자부담방식의 지역아동센터가 운영될 경우 무엇보다 지역아동센터가 사교육시장화가 될 것이라는 우려가 매우 많았는데, 이 설문조사에서도 역시 시설장들의 80%가 넘게 이러한 우려에 대해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18 순수 민간형 지역아동센터 관련 발생 가능한 상황 단위: %(빈도)

구분	매우 그렇다	그렇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전체
저소득아동이 주로 이용하는 센터와 순수 민간형센터의 이원화 가능성 우려	38.7	48.8	9.6	3.0	100(406)
정부지원이 없으므로 아동복지시설로서의 정부의 관리·감독 어려움 우려	39.9	48.9	9.2	2.0	100(401)
순수민간 지역아동센터 증가 시 사교육시장화 우려	42.7	40.7	14.3	2.3	100(391)

앞서 면접조사와 전문가의견조사에서는 일반아동의 지역아동센터 이용을 확대한다고 하더라도 일반아동의 경우 이미 사교육시장을 많이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이용가능성이 낮을 것이라는 의견이 있었다. 시설장들 설문조사결과 <표 III-19>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일반가정 아동의 이용가능성에 대해서는 긍정과 부정적인 응답이 각각 절반의 비율로 나타났는데, 부정적인 응답이 약간 더 높게(51.2%) 나타났다. 또한 이용가능성이 있다고 응답한 시설장들에게 수요자의 비용부담가능성, 즉 이용료를 지불할 가능성에 대해 질문한 결과 절반에 못 미치는 약 44%만이 긍정적인 응답을 보여, 대체로 일반아동의 시설이용 가능성에 대해 반신반의하는 모습이며, 또 이용료부담에 대해서도 과반수 이상이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표 III-19 지역아동센터의 일반아동 이용 및 비용부담가능성 단위: %(빈도)

구분	매우 그렇다	그렇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전체
일반가정 아동의 시설 이용가능성	7.7	41.1	44.0	7.2	100(416)
일반가정 아동의 비용부담 가능성	5.1	39.0	48.7	7.2	100(195)

지역아동센터이용에 수요자의 비용부담원칙이 적용된다면, 어떤 기준으로 비용을 부담하는 아동과 무료이용아동을 결정할 것인지는 매우 중요한 이슈이다. 앞의 전문가의견조사에서는 보육시설이용에 서와 마찬가지로 가구평균소득액의 상위 30%인 가정의 아동에 이용료를 부담하는 것에 대한 의견이 가장 많았는데, 본 시설장 조사에서는 가구소득 상위 30%와 50%에 대한 응답이 가장 높았고, 동일한 수준의 응답률을 보였다(각각 20.3%, 19.9%).

표 III-20 이용료 부담 가능한 가구소득(상위) 비율 단위: %(빈도)

가구평균소득액 비율	10% 미만	10%	20%	30%	40%	50%	60~ 100%	기타(15%, 25%)	전체
이용료 부담 비율	7.7	16.2	11.4	20.3	9.6	19.9	11.9	3.0	100(271)

(3) 일반아동의 지역아동센터이용 확대 시 고려할 조건들

현재 저소득층 및 취약계층 아동들 위주로 운영되는 지역아동센터에서 일반아동의 이용을 확대하고 또 수요자부담의 운영방식을 갖게 될 경우, 여러 가지 선결조건과 대안이 필요하다. 관련 문헌조사와 시설장 면접조사 및 전문가의견조사결과에서 도출된 선결조건들에 대해 시설장들의 인식을 조사한

결과는 <표 III-21>와 같다.

대체로 모두 높은 수준의 응답률을 보였는데, 특히 90%가 넘게 필요성을 보인 항목들은, ‘지역아동센터 프로그램 및 서비스 질 향상’(94.8%),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낙인감 개선 및 인식개선’(94.0%), ‘지역아동센터 직원의 전문성 및 강사수준 향상’(93.9%), ‘일반아동과 저소득·취약계층 아동 간 낙인감과 위화감 근절 방안 강구’(93.6%) 등이었다. 그리고 아동복지시설로서의 정체성에 부합하는 인적구성과 운영지침 및 법적요건 정비(66.7%), 일반아동과 저소득·취약계층 아동의 시설이용 비율의 필요성(65.3%)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의 응답률을 보였다.

표 III-21 일반아동의 지역아동센터 이용 시 필요한 선결조건 단위: %(빈도)

구분	매우 그렇다	그렇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전체
아동복지시설로서의 정체성에 부합하는 인적구성과 운영지침 및 법적요건 정비	26.4	40.3	20.4	12.9	100(402)
지역아동센터의 시설 및 설비규정의 상향조정	21.5	53.6	22.9	1.9	100(414)
센터설립 및 개소에 대한 엄격한 기준 필요	37.3	50.5	11.5	0.7	100(408)
일반아동과 저소득·취약계층 아동 간 낙인감과 위화감 근절 방안 강구	49.0	44.6	4.6	1.7	100(410)
일반아동과 저소득·취약계층 아동의 센터이용 비율 필요	20.2	45.1	27.8	6.9	100(406)
지역아동센터 프로그램 및 서비스 질 향상	35.1	59.7	4.4	0.7	100(407)
지역아동센터 직원의 전문성 및 강사수준 향상	32.8	61.1	5.7	0.5	100(406)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낙인감 개선 및 인식개선	44.4	49.6	4.9	1.0	100(405)

또한 일반아동과 저소득·취약계층 아동의 센터이용 비율 결정은 현재와 같이 일괄적으로 정해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비율(58.2%)이 시설장 자율결정(33.7%)보다 훨씬 높은 비율로 나타났다(<표 III-22>).

표 III-22 지역아동센터 이용에 있어 일반아동과 저소득 아동 비율 결정방식 단위: %(빈도)

구분	현재와 같이 일괄적으로 정해진 이용비율 필요	센터장 자율로 결정하여야 함	상관없음	전체
비율	58.2	33.7	8.1	100(273)

저소득·취약계층 아동과 일반가정 아동이 함께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게 될 때,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는 곳의 경우 이용료를 부담하는 일반아동이 시설이용의 우선대상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위의 질문에 응답한 시설장들을 대상으로 저소득취약계층 아동이 배제되지 않도록 하는 이용비율에 대해서 조사한 결과(<표 III-23>), 대체로 현재 적용되고 있는 비율과 유사한 수준으로 응답하였다. 구체적으로 저소득·취약계층 아동과 일반아동의 비율이 각각 70%와 30%라는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나(약 30%), 각각 절반의 비율이거나, 저소득취약계층 아동 60%, 일반아동 40%의 비율에 대한 응답도 20%내외의 비교적 유사한 수준의 비율로 나타났다.

표 III-23 저소득취약계층아동과 일반아동의 적절한 센터 이용비율 단위: %(빈도)

구분	저소득·취약계층아동 : 일반아동				전체
	50% : 50%	60% : 40%	70% : 30%	기타비율	
이용비율	20.1	24.2	29.5	22.2%	100(149)

지역아동센터장 면접 시 시설이용자체에 대한 이용료 부담보다는 개별 프로그램이나 서비스에 대한 이용료를 부담하는 것에 대한 제안이 있었고 이후 전문가 의견조사에서는 이에 대한 찬반의견이 대등하게 나타났다.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표 III-24>, <표 III-25>), 예체능교육이나 영어교실, 문화체험이나 캠프 등 특별한 프로그램이나 서비스에 대한 개별 비용부담에 대해서는 조사대상 시설장의 약 80%가 가능하다는 응답을 보였고, 심리·상담치료나 학습부진아 특별지도와 같은 전문화되고 특성화된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역시 유사한 비율로 수요자의 비용부담 가능성을 보였다.

표 III-24 특별서비스 및 프로그램에 대한 비용부담 가능성 단위: %(빈도)

구분	매우 그렇다	그렇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전체
개별 프로그램·서비스(예체능교육, 영어교실, 캠프 등)	23.5	56.1	15.5	4.9	100(412)
전문화, 특성화된 프로그램(심리·상담치료, 가족치료, 학습부진아 특별지도)	26.8	52.1	16.5	4.6	100(411)

심야시간 및 주말과 공휴일의 센터이용에 대해서는 68%의 시설장들이 일반부모의 비용부담이 가능하다고 응답하였다. 센터의 운영기간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는데, 운영기간이 2년미만으로 상대적으로 최근에 개소한 센터에서 더 높은 응답률이 나타났다.

표 III-25 정규의 시간의 시설이용에 대한 비용부담 가능성 단위: %(빈도)

구분		매우 그렇다	그렇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전체	χ²
심야시간 및 주말과 공휴일 이용	전체	23.8	44.2	25.3	6.7	100(403)	15.577*
	운영 기간	2년미만	32.8	45.3	18.8	3.1	100(64)
		2년~5년	26.3	37.2	31.4	5.1	100(156)
		5년이상	19.0	50.6	21.3	9.2	100(174)

*p<.05

(4) 일반아동의 지역아동센터 이용확대 및 비용부담에 대한 긍정적·부정적 측면

일반아동의 지역아동센터이용과 이에 대한 비용부담과 관련하여 시설장 심층면접조사와 학부모집 단초점면접, 전문가의견조사를 통해 도출한 발생가능한 긍정적인, 또는 부정적인 사항들에 대한 인식을 정리하여 다시 시설장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는 <표 III-26>와 같다.

표 III-26 일반아동의 센터 이용확대와 비용부담 시 발생할 수 있는 상황 단위:%(빈도)

구분		매우 그렇다	그렇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전체	χ ²	
센터의 책임성 강화에 기여	전체	23.3	57.8	15.5	3.4	100(412)	15.327*	
	지역 사회 경제 수준	저소득층	24.4	55.6	16.3	3.8		100(320)
		중간수준	19.8	65.4	14.8	0.0		100(81)
		중간이상	10.0	70.0	0.0	20.0		100(10)
아동의 책임증가 및 부모의 관심증가	전체	19.6	61.7	16.7	1.9	100(413)	22.338*	
	운영 주체	법인	27.9	64.7	7.4	0.0		100(68)
		종교법인	12.3	60.3	24.7	2.7		100(73)
		개인	19.8	60.5	18.1	1.6		100(243)
		기타	17.6	64.7	5.9	11.8		100(17)
		국립,시립	20.0	60.0	20.0	0.0		100(5)
	지역 사회 경제 수준	저소득층	20.9	59.4	17.8	1.9	100(320)	23.141**
		중간수준	17.1	69.5	13.4	0.0	100(82)	
		중간이상	0.0	70.0	10.0	20.0	100(10)	
	양질의 센터인력과 강사pool 운영가능	전체	18.7	59.7	19.4	2.2	100(412)	15.199*
운영기		2년미만	34.4	46.9	15.6	3.1	100(64)	

	간	2년~5년	17.6	60.4	18.9	3.1	100(159)	19.234**	
		5년이상	14.3	64.3	20.3	1.1	100(182)		
	지역 사회 경제 수준	저소득층	18.2	58.6	21.3	1.9	100(319)		
		중간수준	22.0	64.6	12.2	1.2	100(82)		
		중간이상	10.0	50.0	20.0	20.0	100(10)		
돌봄 욕구 해소와 이를 통한 예방적 복지 가능	전체		31.0	58.4	8.5	2.2	100(413)	17.138**	
		운영 기간	2년 미만	44.6	52.3	3.1	0.0		100(65)
			2년~5년	26.9	56.3	13.8	3.1		100(160)
	5년이상		30.4	61.9	5.5	2.2	100(181)		
낙인감 감소 및 인식개선	전체		30.1	53.6	12.9	3.4	100(412)	19.210**	
		도시 규모	대도시	31.8	56.8	8.8	2.7		100(148)
			중소도시	39.0	47.1	10.3	3.7		100(136)
	읍면지역		18.9	56.7	20.5	3.9	100(167)		
서로에 대한 이해 및 사회성 발달에 도움	전체		29.0	56.7	11.9	2.4	100(411)	15.364*	
		지역 사회 경제 수준	저소득층	28.5	56.7	12.9	1.9		100(319)
			중간수준	32.1	55.6	9.9	2.5		100(81)
	중간이상		20.0	60.0	0.0	20.0	100(10)		
프로그램과 서비스 질 제고에 기여	전체		22.0	62.7	13.2	2.2	100(410)		
수익사업화 우려	전체		22.3	45.6	29.1	2.9	100(412)	13.967*	
		아동수	0~20명	21.3	36.2	37.2	5.3		100(94)
			21~30명	22.1	50.5	27.0	0.5		100(204)
	31명이상		23.7	44.7	26.3	5.3	100(114)		
아동간 차별이나 위화감 우려	전체		24.8	41.3	29.9	4.1	100(412)		
빈곤아동 사례발굴노력 저하	전체		12.4	34.6	42.4	10.5	100(410)		

*p<.05, **p<.01

긍정적인 응답률이(‘매우 그렇다’+‘그렇다’) 가장 높은 항목을 보면, ‘돌봄 욕구 해소와 이를 통한 예방적 복지 가능’(89.4%)이었으며, 그 다음으로 ‘서로에 대한 이해 및 사회성 발달에 도움’(85.7%), ‘서로에 대한 이해 및 사회성 발달에 도움’ (85.7%), ‘프로그램과 서비스 질 제고에 기여’(84.7%), ‘낙인감 감소 및 인식개선’(83.7%), ‘아동의 책임증가 및 부모의 관심증가’(81.3%), ‘센터의 책임성 강화에 기여’(81.1%), ‘양질의 센터인력과 강사pool 운영가능’(78.4%), ‘수익사업화 우려’(67.7%), ‘아동간 차별이나 위화감 우려’(66.1%), ‘빈곤아동

사례발굴노력 저하'(47%)순으로 응답률이 높게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일반아동의 지역아동센터이용과 비용부담과 관련해서 긍정적인 측면에 대해 높은 응답률을 보였으나, 지역아동센터의 수익사업화나 아동간 차별이나 위화감 우려 등에 대해서도 70%에 달하는 응답률을 보여 이러한 부정적인 측면을 보완할 수 있는 제도적 접근이 필요함을 보여주고 있다. 각각의 항목들에 대한 시설장의 인식이 지역아동센터가 위치한 지역규모, 운영주체, 운영기간, 지역사회경제수준, 이용아동수와 같은 배경변인별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았다. 몇 개 항목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여주긴 했으나 교차분석 시 빈도수가 너무 적거나 케이스가 없는 경우가 있어 해석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먼저 일반아동의 이용과 이에 따른 비용부담방식이 '센터의 책임성 강화에 기여'할 것이라는 응답은 시설이 위치한 지역사회가 경제적으로 중간수준인 경우(85.2%)에 가장 높은 긍정적인 응답을 보였다. '아동의 책임증가 및 부모의 관심증가'에 대한 응답은 운영주체가 일반 법인인 경우에 긍정적인 응답이 가장 높았고(92.6%), 종교법인의 경우 가장 낮게 나타났으며, 경제수준이 중간인 지역사회에 위치한 센터에게서 긍정적인 응답이(86.6%) 가장 높았다. '양질의 센터인력과 강사pool을 운영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항목은 운영기간이 2년미만인 시설에서 그리고 역시 지역사회경제수준이 중간수준이라고 응답한 시설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또한 '돌봄 욕구 해소와 이를 통한 예방적 복지가 가능'할 것이라는 응답도 운영기간이 2년 미만인 시설에서 더 높은 응답을 나타냈다. 지역아동센터는 저소득층 아동만이 이용하는 곳이라는 '낙인감'이 감소되고 인식이 개선될 것이라는 항목은 지역규모별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는데, 시설이 위치한 지역규모가 클수록 더 긍정적으로 응답하였다. 또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들간 '서로에 대한 이해 및 사회성 발달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응답은 지역사회의 경제수준이 중간인 경우에 가장 높게 나타났다.

지역아동센터의 일반아동 이용과 비용부담에 따라 우려되는 부정적인 측면인 '수익사업화에 대한 우려'는 센터이용 아동수가 21명에서 30명 미만인 센터(72.6%)에서 가장 높은 응답을 보였으며, 다른 항목들에서는 변인별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지역아동센터가 지역사회 내에서 저소득층만이 이용하는 곳이라는 낙인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들에 대해 시설장들의 인식을 조사한 결과는 <표 III-27>와 같다.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홍보 및 학부모 선호 기관으로의 이미지 개선'(93.5%)이 가장 높게 나타나 지역아동센터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홍보가 매우 중요함을 보여주고 있다. 다른 항목들인 프로그램과 서비스의 질적수준 향상과 저소득아동과 일반가정 아동 통합돌봄에 대해서도 유사한 수준으로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표 III-27 지역아동센터의 낙인문제 해결 방안

단위: %(빈도)

구분	매우 그렇다	그렇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전체
저소득취약계층 아동과 일반가정 아동을 통합하여 센터운영	48.7	44.0	7.1	0.2	100(411)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홍보 및 학부모 선호 기관으로의 이미지 개선	44.3	49.2	6.5	0.0	100(413)
프로그램과 서비스의 다양화와 질적 수준 향상	45.5	47.9	6.1	0.5	100(411)

5) 학부모 전화조사 결과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인지도와 이용가능성 등에 대한 학부모들의 일반적인 인식을 알아보기 위해 519여명의 초등학교와 중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를 대상으로 전화조사를 실시한 결과는 아래와 같다.

(1) 자녀의 방과후 주된 활동

먼저 방과후 주된 활동에 대해 질문한 결과(<표 III-28>), 약 65%의 조사대상 학부모의 자녀들은 학원이나 과외수업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28 방과후 주된 활동

단위: %(빈도)

구분		집에 보호자와 함께 있음	집에 보호자 없이 있음	학원/ 과외수업	방과후 돌봄서비스 ¹⁾ 이용	전체	χ ²
전체		15.5	6.6	64.9	13.0	100(516)	
자녀 학년	초1~3학년	16.6	3.0	62.7	17.8	100(169)	13.748*
	초4~6학년	14.7	6.5	65.3	13.5	100(170)	
	중학생	15.3	10.2	66.7	7.9	100(177)	
맞벌이 여부	그렇다	6.7	8.6	72.3	12.4	100(314)	52.034***
	아니다	29.2	3.5	53.5	13.9	100(202)	
가정 특성	부모가정	15.2	5.9	66.2	12.8	100(494)	8.722*
	한부모가정	21.1	21.1	42.1	15.8	100(19)	
경제 상황	하	17.8	8.5	53.4	20.3	100(118)	13.361*
	중	14.4	5.6	68.3	11.7	100(341)	
	상	16.1	8.9	69.6	5.4	100(56)	

¹⁾ 방과후학교,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지역아동센터 이용/ *p<.05, ***p<.001

그 다음으로 집에 보호자와 함께 있다는 응답은 15.5%였고, 방과후학교,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지역아동센터 등의 방과후 돌봄서비스를 이용한다는 응답은 13%, 보호자 없이 집에 있다는 응답은 6.6%였다. 자녀의 학년과 맞벌이 여부, 가족구조와 경제상황과 같은 배경변인별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는데, 자녀의 학년이 높을수록 방과후에 집에 보호자 없이 있거나 학원과 과외수업을 받는 비율이 높았고, 반대로 학년이 낮을수록 집에 보호자와 함께 있거나 방과후 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맞벌이가정 여부에 따른 응답차이를 보면, 맞벌이 가정의 아동·청소년의 경우 방과후 시간에 집에 보호자 없이 있거나, 학원 및 과외수업을 한다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나 방과후 돌봄서비스 이용에 있어서는 맞벌이가정 여부에 따른 차이는 거의 없었다. 또한 한부모 가정의 자녀는 보호자의 유무에 상관없이 집에 있거나 방과후 돌봄서비스를 받는 비율은 높게 나타난 것에 비해 방과후에 학원 및 과외수업을 받는 비율은 많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방과후에 보호자 없이 집에 있는 비율이 21%가 넘었는데, 이는 양부모가정의 자녀가 동일한 상황에 있는 비율이 5.9%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인 것을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경제수준별 차이를 보면, 경제수준이 높다고 응답한 학부모의 자녀는 학원이나 과외수업을 받는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난 것에 비해, 방과후돌봄서비스 이용 비율은 매우 낮았다. 반대로 경제수준이 낮을수록 방과후돌봄서비스를 이용한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났고, 학원이나 과외를 받는 비율은 낮았다. 즉 경제수준이 낮은 가정에서 방과후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비율은 20%가 넘게 나타났지만, 경제수준이 높은 가정에서의 방과후돌봄서비스 이용률은 5.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2)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인지도와 이용의사

조사대상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지역아동센터를 알고 있는지 질문한 결과(<표 III-29>), 과반수정도가 알고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그중에서도 여자응답자의 응답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29 지역아동센터 인지여부 단위: %(빈도)

구분	알고 있다	몰랐다	전체	χ^2
전체	51.6	48.4	100(519)	
부모성별	남	57.8	100(187)	10.325**
	여	43.1	100(332)	

**p<.01

지역아동센터에 자녀를 보낼 의향이 있는지에 대해서는¹⁸⁾ 약 60%의 학부모가 의향이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배경변인별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여주었다. 학부모의 연령이 30대인 경우에 그리고 자녀의 학년이 낮을수록, 또 부모학력과 경제수준이 낮을수록 지역아동센터에 자녀를 보낼 의향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30 지역아동센터에 자녀 보낼 의향이 있는지 여부 단위: %(빈도)

구분	있다	없다	전체	χ^2
전체	59.9	40.1	100(519)	
부모연령	30대	32.7	100(156)	5.065*
	40대이상	43.3	100(363)	
자녀학년	초1~3학년	34.5	100(171)	6.204*
	초4~6학년	38.2	100(170)	
	중학생	47.2	100(178)	
부모학력	중졸이하	13.3	100(15)	6.032*
	고졸	37.0	100(189)	
	대졸이상	42.6	100(312)	
경제상황	하	30.3	100(119)	6.281*
	중	42.4	100(342)	
	상	45.6	100(57)	

*p<.05

지역아동센터에 자녀를 보낼 의향이 없다고 응답한 학부모들에게 그 이유를 조사한 결과, <표 III-31>에서 보는 바와 같이 '방과후돌봄서비스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함'과 '지역아동센터가 어떤 곳인지 알지 못함'이라는 응답이 각각 38.6%와 '34.2%'로 가장 높게 나타나, 역시 지역아동센터와 방과후돌봄서비스에 대한 인지도가 부족함을 보여주고 있다.

표 III-31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지 않는 이유 단위: %(빈도)

구분	학교 공부에 도움되지 않아서	프로그램이나 서비스수준이 낮아서	방과후돌봄서 비스의 필요성 을 느끼지 못함	현재는 저소득층 아동들이 주로 이용하고 있어서	지역아동센터가 어떤 곳인지 알지 못함	전체
전체	2.7	13.6	38.6	10.9	34.2	100(184)

18) 지역아동센터를 알지 못하는 학부모에게는 지역아동센터의 역할과 기능을 설명한 후 조사를 진행하였다.

(3) 지역아동센터 선택 기준 및 중요도

지역아동센터에 자녀를 보낼 의향이 있다고 응답한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지역아동센터 선택 시 가장 중요한 기준을 질문한 결과, '프로그램과 서비스의 질적수준'이 62.6%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는 '기관 및 시설에 대한 신뢰'가 31.9%의 응답률을 보였다.

표 III-32 지역아동센터 선택 시 가장 중요하게 생각되는 것 단위: %(빈도)

구분	프로그램과 서비스의 질적 수준	기관·시설에 대한 신뢰	이용료	전체
전체	62.6	31.9	5.5	100(310)

또한 이들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할 의사가 있는 학부모들은 지역아동센터의 서비스 중 '방과 후 시간동안의 안전한 보호'(약 40%)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었고, 그 다음으로 중요한 항목은 '교과목관련 프로그램 제공'(33.5%), '예체능 포함 특기·적성 프로그램'(23.2%)순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급식제공은 3.9%로 매우 낮은 비율을 보였다. 학부모의 성별로 보면, 남자 조사대상자들은 '교과목관련 프로그램 제공'을 가장 중요한 지역아동센터의 프로그램·서비스라고 응답한 반면(37.6%), 여자 조사대상자는 '방과후 시간 안전한 보호'(47%)를 가장 중요하다고 응답해, 항목별 차이를 크게 보였다.

표 III-33 지역아동센터 프로그램과 서비스 중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단위: %(빈도)

구분	방과후 시간 안전한 보호	급식제공	교과목관련 프로그램 제공	예체능 포함 특기·적성 프로그램	전체	χ ²
전체	39.4	3.9	33.5	23.2	100(310)	
부모성별	남	27.4	4.3	37.6	100(117)	12.487**
	여	46.6	3.6	31.1	100(193)	
부모연령	30대	55.2	1.9	25.7	100(105)	17.198**
	40대이상	31.2	4.9	37.6	100(205)	
자녀학년	초1~3학년	49.1	7.1	25.9	100(112)	15.129*
	초4~6학년	36.2	1.9	35.2	100(105)	
	중학생	31.2	2.2	40.9	100(93)	

*p<.05, **p<.01

부모연령별로 보면, 30대 학부모의 과반수 이상이 '방과 후 시간 안전한 보호'를 가장 중요한 지역아동센터의 프로그램 및 서비스라고 응답한 반면, 40대 이상의 학부모는 '교과목관련 프로그램 제공'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였는데, 이러한 부모의 연령대별 차이는 자녀의 학년에 따른 차이와 유사한 경향을 보였다. 즉 자녀의 학년이 낮을수록 '방과후 시간 안전한 보호'를 중요하게 생각한 것에 비해, 자녀의 학년이 높을수록 '교과목관련 프로그램 제공'에 대한 중요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4) 선호하는 지역아동센터 유형과 이용료

국·공립(시립포함) 지역아동센터와 민간 지역아동센터 중 선호하는 운영형태를 조사한 결과는 <표III-34>와 같다. 자녀를 지역아동센터에 보낼 의향이 있는 학부모들은 국·공립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선호가 89%로 매우 높은 선호를 보였으며, 이러한 응답은 부모연령이 더 젊을수록, 그리고 부모의 학력이 낮을수록 더 높았다.

표 III-34 국·공립 지역아동센터와 민간 지역아동센터 간 선호도 단위: %(빈도)

구분		국·공립 지역아동센터	민간 지역아동센터	전체	χ^2
전체		89.8	10.2	100(294)	
부모연령	30대	95.9	4.1	100(97)	5.841*
	40대이상	86.8	13.2	100(197)	
부모학력	중졸이하	100	0.0	100(13)	7.680*
	고졸	94.7	5.3	100(114)	
	대졸이상	85.6	14.4	100(167)	

*p<.05

또한 이들 학모들은 심야시간이나 주말 및 공휴일에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해서는(<표III-35>) 조사대상자의 과반수가 넘게 긍정적으로 응답했으며, 이러한 응답은 자녀가 초등학교 4학년에서 6학년인 부모의 응답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표 III-35 심야시간 및 주말과 공휴일 운영 시 이용 의향 여부 단위: %(빈도)

구분		그렇다	그렇지 않다	전체	χ^2
전체		51.3	48.7	100(310)	9.686**
자녀학년	초1~3학년	40.2	59.8	100(112)	
	초4~6학년	61.0	39.0	100(105)	
	중학생	53.8	46.2	100(93)	

*p<.05, **p<.01, ***p<.001

앞서 지역아동센터에 자녀를 보낼 의향에 대한 질문에서 60%가량의 학부모가 긍정적으로 응답하였는데, 이들이 부담하고자 하는 시설이용료는 <표III-36>에서 보는 바와 같이 비교적 낮은 수준인 것을 알 수 있다.

표 III-36 지역아동센터 월 이용료 부담액 단위: %(빈도)

구분		이용료부담 시 이용할 생각없음	수업재료비· 교통비수준	3~5만원	6~10만원	11만원 이상	전체	χ^2
전체		11.5	36.1	36.1	12.8	3.6	100(305)	13.473**
부모 성별	남	13.9	27.8	33.9	17.4	7.0	100(115)	
	여	10.0	41.1	37.4	10.0	1.6	100(190)	
부모 학력	중졸이하	38.5	30.8	30.8	0.0	0.0	100(13)	15.660*
	고졸	11.0	38.1	39.0	10.2	1.7	100(118)	
	대졸이상	9.8	35.1	34.5	15.5	5.2	100(174)	

*p<.05, **p<.01

전체적으로 수업재료비나 교통비 수준만 부담하겠다는 응답과, 3만원~5만원의 이용료를 부담하겠다는 응답이 동일하게 36%로 나타났으며, 6만원~10만원이라는 응답은 12.8%, 11만원 이상은 3.6%로 나타나 학부모들은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의 이용료를 부담하고자 하였다. 또한 당초 지역아동센터에 자녀를 보내겠다는 학부모들 중 11.5%는 이용료를 부담하면서까지 센터를 이용할 생각이 없다고 응답하였다.

응답자의 성별차이를 보면 남자조사대상자의 경우 지역아동센터 이용료로서 3만원에서 5만원까지의 응답이 가장 높았고(33.9%), 여자조사대상자는 수업재료비·교통비수준이라는 응답에서 약 40%의 응답률을 보였다. 또한 부모의 학력이 낮을수록 이용료는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4. 요약 및 제언

1) 연구요약

(1) 국내 사례 요약

수요자가 비용을 부담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는 유사방과후서비스로서 먼저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을 들 수 있는데, 수요자(학생, 학부모)중심으로 운영하는 정규교육과정 이외의 학교교육 활동을 표방하면서 수요자의 관심과 흥미, 욕구에 맞도록 특색화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교육인적자원부, 2006). 이를 위한 교육비는 수요자부담을 원칙으로 하지만, 저소득층을 포함한 소외계층에게는 자유수강권 같은 일종의 바우처를 통해 집중지원하고 있다. 한달 평균 강좌 수와 수강료를 보면, 초·중학생은 한달 평균 약 56,000원~58,000원을 부담하고 있으며, 방과후학교에 참여하는 학생의 약 67%는 전액부담으로, 그리고 약 25%는 전액무료로 방과후 학교를 이용하고 있다.

방과후 학교가 주로 교과과정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에 비해, 초등학교 보육사업은 맞벌이가정 및 한부모가정의 초등학생의 보육 수요에 대처하기 위한 사업으로 실시하고 있는데, 2010년 6월 현재 초등돌봄교실 참여 학생수는 총 104,496명으로 전체 초등학생의 3.2%정도이다. 주로 맞벌이가정 자녀가 이용하고 있고, 이용료는 월 평균 33,524원이며, 참여학생의 65.2%가 전액무료로 참여하고 있다. 운영시간을 보면 17시나 18시까지만 운영하는 학급수의 비율이 70%이며, 맞벌이가정의 경우 퇴근시간인 18시 이후까지 운영하는 학급수는 불과 23.1%에 그치고 있다.

이러한 초등돌봄교실을 확대하여 희망하는 학교에 한해 2011년 상반기부터 “엄마품 온종일 돌봄교실”이란 이름으로 저소득층 학생에게 보다 초점을 맞춘 종일 돌봄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이 사업은 특히 아침시간 돌봄서비스까지 제공하고(운영시간은 아침 6시 30분~22시 내외) 저소득층 아동을 우선 이용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기존의 초등돌봄교실(초등학교 보급자리 포함)과 차별성이 있다. 수강료는 지자체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체험활동 프로그램 중 특화된 프로그램으로 수요자의 비용부담이 요구될 경우만 학생들이 비용을 부담하는데, 이 경우 저소득층 자녀의 경우는 무료로 이용하게 된다.

보육시설의 경우 정부지원시설을 이용하는 영유아의 경우 보육료를 시설유형에 관계없이 정부지원 시설 보육료 지원단가 범위 내에서 이용자가 부담하도록 하고 있으며, 정부미지원시설을 이용하는 법정저소득층 및 장애아동의 보육료는 정부지원단가 범위 내에서 수납하도록 되어 있다. 보육료를 제외한 여타 잡부품품 수납은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지만, 입소료, 현장 학습비 등 불가피한 필요경비

는 당해 시·도지사가 정한 수납한도액의 범위 내에서만 이용료부담이 가능하다. 현재 취학전 만5세 아동의 보육료는 177,000원이다. 보육료는 그동안 가구소득 하위 50%, 60%, 70%로 차등지원되었었는데 2011년부터는 가구소득하위 70%이하로 통일되어, 현재는 가구소득상위 30%만이 이용료부담으로 보육시설을 이용하고 있다.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는 초등학교 고학년과 중학생을 중심으로 방과후 청소년들을 보호·감독하고 다양한 특성과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중앙정부(여성가족부)와 지자체의 매칭펀드방식으로 꾸준히 증가하여, 2010년 기준 161개소에서 본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2010년 운영모형별 실태를 보면, 맞벌이 가정의 자녀를 대상으로 해당가정의 이용료 부담으로 운영되고 있는 일반형의 경우 2005년의 5개소에서 현재는 1개소로 줄어들었으며, 158개소는 기초생활수급대상, 차상위계층, 저소득층 등 가정형편이 어려운 청소년을 중점 대상으로 하는 지원형으로 운영되고 있다. 일반가정과 저소득취약계층 청소년이 함께 이용하는 혼합형은 2개소로 운영되고 있는데, 일반형과 혼합형을 이용하는 일반가정 청소년은 월 200,000만원에서 245,000원의 이용료를 부담하고 있다.

(2) 지역아동센터장 심층면접 결과

① 지역아동센터의 비용부담 프로그램의 유무 : 방문 조사한 지역아동센터에서 이용료를 받는 곳은 거의 없었으며, 보통 캠프나 특별활동프로그램이 있을 때 책임비나 차비, 간식비 정도만 받고 있었다. 일부 지역아동센터의 경우 일반 가정(저소득층이 아닌)의 소수아동에게서 월3만원~5만원의 이용료를 받고 있었다.

② 향후 지역아동센터의 수요자부담방식 운영의 필요성 : 현재 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저소득층 아동들의 경우 실비수준의 이용료 부담도 어렵겠지만, 지속적인 무료이용에 따른 아동과 부모 모두 시설이용에 대한 책임감의 부재가 문제로 지적하고 있다. 일반아동의 경우에는 비용을 부담하게 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이 제시되었는데, 일반아동에게까지 적극적으로 시설 이용을 확대하고 비용을 부담하는 방식으로 운영한다면, 지역아동센터 이용에 대한 낙인에서 벗어나는 효과뿐 아니라 시설의 재정자립에도 도움이 된다는 의견들이 제시되었다. 현재 이용아동의 비용부담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반대와, 민간 사회복지단체에서의 지원(예, 아동복지교사 파견)에 있어 불이익이 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었다. 또한 지역아동센터 평가 시 저소득층아동이나 장애아동에 비해 일반가정의 아동은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아 일반아동의 시설이용에 대해 소극적인 입장이라는 견해를 피력하기도 하였다.

③ 지역아동센터의 수요자부담방식운영 가능 여부 : 지역아동센터의 수요자부담방식 가능성에 대해서는 소득계층별로 이용료를 차별화할 경우 가능하겠지만, 일반아동의 경우에도 지역아동센터의

무료이용에 대한 인식이 퍼져있어 이용료를 받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이 많았다. 일부 시설에서는 개별 프로그램이나 서비스의 경우 이용료 수납이 가능하다는 응답을 보였으나, 반대로 아동간 위화감의 문제로 불가능 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④ 비용부담이 가능 여부 (시설 특성 고려) : 지역아동센터의 정규의 시간 운영 시 이용료 부담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의견이 대부분이었으며, 이 경우 국·공립 지역아동센터에서 담당할 것을 제안하였다.

⑤ 비용부담에 대해 예상되는 학부모 반응 : 일반 맞벌이 가정의 학부모의 경우 비용부담이 가능할 수 있다는 의견이 많았고, 현재 저소득층의 경우에는 불가능하다는 의견이 다수였다.

⑥ 비용부담을 위한 필요조건 : 수요자가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먼저 정부지침을 확실히 하여 적극적으로 일반 아동 이용을 권장할 것인지의 논의와 양질의 프로그램과 서비스제공, 그리고 일반아동과의 통합 돌봄의 필요성에 대한 의견들이 제시되었다.

(3) 학부모 초점집단인터뷰(FGI) 결과

전국의 세 지역에서 개최된 FGI결과, 전체적으로 지역아동센터의 프로그램과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보다 가정과 같은 분위기에서 정서적 돌봄을 받고 있으며, 학습지도의 경우 자원봉사자들을 활용한 1대 1 지도와, 멘토링 프로그램 등에 대한 만족도가 특히 높았다. 일반적인 욕구사항으로는 중학생청소년을 위한 청소년지역아동센터이용을 희망하는 의견이 많았다.

일반가정아이들과 함께 시설을 이용하는 것에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는 맞벌이 가정의 일반가정 아이들도 지역아동센터 서비스가 필요할 것이라는 인식은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부모자신들의 자녀와 함께 센터를 이용하게 될 때, 낙인과 위화감이 조성될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수요자의 비용부담방식에 대해서는 대부분이 저소득층인 이들 학부모는 부담스러워 했으나, 일반가정의 아동들에 대해서는 소득에 따른 이용료를 부담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으며, 일반아동이용에 따른 지역아동센터의 낙인감 해소에 대한 기대를 표현하기도 하였다.

(4) 전문가의견조사 결과

① 지역아동센터 이용 대상의 일반아동 확대

지역아동센터의 일반아동 이용확대에 대해서는 많은 전문가가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일반아동으로의 이용확대에 따른 장점으로 취약계층아동과 일반아동의 통합돌봄을 통해 아동발달(인격형성 및 사회성 발달 등)에 긍정적일 수 있으며, 취약계층아동과 지역아동센터의 낙인감을 해소할 수

있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다. 또한 일반 맞벌이 가정의 돌봄 욕구 해소를 통해 예방적 복지가 가능할 것이라는 의견들이 제시되었다. 일반아동과 저소득층 아동이 함께 동일 시설을 이용할 경우, 그 비율은 대략 일반아동은 30%~40%로 제한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그러나 시설 내 일반아동과 빈곤아동의 차별이나 위화감이 있을 수 있으며, 일부 시설의 경우 일반아동의 이용료를 목적으로 저소득층 아동의 이용을 제한하거나, 시설운영을 수익사업화 할 수 있음을 우려하기도 하였다.

② 지역아동센터의 이용료 부담과 가구 소득수준

일반아동의 이용료 부담에 대해서도 찬성의견이 더 높게 나타났다. 이용료부담을 찬성하는 경우 그 비용은 월 6만원~10만원선 이어야 한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일반아동의 이용료부담을 반대하는 경우는 지역아동센터의 사교육화와 이용료 납부유무에 따른 교사나 시설에서 아동 차별대우 등을 우려하였다. 전문가들이 이용료부담이 가능하다고 보는 가구평균소득 기준 비율은 현 보육시설 수준인 가구평균소득액의 상위 30%로 보는 의견이 가장 많았다.

③ 지역아동센터의 이용대상별 운영방식

전문가들은 일반 맞벌이가정의 아동과 저소득층 아동이 각각 다른 운영방식의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기 보다는 함께 시설을 이용하는 ‘통합형센터’(가칭)를 더 선호하였다. 일반아동만 이용하는 시설, 저소득층 아동만 이용하는 시설로 분리하는 것은 사회복지적 측면이나 교육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으며, 저소득층 아동만 이용하는 시설의 경우 낙인감 때문에 아동들도 이용을 꺼려하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하였다. 일부 현재와 같이 저소득층 아동위주로 시설을 운영해야 한다는 응답도 있었고, 대상을 선택하는 것은 시설에서 자체적으로 판단할 부분이라고 지적하기도 하였다.

④ 지역아동센터의 수요자부담 운영방식

지역아동센터의 시설·설비와 같은 인프라는 정부에서 지원하고 운영비 또는 사업비는 수요자가 비용을 부담하는 매칭펀드 운영방식(재정혼합형)에 대해서는 대다수의 전문가가 부정적으로 생각하였다. 그 이유로는 지역아동센터가 저소득층 아동의 보호와 교육, 사례관리 등을 위한 공공복지 인프라이기 때문에 이용자의 비용부담을 가능한 최소화해야하기 때문으로 보고 있었다. 또한 사업비정도의 부담이라고 하더라도, 영리단체 성격의 지역아동센터일 경우 이를 상업적으로 이용할 수 있으며, 오히려 저소득층 아동의 이용이 배제될 수 있음을 우려하였다. 이러한 재정혼합형 방식이 필요하다는 소수의 전문가들은 지역아동센터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아동서비스에 대한 질 제고를 위해 필요하며, 구체적으로 건물·시설비와 인건비 및 운영비는 정부부담으로 하되 사업비와 급식비는 이용자의 비용부담이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었다.

수요자부담방식 지역아동센터의 또 다른 형태로서, 개인자산 활용 및 기업재단후원, 혹은 비영리·

영리단체 등을 통한 순수 민간자율형 지역아동센터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다수의 전문가들의 필요하지 않다고 응답함으로써, 대체로 이러한 형태에 지역아동센터에 대해서는 비교적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이유로는 민간자율형 지역아동센터가 운영된다면, 기존의 지역아동센터와는 철학적, 역사적 출발이 다른 별도의 시설이 될 뿐이며, 서비스와 프로그램의 질적 수준과 주 이용대상 등에 있어 큰 격차를 보일 수 있기 때문으로 보고 있었다. 일부 긍정적이지 않은 의견을 보인 전문가들은 맞벌이 가정이 늘어나고 돌봄 수요가 커짐에 따라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민간차원의 지역아동센터가 필요하며, 또 공공부문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설립 주체나 운영 방식에 제한 없이 다양한 시설 형태가 존재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⑤ 정규시간의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개별 서비스별 이용자 부담

전문가들은 정규시간 외 심야시간, 주말이나 공휴일에 시설을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이용료부담과는 별개로 수요자(아동 돌봄)의 요구가 있다면 정규시간의 서비스 제공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야 하며, 오히려 이러한 서비스는 지역아동센터의 정체성 형성 및 강화에 도움을 준다고 보았다. 시설이용에 따른 이용료가 아닌 개별 프로그램 단위별로 이용자 부담을 한다면, 예체능교육 등의 특가·적성프로그램, 주요교과목 지원 및 집중학습프로그램, 놀이 등 특별활동프로그램과 같은 프로그램이 가능할 수 있으나, 이러한 프로그램은 강사나 외부 지원이 필요한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추가비용이 발생할 소지가 높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러한 프로그램은 저소득가정 자녀를 중점 대상으로 하는 지역아동센터에서는 무료로 제공되어야 하며, 일반가정 자녀를 대상으로 하는 시설에서는 비용부담이 가능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5) 지역아동센터장 설문조사 결과

① 일반아동의 지역아동센터 이용 및 이용료

본 조사에 응답한 지역아동센터 시설장들의 대다수는 맞벌이가정을 포함한 일반가정 아동의 지역아동센터 이용 확대와 이용료 부담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앞서 진행된 시설장 면접조사와 전문가의견조사, 자문회의 등에서 나타난 반대의견과 비교하면, 상당히 다른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일반아동의 시설 이용 시 이용료는 조사대상 과반수가 현재수준인 3만원~5만원을 적정이용료로 보고 있었으며, 그 다음으로 ‘6만원~10만원’ 응답이 높게 나타났다. 이용료 수납방식으로는 중앙기관이나 별도기관에서 관리하는 방식을 선호한다는 응답이 33.7%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이 구청이나 시청 등 자치단체가 약 30%정도로 나타났다. 또한 시설장들의 약 67%는 일반아동대상의

이용료 수납은 지자체나 시설장의 자율이 아닌 일괄적용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② 수요자부담방식의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인식

먼저 수요자가 비용을 부담하는 지역아동센터가 필요한지에 대한 조사에서 66.7%가 긍정적인 응답을 보였으며, 정부지원과 수요자부담방식이 혼합된 매칭펀드방식의 시설에 대해서는 51.3%의 시설장에게서 필요하다는 응답을 보였다. 그러나 정부의 지원 없이 운영되는 순수민간자율형 시설의 필요성에 대한 긍정적인 응답은 30%미만으로 특히 더 부정적인 의견이 높았다. 이러한 민간자율형 시설과 관련하여, 저소득층 아동전용 시설과 일반 아동중심의 민간자율형 시설로의 이원화, 정부의 관리 감독의 어려움, 그리고 지역아동센터의 사교육시장화 우려에 대해 80%가 넘는 시설장들이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가정 아동의 지역아동센터의 이용가능성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응답이 48.8%로 나타났고, 이용가능성에 대해 긍정적으로 응답한 시설장들은, 그러나 이용료 지불 가능성에 대해서는 약 44%만이 긍정적인 응답을 보였다. 조사응답자들은 대체로 일반아동의 시설이용 가능성에 대해 반신반의하는 모습이며, 또 이용료부담에 대해서도 크게 긍정적인 기대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수요자의 비용부담 기준은 현 보육시설이용과 유사한 가구평균소득액의 상위 30%와 50%가 가장 응답이 높게 나타났다.

③ 일반아동의 시설이용 확대 시 고려할 조건들

현재 저소득층 및 취약계층 아동을 위주로 운영되는 지역아동센터에서 일반아동의 이용을 확대하고, 또 수요자부담의 운영방식을 위해 필요한 선결조건으로서, 본 조사에 응답한 시설장들은 '지역아동센터 프로그램 및 서비스 질 향상'에 가장 높은 응답률(94.8%)을 보였고, 유사한 수준으로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낙인감 개선 및 인식개선'(94.0%), '지역아동센터 직원의 전문성 및 강사수준 향상'(93.9%), '일반아동과 저소득·취약계층 아동 간 낙인감과 위화감 근절 방안 강구'(93.6%) 등의 순으로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그러나 '아동복지시설로서의 정체성에 부합하는 인적구성'과 '운영지침 및 법적요건 정비'(66.7%), '일반아동과 저소득·취약계층 아동의 센터이용 비율의 필요성'(65.3%)에 대해서는 선결요건으로 생각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았다. 또한 일반아동과 저소득·취약계층 아동의 시설이용 비율 결정은 현재와 같이 일괄적으로 정해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비율(58.2%)이 시설장 자율결정(33.7%)보다 훨씬 높은 비율로 나타났다. 또한 일반아동의 이용 비율은 현재 적용되고 있는 비율과 유사한 수준으로 저소득취약계층 아동과 일반아동의 비율을 70%와 30%하는 것에 대한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지역아동센터 이용자체에 대한 이용료 부담이 아닌 개별 프로그램이나 서비스에 대한 이용료 부담에 대해서는 예체능교육이나 영어교실, 문화체험이나 캠프 등 특별 프로그램, 심리·상담치료가

학습부진아 특별지도와 같은 전문화·특성화된 프로그램에 대해서 조사대상 시설장의 약 80%가 가능하다는 응답을 보였다. 심야시간 및 주말과 공휴일등 정규의 시간의 센터이용에 대해서는 68%의 시설장들이 수요자의 이용료부담이 가능하다고 응답했다.

④ 일반아동의 지역아동센터이용확대와 비용부담에 대한 긍정적·부정적 측면

지역아동센터장 면접과 전문가의견조사를 통해 도출된 일반아동의 시설이용과 이에 대한 비용부담에 따른 긍정적인 측면들에 대해 조사한 결과, '돌봄 욕구 해소와 이를 통한 예방적 복지 가능'(89.4%), '서로에 대한 이해 및 사회성 발달에 도움'(85.7%), '서로에 대한 이해 및 사회성 발달에 도움'(85.7%), '프로그램과 서비스 질 제고에 기여'(84.7%), '낙인감 감소 및 인식개선'(83.7%), '아동의 책임증가 및 부모의 관심증가'(81.3%), '센터의 책임성 강화에 기여'(81.1%) 순으로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지역아동센터의 수익사업화'나 '아동간 차별이나 위화감 우려' 등 부정적인 측면들에 대한 응답이 상대적으로 낮았으나 역시 70%에 달하는 응답률을 볼 때 이러한 부정적인 측면을 보완할 수 있는 제도적 접근이 필요함을 보여주고 있다. 지역아동센터가 지역사회 내에서 저소득층만이 이용하는 곳이라는 낙인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먼저,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홍보 및 학부모 선호 기관으로의 이미지 개선'이 필요하고, 그 다음으로 '프로그램과 서비스의 다양화와 질적 수준 향상'과 '저소득취약계층 아동과 일반가정 아동을 통합하여 센터운영'등의 순으로 높은 긍정적인 응답을 보였다.

(6) 일반학부모 전화조사 결과

519여명의 일반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전화조사에서 약 65%의 조사대상의 자녀들은 학원이나 과외수업을 받고 있었고, 방과후학교나 지역아동센터등의 방과후 돌봄서비스를 이용한다는 응답은 13%에 불과했다. 자녀의 학년이 낮을수록 집에 보호자와 함께 있거나, 방과후 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맞벌이가정 아동의 경우 방과후 시간에 보호자 없이 집에 있거나, 학원 및 과외수업을 한다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으나 방과후 돌봄서비스 이용에 있어서의 차이는 거의 없었다. 한부모 가정의 자녀는 특히 방과후에 보호자 없이 집에 있는 비율이 양부모가정의 경우보다 3배이상 높았으며, 경제수준이 낮을수록 학원이나 과외보다는 방과후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인지도는 과반수 정도에 달했으며, 약 60%의 학부모가 지역아동센터에 자녀를 보낼 의향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특히 자녀의 학년이 낮을수록 또 부모학력과 경제수준이

낮을수록 지역아동센터에 자녀를 보낼 의향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아동센터 선택 시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는 ‘프로그램과 서비스의 질적수준’이 62.6%로 가장 높았으며, 지역아동센터의 가장 중요한 서비스는 ‘방과후 시간동안의 안전한 보호’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또한 민간 지역아동센터보다는 국·공립지역아동센터에 대한 선호도가 매우 높게 나타났다. 이용료 부담에 대해서는 ‘수업재료비·교통비수준’과 5만원 미만의 이용료를 부담하겠다는 응답이 70%가 넘게 나타나, 이용료는 보육시설이용료와 비교해도 상대적으로 매우 낮은 수준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조사대상자의 과반수 이상은 심야시간이나 주말 및 공휴일에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할 의향이 있다고 하였고, 특히 자녀가 초등학교 4학년에서 6학년인 부모의 응답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지역아동센터에 자녀를 보낼 의향이 없다는 응답에 대해, 그 이유를 질문한 결과 ‘방과후돌봄서비스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함’과 ‘지역아동센터가 어떤 곳인지 알지 못함’이라는 응답이 각각 38.6%와 ‘34.2%’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2) 제언

수요자부담방식의 지역아동센터 도입방안과 관련하여 지금까지 국내의 사례연구와 시설장 심층면접, 지역아동센터 이용자녀를 둔 학부모 FGI, 전문가의견조사와 시설장 설문조사와 일반학부모 조사결과로부터 ‘수요자부담방식의 지역아동센터 운영방안’ 개발에 주는 시사점을 보면 아래와 같다.

첫째, 일반아동의 지역아동센터 이용확대에 대해서는 일부 우려하는 의견도 있었으나 전문가의견조사와 시설장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대체로 그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 맞벌이가정의 아동과 저소득층 아동이 각각 다른 운영방식의 센터를 이용하기 보다는 함께 시설을 이용하는 ‘통합형센터’(가칭)에 대한 선호가 많았다. 또한 지역아동센터의 낙인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도 ‘저소득취약계층 아동과 일반가정 아동을 통합하여 지역아동센터를 운영’하는 방안에 대한 긍정적인 응답이 높게 나타나, 아동들이 가정의 경제수준에 상관없이 지역아동센터를 함께 이용하는 방안에 대해 충분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이 경우 이용료 부담 여부에 따라 시설 이용과 시설 내에서의 차별이 발생할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많았으므로, 시설 내 종사자들의 태도와 또 이용료 징수 방식 등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이와 관련하여, 지역아동센터들이 이용료를 부담하는 일반아동의 이용확대에 치우치지 않도록 하는 보완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들도 많았고, 또 조사결과 일반아동의 적정이용비용에 대한 의견이 30~40%정도로 나타나고 있어 일반아동의 이용비용을 급격히 확대하는 것에 대해서도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둘째, 그동안 일반아동의 시설이용을 제도적으로 금지하지 않았고 또 맞벌이 가정의 수요 등을 고려할 때 일반가정 아동의 시설이용이 충분히 가능한 측면이 있었으나, 이용 아동수의 제한,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의 반대, 평가에서의 상대적인 불이익(저소득층아동이나 장애아동에 비해), 그리고 일반아동 이용과 비용부담 시 민간 사회복지단체에서의 지원에 있어 불이익(프로그램 운영비 지원에서 배제)등의 문제로, 실제로 일반아동의 시설이용과 이에 따른 이용료 징수 등이 어려운 측면이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하여 전문가들과 현장의 시설장들은 일반아동에게까지 지역아동센터이용을 적극적으로 확대하고자 한다면 위의 사안과 관련한 일관되고 확실한 정책적 결정(일반아동 이용과 이에 따른 이용료 수납 명시)이 있어야 하며, 이에 따른 제도적 보완이 필요함을 주장하고 있다.

셋째, 일반아동의 이용료는 현재 월 5만원을 수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방과후 학교의 한 강좌당 월 수강료가 3만원수준인 것과 비교해 볼 때 지역아동센터에서 이루어지는 방과후 시간동안 때로는 야간시간까지 아동을 보호와 급식 및 학습지도까지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료로서는 적절한 금액으로 보기 어렵다. 초등돌봄교실의 경우 저소득층이 아닌 일반 가정 아동·청소년에게는 식비 및 일부 특화된 프로그램까지 참여할 경우 최대 월 6~10만원수준이고, 만 5세 아동의 보육시설 이용료 정부단가가 월 177,000원, 이용자가 비용을 부담하는 일반형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의 이용료가 월 200,000원~245,000원선인 것을 볼 때, 지역아동센터의 이용료가 보다 현실화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전문가의견조사와 시설장 면접조사, 또한 일반학부모 조사결과에서는 이용자부담액이 10만원선을 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일반 학부모조사결과에서 가정경제수준이 낮을수록 방과후돌봄서비스 이용률이 높은 것을 볼 때, 그 이상의 이용료 산정은 오히려 지역아동센터의 문턱을 높이는 결과가 될 수 있다. 또한 이용료를 부담해야 하는 가정에 대한 소득기준 등에 대해서도 보육시설 이용료 부담기준 등을 참고하여, 일반적인 복지서비스 대상인 차상위 계층까지가 아닌 가구평균소득을 기준으로 할 때, 이용료에 크게 부담을 느끼지 않는 가구평균 소득수준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넷째, 수요자가 비용을 부담하는 지역아동센터의 다양한 운영방식에 대해서 관련 전문가와 시설장들의 의견을 종합해보면, 시설·설비와 같은 인프라는 정부에서 지원하고 운영비와 사업비 등은 수요자가 비용을 부담하는 매칭 펀드 운영방식이나, 또 정부지원이 전혀 없는 순수 민간자율형 지역아동센터에 대해 모두 부정적인 인식이 높았다. 특히 이러한 형태의 지역아동센터가 사교육 기관화되거나 수익사업화 될 것에 대한 우려가 매우 많았는데, 지역아동센터의 정체성을 확고히 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방안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또한 전문가조사결과 정부와 수요자인 부모가 함께 지역아동센터의 운영비를 부담한다고 할 때, 수요자의 비용부담이 가능한 항목으로 프로그램비를 포함한 사업비수준에

대해서는 고려해 볼 수 있다.

다섯째, 지역아동센터가 수요자부담방식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이에 맞는 물리적 공간과 전문적 인력 및 서비스 수준이 확보되어야 하며 이를 효과적으로 점검·관리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대부분의 지역아동센터는 물리적으로 열악한 상황에서 운영되고 있으며, 집단 활동과 학습활동 공간 등의 분리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거나 주방 등이 노출된 집단 활동 공간을 갖고 있는 센터가 다수이다. 이 경우 과연 이용료를 수납하는 돌봄 및 방과후 서비스 제공 기관으로서 충분한 물리적 환경을 갖출 수 있는지 검토하여야 한다. 또한 지역아동센터장 설문조사와 일반 학부모 조사에서 공통적으로 일반아동이용과 관련하여 가장 중요한 항목이자 선결요건이 ‘프로그램과 서비스의 질적 수준’인 것을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지역아동센터의 이미지와 인식개선에 대한 방안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시설장 및 학부모 면접 시 지역아동센터에서 대한 지역사회의 낙인이 심해 일반가정 아동이 이용하려 하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이 많았는데(즉, 수요자의 비용부담 자체가 불가능할 것이라는), 향후 일반아동들에게까지 센터이용을 확대한다면 이러한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이미지와 인식개선을 위한 방안이 우선 필요하다. 또한 일반 학부모조사에서 나타난 것처럼 지역아동센터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인지도를 넓힐 필요가 있다.

5. 수요자부담방식의 지역아동센터 운영방안

지역아동센터 관계자와 전문가를 대상으로 면접 및 의견조사와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수요자부담방식의 지역아동센터를 둘러싼 다양한 시각을 확인할 수 있었다. 무엇보다 수요자의 비용부담과 관련하여 지역아동센터의 영리화, 비용부담이 가능한 아동 확보경쟁, 일반아동과 취약계층 아동간의 위화감 조성 등의 우려가 많은 것을 볼 수 있다. 그러나 수요자부담방식의 지역아동센터 운영을 통해 서비스 질의 향상과 더불어서 일반아동의 지역아동센터 유입으로 인해 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낙인효과가 감소할 것을 기대하기도 하였다. 이 경우에는 수요자부담방식의 지역아동센터의 도입이 맞벌이 가정의 아동을 포함한 방과후 돌봄과 보호가 필요한 아동의 서비스 접근성을 높여줄 수도 있다.

이러한 우려와 기대가 혼재한 현 상황에서 수요자부담방식의 지역아동센터를 도입할 경우 정교한 운영규정이 개발되어야 하며, 아울러 시행시기와 시행방식에 대해서도 신중을 기해야 한다. 수요자부담방식의 지역아동센터는 이용료부담수준에 따라 정부의 지원과 부모의 비용부담이 함께 존재하는

매칭펀드방식의 재정혼합형(가칭)을 이야기할 수 있고, 또 정부지원 없이 지역아동센터 운영에 대한 모든 비용을 이용자가 부담하는 전적인 민간 자율형도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러나 일반아동의 지역아동센터 이용확대와 수요자부담방식에 대한 추가적인 심도 깊은 논의와 함께, 본격적인 수요자부담방식도 법적·제도적인 보완과 함께 단계적 도입을 고려해야 하므로, 본 연구에서는 수요자부담방식과 관련하여 재정혼합형(가칭) 지역아동센터 운영방안에 더 초점을 두어 제안하고자 한다. 특히 재정혼합형 지역아동센터의 운영예산과 이용료와 관련해서는 프로그램과 서비스의 내용에 따라 ‘기본형 지역아동센터(가칭)’와 ‘종합형 지역아동센터(가칭)’로 나뉘어 논의하고자 한다. 또한 향후 수요자부담방식의 지역아동센터가 확대되고, 전적인 민간자율형 지역아동센터의 도입가능성을 고려하여, 이로 인한 문제점과 또 이에 따른 법적·도적 보완사항들도 함께 제시할 것이다.

1) 재정혼합형(가칭) 지역아동센터 : ‘기본형’과 ‘종합형’

재정혼합형 지역아동센터는 공적자본의 지역아동센터 지원과 서비스이용아동이 일정비용을 지불하는 방식이 혼합된 형태로, 일반가정의 아동에게는 일정책의 서비스 이용료를 징수하도록 하는 것이다. 현행 지역아동센터 메뉴얼에도 일반가정 아동에게는 월 5만원을 수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지방자치단체에 따라 일반 아동의 서비스 이용과 비용징수를 반대하는 곳이 있어 사실상 일반적으로 적용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이 금액도 아동에게 보호와 급식 및 학습지도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아동센터의 적정 이용료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지역아동센터의 프로그램과 서비스에 따른 유형별 지역아동센터의 운영비를 추산해보고 이에 따른 이용료수준을 살펴보고자 한다.

(1) 운영방식

① 이용대상

재정혼합형 지역아동센터 이용아동은 현행과 동일하게 지역사회 내 돌봄을 필요로 하는 18세미만의 아동·청소년으로 일반가정 아동과 저소득계층 아동이 이러한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할 수 있다. 이용 아동 수는 현행과 마찬가지로 시설규모에 따라서 지역아동센터 정원이 정해진다. 현재 대부분의 지역아동센터는 수용능력이 부족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다문화가족 등의 아동을 우선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수요자부담방식일 경우 이 기준을 적용하여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아동들에게 비용을

부담하게 되면, 부모의 소득수준이 차상위계층을 넘더라도 맞벌이나 비정규직 등으로 적절히 돌보기 어려운 아동의 경우 여전히 센터이용비용은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고, 비용에 상관없이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접근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 따라서 먼저 보육료 무상지원의 범위와 동일하게 차상위계층 아동과 기초생활수급 대상 아동 등을 포함한 하위 소득70% 이하 가구의 아동이 무상으로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고 그 이외 아동은 서비스에 따른 지정된 이용료를 지불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¹⁹⁾.

② 이용료 부담방식

전문가 조사결과에서는 정부에서 부분적으로 재정지원을 하는 혼합형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많았으나, 현실화 될 경우에는 시설관련 비용과 인건비 및 운영비는 정부부담으로 하고 서비스 이용료를 수요자가 부담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많이 나타났다. 일부 의견에서는 일반아동의 급식비에 대한 수요자부담가능성을 제시했으나, 급식비의 경우에는 최근 공교육 체계에서 무상급식이 확대되는 추세와 더불어 지역아동센터에도 지방자치단체에서 대부분 급식비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급식비를 별도로 이용자부담으로 별도 징수하는 것에 대해서는 논의하지 않는다.

앞서 이용대상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서비스 이용료는 차상위 계층 및 기초생활수급대상 아동과 2011년 현재 무상보육수혜대상인 가구평균소득 하위 70%이하까지 무료 이용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보이며, 이 경우 가구 소득 상위 30%에 해당되는 아동들에게만 서비스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수요자부담방식으로 시설을 이용하게 될 경우 취약계층 아동수의 감소 혹은 이용기회의 제한 등이 우려되고 있는 바, 가구소득 상위 30%이상 일반가정 아동의 비율이 전체 지역아동센터 이용아동 비율 중 최대 30%~40%를 초과하는 것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²⁰⁾. 현재 지침상으로도 저소득 및 취약계층 아동이 최소한 60%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용료부담 방식을 적극 확대할 경우 이 비율을 축소하는 것에 대해서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③ 비용책정 : 지역아동센터 이용료 징수

지역아동센터의 비용책정은 방과후학교의 자유수강권과 같은 프로그램 단위별이 아닌 보육시설이 용료와 같은 지역아동센터 이용료에 대한 비용을 징수하는 것을 우선 고려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조사과정에서 수요자부담 운영방식의 단계적 도입방안으로 프로그램이나 서비스별 이용료부담에

대한 선호도 일부 나타나기도 했지만, 오히려 이 경우 개별 프로그램별로 전문가를 교사로 초빙해야하기 때문에 지역아동센터 운영에 추가비용이 발생 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도 있었다. 또한 프로그램 단위별 이용료 징수는 부모들에게 경제적 부담이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지역아동센터가 질적으로 우수한 프로그램제공이라는 명목 하에 오히려 사교육화를 촉진할 수 있어 지역아동센터의 운영 목적을 훼손할 수 있다.

반면, 프로그램이 아닌 지역아동센터 이용료에 대한 비용징수 방식은 지역아동센터 프로그램이 아동의 발달에 적합한 적절한 수로 유지되는 것을 억제시키는 부정적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 이용 아동 수는 많은데 반해 제공되는 프로그램을 제한하여 지역아동센터 수업을 늘리고 프로그램 진행비용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보육의 경우 어린이집 특별활동 프로그램의 과다공급과 추가 비용부담의 감소 그리고 보육예산 등의 균형을 위해서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특별활동프로그램의 수와 비용 상한선을 규정하고 있다.

지역아동센터는 아동의 최상의 발달을 목적으로 활용 가능한 예산 범위 내에서 프로그램의 수 및 종류를 적정 수준에서 계획할 수 있어야 한다. 프로그램 위주의 지역아동센터 운영은 지양되어야 하지만 제공되는 프로그램의 질적 수준도 담보되어야 이용자의 비용 부담을 논의할 수 있다.

④ 소요예산 및 적정이용료 산정 방식

지역아동센터의 이용료는 지역아동센터 예산과 표준 이용비용 등을 기초로 책정되어야 한다. 현재 정부지침상 지역아동센터는 일반아동에 한해서 아동 1인당 월 5만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2011년 5월 기준 지역아동센터당 평균이용료 월 30,027원이다²¹⁾. 유사방과후 서비스 사례를 보면, 초등돌봄교실은 일반 가정 아동의 경우 월 6만~10만원, 이용료를 받고 있는 청소년방과후 아카데미의 경우는 200,000~245,000원 수준이다. 전문가와 시설장은 이용료부담이 가능한 계층을 유입하고 서비스 혹은 프로그램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있어 월 5만원은 적정 이용료수준이 아니라고 보는 의견도 많았다²²⁾. 그러나 지역아동센터의 시설, 운영 규모, 표준이용료, 그리고 민간 후원액이 전체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율 등 지역아동센터 운영에 따른 예산의 기본 자료가 산출되지 않았고, 센터마다 예산운영²³⁾을 달리할 수 있는 상황에서의 적정이용료 산정에 어려움이 있으며, 무엇보다

21) 2011년 현재 센터 이용료를 수납하고 있는 곳은 6.9%(262개소)였으며, 한 센터당 이용료를 수납하는 평균 아동수는 8.1명, 1인당 평균 이용료는 20,027원이다(보건복지부-지역아동센터 중앙지원단, 2011).

22) 적정이용료에 대해 설문조사에 응답한 센터장중 50%가 '3만원~5만원', '6만원~10만원'의 순으로 응답하였다.

23) 2011년 정부보조금을 지원받고 있는 센터는 3,324개소로 전체 87.4%이며, 지원받지 못하고 있는 센터는 478개소 (12.6%)이다(보건복지부-지역아동센터 중앙지원단, 2011).

19) 전문가의견조사에서도 가구평균소득액의 상위 30%~50%까지 다양한 응답이 있었으나, 과반수 이상의 전문가들이 30% (현 보육시설 수준)가 적정하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20) 본 연구를 위한 전문가 조사결과 일반아동과 저소득 취약계층 아동의 비율을 규정할 필요가 있으며 대략 일반아동의 센터 이용은 30%~40%로 제한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표준이용료가 산출되지 않은 상태에서 적정 이용료를 추계하는 것은 더욱 무리가 있다.

따라서 본 장에서의 수요자부담방식의 지역아동센터(재정혼합형)의 적정 이용료 산정을 위해서 먼저 일반형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와 같이 직접수혜부분(강사료, 급식비)에 대해서만 비용부담을 고려하고, 공동경비적 성격인 인건비와 운영비는 정부지원을 전제로 하고자 한다. 이와 관련하여 본 연구의 전문가의견조사에서도 정부지원과 이용자의 비용부담이 혼합된 매칭펀드방식일 경우에는 시설관련 비용과 인건비 및 운영비는 정부부담으로 하고 서비스 이용료(사업비)를 수요자가 부담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들이 제시된 바 있다.

지역아동센터별로 제공하는 프로그램과 서비스의 종류와 개수에 따라 차이가 크고, 또 건물이나 시설들의 인프라에 따른 비용(임대료 등)차이가 지방자치단체나 지역에 따라 크기 때문에 이를 각 항목별로 정확하게 산정해 포함시키기 어렵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일단 현실 가능한 적정이용료를 파악하기 위해, 지역아동센터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을 유형별로 구분하여 이용료를 산정하고자 한다. 지역아동센터 운영프로그램은 <표Ⅲ-37>에서 보는 바와 같이 크게 기본 프로그램과 특화 프로그램과 나눌 수 있다.

표 Ⅲ-37 지역아동센터 운영프로그램

구 분		세 부 내 용
기본 프로그램	보호프로그램	아동보호, 일생생활지도, 급식제공 위생지도 등
	교육프로그램	학교생활지도, 숙제지도, 예체능 교육
	놀이와 오락	문화체험, 캠프, 놀이활동 등
특화 프로그램	보호자와 지역사회 연계	가정방문, 상담, 지역사회 자연연계, 사례관리 등
	주말·공휴일 프로그램	주말보호, 주말에만 참여가능한 문화프로그램과 체험학습 제공
	가족기능강화 프로그램	아동양육·기술의사소통 증진, 부모집단프로그램, 부모교실, 가족성장교실 등
	야간보호프로그램	저녁 늦은 시간의 아동 보호 및 과제지도, 상담 등 실시

※출처 : 보건복지부·지역아동센터 중앙지원단, 2011

지역아동센터 중앙지원단에 실시한 최근 실태조사결과에 따르면, 전체 지역아동센터에서 가장 많이 실시하고 있는 세부 프로그램으로는, 교육프로그램 중 학습지도 3,711개소, 숙제지도 3,658개소, 안전교육 3,633개소, 급식 3,631개소, 아동상담 3,617개소 등으로 나타나 대부분의 센터에서 급식, 학습지도와 숙제지도등의 프로그램은 기본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많은 지역아동센터에서 교육프로그램 중에서는 학습장애지원, 학습부적응지원, 미술교육,

아동정서지원에서는 가족기능강화, 사례관리, 심리·정서치유프로그램 등 비교적 전문적인 성격의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센터는 상대적으로 적게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기본적인 돌봄과 급식을 중심으로 한 보호프로그램과 학습숙제지도등 기초적인 교육프로그램만을 제공하는 경우를 ‘기본형 지역아동센터’(가칭)로, 그리고 위에서 제시한 프로그램 중 많은 지역아동센터에서 운영인력과 비용의 문제로 많이 실시하고 있지 않은 다양한 전문적인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시설을 ‘종합형 지역아동센터’(가칭)로 구분하여 시설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별로 대략적인 운영비를 파악하고 또 이에 다른 이용료를 아래와 같이 살펴보았다.

(2) ‘기본형 지역아동센터’ 운영비와 이용료

① 연/월간 운영비

‘기본형 지역아동센터’ 모형의 운영비를 산정을 위한 전제조건으로, 현재 많은 센터의 이용아동수가 10인~29인인 것을 감안하여 이 경우 필요한 최소 정규인력인 시설장 1명, 생활복지사 1명을 운영인력²⁴⁾으로 하고, 이용 아동수는 20인~29인을 전제로 한다. 무엇보다 종사자의 인건비를 어떤 기준으로 할 것인가가 매우 중요한데, 2011년 현재 지역아동센터 종사의 월평균급여는 시설장 1,043,054원, 생활복지사 1,009,167원으로 백만원 내외인 것으로 나타났다(보건복지부·지역아동센터 중앙지원단). 이는 2011년도 사회복지직 공무원이나 사회복지직관보다 급여수준이 낮은 사회복지 생활시설 종사자 급여 기준과 비교해 봐도 원장 2,518,000원(10호봉 기준), 생활복지사 1,755,000원(5호봉기준)과 비교할 때 매우 낮은 수준으로, 지역아동센터의 안정적인 운영과 질적 서비스 개선을 위해 인건비는 최소한 사회복지생활시설 종사자 수준으로 산정할 필요가 있다. 물론 장기적으로는 사회복지관 수준으로 임금이 조정되어야 하며, 이를 통해 지역아동센터에 전문적인 인력의 안정적인 수급이 이루어질 때 지역아동센터의 장기적인 발전이 가능하다. 그러나 수요자부담방식의 지역아동센터의 경우 인건비의 상승은 곧 전체 운영비와 이에 따른 일반 아동이 부담해야 할 이용료의 상승을 가져오기 때문에 본 연구의 수요자부담방식 지역아동센터의 운영비는 불가피하게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인건비를 기준으로 하고 또, 이에 근거하여 이용료에 대해서도 논의하고자 한다.

기본형 지역아동센터 모형과 관련하여, 본 연구를 위해 방문한 지역아동센터 중 시설의 규모와 인력으로 인해 다양한 프로그램과 서비스를 제공하지는 못하지만, 제한된 조건에서 방과후 보호기능과 급식제공 및 학습지도 등의 지역아동센터의 주요 기능을 지역사회내에서 충실히 담당하고 있는

24) 현재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침상 상근종사자 수를 2인을 전제(이용아동수:10인~29인)로 하고 있으나, 현장에서 호소하고 있는 업무부담을 고려할 때 향후 적정 상근종사자 수에 대한 재산정이 필요하다.

곳의 예산운영 사례를 참고하였다.

표 III-38 '기본형 지역아동센터' 연간 운영비 추산(종사자 2인/ 아동수 29인기준) (단위: 원)

과목			(연간)	산출근거
관	항	목	예산액	
사무비	인건비	급여	51,276,000	센터장(10호봉) 2,518,000원×12개월 생활복지사(5호봉) 1,755,000원×12개월
		사회보험	4,260,000	급여의 8.32%
		퇴직적립금	4,272,000	총급여액의 1/12
		제수당	4,273,000	명절수당(봉급액의 50%씩 연2회)
	소계		64,081,000	
	업무추진비	기관운영비	240,000	유관기관회의비 20,000원×12개월
		회의비	200,000	후원회회의 50,000원×4회
	소계		440,000	
	운영비	여비	200,000	출장비 10회×20,000원
		수용비 및 수수료	840,000	사무용품/소모품비 50,000원×12개월 수수료/우편료 20,000원×12개월
		공공요금	3,000,000	통신비(전화·인터넷) 50,000원×12개월 전기요금 100,000원×12개월 상하수도·도시가스 100,000원×12개월
		제세공과금	550,000	아동상해보험료 년1회×150,000원 화재보험료 년1회×400,000원
		차량비	1,900,000	주유대 100,000원×12개월 보험 년1회×700,000원
	소계		6,490,000	
사업비	사업운영비	프로그램 진행비	9,940,000	강사료 300,000원×2인×12개월 학습·예체능 프로그램(영어, 미술 주 2회) 문화체험 29명×5,000원×12개월 여름캠프·기타행사 1,000,000원
		교재교구 구입비	3,000,000	교재·교구비 150,000원×12개월 도서구입비 100,000원×12개월
	급식비	급식비	30,450,000	3,500원×29인×25일×12개월
	소계		43,390,000	
재산 조성비	시설비	시설비	1,000,000	시설 개보수비 년2회×500,000원
		시설장비 유지비	500,000	년5회×100,000원
소계		1,500,000		
예비비	예비비	예비비	500,000	예비비
	소계		500,000	
예산총계			116,401,000	(급식비 제외 시 85,951,000원)

지역아동센터의 운영매뉴얼이나 지침상에는 다양한 예산사용 내역들이 제시되어 있으나, 이들 시설의 경우 제한된 예산으로 인해 일부 내역(회의비, 재산조성비 등)에는 예산편성을 아예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들 센터들의 사례와 지역아동센터 운영매뉴얼상의 지침 등을 고려하여 20인~29인의 이용아동수인 '기본형 지역아동센터'의 연간 운영비를 산정해보면 <표 III-38>와 같다.

각 항목별로 월별 소요예산을 일목요연하게 살펴보기 위하여 따로 정리한 <표 III-39>를 보면, 월평균 대략 6백 7십만원의 비용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난다. 급식비의 경우 지자체에서 이용아동수에 맞추어 금액을 지원하고 또 그 금액은 오로지 급식에만 사용가능하기 때문에 이 월 운영비 추산에는 포함시키지 않았다.

표 III-39 '기본형 지역아동센터' 월 운영비 추산(종사자 2인/ 아동수 29인 기준) (단위: 원)

예산과목		금액	내역
사무비	인건비	5,340,080	급여(센터장, 생활복지사), 사회보험, 퇴직적립금, 수당
	업무추진비	36,670	회의비
	운영비	540,830	여비, 수용비 및 수수료,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사업비*	사업운영비	1,078,000	프로그램 진행비(학습·문화체험 등), 교재교구 구입비
재산 조성비	시설비	125,000	시설보수비, 시설장비 유지비
예비비	예비비	41,670	예비비
예산총계		7,162,250	-

* 급식비 제외

② 이용료 산정

이 비용에 대해 이용아동수를 대입하여 산정하면 1인당 소요비용은 247,000원(29인 이용 기준)~358,100원(20인 이용 기준)이 된다. 이비용을 29인 이용아동수를 기준으로 앞서 조사결과를 따라 일반아동 이용비용을 40%로 적용하여 1인당 이용료를 산정하면(60%의 저소득층 아동의 이용료는 정부 부담 전제) <표 III-40>와 같다.

표 III-40 재원에 따른 '기본형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2인/ 아동수 29인 기준) 1인당 월 이용료 (단위: 원)

구분	재원 ²⁵⁾	월 평균 소요예산	일반/저소득아동 이용 비율	아동수	1인당 부담 비용(월)
전체	-	7,162,250	100%	29명	247,000
저소득층 아동	정부지원금	3,500,000	50%~60%	14명~17명	-
일반아동	이용자부담	3,662,250	40%	12명	305,200
			50%	15명	244,150

저소득층 아동의 이용료는 최소한 현재수준의 정부지원액이 담보된다고 할 때(10인~29인기준:

3백5십만원), 일반아동인 12명의 경우 1인당 이용료 부담은 약 3십만원 수준이다. 그러나 이 비용은 센터장과 전문가의견조사결과 현실적으로 가능하다고 보는 최대 10만원의 서비스이용료에 비해 3배의 큰 부담으로, 더구나 기본형 지역아동센터로서의 제공하는 프로그램과 서비스의 한계를 고려할 때, 현실적으로 매우 큰 금액이라고 볼 수 있다. 가령 일반아동비용을 50%로 늘린다고 해도 그 비용은 24만원대로서 일반아동비용을 확대한다고 해도 1인당 비용에는 큰 차이가 없다.

만약 본 연구의 조사결과를 반영하여 최대 10만원으로 이용료를 고정하여 역산한다면, 일반아동 12명 기준(일반아동 이용비용 40%)으로 120만원의 수입만 발생하므로, 이는 현재 정부지원금액 3백5십만원에서 월 6백만원 정도로 증액될 필요가 있음을 의미한다. 이 금액은 인건비에 상응하는 액수인데 다른 어떤 항목보다도 이 정도 수준의 인건비만이라도 안정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면, 지역아동센터가 기본적인 기능을 충실히 이행하는데 크게 기여할 수 있다.

기본형 지역아동센터는 기존의 지역아동센터가 거의 없는 지역에서 프로그램과 서비스 수요를 파악하기 어렵거나 단계적으로 사업을 확대하기 전 시범사업과 같은 형식으로 운영될 수 도 있다. 그러나 다양한 프로그램과 서비스에 대해 비용을 부담하기 어려운 상대적으로 저소득층 아동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에서 운영될 수 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일반아동이라고 하더라도 많은 경우 사교육비 부담으로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고자 할 수 있기 때문에, 높은 이용료는 오히려 서비스가 매우 필요할 수 있는 이들 아동의 접근을 억제할 수 있음을 충분히 고려되어야 한다.

(3) '종합형 지역아동센터' 운영비와 이용료

① 연/월간 운영비

지역아동센터들이 다양한 프로그램과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지역사회내 아동보호와 건강한 발달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대부분의 센터에서는 예산과 인력의 한계로 인해 '기본형 지역아동센터' 수준으로 운영되기도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복지기능이 더해진 지역아동센터에 일반아동이 많이 확대된다고 할 때 원래의 기능을 더욱 강화하고 확대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한 '종합형 지역아동센터'의 운영에 대해 살펴보고 또 이에 따른 이용료에 대한 논의를 하고자 한다.

먼저 '기본형 지역아동센터'와 '종합형 지역아동센터'가 차이를 보이는 항목을 살펴보면(<표 III-41> 참조), 종합형 시설에는 프로그램과 서비스 내용면에 있어 타 유사 방과후 서비스를 참조하여

(방과후학교,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교육 및 문화 프로그램의 종류와 시간을 확대하였다.

표 III-41 지역아동센터 운영형태(기본형/종합형)에 따른 항목별 차이(아동수 29인 기준)

항목		기본형 지역아동센터	종합형 지역아동센터	비고
상근종사자 수		총 2명 (시설장 1, 생활복지사 1)	총 3명 (시설장 1, 생활복지사 2)	주말프로그램 운영·관리 및 상담·사례관리 전담인력 추가
프로그램 · 서비스	학습	1 강좌, 주 2회	2 강좌, 주 3회	강좌 및 횟수 추가
	예체능	1 강좌, 주 2회	3 강좌, 주 2회	강좌 추가
	문화체험	월 1회	월 2회	횟수 추가
	전문상담 사례관리	—	전문상담(놀이치료 포함) 부모교육, 사례관리	프로그램·서비스 추가
	지역연계	—	지역연계 프로그램	
기타 변동사항	특별행사	—	여름캠프, 종합발표회 등의 특별행사 횟수 증가	사례관리, 지역연계프로그램 운영 등에 따른 회의 증가 종합형 시설 이용을 위한 원거리 거주 아동위한 차량 이용 증가 프로그램 및 서비스 증가에 따른 추가 사항
	—	—	회의 개최 횟수 증가	
	—	—	차량운행 증가	
	—	—	도서구입, 교재교구비 확대	
	—	—	직원교육 추가	
기타 변동사항	—	—	자산 취득비(컴퓨터 등) 추가	
	—	—	자산 취득비(컴퓨터 등) 추가	

또한 기존에 계속 미진한 것으로 지적되었던 사례관리를 보다 강조하였고, 이와 관련하여 놀이치료를 포함한 전문상담과 부모교육, 직원교육 등을 포함시켰다. 또한 주 5일제 실시에 따른 주말과 공휴일 프로그램 운영·관리와 사례관리를 전담해야 할 추가 인력의 필요성을 고려하여 생활복지사의 수를 늘렸지만, 이 역시 기본형 지역아동센터와 마찬가지로 업무량에 비해 충분한 숫자로 보기 어렵다. 이렇게 프로그램 및 인력의 증가로 다른 항목에서도 변동이 있는데, 이러한 기본형 지역아동센터와 종합형 지역아동센터의 내용과 예산항목 등에서의 차이는 아래표에서 더욱 상세히 살펴볼 수 있다.

위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기본형 지역아동센터와 차별화된 종합형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연간 운영비를 대략적으로 추산해보면 <표 III-42>와 같다.

25) 민간후원액과 공동모금회 지원액 등이 지역아동센터의 운영비에서 차지하고 있는 정도가 센터별로, 또 시기별로 차이가 크기 때문에, 이렇게 안정적이지 않은 수입원을 적정이용료산정에 포함시키기 어렵다.

표 III-42 '종합형 지역아동센터' 연간 운영비 추산(종사자 3인/ 아동수 29인 기준) (단위:원)

과목			(연간)예산액	산출근거	
관	항	목			
사무비	인건비	급여	72,336,000	센터장(10호봉) 2,518,000원(월)×12개월 생활복지사(5호봉) 1,755,000(월)×2인×12개월	
		사회보험	6,018,000	급여의 8.32%	
		퇴직적립금	6,028,000	총급여액의 1/12	
		수당	6,028,000	명절수당(봉급액의 50%씩 연2회)	
	소계		90,410,000		
	업무추진비	기관운영비	480,000	유관기관회의비 20,000원×12개월×2회	
		회의비	200,000	후원회 회의 50,000원×4회	
	소계		680,000		
	운영비	여비	400,000	출장비 년 10회×20,000원×2인	
		수용비 및 수수료	840,000	사무용품/소모품비 50,000원×12개월 수수료/우편료 20,000원×12개월	
		공공요금	3,000,000	통신비(전화·인터넷) 50,000원×12개월 전기요금 100,000원×12개월 상하수도·도시가스 100,000원×12개월	
		제세공과금	550,000	아동상해보험료 년1회×150,000원 화재보험료 년1회×400,000원	
		차량비	3,100,000	주유대 200,000원×12개월 보험 년1회×700,000원	
	소계		7,890,000		
사업비	사업운영비	프로그램진행비	23,480,000	교육 (학습,예체능)	주요과목강사료 300,000원×2인×12개월 (영어, 수학 등 주요교과 각 주 3회) 예체능강사료 200,000원×3인×12개월 (음악, 미술, 체육 등 프로그램 주 2회)
				문화 (놀이와 오락)	문화체험 29명×5,000원×2회×12개월 (영화·연극·스포츠관람, 박물관 등)
				상담· 사례관리	전문상담(놀이치료포함) 400,000원×12개월 부모교육 강사료 100,000원×2회 사례관리 회의비 50,000원×12개월
				지역사회연계	지역연계 프로그램 100,000원×12개월
		교재교구 구입비	4,800,000	도서구입비 100,000원×12개월 교재·교구비 300,000원×12개월	
		특별행사	3,000,000	여름캠프, 종합발표회, 평가회, 캠프행사보조인력	
	기타사업비	400,000	직원교육비 년 2회×100,000원×2인		
	급식비	급식비	30,450,000	3,500원×29인×25일×12개월	
	소계		62,130,000		
재산조성비	시설비	시설비	2,000,000	시설 개보수비 년2회×1,000,000원	
		자산취득비	1,000,000	컴퓨터 1대 1,000,000원	
		시설장비,유지비	500,000	년5회×100,000원	
	소계		3,500,000		
예비비	예비비	예비비	1,000,000	예비비	
	소계		1,000,000		
예산총계			165,610,000	(급식비 제외 시 135,160,000원)	

전체적으로 생활복지사 한명이 더 추가되고, 프로그램에서 교육 및 문화 프로그램의 종류와 시간이 확대되면서 예산이 많이 증가되었다. 특히 추가된 프로그램 중 전문상담(놀이치료 포함)이나 부모교육, 사례관리(사례관리를 위한 계획수립부터 평가까지 일련의 관련 회의 포함), 지역사회연계 프로그램 지원, 여름캠프나 특별행사 비용까지 기본형 지역아동센터의 사업비에 비해 3배 이상의 예산이 필요하게 되었다. 이외에도 사례관리와 지역사회연계를 위한 회의와 출장 등의 증가로 회의비와 여비가 더 증가하게 되었고, 또 원스톱서비스(one-stop service)로서 돌봄, 보호, 급식, 학습프로그램, 문화체험과 상담까지 다양한 모든 서비스를 제공하는 종합형 지역아동센터를 원거리에서 이용하는 아동을 고려하여 차량운행비도 증가하게 되었다.

이러한 종합형 지역아동센터의 운영비와 내역을 월단위로 간단하게 살펴보면 <표 III-43>와 같이, 기본형 시설에 비해 약 2배의 운영비가 소요되게 됨을 알 수 있다(급식비 제외). 이 종합형 지역아동센터가 만약 청소년까지 포함하여 프로그램과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면, 그리고 장애아동도 포함되어 운영된다고 할 때, 그 연령별, 과정보, 그리고 특수이용대상에 따른 추가적인 비용(수준별 프로그램제공, 특수교사 등 별도 전문인력 채용·활용 등)이 발생이 더욱 발생하게 되기 때문에 여기서 제시한 운영비는 최소한으로 볼 수 있다.

표 III-43 '종합형 지역아동센터' 월 운영비 추산(종사자 3인/ 아동수 29인 기준) (단위:원)

예산과목		금액	내역
사무비	인건비	7,534,170	급여(센터장, 생활복지사2인), 사회보험, 퇴직적립금, 수당
	업무추진비	56,670	각종 회의비
	운영비	657,500	여비, 수용비 및 수수료,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사업비*	사업운영비	2,640,000	프로그램 진행비(학습, 예체능 등), 교재교구 구입비
재산조성비	시설비	291,667	시설보수비, 시설장비 유지비
예비비	예비비	83,333	예비비
예산총계		11,263,340	

* 급식비 제외

② 이용료 산정

위의 <표 III-43>의 월 단위 소요비용을 이용아동 수(29인 기준)를 고려하면, 1인당 월 388,340원의 비용이 산출되며, 2011년 기준 정부지원금인 월 약 3백 5십만원(29인 미만시설)의 경우 9명 정도(30%)의 소요비용에만 해당된다. 만약 이 지역아동센터에 저소득이나 취약계층가정의 자녀가 아닌 일반가정의 아동만 100%이용하게 된다면 1인당 이용료는 380,000원 상당이 되겠지만, 정부지원인 3,500,000원이 포함된다면 1인당 이용에 따른 소요비용은 267,000원 선이 된다(<표 III-44>참조).

표 III-44 재원에 따른 '종합형 지역아동센터' 1인당 월 이용료(아동수 29인 기준) (단위: 원)

구분	재원	월 평균 소요예산	일반/저소득아동 이용 비율	아동수	1인당 비용(월)
전체	-	11,263,340	100%	29명	388,390
저소득층 아동	정부지원금	3,500,000	30%	9명	-
일반아동	이용자부담	7,763,340	40%	12명	646,950
			50%	15명	517,556
			70%	20명	388,167
			100%	29명	267,700

만약 기본형 지역아동센터에서처럼 일괄적으로 일반아동이용비율을 40%로 정하게 된다면, 이 40%~50%의 아동이 저소득층 아동의 이용료까지 일부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지원금이 증액되지 않는다면, 저소득층 아동의 경우 일부 프로그램이나 서비스에 참여하기가 어렵게 될 수도 있으며, 이는 동일 시설을 이용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가장 우려되는 문제이다.

이용아동수가 29인인 시설에서 약 40%~50%의 일반아동이 이용하게 된다면, 아동 1인당 비용이 월 517,556원~646,960원이다. 정부지원금으로는 저소득층 아동 9명의 비용만 충당이 가능하다고 할 때는 지역아동센터 이용아동의 30%에 해당하는 비용만 담당하게 된다. 나머지 20명(70%)의 일반아동들에게 소요되는 비용은 1인당 월 388,340원이다. 그러나 이 경우 일반아동의 이용비율이 70%가 되기 때문에, 저소득층 아동에 대한 정부지원금이 확대되지 않는 한 저소득층 아동들은 상대적으로 적은 수밖에 이용하지 못하게 되고, 이는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종합형 지역아동센터이용에 있어 저소득층 아동이 배제될 수 있다는 우려를 가져오게 된다. 따라서 이 운영비 규모가 훨씬 큰 종합형 시설의 경우 저소득층아동과 일반아동의 이용비율과 이에 따른 운영비 산정에 있어 다각적인 고려가 필요하다.

현재 1인당 소요비용인 월 388,340원도 지역아동센터 일반아동 이용자에게 부담시키기에는 비현실적으로 큰 금액일 수 있다. 물론 종합형 지역아동센터는 방과후에 필요한 교과와 예체능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고, 더 나아가 필요한 경우 전문상담을 포함한 복지서비스를 한곳에서 one-stop service로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무엇보다 이렇게 다양한 프로그램과 서비스에 참여하면서, 방과후에 여러 학원을 전전하면서 이동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안전하게 그리고 가정과 같은 형태의 안정된 장소에서 방과후 시간을 보낼 수 있다는 점에서 부모들의 편안하게 자녀를 보낼 수 있다는 것도 매우 큰 장점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장점을 부각시키면서 정부지원도 좀 더 확대함으로써, 이용료를 보다 현실화 시킨다면 더 많은 유인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앞서 29인 이용 기본형 지역아동센터의 경우는 정부지원금액을 현재의 3백5십만원에서 5백만원 선으로 증액할 경우 일반아동 이용료는 10만원선으로 조정하는 것이 가능했다. 그러나 이 종합형의 경우는 보다 더 큰 정부지원의 확대가 필요하게 된다. 예를 들면 앞서 현장의 센터장과 전문가의견조사에서 이러한 재정혼합형 센터운영방식에서 인건비와 운영비는 정부지원으로 하되, 직접적으로 이용자가 수혜를 받게 되는 사업비에 한해서 이용자 부담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많았는데, 사업비를 센터이용 아동의 40%~50%의 일반아동이 부담한다고 할 때 1인당 월 176,000원~220,000원이다(<표 III-45>참조). 앞의 유사 방과후서비스 사례에서도 일반형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운영상황을 보면, 직접수혜부분(강사료 등)은 이용자 부담으로 하되, 공통경비적 성격(인건비와 운영비)은 정부지원을 받고 있다(여성가족부, 2011).

표 III-45 '종합형 지역아동센터'의 사업비에 대한 1인당 이용료(아동수 29인 기준) (단위: 원)

구분		재원	일반/저소득아동 이용 비율	아동수	1인당 비용(월)
사업비 (2,640,000)	전체	—	100%	29명	91,000
	저소득층 아동	정부지원금	50%~60%	15~17명	—
	일반아동	수요자부담	40%	12명	220,000
			50%	15명	176,000
			합계	100%	29명

따라서 이러한 종합형 지역아동센터의 경우 이용료부담이 크다는 것을 고려할 때 직접 수혜부분만 이용료를 고려한다면 150,000원~200,000원 선으로 이용료를 생각해 볼 수 있다. 현재 이 종합형 지역아동센터의 사업비를 제외한 금액은 29인 기준 정부의 현 지원액의 2배가량이 되기 때문에 이 경우 정부의 부담과 이용자의 부담이 모두 높아진다. 이 비용은 일반형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의 월 이용료인 200,000원~245,000원보다는 낮은 하지만, 현재의 지침 상 일반아동에게 정수하게 되어있는 5만원에 비하면 매우 큰 비용이다. 또한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의 경우 일반가정 청소년에게 이용료를 받던 기존의 일반형이나 혼합형의 방과후아카데미가 줄어드는 대신, 정부로부터 전체적으로 예산지원을 받고 저소득층 청소년을 이용대상으로 변경하는 것을 볼 때, 지역아동센터의 역할과 기능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이용료를 결정할 필요가 있다.

이용료산정과 관련하여 과거 가구소득수준에 따른 보육료지원(2010년 기준)처럼 가구소득기준(국

민간강보험료 등에 따른)에 따라, 예를 들면 아동의 가구소득하위 50%, 60%, 70%로 비율을 기준으로 이용료 지원 및 일반아동의 이용료 부담률을 조정하는 것을 고려해볼 수 있다. 그러나 법정저소득층과 차상위계층 아동이 일정 비율, 최소한 30%를 이용하고, 일반아동이 70%를 이용한다고 하더라도 현상태에서 정부지원이 더 추가되지 않는다면 1인당 이용료는 30만원~40만원의 고비용으로 산정될 수밖에 없으며, 결국 일반아동의 이용비율이나 소득기준에 따른 이용료 부담보다는 정부의 기본운영비 지원액 수준에 따라 이용료산정결과에 큰 폭의 차이를 보이는 것을 알 수 있다.

본 연구를 위한 조사과정에서 현장의 시설장과 관련 전문가들이 적정이용료로 보고 있는 5만원~10만원이라는 금액은 지역아동센터의 예산규모나 예산규모 대비 1인당 아동에 대한 지원 규모라기보다는 우선적으로 서비스 이용에 따른 책임을 강화하고 일반아동의 지역아동센터 유입장치로서 적절한 규모의 액수라고 판단하였기 때문으로 보인다. 또한 이는 현재 지역아동센터와 가장 유사한 형태의 방과후 돌봄서비스인 초등돌봄교실이나 엄마품 온종일 돌봄교실의 경우 이용료가 프로그램을 위한 실비이거나 월 3만원~5만원 수준임을 고려할 때, 실제 인건비와 운영비, 사업비로 소요되는 모든 비용을 고려하여 이용자부담으로 하기에는 오히려 지역아동센터의 문턱을 더 높게 하는 것으로 비춰질 수 있어 시설에서도 더 부담을 가질 수 있다.

많은 지역아동센터에서 공동모금회나 기업의 복지재단이나 후원금등을 통해 부족한 재정을 보완하고 예산범위내에서 가능한 프로그램과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노력한다. 따라서 실제 운영재원은 여러 채널을 통한 추가 지원액까지 포함되겠지만 이러한 지원은 비정기적인 별도예산으로 볼 수 있으며, 또 시설마다 이에 대한 격차가 크기 때문에 시설의 표준운영비나 적정이용료 산정에 포함시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그러나 향후 지역아동센터의 정부지원과 관련해서 민간으로부터의 후원금 규모와 다양한 재원들에 대한 정확한 파악을 필요하다.

③ 이용료 결정시 고려사항

제한된 정부예산과 또 이용자에게 현실적으로 징수 가능한 금액을 기준으로 적정이용료를 산정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지만, 원칙적으로 일반아동의 지역아동센터 이용료 수준을 보다 합리적·현실적으로 결정하기 위해서는 첫째, 보육분야에서의 영유아의 보육시설 이용을 위한 연령별, 가구소득별 '표준이용 단가 책정'(예, 김현숙, 2008, 2009)과 같이,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의 연령별(적어도 교급별 구분 필요, 초등학교 저학년생, 초등학교 고학년생, 중학생 등) 아동 1인당 '표준이용 단가' 책정을 위한 장·단기적 접근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와 운영비 및 이용료 접근방식과 같이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수에 따른 운영비와 이에 따른 이용료 산정이 아닌, 먼저 1인당 표준

단가를 결정한 후 운영비를 산정하는 방향으로의 접근이 필요해 보인다. 지역아동센터 이용과 관련한 아동 1인당 표준비용 단가가 산출된다면 국·공립지역아동센터뿐 아니라 수요자가 비용을 부담하는 다양한 형태의 지역아동센터 도입의 이용료 산출에 있어 보다 정확한 근거가 되며, 또한 다음 장에서 논의될 전자바우처 시스템을 위한 체계적인 근거가 된다. 보육영역에서는 이를 위하여 경제학적 접근을 통한 보육료 지원체계개편과 표준보육 산정 및 차등보육료 등에 대한 심도 깊은 연구를 기반으로 바우처 제도 도입 등 보육정책을 수립하여 왔다(김현숙, 2008, 2009).

둘째, 민간후원액 등 지역아동센터 자체 기금 조성 및 활용에 대한 지침이 필요하다. 기금 조성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기금의 규모를 파악하고 이의 객관적인 사용을 위해서 민간후원액의 공개와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지역아동센터에 유입되는 민간후원액의 규모를 산출하고 시설규모 그리고 지역에 따라 어떠한 형태의 편차가 존재하는 지 분석되어야 한다. 현재 지역아동센터의 후원금도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관리하도록 하고 있고, 또 지자체에 후원금의 수입·사용 결과보고, 후원금 영수증 발행, 후원금 전용계좌 개설 등을 하도록 하고 있으나, 일반아동 이용확대와 이들에게 대한 본격적인 이용료 징수가 시작될 경우, 민간후원금의 출처 및 사용내역, 용도에 대한 더욱 명확한 지침이 필요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지역아동센터를 거의 모든 아동이 무상으로 이용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일반아동의 이용료 부담은 먼저, 시설 이용에 대한 비용을 지불하는 형태가 되어야 할 것이다. 아동이 이용하는 프로그램별 비용부담방식을 도입하게 되면 부모의 이용료부담이 커질 우려가 있고 프로그램에 따른 아동의 이동 비용 확보 및 이에 따른 인력 확보 등의 문제도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 서비스 이용시설에 대한 수요자부담방식의 지역아동센터 운영이 안착된 이후 프로그램에 따른 실비를 징수하는 방안이 검토될 수 있다. 이것은 비용을 지불하는 이용자가 최고의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게 될 것이다.

(4) 재정관리

정부의 지원금과 이용자의 이용료가 함께 운영비로 사용되는 매칭펀드 형태의 재정혼합형 수요자부담방식을 도입하게 되면 이 항목의 수입 지출에 대한 지도, 감독이 보다 면밀히 이루어져야 한다. 정부의 운영비와 인건비 지원 그리고 대상아동을 통한 비용부담 등이 전제될 때 지역아동센터의 모든 예산은 객관적인 절차와 과정을 통해서 관리되어야 한다. 보육시설의 경우 모든 회계는 월별로 보육정보통합시스템을 통해 모든 회계가 관리운영되고 있다. 이 내용은 모두 지방자치체에서 컴퓨터를 통해 확인가능하며 월별 지출상황을 보육정보통합시스템에 보고할 때만 차기 월에 대한 지원을

받게 된다. 보육시설은 1년마다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지도·점검을 통해 회계관리 지침에 따라 예산이 집행되었는지를 확인받는다. 보육현장에서 회계 지출항목 지출 방식을 지방자치단체별로 규정하고 있으며, 모든 지출은 카드결제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예산 지출 항목을 지방보육정책위원회에서 결정하기도 하는데, 이를테면, 보육교사 등에 대한 수당 지급항목을 일괄 지정하여 보육시설간 편차가 없도록 하고 있다.

지역아동센터는 보육시설보다도 지배적인 민간주도 구조를 갖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간지역아동센터와 국·공립지역아동센터의 지원은 차이가 없다.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http://www.w4c.go.kr> 구. 국가 복지정보시스템)을 통해 지역아동센터의 회계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회계의 투명성을 회계관리 시스템이 보완될 수 있어야 한다. 현재 지역아동센터는 대부분 정부의 기본운영비 지원에 대해서만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에 등록하고 이외의 후원금이나 자부담 관련 회계관리는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에 전산기록하지 않아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것이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에 기록된 예산이 우리나라 지역아동센터 전체 소요 예산으로 볼 수 없는 이유이다. 한편 정부의 기본운영비 지원을 받지 않는 신설 지역아동센터의 경우 사회복지정보시스템에 예산 사용 등을 기록하지 않고 있는데, 정부지원을 받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아동복지시설로서의 공공성격의 시설의 특성을 고려할 때 효율적이고 발전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

2) 수요자부담방식 지역아동센터의 선결요건 및 보완사항

수요자부담방식 지역아동센터의 운영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현재 지역아동센터 운영과정에서 해결되어야 할 시급한 과제로 지적되고 있는 사항들이 선결되어야 한다. 본 연구과정에서 여러 조사를 통해 드러난 쟁점을 중심으로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1)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체계적 지원 및 이용료부담의 단계적 적용

그동안 지역사회 저소득·취약계층 아동을 중심으로 무료로 이용되던 지역아동센터가 본격적으로 수요자부담 운영방식을 시도하게 될 때, 이에 대한 단계적 적용이나 시범사업 등을 통한 점진적인 시도도 고려해 볼 수 있다. 또한 앞서 적정이용료 산정에서도 나타났지만, 29인 미만 시설 운영 시 소요되는 비용을 일부 일반아동(시설이용 아동의 40%정도)이 부담할 경우 그 비용은 1인당

20만원(기본형 시설)~38만원(종합형 시설) 정도로 현실적으로 큰 액수이다. 이 경우 현재의 정부지원을 더욱 확대하거나, 이용아동들에게 직접적으로 수혜가 가는 사업비만 이용료를 부담하게 한다면 기본형은 10만원, 종합형은 20만원선으로 상대적으로 현실적인 금액으로 보일 수 있다. 따라서 정부의 지속적인 지원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는데, 이를 위하여 중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지역아동센터 지원계획도 함께 수반될 필요가 있다.

본 연구과정에서 시설장, 관련전문가, 그리고 일반 학부모조사에서 비용부담이 가능한 지역아동센터 이용료로 나타난 월 5만원에서 10만원수준의 금액은 실제로는 상정적인 수준에 그치는 액수이지만, 이용료 책정에서 이러한 현실인식을 전혀 배제할 수 없다. 더구나 학부모조사 결과에서도 나타난 매우 낮은 이용료부담 가능성을 볼 때 (6만원 이상 부담 가능하다는 학부모 비율은 16.4%), 이용료 수준을 결정하는 것은 매우 신중할 필요가 있다. 수요자가 부담하게 되는 이용료 수준은 지역아동센터의 규모나, 지역사회 내 이용료부담이 가능한 일반가정의 수요, 타 유사돌봄서비스 비교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인식 등에 따라 변수가 많이 작용한다. 따라서 이러한 다양한 상황들을 고려한 장기적인 지원계획과 더불어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수요자부담방식의 단계적 적용 등을 통한 점진적인 시도가 필요하다.

무엇보다 지역아동센터가 수요자부담방식으로 운영된다고 하더라도, 맞벌이가정의 돌봄 육구뿐 아니라 사교육시장을 전전하는 아동·청소년들에게 가정의 형태에서 안전하게 보호받으며,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보편적 복지의 관점에서 정부의 큰 틀에서의 지원계획이 필요하다.

(2) 프로그램 및 서비스 향상을 위한 평가의 체계화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데 있어 이용료를 부담하는 아동에게나 무료로 이용하는 아동에게나 양질의 프로그램과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어야 한다. 본 연구의 여러 조사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지역아동센터의 프로그램과 서비스 수준의 중요성은 전문가와 일반학부모 모두가 매우 강조하고 있다. 특히 일반 학부모전화조사 시 지역아동센터 선택 시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프로그램과 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가장 높게 꼽고 있는 것을 볼 때, 일반아동의 적극적인 이용을 도모하고 지역아동센터 프로그램과 서비스 질을 담보하기 위해 수요자부담방식에 대한 지역아동센터의 기능과 역할, 그리고 프로그램의 질적 수준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어야 한다. 수요자부담방식 지역아동센터의 경우 부모들에게 비용지불을 요구하는 것으로 부모들이 지불한 비용만큼 프로그램과 서비스 질이 유지, 향상되고 있는 가를 확인할 수 있는 지표를 마련하는 것은 필수적이다.

수요자부담방식의 지역아동센터 도입에 따른 평가지표에 대한 점검도 요구된다. 현재의 평가지표는 지나치게 포괄적이어서 평가과정에서 평가자의 자의적 해석이 개입될 가능성이 높다. 평가지표의

포괄성으로 인해 지역아동센터상황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불가능하고 평가결과의 객관성을 위협할 수도 있다. 모든 영역에 대해서 평가지표가 세부적인 내용을 포함할 수는 없겠으나 최소한 안전과 급식 및 간식 상황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지표가 포함되어야 한다. 2010년 지역아동센터 평가는 식단을 사용 여부와 급식비 지원을 받고 있는 지에 대해서만 조사하였다. 식자재의 유효기간과 위생 체크리스트 작성 여부 등은 중요한 평가지표가 되어야 한다. 시설환경에서 내부구조의 적절성은 안전 수준을 측정하는 것과는 다소 거리가 있다. 프로그램운영 항목에서도 누구에 의해서 무엇이 얼마나 제공되고 있고 프로그램간의 조화는 잘 이루어졌는지를 평가할 수 있도록 지표항목이 개발되어야 한다. 이외에도 문서관리에서도 예결산 운영의 전산화 등의 항목이 평가지표에 포함되어야 한다. 평가지표는 좀 더 세밀한 분석을 통해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평가지표 항목의 개선에 대해서는 2010년 전국지역아동센터 평가결과 보고서에서도 지적되었다.

특히 수요자부담방식 지역아동센터의 경우 우선적으로 평가를 의무화할 수 있어야 한다. 서비스 이용비용을 납부하는 것은 우수한 프로그램을 기대하는 것으로 평가의 의무화를 통해서 지역아동센터 프로그램의 우수성을 확보할 수 있어야 한다. 납부된 이용료의 사용내역에 대한 평가지표, 부모참여 지표, 그리고 프로그램의 계획과 실행과정을 평가할 수 있는 지표 등도 추가되어야 한다. 이외에도 제공된 프로그램에 대한 문서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지를 평가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평가결과를 지역아동센터의 서비스 질 개선에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시설간 운영편차가 심한 지역아동센터의 현 상황에서 서비스 질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조력의 과정은 중요하다. 현재 지역아동센터 중앙지원단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는 컨설팅이 더욱 강화되고, 전문화되어 각 시설에 대한 평가결과가 궁극적으로 시설 운영을 질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어야 한다. 평가결과를 통해 해당 지역아동센터의 취약점을 확인하고,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할 컨설팅전문가를 지역아동센터 지원단을 중심으로 구성·파견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시설을 이용하는 아동에게 주어지는 프로그램과 서비스 질, 그리고 시설 운영의 개선발전에 기여할 수 있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모든 수요자부담방식의 지역아동센터가 주기적으로 평가를 받고, 그 평가결과를 공개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지역아동센터에 자녀를 보내거나 향후 시설 이용 가능성이 있는 지역사회의 학부모가 해당 시설의 평가 결과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하며, 평가결과를 운영보조금 지원 선정 자료로 활용하거나 일정수준에 미달하는 센터에 개선을 요구하는 절차를 마련하는 등 보다 적극적인 평가결과 활용방안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

(3) 지역아동센터의 필수 프로그램 및 서비스 제공 필요

아동에게 필수적으로 제공되어야 하는 기본서비스 즉 급식, 건강발달, 놀이와 학습 등의 균형잡힌 프로그램의 제공이 담보되어야 한다. 민간자율 수요자부담방식의 지역아동센터는 비용을 지불하는 부모들의 비합리적인 요구를 외면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 예컨대 부모가 일반학원처럼 학업위주의 방과후 프로그램만을 요구할 경우 이에 부응하다보면 지역아동센터는 일반 학원등과 다르지 않게 된다. 민간자율 수요자부담방식의 지역아동센터라 하더라도 프로그램 운영에 있어서 일부 자율성을 인정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지역아동센터의 정체성에 일치하는 필수 프로그램들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지역아동센터의 학습지도의 경우 대부분 숙제지도에 집중되어 있으며, 인력과 경비 등의 문제로 심화된 학습프로그램을 거나 영어, 수학 등의 학습위주의 프로그램을 제공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앞서 언급한 것처럼 학부모는 학습위주의 프로그램을 선호하며, 반면 아동은 놀이와 취미 활동에 더 많은 흥미와 관심을 보일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역아동센터는 아동의 놀이와 학습, 그리고 여가 등의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지역아동센터가 활용 가능한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하고, 이를 위해서 국·공립이나 거점센터, 또는 지역아동센터 중앙지원단 등 관계 기관 및 시설에서 지속적으로 지역아동센터에 적당한 균형 잡힌 프로그램을 공급할 수 있어야 한다.

조화와 균형을 이룬 지역아동센터 프로그램은 아동의 발달과 성취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방과 후 돌봄에서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 일부 영역에 대한 표준화된 프로그램의 제공은 기관의 공공성과 정체성을 확보하는데 필수요건이다. 더불어 이러한 균형잡힌 프로그램 제공에 대한 엄정한 평가는 일부지역아동센터에서 학부모의 선호에만 맞춘 학습위주 프로그램만을 위주로 제공하고, 아동의 전인적 돌봄과 발달을 도외시하며 지역아동센터운영을 수익사업화하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장치가 될 수 있다.

(4) 이용료 부담 유무에 따른 시설 내 낙인감과 위화감 근절

본 연구를 위한 조사과정에서 시설장과 관련전문가, 그리고 현재 지역아동센터에 자녀를 보내고 있는 학부모들로부터 일반아동의 시설 이용확대와 이용료부담과 관련해서 가장 많이 나타난 의견은 이용료 부담에 따른 일반아동과 저소득·취약계층 아동 간 낙인감이나 위화감에 대한 우려였다. 그동안 일반아동도 대부분 무료로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동안 염려할 수준의 문제는 없었지만, 이제 30%~40%라는 비율로 적지 않은 일반아동이 이용료를 부담하면서 시설을 이용하게 된다면, 이는 매우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사안이다. 대체로 위의 관계자들은 지역아동센터장이나 생활복지사의 태도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었고, 그 다음은 일반아동들로부터 이용료를

받는 방식에 관해 의견을 제시하고 있었다. 따라서 시설장 뿐 아니라 직원들에 대한 교육이 매우 중요하며, 이들의 사소한 대화나 태도를 통해 시설내에서 이용료부담 유무가 드러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또한 이용료는 아동을 통해 직접 받는 방식은 절대 허용되어서는 안 되며, 은행입금 등 간접적인 방식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만약 학부모가 방문하여 신용카드로 결제 야 하다면, 저소득층 아동들의 경우 불가피하게 전자바우처 형태의 카드로 이용료를 대신 결제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다.

(5) 우수한 인력의 배치

아동복지시설로서의 정체성에 부합하는, 지역아동센터에 적합한 프로그램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종사자로서의 자격기준이 엄격히 지켜져야 한다. 교사의 질은 프로그램의 질을 좌우한다. 생활복지교사 등의 이직률이 높은 상황에서는 절대로 좋은 교육이나 프로그램 서비스가 제공될 수 없다. 전문가조사 결과에서도 우수한 교사의 확보는 민간자율 수요자부담방식 지역아동센터의 전제가 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우수한 인력의 확보를 위해서는 합리적인 처우기준이 마련되어야 한다.

한편, 지역아동센터는 아동복지교사나 사회적 일자리 파견사업 등의 우선 대상기관이 되어 필요인력을 공급받고 있다. 그러나 이들의 아동에 대한 이해는 거의 전무하다. 지역아동센터에 파견되는 공익근무요원 등에게 아동과 방과후 돌봄 등에 대한 사전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6) 우수한 시설 환경

대부분의 지역아동센터 시설이 열악하며, 시설이나 설비가 안전하지 않은 곳도 다수이다. 정기적인 안전점검은 필수적이며 의무 이행되어야 하는데, 특히 수요자가 비용을 부담하는 지역아동센터의 시설 및 운영 기준은 궁극적으로 최소한 국·공립 시설기준을 충족시킬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수요자부담방식의 지역아동센터 선정기준은 임대시설보다는 가능한 자가시설이어야 하며, 대출금 비율이 낮을수록 선정에서 높은 점수를 취득할 수 있어야 한다. 수요자부담방식의 지역아동센터 시설 운영기준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을 간략하게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 일정규모의 지역아동센터
 - o 최소 이용 아동수 규정 마련
 - : 소규모는 이용아동의 이용료 상충요인이 될 수 있음.
- 자가 건물 혹은 임대
 - o 임대비용을 예산에서 지출하지 않도록 규정

- o 대출비율 상한선 제시
- 지하나 5층 이상의 고층에 위치한 지역아동센터 제외
- 자격을 갖춘 인력 배치
 - o 생활복지사
 - o 사회복지사
 - o 프로그램 담당 교사의 전문성
- 평가 의무화
 - o 조력 실시
- 시설에 대한 정기적인 개보수
- 예·결산 공개

(7) 관련 규정의 개발·보완

수요자부담방식의 혼합형 지역아동센터의 도입 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침 및 매뉴얼 등에 관련내용을 보완·수정해야 한다. 현재 지역아동센터 매뉴얼에 의하면 지역아동센터 서비스 이용료는 무료를 원칙으로 하면서 지역여건 및 센터별 사정 등에 의해 이용료 수납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리고 운영위원회와 보호자의 사전 동의가 있는 경우 수납하도록 되어 있다. 혼합 수요자부담방식의 지역아동센터 도입을 위해 본 연구를 위한 조사결과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소득 하위 70%이하 가구 아동은 무상 이용하는 규정을 마련하여야 하고 그 외 일반가구의 아동의 지역아동센터 이용비용에 대해서는 일정 수준의 이용료 수납을 원칙적으로 허용하는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수요자부담방식의 지역아동센터가 일반아동의 시설 이용을 명시화함으로써 지역아동센터 운영매뉴얼에 나타난 기본개념에서 취약계층 아동의 지역사회 보호 개념 실현이라는 명시는 일반아동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바뀌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를테면, 방과후 돌봄이 필요한 지역사회 아동의 보호 등이 기본 개념이 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수요자부담방식의 지역아동센터 요건을 명시할 수 있어야 한다. 예를 들면, 소득하위 70%이하 가구의 아동이 정원의 60%가 되도록 해야 한다는 규정이 우선 언급되어야 한다. 이와 더불어서 앞서 수요자부담방식의 지역아동센터 선결요건 중 ‘우수한 시설환경’에서 언급된 것 등과 같은 내용의 요건이 제시되어야 한다.

한편, 국·공립지역아동센터, 수요자부담방식의 지역아동센터 등으로 지역아동센터 유형구분이 필요하며, 이용료 징수액 및 징수방식, 사용항목 등을 명시할 수 있어야 한다. 징수비용, 결제 방식, 회계보고 절차와 과정 등이 상세하게 제시되어야 한다. 회계보고 시 지역아동센터 모든 비용이

공개될 수 있는 규정이 마련되어야 한다. 운영위원회에 부모참여를 적시하는 것도 필요하다.

(8) 다양한 서비스 유형 개발

방과후 돌봄을 주목적으로 하고 있는 지역아동센터의 운영은 서비스 이용자인 수요자의 다양한 상황 및 요구를 확인하고 이를 반영할 수 있어야 한다.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이용욕구는 정규시간이외의 시간에 더 높게 나타난다. 이용자의 수요가 있을 경우 주말 및 공휴일 운영은 적극적으로 고려되어야 하며, 특히 학교 주5일제의 전면적 시행으로 맞벌이가정 자녀의 토요일 돌봄 문제가 제기되는 있는 상황에서 정규시간의 운영은 적극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

주말 및 공휴일에 지역아동센터를 운영하려면 인력공급의 문제, 재정확보가 우선되어야 한다. 특히 교사들의 처우가 낮은 상태에서 주말과 공휴일까지 운영하기를 강제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용수요가 발생될 경우 수요자부담방식으로 정규시간외 운영을 모색할 수 있어야 한다. 프로그램 특성화도 필요한데, 그동안 지역아동센터 프로그램의 수가 지나치게 많거나 학습위주의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가 많았다. 따라서 시설장이나 생활복지교사 인력구성의 특성, 그리고 활용가능한 자원봉사자 등을 고려하여 프로그램을 특화할 수도 있다. 정부는 혼합 수요자부담방식 지역아동센터, 민간자율 수요자부담방식 지역아동센터 등에 맞는 지역아동센터 프로그램 운영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9) 지역사회 기관과의 연계

지역사회의 아동을 돌보기 위해 의료기관, 소방기관, 경찰서 등의 공공기관 뿐만 아니라 그 외 활동프로그램과 관련된 도서관, 박물관 등의 지역사회 기관과의 공적인 연계체계가 반드시 마련되어야 한다. 특히 의료기관, 소방기관, 경찰서 등은 응급상황에 대한 신속한 대처를 가능하게 할 수 있도록 응급연락체계가 갖추어져야 한다. 지역아동센터에서 아동을 돌보는 동안에 발생할 수 있는 갑작스런 응급상황에 대한 대처체계는 필수적으로 마련되어야 한다.

(10) 지역사회 인적자원을 통한 다양한 정보 제공

전문분야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부모 등을 중심으로 한 지역사회 인적자원이 지역아동센터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지역사회 관련 기관 및 개인과의 연계를 통해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들의 관심과 호기심을 충족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도 있을 것이다. 지역사회 전문인력은 지역아동센터 프로그램의 원활한 운영과 우수성을 확보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다양한 전공분야 배경을 갖춘 지역사회 인력들이 지역아동센터에 봉사자로 활동하며 그들의 전문영역에

대한 정보를 아동에게 알려주는 것은 지역아동센터의 프로그램 다양화에 기여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활동은 아동친화적인 지역사회 환경을 조성하는데도 일조한다.

(11)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낙인감 및 인식 개선 노력

지역사회의 일반아동이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고 이에 대한 이용료를 징수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인지도를 높이고, 또 기존의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낙인감과 인식을 개선시켜야 한다. 지역아동센터는 다른 방과후서비스와 사교육시장과는 다른 중요한 특징들을 많이 가지고 있다. 방과후 잦은 이동 없이 주로 해당 시설안에 머물면서, 가능하면 부모들이 일하는 늦은 시간까지 보호를 받을 수 있고, 또 학습지도와 급식 등 필수적인 서비스와 다양한 놀이나 예체능 관련 프로그램을 제공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지역아동센터의 장점에 대해서 많이 알려지지 않았으며, 그나마도 알고 있는 경우에도 낮은 소득계층만 이용한다는 부정적인 인식이 많았다.

실제로 시설장 면접 시 지역아동센터에는 지역사회 내 저소득층 아동들만 이용한다는 인식이 퍼져 있어 심지어 저소득층 부모까지도 자녀를 보내기 꺼려한다는 내용을 많았다. 무엇보다 이런 지역사회 내 낙인감은 센터를 이용하는 아동들의 자존감을 포함한 성격에 영향을 줄 수 있고, 또 지역사회 내 다른 기관이나 시설과의 연계 시에도 아동들에게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개선은 매우 필요하다. 이를 위해 정부와 지자체, 그리고 개별 시설차원에서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홍보와 인식개선을 위한 노력이 구체적으로 필요하며, 이를 전제로 일반아동의 센터 이용 확대와 이로 인한 이용료 부담이 가능해질 수 있다.

3) 민간자율 수요자부담방식의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논의

(1) 이용료 산정

현재의 지역아동센터의 확대규모와 다양한 형태를 고려할 때, 향후에는 정부지원이 없는 순수 민간 자율형 지역아동센터 모델도 등장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국·공립지역아동센터에 대응하는 모델이 될 수 있다. 이러한 형태의 지역아동센터에 대해서는 전문가의견조사 시 일부 전문가들이 찬성하기도 하였는데, 그 이유로는 맞벌이 가정이 늘어나고 돌봄 수요가 커짐에 따라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민간자원의 지역아동센터가 필요하며, 또 공공부문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서 다양한 형태의 센터가 존재해야 한다는 것이다. 양질의 서비스 제공으로 일반가정에서까지 아동을 보낼

수 있는 지역아동센터가 있다면, 맞벌이 가정 수요충족 뿐 아니라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낙인 감소 등의 부수적인 효과를 가정하였다.

먼저 민간자율 수요자부담방식 지역아동센터의 경우 그 운영방식과 운영비등은 앞서 논의한 재정혼합형(매칭펀드방식)의 운영내용과 비용과 큰 차이가 없으며, 단지 정부지원이 없다는 것을 전제로 이용료 산정이 이루어지게 된다. 민간자율 수요자부담방식 시설의 경우도 기본형과 종합형 등 지역사회 특성과 여건에 따라 운영될 수 있으며, 앞서 제시한 지역아동센터 운영형태와 운영비에 따른 1인당 이용료에 대해 살펴보면 <표 III-46>와 같다.

정부지원이 전혀 없는 상황에서 이용아동이 전부 이용료를 부담해야 하는 경우라면 기본형은 1인당 비용이 약 25만원, 종합형은 38만원 정도로 상대적으로 높은 이용료를 고려할 수 밖에 없다. 또한 정부지원 없이 100% 민간자본으로 설립·운영될 경우 저소득층 아동이용과 이용할당비용 등에 대해서도 논의하기 어렵다. 만약 정부에서 어떤방식으로든 지원을 받게 되고(예, 급식비), 일정비용의 저소득층 아동이 무상(혹은 가구소득수준에 따른 실비 부담 정도)으로 이용해야 할 경우에는 <표 III-46>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일반아동 이용비용에 따른 이용료는 매우 높은 수준이다.

표 III-46 민간자율 수요자 부담방식의 지역아동센터 소요예산과 1인당 월 이용료
(아동수 29인 기준/급식비 제외) (단위:원)

구분		지역아동센터 유형		비 고
		기본형	종합형	
예산총합		7,162,250	11,263,340	유형에 따른 월별예산 차이
일반아동 이용비용에 따른 1인당 비용	40% 이용(12명)	596,850	938,610	저소득층 아동에 대한 이용할당이 있을 경우, 일반아동의 이용비용에 따른 1인당 비용 (예산총합/해당비용에 따른 인원수)
	50% 이용(15명)	477,480	750,890	
	60% 이용(17명)	421,310	662,550	
	70% 이용(20명)	358,110	563,170	
	전원(29명)	247,000	388,390	이용아동 29인 모두 일반아동으로 비용부담 가능 시 비용(예산총합/전원)

그러나 위의 이용료 산정은 급식비는 지자체에서 지원한다는 것을 전제로 한 것으로, 만약 민간자율 수요자부담방식의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지자체의 지원이 없게 된다면, 그 비용은 매우 상승하게 된다. <표 III-47>에서 보는 바와 같이 29명의 이용아동 모두가 급식비를 포함한 이용료를 부담하게 된다면, 기본형센터의 경우 월 334,470원, 종합형센터는 475,890원으로 평균적으로 월 9만원정도의 비용상승이 발생하게 된다.

(2) 민간자율형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우려와 고려사항

민간자율형을 지역아동센터를 설립·운영하게 될 경우, 지역아동센터의 전반적인 운영형태는 실질적으로 종합 학원에 지역아동센터 기능을 탑재한 형태가 될 수 있으며, 이는 바로 지역아동센터의 정체성을 오히려 훼손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로 연결될 수 있다. 시설장 설문조사에서도 이러한 순수 민간자율형 센터와 관련하여, 저소득·취약계층 아동이 주로 이용하는 시설과 일반 아동위주의 순수 민간형 시설로의 이원화, 정부의 관리 감독의 어려움, 그리고 지역아동센터가 사교육시장화가 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 모두 80%가 넘게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러한 민간자율형 수요자부담방식의 지역아동센터를 도입될 경우 도입의 목적에 대한 정책당국의 심도 깊은 고민을 전제로 할 필요가 있다.

민간에 의한 완전 자율 수요자부담방식 지역아동센터의 도입을 신중하게 접근해야 하며, 많은 위험을 예측할 수 있다. 특히 본 연구과정에서 의견수렴 시 민간자율형 지역아동센터는 과열된 아동의 모집과 기관홍보 등을 통해 지역아동센터의 영리기관화를 촉발하고 아동의 복지와 안녕이라는 지역아동센터의 본래 설립취지에서 벗어날 가능성에 대해 우려하는 시각이 매우 많았다. 이러한 우려는 현재 우리나라의 보육시설 사례를 통해서도 미리 볼 수 있다. 그동안 보육계는 보육비용 자율화를 통해 보육수요자인 부모와 영유아의 요구를 만족시키고 질적으로 우수한 어린이집의 운영을 모색해 왔다. 오랜 논란 이후 2011년에서야 자율형 어린이집을 도입하였으나 자율형 어린이집은 보육비용 등을 제한된 범위에서 책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표준보육프로그램의 기반위에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다. 자율형 어린이집을 이용료와 프로그램의 완전 자율화가 이루어진 형태의 보육시설이라고 보기 어렵다. 자율형 어린이집²⁶⁾의 요건은 보육의 질을 담보하기에 충분하지 않기(황옥경, 2011) 때문에 시행초기부터 정책보완 혹은 정책 철회요구(백선희, 2011)까지 제기되었다. 그동안 보육계가 보육비용 자율화를 추진하지 않은 이유를 통해서 민간자율 지역아동센터 도입의 몇 가지 난제를 정리할 수 있다.

첫째, 비용의 동반상승 가능성이다. 지역아동센터와 비슷한 목적을 갖고 방과후 돌봄 서비스를 하고 있는 기관들의 이용비용이 동반상승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지역아동센터의 무상서비스 제공은 사실상 가격규제 효과를 갖고 있다. 비용을 완전 자율화할 경우보다 비용을 더 지불하더라도 더 나은 서비스를 찾아야 나사게 될 가능성이 있다. 영유아 자녀를 둔 부모들은 자녀 양육을 위해서

26) 자율형 어린이집은 보육비용 상한과 보육과정 운영에 있어 일정한 자율성을 부여하는 어린이집이다. 보육료와 필요경비는 현재의 1.5배 범위 내에서 지자체별로 자체 설정한다. 시·도별로 정한 자율형 어린이집 보육료 및 기타 필요경비 수 납한도액 범위 내에서 자율형 어린이집별로 이용 부모와의 협의를 거쳐 자체적으로 보육료를 정할 수 있다.

일부 비용을 더 지불할 의사가 있음을 분명히 하고 있는데(송정 등, 2011), 아동기 자녀를 둔 부모라고 예외가 되지는 않을 것이다. 또한 영리목적으로 지역아동센터를 운영할 경우 사교육시장화와 이에 따른 비용급증의 우려까지 있어 이는 본 연구에서의 센터장과 전문가의견조사에서 매우 거세게 반대하는 이유로 등장한다.

둘째, 불공평한 서비스 이용 기회이다. 지역아동센터가 전국적으로 3천8백여개에 달하지만 지역편중이 심하고 접근성이 떨어진다. 사설 학원이나 어린이집 등이 민간자율 수요자부담방식의 지역아동센터로 전환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이유이다. 부모들은 지역아동센터의 취약한 접근성으로 인해서 비용부담이 큰 민간자율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게 될 수 있다.

셋째, 아동복지시설로 기능할 수 있는가의 문제이다. 현재 지역아동센터는 아동복지법에 근거한다. 민간자율지역아동센터는 아동의 이용료가 센터의 주 운영예산이 된다. 정부지원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민간 지역아동센터의 영리추구를 제한하기 어려우며 아동복지시설로 보기도 어렵다. 본 연구를 위한 전문가조사에서도 ‘완전 민간 자율형 수요자부담방식의 지역아동센터는 민간자본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아동복지법에 근거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많았다. 민간자율형 지역아동센터가 아동복지시설로서 기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다른 법과의 일관성 및 법률적 체제정비가 필요하다. 예를 들면, 지역아동센터 운영매뉴얼의 ‘지역아동센터는 취약계층의 지역사회 보호개념’ 취지와 맞지 않는다. 일반아동으로 이용대상자를 확대하려면 아동복지법의 대상아동은 일반아동이 되어야 하거나 청소년복지지원법 혹은 청소년기본법의 테두리에서 검토되어야 한다는 전문가의견도 본 연구과정에서 제시되었다.

(3) 선결조건 및 보완사항

민간자율 수요자부담방식 지역아동센터의 경우 무엇보다 아동복지시설로서의 프로그램과 서비스 수준에 대한 엄격한 평가와 적절한 수준의 종사자 처우, 안전공제회 의무가입, 정보 공개 의무화 등을 준수할 수 있어야 한다. 생활복지교사의 현황, 급식식단표, 프로그램 현황 및 이의 실행 상황을 분기별로 지역사회와 이용부모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서비스 시장을 통한 품질관리를 엄격하게 해야 한다.

또한 민간자율 수요자부담방식 시설의 이용료는 시설규모와 프로그램과 서비스 질에 따라 천차만별로 달라질 수 있다. 또한 민간자율지역아동센터는 건물 임대료 등과 같은 일부 사적재산을 확대하는데 지역아동센터 예산이 유입될 수 있기 때문에 민간후원금의 접수와 사용처에 대한 엄격한 지침이 필요하다.

만약 이러한 지역아동센터가 아동복지시설로의 기능을 할 목적으로 설립이 된다면, 기능의 공공성을 고려해서 정부는 어떻게 이들 시설을 관리·감독하며, 아동복지시설로서의 정체성을 갖도록 할 것인지, 더구나 정부지원이 전혀 없는 경우에, 어떻게 이들 시설에 대해 접근할 것인지를 충분히 검토할 수 있어야 한다. 무엇보다 평가를 받지 않을 경우 서비스의 질을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에, 민간자율 수요자부담방식 시설의 프로그램과 서비스 질을 담보하기 위한 평가제도가 마련해야 한다. 정부지원 유무와 상관없이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복지서비스라는 측면에서 민간자율형 센터에 대한 평가를 제도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민간자율 지역아동센터의 서비스 및 프로그램은 균형이 잘 맞춰질 수 있어야 하는데, 아동에게 필수적으로 제공되어야 하는 기본서비스 즉 급식, 건강발달, 놀이와 학습 등의 균형 잡힌 프로그램의 제공이 담보되어야 한다. 일부 영역에 대한 표준화된 프로그램의 제공은 기관의 공공성과 정체성을 확보하는데 필수조건이다. 또한 아동복지시설로서 기능한다고 할 때 인력채용기준이나, 시설환경에 대해서도 정부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무엇보다 이러한 획기적인 형태의 지역아동센터가 등장하게 될 때 현재의 지역아동센터 현장에 미치게 될 과급력을 고려하여, 이러한 시설을 허용하거나 설립하기 전에 이를 위한 공청회 등을 통한 관계기관 및 현장의 의견수렴이 반드시 필요하다.

4) 수요자부담방식의 지역아동센터 운영에 대한 기타 논의

지역사회 내 저소득층 아동을 주 이용대상으로 무료로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게 했던 운영방식에서, 일반아동의 이용을 적극 확대하고 또 이에 따른 이용료를 지불 하는 수요자부담방식은 수용하는 것은 현장에 매우 큰 변화를 가져오는 것이다. 현재 상태에서 그 이용료를 높은 수준에서 징수하기 어렵기 때문에 결국은 일반아동의 이용료도 정부가 일정부분 보조하는 상황이 될 가능성이 높지만, 이러한 제도의 변경에는 수많은 우려를 낳게 된다. 따라서 일단 재정혼합형 수요자부담방식을 단계적으로 실시하면서(기본형→종합형), 수요자부담방식에 따른 다양한 발생가능한 문제점들에 대한 보완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또한 실제로 방과후 돌봄과 보호의 필요성이 있었던 일반아동의 수요 충족과 또 이에 따른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그동안의 낙인문제 등이 해소될 때, 향후 보다 높은 수준의 서비스 등을 전제로 민간자율형 지역아동센터까지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일단 재정혼합형 지역아동센터 운영을 위해서는 먼저 관련 지침의 보완이 필요하다. 현재는 서비스 무료이용의 원칙으로, 지역여건 및 센터별 사정 등에 의해 이용료 수납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리고 운영위원회와 보호자의 사전 동의가 있는 경우 수납하도록 되어 있다. 재정혼합형 수요자부담방식의 지역아동센터 도입을 위해 지역아동센터의 비용수납을 원칙적으로 허용하는 내용으로 수정되어야 한다. 현재 지침상으로는 명문화되어 있다고 해도 각 지자체별로 일반아동의 이용료 정수에 있어 차이가 있는 만큼, 이에 대한 분명한 정책적 방향설정과 지자체의 입장이 정리가 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에 따른 정수비용, 결제 방식, 회계보고 절차와 과정 등이 상세하게 제시되어야 할 필요가 있으며, 회계보고 시 지역아동센터 모든 비용(후원금을 포함한) 이 공개될 수 있는 규정이 마련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사전 제도적인 보완도 필요하지만, 시행과정의 혼란을 막고 정교한 시행규정을 마련하기 위해서 우선 시범운영의 필요성을 제기할 수 있다.

제 4 장

지역아동센터의 바우처제도 도입방안 모색

1. 바우처제도 도입 논의
2. 국내·외 유사 서비스의 바우처 제도
사례 연구
3. 조사결과
4. 요약 및 제언
5. 지역아동센터의 바우처제도 도입
가능성 모색

제 4 장

지역아동센터의 바우처 제도 도입 방안 모색

1. 바우처제도 도입논의

바우처제도에 대한 논의는 그동안 정부의 공공서비스 제공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중심의 지원방식에서의 한계와 폐해에 대한 문제제기와 이제는 수요자 중심의 지원방식의 변화를 모색해야 한다는 필요성에서 출발한다. 이는 최근 공공정책의 양적 확대와 범위확장, 그리고 이에 따른 전달체계상의 문제로 인한 공급자 중심의 공공 사회복지전달체계의 패러다임이 이제는 수요자 중심으로 변화되어야 하는 최근의 지적과 연결상에 있다고 볼 수 있다(강혜규 외, 2010). 국가의 전통적인 사회서비스 제공방식은 중앙정부의 지침을 통해 전국 표준적으로 전달하는 것으로 이러한 방식은 서비스 전달의 안정성과 서비스의 최저수준 유지라는 측면에서는 장점이 있지만, 수요자의 욕구를 크게 고려하지 않게 되는 한계를 갖고 있다(이재원 2008). 이러한 기관중심 서비스 제공의 경우 수요자가 필요로 하는 서비스 선택권이 허용되지 않으며, 이에 따라 공급자인 서비스 제공기관들이 더 나은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게 하는 유인을 갖지 못했다(정광호, 2009). 또한 전통적인 공급자 중심의 지원방식은 전달과정에서 상당한 행정 및 재정관리 비용이 수반되어 비효율적인 지원방식이라는 지적을 받아오고 있다(이재원, 2008).

이러한 맥락에서 바우처와 같은 정책수단은 소비자의 선택에 기초하여 공공서비스의 품질을 향상시키고으로써 정부재원을 더욱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서비스 만족도를 높이려는 목적을 지니고 있다. 바우처 제도는 서비스제공기관에 대한 정부의 직·간접 예산지원이 아닌, 서비스 이용권자에게 재원이 지원된 후 바우처 사용에 대한 대가로 정부가 서비스 공급자에게 해당 비용을 추후 정산해주는 것으로, 수요자에게 직접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수요자가 선택권을 갖도록 하는 것이다(정광호, 2008). 이는 그동안 취약계층에 대한 공급자 중심의 '시혜적' 공공서비스의 인식이 수혜자 입장에서 자신의 바우처를 가지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소비자 지향형으로 변화됨을 의미한다(정광호, 2008). 바우처 제도는 또한 공공서비스의 비용부담은 정부가 담당하되, 서비스의 생산 및 전달은 민간이 담당함으로써 효율적인 서비스 전달체계가 되도록 하고, 이를 통해 수요자의 만족도를 높이는데

있다(유희정 외, 2009). 그러나 바우처 제도가 잘 정착되고 성공하기 위해서는 공정경쟁을 저해하거나, 특정 기관의 독과점·담합을 막고, 취약집단을 배제하거나, 제공기관과 이용자간의 도덕적 해이를 억제할 수 있는 정책규제가 매우 필요하다(정광호, 2009)

우리나라에서의 본격적인 바우처 제도의 실시는 1997년 경제위기에 따른 대규모로 발생한 실업자들을 위한 직업훈련바우처를 들 수 있다. 그 이후 2004년부터 문화관광부에서 여행바우처, 문화바우처 사업을 실시하기 시작했고, 2007년부터는 사회복지분야에서 전자바우처를 도입하여 투명성을 확보하고 서비스 이용과정을 파악 할 수 있게 되었다(정광호, 2009). 전자바우처의 등장은 낙인효과를 피할 수 있는 장점을 갖고 있으며, 이 경우 누가 바우처를 통해 서비스를 이용하는지 알수가 없기 때문에(정광호, 2010) 특히 주변의 시선을 많이 인식할 수 있는 아동·청소년 서비스 이용자일 경우 전자바우처로 인한 혜택을 볼 수 있다.

지역아동센터의 바우처제도 도입에 대한 논의는 지역아동센터의 일반아동이용 확대와 이에 따른 수요자의 비용부담과 연결되는 것으로, 현재와 같은 저소득층을 포함한 취약계층 아동·청소년의 무료이용이 대부분인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일반아동이 현재의 주 이용대상 아동들과 함께 동일한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게 될 경우, 이용료를 면제받게 되는 저소득·취약계층 아동들에 대한 효과적인 재정지원방식으로 전자바우처와 같은 정책적 수단의 도입을 고려해 볼 수 있다.

현재는 지역아동센터의 시설규모, 여건에 따라 제공된 프로그램이나 서비스들을 아동들이 선택권 없이 이용할 수 밖에 없는 시스템이다. 특히 규모가 작고, 운영주체가 개인인 지역아동센터의 경우 제한적인 내용과 수준의 프로그램을 제공할 확률이 높아, 이용 아동, 즉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가 충분히 제공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또한 비록 각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현재의 정부지원은 비록 제한된 예산규모이지만 가능한 범위에서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도록 효율적으로 사용할 필요성이 있으며, 이에 따라 예산사용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꾀할 수 있는 바우처 제도와 같은 지원방식을 고려해 볼 수 있다. 물론 이러한 방식은 지역아동센터의 경쟁적인 아동 유치라는 위험성과 바우처 부정수급이라는 문제점이 수반될 가능성이 있지만, 원칙적으로 소비자의 선택권을 확보함으로써, 서비스 공급기관이 수요자인 아동·청소년의 요구에 더욱 충실하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아동중심의 기관 운영방식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바우처 제도의 지역아동센터 도입가능성 모색을 위하여 먼저 다음절에서는 국내외 관련 사례로서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제도와 보육료 바우처 사업인 I-사랑 카드제도, 방과후 학교의 자유수강권제도 등을 살펴보고자 한다.

2. 국내·외 유사 서비스의 바우처 제도 사례 연구

1) 국내사례

(1)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제도

사회복지서비스 바우처(voucher)제이란, 정부가 특정한 서비스의 수요자에게 일정액에 상응하는 구매권을 제공하고 공급주체에게는 서비스 제공의 대가를 사후 지불해주는 서비스 전달체계이다(유한옥, 2007). 또한 여러 서비스 중 소비자가 바우처를 가지고 선택권을 갖는 것으로도 볼 수 있는데, 결과적으로 바우처를 가진 서비스 수요자가 선택권을 가짐으로써, 서비스 구매 촉진 및 서비스 공급자간 경쟁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배화숙, 2007).

2007년도부터 시작된 보건복지부의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제도는 한국의 사회서비스 전달체계에 매우 큰 변화를 가져왔는데, 이는 기존의 공급자 중심 전달체계인 정부의 기관에 대한 직접 지원방식이 아닌 전자바우처(electronic voucher)라는 수요자 중심의 새로운 전달체계를 통해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정광호, 2009).

표 IV-1 사회서비스 제공 방식의 변화

구분	기존제도(공급기관지원방식)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제도(수요자 지원방식)
서비스 대상	수급자 등 저소득층 (수동적 보호대상)	서민/중산층까지 확대 (능동적 구매자)
서비스 내용	취약계층 대상 기초 서비스	인적자본 확충 등 사회투자적 서비스
서비스 시간	공급기관 제량	대상자 욕구별 표준화
서비스 개발방식	중앙 기획/지방 집행 (집중식/하향식)	지방 기획/중앙 지원 및 평가 (분권식/상향식)
공급기관	단일기관 독점	다수 기관 경쟁
서비스 질	서비스질 제고 노력 미흡	공급기관간 경쟁으로 서비스질 제고
국민체감도	낮은 서비스질에 대한 불만	국민체감도 높음
추가 노동수요	정부재정투입만큼만 발생	서민/중산층에 대한 비용지원으로 시장 수요가 촉발하여 추가 노동수요 발생
비용 효과성	낮음	높음(동일한 예산으로 더 많은 수혜자에게 서비스 제공)

※ 출처 :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http://www.socialservice.or.kr/>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사업으로 노인돌봄미, 장애인활동보조,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산모신생아도우미, 가사간병도우미, 출산전 진료비지원, 장애아동 재활치료, 아이사랑카드 등 다양한 분야의 사회서비스에 전자바우처를 제공하고 있는데, 이중 보육지원을 위한 아이사랑카드의 이용자가 약 80만명으로 규모가 가장 크다. 본 전자바우처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소득수준에 따른 본인 부담금을 우선 납부하게 되는데, 이는 소비자의 권리의식을 고양시키고 최소한의 본인 부담을 부가하기 위한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포털, 2011).

표 IV-2 전자바우처 사업시행 중인 사회서비스 사업

사업명	사업내용
노인돌봄종합서비스	65세 이상 노인 중 일상생활이 어려운 경우 제공하는 가사 활동지원 서비스
장애인활동보조지원사업	활동이 어려운 중증 장애인에게 제공하는 일상 생활 및 사회활동보조 서비스
산모·신생아도우미사업	저소득 가정 산모와 신생아에게 제공하는 건강관리 및 가사지원 서비스
가사간병방문사업	소년소녀 가장, 한부모 가정, 장애인과 중증질환자에게 제공하는 간병 및 가사지원 서비스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전국을 대상으로는 취학전 아동 인지능력향상 서비스가 있으며, 각 지역별로는 문제아동조기개입서비스 등 300여개의 다양한 서비스가 있음.
임산출산진료비지원사업	임산부에게 임신과 출산에 관련된 진료비용 등을 지원하는 서비스
장애아동재활치료사업	장애의 조기발견 및 증재를 위한 부모상담 서비스, 언어, 미술, 음악, 심리행동치료 등의 서비스
i-사랑 보육서비스	영유아 부모에게 서비스 이용권을 제공하는 수요자 중심의 보육서비스

※ 출처 :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http://www.socialservice.or.kr/>

본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의 업무처리 절차는 다음의 그림과 같으며, 최대한 부모의 서비스 선택권과 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한 서비스 전달체제로 변화하였다. 또한 이러한 전자바우처는 또한 정부지원을 받는 저소득층 및 취약계층에게 있어 낙인을 피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효과적 수단이 될 수 있다.



※ 출처 :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http://www.socialservice.or.kr/>

[그림 IV-1] 바우처 업무처리 프로세스

전반적인 사회서비스 바우처 사업에 대한 평가를 살펴보면, 이러한 전자바우처 사업이 이용자 편익을 가져옴에 따라 사회서비스 이용자의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을 뿐 아니라, 전달체계의 효율성과 투명성이 제고되었다고 평가되고 있다(정광호, 2009). 또한 기존의 공급자 방식(정부직접제공, 혹은 정부위탁)과 달리 서비스 이용자가 직접 선택할 수 있기때문에 능동적 구매자로서 이용자의 권리의식을 고취시켜 줄 수 있으며, 이러한 방식은 기존의 공급자 방식과 비교할 때 서비스 제공기관으로 하여금 이용자 확보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하는 방안이 되기도 한다(정광호, 2009). 그러나 정보비대칭이나 서비스제공기관간 담합으로 인해 소비자의 선택권을 저해할 수 있고(양난주, 2009), 또한 초기에 사회서비스 신청과정의 어려움으로 이용자가 소극적인 태도를 보일 수 있음이 지적되고 있다(정광호, 200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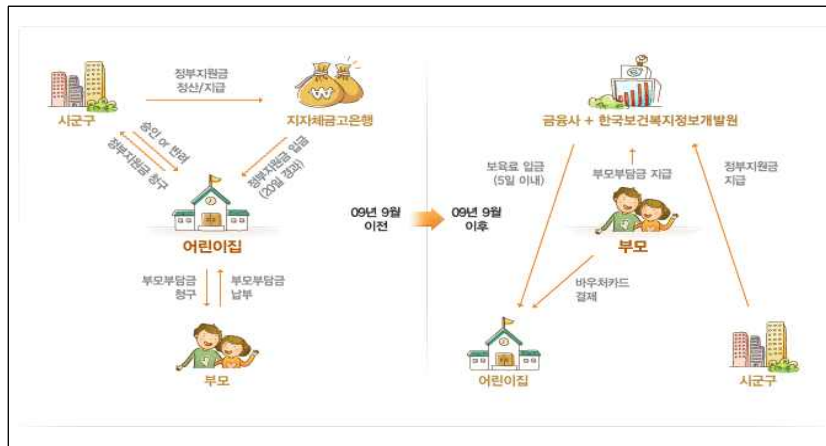
사회서비스 바우처제도로의 전환이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 전달체계로의 긍정적인 변화일 수 있지만, 서비스 제공기관의 지나친 경쟁을 방지하고, 바우처의 가격과 수요자의 이용료부담을 어떻게 적정하게 설정할 것인가는 매우 중요한 고려사항이다.

(2) 보육료 지원을 위한 I-사랑 카드

전자바우처 사업의 단계적 추진 결과 서비스 제공기관간 경쟁에 의한 서비스 품질 향상, 수요자의 욕구에 따른 만족도 제고, 서비스 비용에 대한 지불결제 수단의 전자화로 재정 지출의 효율성 및 투명성이 입증되고 있고, 이에 따라 전자바우처의 적용영역이 확대되면서 아이사랑카드의 도입까지 가져오게 되었다(정광호, 2009).

이전의 보육서비스전달체계는 부모가 선택권을 갖는 것이 아닌, 공급자중심으로 운영되었으며 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에도 문제점을 안고 있었고, 부모와 시설 간 의사소통이 어렵고 지원체계가 복잡하여 행정업무가 증가하는 등 상당한 한계가 있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수요자인 부모를 통해 보육료(이용권)를 지원하는 'i-사랑카드'를 도입하였는데(정광호, 2009), 아동과 관련된 직접적인 서비스로서 'i-사랑카드'이용에 대해 알아보면 다음과 같다.

- 서비스 신청 : 일정소득 이하로, 아동의 보호자로서 친권자, 후견인, 그밖에 영유아를 보호하고 있는 자가 신청할 수 있으며, 정부의 보육료를 지원받는 모든 아동의 부모 및 법정저소득 아동시설장이 읍면동사무소에 신청함(보육료지원대상은 자산심사와 등급판정을 거쳐 결정).
- 자산심사 : 읍면동이 영유아 부모의 소득 및 재산조사를 실시한 후 소득인정액을 산정하여 시군구에 보고
- 등급판정 : 시군구가 자격등급을 확정하고 그 자격내용을 구분하여 보육통합정보시스템 및 부모에 통보
- 어린이집 선택 : 영유아 부모가 보육통합정보시스템(아이사랑보육포털)에 접속하여 원하는 어린이집을 검색하여 선택
- 카드수령 및 사용 : 금융기관에 아이사랑카드를 발급신청 후 수령하여 사용함. 서비스 내용은 어린이집에서 일정시간 보호 및 교육을 받고, 아이사랑카드를 이용하여 결제
- 결제방법 : 부모가 어린이집에 방문하여 결제하는 방문결제가 원칙이나 분기단위 자동결제, 인터넷결제, ARS결제 등 보완적 결제도 가능
- 보육료 지급 : 금융기관에서는 부모의 결제 후 5일 이내에 어린이집에 보육료(정부지원보육료+ 부모부담보육료)를 합산하여 지급(전체 보육료 중 정부지원금은 소득계층별, 연령별로 차등 지원)



※ 출처 : 아이사랑(i-sarang) 보육포털(<http://www.childcare.go.kr>)

[그림 IV-2] 아이 사랑카드 운영방식

보육료 지원사업에서의 바우처 제도의 효과성과 관련한 최근연구를 보면(최성은, 2010), 현금지원에 비하여 바우처를 통한 지원사업이 보육서비스의 수요를 증진시키기 때문에, 보육시설 이용률 제고라는 정책목표를 위해서는 바우처 방식이 현금지원보다 효과적일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3) 방과후 학교의 자유수강권제도

교육과학기술부의 방과후 학생의 교육과 돌봄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앞장에서도 언급한 방과후 학교는, 「수요자(학생, 학부모) 중심으로 운영하는 정규교육과정 이외의 학교교육 활동」으로서, 교육을 제공하는 주체의 필요가 아닌 수요자의 다양한 관심과 흥미, 욕구가 충족될 수 있도록 특색화된 프로그램을 포함하고 있다(교육인적자원부, 2006). 수요자중심의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각 학교마다 자율운영방식을 따르고 있지만, 대체로 학교 및 지역사회의 실태분석을 먼저 실시하고, 학생 및 학부모를 대상으로 방과후 학교 운영프로그램에 대한 수요조사 및 정보수집후 프로그램 개설 및 관리방안을 마련하고, 프로그램 및 강사의 만족도등을 평가한다(서울특별시 교육청, 2011). 이렇게 전체적으로 수요자가 중심이 되는 질적 수준이 담보된 프로그램이 되기 위한 일련의 프로그램 관리절차를 거치게 된다.

현재 방과후학교는 기본적으로 이용료부담 운영 원칙에 따라 운영되고 있는데, 2006년부터는 도시지역의 저소득 계층의 학생들을 위해 자유수강권이라는 일종의 바우처 제도를 도입하여 운영함으로써, 사교육비 부담으로 인해 소외된 계층의 학생들에게 필요한 교육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 제도는 국가수준에서는 기본적인 방향을 제시하되, 단위학교가 주체가 되어 자유수강권을 자율적으로 운영하며, 교육과학기술부와 교육청이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변종임 외, 2009). 지역아동센터와는 달리 교육기관에 직접 예산을 단순 분배하는 방식이 아니라,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의 학습자에게 직접 전달함으로써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개설, 운영을 수요자 중심으로 운영하도록 하고 있다. 자유수강권은 ①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우선 지원하며, ② 소년·소녀 가장, 새터민 자녀, 보호대상자 자녀, 시설 수용 학생과 ③ 기타 학교에서 지원 필요성을 인정하는 자에게 지원된다(변종임 외, 2009). 이들 학생이 지원받기 위해서는 보호자의 신청 또는 담임선생님의 추천 등으로 방과후학교 업무담당 교사에게 명단이 제출되어야 하며, 방과후학교 업무담당 교사는 신청자 전체 명단을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원대상자로 확정하며, 자유수강권 제자 및 활용과정에서 학교자율에 의하나, 운영과정에서 부작용(학생들의 거부감 또는 낙인효과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도록 되어 있다.

[그림 IV-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지방교육청의 방과후 학교 자유수강권 운영 절차를 보면(전라남도 교육청, 2008) 이용자인 학생과 교육청, 학교가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방과후 학교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이 학생위주의 수요자 중심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을 통해 학생 1인당 연간 30만원(월 3만원×10개월)의 무료수강권이 지급되는데, 학생들은 이 수강권을 가지고 자신이 원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다. 2006년 하반기의 시범운영에서는 총 9만여명의 학생이 1인당 평균 50,874원을 지원받았으며, 2008년에는 저소득층 초·중·고 학생을 위한 자유수강권 지원 확대를 위하여 관련 예산을 크게 증액하여 2010년 현재 그 수는 약 39만명에 이른다(김진숙, 2009).

농산어촌 거주 학생들도 무료 또는 도시지역의 학생들에 비해 매우 저렴한 수강료를 내고 참여한다. 방과후학교에 참여하는 전체학생(4,573,262명) 중 전액무료 학생이 25.2% (1,154,612명)이고, 일부부담학생이 8%(367,542명)이다. 그러나 저소득층 학생에게 1인당 월 3만원의 지원으로는 대상 학생의 요구에 부합하는 강좌가 없다는 점과 1인당 월 지원 한계보다는 연 한계로 바꾸는 것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받아오고 있다 하다(김홍원 외, 2010).



[그림Ⅳ-3] 방과후 학교 자유수강권 운영 절차

이러한 자유수강권 제도의 효과성을 조사한 결과를 보면, 조사대상의 47.1%가 자유수강권을 통해 처음 방과후학교에 참여한 것으로 나타나, 자유수강권이 방과후학교 참여를 돕는 데 기여하였다. 자유수강권 지원을 통한 변화로써, 교사들은 ‘저소득층 학생에게 교육기회 제공’, ‘저소득 맞벌이 가정 자녀에 대한 학교의 보육 기능 향상’, ‘학업성취 격차 감소에 도움’의 순으로 긍정적으로 응답하였다. 또한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을 지원받은 경험이 있는 학생과 그 학부모의 경우 향후에도 계속 참여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자유수강권제도에 대한 만족도가 높음을 알 수 있다(변종임 외, 2009).

2) 국외사례

사회서비스 바우처는 외국의 여러나라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특히 미국, 영국, 호주, 네덜란드 등은 국가적으로 보육바우처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아동을 위한 보육사업 바우처와 아동·청소년의 방과후 활동 및 돌봄 서비스를 위한 바우처제도에 대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미국의 보육 및 교육바우처 사업

미국은 바우처 제도가 가장 보편화되어 있는 나라로서 저소득층을 위한 식품구매권(Food Stamp Program), 방과후학교 프로그램(After School Programs)을 포함한 다양한 교육관련 바우처, 보육프로그램(day-care) 서비스권제 등이 실시되고 있으며, 미국에서의 이러한 서비스에 대한 지원은 기관단위가 아닌 수요자인 아동 개인단위로(아동에게 바우처 제공) 이루어지고 있다(윤경준 외, 2009).

미국에서의 보육서비스는 시장중심으로 공급되어 왔으며, 정부지원은 주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그 지원방식은 주(state)의 보육보조금, Pre-K프로그램, 헤드스타트·조기헤드스타트, 연방보육세액공제(CTC), 연방아동 및 피양육자세액공제 등 매우 다양하나, 이중 연방정부 지원과 이에 대한 주정부의 매칭기금을 통합한 아동보육발달기금(CCDF: Child Care Development Fund)의 지원이 바우처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정광호, 2010).

보육바우처 법적 근거는 1988년 가족지원법(Family Support Act)이 제정되면서, 아동부양세대 보조(AFDC)-직업기회와 기본기술훈련 프로그램(JOBS), 일시아동보육(Transitional Child Care), 위리아동보육(At-Risk Child Care)과 같은 프로그램을 통해 주정부는 보육센터의 직영 및 민간위탁, 보육바우처를 통한 보육사업을 지원할 수 있게 되었다(임성은, 2010; 정광호, 2005). 이후 저소득층 여성의 복지수혜를 위한 근로의무를 강조하는 PRWORA(Personal Responsibility and Work Opportunity Act)법이 1996년 제정되면서 보육지원사업의 중요성이 강조되었고, 이전의 세가지 프로그램을 대체하는 CCDF를 통해 저소득층 자녀에 대한 보육사업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지게 되었다. 특히 CCDF는 아동양육(Child Care) 서비스 및 수준 개선을 위한 연방정부 프로그램으로서, 보육제공 기관이나 수요자에 대한 직접적인 현금지원이 아닌, 정부가 대신 아동보육비용을 지급하거나 바우처를 제공하는 지원방식이다(임성은, 2010).

특히 저소득층 자녀양육지원 및 보육을 위한 보조금 지급을 위해 연방 보건복지부(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DHHS), 아동가족국(Administration for Children and Families)의 아동보호과(Child Care Bureau)에서 주정부로 전달·관리되는 아동보호 및 발달기금

(CCDF)은 바우처(vouchers) 또는 증서(certificates)의 형태로 유통되고 있으며, 일부 프로그램은 이용료(family co-payments)를 받기도 한다(정익중 외, 2009).

지원(전달)체계는 보건복지부의 ACF 산하 아동양육 사무국(Child Care Bureau)에서 운영 및 관리를 총괄하며, 주 단위에서는 합법적인 관리기관(Lead Agency)을 선정하고, 이들 기관에서는 아동양육지원프로그램 운영을 총괄적으로 담당하면서, 부모들의 CCDF의 자격조건 부합 여부와 보육서비스 제공기관과의 모든 관련 업무를 담당한다(임성은, 2010). 바우처 발급 방식은 보육서비스 제공자의 선정 여부와 부모에 대한 바우처 지급시기에 따라 나뉜다. 부모에게 먼저 바우처를 지급한 경우 부모들이 서비스 제공자를 지정하고, 기관에서는 추후에 부모로부터 받은 바우처 사본을 관리기관(Lead Agency)에 제출하여 금액을 환불받도록 되어 있으며, 보육서비스 제공자가 먼저 지정되어 있는 경우에는(부모들이 사전에 보육공급자를 먼저 선정), 바우처가 이미 관리기관과 협정이 체결된 공급자와 연결되어 있어 관리기관(Lead Agency)들은 바우처를 등록서류 혹은 공급계약서로 활용한다(NCCIC, 2008, 정광호 2009 재인용).

이러한 보육서비스 지원대상은 주 중위소득(SMI: State Median Income)의 34~85%에 해당하는 저소득 가정 또는 TANF 수혜대상자의 13세 미만의 아동으로, 각 주별로 소득에 대한 정의와 지원대상자 범위가 다양하나, 평균적으로는 주(state) 중위소득의 60%가 지원대상에 해당된다(임성은, 2010). 보육사업 지원을 위한 미국의 바우처 제도 사례를 보면 <표IV-3>과 같다.

표 IV-3 보육사업 지원을 위한 미국의 바우처 제도 사례 예시

사업명	서비스 내용
보육바우처	자격 있는 공급자에게 등록 혹은 보육증서 제공 (Title III-A Employment and Training for Dislocated Workers)
위스콘신 보육바우처	TANF(Temporary Assistance for Needy Families) 가정 및 빈곤가정 대상
매사추세츠 보육바우처	TANF 가정 및 빈곤가정 대상
사우스캐롤라이나 Day Care	TANF 가정 및 빈곤가정 대상 (계약에서 바우처로 전환)

출처: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http://www.socialservice.or.kr/> 원출처 : 정광호(2008). 「바우처 연구」

이와 더불어 미국에서는 방과후 활동을 포함한 교육분야에서도 다양한 바우처 제도를 활용하고 있는데 이 사례에 대한 예시는 <표IV-4>에서 제시하였다. 교육바우처는 1990년 위스콘신 주 밀워키에서 처음 도입된 이후로 오하이오 주 클리블랜드, 플로리다 주를 포함한 여러 주에서 운영되고

있다(유한옥, 2005). 위스콘신 주 밀워키에서 먼저 실험적으로 실시된 교육바우처는 공교육에 불만을 가진 저소득층 부모들의 자녀들이 사립학교를 이용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을 목적으로 한 것으로, 가계소득이 연방빈곤수준(federal poverty level)의 175% 이하인 가정의 유치원생부터 고등학생까지 수혜를 받을 수 있다. 바우처 대상이 되는 사립학교에서 희망하는 바우처 사용 학생 정원수에 비해 초과수요가 발생할 때에는 추첨하여 학생을 선발한다(김홍원 외, 2007).

표 IV-4 교육지원을 위한 미국의 바우처 제도 예시

프로그램 명	내용
위스콘신 Milwaukee Parental Choice Program	저소득층 학생의 사립학교 이용 지원, 가족에게 quarterly voucher 제공
오하이오 Cleveland Scholarship and Tutoring Program	초·중등 교육 수업료 지원(최대 \$2,500), 읽기, 쓰기, 수학 등의 학교입학 전후의 교습수업료 지원(최대 \$500)
미조리 Saint Louis 방과후활동 바우처 제도	장애학생들을 위한 After School/Extended Day Family Voucher Program
미네소타 Enrollment Opinion program	거주지역밖의 학교나 프로그램 수강권
미네소타 Post-secondary Enrollment Opinions	고등학교 2·3학년들이 대학 관련 교육을 받아 고등학교 학점을 이수할 수 있게 허용
플로리다 A+ Opportunity Scholarship Program(1999년 시행)	저학력 학생이 더 나은 공사립학교 전학을 돕는 프로그램
플로리다 John M. McKay Scholarship for Students with Disabilities(1999년)	장애인 학생 학교선택 지원프로그램
로드아일랜드 Corporate Scholarship Tax Credit Program	연방빈곤선 기준 250%이하 저소득층 학생의 사립학교 선택권 지원
워싱턴 Washington, D.C. Opportunity Scholarship Program	연방정부 빈곤선 185% 이하 대상 저소득층 가구 K-12 학생의 재만 학비(교통비 포함) 지원

* 출처: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http://www.socialservice.or.kr/> 원출처 : 정광호(2008). 「바우처 연구」 김홍원 외 (2007). 방과후학교 바우처 제도 도입 방안 연구

오하이오 주 클리블랜드의 교육바우처의 경우도 오하이오 주에 거주하는 저소득층 학생들을 대상으로 사립학교 및 인근 공립학교를 이용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바우처 제도이다. 바우처 수혜금액은 가계소득수준에 반비례하는 방식으로 제공되었으며, 학부모 혹은 후견인은 발급받은 바우처에 서명하여 학교에 제출하고, 각 학교는 이 바우처를 감독기관인 오하이오 주 교육부(The Cleveland Scholarship and Tutoring Office)에 제출하여 해당 금액을 주정부로부터 지원받는 방식으로 운영되었다. 추가수요가 발생하게 되면 저소득층 우선으로 추첨방식으로 학생을 선정하였으나,

8학년까지만 수혜를 받을 수 있어 저소득층이라도 하더라도 고학년의 경우는 서비스 대상이 되지 못했다. 이 사업의 효과성이 확실하게 나타나지 않은 상황에서, 과도한 행정비용(15%)을 지적 받기도 하였다(김홍원 외, 2007).

위의 교육바우처와는 달리 미조리주 세인트루이스시에서는 13세에서 21세까지의 장애학생들을 대상으로 방과후활동 바우처 제도(After School/Extended Day Family Voucher Program)를 운영하였다. 이 제도는 여가협의회(The Recreation Council)에서 시에서 지원 받은 예산을 가지고, 맞벌이 가정의 장애가 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방과후 시간(오후 3시~6시)에 바우처 프로그램을 제공하였다. 장애학생의 부모는 여가협의회에 자격기준(오후시간 부모의 근로여부, 자녀의 장애여부 등)에 부합한다는 서류들을 제출하고, 선착순으로 대상학생을 선정하였다(김홍원 외, 2007).

(2) 호주의 아동보육 정책에서의 바우처 제도

호주의 아동보육정책은 1980년대 초부터 이용자의 욕구에 부응하여 본격적으로 유아 프로그램의 서비스 질에 관심을 두기 시작하였으며, 소득과 자녀수에 따라 보육료를 차등 지원할 뿐 아니라, 보육 아동수에 따라 수요자가 선택한 보육시설에 현금을 지원한다(최재성·장신재, 2001). 호주정부는 수요자중심의 질적 수준을 담보한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노력과 함께 저소득층 뿐만 아니라 일반 가정의 취업을 장려하는 차원에서 아동 보육료를 지원하였다.

호주의 아동 보육료에 대한 현금지원은,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맞벌이 가정을 포함한 모든 가정에 대한 '보육료 환불(Childcare Tax Rebate) 제도'와 저소득층을 위한 '보육료 보조'(Childcare Assistnace)제도로 이원화하여 이루어진다(변용찬, 외, 1999). 저소득층을 위한 보육료를 보조받기 위해서는 연간소득이 일정 수준 미만으로 정부가 이용하는 보육시설 이용자여야 하며, 자산조사와 보육아동 수에 근거하여 개별적인 보육료 보조비율이 정해지고, 보육료는 보육아동의 가정이 아닌 보육시설에 현금으로 직접 지원된다.

보육료지원방법은 매월 보육료를 감면받거나 보육료를 지불한 후 환급받는 방법이 있는데, 보육료 환불은 일정한 심사를 거친후(직업이나 학업 등) 이에 합당한 조건의 부모들에게 보육지원금외의 추가부담금액의 30%를 세금으로 환불해주는 제도이다. 이렇게 수요자가 직접 비용을 지불하고 이에 대해 정부가 세액공제의 형태로 소비자에게 환급해 주는 제도는 바우처의 유형 중 환급형(reimbursement) 바우처라고 할 수 있다(유희정 외, 2009). 보육지원금은 센터링크(centrelink)라는 전달체계를 통하여 지급되는데, 부모는 자신들이 선택한 보육시설을 센터링크에 고지하고 이에

따라 보육지원비가 시설에 지급되고, 시설에서는 그 차액을 부모에게 청구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센터링크와 전국의 아동보육시설과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있어, 분기별로 아동의 시설이용 시간, 출석일수 및 결석 사유 등이 모두 보고되게 하고 있다. 센터링크는 2003년 이후부터 전국에 천여개가 넘는 네트워크 거점을 마련하고 부모와 보육서비스 제공기관을 연결하여 보육료 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유희정 외, 2009).

(3) 영국의 방과후 활동 및 보육에서의 바우처 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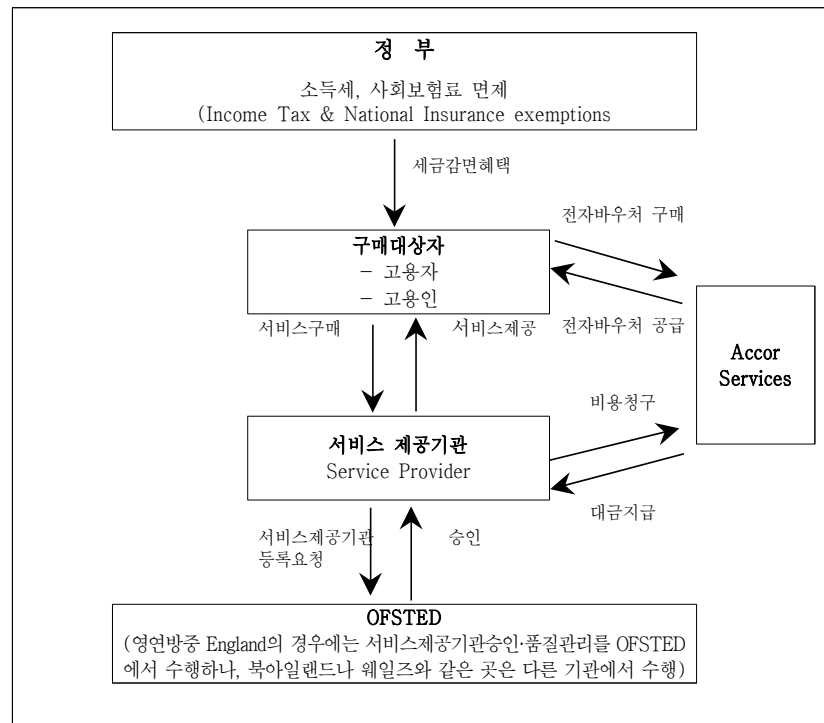
영국의 경우 방과후 활동의 기본적 모델 중 '정부에 의한 직접적 운영'인 곳이 있으며, 이렇게 방과후 활동 서비스가 학교에 의해 제공되는데 있어, 정부는 어떤 서비스와 시설을 제공할 것인지 결정한다. 또한 정부가 직접적으로 방과후 활동을 운영하는 형태로, 관련 서비스와 제공되는 시설에 대한 책임을 가지며(National Remodeling Team, 2006), 재원이 정부이거나 지역사회 인사이기도 하지만, 개인 부담의 경우도 있어 일부 영리프로그램의 경우 수익료를 받기도 한다(정익중 외, 2009). 또한 저소득 취약지역에서 정부가 주도하는 14세(장애아는 16세)까지의 모든 아동을 대상으로 방과후 교육, 아동보육, 건강, 가정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슈어 스타트(Sure Start) 프로그램과 같은 사업에도 바우처 제도가 활용되고 있다(오정수·이혜원·정익중, 2006).

영국에서의 보육바우처 제도는 1996년 4개 지역교육청에서 시범운영한 이후 1997년 전국으로 확대된 바 있으나, 2007년까지만 운영되고 중단되었다(최봉섭, 2008)²⁷⁾. 이후 정부에서는 다양한 방식으로 자녀의 양육비를 지원하였는데, 특히 부모의 월급으로 보육바우처를 구입한 금액에 대해 세액공제를 해주고(보육비 근로세액감면: childcare element of the Working Tax Credit)과 또 고용주는 이에 대한 사회보험금을 감면받을 수 있도록 하는(고용주연계보육비지원: employer-supported childcare)방식을 활용하면서 수요자에 대한 직접지원의 재정지원방식을 사용하였다(정광호, 2009). 이렇게 근로자인 부모와 고용주, 그리고 정부를 연결하면서 보육비를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방식은 2003년부터 'Childcare Vouchers Direct' 라는 전자보육바우처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면서, 보육서비스 보편화에 기여하게 되었다(배득중 외, 2008).

이 사업을 통해 부모들은 운영기관(Accor Service)에 등록된 수많은 보육 서비스 제공기관 중에서 직접 원하는 곳을 선택할 수 있으며, 이러한 점에서 공급자 중심이 아닌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제공에

27) 당초 영국 정부는 아동보육에 있어 공급자간의 경쟁을 통하여 소비자에게 선택권을 제공함으로써, 비용의 효율성을 꾀할 수 있다고 보았다. 그러나 수요예측의 어려움, 시설의 공급부족으로 인한 자의적 선별현상(cream-skimming), 불충분한 바우처 금액으로 학부모의 추가비용 과다지출 등의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되었다(김홍원, 2006; 최봉섭, 2008).

초점이 맞춰진 서비스라고 할 수 있다(배득중 외, 2008). 여기서 Accor Service라는 운영기관은 바우처를 판매하고 관리하는 기관으로 서비스 제공자를 위한 전자환급시스템과 온라인 세액공제제제 산기와 같은 서비스를 고안하여 실시하고 있으며, 이 기관 외에 보육서비스의 품질관리기능을 수행하는 OFSTED(Office for standards in Education, Children's Service and Skill)라는 곳은 서비스 제공기관을 승인하는 역할을 하며, 매년 모든 서비스 제공기관의 품질보고서를 작성하여 바우처 구매자인 부모들에게 공지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유희정 외, 2009). 이러한 영국의 전자보육바우처의 운영체계를 보면 [그림 IV-4]와 같다.



※ 출처 : 배득중 외(2008). 전자바우처 제도에 관한 선진국 비교연구. p. 102

[그림 IV-4] 전자보육바우처의 운영체계

영국의 보육바우처는 16세 아동까지 방과후 보육(After School Care), 놀이 학급(Play School), 방과후 클럽(After School Clubs), 유아클럽(Pre-School Clubs), 보모(Childminders), 오페어(Au Pairs)와 기타 바우처 운영기관에 등록된 보육 서비스에 사용할 수 있다(유희정 외, 2009. p.56).

3. 조사결과

1) 지역아동센터장 심층면접 결과

(1) 바우처제도에 대한 인지도

지역아동센터 시설장들을 대상으로 바우처 제도에 대해 알고 있는지 질문한 결과, 일부 시설장들에게서 바우처 제도(보육시설 이용을 위한 아이사랑카드, 방과후 학교의 자유수강권 제도 등)에 대한 인지도가 아직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이사랑카드와 방과후학교의 자유수강권 중 한가지 정도만 알고 있는 경우도 있었고, 두 가지 모두 어떻게 어린이집과 학교에서 사용되고 있는지 모른다는 응답도 있어 시설들을 대상으로 한 바우처 제도에 대한 교육의 필요성을 보여주었다..

(2) 바우처제도의 필요성 여부

바우처 제도의 필요성에 대해 질문한 결과, 역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었다. 바우처 제도가 수요자의 선택권을 보장하며, 센터의 서비스 질을 높이며, 또 서비스를 강화한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인식을 보였다(㉠, ㉡, ㉢). 또 이용료를 수요자가 부담하는 지역아동센터로 전환 시, 바우처 제도가 수반될 수 있으며(㉣), 또 지역아동센터가 더욱 보편화 될 경우에, 바우처 제도와 연계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하였다(㉤, ㉥). 현재 부모의 무관심을 볼 때 이러한 바우처 제도를 부모들이 잘 활용할 수 있을지 우려가 되지만, 오히려 장애아동의 경우에는 부모들이 매우 적극적이어서 바우처를 잘 활용할 가능성이 있음을 보여주기도 하였다.

- 아무래도 아동센터의 질? 수업에 대한 질을 올리는 데는 좋을 거 같아요. 일단 저희가 일반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서비스를 받는 입장에서 선택할 수 있다는 건 매우 좋은 거 같고요.(㉠, 시설장 D).
- 제가 봤을 때 저는 팬람을 거 같아요. 근데 많은 연구가 필요하고, 노력을 해야 하고.. 또 그런 부분도 있지만, 당연히 그거는 우리가 해야 될 몫이거든요. 아이들한테 서비스들

해야 됩니다(㉠, 시설장 G)

- 가서 보면.. 정말 아닌 곳이 있어요.(중략) 그러니까 나름대로 열심히 하시는 기관은 아이들이 모일 것이고, 또 아닌 기관은 여기 안 올 것이고.. 그런 경쟁.. 국가에서는 그렇게 운영을 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아이사랑카드처럼 오픈해서 그냥 경쟁력 있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좀 더 진취력 있게 갈 수 있게끔... 아이들이 그래야지 혜택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더 좋은 서비스를 받고(㉡, 시설장 G)
- 국가가 (지원을) 못해줄 거라면 민간에서 해결해야 되는데, 민간이. 해결 못한다면 수익자 부담으로 가야된다.(중략) 그 방식 중의 하나가 바우처 일거다. 그런 거죠(㉢, 시설장 H)
- 지역아동센터가 보편화된다면 바우처 제도와 연계시킬 수 있을겁니다(㉣, 시설장 F).
- 현재 부모의 무관심을 보면, 부모가 잘 활용할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장애아동 부모의 경우에는 (센터 이용에 적극적이어서) 바우처를 잘 활용하려고 노력할 수도 있습니다(㉤, 시설장 K).

(3) 바우처제도 도입 시 예측가능한 문제점

반면, 바우처를 사용할 경우에 아동이 느끼게 되는 낙인감에 대한 우려가 있었는데(㉦), 이러한 문제는 지역아동센터장이나 종사자들이 아이들을 대하는 태도에 문제가 있다고 보는 시각도 있었다(㉧). 또한 바우처 사용 시 발생가능한 문제점으로, 바우처의 매매, 학부모의 바우처를 통한 직접결제가 아닌 센터의 일괄 결제, 그리고 사회복지적인 운영방식이 아닌 사교육화 등에 대한 우려를 보였다(㉨, ㉩, ㉪). 또한 바우처 제도 도입 시 지역아동센터간 경쟁이 심화될 것으로 보는 의견과(㉫) 바우처 활용에 따른 업무 부담이 가중되며, 별도 인력이 필요할 수 있다는 의견도 제시되었다(㉬).

- 그 돈이 아이들 통해서 들어온다고 하면은 나는 바우처를 받는 아이로 낙인될 수 있잖아요. 저는 가장 예민한 게 그 부분이에요. 아이들 낙인감(㉦, 시설장 L)
- 그거는 센터장이나 교사들의 마인드의 문제라고 보는데요. 아이들은 이미 학교에서 위화감이 조성되어 있잖아요. 잘 살고, 못 사는 것이.. 근데 그거는 교사가 아이들을 어떻게 대하느냐의 문제로 저는 봐야 될 거라고 보거든요?(㉧, 시설장 H)
- 바우처에 대해서는 유가증권 개념이 강하잖아요. (중략) 바우처의 잘못된 사용.. 예를 들어서 바우처를 매매한다거나.. 그런 사례들이 분명히 나올 거고요 (중략). 사회복지 서비스가 보편적 복지화 되거든요. 그러면은 바우처 제도 자체가 거기에 모순이에요(㉨, 시설장 L)
- 저소득층 부모님들이 무기력한 경향이 높으세요. 그런 분들에 대한 특수성...저희 센터 입장에서는, 카드만 한 31개 모아놓고 저희가 매일 굶는, 저희가 알아서 하는 그런 병폐가 생기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시설장 D)

- 바우처를 지역아동센터에 도입을 하면 이거 자체는 접근이 너무 다른 거예요. (중략) 수익이 되면 그 프로그램만 잘 되면 거기는 살아남게 되는 거예요. 오히려 사회복지사보다 운영 잘 할 수 있어요. 학원을 운영하던 사람들이 하면..그런 거 너무 잘하죠(㉪, 시설장 A)
- 경쟁이 심화될 수 있기 때문에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시설장 F).
- 이 바우처하려면, 바우처를 담당할 인력이 따로 나와야 되죠. 그럼 그만큼의 비용이 나한테 들어오느냐에 따라서 인력을 쓰고, 프로그램을 쓰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 것이 다 조절되지 않으면 센터들이 바우처하기 어려울 거라고 보는 거죠(㉬, 시설장 H)

바우처 제도의 지역아동센터 도입과 관련하여 시설장들은 현재와 같은 부모들의 무관심속에서 바우처 제도가 잘 활용될 수 있을지에 대한 문제를 많이 제기하였다. 대체로 자녀의 지역아동센터 이용에 대해 부모가 무관심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바우처 활용을 잘 못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었으며, 이로 인한 센터의 업무 부담이 더욱 가중되고 아이들이 더욱 방치될 것에 대한 우려도 있었다(㉭, ㉮, ㉯). 또한 바우처가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이긴 하지만, 아이들이 선호대로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에 대한 부작용도 언급하고 있다(㉺, ㉻).

- 현재 부모의 무관심한 모습을 보면 바우처가 생겨도 잘 활용하실 것 같지 않습니다(㉭, 시설장 K)
- 부모들이 바우처 카드를 결제하러 오시라고 계속 종용해야 하고 저희 입장에서 업무가 점점 더 늘어나는 거죠(㉮, 시설장 D)
- 부모가 나중에는 바우처 카드 결제하는 것이 귀찮아서 아예 이용을 안할 수도 있어요. 그만큼 아이들에게 무관심하기 때문에 (㉯, 시설장 D).
- 바우처제도를 하게 되면 누구는 참여하고 누구는 참여하지 않는 프로그램이 생기고.. 아이들이 자기 하고 싶은 대로만 하게 될 것 같아요(㉺, 시설장 E).
- 부모가 선택하는 것은 좋지만 아이들이 자기 마음대로 선택하고 안가고 가고를 자주 결정할 것 같고, 아이들 비위 맞추기로 센터가 전략할 것 같아요(㉻, 시설장 E).

(4) 지역아동센터의 바우처 제도 도입가능성

일부 지역아동센터장의 경우에는 보육시설 이용을 위한 아이사랑카드와 같은 형태라면 지역아동센터의 바우처 제도 도입이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농어촌지역과 같이 선택 가능한 다양한 지역아동센터가 없는 경우에는 바우처 이용이 어렵겠지만, 일반적으로 바우처 도입 시 지역아동센터 시설장들이 긴장감을 갖고 센터를 운영하게 될 것으로 보기도 했다(㉽), 바우처 도입에 따라 특정

센터에 이용아동이 과도하게 증가하는 경우, 서비스 질이 떨어질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제도적 보완의 필요성을 제기하기도 하였다(㉔).

- 아이사랑카드처럼 셋팅을 하게 된다면, 당연히 널 거 아닙니까.. 엄마들 입장에서는 부담 없이... 가능할 거라 생각해요(㉕, 시설장 G)
- 농어촌지역에는 같은 생활권에 선택 지역아동센터가 한두 곳에 불과하기에 아동이 선택 하여 이용한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바우처가 도입되면 지역아동센터의 운영자는 보다 긴장감을 갖고 운영할 것 같습니다(㉖, 시설장 F).
- 단, (바우처 사용으로 인해) 아이들 수가 많아지면 서비스 질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아이 수를 제한하면 좋을 것 같아요(㉗, 시설장 D)

(5) 개별 프로그램·서비스별 바우처 활용 및 센터간 연계나 컨소시엄의 가능성

개별 프로그램이나 서비스의 바우처 활용 가능성에 대해서는 축구클럽이나 놀이 등 특별활동의 경우 가능할 수 있으나(㉘, ㉙), 그 이외에는 대체로 가능하지 않다는 응답이 많았다. 응답자들은 그 이유로 개별 프로그램 이용을 위한 지역아동센터간 이동은 아동들의 안전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으며(㉚, ㉛) 이미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아이들일 경우 중복의 가능성이 많다고 보았다. 만약 한 지역아동센터의 아동이 타 시설을 프로그램별로 이용하게 된다면, 이를 바우처로 관리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실무적인 문제를 제기하기도 하였다(㉜).

- 일반아동에게 오픈하는 형태로는 가능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저희가 축구교실을 운영하는데 그 축구프로그램을 바우처로 한다든지.. 그러면 그만큼 자리를 열어서 일반아동들이 바우처로 신청을 하면 운영은 가능 할 것 같아요(㉕, 시설장 A)
- 놀이 등의 특별활동 등의 프로그램은 바우처가 가능 할 것입니다(㉖, 시설장 F)
- (개별 프로그램이나 서비스의 바우처 활용은) 안될 것 같아요. 일단은 우리 센터 안에서 진행되는게 아니기 때문에 이동문제도 그렇고요. 그리고 센터 내에서 프로그램을 들어가고 학교에서도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잖아요. (중략) 학교프로그램이란 겹치는 게 많을 것 같아요(㉗, 시설장 J)
- 저희가 관내에서 타 센터에서 운영하는 합창(활동)을 지원을 받아서 하고 있어요. 동아리 활동 같은 거잖아요. 오픈을 해서 와서 배워라 하는데도 아이들끼리 이동시키기가 센터 선생님 입장에서는 불안하거든요. 그렇다고 매번 아이들을 데리고 다니기도 불편하고(㉘, 시설장 J).
- 바우처로 프로그램을 수강하게 하면 센터에서 관리가 안되요. 아이가 한 센터에 있어야

관리가 되는데 아이들이 매일 다른 센터를 간다거나 그러면 전혀 관리가 안되죠(㉙, 시설장 D)

바우처 제도를 통한 시설간 연계가능성에 대해서는 특성화된, 거점형 지역아동센터를 통해서도 가능할 수 있으리라는 의견을 나타냈다(㉚). 또한 2012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주5일제 수업에 따라 주말에 실시하고자 다양한 프로그램을 타 기관과 연계하고자 하는 의견들도 있었다(㉛).

- (개별프로그램별 바우처 제도 도입) 하려고 하면 아주 특성화를 시켜서, 거점형으로 해서 거점형이 공휴일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으로.. 거점형센터가 전체를 커버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하는 것이 좋다는 것이죠. 한 기관에서 할 수 없는 프로그램을 하는 것이죠(㉜, 시설장 I)
- 2012년 내년부터는 주 5일 수업이잖아요. (중략) 그래서 저희들이 되게 고민하고 있거든요? 저희 3명의 인력으로 매주 프로그램을 토요일마다 운영하기 어려우니까 지역에 있는 다른 데랑 연계해서 뭐 좀 하고 싶은... 이런 생각이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그런 제도(프로그램별 바우처 제도)가 있다면, 저희 센터는 산행 프로그램을 중점으로 하고 옆에 있는 센터는 뭐 기타 동아리를 전적으로 운영하는 센터, 이렇게 한다면 아이들이 자유롭게 선택해서 관심 있는 곳으로 가서 토요일 날은 활동하고, 헤어지는 이런 것도 괜찮다는 생각은 하고 있거든요? (㉝, 시설장 B)

그러나 대부분의 지역아동센터 시설장들은 그동안의 시설간 연계 경험이 부정적이었고(㉞), 무엇보다 바우처 제도로 인한 시설간의 경쟁분위기 및 위화감 조성 등을 이유로 개별프로그램이나 서비스별 바우처 제도 도입에 대해서 부정적인 의견을 보였다(㉟, ㊱). 또한 농어촌같이 지역아동센터 인프라가 부족한 경우는 이러한 기관간 연계나 컨소시엄이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하였으며, 아동의 이동수단이 확보된다면 일부 가능할 수 있으리라 보고 있었다(㊲).

- 다른 센터와 함께 프로그램을 운영하긴 어렵습니다. 예전에 목공예 프로그램 운영을 시도해봤으나 거의 불가능했어요(㉞, 시설장 K).
- 바우처가 생기면서는 (센터간 연계가)어려울 거 같아요. 왜냐면 자기의 경쟁 대상이니까. 바우처가 생기면, 서로 간에 위화감 조성이 되지 않을까(㉟, 시설장 G).
- 바우처가 생기면 오히려 연계나 컨소시엄은 불가능 할 것입니다. 왜냐면 경쟁이 생기니까 오픈을 하면 안되잖아요(㊱, 시설장 A).
- 농어촌지역에는 지역아동센터 등 인프라 자체가 별로 없기에 컨소시엄을 하기는 쉽지 않

을 것입니다. 다만, 24시간 돌봄이 필요하거나, 주말에 특별한 서비스가 필요한 경우에는 '서틀버스'를 이용해서 서비스를 제공하면 이용자가 있을 것이다(㉔, 시설장 F).

(6) 바우처 제도 도입 전 필요 조건

바우처 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필요조건으로는 먼저 현재와 같은 종사자의 낮은 처우(인건비) 개선이 우선되어야 하며(㉕), 이용아동과 교사의 비율(㉖), 프로그램과 서비스 수준이 담보되어야 한다(㉗)는 의견을 보였다.

- 바우처.. 이런 수익자 자부담.. 월급이나 이런 거 보장해 주고 하면 괜찮습니다(㉘, 시설장 I).
- 가장 좋은 수업의 케이스는 그룹 당 아이들 한 10명 이하가 가장 좋거든요. 그게 보장되는 선에서 바우처 그게 되면 좋을 거 같아요(㉙, 시설장 D).
- 바우처 제도가 도입이 되면서 아이들의 질적인 서비스가.. 첫 번째 질적인 서비스가 향상되어야 됩니다(㉚, 시설장 G).

(7) 바우처 제도 도입에 대한 학부모 반응 예측

바우처 제도 도입 시 예측되는 학부모의 반응에 대해서도 지역아동센터장들의 의견은 다양하게 나타났는데, 선택권이 부모에게 주어진 만큼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경우도 있었지만(㉛, ㉜), 앞서 언급된 바와 같이 부모들의 바우처 제도에 대한 책임감 부재로 적절한 활용을 못할뿐더러 이로 인한 문제의 소지가 발생할 수 있다고 보는 의견들이 있었다(㉝, ㉞).

- 솔직히 말하면 학부모들은 괜찮다고 하겠죠. 바우처카드로 하면 자기가 선택할 수 있으니(㉟, 시설장 I).
- 음.. 우리가 여기에서 해볼 수 없는 것을 다른 곳(다른 지역아동센터)에서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부모님들 어느 정도 찬성을 하실 거 같아요. 찬성을 하실 거 같고요. 일반 맞벌이인 경우에는 좀 더 찬성 쪽이 많을 거 같습니다(㊱, 시설장 C)..
- 설명을 잘 듣고 잘 이해해서서 잘 수용하시는 부모들한테는 편안한 제도가 될 수 있을 거 같다는 생각이 들고.. 좀 배움이 짧으시거나 이해력이 부족하거나 관공서 찾아가는 걸 좀 버거워하는 부모님들은 귀를 닫고 안 들으실 확률이 높습니다(㊲, 시설장 B).
- 저소득층 부모님들이 무기력한 경향이 높으세요. 그런 분들에 대한 특수성.. 오히려 '선택할 수 있도록 책임감이 주어졌으니 잘(활용)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거 같은데.. 오히려 그냥 저희, 제 생각으로 '바우처'카드를 앞으로 선생님이 알아서 해주세요' 이런 경우가 생길 거 같아요(㊳, 시설장 D).

2) 지역아동센터 이용 학부모 FGI 결과

현재 자녀가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고 있는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한 초점집단인터뷰에서, 학부모들은 바우처제도에 대한 찬성과 반대이견이 모두 나타났으며 운영방식에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들을 제시하였다.

(1) 바우처 제도에 대한 찬·반 의견

바우처 제도에 대해서는 부모와 아동에게 선택권이 주어진다는 이유로 찬성하는 학부모들이 대체로 많았다(㊴, ㊵, ㊶). 그러나 바우처 제도로 인한 상업화와 경쟁심화와 같은 문제를 우려하는 부모들도 있었으며(㊷, ㊸), 그중에는 지역아동센터간 경쟁보다는 보다 나은 방식으로 개선할 필요성을 강조하기도 하였다(㊹).

- 앞으로 아이들한테는 좋을 것 같아요. 저희는 이미 아이들이 여기를 다니고 있어서(다른 곳으로 옮기지는 않을 것 같아요) (㊴, 서울)
- (지역아동센터) 선택권이 있겠네요? 좋을 것 같네요(㊵, 광주)
-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 시작해서 바우처나 아이사랑 카드나 이런 것들을 통해 사용자한테 지원금이 가고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적용을 해서 일반 아동들도 똑같이 받아서 여기가(지역아동센터가) 편견화 되지 않게끔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예요. 저는 아이가 뭐 한부모가 지금은 저소득이고 아이는 차상위로 되어 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아이한테 설명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아이가 오히려 주눅 들지 않고 당당하게 살아나갈 수 있게 오히려 감추는 것이 아니다 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㊶, 서울).
- 그런데 그렇게 되면 너무 상업화 되는 것 아닌가요? (아이들을 위해서는) 경쟁이 좋은데.. 경쟁이 심해질 수 있으니까(㊷, 서울).
- 냉정하게 말해서 더 좋은 곳이 있다고 하면 부모입장에서는 더 좋은 곳이 있다면 더 좋은 곳으로 보내고 싶죠. 그런데 개선을 할 생각을 해야지 그렇게 경쟁을 해서는 안되지요(㊸, 부산).

(2) 바우처 운영방식에 대한 의견

앞서 지역아동센터의 수요자 비용부담 시 이용료 부담에 따른 센터내 차별에 대해 부모들의 우려하는 것을 볼 때, 이용료결제와 바우처 운영방식에 대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초점집단인터뷰 시 학부모들은 이러한 부분에 대해 굉장히 민감해 했으며, 이러한 문제를 막기 위한 방식으로 카드형식의 바우처에 대한 선호가 높았다. 특히, 가정에 어린 아동이 있는 경우 보육시설이용을 위한 아이사랑카드

에 대해 잘 이해하고 있었고, 지역아동센터 이용에 있어서도 이러한 전자바우처를 사용한 결제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었다(㉠, ㉡). 일반아동의 부모가 신용카드를 이용료를 결제할 때, 저소득층의 경우 카드형태의 전자바우처를 사용한다면 이 경우 저소득가정 아동이 낙인을 피할 수 있는 긍정적인 방식으로 인지하고 있었다(㉢).

- 전에 제 아이 어린이집 보낼 때 아이사랑 카드를 썼는데.. 그런 식으로 되겠죠. 그렇게 되면 좋죠. 그렇게 되야 하지 않을까요? 다른 사람하고 결제를 똑같이 하되 그 카드에 적립이 되는거니까....누구나 결제를 할 수 있게만 해주면 전체가 다 결제를 하는거니까 누구는 안하고 누구는 하고 그런 사람이 없는거잖아요. 어쨌든 똑같이 결제를 하되 이 사람은 자기돈으로 하는거고 저소득은 정부에서 주는 돈으로 하는것이고(㉠, 서울).
- 이제 넷째를 낳고 사용을 해보니까 바우처카드 제도가 나올 것 같아요. 일반카드처럼 내년부터 바뀐다고 하더라고요(㉡, 서울)
- 일반카드처럼 결제하게 되면 누가 저소득인지 모르잖아요(㉢, 서울)

또 다른 학부모의 경우는 바우처 방식이 아닌 학부모가 먼저 지역아동센터 이용료를 지불한 후 이후에 다시 돌려받는 방식을 제시하기도 하였다(㉣).

- 우리 애들만 봐서도 학교에서 어디 가는데 돈을 지원을 받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먼저 돈을 내고 학교에서 돈을 입금해주는 식으로 할 때도 있고 처음부터 아예 공제를 받고 하는 경우도 있지만(㉣, 부산)

3) 전문가의견조사 결과

(1) 기존의 바우처 제도 도입에 대한 인식

지역아동센터의 바우처 도입과 관련하여 먼저 기존 유사 돌봄 서비스인 보육시설 이용을 위한 바우처 제도(아이사랑카드) 도입의 성공여부에 대한 전문가들의 인식을 살펴보면, 성공적이지 않다는 부정적인 인식이 훨씬 높게 나타났다(성공적 임/6, 성공적이지 않음/11). 그 이유를 보면, 당초 수요자중심이 아닌 보육시설의 관리의 편리성과 효율성을 위한 제도였다는 의견이 많았으며, 소비자의 선택 정보가 충분치 못하거나 또는 선택능력의 부족 등으로 인해 바우처 제도의 성과가 제한적으로 나타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또한 바우처 제도의 기본 취지인 서비스 제공 기관 간의 경쟁이 지역적 특성에 따라 제한적일 수 있으며(특히 농산어촌의 경우), 정책 소비자의 선택권을 보호하려면

무엇보다 이러한 정책에 대한 홍보와 교육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기존의 바우처제도 도입이 성공적이라고 보는 일부 전문가들의 의견을 보면, 시설이 아닌 가족, 수요자에게 시설이용을 위한 바우처가 지원되면서 시설간의 서비스 개선 경쟁을 가져왔으며, 시설에 직접 지원하는 것에서 파생할 수 있는 허수 이용자 문제를 예방하여 재정지원의 투명성이 확보된다는 측면에서 성공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2) 지역아동센터의 바우처 제도 도입가능성에 대한 의견

지역아동센터에서의 바우처 제도 도입 가능성에 대해 관련전문가들은 대체로 부정적으로 보고 있었다(가능/7, 불가능/11). 그 이유로는 아직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수요파악과 공급조절이 어려운 측면이 있어 시기상조이며, 지역아동센터 운영의 표준화 및 운영방식과 인력수준 향상을 위한 투자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또한 현재도 공공성보다는 수익성을 추구하는 지역아동센터가 있기 때문에 바우처 제도가 도입될 경우 기존 공부방과의 차별성을 찾기 어렵고 상업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도 나타났다.

보육시설과는 달리 지역아동센터의 경우 실제 바우처 제도를 도입할 만큼 시설의 수가 절대적으로 많지 않기 때문에 수요자의 선택자체가 가능하지 않은 수도 있으며(특히 농산어촌의 경우), 앞서 언급한 보육시설에서의와 마찬가지로 소비자의 충분한 선택 정보가 제한되거나 또는 선택능력 부족 등의 문제가 더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또한 바우처의 부정사용과, 바우처 카드 도입 시 현장에서의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었다. 일부 전문가들은 현장 종사자들의 업무 부담을 고려할 때 바우처 제도로 인해 행정업무들이 더 추가될 수 있으며, 또 바우처 제도가 정부예산지원에 대한 감시와 처벌적인 관점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생각에 정서적으로 거부감이 들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하였다. 무엇보다 지역아동센터에 바우처 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시기상조이며, 진행과정이 복잡하여 운영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것 같지 않다는 우려도 있었다.

(3) 바우처 제도 도입의 장·단점

바우처 제도의 지역아동센터 도입 시 예상되는 장·단점에 대해 전문가들은 부정적인 측면에서 더 많은 의견을 개진하였다. 먼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바우처 제도가 소비자의 선택권을 넓힐 수 있지만 접근 가능한 지역 내에 센터의 수가 실질적으로 확대되지 않는 한, 즉 충분한 인프라가 확보되지 않는 한 이러한 선택권의 활용이 불가능하며, 서비스 공급자가 적은 경우 센터에 가장

도움이 될 대상자를 임의로 선택하는 자의적 선별현상(cream-skimming) 가능성이 지적되었다. 소비자에게 충분한 정보가 제공되지 않을 경우나 선택능력 부족 등의 문제가 나타날 수 있으며, 또한 이용자에게 필요한 것이 아닌 이용자에게 인기 있는 서비스 및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시설에서 바우처 사용이 집중될 수 있다는 의견도 제시되었다.

일부 전문가들은 이러한 바우처 제도는 국가의 예산지원부족을 시장의 방식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일 수 있으며, 이로 인해 현장과의 갈등이 심화될 것이라고 지적하였다. 더불어 바우처를 통한 지역아동센터 간 경쟁 및 전달 체계 간 갈등들로 인해 시설간 협력체계구축과 파트너십이 어려워 질 수 있으며, 더 나아가 지역아동센터이용부모와 센터 종사자간 관계에도 문제의 소지가 발생할 수 있음을 지적하였다. 또 전문가들은 바우처 제도 도입으로 인해 공적 자금의 부담이 늘어나 정부에게 재정적 부담이 될 수 있으며, 또 지역아동센터는 이용자부담으로 운영된다는 인식이 확대되면 민간에 대한 지원이 경감될 수 있음을 우려하기도 하였다.

지역아동센터의 인지도가 크지 않은 현실에서 바우처 제도 도입 시 잘 홍보되지 않는다면 긴급 돌봄이 필요한 아동·청소년이 외면 받을 수 있는 우려도 나타났다. 앞서 지적되기도 했지만 현장의 행정적 부담이 가중되며, 또 이용아동을 선별해서 받거나, 현재 보육시설 이용에 있어 나타나고 있는 부정거래에 대한 우려도 큰 것으로 나타났다.

바우처 제도 도입 시 예상되는 장점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바우처제도의 장점으로 알려진, 이용자의 서비스 선택의 확대와 서비스경쟁으로 인한 서비스의 질에 대한 지역아동센터의 자발적 노력등이 가능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긍정적인 시각이 있었다. 또한 지역아동센터 사업의 공공성과 회계부분의 투명성 등이 강화되며, 입소관리 및 퇴소의 사후처리가 명확해짐으로서 이용아동에 대한 정확한 현황 파악이 가능할 것으로 보는 전문가도 있었다.

(4) 개별 프로그램·서비스 단위별 바우처 제도 도입 및 시설간 연계가능성

지역아동센터 이용에 따른 바우처 활용이 아닌 개별프로그램이나 서비스단위별 바우처 활용 가능성에 대해서는 조사에 응한 전문가들이 대체로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가능/6, 불가능/12). 수요자의 비용부담이 가능한 개별프로그램이나 서비스에 대해서는 (장애아 돌봄 및 재능 개발, 학습부진아 교육, 문화예술 및 자연체험 등) 일부 가능하다는 응답도 있었으나, 지역아동센터는 생활공간으로 전반적인 아동에 대한 보호와 관리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이러한 개별 단위의 프로그램 이용을 위한 바우처 제도는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이 많았다.

또한 전문가들은 이러한 접근방식은 지역아동센터는 사회적 가정이라는 정체성을 약화시킬 수

있으며 직원들의 업무 부담이 더욱 가중되고, 바우처 사용에 따라 아동간의 차별과 위화감이 조성될 수 있음을 지적하였다. 이러한 종류의 바우처는 더욱 오용의 위험이 크며, 지역아동센터간의 지나친 경쟁 및 학원화·상업화의 우려가 제기되었다. 방과후 특기적성 교육들은 지역의 청소년관련기관 등과의 연계를 통해 바우처를 활용하지 않고도 다양한 서비스제공이 가능할 것으로 보는 의견도 있었다.

바우처 제도를 통한 각 시설의 특성화된 프로그램이나 서비스이용을 위한 시설간 연계나 컨소시엄 및 파트너십 가능성 여부에 대해서도 전문가들은 부정적인 의견을 더 많이 보였다(가능/7, 불가능/10). 그 이유로는 연계에 필요한 시설이나 교통 등 기본 인프라의 문제와 더불어, 연계 시 아동을 인솔하고 지원할 인력의 문제 때문에 먼저 현장에서 실무적으로 해결할 문제가 많이 있음이 제기되었다. 무엇보다 어떠한 운영방식이 도입되던 지역사회협력에 대한 센터의 의지가 가장 중요하며, 또한 지역아동센터 바우처 제도 도입 이전에 큰 맥락에서의 방과후사업의 통합 및 연계가 우선적일 것이라는 의견도 있었다.

바우처제도를 통한 지역아동센터간 서비스 격차 해소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전문가들도 있었는데, 그 이유로는 지역아동센터 간 선의의 경쟁을 통해 수요자가 타 지역아동센터의 서비스를 이용 할 경우 서비스 선택 범위가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보았다. 대체로 서비스의 질이 개선되거나, 서비스 격차가 해소될 수도 있으나, 특정 시설에 이용자가 몰리는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도 있었다. 또한 시설간의 연대와 지역공동체 실현구현이라는 관점에서 접근 가능하기도 하지만, 현재 시설 공급이 충분치 않은 상황에서는 수요자의 욕구가 충분히 반영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반응도 있었다.

(5) 바우처 제도 관련 기타 사항

바우처 제도의 도입은 좀 더 시간을 가지고 추진해야 할 장기적 정책과제라고 보는 전문가들이 많았으며, 현재와 같은 선택 가능한 지역아동센터가 많지 않은 경우 바우처의 효과적 활용의 문제, 그리고 바우처의 부적절한 사용, 센터간 경쟁심화 등 여러 우려들을 제기하였다. 또한 특정서비스에 한하여 기관별 연대 시 바우처가 제한적으로 허용될 수 있다는 의견도 있으나, 반대로 가정형태로 아이들에게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현 상황에서 아이들의 지역아동센터간 이동을 통한 개별프로그램이나 서비스 이용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의견도 많았다.

지역아동센터의 향후 발전방향으로서, 전문가들은 제시된 예시 중에서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지역사회 아동이 모두 자유롭게 이용되며, 일정 소득 이상은 본인부담이 있는 지역사회 중심 아동복지센터

터로의 변화'와 '현재와 같은 저소득층 및 한부모, 다문화가정 등 취약계층 아동·청소년을 주 이용대상으로 하는 방과후 돌봄서비스'에 대해 거의 동일한 수준의 높은 의견을 보였다.

4) 지역아동센터장 설문조사 결과

(1) 바우처 제도 도입가능성 및 대상자 선정

설문조사에 응한 지역아동센터 시설장들의 조사결과는 <표 IV-5>와 같다. 바우처 제도와 관련한 내용 중 가장 긍정적인 응답을 보인 항목은 '일부프로그램이나 서비스(예, 축구클럽, 악기교실 등)에 대한 바우처 제도 도입 가능성'(80.2%)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5 바우처 제도 도입 관련 단위: %(빈도)

구분		매우 그렇다	그렇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전체	χ^2
지역아동센터의 바우처제도 도입의 필요성	전체	25.8	39.4	25.1	9.7	100(414)	
심야시간, 주말, 공휴일 센터이용에 대한 바우처 제도 활용 가능성	전체	21.6	42.7	27.9	7.8	100(412)	12.645*
	운영기간 2년미만	26.2	53.8	15.4	4.6	100(65)	
	2년~5년	23.1	37.5	33.1	6.3	100(160)	
	5년이상	18.9	43.3	27.2	10.6	100(180)	
일부프로그램서비스(예, 축구클럽, 악기교실 등)에 대한 바우처 제도 도입 가능성	전체	31.3	48.9	14.5	5.3	100(415)	
특성화 프로그램이나 서비스이용에 대한 바우처제도를 통한 센터간 연계나 파트너십의 가능성	전체	28.3	49.6	16.5	5.6	100(413)	

*p<.05

그 다음으로 이러한 '특성화프로그램에 대한 바우처 제도를 통한 센터간 연계나 파트너십의 가능성'에 대한 응답이 높았다(77.9%). 지역아동센터의 바우처 제도 도입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조사에 응답한 시설장의 65%가 긍정적인 응답을 보였는데, 다른 항목에 비해 낮은 비율이긴 하지만 앞선 시설장 면접조사와 전문가의견조사에서 바우처 제도 도입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좀 더 높았던

것과 비교할 때 상이한 결과를 보여 결과해석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심야시간이나 주말과 공휴일등에 센터를 이용하는데 있어 바우처를 활용할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64.3%의 시설장들이 긍정적인 응답을 보였다. 또한 운영기간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였는데, 운영한지 2년 미만의 비교적 최근에 개소한 센터에서 그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현재와 같이 지역아동센터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바우처를 지원한다고 할 때, 그 대상자를 어떤 기준으로 선정할지에 대해 시설장들에게 질문한 결과는 <표 IV-6>에서 보는 바와 같다. 이 질문에서는 특별한 소득기준을 제시하지는 않았지만 일정 소득 이하 가정의 아동을 바우처 지원대상자로 해야 한다는 응답에 대해 과반수 이상이 응답했고, 그 다음은 현재 지역아동센터의 우선 이용대상인 국민기초생활 수급권자, 차상위, 조손, 다문화, 장애, 한부모 가정 아동이라는 응답이 39.4%로 나타났다.

표 IV-6 바우처 지원대상자 선정기준 단위: %(빈도)

국민기초생활 수급권자, 차상위가정의 아동	국민기초생활 수급권자, 차상위, 조손, 다문화, 장애, 한부모 가정 아동	일정 소득수준 이하의 아동	전체
6.8	39.4	53.8	100(409)

일정 소득수준 이하의 아동에게 바우처를 지원해야 한다고 응답한 시설장들에게 그 소득기준에 대해서 질문한 결과, 가구평균소득액 하위 50%에게 바우처를 지원해야 하다고 생각한 시설장이 약 28%로 가장 높았다(<표 IV-7>). 전문가의견조사 결과에서는 보육시설 이용에서처럼 가구평균소득액 하위 70%까지를 바우처 지원대상으로 보고 있었는데, 대체로 지역아동센터 관련전문가 및 시설장들은 지역아동센터 무상이용을 위한 바우처 지원대상을 가구평균소득 하위 50%~70%선으로 보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IV-7 바우처 지원대상 아동의 가구평균소득액 단위: %(빈도)

가구평균소득액 비율(하위)	30%미만	30%	40%	50%	50%이상	전체
비율(%)	12.9	25	20	27.9	13.6	100(140)

(2) 바우처 제도 도입에 대한 장·단점과 선결요건

바우처제도 도입의 장·단점에 대해 지역아동센터 시설장들의 의견을 조사한 결과는 <표 IV-8>와 같다. 바우처 제도도입의 긍정적 측면으로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인 항목은 ‘수요자의 서비스 선택권 확보’로서 센터장의 약 80% 가까이가 긍정적으로 답변했다. 그 다음으로 높은 응답률을 보인 항목은 ‘지역아동센터 자체 서비스 질 개선 노력’(74.1%), ‘정부지원 예산운영의 투명성 강화 및 프로그램의 내실화’(72.8%), ‘양질의 서비스 제공 위한 지역아동센터간 자발적 노력 증가’(68.2%), ‘정확한 아동의 지역아동센터 입소 및 퇴소 관리 가능’(67.4%), ‘개별프로그램에 대한 바우처 도입 시 센터간 서비스 격차 해소’(55.4%)순으로 나타났다.

표 IV-8 바우처 제도 도입에 따른 긍정적 측면

단위: %(빈도)

구분	매우 그렇다	그렇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않다	전체
수요자의 서비스 선택권 확보	17.2	62.0	17.2	3.6	100(413)
지역아동센터 자체 서비스 질 개선 노력	16.3	57.8	20.2	5.6	100(410)
정부지원 예산운영의 투명성 강화 및 프로그램의 내실화	18.4	54.4	23.4	3.9	100(410)
정확한 아동의 지역아동센터 입소 및 퇴소 관리 가능	15.1	52.3	27.3	5.4	100(411)
양질의 서비스 제공 위한 지역아동센터간 자발적 노력 증가	13.1	55.1	26.9	4.9	100(412)
개별프로그램에 대한 바우처 도입 시 센터간 서비스 격차 해소	9.2	46.2	37.0	7.5	100(411)

대체로 바우처 제도의 순기능에 대해서는 동의하는 의견이 많았으나, 바우처 제도 도입 시 나타날 수 있는 부정적인 측면에 대한 응답률도 상당히 높게 나타났다. 먼저 시설장들의 약 70%는 ‘바우처 통한 지원예산 예측불가로 안정적 기관운영 저해’ 대해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는 ‘저소득취약계층아동 가족의 센터 선택 및 이용 위한 정보·바우처 활용능력 부족’으로 시설장들의 약 67%가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센터간 경쟁심화와 부모요구에 따른 사교육화(학원화)우려’에 대해서도 약 65%의 시설장이, 그리고 ‘바우처 사용에 따른 아동간 차별과 위화감 조성’(63.6%)도 역시 유사한 비율로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과반수가 넘는 60%의

시설장들이 ‘바우처의 악용 및 부정사용’을 우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부정적 측면에 대한 높은 응답률은 이에 대한 제도적 보완의 필요성을 보여주고 있다.

표 IV-9

바우처 제도 도입에 따른 부정적 측면

단위: %(빈도)

구분	매우 그렇다	그렇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않 다	전체
바우처 통한 지원예산 예측불가로 안정적 기관 운영 저해	23.3	46.4	26.9	3.4	100(412)
센터간 경쟁심화와 부모요구에 따른 사교육화(학원화) 우려	24.5	40.8	31.6	3.2	100(412)
바우처 사용에 따른 아동간 차별과 위화감 조성	24.3	39.3	34.2	2.2	100(407)
저소득취약계층아동 가족의 센터선택/이용 위한 정보 및 바우처 활용능력 부족	19.2	47.7	30.9	2.2	100(411)
바우처 악용 및 부정사용 우려	17.1	42.9	35.6	4.4	100(410)

바우처 제도 도입을 위한 선결요건으로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인 항목은 ‘바우처 이용 아동과 이용료 자부담 아동간 낙인과 위화감이 조성되지 않도록 운영방법을 고려해야 한다’는 항목으로 시설장들의 94%가 동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는 ‘타 센터의 개별프로그램·서비스 이용을 위한 바우처 활용 시에는 반드시 이동수단이 필요하다’는 항목으로 약 92%의 시설장들이 긍정적으로 응답하였다. 유사한 비율로 ‘바우처로 인해 원하는 지역아동센터 이용에 제한이 없어야 한다’는 응답이 나타났는데, 이는 바우처를 지원받는 아동이 이용하고 싶은 지역아동센터에서 이용료를 부담하는 아동을 선호하는 반면, 바우처 사용 아동에 대해 소극적일 수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바우처 지원이 각 기초지방자치단체단위로 이루어질 경우 해당 시나 구에서만 활용이 가능할 경우, 지역적으로 인접한 다른 시나 구의 센터를 이용하고 싶거나 실질적으로 어려울 수 있다.²⁸⁾

그 다음으로는 ‘지역아동센터 운영표준화 및 서비스·인력에 대한 투자 선행’과 ‘별도행정업무에 대한 인적·비용에 대한 추가부담 고려’에 대해 동의하는 비율이 각각 87%정도로 높게 나타났고, 특히 운영기간이 2년미만으로 최근에 개소한 지역아동센터에서 ‘지역아동센터 운영표준화 및 서비스·인력에 대한 투자 선행’에 대한 응답률이 매우 높게 나타났다.

28) 현재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는 급식비의 경우 이러한 사례가 발견되고 있는데, 예를 들면 인접해 있는 센터를 이용하고 있어도 행정구역상 타 지자체에 속한 경우 해당 아동은 급식비 지원을 받지 어렵다.

표 IV-10 바우처 제도 전제조건

단위: %(빈도)

구분		매우 그렇다	그렇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전체	χ²	
지역아동센터의 양적 확대	전체	12.6	38.0	43.0	6.4	100(405)		
지역아동센터 운영표준화 및 서비스·인력에 대한 투자 선행	전체	26.6	60.6	11.1	1.7	100(406)	15.257*	
	운영 기간	2년미만	39.1	57.8	3.1	0.0		100(64)
		2~5년	19.2	63.5	15.4	1.9		100(156)
		5년이상	27.9	59.8	10.1	2.2		100(179)
별도행정업무에 대한 인적·비용에 대한 추가부담 고려	전체	29.6	57.5	12.7	0.2	100(402)		
바우처로 인해 원하는 지역아동센터 이용에 제한이 없어야 함	전체	31.0	58.3	9.7	1.0	100(403)		
타 센터의 개별 프로그램이용 위한 바우처 도입 시 이동수단 필요	전체	33.1	58.6	8.3	0.0	100(399)		
바우처 이용 아동과 이용료 자부담 아동간 낙인과 위화감이 조성되지 않도록 운영방법 고려 필요	전체	37.4	56.7	4.7	1.2	100(406)		
바우처 관리는 별도의 기관이나 구청/시청 등에서 직접관리	전체	27.9	50.3	17.3	4.5	100(330)	15.637*	
	운영 기간	2년미만	34.0	52.0	14.0	0.0		100(50)
		2~5년	30.9	49.6	18.7	0.8		100(123)
		5년이상	23.7	50.0	17.1	9.2		100(152)

*p<.05

바우처 관리와 관련하여 별도의 기관이나 구청/시청 등에서 직접 관리하는 것에 대해서는 78%의 긍정적인 응답이 나타났고, 이러한 응답은 역시 운영기간이 2년 미만의 센터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바우처의 가장 큰 특징이 바로 수요자에게 선택권을 갖도록 하는 것인데, 이를 위해서는 지역사회내에 수요자가 원하는, 선택 가능한 지역아동센터가 충분히 있어야 하는 것을 전제로 해야 한다. 그러나 '지역아동센터의 양적 확대'에 대해서는 시설장들의 과반수가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다른 항목들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낮은 응답률을 보였다.

앞으로의 지역아동센터의 발전방향을 묻는 질문에 대한 응답은 <표 IV-11>와 같다.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인 항목은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이용할 수 있지만, 일정 소득 이상은 수익자부담으로 하는 지역사회중심의 아동복지센터로 발전되어야 한다'로 시설장들의 약 78%가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특히 중·소도시와 대도시에 위치한 지역아동센터 시설장의 응답이 읍·면지역의

시설보다 훨씬 높게 나타났다.

표 IV-11 지역아동센터의 발전방향

단위: %(빈도)

구분		매우 그렇다	그렇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전체	χ ²	
현재와 같이 저소득층포함 취약계층 아동·청소년을 주 이용대상으로 한 방과후 돌봄서비스 제공	전체	38.0	37.7	21.1	3.2	100(408)		
소득수준 상관없이 모두 자유롭게 (이용료 부담없이) 방과후 및 주말에 이용할 수 있는 아동복지시설 성격의 시설	전체	34.7	37.5	23.3	4.5	100(403)	15.257*	
소득수준 상관없이 모두 자유롭게 이용하되, 일정 소득이상은 수익자 부담으로 하는 지역사회 중심 아동복지센터로 발전	전체	32.0	45.7	16.6	5.7	100(403)	17.761**	
	지역 규모	대도시	35.9	44.8	15.2	4.1		100(145)
		중소도시	39.6	42.5	11.2	6.7		100(134)
		읍면지역	19.5	49.6	24.4	6.5		100(123)
정부지원과 관계없이 지역사회 사회경제적 특성을 고려한 다양한 지역아동센터 운영방식 필요(예, 국·공립/민간자율형 센터 등)	전체	19.2	42.4	28.7	9.7	100(401)	12.854*	
	운영 기간	2년미만	25.0	28.1	35.9	10.9		100(64)
		2~5년	22.7	45.5	25.3	6.5		100(154)
		5년이상	14.1	44.1	29.4	12.4		100(177)

*p<.05, **p<.01

그 다음으로 '현재와 같이 저소득층을 포함한 취약계층 아동·청소년을 주 이용대상으로 한 방과후 돌봄서비스 제공'이라는 항목에 대해서도 약 76%로 유사한 비율로 나타났다. '정부지원과 관계없이 지역사회 사회경제적 특성을 고려한 다양한 지역아동센터 운영방식(예, 국·공립모델, 순수민간형 센터 등 포함) 필요' 한지에 대해서는 시설장들의 약 62%가 긍정적으로 응답했는데, 특히 운영기간이 2년에서 5년미만인 시설의 응답률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5) 일반 학부모 전화조사 결과

보육시설 이용을 위한 아이사랑카드와 같은 바우처 제도에 대한 인지도를 조사한 결과, 조사대상자의 66.3%가 알고 있다고 응답했으며, 특히 조사대상자 중 여성이, 그리고 부모연령이 30대인 경우, 또 자녀의 연령이 낮을수록 더 잘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12 어린이집 이용을 위한 바우처 제도 인지 여부 단위: %(빈도)

구분		알고 있다	몰랐다	전체	χ^2
전체		66.3	33.7	100(519)	
부모성별	남	55.1	44.9	100(187)	16.411***
	여	72.6	27.4	100(332)	
부모연령	30대	80.8	19.2	100(156)	20.948***
	40대이상	60.1	39.9	100(363)	
자녀학년	초1~3학년	79.5	20.5	100(171)	22.138***
	초4~6학년	63.5	36.5	100(170)	
	중학생	56.2	43.8	100(178)	

***p<.001

바우처 제도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90%가 넘는 조사대상 학부모가 필요하다고 응답하였으며, 특히 경제수준이 낮거나 중간인 학부모들이 경제수준이 높은 학부모들보다 바우처 제도가 더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표 IV-13>).

표 IV-13 바우처 제도의 필요성 단위: %(빈도)

구분		필요하다	필요하지 않다	전체	χ^2
전체		90.1	9.9	100(484)	
경제상황	하	91.2	8.8	100(113)	12.027**
	중	92.0	8.0	100(313)	
	상	77.2	22.8	100(57)	

**p<.01

바우처 제도가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는 <표 IV-14>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프로그램과 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해 필요하다는 응답이 40%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는 ‘수요자의 선택권 보장’과 ‘정부지원예산의 투명한 운영’이 유사한 비율로 각각 25.6%, 22.5%로 나타났다. 이러한 바우처 제도 도입 이유에 대해서는 배경변인별 차이를 보였는데, 지역규모별로 보면, ‘수요자의 선택권 보장’에 대해서는 대도시의 지역아동센터에서(29.6%), 그리고 ‘프로그램과 서비스의 질 향상’은 중소도시의 시설에서(42.4%), ‘이용아동의 입·퇴소의 정확한 관리’는 읍·면에 위치한 시설에서 (25.4%)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표 IV-14 바우처 제도가 필요한 이유 단위: %(빈도)

구분		수요자의 선택권 보장	정부지원 예산의 투명한 운영	프로그램과 서비스의 질 향상	이용아동 입·퇴소의 정확한 관리	전체	χ^2
전체		25.6	22.5	40.0	11.8	100(422)	
지역규모	대도시	29.6	23.0	37.5	9.9	100(152)	16.968**
	중소도시	26.1	22.7	42.4	8.9	100(203)	
	읍면	14.9	20.9	38.8	25.4	100(67)	
부모학력	중졸이하	16.7	33.3	25.0	25.0	100(12)	13.332*
	고졸	17.5	23.4	44.2	14.9	100(154)	
	대졸이상	30.6	21.6	38.4	9.4	100(255)	
경제상황	하	17.8	27.7	36.6	17.8	100(101)	13.976*
	중	26.1	21.7	42.0	10.1	100(276)	
	상	40.9	13.6	36.4	9.1	100(44)	

*p<.05, **p<.01

부모학력별로 보면, 중졸이하의 부모는 ‘정부지원 예산의 투명한 운영’에 대한 응답이(33.3%) 가장 높았고, 고등학교 졸업과 대졸 및 그 이상 학력의 부모는 ‘프로그램과 서비스의 질’ 향상에 대한 응답을 각각 44%, 38.4%로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경제수준이 낮거나 중간집단인 경우 ‘프로그램과 서비스의 질 향상’에 대해 각각 36.6%, 42%로 다른 항목에 비해 높은 응답률을 보였는데, 경제수준이 가장 높은 집단의 경우는 ‘수요자의 선택권 보장’이 40%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프로그램과 서비스의 질 향상’(36.4%)이 높은 응답률을 나타냈다.

4. 요약 및 제언

1) 연구요약

(1) 국내·외 바우처 제도 사례

2007년도부터 도입된 보건복지부의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제도는 이용자 편익을 가져옴에 따라 사회서비스 이용자의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으며, 또한 전달체계의 효율성과 투명성이 제고되었다고 평가되고 있다. 또한 기존의 공급자 방식(정부직접제공, 혹은 정부위탁)과 달리 서비스 이용자에게 직접 선택권을 제공한다는 장점이 있으나, 반면에 바우처 활용을 위한 정부부족이나 서비스제공

기관간 답합 등으로 이러한 선택권이 방해될 수 있다는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 여러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중에서는, 특히 취약한 아동에게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보육시설에서 활용하는 아이사랑 카드(I-sarang 카드)를 지역아동센터의 바우처 제도 도입과 관련하여 가장 유사한 사례로 볼 수 있다. 보육료 지원을 위한 아이사랑카드는 그 동안의 공급자중심의 보육서비스전달체계가 아닌 수요자인 부모를 통해 보육료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보육서비스의 수요를 증진시킴으로서 보육시설 이용률 제고라는 정책목표에 현금지원보다 효과적일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그러나 앞서 언급한 바우처 제도 도입에 따른 부작용과 같은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

2006년부터 도시지역의 저소득 계층의 학생들의 방과후학교 이용을 지원하기 위해 활용하고 있는 자유수강권도 일종의 바우처 제도라고 볼 수 있다. 자유수강권은 사교육비 부담으로 인해 소외된 계층의 학생들에게 필요한 교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①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우선 지원하며, ② 소년·소녀 가장, 새터민 자녀, 보훈대상자 자녀, 시설 수용 학생과 ③ 기타 학교에서 지원 필요성을 인정하는 학생들에게 지원된다.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을 통해 학생 1인당 연간 30만원(월 3만원×10개월)의 무료수강권이 지급되는데, 학생들은 이 수강권을 가지고 자신이 원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다.

수요자 중심 접근으로서의 바우처 제도가 가장 보편화되어 있는 나라로서, 미국의 경우 저소득층을 위한 Food Stamp Program, After School Programs을 포함한 교육관련 바우처, 보육프로그램(day-care) 서비스권제 등이 실시되고 있다. 지원(전달)체계는 연방정부와 주정부단위에서 총괄 및 관리기관(Lead Agency)을 두어 부모들의 보육지원에 대한 자격조건 부합 여부와 보육서비스 제공기관과의 관련된 모든 업무를 담당한다. 보육서비스 지원대상은 주 중위소득(SMI: State Median Income)의 34~85%에 해당하는 저소득 가정으로, 평균적으로는 주 중위소득의 60%가 지원 대상에 해당된다. 영국에서의 보육 바우처제도는 1996년 4개 지역교육청에서 시범운영한 이후 1997년 전국으로 확대된 바 있으며, 2003년부터는 'Childcare Vouchers Direct' 라는 전자보육바우처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면서 보육서비스 보편화에 기여하였다 (배득중 외, 2008)

(2) 지역아동센터장 심층면접 결과

① 바우처제도에 대한 인지도 : 바우처 제도(보육시설 이용을 위한 i-sarang card, 방과후학교의 자유수강권 제도 등)에 대한 인지도가 아직 낮은 것으로 나타나, 바우처 제도에 대한 바른 인식과 활용을 위한 교육 필요성을 보여주고 있다.

② 바우처제도의 필요성 여부 : 바우처 제도가 수요자의 선택권을 보장할 수 있다는 인식과

더불어 저소득층 아동들의 바우처 사용이 저소득층 아동들에 대한 낙인을 해소할 수 있으리라는 의견이 있었다(특히 전자바우처 사용 시). 반면, 바우처 사용 자체에 대한 낙인과 바우처 사용시 발생가능한 문제점(바우처 부정수급, 매매 등)에 대한 우려도 있었다. 자녀의 지역아동센터 이용에 무관심한 학부모가 많기 때문에 바우처 활용을 잘 할 수 있을지에 대해 대부분의 시설장들이 우려를 나타냈다.

③ 지역아동센터의 바우처 제도 도입가능성 : 바우처방식으로 인해 운영비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될 수 있으리라 보는 응답도 있었지만, 대체로 부정적인 의견을 보였다. 그 이유는 앞서 언급한 대로 바우처 카드사용에 따른 문제점과 부모들의 무관심으로 바우처 활용이 어려울 것이라는 보고 있었으며, 또한 바우처로 인해 시설 이용 주기가 짧을 경우 센터나 아이들에게 혼란을 줄 수 있다는 응답도 있었다. 방과후학교의 자유수강권과 같은 지역아동센터의 개별 프로그램이나 서비스의 바우처 활용 가능성에 대해 서는 축구클럽이나 오케스트라와 같은 일부 특수프로그램일 경우, 시설간 연계를 전제로 가능하다는 응답도 있었으나, 대체로 가능하지 않다는 응답이 많았다. 그 이유로는 시설간 이동은 아동들의 안전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으며, 이미 방과후학교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아이들일 경우 프로그램의 중복가능성을 제기하였다.

④ 바우처 제도를 통해 기관간 연계나 컨소시움, 파트너십의 가능성 여부 : 바우처 제도를 통한 시설간 연계가능성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센터장이 아동들의 이동과 수용문제, 인력수급문제, 경쟁분위기 조성 등을 이유로 부정적인 의견을 보였다.

⑤ 바우처 제도 도입에 대한 찬성 여부 : 바우처 제도가 지역아동센터를 좀 더 적극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동기가 될 수 있고 또 바우처를 통해 센터를 이용하는 아이들의 책임감을 증진시킬 수 있다는 찬성의견이 있었다. 그러나 농·어촌지역과 같이 지역사회에 선택가능한 시설이 거의 없는 경우 무의미하다는 의견을 보였다.

⑥ 바우처 제도 도입이 가능한 시설의 특성 : 바우처 제도 도입은 맞벌이 부부가 많은 지역에서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었으며, 심야시간 및 주말의 경우 역시 맞벌이 가정이 이용가능성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⑦ 바우처 제도 도입전 필요 조건 : 바우처 제도 도입을 위한 필요조건으로는 인건비확보와 시설, 프로그램과 서비스 수준이 담보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보였다.

⑧ 바우처 제도 도입에 대해 예측되는 학부모 반응 : 일부 시설장들은 선택권이 부모에게 주어진 만큼 환영하는 부모들도 있겠지만, 앞서 언급된 바와 같이 부모들의 책임감 부재로 바우처를 적절히 활용하지 못 할뿐만 아니라 이로 인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3) 학부모 FGI 결과

바우처 제도에 대해서는 대체로 찬성하는 학부모들이 많았으며, 특히 어린 아들이 있는 가정의 경우 아이사랑카드에 대해 잘 이해하고 있었고, 더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또 지역아동센터 이용에 있어 카드형 전자바우처 제도를 도입할 경우 이용아동이 낙인찍히지 않을 수 있는 좋은 방식으로 인지하고 있었고, 적극적인 활용의지를 보이는 학부모도 있었다. 일부 학부모들은 본인 자녀들의 바우처 사용으로 일반아동과 비교해 시설이용에 어려움을 경험할 수 있다고 우려하는 목소리가 많았다.

(4) 전문가의견조사

① 바우처 제도를 도입한 기존의 서비스에 대한 평가

기존의 유사돌봄 서비스의 바우처 제도(아이사랑카드) 도입 성공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성공적이지 않다는 의견이 더 많이 나타났는데, 그 이유는 소비자의 충분한 선택 정보의 제한 또는 선택능력의 부족 등으로 인해 바우처 제도의 성과가 제한적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보는 의견이 많았다. 기존의 바우처 제도 도입이 성공적이라고 보는 일부 전문가들은, 시설이 아닌 수요자에게 시설이용을 위한 바우처가 지원되면서 시설간의 서비스 개선 경쟁을 가져왔으며, 시설에 직접 지원하는 것에서 파생할 수 있는 허수 이용자 문제를 예방하여 재정지원의 투명성이 확보된다는 측면에서 성공적이라고 보고 있었다.

② 지역아동센터의 바우처 제도 도입가능성

아직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수요파악과 공급조절이 어려운 측면이 있어 바우처 제도 도입은 시기상조이며, 현재도 공공성보다는 수익성을 추구하는 지역아동센터가 있어 바우처가 도입될 경우 기존 공부방과의 차별성을 찾기 어렵고, 상업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부정적인 의견들이 제시되었다. 또한 바우처 제도에 따른 행정업무부담이 늘어나 현재와 같이 인력부족을 겪고 있는 시설입장에서는 업무부담이 크다는 의견도 있었고, 또한 바우처의 부정사용과, 바우처 카드 도입 시 현장에서의 혼란과 무질서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었다

③ 지역아동센터에서의 바우처 제도 도입의 장·단점

지역아동센터에서의 바우처 제도 도입의 장점으로는 사업의 공공성과 회계부분의 투명성 등이 강화되며, 입소관리 및 퇴소의 사후처리가 명확해질 수 있고(이용아동에 대한 정확한 현황 파악 가능), 이용자의 서비스 선택이 넓어지며, 또 이에 따른 서비스경쟁으로 서비스의 질에 대한 지역아동센터의 자발적 노력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보고 있었다. 바우처 제도 도입에 따른 문제점으로는 지역아동센터

터 상업화, 서비스 질 저하, 정부의 관리·감독 약화, 서비스이용의 계층화 발생 등이 지적되었으며, 오히려 바우처 제도 이용 시 방과후돌봄서비스의 사교육양성화와 같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보았다. 또한 소비자에게 충분한 정보가 제공되지 않을 수 있으며, 또 선택능력 부족 등의 문제가 나타날 수 있고 이용자에게 필요한 것이 아닌 이용자에게 인기 있는 서비스 및 프로그램으로 바우처 사용이 집중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서비스선택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접근성을 고려할 때 예상보다 자유로운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수 있으며, 시설투자나 인력투자 없는 지불방식은 오히려 질적 수준을 낮출 수 있다는 의견도 함께 제시되었다. 더불어 바우처를 통해 시설간 경쟁 심화 및 전달 체계간 갈등들은 시설간 협력체계구축과 파트너쉽들을 더욱 어렵게 만들 수 있다고 보았다.

④ 개별 프로그램 및 서비스 단위별 바우처 제도 도입 및 시설간 연계가능성

지역아동센터 이용이 아닌 개별프로그램이나 서비스단위별 바우처 제도 도입가능성에 대해서는 조사에 응한 전문가들이 대체로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수요자부담이 가능한 개별프로그램이나 서비스에 대해 일부가능하다는 응답도 있었으나(장애아 돌봄 및 재능 개발, 학습부진아 교육, 문화예술 및 자연체험 등), 지역아동센터는 생활공간으로 전반적인 아동에 대한 보호와 관리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이러한 개별 단위의 프로그램 이용을 위한 바우처 제도는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이 많았으며, 이를 통한 시설간 연계나 파트너쉽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견해를 보였다.

(5) 지역아동센터장 설문조사 및 학부모 조사 결과

① 바우처 제도 도입가능성 및 대상자 선정

지역아동센터의 바우처 제도 도입 필요성에 대해서는 시설장의 65%가 긍정적으로 응답했는데, 앞서 시설장 면접조사와 전문가의견조사에서의 바우처 제도 도입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과 비교할 때 상당히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심야시간이나 주말·공휴일등의 시설 이용을 위한 바우처 활용 가능성에 대해서는 64.3%의 긍정적인 응답을 나타냈다. 지역아동센터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바우처 지원기준으로는 가정의 일정가구소득 이하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고, 그 소득기준에 대해서는 가구평균소득액 하위 50%에게 바우처를 지원해야 한다는 응답률이 약 28%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② 바우처 제도 도입에 대한 장·단점과 선결요건

바우처 제도도입에 따른 긍정적 측면으로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인 항목은 '수요자의 서비스 선택권 확보'(약 80%)였으며, 그 다음으로는 '지역아동센터 자체 서비스 질 개선 노력'(74.1%), '정부지원 예산운영의 투명성 강화 및 프로그램의 내실화'(72.8%), '양질의 서비스 제공 위한 지역아동센터

간 자발적 노력 증가'(68.2%), '정확한 아동의 지역아동센터 입소 및 퇴소 관리 가능'(67.4%)순으로 나타났다.

부정적 측면으로는 '바우처 통한 지원예산의 예측불가로 안정적 기관운영 저해' (69.7%)가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였고, 그 다음으로는 '저소득·취약계층아동 가족의 센터 선택·이용 위한 정보 및 바우처 활용능력 부족'(66.9%), '지역아동센터간 경쟁심화와 부모요구에 따른 사교육화(학원화)우려'(65.3%), '바우처 사용에 따른 아동간 차별과 위화감 조성'(63.6%), '바우처의 악용 및 부정사용 우려'(60%)의 순으로 나타나 이러한 응답과 관련한 제도적 보완의 필요성을 보여주고 있다.

바우처 제도 도입을 위한 선결요건으로서는 '바우처 이용 아동과 이용료 부담 아동간 낙인과 위화감이 조성되지 않도록 하는 운영방법 고려'(94%) 항목이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였고, 그 다음으로 '지역아동센터의 개별프로그램·서비스 이용을 위한 바우처 활용 시 이동수단 필요'(91.7%), '바우처 제도로 인해 원하는 지역아동센터 이용에 제한이 없어야 함'(89.3%), '지역아동센터 운영표준화 및 서비스·인력에 대한 투자 선행' (87%)과 '별도행정업무에 대한 인적·비용에 대한 추가부담 고려'(87%), '바우처는 별도의 기관이나 구청/시청 등에서 직접 관리'(78%)순으로 나타났으나, 바우처 제도 실시의 전제가 되는 '지역아동센터의 양적 확대'에 대해서는 50.6%의 상대적으로 낮은 응답률을 보였다.

향후 지역아동센터의 발전방향으로서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이용할 수 있지만, 일정 소득 이상은 수익자부담으로 하는 지역사회중심의 아동복지센터로 발전되어야 한다'는 항목이 가장 높은 응답률(약 78%)을 보였으나, '현재와 같은 저소득층포함 취약계층 아동·청소년을 주 이용대상으로 한 방과후 돌봄서비스 제공'이라는 항목도 유사한 응답률(76%)을 보였다. 그리고 다양한 지역아동센터 운영방식의(예, 국·공립모델, 순수민간형 센터 등) 필요성에 대해서는 약 62%로 상대적으로 낮은 응답률을 보였다.

③ 학부모 전화조사 결과

바우처 제도에 대한 인지도를 조사한 결과 조사대상자의 66.3%가 알고 있다고 응답하였고, 응답자 대다수가 바우처 제도가 필요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바우처 제도가 필요한 이유로는 '프로그램과 서비스의 질 향상'항목이 전체 40%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는 '수요자의 선택권 보장'과 '정부지원예산의 투명한 운영'이 유사한 비율로 각각 25.6%, 22.5%로 나타났다.

(6) 제언

첫째, 지역아동센터의 바우처 제도 도입과 관련하여 시설장면접과 전문가의견조사 결과, 현재와 같은 지역아동센터 설립이 허가제가 아닌 상황에서는 이러한 바우처 제도가 사교육시장과 같은 관점을 가진 지역아동센터일 경우 오용될 것에 대해 매우 큰 우려를 보였다. 시설장 설문조사와 학부모 전화조사결과에서는 바우처 제도 도입의 필요성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긍정적인 응답이 높게 나타나, 앞의 다른 조사와는 상이한 결과를 보여 이러한 조사결과에 대한 신중한 해석을 요하고 있다.

둘째, 바우처 제도 도입 유사 사례로서 사회적서비스 바우처와 아이사랑카드를 살펴볼 수 있는데, 이 바우처들은 쿠폰이나 증명서가 아닌 전자바우처 방식으로서 지원대상이 이 바우처를 사용하는데 있어 낙인을 피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많은 지역아동센터 시설장과 학부모들은 현재 시설 이용 아동들이 일반아동과 함께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함으로써 낙인을 피하고 양질의 프로그램과 서비스도 함께 제공받기를 원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시설내에서 일반아동들과의 관계에서 위화감을 느끼게 될 것을 우려하였다. 시설장 설문조사에서도 바우처 제도 도입을 위한 선결요건으로서 '바우처 이용 아동과 이용료 부담 아동간에 낙인과 위화감이 조성되지 않도록 운영방법을 고려해야 한다'는 항목이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학부모 집단인터뷰 과정에서 특히 아이사랑카드와 같은 전자바우처 방식을 선호한 것을 볼 때, 지역아동센터에서는 방과후 학교의 자유수강권과 같은 종이쿠폰방식보다는 카드형 전자바우처 방식을 활용하는 것을 우선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셋째, 지역아동센터의 전자바우처 방식도입과 관련해서 무엇보다 주의하여야 할 사항들이 있는데 바로 현재 보육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바우처 부정수급, 타인양도 및 매매, 정보비대칭, 서비스제공 기관간 담합 등의 부정사용에 대한 문제들이다. 시설장들도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 많은 우려를 나타내고 있는데, 바우처 사용에 있어서의 이러한 부정적인 측면을 보완할 다양한 법적·제도적 방안이 고려되어야 한다. 미국의 아동보육기금(CCDF)사용을 위한 합법적인 관리기구(Lead Agency)의 사례에서처럼 지역아동센터 바우처의 부정사용을 적발하고 합법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기구가 필요할 수 있다.

넷째, 바우처 제도의 도입은 기존의 기관중심의 서비스 제공이 아닌 지역아동센터의 수요자인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과 학부모에게 선택권을 부여하는 방식이지만, 정작 수요자가 이러한 바우처를 잘 사용하지 못한다면 무용지물이 될 뿐 아니라 앞서 언급한 부정활용에 이용될 수 있다. 많은 시설장들과 전문가들이 자녀의 지역아동센터이용에 대해 부모들이 무관심한 경우가 많다고 지적하고 있으며, 심지어 바우처카드 사용을 시설장에게 모두 일임하는 사례도 발생할 것이라는 시설장들의

예측도 있었다. 이러한 조사결과는 시설장 설문조사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어 부모들의 지역아동센터선택·이용을 위한 정보 및 바우처 활용능력 부족에 대한 우려가 많았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방안이 필요하며, 기본적으로 바우처 활용을 통한 수요자의 선택권에 대한 사전교육과 인식개선이 필요하다.

다섯째, 지역아동센터의 바우처 지원 대상 선정기준은 단순히 일정소득 이하의 저소득층에만 국한할 것이 아니라, 다양한 환경에서 비용문제로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없도록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 방과후 학교의 자유수강권 지원대상은 넓은 범위의 저소득층이었고, 또한 보육료지원의 경우도 2011년 현재 가구평균소득 상위 30%의 경우만 자부담으로 하고 있으며, 이를 제외한 70%에게 보육료를 지원하고 있다. 본 연구의 시설장 설문조사에서는 바우처 지원기준을 가정의 일정소득 이하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생각하는 비율이 높았으며, 그 소득기준에 대해서는 가구평균소득액 하위 50%에게 바우처를 지원해야 한다는 응답률이 가장 높았다.

여섯째, 바우처 제도를 통한 지역아동센터간 연계나 컨소시엄, 파트너십에 대해서는 시설장면접과 전문가의견조사, 시설장 설문조사 결과, 경쟁분위기로 인해 오히려 더 부정적인 상황이 발생할 것으로 보고 있었다. 또한 아동들의 안전한 이동과 접근성 및 공간문제, 그리고 인력수급문제와 경쟁분위기 조성과 같은 문제로 인해 바우처 제도 도입에 대한 우려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방과후학교에서도 지역사회내 연계협력에 대한 강조에도 불구하고 실제 성공사례가 매우 미비한 것을 볼 때, 지역아동센터간 실제적인 협력이나 연계를 위해서 바우처 제도가 어떠한 긍정적·부정적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신중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일곱째, 시설장 및 전문가의견조사결과, 바우처 제도가 실시된다면 사회복지사나 생활복지교사가 처리해야 하는 행정 업무가 증가하게 되고, 이로 인해 서비스의 질이 떨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보육의 경우도 아이사랑 카드 이용자가 많은 어린이집의 경우 행정보조 인력의 추가배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어, 바우처 제도 실시에 따른 행정비용 등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바우처 공급 대상자의 범위를 지역아동센터 이용자로 제한할 경우 지역간 편차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가의 문제가 나타난다. 상대적으로 지역아동센터가 적은 농·어촌 등의 지역은 방과후 돌봄 서비스의 수요가 있어도 지역아동센터의 부재로 인해 바우처 제도를 활용할 수 없게 된다. 물론 이러한 특수지역에는 국·공립형 지역아동센터의 우선배치를 고려해 볼 수 있지만, 이러한 지역간 편차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이 고려되어야 한다.

5. 지역아동센터의 바우처제도 도입 가능성 모색

지역아동센터 이용을 위한 전자바우처 제도는 소득, 연령 등 일정한 조건을 갖춘 부모에게 서비스이용권을 전자카드에 담아 지역아동센터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최근 지역아동센터의 급격한 증가에 따라 지역아동센터 이용 수요가 급증하였고,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정부지원을 확대하였지만, 지역아동센터 예산을 지역아동센터에 직접 지원함으로써 부모와 지역아동센터간의 의사소통이 어렵고, 지역아동센터 이용에 대한 정부지원의 부모체감도가 낮으며, 부모의 선택권이 제대로 활용될 수 없는 등의 문제가 있었다. 이와 더불어서 정부지원 운영비가 효율적으로 사용·관리되고 있는 지를 파악하기 어려웠다.

바우처는 부모와 지역아동센터간 의사소통을 증진시키고 행정업무의 효율화를 증진시킬 것으로 기대해 볼 수 있다. 보육의 경우 바우처 제도에 대한 부모의 만족도가 보통이상의 수준으로 어린이집 원장보다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부모들은 변화된 보육료 지불방식 및 제도 전반에 대해 대체적으로 만족하였다. 그러나 바우처제도 시행과정에서 결제방식 및 카드 발급과정에서 부모의 경제상태 노출로 인한 부정적인 감정, 그리고 부모와 보육시설장간의 담합으로 인해 여러 문제에 노출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임양미, 2011). 보육에서 시행되고 있는 바우처 제도가 갖고 있는 문제점을 정교하게 분석하여 지역아동센터의 바우처제도 도입은 보다 안정적이고 투명한 운영이 담보될 필요가 있다.

1) 바우처 제도 도입 방식²⁹⁾

(1) 바우처 지원 대상

지역아동센터를 무상으로 이용하기 위한 바우처 제도의 수혜대상은 현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침에 따른 이용아동과 크게 다르지 않다. 현재 이용료를 받을 수 없는 대상은 ①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② 차상위, 조손, 다문화, 장애, 한부모 아동 ③ 기타 승인아동으로 명시되어 있으며, 이들에 대해 지역아동센터 이용을 위한 바우처를 지원할 수 있다. 타 방과후(돌봄)서비스의 경우도 (p. 326 <표 III-15> 참조) 유사한 기준을 가지고 서비스를 무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바우처를 지원(아이사랑 카드, 자유수강권)하고 있거나, 또는 별도의 이용료를 받지 않고 있다.

29) 아이사랑카드와 같은 시설이용을 위한 바우처 제도도 있지만, 방과후 학교의 자유수강권처럼 개별프로그램이나 서비스별 바우처제도가 있을 수 있음. 시설장 면접 및 전문가조사결과 지역아동센터는 '가정'형태의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특성상 개별 프로그램별 바우처 제도는 불가능하다는 의견이 많았기 때문에(이와 관련해서는 뒤에서 따로 논의하겠음) 여기서는 시설이용을 위한 바우처 제도 운영에 초점을 둠.

현재의 지역아동센터 운영매뉴얼과 또 타 방과후(돌봄)서비스에서의 바우처 지원이나 무상 이용 대상에 대해 검토한 결과, 지역아동센터의 바우처 지원대상은 먼저 만 7세에서 18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으로서, 현재 지역아동센터의 주 이용대상인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및 차위가정의 아동 및 다문화가정의 아동이거나 장애아동의 경우를 기본적인 바우처 제도의 대상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부모의 소득수준이 차상위 계층을 넘는다고 하더라도 비정규직이거나, 일용·노동직으로 급여수준이 낮고 자녀를 돌볼 수 없는 상황인 경우 이러한 가정의 아동들에게도 바우처 지원이 가능해야 한다. 보육시설의 사례처럼 가구소득 하위 70%이하를 대상으로 하는 등 보다 광범위한 바우처 제도 적용을 고려해볼 수 있으며, 본 연구의 센터장 조사결과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가구소득평균 최대 50%까지는 무상이용을 위한 바우처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 특히 수요자부담방식이 확대된다고 할 때, 소득수준이 낮은 가정의 아동들이 센터 이용에 제한받지 않도록 면밀한 바우처 대상 선정이 필요하다.

표 IV-15 유사 방과후(돌봄)서비스의 무상 이용 대상 (2011년도 기준)

보육시설 이용을 위한 보육료 지원대상	초등돌봄교실의 자유수강권 지원 대상	지원형·혼합형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무상 이용 대상
○법정저소득층 아동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도에 의한 수 급권자 및 그 가구원(의료, 교육, 자 활,급여)특례수급권자포함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 자로 선정된 모·부자가정 아동 - 아동복지법 제6조6에 의한 아동복지 시설에서 생활중인 만3~4세 아동 - 여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가정), 성폭 력,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에 입소한 여성의 동반자녀* - 모부자 일시보호시설 등에 입소한 자 의 자녀 - 미혼모자 공동생활가정에 입소한 자 의 동반자녀 ○ 영유아가구소득하위70%이하 가구의 보육시설 이용 만~4세아 동반자녀 등	- 국민기초생활수급대상자, 소 년·소녀가장, 한부모 가정자녀, 보호대상자 자녀, 시설수용 학생, 북한이탈 주민자녀, 조 손가정자녀, 차상위 계층 자 녀 등 - 차상위 계층 자녀는 담임교사 의 추천 가능 ※ 「엄마품은중일돌봄교실」의 경우도 동일하게 적용	- 기초생활수급대상, 차상위계 층, 저소득층 - 농산어촌지역,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과다지역 청소년 - 장애청소년 ※이용료는 전액 무료, 단 교 재비·준비물 등은 수익자 부담 - 증빙 서류 확인이 어려운 저소득층 청소년의 선발· 확인온'청소년방과후아카데 미 지원협의회'에서 심 의·확정

보육분야에서는 표준보육비용을 근거로 바우처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나, 지역아동센터의 경우 정부에 의해 고시된 아동개인별 표준이용료가 산출되지 않았고, 또 지역아동센터별로 연간 정부의 기본 운영비 지원액이 결정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역아동센터의 바우처 제도는 보육분야처럼 표준이용료를 근거로 바우처 제도를 시행하기는 어렵다. 이런 맥락에서 지역아동센터의 바우처 제도 도입은 센터에 대한 정부지원금과 가구소득을 기준으로 한 일반아동의 이용 수 등을 고려하여 센터에 대한 바우처 지원정도를 가늠할 수 있다(바우처 지원금액에 대한 내용은 p. 327참조).

(2) 운영방식

① 결제방법

지역아동센터의 무상이용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자녀의 부모는 전자바우처 형태인 바우처 카드를 사용하여 지역아동센터 이용료를 월별, 혹은 분기별로 결제하고, 지역아동센터에서는 카드결제 후 평균 5일 이내 지정된 금융기관에서 지역아동센터 계좌로 이용료를 입금한다.

표 IV-16 지역아동센터 전자바우처 사용법

전자바우처를 활용한 지역아동센터 이용료 결제	
<div style="text-align: center;"> <p>지역아동센터 서비스 이용</p> <p>지역아동센터 부모</p> <p>지역아동센터 이용료 결제</p> </div>	
01	결제 주기 : 매월 혹은 분기별 결제*
02	결제방법 - 매월 지역아동센터에 방문하여 단말기를 통해 결제(기본원칙) - 분기단위 매월자동결제* - 인터넷 결제 - ARS 결제
03	결제시기 : 당월 실제 지역아동센터이용일 수가 11일 이상을 넘은 시점부터 익월 말일까지
04	결제금액 : 정부지원금의 총액 결제
05	결제내역 : 카드결제일에 맞추어 지역아동센터에게 정부지원금 지불

※ 바우처 제도 도입 초기에는 매월 결제보다는 바우처 제도를 통한 센터운영이 보다 안정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분기별 결제 등을 시범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특히 연중 특별프로그램이나 행사가 있는 경우 예산 사용이 집중되므로(예, 여름캠프 등), 월별 결제는 사업운영을 어렵게 할 수 있음을 고려하여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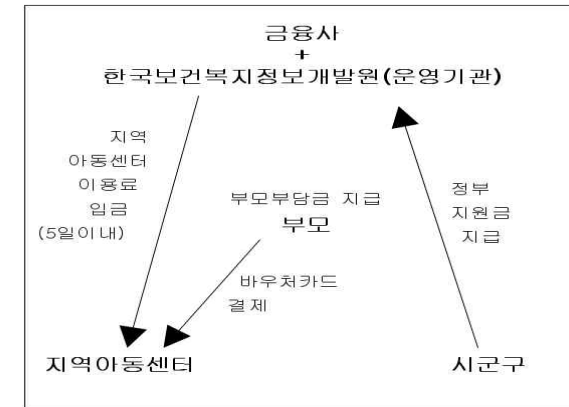
금융사 및 바우처 카드 업무처리 기관에서는 카드내역을 확인하고 지역아동센터에 결제대금을 지불한다(<표 IV-16> 참조). 결제는 방문결제와 더불어 바우처 제도의 시행은행에서도 결제가 가능할 수 있도록 금융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하며, 해당은행에서 부모가 결제한 후 특정일에 지역아동센터로 입금될 수 있어야 한다. 카드결제기간은 일반후불 결제보다는 지역아동센터의 운영상 당월결제가 가능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보육의 아이사랑 카드의 경우 부모의 부주의로 보육료 결제가 지연되어 익월에 후불로 보육료가 지불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여 어린이 집의 운영에 어려움을 초래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지역아동센터의 바우처 제도는 이러한 혼동을 방지하기 위해서 결제방식을 당월 결제로 통일할 수 있어야 한다.

② 운영기관

앞서 외국사례에서 보는 것처럼 수혜자의 자격확인, 바우처 발급 및 정산 등 바우처를 운영하는 중간관리기관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지역아동센터의 바우처 제도를 위해서는 별도의 운영기관을 설립하기보다는 보육영역의 아이사랑 카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에 이 업무를 의뢰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다. 별도의 기관을 설립하는 것은 기관 운영에 따른 비용발생을 초래하며 운영의 합리화와 전문화를 꾀하는 데에도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이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기존 기관을 활용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이 경우 보육시설 이용을 위한 바우처 제도 활용에 있어서의 문제점 등에 대한 경험 등을 기반으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바우처 제도의 효과적인 운영·관리를 기대할 수 있다.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을 관리기관으로 할 때, 지역아동센터 전자바우처 운영방식은 <표 IV-17>과 [그림 IV-5]와 같이 생각해 볼 수 있다.

표 IV-17 지역아동센터전자바우처 운영방식 I

부모	지역아동센터 이용료 카드결제
지역아동센터	카드 결제 후 평균 5일 이내 금융기관에서 지역아동센터 계좌로 입금
금융사-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운영기관)	카드내역 확인 및 지역아동센터에 결제대금 지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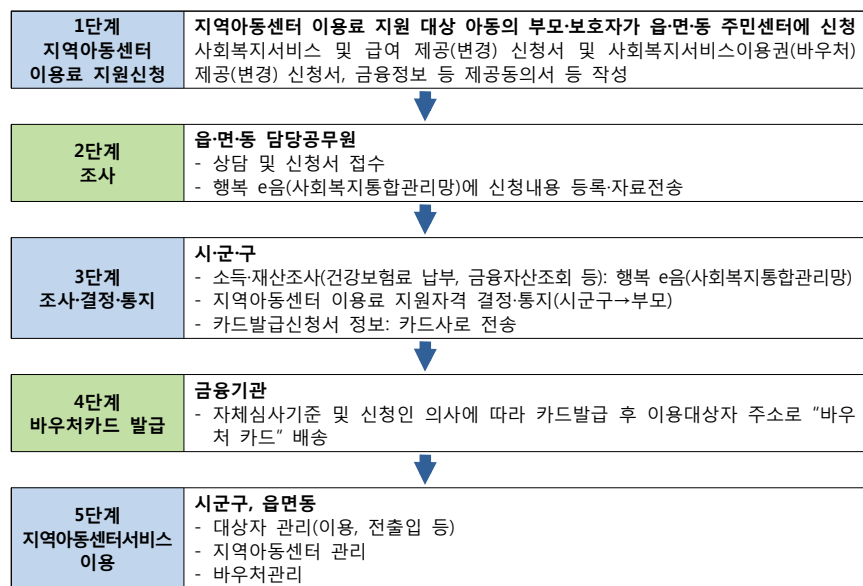


[그림 IV-5] 지역아동센터전자바우처 운영방식 II

③ 신청절차

지역아동센터 이용료 지원신청은 다음의 5단계를 거쳐 진행될 수 있다. 1단계는 지역아동센터 이용료 지원신청단계, 2단계는 조사, 3단계는 조사결정 통지, 4단계는 바우처카드 발급, 5단계는 지역아동센터 서비스 이용의 단계이다.

먼저 아동을 양육하고 있는 부모 등 보호자가 지역아동센터 이용료 지원신청서를 각 읍, 면, 동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담당공무원은 신청내용에 대한 접수와 사회복지 통합관리망에 신청내용을 등록한다. 시, 군, 구는 소득재산조사(예, 건강보험료 납부상황, 금융자산 조회 등)를 통해 지원자격을 심의·결정하고 이를 부모 등 보호자에게 통지한다. 지원대상자로 선정되면 카드발급신청서를 작성하여 카드사로 이를 이송한다. 이후 바우처 카드가 발급되면 금융기관은 자체심사기준 및 신청인 의사에 따라 카드 발급후 이용대상자 주소로 바우처 카드를 배송한다.



[그림 IV-6] 지역아동센터 전자바우처 신청절차

④ 바우처 제도화에 따른 소요예산

본 연구에서는 바우처 제도 시행에 따른 예산을 추정하기 위하여 보육의 아이사랑 카드를 참고하였다. 보육사업안내에 따르면 연도별 보육 전자바우처 운영예산은 다음의 <표 IV-17>과 같다. 아이사랑 카드 예산은 시스템 계약 비용, 보육 바우처 관리비용, 인건비, 시스템관리 등의 비용으로 사용된다. 아이사랑 카드 시행 첫해인 2009년에는 75억여원의 예산이 소요된 것에 비해, 2011년 예산은 67억6천여만원으로 감소하였다. 2009년은 아이사랑카드 제도 시행 첫해로 인프라 구축과 교육실시 등 제반여건을 마련하는데 추가적인 비용이 소요되어 예산액이 가장 많았던 것으로 보인다.

2010년 12월 말 기준으로 전체 보육시설수는 3만 8천여개이었고, 2011년 5월말 년 지역아동센터 수는 3천 8백개소로 전국 지역아동센터의 수는 보육시설의 약 1/10에 이른다. 이점을 감안하여 지역아동센터의 전자바우처 제도 도입예산을 추정해 보면 2011년 아이사랑카드 예산의 1/10에 해당하는 대략 6억 7천여만원을 상회하는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다. 아이사랑 카드 예산이 시행 첫 해인 2009년에 가장 많았던 것을 비추어 볼 때 제도도입 시기에는 시스템 구축을 위한 추가비용이

더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표 IV-18 연도별 보육전자바우처 운영예산

(단위: 백만원)

	2009	2010	2011	비고
보육전자바우처 운영	7,556	5,484	6,762	전자바우처 운영 및 시스템 기능개선

※ 출처: 보건복지부 내부자료

⑤ 가구소득수준별 바우처 지원 금액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아동들에 대한 바우처 지원은 저소득층(국민기초생활보호대상자, 차상위 계층)과 취약계층(조손, 다문화가정, 장애 등) 아동의 경우 무상 이용을 위한 바우처를 발급할 수 있다. 그러나 차상위계층보다 소득수준이 높다고 하더라도 비정규직이거나, 일용·노동직에 종사하고 있어 여전히 급여수준이 낮고 방과후 시간 자녀 돌봄에 어려움이 있는 가정은, 과거 보육시설 이용에 있어 가구소득수준별로 차등적으로 보육료를 지원했던 것과 같이 아동의 가구소득기준으로 바우처를 부분 지원할 수 있다.

2010년 보육시설 이용료 지원을 살펴보면, 소득하위 50%, 60%, 70%로 구분하여 보육료를 지원하였고, 2011년에는 소득하위 70%이하의 경우 일괄적으로 정부지원을 받는 것으로 통일되었다(김현숙, 2008). 이와 유사하게 본 연구의 조사과정에서 많은 전문가와 시설장들이 지역아동센터에서 일반아동에 대한 이용료는 징수한다면, 가구소득수준 상위 30%에 해당하는 가정의 아동에게만 징수해야 한다는 의견을 많이 나타냈다(하위 70%는 무상이용). 따라서 지역아동센터에서도 이러한 방식을 검토해 볼 수 있는데, 정부예산확보의 어려움이나 소득수준별 이용료 부담에 따른 단계적 접근을 고려한다면, 2010년도의 보육료 지원방침을 참고해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보육분야의 사례에 따라 지역아동센터의 가구 소득수준에 따른 바우처 지원금액에 대해 살펴보면 <표 IV-19>와 같다. 먼저 아동 1인당 이용료에서 가구소득 수준 하위 비율에 따른 이용료 산정인데, 여기서 법정 저소득, 취약계층, 그리고 차상위계층, 그리고 가구소득 하위 50%까지는 전액 바우처 지급을 전제로 하고, 그 외에는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에 따른 가구소득비율에 따라 부분적으로 바우처를 지급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가정에서 부담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표 IV-19 가구소득수준별 월 바우처 지원금액(아동수 29인 기준/급식비 제외) (단위:원)

구분	지원비율	지역아동센터 유형		비 고
		기본형	종합형	
전체 시설 운영비용	-	7,162,250	11,263,340	-
아동1인당 비용	-	247,000	388,390	1인당 단가 비용
~가구소득 하위 50%	100%	247,000	388,390	법정 저소득·취약계층, 차상위, 가구소득 하위 50% 미만
가구소득 하위 50%초과~60%	60%	148,200	233,030	지역아동센터 이용료에 대한 부분 바우처 지급. 나머지 비용은 부모부담
가구소득 하위 60초과~70%이하	30%	74,100	116,520	
가구소득 70%이상	해당사항 없음	-	-	1인당 이용비 전액 부담

※ 보육시설 중 정부지원시설에 대한 차등보육료 지원금액 산정 시 적용된 비율(보건복지부, 2011년도 보육사업안내)에 따라 지역아동센터의 가구수준별 바우처 지원금액을 산정하였음.

그러나 현재 지역아동센터 이용대상이 주로 저소득층이기 때문에 일반아동 이용이 보편화될 때까지는, 이용료를 전부 혹은 부분적으로 부담하면서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수요자가 어느 정도로 확보될 수 있는지가 관건이다. 본 연구의 학부모 설문조사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일부 학부모의 경우 이용료를 부담하면서까지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할 생각이 없거나, 이용료를 부담한다고 해도 부담 가능한 금액을 매우 낮은 수준(5만원 정도)으로 보고 있어 자녀의 지역아동센터 이용을 위해 위의 표에서 제시하고 있는 금액을 지출할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많지 않다.

가구소득수준별 월 바우처 지원금액을 근거로 현재 지역아동센터 이용아동을 위한 바우처지원에 소요될 예산을 대략적으로 살펴볼 수 있다. 먼저 현재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고 있는 아동을 대상으로 바우처를 지원하는 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는데, 현재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청소년 수는 2011년 기준 102,089명으로(보건복지부·지역아동센터중앙지원단, 2011), 현재 지역아동센터 이용 우선대상이 저소득 및 취약계층 아동인 것을 볼 때 이들 대부분이 바우처 지원대상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이들 아동의 가정이 가구평균소득 하위 50%미만에 속한다고 할 때, 시설이용료 100%를 지원받게 되는데 십만여명에 달하는 이용 아동들을 기준으로 기본형 지역아동센터의 월 이용료를 지원한다면 <표 IV-20>와 같이 약 250억이 소요됨을 알 수 있다. 만일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아동수가 더 증가하고, 가구평균소득 하위 70%이하까지 부분적으로 바우처를 지원하게 된다면, 그 비용은 더욱 규모가 커지게 된다.

만일 바우처 지원을 현재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을 기준으로 하지 않고, 맞벌이 가정의 저소득가정 등 바우처 자격기준을 일부 집단에 한정한다면, 우선적으로 방과후시간 성인의 보호가 없어 지역아동센터의 보호를 가장 필요로 하는 아동수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기존 연구결과³⁰⁾에 따르면 방과후 시간 돌봄서비스(학원, 방과후학교, 초등돌봄교실, 지역아동센터, 방과후아카데미 등 포함) 이용 여부와 관계없이 오후 10시 이전까지 성인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아동의 수는 약 77만명에서 97만명정도로 추산되고 있다. 특히 2011년 방과후돌봄서비스 실태조사에서는 77만명의 아동 중 오후 10시 이전에 3시간 이상 방임되는 아동 중 맞벌이 가정 아동수는 195,275명, 저소득 가정의 아동수는 96,312명, 그리고 맞벌이이면서 저소득 가정의 자녀인 아동은 총 66,640명으로 추산하였다. 이들 중 지역아동센터의 서비스가 가장 필요할 수 있는 맞벌이 저소득가정의 아동 66,640명³¹⁾에게 기본형지역아동센터이용을 위한 바우처를 제공한다고 할 때, <표 IV-20>에서 보는 바와 같이 약 165억의 비용이 소요됨을 알 수 있다. 여기서 저소득가정 아동의 기준은 방과후돌봄서비스 실태조사에서 월평균가구소득 5분위를 기준으로 하위 40%에 해당하는 1, 2분위 가정을 저소득으로 규정한 것이기 때문에 만약 가구소득 하위 50%~70%까지도 부분적으로 바우처를 지원하게 된다면 역시 그 비용은 더욱 증가하게 된다.

표 IV-20 현재 시설이용 아동 및 맞벌이 저소득가정 아동에 대한 월 바우처 지원 비용 (단위: 천원)

바우처 지원대상		기본형센터의 1인당 월 비용	총 비용	비고
현재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 기준	100,000명	247	24,700,000	가구소득 하위 50%미만 전체
맞벌이* 저소득가정 아동 추산 인원	66,640명	247	16,460,080	가구소득 하위 40%기준

※ 2011년도의 방과후돌봄서비스 실태조사 결과 추산된, 오후 10시 이전에 3시간 이상 방임되는 맞벌이 저소득가정 아동 수

- 30) 2011년도의 방과후돌봄서비스 실태조사에서는 방과후 돌봄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지만,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시간동안 성인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아동을 약 776,103명으로 추산하고 있으며, 방과후돌봄서비스 비이용 아동중 성인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나홀로 아동은 약 7만여명으로 추산하고 있다(부서리기사랑나눔회·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11). 또한 2011년 여성가족부의 '홀로 남아 보호가 필요한 아동 안전현황조사'에서는 학교와 방과후 활동을 끝내고 귀가후 하루 1시간 이상 자기보호 아동의 수를 약 97만명으로 보고 있다(여성가족부, 2011).
- 31) 2011년도의 방과후돌봄서비스 실태조사에서는 이들 맞벌이 저소득 가정의 6만6천여명의 아동을 위하여 전국에 약 2,221개소의 공적 방과후 돌봄서비스 제공기관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또한 이 연구에서는 방과후돌봄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으면서 부모나 성인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약 7만여명의 나홀로 아동을 위해서는 약 2,329개소의 동적 방과후돌봄서비스 제공기관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⑥ 초등돌봄교실과 지역아동센터의 바우처 제도

국내 유사 방과후 서비스 사례에서 살펴본 초등돌봄교실은 여러 가지 면에서 지역아동센터의 서비스와 중복된 기능을 보이고 있다. 초등돌봄교실의 당초 사업목적이 저소득 및 취약계층 아동뿐 아니라 맞벌이 가정의 아동을 대상으로 방과후에 아동을 학교에서 돌보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 대부분의 지역아동센터에서 방과후에 밤늦은 시간까지 아동에게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것과 매우 유사하다.

이러한 점 때문에 각 사업을 주관하는 정책부서간(교육과학기술부와 보건복지부) 협력을 통해 방과후사업을 보다 효과적으로 운영해야 할 필요성에 대해 학계와 현장에서 계속 문제제기가 있어왔으나, 아직까지 눈에 띄는 개선방안을 보이지 않고 있으며 초등돌봄교실은 2011년부터 엄마품온종일돌봄교실이라는 사업으로까지 더욱 확대되었다. 본 연구의 조사과정에서 일부 시설에서는 현장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지역 교육청, 또는 학교장과 협력하여 일부 예산을 지원받으면서 학교에서 의뢰하는 아동에게 돌봄서비스를 시범적으로 제공하고 있거나, 또는 이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러한 현장의 실무담당자 선에서의 노력이나 협력보다는 각 부처의 정책담당자간 협력을 통해 정리되어야 할 필요가 있으며, 또한 지자체와 각 지역 교육청에게까지 공식적인 행정전달체계를 통해 양 사업의 통합에 대한 합의가 있어야 학교와 지역아동센터 현장에서 효과적인 방과후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다.

학교시스템과 지역아동센터의 사업이 통합·운영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다르게 산정되고 있는 운영비와 아동 1인당 이용료 등에 대한 합의가 먼저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토대로 한 운영모델이 제시되어야 한다. 예를 들면 인건비와 급식비 산정기준에서부터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이 새롭게 조정되어야 하며, 이에 따른 표준 모델 제시와 이용료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어야 한다. 초등돌봄교실의 자유수강권 이용대상 아동에 대한 기준과 지역아동센터의 무상 이용 아동에 대한 기준을 함께 검토하여 조정하고, 이에 따른 이용료 부담과 바우처 활용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또한 지역아동센터가 향후 초등돌봄교실과 통합·운영된다고 할 때, 현재 지역아동센터를 함께 이용하고 있는 일부 청소년의 경우는 어떤 방식으로 서비스를 이용해야 할지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다(예, 청소년전용 지역아동센터 운영 확대 등).

2) 선결요건 및 보완사항

(1) 지역사회 내 접근 가능한 지역아동센터 확보

바우처 제도는 지역사회 내 접근 가능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또 다른 선택 가능한 지역아동센터가 다수 있을 때 수요자의 선택권을 보장할 수 있는 제도이다. 보육시설의 경우 그 수가 현재 지역아동센터의 10배 이상이고, 그만큼 지역사회내 많은 시설이 있어 수요자가 선택할 수 있는 상황이 충분히 가능하지만, 지역아동센터의 경우에는 대부분의 지역사회에서 아동이 접근 가능한 거리에 많은 수가 위치해 있지 않다. 이는 특히 농·어촌의 경우에 더 크게 나타나는데, 대체할 만한 센터가 없는 상황에서 바우처 제도는 효용성을 갖기 어렵다. 오히려 일부 학부모들의 바우처 활용에 대한 정보나 시간부족 등의 이유로 바우처를 활용하지 않을 수도 있으며, 이는 결국 아동이 돌봄서비스에서 배제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지역의 특성과 또 이에 필요한 지역아동센터수를 감안하여, 지역아동센터가 다양한 형태로 그리고 일반아동까지 포함해서 지역사회의 돌봄 수요를 감당할 수 있도록 확대할 필요가 있다.

(2) 부모에 대한 교육

지역아동센터 이용을 위한 바우처 제도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부모에게 적정시설을 선택할 수 있는 교육과 정보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본 연구의 조사과정에서 나타난 것처럼 자녀의 지역아동센터 이용에 대한 부모참여가 저조한 상황에서 바우처 제도의 본래 목적 중 하나인 부모 선택권이 제대로 활용될 수 있겠는가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따라서 지역사회내에서 지역아동센터 서비스가 필요할 수 있는 부모를 대상으로 방과후 돌봄의 중요성을 알리고 지역사회에서 방과후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에 대한 적절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 부모에 대한 일련의 교육이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통해 부모들이 자신들의 서비스 선택권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부정수급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부모교육도 매우 필요하다. 부모는 서비스 선택의 자율성만큼이나 서비스 이용에 대한 책임을 완수해야 한다. 투명하고 법이 규정한 바의 요건에 해당할 경우 바우처 수급 혜택을 받는 것은 물론 선택한 서비스를 충실하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이와 관련된 내용을 서비스 시행 이전에 교육해야 한다. 부정수급 사례가 보육현장에서도 끊이지 않는 바 부정수급 사례가 발견될 경우 부모에 대한 처벌규정을 영유아보육법에 포함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김명순 외, 2011). 특히 부모들은 정해진 기간 내에 바우처 카드 결제를 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결제지연으로 인한 지역아동센터 운영의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바우처를 부정사용할 경우에는

2011년 8월 제정된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문제를 처리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³²⁾.

(3) 지역아동센터 시설장 교육

아이사랑 카드 시행초기 어린이집 원장들은 새로운 제도 도입에 여러 혼란이 있었기 때문에 바우처제도 도입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보육업무 담당자가 시설장을 대상으로 여러 차례 교육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조사과정에서도 바우처 제도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 없는 센터장들을 만날 수 있었는데, 지역아동센터에서 바우처 제도를 도입할 경우에는 제도의 안착과 적절한 활용을 위해서 시설장을 대상으로 한 교육이 실시될 수 있어야 한다.

(4) 바우처 제도의 오·남용 예방 및 효율적 운영위한 지원 체계 마련

바우처 제도의 오·남용을 예방하고, 객관적이고도 투명한 운영을 위한 운영지원 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 각 지역 행정기관은 각 지역아동센터 이용 부모들의 바우처 제도 운영상황을 정기적으로 평가하여 이 과정에서 지역아동센터와의 결탁 등을 통한 부정수급 등의 문제가 없는 지를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 각 지역의 행정기관은 바우처 대상자의 명단을 파악하고 이들이 바우처 이용대상자에 해당하는 지, 정기적으로 이용하는 지 등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32) 제35조(벌칙) ①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알아낸 사회서비스이용권 정보를 보유하거나 이를 사용하여 사회서비스이용권을 사용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사회서비스이용권을 「형법」 제214조부터 제217조까지, 제220조, 제223조 및 제224조에서 규정한 죄의 유가증권으로 보아 그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자는 그 죄에 정한 형으로 각각 처벌한다.

제3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0조제6항을 위반하여 정보 또는 자료를 사용하거나 제공한 자
2. 제33조 제1항을 위반하여 제19조제6항을 위반하여 사회서비스를 제공한 자
3. 제19조제7항제1호·제2호에 따른 행위를 하거나 이를 중개·알선한 자

제37조(벌칙) 제33조를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회서비스이용권을 발급받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사회서비스이용권을 발급받게 한 자
2. 제15조제1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권익이 없는 자에게 사회서비스이용권을 판매·대여하거나 그 권리를 이전한 자
3. 제15조제2항을 위반하여 사회서비스이용권에 기재된 사회서비스를 대신하여 대가성이 있는 금전 등 금품을 받은 자

제39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사자가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5조부터 제38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모든 부모는 지역아동센터 이용 신청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이는 부모와 지역아동센터 간의 일종의 계약행위로, 신청서에는 부모와 지역아동센터 시설장은 아동의 보호시간, 제공될 급식·간식 유형, 아동의 건강상태, 바우처 수급대상자 여부, 바우처 이용에 따른 부모의 의무, 바우처 결제과정, 지역아동센터 프로그램 등이 포함된다. 신청서를 작성한 이후 바우처 제도 이용대상자가 확정되면 이 명단을 지역 행정기관에 보고하고 정해진 형식에 따라 지역아동센터 이용실태를 보고하도록 한다. 관련행정기관은 이를 토대로 바우처 대상자의 지역아동센터 이용현황을 파악할 수 있어야 하며, 경우에 따라서 관련행정기관은 지역아동센터를 방문하여 해당 아동의 이용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5) 부정수급 등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 지역아동센터 처벌 규정

바우처의 오·남용을 예방하기 위한 종사자교육과 운영체계를 지원한다고 하더라도, 보육의 아이사랑 카드 사용현황을 볼 때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지역아동센터 시설장과 부모와의 결탁에 의한 부정수급이 발생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부정수급 등 사례가 발견될 경우 부모와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불이익을 줄 수 있는 규정이 마련되어야 한다. 보육의 경우 부정수급사례가 발견되면 부정수급 금액을 시설장이 반납해야 하며 해당 처벌을 받게 된다. 시설장의 경우 2011년 8월 제정된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 받게 되는데, 지역아동센터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다.

(6) 추가 행정인력 배치

바우처 제도 도입에 따른 업무 처리에 요구되는 인력의 추가배치가 고려될 수 있어야 한다. 어린이집 원장은 부모에 비해 바우처 제도 운영전반에 대해 불만족하는 정도가 상대적으로 높는데(김명순 외 2011), 이는 바우처 제도 운영과정에서 경험하는 불편함 때문이다. 어린이집 원장은 보육료 및 필요경비, 시설운영비 지급일자 차이로 시설운영의 어려움과 추가 행정업무가 유발되므로 부모의 카드결제일을 통일시킬 필요가 있으며 아이사랑카드 결제 및 회계처리 전담인력 지원, 행정업무 간소화의 필요성을 지적하고 있다(김명순 외 2011).

본 연구의 조사과정에서도 추가 행정인력 배치는 지역아동센터장들로부터 요구되었던 것이다. 바우처 제도 도입에 따른 행정부담이 크기 때문에 추가인력배치에 대한 고려 없이 제도를 도입하게 될 때 많은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며, 서비스 질을 유지하고 효율적이고도 투명한 관리를 위해 행정업무 지원 요원의 배치를 고려해야 한다. 시범적으로 우수한 평가를 받는 지역아동센터를 대상으로

바우처 행정업무를 지원할 수 있는 인력을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지원할 수 있을 것이다.

(7) 바우처 제도의 도입을 위한 시범사업 실시

바우처 제도 도입 시 발생 가능한 문제들을 사전에 파악하고 대처하기 위해 시범사업을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 시범사업을 위해서는 지역아동센터 평가결과를 반영하여 가능한 프로그램과 서비스 및 운영전반에 있어 바우처 제도를 잘 활용할 수 있는 곳으로 선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통하여 바람직한 바우처 제도 도입을 위한 모델을 탐색하고 점차 필요한 제도적 보완을 통해 바우처 제도 도입을 확대할 수 있고 궁극적으로 바우처 제도를 통한 운영효율화와 지역아동센터 서비스의 질적 개선을 도모할 수 있다.

※ 프로그램 및 서비스별 바우처 제공

본 연구는 방과후학교에서의 자유수강권과 같이 지역아동센터의 개별 프로그램이나 서비스 이용을 위한 바우처가 아닌, 보육시설이용을 위한 아이사랑카드와 같은 지역아동센터 이용을 위한 바우처 제도에 초점을 두고 있다. 본 연구의 조사과정에서 센터장과 전문가들 일부에게서 바우처 제도의 단계적 시행을 위한 시범적 차원에서 프로그램 및 서비스별 바우처 활용에 대한 의견이 제시되기도 하였으며, 이러한 개별 프로그램에 대한 바우처를 통해 지역사회내 시설간 협조가 가능해질 수 있고, 시설에서 제공하는 특성화된 서비스를 보다 많은 아동이 이용할 수 있으리라는 기대도 있었다. 그러나 개별 프로그램 및 서비스에 따른 바우처 제도의 시행은 다음의 몇 가지 측면에서 어려움이 예상된다.

첫째, 본 연구의 조사과정에서 방과후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각 관련기관(타 지역아동센터, 방과후 학교 등)간의 협조체계가 구축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들이 많았다. 지역아동센터와 방과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지역사회내 기관들과의 협조체계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서비스별 바우처 제도는 지역아동센터 및 방과후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간의 지나친 아동확보 경쟁을 유발할 수 있다.

둘째, 방과후 돌봄 기관 간의 전산망 구축 및 행정 등에 필요한 인력의 추가 배치의 어려움이다. 프로그램 및 서비스별 바우처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각 시설의 서비스제공 및 이용 상황을 파악하고 또 비용지불의 효율화를 위한 전산망 구축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 바우처를 이용할 수 있는 기관선정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어느 기관에서 바우처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가에 대한 다양한 논란이 제기될 수 있다. 한편, 프로그램 및 서비스별 바우처 지원을 위해서는 추가로 부과되는 행정업무를 담당할 수 있는 인력의 배치도 요구된다.

셋째, 아동의 안정적인 이동수단의 확보이다. 서비스별로 바우처를 제공할 때는 서비스기관에서의 차량과 담당직원을 통한 아동의 안정적인 이동이 담보되어야 한다. 이 또한 추가 비용의 발생을 가져온다.

넷째, 현재 지역아동센터에서 제공되는 프로그램과 서비스가 다양화, 전문화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또 프로그램 내용에 대한 정보수집이 한계가 있는 현재 상황에서 프로그램에 따른 바우처 제도 도입은 큰 의미가 없을 것으로 보는 시설장과 전문가들의 의견이 조사과정에서 여러번 제시되었다. 오히려 바우처 제도로 인해 시설 간 경쟁 심화 및 전달 체계 간 갈등들은 센터를 이용하는 부모와 센터 종사자간 관계를 악화시킬 소지가 있으며, 또한 시설 간 협력체계구축과 파트너십을 더 어렵게 만들 수 있다는 문제제기도 있었다. 다만, 지역아동센터가 학교의 초등돌봄교실과 같은 방과후 서비스와의 협조체계가 구축되어 프로그램과 기관을 연계하여 바우처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면 더욱 효과적인 방과후 돌봄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다고 보는 시각이 많았다.

제 5 장

결 론

1. 지역아동센터의‘수요자 중심’

쟁점 논의

2. 지역아동센터의 발전 과제

제 5 장 결 론

1. 지역아동센터의‘수요자 중심’쟁점 논의

사회복지서비스제공에 있어서 ‘수요자 중심’(user-oriented service)이라는 용어는 그동안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시혜적 성격에 그쳤던 기본적인 복지서비스 제공수준에서, 사회복지서비스 공급의 양적 확대와 제도적 기반을 갖추게 되면서 새로운 관점의 필요성에 따라 등장하였다(강혜규 외, 2010). 또한 신속한 복지서비스 확대를 위한 그동안의 공급자중심 서비스 전달체계가, 이제는 서비스 수요자의 권리와 영향력을 강조하고, 이용자가 양질의 서비스를 자발적으로 선택·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복지 전달체계로의 개선을 위해 ‘이용자중심’으로 전환되어야 한다는 요구가 확대되면서(강혜규 외, 2010), 본격적인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 전달체계로의 전환에 대한 담론이 활발히 진행되어 왔다.

사회복지서비스 중 당초 저소득층 아동보육서비스로 출발한 우리나라의 보육료 지원제도도 보육서비스의 확충과 서비스 향상 노력과 더불어 이러한 수요자 중심의 원칙에 대한 논의가 이미 진행되어(최재성·장신재, 2001), 결국 아동보육서비스에 수요자 중심의 개념을 적용하여 왔다(예, 전자바우처 카드). 1980년대부터 도시빈민가정아동을 중심으로 방과후 보호와 급식을 제공하던 공부방에서 출발한 지역아동센터도 2004년부터 공적지원을 위한 법적근거(아동복지법 16조)가 마련되면서 그 수가 급격히 증가하게 되었고, 또 지역사회 취약계층 아동을 위한 아동복지시설로 자리매김하게 되면서 이러한 논의가 시작된 것이 이 연구의 출발이라고 볼 수 있다.

지역아동센터는 그동안 지역사회의 민간차원에서 자생적으로 운영되어 오던 공부방이 2004년부터 공적지원이 대상이 되어 당시 895개소였던 것이 현재 3800여 개소 이상으로 확대되면서 지역사회 아동 돌봄·보호를 위한 필요시설로서 크게 변모하였다. 이에 따라 정부 및 지자체의 관리·감독의 중요성이 높아지게 되었고, 또 한편으로 지역아동센터 평가가 시작되면서 프로그램과 서비스 수준에 대한 기대치도 더욱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그동안의 돌봄수요를 예측하는 연구(양계민 외, 2011)에서 보듯이 아직도 방과후 시간동안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청소년들의 수요가 많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지역아동센터의 효과성과 관련하여 기존 연구들은 지역아동센터 이용아동의 만족도를 포함한 여러 심리사회적 지표들에서 긍정적인 결과를 보여주고 있고, 또 지역아동센터가 빈곤과 가족구조 해체 등의 문제속에서 어떻게 보호요인으로서의 역할을 해왔는지 잘 나타내주고 있다. 따라서 지역아동센터가 지역사회 내 최일선의 아동복지시설로서, 그리고 맞벌이 가정 등 일반가정 아동과 저소득층 아동의 방과후 서비스로서 향후 더욱 발전적인 지향점을 논의하는 시점에서, ‘수요자 중심의 관점’은 피할 수 없는 하나의 사회복지서비스의 전달체계와 관련한 중요 방향성중 하나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수요자 중심’의 지역아동센터 운영에 대해서는 다양한 시각차가 존재한다. 이는 그동안 사회복지서비스의 수요자중심 제도로의 전환에 있어서 그 당위성에 비해 공공과 민간, 그리고 이용자가 바라보는 ‘수요자 중심 서비스 체계’에 대한 관점과 인식의 차이와 공감대 형성의 부재가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던 것(강혜규 외, 2010)과 마찬가지로, 지역아동센터와 관련된 정부부처와 학계, 그리고 각 시설 운영주체와 이용자가 체감하는 ‘수요자 중심’의 지역아동센터를 바라보는 관점의 차이는 매우 크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는 수요자중심의 지역아동센터 운영을 위한 보다 구체적인 방안으로서 공공성확보와 표준화된 양질의 서비스 제공을 위한 국·공립 지역아동센터 운영방안, 맞벌이 가정을 포함한 일반가정의 돌봄 수요를 위한 일반아동의 시설이용 확대와 이에 따른 이용료부담, 그리고 수요자의 선택권 보장을 위한 바우처제도 도입 방안 등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각각의 연구내용과 관련해서 본 연구과정에서 나타난 정책 및 학계전문가, 지역아동센터 단체 및 협의회, 그리고 현장의 각 시설장들의 의견 차이가 매우 큰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예를 들면, 맞벌이 가정을 포함한 일반아동의 센터이용 확대에 대해 이를 예방적, 보편적 복지로 보고 있는 전문가의견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이를 현재와 같이 지역사회의 저소득층 아동 돌봄에 초점을 두고 지역아동센터의 정체성 훼손으로 보는 입장도 있다. 또한 현재와 같은 공급자 중심의 재정지원방식에 대해서도 찬반의견이 대등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일반아동의 센터 이용료 부담과 관련해서도 복지서비스에 대한 이용료부담에 대한 반감과 지역아동센터의 사교육시장화에 대한 우려도 많았지만, 일반아동의 시설이용 확대에 따른 낙인감 해소와 이용료 수입으로 인한 재정부담 감소의 이유로 찬성하는 의견들도 적지 않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차이가 ‘수요자 중심’이라는 관점에 대한 인식차이라고만은 할 수 없다. 정부지원이 전혀 없었던 민간의 공부방시설이었던 때부터 지역사회의 취약계층 아동을 위해 최일선에서 일해

온 시설 종사자와 또 새롭게 높은 비율로 유입되고 있는 다양한 개인 운영주체와 지역아동센터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인식이 같을 수는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역아동센터의 여건과 상황에 초점을 맞춘 공급자 중심의 복지서비스 전달이 아닌 지역사회내에서 방과후 시간 보호를 포함한 다양한 서비스와 지원이 필요한 아동과 그 부모의 욕구를 최대한 충족시키기 위한 수요자 중심의 관점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향후 지역아동센터의 발전적 운영방향을 위해 더욱 필요하다. 그리고 이를 위하여 정책담당자와 학계의 연구자, 현장의 지역아동센터장과 단체장간의 적극적인 의사소통과 합의가 전제되어야 한다.

향후 수요자중심 지역아동센터 운영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지역아동센터의 정체성에 대한 고민이 더욱 필요하다고 보여진다. 본 연구과정에서 조사에 응한 일부 전문가들은 현재 지역아동센터의 운영매뉴얼과 아동복지법상에서의 지역아동센터의 역할과 기능이 현재의 지역아동센터의 정체성과 일치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예를 들면, 시설이용아동의 가족에 대한 지원은 현실적으로 많은 시설에서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또 주 이용대상에 대한 확실한 지침이 부재하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특히 후자의 경우 현재와 같이 저소득층을 포함한 취약계층 아동을 주 이용대상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예방적·보편적 복지차원에서 일반아동의 이용을 적극적으로 확대할 것인지에 대한 정부정책의 방향성이 보다 확고하게 정해지고, 이를 관련 지침이나 법에 반영할 필요가 있음을 제기하고 있다. 또한 방과후학교나 초등돌봄교실과 같은 유사 방과후서비스와 차별화된 지역아동센터의 정체성 강화에 초점을 둘 것인지, 아니면 범부처간 협력을 통해 일부 역할이나 기능만을 통합할 것인지 등에 대한 이슈에 대해서도 보다 많은 고민이 필요함을 이야기하고 있다. 이러한 지역아동센터의 정체성과 자리매김을 확고히 할 때, 지역아동센터의 수요자중심 운영에 대한 논의가 더욱 발전적일 수 있다.

2. 지역아동센터의 발전 과제

본 연구는 향후 지역아동센터의 다양한 발전방안 모색의 일환으로, 구체적으로 지역아동센터의 국·공립모델과 수요자부담 모델 및 바우처 제도 등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다. 먼저 현재의 지역아동센터의 공공성을 더욱 확보하고, 재정적·인적자원의 부족과 서비스 및 프로그램 격차를 해소하며, 양질의 표준화된 프로그램 제공을 위하여 국·공립지역아동센터의 운영모델을 제안하였다. 또한 맞벌이 가정을 포함한 일반가정의 돌봄 수요충족과 지역아동센터이용에 대한 낙인감을 해소하기 위한 일반아

동의 지역아동센터 이용확대와 이에 대한 수요자부담방안과, 마지막으로 수요자의 선택권을 보장하고 예산사용의 효율성을 강화하기 위한 바우처 제도 도입방안들에 대해 논의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구체적인 방안 모색과 더불어 지역아동센터의 발전을 위해 수반되어야 할 차후 과제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정책비전이 설정되어야 하고 이와 관련한 중장기적 발전계획이 분명히 제시되어야 한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지역아동센터의 정체성 확립과 함께 아동복지시설로서의 지역아동센터에 대해 어떤 청사진을 정부에서 갖고 있는지 점검하고 이에 대한 구체적인 발전계획 제시를 통해, 현장의 지역아동센터 시설장들이 혼란을 갖기 않고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 특히 이러한 발전계획은 드림스타트와 같은 동일 부처 내 사업과 방과후학교, 엄마품온종일돌봄교실, 방과후청소년아카데미와 같은 유사 방과후서비스와 그 전달체계와의 맥락속에서 수립되어야 하며, 정부예산의 중복투자와 서비스에 누락된 사각지대의 서비스대상자들을 고려한 구체적인 조정 및 연계방안들을 포함하여야 한다.

둘째, 지역사회 아동과 청소년을 위한 수요자중심의 지역아동센터의 프로그램과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본 연구에서 진행한 다양한 방안모색과 더불어, 지역아동센터에 종사하는 아동복지인력의 전문화와 이에 따른 처우개선이 필요하다. 이에 대해서는 기존의 많은 연구에서도 언급하고 있지만, 본 연구과정에서도 보듯이 지역아동센터 종사자의 개인 철학과 운영방침에 따라 각 조사내용에 대한 응답에서 매우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지역아동센터가 위치하고 있는 지역적 특성과, 규모 등에 따른 인식차이도 있지만, 현재 개인운영주체가 과반수를 넘어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시점에서 지역아동센터가 지역사회 아동복지를 위해 어떤 역할을 담당하는지는 그 인력의 전문성과 아동복지전문가로서의 철학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무엇보다 지역아동센터의 이용료부담과 관련하여 많은 현장전문가들은 지역아동센터의 사교육시장화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예를 들면, 단기적 성과가 나타나기 어려운, 아동과 가정에 대한 복지적 접근을 위해 노력하는 시설보다 오히려 사교육시장의 경영방식이 유입될 경우 단기적으로 표면적인 성공을 거둘 수 있기 때문에, 효과적인 아동복지 시설운영을 위한 전문가양성의 중요성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수요자중심의 지역아동센터 운영방식이 현재 인력과 운영비가 부족한 지역아동센터에 부담을 가중시키는 것이 아닌, 서비스제공자와 이용자에게 모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모색이 필요하다.

셋째,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정부지원규모를 확정하고 또 이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가장 기본단위라고 할 수 있는 1인당 표준이용 단가의 책정과 향후 지원규모를 추계하기 위한 연구가 보완되어야 한다. 지역아동센터의 표준이용비 산정, 민간후원금 규모 및 지출, 이용료 징수와 바우처

제도 도입, 더 나아가 발전계획 수립 등 지역아동센터의 예산과 재정과 관련된 모든 상황에서 1인당 표준이용 단가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수요자중심서비스를 먼저 시도한 보육사업의 경우도 보육비지원과 관련한 보육정책 수립 시 경제학적 접근을 통한 보육료 지원체계개편과 표준보육 산정 및 차등보육료, 지원예산 추계 등에 대한 심도 깊은 연구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

넷째,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유사 방과후 서비스 중 가장 큰 규모로 이루어지고 있는 정책사업인 초등돌봄교실(엄마품온종일돌봄교실 포함)과 같이 타 부처의 유사 돌봄서비스 사업과의 통합·운영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그동안 기능이 중복되는 유사사업에 대한 문제제기가 계속 있어 왔지만, 크게 실효를 거두지 못했었다. 그러나 이제 일부 현장에서 시도되고 있는 협력관계에 대한 사례분석을 통해 본격적인 유사사업 통합방식과 이를 위한 효과적인 예산활용과 사업운영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마지막으로, 지역아동센터의 인지도와 인식개선을 위한 정책차원의 접근이 필요하다. 지역아동센터의 국공립화와 일반아동이용 및 비용부담의 현실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지역아동센터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홍보가 필요하며, 저소득층 아동들만 이용하는 곳이라는 낙인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지역아동센터의 인식개선을 위한 범정부차원의 실천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참 고 문 헌

- 강명순·이경림·김성경·정익중·박영숙·최은정·백현중·김부야(2009). 지역아동센터의 이해와 실제. 학지사.
- 강혜규·김보영·엄태영·김은지·정세정 (2010) 사회복지서비스의 이용자중심 제도 운영에 관한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공계순·서인혜(2009). 지역아동센터에서의 사례관리실천 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가족복지학, 14(4). 155-178.
- 공창숙(2008). 지역아동센터 운영평가 및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경기도 지역을 중심으로. 중앙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교육인적자원부(2006). '6년 방과후학교 운영계획.
- 구은미(2010). 지역아동센터 프로그램 질과 전문성에 관한 교사의 인식. 아동교육, 19(2), 5-15
- 김미숙(2006). 지역사회 빈곤아동 지원정책 고찰. 보건복지포럼.
- 김미숙(2009). 지역아동센터 아동복지교사 지원사업 평가. 보건복지포럼, 제153호, pp. 2-133.
- 김선미(2006). 지역아동센터 이용아동의 학교생활적응과 관련요인. 충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양빈(2008). 한국 방과후 아동지도학회 자료집. 한국방과후 아동지도학회.
- 김양이·박미란(2007). 지역아동센터 이용아동의 자아존중감에 관한 연구. 임상사회사업연구, 4(3), 61-89.
- 김영호(2007). 지역아동센터 이용아동들에 대한 음악치료프로그램의 효과성 연구. 경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현숙·서병선(2008). 보육료 지원체계 개편방안 연구. 여성부
- 김현숙(2009). 보육시설 유형별 표준보육비용 산정에 관한 연구. 한국영유아보육학, 58,

pp. 21-40.

- 김현주(2010). 사회적 지지가 지역아동센터 이용 빈곤아동의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학연구, 제17권 제12호, 211-233.
- 김홍원(2006). 청소년 방과후 활동의 운영실태와 활성화 방안 워크숍 자료집. 한국교육개발원.
- 김홍원·김수동·양병찬·조덕주·손문승·오주봉·조은영·권세일·곽재규(2010). 방과후학교 질적 수준 제고 방안. 교육과학기술부.
- 김홍원·김창환·김진영·최윤진·김연석·이혜연(2007). 방과후학교 바우처 제도 도입 방안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 김홍원·조호제·윤유진·진미경·이용민·이혜연·노신민·조선하(2007).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제도 성과분석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 김홍원·김수동·양병찬·조덕주·손문승·오주봉·조은영·권세일(2010). 방과후학교 질적 수준 제고 방안. 한국교육개발원.
- 남일제·문영주·오주(2011). 현대 사회복지행정의 이해. 정민사.
- 박제복(2009). 지역아동센터아동의 공격성에 영향을 미치는 가족적 요인에 관한 연구. 신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배득중·강인재·정창훈·이영범 (2008). 전자바우처 제도에 관한 선진국 비교연구 : 미국, 영국, 호주를 중심으로. 서울 : 사회서비스관리센터
- 배화숙(2007). 사회복지서비스에서 바우처제도 도입의 의미와 과제. 사회복지정책, 31, 319-342.
- 변용찬(1999). 사회복지시설거주자의 건강증진 및 시설운영 개선방안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변종임·조순옥·최종철·박현정·김인숙(2009). 2009 방과후학교 운영실태 및 성과분석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 보건복지부(2011). 2011년도 보육사업안내.
- 보건복지부·보건복지부 위탁 지역아동센터중앙지원단(2011). 전국지역아동센터 실태조사 보고서.
- 사회복지공동모금회(2006).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 생활환경 및 인식 조사 결과 사회복지서비스 전자바우처 <http://www.socialservice.or.kr>
- 서울특별시 교육청(2011). 방과후학교 길라잡이.

성미영(2006). 지역아동센터 생활복지사의 직무만족도 및 조직헌신도 연구. 숙명여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신선영(2006). 지역아동센터 운영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인천광역시 서구를 중심으로. 인천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심인선(2006). 경상남도 방과후 아동을 위한 지역아동센터 발전방안. 경남발전연구원.

아이사랑(i-sarang) 보육포털 <http://www.childcare.go.kr>

안수경(2007). 지역아동센터 환경이 이용아동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 강남대학교 사회복지전문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양계민·김승경·조영희(2010). 2010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운영모델 개발연구. 여성가족부·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양계민·조혜영(2009). 2009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효과·만족도 조사연구. 보건복지부·한국청소년진흥센터

양계민·조혜영(2010).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프로그램에 대한 효과성 인식이 참여청소년의 심리사회적응 및 학업성취요인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복지연구, 제12권 제1호, 61-92.

양난주(2009). 노인돌보미바우처 정책집행분석. 한국사회복지학, 61(3), pp. 77-101.

양정현(2011).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프로그램에 대한 저소득층 청소년의 만족도 조사. 청소년문화포럼, 27, 94-128.

여성가족부(2010). 2010년도 청소년사업안내.

오정수·이혜원·정익중(2006). 세계의 아동복지서비스. 나눔의 집.

유경준·김정호·안수란·문혜영·이영·이봉주·채재은·정익중(2009). 2008년도 재정사업 심층평가보고서 : 아동·청소년 방과후 돌봄서비스 사업. KDI 재정성과평가실.

유순향(2005).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의 만족도와 사회적 능력에 관한 연구. 남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유한옥(2005). 바우처제도 국내외 사례 및 개선방안. KIEP대외경제정책연구원.

유한옥(2007). 재정효율성 제고를 위한 시장원리 활용방안-바우처제도를 중심으로. 한국개발연구원.

유 화(2006). 지방정부의 사회보장지출에 관한 고찰 : 한일간 비교를 중심으로. 한국재정지방학회 세미나자료집. 한국재정지방학회.

유희정·이정원·안재진·최진(2009). 육아지원 바우처 도입과 정책 과제. 육아정책개발센터

윤영미·이완정(2008). 지역아동센터 레크레이션 활동 참여에 따른 아동의 일상적 정서경험과 우울 및 스트레스. 한국생활과학회지, 17(5), 903-914.

이경림(2007a). 지역아동센터 특성이 이용아동 만족도에 미치는 요인 분석. 보건복지부·부스러기사랑나눔회.

이경림(2007b). 빈곤가족아동의 사회적 지지가 아동역량에 미치는 영향. 강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이상희(2007). 지역아동센터 경험이 아동의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아주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이재원(2008).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대영문화사.

이태수·이경림·김성경·이향란(2009). 2008 지역아동센터의 현주소. 공동체.

이혜경(2007). 지역아동센터 아동의 사회적지지 및 임파워먼트와 심리사회적 적응.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이혜연·유성렬·이상균·정윤경·황진구(2010). 취약가정·시설의 아동·청소년 지원을 위한 중단연구 I.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이훈·신혜송(2008). 지역아동센터가 저소득층 아동의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홍성군 아동을 중심으로. 사회과학연구, 14(1), 163-188.

임정기 외 (2007). 지역아동센터 평가지표 개발연구. 지역아동정보센터·백석대학교

임춘희·이선형·이경림(2010). 아동이 지각하는 지역아동센터 서비스 만족도가 아동의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족관계학회지, 15(1), 71-98.

전라남도 교육청(2008). 전남 2008 방과후 학교 운영계획.

전혜연(2005). 저소득 가정 아동들의 지역아동센터(공부방) 이용 만족도에 관한 연구. 경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정광호(2008). 바우처 연구. 법문사.

정광호(2009). 바우처 사업의 성과와 과제: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를 중심으로. 2009년 추계지방정부학회.

정광호(2010). 바우처 분석: 이론과 현실. 법문사

정익중·박현선·오승환·임정기(2008). 지역아동센터 운영모델 개발 연구 아동복지 중앙지원센터. 보건복지부.

정익중·박현선·오승환·임정기(2009). 아동·청소년 방과후 서비스의 현황과 과제. 서울: 공동체.

지역아동정보센터(2009). 지역아동센터 이용아동 서비스만족도 및 평가사업보고서.

지창완(2009). 지역아동센터 아동의 사회적 능력 향상을 위한 미술치료 프로그램의 효과성. 부산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차현숙·윤석진·윤계형·장건준(2009). 영유아보육법상 보육료 지원에 대한 입법평가. 한국법제연구원.

최봉섭(2008). 영국의 바우처제도 실천사례, 교육개발, 164

최성은(2010). 바우처와 현금지원: 보육료지원사업을 중심으로. 재정학연구, 7(4). 145-181.

최재성·이혜경·김용득(2000). 사회복지시설 이용권제도 모형개발 -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 전달체계 구축을 위하여. 연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

최재성·장신재(2001). 수요자 중심의 원칙에서 조명한 우리나라 보육료 지원제도의 성격에 관한 소고. 한국아동복지학, 11, 125-150.

허남순·정익중·이경림(2006). 지역아동센터 운영성과 분석에 따른 운영모델 개발 및 발전방안 모색. 보건복지부·부스리기사랑나눔회.

홍재환(2008). 방과후사업 성과분석. 한국청소년진흥센터.

홍정각(2006). 지역아동센터 조직특성에 따른 종사자의 직무스트레스 연구. 가야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보건복지가족부·육아정책개발센터(2009). 취약지역 국·공립보육시설 확충 및 운영모델 정립 방안. 보건복지가족부·육아정책개발센터.

Baker, D., & Witt, P.(1995). Evaluation of an After-School Program for At-Risk Youth. College Station, Texas: Texas A&M University.

Baker, D. & Witt, P.(1996). Evaluation of the Impact of Two After-School Recreation Programs, Journal of Park and Recreation Administration, 14(3). 23-44.

Besharov, D. J. & Samari, N. (2000). Child-Care Vouchers and Cash Payments. In Steuerle, C. E. et al. (ed.), Vouchers and the Provision of Public Services.

Brookings, CED, & Urban Institute: Washington D.C., pp. 195-223.

Blau, D. & Currie, J. (2006). "Who's Minding the Kids? Preschool, Day Care and After school Care", in Handbook of Education Economics, Finis Welch and Eric Hanushek (eds), New York: North Holland.

Clark, R. M. (1988). Critical Factors in Why Disadvantaged Children Succeed or Fail in School. New York: Academy for Educational Development.

Darling, N, Caldwell, L. L., & Smith, R. (2005). Participation in school-base extracurricular activities and adolescent adjustment. Journal of Leisure Research, 37(1), 51-76.

Dotter, A. M., McHale, S. M., & Crouter, A. C. (2007). Implications of out-of-school activities for school engagement in African American adolescents. Journal of Youth Adolescence, 36, 391-401.

Heath, S. B. (1994). The Project of Learning form the Inner-City Youth Perspective. New Directions for Child Development. 63. 25-34.

National Remodeling Team. (2006). Extended Schools - a Guide for Governors I.

Pierce, K. M., Hamm, J. V., & Vandell, D. L.(1999). Experiences in after-School Programs and Children's Adjustment in First-Grade Classrooms. Child Development. May/June, 1999.

Posner, J. & Vandell, D. L.(1994). Low Income Children's After-School Care: Are There Beneficial Effects of After-School Program. Children Development. 65. 440-456.

Vandell, D. L. & Shumow, L.(1999). After-School Child Care Programs. The Future of Children. 9(2), David and Lucile Packard Foundation.

西館有沙·徳田克己·高玉和子編著(2009). 子ども支援學. 文化書房博文社

西郷泰之(2007). 「子どもの健全育成と地域生活環境の整備」 高橋重宏監修 『日本の子ども家庭福祉ー 児童福祉法制定60年の歩み』 明石書店.

古川孝順・田澤あけみ(2008). 現代の児童福祉. 有斐閣ブックス.

千葉茂明(2007). エッセンシャル児童福祉論. みらい.

厚生労働省(2011). 2011년도 厚生労働白.
厚生労働省(2010). 2010년도 厚生労働白
内閣府(2011), 2011년도 子ども子育て白書.
<http://www.mhlw.go.jp/bunya/kodomo/kosodate.html>



부 록

부록 1. 기관방문 및 센터장 면접지

국·공립 지역아동센터: 현황 (국·공립 센터의 경우에만 해당)

- 1. 귀 기관(시립 지역아동센터)이 설립된 배경은?(직영 or 위탁, 설립시기)
- 2. 시에서 시립지역아동센터에 기대하는 사항은?
(센터간 네트워킹, 정보교류, 표준프로그램 개발 등)
- 3. 귀 기관과 타 센터(민간)와의 차별성 : 어떤 영역에서 어떻게 차이가 난다고 생각하는지?

- 1) 귀 기관의 지역사회 및 이용청소년 특성
 - 지역적 특성(타 지역아동센터,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방과후학교 등)
 - 청소년 및 가정의 특성

아 동 현 황	계		미취학		초등생		중등생		고교생		기타	
	명		명		명		명		명		명	
	양부모		부자 가정		모자 가정		조손 가정		그룹홈		생활 시설	
	명		명		명		명		명		명	
	지체 장애		뇌병 변 장애		정신 지체		발달 장애		시각		청각 언어	
	명		명		명		명		명		명	
	기초생활		차상위		저소득		일반		기타			
	명		명		0명		0명		명			

- 2) 운영시간(주중, 주말과 공휴일 운영?)
- 3) 종사자의 수/자격요건/대우
 - 센터장의 경력 및 종사 계기
 - 생활복지사
 - 아동복지교사
 - 기타(자원봉사자 등)
- 4) 시립센터가 되기 위한 시설요건

- 5) 예산
 - 자체예산
 - 국비 지원금
 - 지자체 지원금
 - 후원금 등
 - 수익자부담 유무
- 6) 프로그램 운영(특성화 프로그램, 초등생과 중고등생 차별화 등)
- 7) 급식 및 기타 서비스
- 4. 국·공립 지역아동센터에대한 아동과 학부모들의 반응?
- 5. 국·공립 지역아동센터에서 근무하는 것에 대한 종사자들의 반응?
- 6. 주변의 방과후 학교(예, “엄마품온종일돌봄서비스”)나 방과후아카데미와 같은 유사 돌봄서비스와 비교할 때,
 - 지역아동센터의 장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중복성이나 위화감 등은 없습니까?
- 7. 지방자치단체(과천시)의 지도감독은 어떻게 이루어지나?
- 8. 국·공립 센터의 설립 및 운영시
 - 장점
 - 단점(문제점)
 - 개선점

I. 국·공립 직영 및 위탁 지역아동센터 표준모델 연구

1. '국·공립지역아동센터'를 설치할 필요가 있습니까? 있다면 그 이유는?
(예: 방과후 아동의 보호와 교육 그리고 자원연계 등을 보다 체계적으로 하기 위해)
2. 현재 국·공립지역아동센터는 전체 지역아동센터 3800여개 중에서 4개로 0.01%인데, 향후 5년 기간에 몇%로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3. 국·공립지역아동센터의 확대실시를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
센터의 규모는?
4. 국·공립지역아동센터를 시청·군청·구청이 직영하는 방법과 사회복지법인이나 대학교에 위탁시키는 방법이 있는데, 직영과 위탁 중에서 어떤 것이 더 좋겠습니까?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5. 국·공립지역아동센터를 어느 지역부터 우선적으로 설치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1) 시청·군청·구청의 소재지로 아동수가 많은 곳
2) 읍사무소/면사무소/동주민센터로 가까운 곳
3) 도시의 가난한 사람이 많은 동네
4) 농어촌으로 현재 지역아동센터가 없는 지역
5) 기타()
6. 국·공립지역아동센터의 가장 핵심 기능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 지역아동센터의 시범 프로그램
2) 주말이나 공휴일 등 다른 지역아동센터가 문을 닫을 때도 운영
3) 다른 지역아동센터와의 연계협력사업
4) 다른 지역아동센터 근무자들 위한 교육·연수
5) 기타()
7. 국·공립지역아동센터의 센터장과 직원(생활복지사)에게는 연봉(근로소득세/사회보험료 포함)을 어느 정도 주어야 실력 있는 전문가를 뽑을 수 있을까요?
- 센터장
- 직원

II. 수익자 부담형 지역아동센터 도입방안

1. 센터의 수익자 부담프로그램이나 서비스가 존재하고 있습니까?
1) 있다면 어떤 프로그램이나 서비스입니까?
1)-1 수익자입장에서 어느 정도의 비용을 부담하고 있습니까?
2) 없다면 향후 수익자 부담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2)-1 필요하다면, 어떤 측면에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기관운영경비에 도움/ 프로그램이나 서비스 질 수준 향상/ 인력수준 향상
3) 혹시 주변에서 (일부라도)수익자 부담으로 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까?
2. 일반적으로 지역아동센터의 프로그램이나 서비스의 수익자 부담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1) 가능하다면, 상징적 수준에서만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방과후학교와 같은 수준의 비용부담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2) 수익자부담을 매칭펀드방식으로 한다면, 비율은 어느 정도로 보십니까?
(예, 소득수준 고려)
3) 가능하다면, 아래의 어떤 프로그램이나 서비스가 수익자 부담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생활지원(보호)프로그램 (아동보호, 급식제공 등)
② 학습지원 프로그램 (숙제지도, 학습지도, 학교생활 준비, 예체능 교육 등)
③ 놀이 등 특별활동지원 (문화체험, 캠프, 견학, 놀이활동 지원 등)
④ 이용자 사례관리(상담, 부모교육, 가족상담/결연후원, 아동사례관리, 가족지원 등)
⑤ 지역사회연계프로그램(수익자 부담 해당 안됨)
3)-1 그 외 수익자 부담이 가능한, 지역아동센터에서 제공할 수 있는 (특성화되고, 전문화된) 프로그램이나 서비스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장애아 돌봄, 상담치료 모델?)
3)-2 그렇다면 수익자 부담 가능한 비용수준은 어느 정도라고 보십니까?
4) 가능하지 않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3. 개인적으로 지역아동센터의 프로그램이나 서비스의 수익자 부담을 찬성하십니까?

1) 찬성하신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2) 반대하신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4. 수익자 부담은 어떤 특성을 지닌 센터가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1) 예를 들면, 지역적 특성(여건, 환경)은 어떻게 보십니까?

- ① 지역규모 : 대도시 vs 중소도시 vs 농·산·어촌
- ② 경제적 환경 : 대부분 중산층 거주 지역 vs 경제적으로 어려운 지역사회
- ③ 기타 ()

2) 아래와 같은 이용시간이나 요일의 센터 이용을 수익자 부담으로 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심야시간(밤 8시 이후/ 혹은 10시 이후/ 심야~아침)
- ② 주말(토요일, 일요일)
- ③ 공휴일

3) 만약 기관의 수익자 부담을 실시·확대하고자 한다면, 필요한 조건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프로그램과 서비스의 수준 담보 (구체적으로 어떤 프로그램?)
⇒ 사교육화(학원)처럼 변질될 것으로 보십니까?
- ② 시설이나 환경의 개선
- ③ 기타 ()

5. 수익자 부담에 대해 학부모들의 반응이 어떠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현 지역아동센터 이용아동 부모의 경우
- 일반 맞벌이 부부의 경우
- 저소득층 부모의 경우

III. 지역아동센터의 바우처 제도 도입 가능성

1. 바우처 제도(보육시설 이용을 위한 i-sarang card, 방과후 학교의 자유수강권 제도)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2. 수요자의 선택권을 보장한 바우처 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3. 일반적으로 지역아동센터의 프로그램이나 서비스의 바우처 제도가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1) 아래의 어떤 프로그램이나 서비스에서 바우처 제도 도입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생활지원(보호)프로그램 (아동보호, 급식제공 등)

② 학습지원 프로그램 (숙제지도, 학습지도, 학교생활 준비, 예체능 교육 등)

③ 놀이 등 특별활동지원 (문화체험, 캠프, 견학, 놀이활동 지원 등)

④ 이용자 사례관리(상담, 부모교육, 가족상담/ 결연후원, 아동사례관리, 가족지원 등)

⑤ 지역사회연계프로그램(수익자 부담 해당 안됨)

2) 그 외 바우처제도가 가능한, 지역아동센터에서 제공할 수 있는 (전문화된, 특성화된) 프로그램이나 서비스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있다면 무엇입니까?

3) 바우처제도를 통해 센터간, 기관간 연계나 컨소시엄, 파트너십이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4. 개인적으로 지역아동센터의 바우처 제도 도입을 찬성하십니까?

1) 찬성하신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2) 반대하신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예, 센터간 경쟁 유발)

5. 바우처 제도 도입은 어떤 특성을 지닌 센터에서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1) 예를 들면, 지역적 특성(여건, 환경)은 어떻게 보십니까?

- ① 지역규모 : 대도시 vs 중소도시 vs 농·산·어촌
- ② 경제적 환경 : 대부분 중산층 거주 지역 vs 경제적으로 어려운 지역사회
- ③ 기타 ()

2) 아래와 같은 이용시간이나 요일의 센터 이용을 수익자 부담으로 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심야시간(밤 8시 이후/ 혹은 10시 이후/ 심야~아침)
- ② 주말(토요일, 일요일)
- ③ 공휴일

- 바우처 제도를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 ① 프로그램과 서비스의 수준 담보
- ② 시설이나 환경 등

6. 바우처 제도에 대해 학부모들의 반응이 어떠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현 지역아동센터 이용아동 부모의 경우
- 일반 맞벌이 부부의 경우
- 저소득층 부모의 경우

부록 2. 지역아동센터 이용 학부모 대상 초점집단면접지

학부모 FGI: 지역아동센터 일반

- 지금 다니고 있는 지역아동센터에 보내는 이유는?
- 방과후 학교나 방과후아카데미와 함께 이용하는 경우 그 이유는?
- 지역아동센터의 다음 사항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 ① 프로그램과 서비스 (특히 어떤 프로그램이나 서비스에 만족하십니까?)
 - ② 시설 및 환경
 - ③ 인력(생활복지교사, 교사, 자원봉사자 등)
- 이외에 지역아동센터 이용에 만족한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학교 공부에 되어서, 자녀를 안전하게 보호해 주기 때문에, 인성 및 사회성 발달에 도움
이 되어서, 사교육비 절감, 아이가 선호, 프로그램이 좋아서)
- 만족하지 않는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아이가 원하지 않아서, 학교 공부에 도움이 되지 않아서, 사설학원에 다니느라 시간이
없어서, 제공되는 프로그램 내용이 만족스럽지 않아서, 아이의 수준에 적절하지 않아서
등)
- 주변의 방과후 학교(예, "엄마품온종일돌봄서비스")나 방과후아카데미와 같은 유사 돌봄서비
스와 비교할 때,
 - 지역아동센터의 장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지역아동센터의 단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중복되거나 차이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앞으로도 지역아동센터를 계속 이용할 생각입니까?
-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건의사항은?
(예, 이용시간, 프로그램이나 서비스 종류 등)
- '수요자중심의 지역아동센터'에 무엇이 연상되십니까?

학부모 FGI : I. 국·공립 직영 및 위탁 지역아동센터 표준모델 연구

1. 집근처에 '국·공립지역아동센터'를 설립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2. 국·공립지역아동센터와 민간지역아동센터가 가까운 곳에 위치해 있다면 자녀를 어느 곳에
보내시겠습니까?
 - 이유는 무엇입니까?
3. 국·공립지역아동센터는 민간지역아동센터와 비교하여 어떤 점이 다를 것이라고 생각하십니
까?
4. 국·공립지역아동센터를 시청·군청·구청이 직영하는 방법(직원은 공무원신분임)과 사회복지법
인이거나 대학교에 위탁시키는 방법이 있는데, 직영과 위탁 중에서 어떤 것이 더 좋겠습니까?
 -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5. 국·공립지역아동센터를 어느 지역부터 우선적으로 설치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 1) 시청·군청·구청의 소재지로 아동수가 많은 곳
 - 2) 읍사무소/면사무소/동주민센터로 가까운 곳
 - 3) 도시의 가난한 사람이 많은 동네
 - 4) 농어촌으로 현재 지역아동센터가 없는 지역
 - 5) 기타()
6. 국·공립지역아동센터의 가장 핵심 기능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1) 지역아동센터의 시범 프로그램
 - 2) 주말이나 공휴일 등 다른 지역아동센터가 문을 닫을 때도 운영
 - 3) 다른 지역아동센터와의 연계협력사업
 - 4) 다른 지역아동센터 근무자들 위한 교육·연수
 - 5) 기타()
7. 국·공립지역아동센터 설립 시 반영했으면 하는 사항들은?

학부모 FGI : II. 수익자 부담형 지역아동센터 도입방안

1. 지역아동센터 이용에 있어 주변의 반응은 어떠한가요?
2. 지금까지 자녀의 지역아동센터 이용 시 이용료를 지불하신 적이 있습니까?
- 있다면 월 어느 정도의 금액을 지불하셨습니다?
3. 지역아동센터의 특별 프로그램이나 서비스 단위로 이용료를 지불하신 적이 있습니까?
- 있다면 어떤 프로그램에 얼마정도의 비용을 지불하셨습니다?
4. 현재 지역아동센터 주이용 아동이 저소득층이라는 전제하에 정부지원과 센터의 노력으로 현재 아동들이 무료로 센터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 수익자 부담으로 센터가 운영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수익자부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5. 즉 지금까지 무료로 센터를 이용했지만, 향후 센터의 재정자립도와 프로그램 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해 향후 이용료를 부담해야 한다면, 그래도 센터에 자녀를 보내시겠습니까?

- 월 이용료 수준은 어느 정도로 보십니까?
- 정부와의 매칭펀드 방식의 이용료 납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수익자 부담 시 센터를 이용하지 않는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 경제적 부담)
5. 지역아동센터의 이용자확대(예, 일반 맞벌이 가정)을 통한 수익자 부담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 필요하다면,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 지역아동센터 재원증가, 프로그램 및 서비스질 향상, 인력수준 향상 기대, 부모의 책임감 증대)

- 필요 없다면 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 (일반맞벌이가정의 아동이 이용할 경우), 이용료를 지불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수익자부담을 통한 장점이 무엇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센터의 재정자립, 낙인효과 감소)
6. 센터의 프로그램이나 서비스별로 수익자 부담이 가능하면 다음의 어떤 내용이 가능하다고 보십니까?(비용 지불의사가 있습니까?)
① 생활지원(보호)프로그램 (아동보호, 급식제공 등)

- ② 학습지원 프로그램 (숙제지도, 학습지도, 학교생활 준비, 예체능 교육 등)
 - ③ 놀이 등 특별활동지원 (문화체험, 캠프, 견학, 놀이활동 지원 등)
 - ④ 이용자 사례관리(상담, 부모교육, 가족상담/결연후원, 아동사례관리, 가족지원 등)
 - ⑤ 지역사회연계프로그램(수익자 부담 해당 안됨)
- 6)-1 그 외 수익자 부담이 가능한, 지역아동센터에서 제공할 수 있는 (특성화되고, 전문화된) 프로그램이나 서비스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장애아 돌봄, 상담치료 모델?)
 7. 수익자 부담으로 센터를 운영하고자 한다면 어떤 점이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프로그램과 서비스의 수준 담보 (구체적으로 어떤 프로그램?)
⇒ 사교육화(학원)처럼 변질될 것으로 보십니까?
② 시설이나 환경의 개선
③ 기타 ()
 8. 수익자 부담은 어떤 특성을 지닌 센터가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1) 예를 들면, 지역적 특성(여건, 환경)은 어떻게 보십니까?
① 지역규모 : 대도시 vs 중소도시 vs 농·산·어촌
② 경제적 환경 : 대부분 중산층 거주 지역 vs 경제적으로 어려운 지역사회
③ 기타 ()
 - 2) 아래와 같은 이용시간이나 요일의 센터 이용을 수익자 부담으로 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심야시간(밤 8시 이후/ 혹은 10시 이후/ 심야~아침)
② 주말(토요일, 일요일)
③ 공휴일
 9. 수익자 부담에 대해 학부모들의 반응이 어떠한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현 지역아동센터 이용아동 부모의 경우
- 일반 맞벌이 부부의 경우
- 저소득층 부모의 경우

학부모 FGI : III. 지역아동센터의 바우처 제도 도입 가능성

- 바우처 제도(보육시설 이용을 위한 i-sarang card, 방과후 학교의 자유수강권 제도)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 수요자의 선택권을 보장한 바우처 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일반적으로 지역아동센터의 프로그램이나 서비스의 바우처 제도가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아래의 어떤 프로그램이나 서비스에서 바우처 제도 도입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생활지원(보호)프로그램 (아동보호, 급식제공 등)
 - 학습지원 프로그램 (숙제지도, 학습지도, 학교생활 준비, 예체능 교육 등)
 - 놀이 등 특별활동지원 (문화체험, 캠프, 견학, 놀이활동 지원 등)
 - 이용자 사례관리(상담, 부모교육, 가족상담/결연후원, 아동사례관리, 가족지원 등)
 - 지역사회연계프로그램(수익자 부담 해당 안됨)
 - 그 외 바우처제도가 가능한, 지역아동센터에서 제공할 수 있는 (전문화된, 특성화된) 프로그램이나 서비스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있다면 무엇입니까?
- 바우처 제도 도입은 어떤 특성을 지닌 센터에서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 예를 들면, 지역적 특성(여건, 환경)은 어떻게 보십니까?
 - 지역규모 : 대도시 vs 중소도시 vs 농·산·어촌
 - 경제적 환경 : 대부분 중산층 거주 지역 vs 경제적으로 어려운 지역사회
 - 기타 ()
 - 아래와 같은 이용시간이나 요일의 센터 이용을 수익자 부담으로 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심야시간(밤 8시 이후/ 혹은 10시 이후/ 심야~아침)
 - 주말(토요일, 일요일)
 - 공휴일
- 바우처 제도를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 프로그램과 서비스의 수준 담보
 - 시설이나 환경 등
- 바우처 제도에 대해 학부모들의 반응이 어떠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현 지역아동센터 이용아동 부모의 경우
 - 일반 맞벌이 부부의 경우
 - 저소득층 부모의 경우

부록3. 전문가의견조사지

「수요자 중심의 지역아동센터 운영방안」 연구

이 설문에서 얻어진 모든 내용은 통계목적 이외에는 절대로 사용할 수 없으며 그 비밀이 보호되도록 통계법(제13조 및 제14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ID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와중에도 불구하고 본 전문가 의견조사에 응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은 아동·청소년 관련 연구조사 및 정책개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국무총리실 산하의 국책연구기관으로, 2011년 9월부터 12월까지 지역아동센터 중앙지원단과 함께 「수요자중심의 지역아동센터 운영방안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 연구는 지역아동센터가 정부 및 지자체의 공식적인 지원을 받기 시작한지 6년여가 지나고 있는 시점에서, 향후 보다 발전적인 방향으로 운영방식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는 전제로 출발하였고, 구체적으로는 지역아동센터의 국·공립 직영 및 위탁, 지역아동센터 이용에 대한 수익자부담 및 바우처제도 도입에 대한 가능성을 탐색해보고자 합니다.

본 전문가의견조사는 지역아동센터의 이러한 다양한 발전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본 연구의 보다 내실 있고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학계와 현장에서 다년간의 경험과 풍부한 지식을 가진 전문가의 고견을 듣고자 합니다. 업무로 바쁘시겠지만 심사숙고하셔서 귀한 조언과 의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개인의 응답에 따른 비밀은 보장될 것을 약속드립니다.

본 조사지에 대한 답변은 마지막 페이지의 인적사항까지 작성하시어 11. 4(금)까지 이메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응답 기간을 충분히 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2011. 10



국무총리실하국책연구기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김희진·이혜연

지역아동센터 운영 일반에 관한 사항

■ 지역아동센터 운영 개요

- 현재 전국적으로 약 3,800개의 지역아동센터가 저소득층 가정 아동청소년을 중심으로 방과후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지역아동센터는 신고제로 센터를 설립할 수 있으며, 2010년 운영주체를 보면, 법인운영이 21%, 종교단체 운영이 17.7%를 차지하고 있고, 개인운영도 55.9%에 이르고 있습니다.
- 운영비는 중앙정부와 지자체로부터 이용 아동수에 따라 10인 미만일 경우 월2,000천원, 10인~30인 미만일 경우 3,500천원, 30인 이상일 경우 4,300천원의 운영비 지원을 받고 있으며, 거점센터나 다문화 및 장애아동을 위한 특화서비스 제공센터에게는 월 70만원~100만원의 추가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 센터별 차이는 있으나, 이용 아동청소년의 약 75%~80%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의 자녀이거나, 차상위, 조손, 다문화, 장애, 한부모 아동·청소년(구정장, 담임교사, 동장 등이 승인·추천에 따른 기타승인 아동 포함)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문 1] 지역아동센터의 정체성

다음은 “지역아동센터 운영매뉴얼”과 “아동복지법”상에서의 지역아동센터의 역할·기능에 대한 설명입니다. 아래의 내용이 지역아동센터의 현재의 정체성을 잘 설명해주고 있다고 보십니까? ()

- 운영매뉴얼 : 지역아동센터는 학교 교육을 보충하는 방과후 학교가 아니라 사회적 돌봄이 필요한 아동을 보호와 돌봄, 학습지도와 문화지원, 상담과 지역사회연계 등을 통해 아동 뿐 아니라 가족 전체의 돌봄과 치유와 회복을 도모하는 사회적 대안가정으로서 통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아동복지시설이다.
- 아동복지법(제16조 11항) : 지역아동센터는 지역사회 아동의 보호·교육, 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 보호자와 지역사회의 연계 등 아동의 건전육성을 위하여 종합적인 아동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이다.

① 그렇다 (☞ [문 2])

② 그렇지 않다(☞ ②-1)

②-1 그렇지 않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 적어주십시오.

[문 2] 지역아동센터의 차별성

지역아동센터외에 방과후돌봄서비스로서 방과후학교(방과후 돌봄교실 포함)와 방과후청소년아카데미와 같은 서비스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유사 돌봄서비스와 비교할 때,

1) 지역아동센터의 장점 혹은 차별성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2) 중복성이나 위화감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있다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문 3] 프로그램 및 서비스 수준

지역아동센터의 학습 및 문화관련 프로그램보다는 방과후학교나 방과후아카데미의 관련 프로그램이 상대적으로 더 우수하다는 지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① 그렇다

② 그렇지 않다.

그 이유는 무엇인지 적어주십시오.

[문 4] 현행 정부의 재정지원방식

현재 정부의 지원방식(정부+지자체)은 각 센터별로 월별로 약 200만원~430만원(이용아동 수, 센터 평가결과, 평가여부 등에 따라 차등 지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급식비 제외). 현재 위와 같은 월별 일괄적인 일정금액 지원방식이 계속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그렇다

② 그렇지 않다.

그 이유는 무엇인지 적어주십시오.

[문 5] 지역아동센터의 프로그램과 서비스 보완 내용

현재 아래와 같은 지역아동센터의 프로그램과 서비스가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더 보완되어야 할 프로그램이나 세부 내용이 있다면, 아래의 빈칸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프로그램	프로그램 및 서비스 내용	추가내용
현행 기본 프로그램	보호프로그램	빈곤·방임 아동보호, 일상생활지도, 급식제공, 위생지도 등
	교육프로그램	학교생활준비, 숙제지도, 기초학습 부진아동 특별지도, 예체능교육, 독서지도 등
	놀이와 오락 (문화프로그램)	문화체험, 견학, 캠프, 공동체 활동, 놀이 활동 지원, 특기적성 등
	보호자와 지역사회연계	가정방문, 상담·정서적지지, 부모·가족상담, 후원자 등 지역사회 내 인적·물적 자원연계, 사례관리 등
추가 프로그램		

※ 현재 기본 프로그램 외에 주말 공휴일을 위한 특화프로그램(문화프로그램, 체험학습 등)이 운영 중에 있음(가족기능강화프로그램과 야간보호프로그램도 운영 중).

지역아동센터 국·공립 직영·위탁 운영관련

[문 6] 국·공립 성격의 지역아동센터 확대설치 필요 여부

전국적으로 공립(시립 및 구립 포함) 지역아동센터는 6개소에 이르고 있어 민간센터에 비해 그 수가 매우 적습니다. 지역아동센터의 확대 설치가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

- ① 그렇다 ② 그렇지 않다.

그 이유는 무엇인지 적어주십시오.

확대설치가 필요하다면, 다음의 어떤 지역에 우선 설치·지정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

- 1) 시청·군청·구청의 소재지로 아동수가 많은 곳
- 2) 읍사무소/면사무소/동 주민센터와 가까운 곳
- 3) 도시의 저소득층 밀집 거주하는 지역
- 4) 농어촌 지역으로 현재 지역아동센터가 없는 지역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문 7] 국·공립센터의 기능

국·공립 지역아동센터의 가장 핵심 기능은 다음 중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 ① 지역아동센터의 시범 프로그램 및 서비스 운영
- ② 주말이나 공휴일, 야간 등 다른 지역아동센터가 문을 닫을 때도 운영
- ③ 타 지역아동센터와의 연계협력사업
- ④ 타 지역아동센터 근무자들을 위한 교육·연수
- ⑤ 다문화, 청소년, 장애아동 전용센터 등 특화서비스 제공
- ⑥ 기타 ()

[문 8] 국·공립센터의 역할

거점형 센터의 국·공립화 지정 시 이 거점형 센터가 지역 내 타 지역아동센터의 운영 및 프로그램 등에 대한 자문, 정보제공, 사례관리 지원, 수퍼비전 등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 ① 그렇다 ② 그렇지 않다.

그 이유는 무엇인지 적어주십시오.

[문 9] 국·공립센터 운영방식

국·공립지역아동센터를 시청·군청·구청이 직영하는 방법과 사회복지법인이나 대학교에 위탁시키는 방법이 있는데, 직영과 위탁 중에서 어떤 것이 더 좋겠습니까? ()

- ① 직영 ② 위탁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문 10] 국·공립센터 이용대상

국·공립지역아동센터의 일반아동·청소년(예, 맞벌이가정) 이용에 대해 찬성하십니까? ()

- ① 그렇다 ② 그렇지 않다.

그 이유는 무엇인지 적어주십시오.

[문 11] 국·공립센터의 시설규모

국·공립 지역아동센터의 기능을 고려할 때 그 규모는 어느 정도가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9명이하 형 ② 10-19명이하 형 ③ 20-29명이하 형 ④ 30-39명이하 형 ⑤ 40명 이상 형

그 이유는 무엇인지 적어주십시오.

[문 12] 국·공립센터의 종사자 수

국·공립 지역아동센터의 기능을 고려할 때 아동 몇 명당 직원 1명이 적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시설장 제외) ()명

그 이유는 무엇인지 적어주십시오.

[문 13] 국·공립센터의 시설장과 생활복지사 자격요건

국·공립 지역아동센터의 기능을 고려할 때 시설장과 생활복지사가 갖추어야 할 전문가로서의 자격요건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시설장의 자격요건 :

생활복지사의 자격요건 :

[문 14] 국·공립센터의 시설장 인건비

국·공립 지역아동센터의 기능을 고려할 때 시설장의 적정 급여는 어느 정도여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는 '지원형센터'(가칭), 일반맞벌이가정 아동·청소년을 중심으로 하는 '일반형센터'(가칭)로 이원화하여 운영할 수도 있고, 또 소득과 상관없이 함께 센터를 이용하는 '통합형센터'(가칭)같이 운영하는 방식도 있을 수 있습니다. 향후 어떠한 운영방식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문 22] 이용료 부담 가능한 가구의 소득수준

지역아동센터의 경우 만약 이용료를 부담하게 된다면, 가구평균소득액의 상위 몇% 이상에게 부담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상위 %

그 이유는 무엇인지 적어주십시오.

※ 참고로, 현재 2010년 기준 4인가구 월평균 소득액은 4,251,853원이며, 현재 어린이집은 가구 소득하위 70%이하 가정의 만 5세 이하 아동에게 보육비와 교육비를 전액지원함(즉, 상위30%만 자부담).

[문 23] 지역아동센터의 정부지원 및 수익자 부담 운영

지역아동센터 운영방식과 관련하여 정부(중앙정부·지자체)에서는 시설·설비와 같은 인프라를 지원하고, 프로그램과 운영비는 수익자 부담으로 운영하는 매칭 펀드 운영방식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 24] 민간 지역아동센터운영(정부지원 없는)

보육시설에서와 마찬가지로 일반가정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고품질의 프로그램과 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100% 민간형태의 지역아동센터(정부지원은 전혀 없으며, 개인자산 활용 및 기업 재단후원 등을 통한 센터 운영방식)가 있어야 한다고 보십니까? ()

① 그렇다 (☞ ①-1, ①-2) ② 그렇지 않다 (☞ ②-1)

①-1. 그 이유는 무엇인지 적어주십시오.

①-2. 이 경우 아동복지기관으로서의 정체성을 위해서는 다음의 각 분야별 보완점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 프로그램 및 서비스 :

○ 법적·제도적 영역 :

②-1 그 이유는 무엇인지 적어주십시오.

[문 25] 정규시간외 센터운영(야간 및 주말, 공휴일 운영)

현재 일부지역아동센터는 야간보호교사 등을 활용하여 저녁9시~10시까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토요일은 특별한 프로그램에 한하여 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안정적인 수요 및 인력채용 문제로 그 이상의 주말 및 공휴일에는 센터를 운영하기 어렵다는 현장의 의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이러한 정규시간외의 센터이용에 대해서 이용자의 별도 이용료부담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문 26] 지역아동센터이용의 낙인문제

센터장 및 학부모 면접에서 지역사회 내에서 지역아동센터는 저소득층만이 이용하는 곳이라는 이미지로 인한 낙인문제가 매우 심각하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이러한 문제의 해결을 위해 다음 중 어떤 방안이 가장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

- ①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홍보 및 학부모들이 선호하는 기관으로서의 이미지 개선
 ② 지금의 저소득층 아동들과 맞벌이가정의 일반 아동·청소년도 함께 통합하여 센터운영
 ③ 프로그램과 서비스의 다양화와 질적 수준 향상
 ④ 기타 ()

그 이유는 무엇인지 적어주십시오.

[문 27] 지역아동센터운영의 예산투입 우선 분야

정부지원을 통해서, 또는 수익자부담을 통해서든 센터 운영비가 증가하게 된다면, 다음 중 어떤 영역에 예산을 우선 투입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

- ① 프로그램 및 서비스 질 ② 직원 처우
 ③ 시설 및 환경개선 ④ 기타 ()

위의 응답을 선택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문 28] 개별 프로그램 및 서비스 단위별 이용자 부담

만약 지역아동센터의 단위별 프로그램이나 서비스에 대해 이용료를 받는다면 아래의 어떤 프로그램이나 서비스가 수익자 부담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해당되는 번호를 모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

- ① 생활지원(보호)프로그램 (아동보호, 급식제공 등)
 ② 숙제지도, 학습지도, 학교생활 준비 등 학습보조/지원 프로그램
 ③ 예체능교육 (미술지도, 악기교습, 오케스트라, 축구클럽 등)등의 특기적성프로그램

- ※ 현재 일부 센터에서는 민간복지재단의 교사파견사업의 도움으로 원어민 영어교실, 논술프로그램 등의 특별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나 모든 센터에 해당되지는 않음.

--

--

--

※ 바꾸쳐제도는 지금까지의 센터에 대한 직접적인 재정지원이 아닌 수요자에게 바꾸쳐를 제공하여 센터를 선택이용하게 함으로써, 수요자중심의 간접적 재정지원방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지 적어주십시오.


그 이유는 무엇인지 적어주십시오.

바우처제도 도입에 따른 장점 :

바우처제도 도입에 따른 문제점 :

① 그렇다 (☞ ①-1, ①-2, ①-3) ② 그렇지 않다 (☞ ②-1)

부록 4. 지역아동센터장 설문지



**수요자중심의 지역아동센터
운영방안 연구**

ID

본 설문지의 작성과정에서 알려진 개인이나 단체의 비밀사항은 보호되며, 개인이나 단체의 비밀에 속하는 자료는 통계작성 이외의 목적에는 절대로 사용할 수 없도록 통계법(제33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은 아동·청소년 관련 연구조사 및 정책개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국무총리실 산하의 국책연구기관으로, 2011년 9월부터 12월까지 지역아동센터 중앙지원단과 함께 「수요자중심의 지역아동센터 운영방안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 연구는 지역아동센터가 정부 및 지자체의 공식적인 지원을 받기 시작한지 6년여가 지나고 있는 시점에서, 향후 보다 발전적인 방향으로 운영방식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는 전제로 출발하였고, 구체적으로는 지역아동센터의 국·공립 직영 및 위탁, 지역아동센터 이용에 대한 수익자 부담 및 바우처 제도 도입에 대한 가능성을 탐색해보고자 합니다.

본 설문조사는 지역아동센터의 이러한 다양한 발전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본 연구의 보다 내실 있고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현장에서 다년간의 경험을 가진 센터장님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모든 설문문항에는 옳고 그른 답이 없으며, 여러분께서 응답해주신 내용은 익명 처리되어 통계 분석에 사용됩니다. 또한 여러분께서 응답해 주신 조사내용도 연구자 외에 어느 누구도 볼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자유롭고 성의 있는 의견은 여러분을 위한 유익한 정책 수립에 중요한 자료로 활용될 것입니다.

응답하신 본 설문지는 **12. 16(금)까지** childcenter@nypi.re.kr 이메일 주소로 보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김희진 · 이혜연

e-mail: childcenter@nypi.re.kr

※ 아래 하단의 표 내용에도 꼭 √표로 응답해주시기 바랍니다.

SQ1. 센터 주소	_____시/도 _____구/시/군 _____동/읍/면
SQ2. 거주 시도	① 서울 ② 부산 ③ 대구 ④ 인천 ⑤ 광주 ⑥ 대전 ⑦ 울산 ⑧ 경기 ⑨ 강원 ⑩ 충북 ⑪ 충남 ⑫ 전북 ⑬ 전남 ⑭ 경북 ⑮ 경남 ⑯ 제주
SQ3. 도시 규모	① 대도시(7대도시) ② 중소도시(동) ③ 읍·면 지역(농·산·어촌)
SQ4. 시설 특징 및 운영주체	① 민간 ①-1 법인 ①-2 종교법인 ①-3 개인 ①-4 기타 ② 국립·시립 ②-1 부분 지원(건물·시설만 지원) ②-2 부분 지원(건물·시설 + 운영비 일부 지원) ②-3 전체 지원(건물·시설, 운영비, 인건비 포함 모든 경비 지원)
SQ5. 거점센터 여부	① 거점센터로 지정됨 ② 해당사항 없음
SQ6. 특화서비스 여부	① 다문화 아동·청소년 전용 센터 ② 장애 아동·청소년 전용 센터 ③ 청소년전용센터(예, 1318 해피존) ④ 기타(_____)

지역아동센터 국·공립 운영관련 질문

- Q1. 전국적으로 공립(시립 및 구립 포함) 지역아동센터는 전국에 10개소 미만인데 국·공립지역 아동센터의 확대 설치가 필요하다고 보십니까?(_____)
- ① 매우 그렇다 (☞ Q1-1) ② 그렇다 (☞ Q1-1)
③ 그렇지 않다 (☞ Q2) ④ 매우 그렇지 않다 (☞ Q2)
- Q1-1. 그렇다면, 다음의 어떤 지역에 우선 설치·지정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_____)
- ① 시청·군청·구청의 소재지로 아동수가 많은 곳
② 읍사무소·면사무소/동 주민센터와 가까운 곳
③ 도시의 저소득층 밀집 거주지역
④ 농어촌 지역으로 현재 지역아동센터가 없는 지역
- Q1-2. 국·공립지역아동센터를 2013년 사업으로 시행한다면, 시행 첫해에는 전국에 몇 개 시범사업으로 수행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_____)
- ① 전국 시/도에 도시형과 농촌형 각 1개소- 30여개소
② 전국 시·군·구의 신청을 받아서 100여개소
③ 전국 시청·군청·구청당 1개소- 전국에 230여개소
④ 전국 시청·군청·구청의 신청을 받아서 500여개소
⑤ 기타- 전국에 (_____)개소 정도 * 직접 기입 요망
- Q1-3. 국·공립지역아동센터를 2013년부터 시작하여 5년 정도 연차적으로 확대한다면, 2017년에는 전체 지역아동센터의 몇 %정도를 국·공립센터로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_____)
- ① 전체 지역아동센터의 10% 가량 ② 전체 지역아동센터의 20% 가량
③ 전체 지역아동센터의 30% 가량 ④ 전체 지역아동센터의 40% 가량
⑤ 기타- 전체 지역아동센터의 (_____)%가량 * 직접 기입 요망
- Q2. 국·공립지역아동센터는 어떤 방식으로 운영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_____)
- ① 직영 ② 위탁 ③ 직영 후 위탁 ④ 직영·위탁
- Q3. 아래의 기능 및 역할 중 국·공립지역아동센터에서 가능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_____)
- 해당하는 번호에 모두 √표 해주시시오.
- ① 지역아동센터의 시범 프로그램 운영
② 타 지역아동센터와의 연계협력사업
③ 타 지역아동센터 근무자들을 위한 교육·연수
④ 다문화, 청소년, 장애아동 전용센터 등 특화서비스 제공

- ⑤ 주말이나 공휴일, 심야(타 센터가 운영하지 않는 시간)에 센터 운영
 ⑥ 타 센터 운영 및 프로그램에 대한 자문 및 정보제공
 ⑦ 타 센터에 대한 사례관리 지원 및 수퍼비전
 ⑧ 기타 ()

Q4. 국·공립지역아동센터에서는 시설을 총괄하는 시설장을 제외하고 직원 1명당 몇 명의 아동이 적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 ① 5명 ② 10명 ③ 12명 ④ 15명

Q5. 국·공립지역아동센터의 규모는 어느 정도가 적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 ① 10-19명 ② 20-29명 ③ 30-39명 ④ 40-49명 ⑤ 50명 이상

Q6. 국·공립지역아동센터의 일반아동(예, 맞벌이가정) 이용에 대해 찬성하십니까? ()

-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그렇지 않다 ④ 매우 그렇지 않다

Q7. 국·공립지역아동센터의 시설장과 생활복지사가 갖추어야 할 전문가로서의 자격요건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해당하는 번호에 √표 해주십시오.

Q11-1 시설장	자격증관련	① 사회복지사 1급	② 사회복지사 2급	③ 사회복지사 3급
	현장경험	① 현장경력 10년 이상	② 현장경력 5년 이상	③ 현장경력 3년 이상
Q11-2 생활복지사	자격증관련	① 사회복지사 1급	② 사회복지사 2급	③ 사회복지사 3급
	현장경험	① 현장경력 3년 이상	② 현장경력 1년 이상	③ 경력상관 없음

Q8. 국·공립지역아동센터의 시설장과 생활복지사의 적정 급여는 얼마라고 생각하십니까? 해당하는 번호에 √표해 주십시오.

Q12-1 시설장	① 7급 사회복지직 공무원 수준	② 사회복지 시설수준 월280만원 (1호봉)	③ 국공립보육 시설수준 월170만원 (1호봉)	④ 현재수준 월100만원	⑤ 기타 ()
Q12-2 생활복지사	① 9급 사회복지직 공무원 수준	② 사회복지 시설수준 월180만원 (1호봉)	③ 국공립보육 시설수준 월140만원 (1호봉)	④ 현재수준 월100만원	⑤ 기타 ()

Q9. 국·공립지역아동센터의 적정 공간은 아동 1인당 몇 제곱미터(3.3제곱미터는 1평임)가 적당하다고 보십니까? (현재 지역아동센터는 18평 이상이면 신고할 수 있고, 대개가 25평 이상임).

- 적정 공간은 1인당 ()제곱미터

Q9-1. 기타 필요한 시설이나 설비 ()

Q10. 국·공립지역아동센터에 꼭 갖추어야 할 시설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시설에 대한 필요성의 정도를 각각 √표해 주십시오.

시설	매우 필요하다	필요하다	필요하지 않다	전혀 필요하지 않다
1) 학습지도실	①	②	③	④
2) 집단지도실(실내 활동공간)	①	②	③	④
3) 사무실	①	②	③	④
4) 상담실(개별상담이 가능한 곳)	①	②	③	④
5) 도서실(자습실)	①	②	③	④
6) 취사실(주방)	①	②	③	④
7) 식당(주방과 분리된)	①	②	③	④
8) 남녀구분 화장실	①	②	③	④
9) 실외 놀이공간	①	②	③	④

Q11. 국·공립지역아동센터의 민간 위탁 시 선발기준을 표준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 ① 매우 그렇다 (☞ Q11-1) ② 그렇다 (☞ Q11-1)
 ③ 그렇지 않다 (☞ Q12) ④ 매우 그렇지 않다 (☞ Q12)

Q11-1. 국·공립지역아동센터를 민간에 위탁하고자 할 때, 다음 기준을 얼마나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지 √표해 주십시오.

기준	매우 중요하다	중요하다	중요하지 않다	전혀 중요하지 않다
1) 사회복지법인	①	②	③	④
2) 비영리 법인(사단법인 포함)	①	②	③	④
3) 지역아동센터 운영경험	①	②	③	④
4) 아동복지사업 활동경험	①	②	③	④
5) 사회복지사업 수행경험	①	②	③	④
6) 기관의 재정능력	①	②	③	④
7) 기관의 사회적 신뢰도(평판)	①	②	③	④
8) 기관장의 사회적 신뢰도(평판)	①	②	③	④
9) 사업계획서의 수준	①	②	③	④

Q12. 기존 민간 지역아동센터가 희망하여 국·공립지역아동센터로 전환시키고자 할 때, 선별기준을 표준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 ① 매우 그렇다 (☞ Q12-1) ② 그렇다 (☞ Q12-1)
③ 그렇지 않다 (☞ Q13) ④ 매우 그렇지 않다 (☞ Q13)

Q12-1. 기존 민간 지역아동센터가 희망하여 국·공립지역아동센터로 전환시키고자 할 때, 다음 기준을 얼마나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지 √표해 주십시오.

기준	매우 중요 하다	중요 하다	중요 하지 않다	전혀 중요하지 않다
1) 생활권의 중심지(시·군·구의 중심지 등)에 위치한 센터	①	②	③	④
2) 공공기관(예, 읍/면/사무소, 구민회관 등)에 위치한 센터	①	②	③	④
3) 아동/청소년시설(청소년수련관, 청소년문화의집 등)에 위치한 센터	①	②	③	④
4) 지역사회 네트워크 경험이 많은 센터	①	②	③	④
5) 다른 아동복지사업을 수행한 경험이 많은 센터	①	②	③	④
6) 시설의 이용가능 공간이 큰 센터	①	②	③	④
7) 시설의 이용자 수가 많은 센터	①	②	③	④
8) 시설에 대한 사회적 평판이 좋은 센터	①	②	③	④
9) 시설의 기관장에 대한 사회적 평판이 좋은 센터	①	②	③	④
10) 시·군·구에서 최우수평가를 받은 센터	①	②	③	④
11) 사업계획서를 잘 작성한 센터	①	②	③	④

Q13. 국·공립지역아동센터를 지역아동센터의 발전방안의 하나로 구상하는 정부에게 하고 싶은 제언이 있으시면 자유롭게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아동센터이용의 수익자 부담 관련 질문

[일반아동의 지역아동센터 이용 및 이용료]

Q14. 맞벌이가정을 포함한 일반가정의 아동·청소년의 지역아동센터 이용을 보다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그렇지 않다 ④ 전혀 그렇지 않다

Q15. 일반가정(예, 맞벌이 가정) 아동·청소년의 센터 이용 시 이용료를 부담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 ① 매우 그렇다 (☞ Q15-1, Q15-2, Q15-3) ② 그렇다 (☞ Q15-1, Q15-2, Q15-3)
③ 그렇지 않다 (☞ Q16) ④ 전혀 그렇지 않다 (☞ Q16)

Q15-1. (Q15의 ①번, ②번 응답자만) 일반가정 아동·청소년의 지역아동센터 이용료는 월별로 어느 수준이어야 한다고 보십니까? ()

- ① 수업재료비·교통비 수준 ② 3만원~5만원 ③ 6만원~10만원
④ 11만원~15만원 ⑤ 16만원~20만원 ⑥ 21만원~25만원 ⑦ 26만원이상

Q15-2. (Q15의 ①번, ②번 응답자만) 이용료수납은 어떤 방식이 더 낫다고 생각하십니까? ()

- ① 센터에서 직접 수납 ② 중앙기관이나 별도 기관에서 관리
③ 구청이나 시청 등 자치단체 ④ 상관없음

Q15-3. (Q15의 ①번, ②번 응답자만) 현재 지침 상 일반가정아동에 한하여 이용료를 받도록 하고 있지만, 현장에서는 지자체장이나 센터장 자율로 다르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 ① 일반아동대상의 이용료 수납은 일괄적용이 필요함
② 현재와 같은 지자체장이나 센터장 자율로 결정하여야 함
③ 상관없음

[수익자부담형 지역아동센터]

Q16. 다음과 같은 일반가정 아동을 이용대상에 포함하는(혹은 주 이용대상으로 하는) 수익자 부담형 지역아동센터가 어느 정도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 √표 해주시시오.

수익자 부담형 지역아동센터의 운영방식	매우 그렇다	그렇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않다
1) <u>이용료부담방식</u> :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일반아동에게 이용료를 받도록 하는 방식	①	②	③	④
2) <u>매칭펀드방식</u> : 지역아동센터의 시설·설비와 같은 인프라는 정부지원으로, 운영비는 수익자 부담으로 하는 매칭펀드 방식의 운영방식	①	②	③	④
3) <u>순수민간 자유형</u> : 일반가정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양질의 프로그램·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100% 민간형태의(정부지원 없이, 개인 및 기업재단후원, 혹은 비영리·영리단체 등을 통한 운영방식) 지역아동센터	①	②	③	④

Q17. 위 Q16-3과 같은 형태의 정부지원 없는 순수 민간자유형 지역아동센터와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상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표 해주시시오.

순수 민간형 지역아동센터 관련 발생 가능한 상황	매우 그렇다	그렇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않다
1) 저소득·취약계층 아동이 주로 이용하는 센터와 수익자 부담이 가능한 순수 민간형 지역아동센터의 이원화 가능성 우려	①	②	③	④
2) 정부지원이 없으므로 아동복지시설로서의 정부의 관리·감독 어려움 우려	①	②	③	④
3) 순수민간 지역아동센터 증가 시 사교육시장화 우려	①	②	③	④

Q18. 다음의 지역아동센터의 일반아동 이용 및 수익자 부담가능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표해 주십시오.

지역아동센터의 일반아동 이용 및 수익자 부담가능성	매우 높다	높은 편이다	높지 않은 편이다	전혀 높지않다
1) 저소득층이 아닌 일반가정(예, 맞벌이 가정) 아동의 지역아동센터 이용가능성을 어느 정도로 보십니까?	①	②	③	④
2) (위 항목의 ①, ②번 응답자만) 일반 아동·청소년의 지역아동센터 이용가능성이 높다면, 이들의 수익자 부담 가능성은 또 어느 정도로 보십니까?	①	②	③	④

Q19. 지역아동센터이용에 대한 수익자 부담원칙이 적용된다면, 가구평균소득액의 상위 몇 퍼센트 이상의 가구에서 이용료를 부담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괄호 안에 표기해주시시오 (상위 _____ %)

Q20. 일반아동의 센터 이용 및 수익자부담운영방식과 관련하여 다음의 선결조건이 어느 정도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 √표해 주십시오.

일반아동의 센터 이용 시 필요한 선결조건	매우 그렇다	그렇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않다
1) 아동복지시설로서의(사교육기관이 아닌) 정체성에 부합하는 인적구성 및 운영지침 및 법적요건 정비	①	②	③	④
2) 지역아동센터의 시설 및 설비규정의 상향조정	①	②	③	④
3) 센터설립 및 개소에 대한 엄격한 기준 필요 (예, 허가제)	①	②	③	④
4) 일반아동과 저소득·취약계층 아동 간 낙인감과 위화감 근절 방안 강구(직원의 태도, 무료이용 비밀유지 등)	①	②	③	④
5) 일반아동과 저소득·취약계층 아동의 센터이용 비율 필요 (①번과 ②번 선택 시 ☞ Q20-1)	①	②	③	④
6) 지역아동센터 프로그램 및 서비스 질 향상	①	②	③	④
7) 지역아동센터 직원의 전문성 및 감사수준 향상	①	②	③	④
8)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낙인감 개선 및 인식개선	①	②	③	④
9) 기타 (_____)				

Q20-1. (Q20의 다섯 번째 항목의 ①번, ②번 응답자만) 일반아동의 센터이용과 저소득층 아동과의 이용비율 등은 센터장 자율로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일괄지침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_____)

- ① 현재와 같이 일괄적으로 정해진 이용비율이 필요함 (☞ Q20-2)
- ② 센터장 자율로 결정하여야 함.
- ③ 상관없음

Q20-2. (위 Q20-1의 ①번 응답자만)저소득·취약계층 아동과 일반가정 아동의 적절한 이용비율을 표기해 주십시오.

[저소득·취약계층 아동 _____% : 일반가정 아동 _____%]

Q21. 아래와 같은 경우에 일반아동의 지역아동센터의 수익자 부담이 어느 정도로 가능하다고 생각하는지 √표해 주십시오.

특별서비스 및 프로그램에 대한 수익자 부담 가능성	매우 그렇다	그렇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않다
1) 심야시간 및 주말과 공휴일 이용	①	②	③	④
2) 일반적인 지역아동센터의 개별 프로그램이나 서비스(예 체능교육, 원어민 영어교실, 문화체험, 캠프 등)	①	②	③	④
3) 심리·상담치료, 가족치료, 학습부진아 특별지도프로그램 등의 전문화된, 특성화된 프로그램이나 서비스	①	②	③	④

Q22. 일반아동의 지역아동센터이용확대와 수익자 부담 원칙이 적용될 경우 다음의 항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표해 주십시오.

일반아동의 센터 이용확대와 수익자 부담 시 발생할 수 있는 상황	매우 그렇다	그렇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1) 지역아동센터의 책임성 강화에 기여	①	②	③	④
2) 이용료 부담가능 아동의 센터이용에 치중하여 수익사업화(사교육시장화) 우려	①	②	③	④
3) 센터이용에 대한 아동의 책임증가 및 부모의 관심 증가	①	②	③	④
4) 양질의 센터인력과 감사pool 운영 가능	①	②	③	④
5) 이용료 부담 아동과 무료 이용 아동간 차별이나 위화감 우려	①	②	③	④
6) 일반 맞벌이 가정 아이들 돌봄 육구 해소와 이를 통한 예방적 복지 가능	①	②	③	④
7) 지역아동센터의 낙인감(저소득가정 아이들만 이용)감소 및 인식 개선	①	②	③	④
8) 일반아동과 저소득층 아동들이 함께 센터를 이용하면서 서로에 대한 이해 및 사회성 발달에 도움	①	②	③	④
9) 프로그램과 서비스 질 제고에 기여	①	②	③	④
10) 빈곤한 아동의 지역아동센터 이용을 위한 사례발굴노력 저하	①	②	③	④

Q23. 지역사회내에서 지역아동센터가 저소득층만이 이용하는 곳이라는 낙인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음의 방안에 대해 어느 정도로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표해 주십시오.

낙인문제 해결 위한 방안	매우 그렇다	그렇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1) 저소득·취약계층 아동과 일반가정 아동을 통합하여 센터운영	①	②	③	④
2)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홍보 및 학부모 선호 기관으로의 이미지 개선	①	②	③	④
3) 프로그램과 서비스의 다양화와 질적 수준 향상	①	②	③	④
4) 기타 ()				

바우처 제도관련 질문

※ 바우처 제도는 지금까지의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직접적인 재정지원이 아닌 수요자에게 바우처를 제공하여 센터를 선택이용하게 함으로써, 수요자중심의 간접적 재정지원방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예, 보육시설 이용을 위한 아이사랑카드, 사회서비스 바우처 등)

Q24. 지역아동센터와 바우처제도 관련한 아래의 문항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귀하의 생각에 해당되는 번호를 √표해 주십시오.

바우처제도 도입 관련	매우 그렇다	그렇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1) 지역아동센터의 바우처제도 도입의 필요성	①	②	③	④
2) 심야시간, 주말, 공휴일의 센터이용에 대한 바우처 제도 활용 가능성	①	②	③	④
3) 지역아동센터이용의 일부프로그램이나(예, 축구클럽, 악기교실, 문화체험, 캠프 등) 서비스에 대한 바우처 제도 도입 가능성	①	②	③	④
4) 센터의 특성화된 개별 프로그램이나 서비스이용에 대한 바우처제도를 통한 센터간 연계나 파트너십의 가능성	①	②	③	④

Q25. 바우처 지원대상 선정을 위한 적절한 방법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차상위가정의 아동에게 바우처 지원
- ②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차상위, 조손, 다문화, 장애, 한부모가정 아동에게 바우처 지원
- ③ 일정 소득수준이하 가정의 아동에게 바우처 지원 (☞ Q25-1)

Q25-1. (Q25의 ③번 응답자만) 바우처 지원 대상 아동은 가구평균소득액의 하위 몇 퍼센트까지 지원하여야 할지 생각하시는 바를 괄호 안에 표기해주십시오. (하위 %)

Q26. 아래와 같은 바우처 제도 도입의 장·단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표해 주십시오.

바우처 제도 도입의 장·단점	매우 그렇다	그렇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1) 수요자의 서비스 선택권 확보	①	②	③	④
2) 지역아동센터 자체 서비스 질 개선 노력	①	②	③	④
3) 정부지원 예산운영의 투명성 강화 및 프로그램의 내실화	①	②	③	④
4) 정확한 아동의 지역아동센터 입소 및 퇴소 관리 가능	①	②	③	④
5) 바우처 통한 지원예산 예측불가로 안정적 기관운영 저해	①	②	③	④
6) 양질의 서비스 제공 위한 지역아동센터간 자발적 노력 증가	①	②	③	④
7) 센터간 경쟁심화와 부모요구에 따른 사교육화(학원화) 우려	①	②	③	④
8) 바우처 사용에 따른 아동간 차별과 위화감 조성	①	②	③	④
9) 저소득·취약계층아동 가족의 센터선택/이용을 위한 정보 및 바우처 활용능력 부족	①	②	③	④
10) 개별프로그램에 대한 바우처 도입 시 센터간 서비스 격차 해소	①	②	③	④
11) 바우처 악용 및 부정사용 우려	①	②	③	④

Q27. 지역아동센터의 바우처제도 도입에 대한 다음의 전제조건에 대해 어느 정도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 √표해 주십시오.

바우처제도 전제조건	매우 그렇다	그렇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1) 지역아동센터의 양적 확대	①	②	③	④
2) 지역아동센터 운영표준화 및 서비스와 인력에 대한 투자 선행	①	②	③	④
3) 별도행정업무에 대한 인적 및 비용에 대한 추가 부담 고려	①	②	③	④
4) 바우처로 인해 원하는 지역아동센터 이용에 제한이 없어야 함	①	②	③	④
5) 타 센터 기관의 개별 프로그램이용 위한 바우처 도입 시 이동수단 필요	①	②	③	④
6) 바우처 이용 아동과 이용료 부담 아동간 낙인과 위화감이 조성되지 않도록 운영방법상 고려 필요(직원태도, 바우처 방식 등에서)	①	②	③	④
7) 바우처관리는 별도의 기관이나 구청/시청등에서 직접관리				
8) 기타 ()				

Q28. 지역아동센터의 향후 발전 방향에 대해 다음의 항목들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표해 주십시오.

지역아동센터의 발전 방향	매우 그렇다	그렇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1) 현재와 같은 저소득층포함 취약계층 아동·청소년을 주 이용대상으로 한 방과후 돌봄서비스 제공	①	②	③	④
2) 소득수준 상관없이 지역사회 아동이 모두 자유롭게(이용료 부담없이) 방과후 및 주말에 이용할 수 있는 아동복지시설 성격을 갖는 시설	①	②	③	④
3) 소득수준 상관없이 지역사회 아동이 모두 자유롭게 이용하되, 일정 소득이상은 수익자부담으로 하는 지역사회 중심 아동복지센터로 발전	①	②	③	④
4) 정부지원과 관계없이 지역사회 사회경제적 특성을 고려한 다양한 지역아동센터 운영방식 필요(예, 국공립모델, 순수민간형 센터 등 포함)	①	②	③	④

Q29. 지역아동센터의 수익자부담과 바우처 제도와 관련하여 또 다른 제언이 있으시면 자유롭게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질문

※ 다음은 기타 질문으로, 응답내용에 대한 비밀은 보장되오니 솔직하게 응답해 주십시오.

BQ1. 귀 지역아동센터의 운영기간을 아래의 보기에서 선택해 주십시오().

- ① 2년 미만 ② 2년~5년 미만 ③ 5년 이상

BQ2. 귀 지역아동센터가 위치하고 있는 지역의 규모 및 특성을 아래 보기에서 선택해 주십시오().

- ① 시청·구청·구청의 소재지로 아동·청소년수가 많은 지역
 ② 읍사무소/면사무소/동주민 센터에 가까운 지역
 ③ 농·산·어촌으로 아동수가 부족한 지역

BQ3. 귀 센터가 위치한 지역사회의 경제수준에 대해 아래의 보기에서 선택해 주십시오().

- ① 저소득층이 대부분 거주하고 있는 지역
 ② 경제적으로 어렵지 않는 대체로 중간수준 가정이 대부분 거주하는 지역
 (특별히 저소득층 밀집 거주 지역은 아닌)
 ③ 소득수준이 중간이상(중산층 이상) 거주 지역

BQ4. 귀 지역아동센터의 아동청소년 및 가정의 특성을 아래 표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	총 계	초등학생	중등생	고교생	기타(미취학 등)
아동·청소년 수	명	명	명	명	명
가정구조특성	양쪽부모가정	한부모가정	조손가정	다문화가정	기타(생활시설 등)
	명	명	명	명	명
가정경제수준	기초생활	차상위	저소득	일반	기타
	명	명	명	명	명
장애아동	명				

BQ5. 귀 지역아동센터의 운영시간은 어떻게 되는지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중 운영시간	_____시 ~ _____시	방학중 운영시간	_____시 ~ _____시
토요일 운영시간	_____시 ~ _____시/	해당사항 없음	
일요일·공휴일 운영시간	_____시 ~ _____시/	해당사항 없음	

※ 주말이나 공휴일에 운영하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사항 없음에 표시

BQ6. 귀 지역아동센터의 종사자 수와 자격요건을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인원수	자격요건	
		자격증	아동·청소년복지관련 근무 연수
시설장	1명		_____년 _____개월
생활복지사	상근_____명		_____년 _____개월

BQ7. 귀 기관의 운영재원은 다음 중 무엇입니까? 해당하는 번호를 모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_____)

운영재원 종류 : ① 국고보조금 ② 지자체지원금 ③ 사회복지 공동모금회
④ 기타 단체 ⑤ 개인후원금 ⑥ 기타(_____)

BQ8. 귀 지역아동센터에서는 일반가정 아동·청소년들에게 교재비, 교통비등의 실비를 포함한 이용료를 받고 있습니까? (_____)

① 그렇다 (☞ Q7-1) ② 그렇지 않다.

BQ8-1. 평균적으로 월 얼마정도를 받고 있습니까? 월 _____ 원

♣ 끝까지 응답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부록 5. 일반 학부모 설문지

수요자중심의 지역아동센터 운영방안 조사	ID			
안녕하십니까? 저는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의 면접원 ○○○입니다. 저희는 지금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과 공동으로 지역아동센터의 다양한 발전방향 모색을 위해 아동과 청소년의 방과후서비스 관련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바쁘시더라도 2~3분 정도만 시간을 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p>SQ1. 성별 (목소리로 판단): ① 남자 ② 여자</p> <p>SQ2. 연령: 실례지만, ○○님의 연령은 만으로 어떻게 되십니까? 만()세 ➡ 만19세미만 면접중단</p> <p>SQ4. ○○께서는 자녀가 있으십니까? ① 있다 ② 없다 ➡ 조사종료</p> <p>SQ5. 그럼 현재 자녀가 다니는 학교는 무엇입니까? ① 초등학교1~3학년 ① 초등학교4~6학년 ③ 중학생 ④ 초·중학생 이외 ➡ 조사종료</p> <p>SQ3. ○○께서는 어느 ○○시/도에 살고 계십니까? ① 서울 ② 부산 ③ 대구 ④ 인천 ⑤ 광주 ⑥ 대전 ⑦ 울산 ⑧ 경기 ⑨ 강원 ⑩ 충북 ⑪ 충남 ⑫ 전북 ⑬ 전남 ⑭ 경북 ⑮ 경남 ⑯ 제주</p> <p>SQ6. ○○께서 사시는 곳의 지역규모는 무엇입니까? ① 대도시(특별시/광역시의 동) ② 중소도시(도지역의 동) ③ 읍·면지역</p> <p>SQ7. ○○의 가정은 맞벌이 가정입니까? ① 그렇다 ② 아니다</p>				

문1. ○○님의 자녀는 방과 후에 주로 어떤 활동을 하며 시간을 보냅니까?

- ① 집에 보호자와 함께 있는다.
② 집에 보호자 없이 있는다.
③ 학원/과외수업을 받는다(교과목, 예체능 포함)
④ 방과후학교,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한다.
⑤ (읽지 말 것)모름/무응답

※ 지역아동센터는 지역사회의 아동들에게 방과 후 시간 보호, 학습지도, 상담, 급식, 놀이 및 특별활동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고 있는 아동복지시설입니다

문2. OO님께서는 평소 지역아동센터에 대해서 알고 계셨습니까?(역할이나 기능 등)

- ① 알고 있다 ② 몰랐다

문3. 지역아동센터가 부족하여, 지금까지는 정부에서 취약계층아동을 우선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요. 현재 맞벌이가정을 포함한 일반가정 아동에 대한 방과후 보호 및 돌봄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어서, 일반아동의 이용이 더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OO님께서도 자녀를 보내실 의향이 있습니까?

- ① 있다 (→ 문3-1로) ② 없다 (→ 문4로)

문3-1. (문3의 ① 응답자만) 그럼 지역아동센터 선택 시 가장 중요하게 생각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 ① 프로그램과 서비스의 질적 수준 ② 기관·시설에 대한 신뢰
③ 이용료 ④ (읽지 말 것)모름/무응답

문3-2. (문3의 ① 응답자만) OO님께서는 다음의 지역아동센터 프로그램과 서비스 중에서 무엇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방과후 시간 안전한 보호 ② 급식제공
③ 학습지도 및 교과목관련 프로그램 제공 ④ 예체능포함 특기·적성프로그램
⑤ (읽지 말 것)모름/무응답

문3-3. (문3의 ① 응답자만) OO님께서는 국·공립 지역아동센터와 민간 지역아동센터 중 어느 곳을 더 선호하십니까?

- ① 국·공립 지역아동센터 ② 민간 지역아동센터 ③ (읽지 말 것)모름/무응답

문3-4. (문3의 ① 응답자만) OO님께서는 지역아동센터 월 이용료를 얼마까지 부담하실 생각이 있습니까?

- ① 이용료를 부담하면서까지 이용할 생각은 없다 ② 수업재료비, 교통비 수준
③ 3만원~5만원 ④ 6만원~10만원 ⑤ 11만원~15만원
⑥ 16만원~20만원 ⑦ 20만원 이상
⑧ (읽지 말 것)모름/무응답

문3-5. (문3의 ① 응답자만) OO님께서는 심야시간 및 주말과 공휴일 운영 시 이러한 서비스를 이용할 의향이 있습니까?

- ① 그렇다 ② 그렇지 않다 ③ (읽지 말 것)모름/무응답

문4. (문3의 ② 응답자만) OO님께서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응답 후 문5로)

- ① 학교공부에 도움이 되지 않아서
② 프로그램이나 서비스수준이 낮다고 생각해서
③ 방과후 돌봄서비스의 필요성을 느끼지 않아서
④ 현재는 저소득층 아동들이 주로 이용하고 있어서
⑤ 지역아동센터가 어떤 곳인지 정확하게 알지 못해서
⑥ (읽지 말 것)모름/무응답

문5. OO님께서는 어린이집 이용을 위한 아이사랑카드와 같은 바우처 제도를 알고 계셨습니까?

- ① 알고 있다 ② 몰랐다

※ 아이사랑카드 바우처 제도는 국가가 일정소득이하 가정의 학부모에게 직접 어린이집 이용을 위한 카드(바우처)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전에는 어린이집에 직접 지원하던 것을 학부모가 어린이집을 선택할 수 있도록 수요자 중심의 재정지원방식으로 변경한 것입니다

문6. OO님께서는 학부모에게 지역아동센터 선택권을 갖게 하는 바우처 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면접원 숙지: 현재 국가는 지역아동센터에 직접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 ① 필요하다 (→ 문6-1로) ② 필요하지 않다 (→ DQ1으로) ③ (읽지 말 것)모름/무응답

문6-1. 바우처 제도가 필요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수요자의 선택권 보장
② 정부지원예산의 투명한 운영
③ 프로그램과 서비스의 질 수준 향상(바우처 이용자 확보를 위한)
④ 지역아동센터 이용아동의 입소 및 퇴소의 정확한 관리
⑤ 기타 ()
⑥ (읽지 말 것)모름/무응답

♣ 끝으로 통계처리를 위해 몇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응답내용에 대한 비밀은 보장되오니 솔직하게 응답해 주십시오.

DQ1) OO님 가정의 특성은 어떠합니까?

- ① 양쪽 부모가 있는 가정 ② 한부모 가정 ③ 결혼이민자·다문화가정

DQ2) 실례지만, OO님께서는 학교를 어디까지 마치셨습니까? (중퇴는 해당학력으로 인정하지 않음)

- ① 중졸이하 ② 고등학교 졸업 ③ 대학교 졸업 이상 ④ 무응답

DQ3) OO님 닥의 경제상황은 어느 정도입니까?

- ① 매우 높다 ② 높은 편이다 ③ 중간이다 ④ 낮은 편이다 ⑤ 매우 낮다

▣ 조사에 참여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연구에 도움을 주신 분들 (가나다 순)

김도균 보건복지부 아동권리과/사무관
김미숙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연구위원
김진건 새소망지역아동센터/센터장
박영숙 지역아동센터 중앙지원단/단장
박지혜 과천시립 부림지역아동센터/센터장
박현선 세종대학교 정책과학대학원/교수
서영주 서울시여성가족재단/정책개발실장
성태숙 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정책위원장
손이선 부스러기사랑나눔회/사무총장
이경림 부스러기사랑나눔회/대표
이호균 지역아동센터중앙지원단 운영협의회/의장
이향란 한국아동정책연구소/소장
옥경원 한국지역아동센터연합회/회장
임미숙 에덴지역아동센터/센터장
임정기 용인대학교 노인복지학과/교수
전경숙 (재)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정책연구실장
정익중 이화여자대학교 사회복지전문대학원/교수
정일교 가톨릭상지대학 사회복지학과/교수(집필)
최성진 1318 Happy Zone 꿈꾸는 숲/대표



보건복지부 위탁
지역아동센터중앙지원단

주소 : 서울시 서대문구 충정로2가 35번지

기사연빌딩 3층 (우) 120-012

전화 : 02-365-1264 팩스 : 02-365-1277

홈페이지 : www.icareinfo.info